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19
시편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시 편

詩經 詩經

Psalms

1	(詩 1)	詩經 詩經
2	(詩 2)	詩經 詩經
3	(詩 3)	詩經 詩經
4	(詩 4)	詩經 詩經
5	(詩 5)	詩經 詩經
6	(詩 6)	詩經 詩經
7	(詩 7)	詩經 詩經
8	(詩 8)	詩經 詩經
9	(詩 9)	詩經 詩經
10	(詩 10)	詩經 詩經
11	(詩 11)	詩經 詩經
12	(詩 12)	詩經 詩經
13	(詩 13)	詩經 詩經
14	(詩 14)	詩經 詩經
15	(詩 15)	詩經 詩經
16	(詩 16)	詩經 詩經
17	(詩 17)	詩經 詩經
18	(詩 18)	詩經 詩經
19	(詩 19)	詩經 詩經
20	(詩 20)	詩經 詩經
21	(詩 21)	詩經 詩經
22	(詩 22)	詩經 詩經
23	(詩 23)	詩經 詩經
24	(詩 24)	詩經 詩經
25	(詩 25)	詩經 詩經
26	(詩 26)	詩經 詩經
27	(詩 27)	詩經 詩經
28	(詩 28)	詩經 詩經
29	(詩 29)	詩經 詩經
30	(詩 30)	詩經 詩經
31	(詩 31)	詩經 詩經
32	(詩 32)	詩經 詩經
33	(詩 33)	詩經 詩經
34	(詩 34)	詩經 詩經
35	(詩 35)	詩經 詩經
36	(詩 36)	詩經 詩經
37	(詩 37)	詩經 詩經
38	(詩 38)	詩經 詩經
39	(詩 39)	詩經 詩經
40	(詩 40)	詩經 詩經
41	(詩 41)	詩經 詩經
42	(詩 42)	詩經 詩經
43	(詩 43)	詩經 詩經
44	(詩 44)	詩經 詩經
45	(詩 45)	詩經 詩經
46	(詩 46)	詩經 詩經
47	(詩 47)	詩經 詩經
48	(詩 48)	詩經 詩經
49	(詩 49)	詩經 詩經
50	(詩 50)	詩經 詩經
51	(詩 51)	詩經 詩經
52	(詩 52)	詩經 詩經
53	(詩 53)	詩經 詩經
54	(詩 54)	詩經 詩經
55	(詩 55)	詩經 詩經
56	(詩 56)	詩經 詩經
57	(詩 57)	詩經 詩經
58	(詩 58)	詩經 詩經
59	(詩 59)	詩經 詩經
60	(詩 60)	詩經 詩經
61	(詩 61)	詩經 詩經
62	(詩 62)	詩經 詩經
63	(詩 63)	詩經 詩經
64	(詩 64)	詩經 詩經
65	(詩 65)	詩經 詩經
66	(詩 66)	詩經 詩經
67	(詩 67)	詩經 詩經
68	(詩 68)	詩經 詩經
69	(詩 69)	詩經 詩經
70	(詩 70)	詩經 詩經
71	(詩 71)	詩經 詩經
72	(詩 72)	詩經 詩經
73	(詩 73)	詩經 詩經
74	(詩 74)	詩經 詩經
75	(詩 75)	詩經 詩經
76	(詩 76)	詩經 詩經
77	(詩 77)	詩經 詩經
78	(詩 78)	詩經 詩經
79	(詩 79)	詩經 詩經
80	(詩 80)	詩經 詩經
81	(詩 81)	詩經 詩經
82	(詩 82)	詩經 詩經
83	(詩 83)	詩經 詩經
84	(詩 84)	詩經 詩經
85	(詩 85)	詩經 詩經
86	(詩 86)	詩經 詩經
87	(詩 87)	詩經 詩經
88	(詩 88)	詩經 詩經
89	(詩 89)	詩經 詩經
90	(詩 90)	詩經 詩經
91	(詩 91)	詩經 詩經
92	(詩 92)	詩經 詩經
93	(詩 93)	詩經 詩經
94	(詩 94)	詩經 詩經
95	(詩 95)	詩經 詩經
96	(詩 96)	詩經 詩經
97	(詩 97)	詩經 詩經
98	(詩 98)	詩經 詩經
99	(詩 99)	詩經 詩經
100	(詩 100)	詩經 詩經
101	(詩 101)	詩經 詩經
102	(詩 102)	詩經 詩經
103	(詩 103)	詩經 詩經
104	(詩 104)	詩經 詩經
105	(詩 105)	詩經 詩經
106	(詩 106)	詩經 詩經
107	(詩 107)	詩經 詩經
108	(詩 108)	詩經 詩經
109	(詩 109)	詩經 詩經
110	(詩 110)	詩經 詩經
111	(詩 111)	詩經 詩經
112	(詩 112)	詩經 詩經
113	(詩 113)	詩經 詩經
114	(詩 114)	詩經 詩經
115	(詩 115)	詩經 詩經
116	(詩 116)	詩經 詩經
117	(詩 117)	詩經 詩經
118	(詩 118)	詩經 詩經
119	(詩 119)	詩經 詩經
120	(詩 120)	詩經 詩經
121	(詩 121)	詩經 詩經
122	(詩 122)	詩經 詩經
123	(詩 123)	詩經 詩經
124	(詩 124)	詩經 詩經
125	(詩 125)	詩經 詩經
126	(詩 126)	詩經 詩經
127	(詩 127)	詩經 詩經
128	(詩 128)	詩經 詩經
129	(詩 129)	詩經 詩經
130	(詩 130)	詩經 詩經
131	(詩 131)	詩經 詩經
132	(詩 132)	詩經 詩經
133	(詩 133)	詩經 詩經
134	(詩 134)	詩經 詩經
135	(詩 135)	詩經 詩經
136	(詩 136)	詩經 詩經
137	(詩 137)	詩經 詩經
138	(詩 138)	詩經 詩經
139	(詩 139)	詩經 詩經
140	(詩 140)	詩經 詩經
141	(詩 141)	詩經 詩經
142	(詩 142)	詩經 詩經
143	(詩 143)	詩經 詩經
144	(詩 144)	詩經 詩經
145	(詩 145)	詩經 詩經
146	(詩 146)	詩經 詩經
147	(詩 147)	詩經 詩經
148	(詩 148)	詩經 詩經
149	(詩 149)	詩經 詩經
150	(詩 150)	詩經 詩經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23:1)

יְהוָה רֹעִי לֹא אֶחָסֵר

시편 차례

시편 서론	〈25제〉	… 17
제 1 편 복있는 사람	〈17제〉	… 25
제 2 편 하나님이 세우신 왕	〈21제〉	… 29
제 3 편 여호와와 구원	〈18제〉	… 34
제 4 편 주께서 주신 기쁨	〈18제〉	… 38
제 5 편 악인의 심판에 관한 기도	〈21제〉	… 42
제 6 편 병상에서 지은 참회의 시	〈15제〉	… 47
제 7 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17제〉	… 51
제 8 편 주의 영광과 사람의 영화로움	〈10제〉	… 55
제 9 편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다	〈24제〉	… 58
제 10 편 악인의 교만을 꺾으소서	〈16제〉	… 64
제 11 편 성도가 피할 곳	〈12제〉	… 68
제 12 편 악한 세대에 대한 탄원	〈13제〉	… 71
제 13 편 고통받는 영혼의 기도	〈10제〉	… 74
제 14 편 어린석은 자	〈15제〉	… 77
제 15 편 성산(聖山)에 거할 자	〈9 제〉	… 81
제 16 편 부활과 영생의 소망	〈14제〉	… 84
제 17 편 정직한 자가 구원을 호소하다	〈17제〉	… 87
제 18 편 승리의 노래	〈25제〉	… 91
제 19 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다	〈16제〉	… 98
제 20 편 기도 응답에 대한 왕의 간구	〈12제〉	… 102
제 21 편 왕의 승리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	〈15제〉	… 105
제 22 편 고난의 부르짖음과 찬양의 노래	〈17제〉	… 109
제 23 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13제〉	… 114
제 24 편 영원한 문들이 들릴지어다	〈11제〉	… 117
제 25 편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15제〉	… 120

제 26 편	무죄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14제〉	124
제 27 편	하나님을 바라라	〈14제〉	128
제 28 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구와 감사	〈12제〉	132
제 29 편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다	〈15제〉	137
제 30 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15제〉	142
제 31 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18제〉	147
제 32 편	회개하는 자의 행복	〈10제〉	154
제 33 편	여호와의 말씀과 도모(圖謀)	〈8 제〉	158
제 34 편	여호와를 경의하라	〈8 제〉	162
제 35 편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다	〈8 제〉	166
제 36 편	악인의 실상(實狀)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6 제〉	170
제 37 편	의인의 화평과 악인의 멸망	〈19제〉	173
제 38 편	죄값으로 받는 고난을 물리쳐 주소서	〈12제〉	180
제 39 편	덧없는 인생이 추구할 바	〈10제〉	186
제 40 편	기도의 응답에 대해 찬송하다	〈13제〉	190
제 41 편	경건한 사람의 축복과 고통	〈8 제〉	195
제 42 편	하나님을 갈망(渴望)하다	〈12제〉	199
제 43 편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다	〈7 제〉	203
제 44 편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17제〉	205
제 45 편	왕의 결혼에 부처	〈16제〉	211
제 46 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12제〉	216
제 47 편	하나님을 찬양하라	〈9 제〉	220
제 48 편	하나님의 성(城) 시온	〈14제〉	223
제 49 편	세상의 영화는 잠깐이다	〈14제〉	228
제 50 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	〈17제〉	233
제 51 편	다윗의 회개시	〈17제〉	239
제 52 편	간사한 혀의 멸망	〈8 제〉	244
제 53 편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15제〉	247

제 54 편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소서.....	〈 7 제 〉 ... 249
제 55 편	친구의 배신에 대해 호소하다.....	〈 19 제 〉 ... 251
제 56 편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 11 제 〉 ... 256
제 57 편	주의 날개 그늘로 피하리이다.....	〈 11 제 〉 ... 259
제 58 편	악인의 본성과 하나님의 심판.....	〈 12 제 〉 ... 263
제 59 편	하나님은 나의 산성(山城).....	〈 14 제 〉 ... 267
제 60 편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다.....	〈 15 제 〉 ... 271
제 61 편	저를 보호하소서.....	〈 8 제 〉 ... 276
제 62 편	하나님만 바라라.....	〈 13 제 〉 ... 279
제 63 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다.....	〈 13 제 〉 ... 283
제 64 편	악인의 횡포에서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다.....	〈 11 제 〉 ... 288
제 65 편	주의 권능과 위엄.....	〈 14 제 〉 ... 291
제 66 편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 16 제 〉 ... 295
제 67 편	만방에 알릴 주의 근원.....	〈 8 제 〉 ... 300
제 68 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 35 제 〉 ... 303
제 69 편	역경 중에 구원을 호소하다.....	〈 30 제 〉 ... 312
제 70 편	주(主)는 나의 도움.....	〈 8 제 〉 ... 319
제 71 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다.....	〈 22 제 〉 ... 321
제 72 편	하나님의 의(義)를 따르는 왕.....	〈 20 제 〉 ... 326
제 73 편	배교의 유혹을 극복하다.....	〈 22 제 〉 ... 331
제 74 편	파멸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다.....	〈 15 제 〉 ... 338
제 75 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	〈 10 제 〉 ... 343
제 76 편	마땅히 경외할 여호와.....	〈 14 제 〉 ... 347
제 77 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 12 제 〉 ... 351
제 78 편	하나님의 사랑과 범죄한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	〈 24 제 〉 ... 355
제 79 편	이방 대적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	〈 10 제 〉 ... 365
제 80 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	〈 11 제 〉 ... 369
제 81 편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다.....	〈 12 제 〉 ... 373

제 82 편	불의한 재판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 8 제 〉 ...	377
제 83 편	원수들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다	〈 13 제 〉 ...	380
제 84 편	하나님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다	〈 13 제 〉 ...	385
제 85 편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 13 제 〉 ...	389
제 86 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 12 제 〉 ...	393
제 87 편	시온이 영광을 받게 되다	〈 8 제 〉 ...	398
제 88 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 11 제 〉 ...	402
제 89 편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다	〈 30 제 〉 ...	407
제 90 편	인생 무상에 대하여 탄식하다	〈 11 제 〉 ...	418
제 91 편	피난처와 요새이신 하나님	〈 11 제 〉 ...	422
제 92 편	하나님의 행사(行事)를 찬양하다	〈 11 제 〉 ...	426
제 93 편	여호와는 왕이시라	〈 7 제 〉 ...	430
제 94 편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빛을 비추소서	〈 14 제 〉 ...	433
제 95 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 10 제 〉 ...	439
제 96 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 10 제 〉 ...	443
제 97 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다	〈 13 제 〉 ...	447
제 98 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 9 제 〉 ...	452
제 99 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 9 제 〉 ...	455
제 100 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 6 제 〉 ...	459
제 101 편	다윗이 하나님께 서약하다	〈 9 제 〉 ...	462
제 102 편	고통당하는 자의 간구	〈 15 제 〉 ...	465
제 103 편	하나님의 크신 은혜	〈 9 제 〉 ...	470
제 104 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 11 제 〉 ...	474
제 105 편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니시라	〈 15 제 〉 ...	479
제 106 편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 18 제 〉 ...	486
제 107 편	고난 중에 함께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 16 제 〉 ...	495
제 108 편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하소서	〈 10 제 〉 ...	501
제 109 편	잠잠하지 마옵소서	〈 14 제 〉 ...	504

제 110 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 7 제 〉	509
제 111 편	여호와를 찬송하라	〈 10 제 〉	512
제 112 편	여호와를 경외하라	〈 10 제 〉	515
제 113 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 7 제 〉	518
제 114 편	열조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 5 제 〉	521
제 115 편	주께만 영광을 돌리라	〈 11 제 〉	523
제 116 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다	〈 14 제 〉	527
제 117 편	자비를 베푸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 4 제 〉	532
제 118 편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	〈 15 제 〉	534
제 119 편	구원을 얻은 자의 교훈	〈 68 제 〉	540
제 120 편	고통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 8 제 〉	561
제 121 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다	〈 8 제 〉	564
제 122 편	희망의 노래	〈 10 제 〉	566
제 123 편	멀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 5 제 〉	569
제 124 편	구원자이신 여호와	〈 7 제 〉	571
제 125 편	의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 6 제 〉	573
제 126 편	고난과 환희	〈 8 제 〉	575
제 127 편	헛된 수고와 하나님의 축복	〈 8 제 〉	578
제 128 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 9 제 〉	581
제 129 편	시온을 박해하던 자의 최후	〈 9 제 〉	584
제 130 편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다	〈 9 제 〉	587
제 131 편	순수한 믿음	〈 4 제 〉	590
제 132 편	여호와의 성전과 다윗	〈 14 제 〉	592
제 133 편	형제를 사랑하다	〈 4 제 〉	597
제 134 편	밤에 봉사하는 자들의 찬양	〈 4 제 〉	599
제 135 편	여호와를 송축(頌祝)하라	〈 15 제 〉	600
제 136 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 11 제 〉	605
제 137 편	바벨론 포로의 노래	〈 10 제 〉	609

제 138편	주께 감사하나이다.....	〈12제〉	... 613
제 139편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6제〉	... 618
제 140편	악인의 손에서 나를 보존하소서.....	〈13제〉	... 624
제 141편	마음을 악에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10제〉	... 629
제 142편	나를 건지소서.....	〈7제〉	... 633
제 143편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4제〉	... 636
제 144편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13제〉	... 641
제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頌祝)하리이다.....	〈17제〉	... 646
제 146편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4제〉	... 652
제 147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13제〉	... 657
제 148편	전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11제〉	... 661
제 149편	시온의 백성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7제〉	... 665
제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2제〉	... 668

시편 특별 자료 차례

시편 서론	〈연구 자료〉	주제에 따른 본서의 분류.....	24
제 1 편	〈본장의 요절〉	28
제 2 편	〈연구 자료〉	기름 부음의 의미.....	33
제 6 편	〈화보 자료〉	쇠퇴한 눈매를 지닌 노파.....	50
제 8 편	〈화보 자료〉	천사들의 합창.....	57
제 9 편	〈연구 자료〉	성경적 분류에 의한 찬송의 종류.....	63
제 10 편	〈본장의 요절〉	67
제 11 편	〈본장의 요절〉	70
제 12 편	〈본장의 요절〉	73
제 13 편	〈연구 자료〉	성경에 나타난 잠[睡眠]의 의미.....	76
제 14 편	〈화보 자료〉	어리석은 자.....	80
제 15 편	〈연구 자료〉	장막에 대하여.....	83
제 17 편	〈본장의 요절〉	90
제 18 편	〈화보 자료〉	불의의 창수(漲水).....	97

제 19 편	〈연구 자료〉	원죄(原罪)와 고범죄(故犯罪)	101
제 20 편	〈본장의 요절〉	104
제 21 편	〈화보 자료〉	활시위를 당기시는 하나님	108
제 22 편	〈본장의 요절〉	113
제 24 편	〈화보 자료〉	머리를 든 문	119
제 25 편	〈연구 자료〉	구약의 토지법	123
제 26 편	〈화보 자료〉	하나님의 전(殿)	127
제 28 편	〈화보 자료〉	다윗의 탑	136
제 31 편	〈화보 자료〉	악인의 그물	153
제 32 편	〈본장의 요절〉	157
제 33 편	〈화보 자료〉	말을 탄 아랍인	161
제 34 편	〈본장의 요절〉	165
제 36 편	〈본장의 요절〉	172
제 37 편	〈본장의 요절〉	179
제 38 편	〈연구 자료〉	재난에 대처하는 다윗과 욥의 태도 비교	184
제 39 편	〈본장의 요절〉	189
제 41 편	〈본장의 요절〉	198
제 42 편	〈본장의 요절〉	202
제 44 편	〈화보 자료〉	하나님의 오른손	210
제 45 편	〈본장의 요절〉	215
제 46 편	〈본장의 요절〉	219
제 48 편	〈화보 자료〉	하나님의 성(城)	227
제 49 편	〈연구 자료〉	편찬 시기에 따른 시편의 분류	232
제 50 편	〈화보 자료〉	가나안인들이 사용하던 수소의 탈	238
제 52 편	〈화보 자료〉	푸르름을 자랑하는 감람나무	246
제 57 편	〈화보 자료〉	사자(獅子)	262
제 58 편	〈연구 자료〉	성경에 나타나는 이[齒]	266
제 60 편	〈화보 자료〉	요단 강 서편의 세겜(Shechem)	275
제 61 편	〈연구 자료〉	장수(長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278
제 62 편	〈본장의 요절〉	282
제 63 편	〈연구 자료〉	그리스도인과 찬양	286
제 64 편	〈본장의 요절〉	290

제 65 편	〈연구 자료〉	언약적 축복으로서의 아침과 저녁	294
제 66 편	〈화보 자료〉	홍해의 이적	299
제 67 편	〈연구 자료〉	예배용 음악의 내용	302
제 68 편	〈본장의 요절〉		311
제 73 편	〈본장의 요절〉		337
제 75 편	〈화보 자료〉	머리에 뿔이 달린 모세 상(像)	346
제 77 편	〈본장의 요절〉		354
제 78 편	〈화보 자료〉	애굽에 내린 개구리 재앙	364
제 80 편	〈본장의 요절〉		372
제 81 편	〈본장의 요절〉		376
제 83 편	〈본장의 요절〉		384
제 84 편	〈본장의 요절〉		388
제 86 편	〈화보 자료〉	기도하는 자	397
제 87 편	〈연구 자료〉	구약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401
제 88 편	〈화보 자료〉	고레스(Cyrus) 왕의 무덤	406
제 89 편	〈본장의 요절〉		417
제 90 편	〈본장의 요절〉		421
제 92 편	〈본장의 요절〉		429
제 93 편	〈화보 자료〉	여호와와의 통치	432
제 94 편	〈본장의 요절〉		438
제 96 편	〈화보 자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	446
제 97 편	〈본장의 요절〉		451
제 99 편	〈화보 자료〉	그룹 사이에 좌정(座定)하신 하나님	458
제 100 편	〈본장의 요절〉		461
제 103 편	〈화보 자료〉	들의 꽃	473
제 104 편	〈화보 자료〉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478
제 106 편	〈본장의 요절〉		494
제 107 편	〈연구 자료〉	물(水)에 대한 성경적 이해	500
제 108 편	〈본장의 요절〉		503
제 110 편	〈본장의 요절〉		511
제 111 편	〈본장의 요절〉		514
제 113 편	〈연구 자료〉	찬송의 대상에 대하여	520

제 114 편	〈본장의 요절〉	522
제 115 편	〈본장의 요절〉	526
제 116 편	〈본장의 요절〉	531
제 117 편	〈본장의 요절〉	533
제 118 편	〈화보 자료〉 집 모퉁이의 머릿돌	539
제 119 편	〈화보 자료〉 알파벳 시편	560
제 120 편	〈본장의 요절〉	563
제 123 편	〈본장의 요절〉	570
제 125 편	〈본장의 요절〉	574
제 126 편	〈화보 자료〉 귀환하는 이스라엘	577
제 127 편	〈화보 자료〉 성을 지키는 여호와와 군대	580
제 128 편	〈연구 자료〉 구약에 나타난 복(福)의 의미	583
제 129 편	〈본장의 요절〉	586
제 131 편	〈화보 자료〉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여인	591
제 132 편	〈화보 자료〉 법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	596
제 133 편	〈화보 자료〉 노인의 영광인 수염	598
제 135 편	〈본장의 요절〉	604
제 138 편	〈연구 자료〉 시편과 그리스도	617
제 139 편	〈화보 자료〉 하늘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623
제 140 편	〈화보 자료〉 고분(古墳) 벽에 그려진 뱀의 형상	628
제 141 편	〈본장의 요절〉	632
제 143 편	〈화보 자료〉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640
제 144 편	〈연구 자료〉 번개와 뇌성	644
제 145 편	〈연구 자료〉 본서에 나타난 저주와 복수	651
제 146 편	〈본장의 요절〉	656
제 148 편	〈본장의 요절〉	664
제 149 편	〈본장의 요절〉	667
제 150 편	〈화보 자료〉 소고(小鼓) 치는 사람	671

시편 서론

1. **㉠** 본서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히브리어 명칭은 <세페르 테힐림>으로 '찬양의 책'이란 뜻을 가진다. 보통 '책'이란 뜻의 <세페르>는 생략하고 '찬양'이란 뜻의 <테힐림>으로 불리워졌다.
 - (2) 한편 70인역에서는 본서를 <프살모이>라고 칭하였는데 그 말은 '성스러운 노래', 또는 '시'라는 뜻을 가진 <프살모스>란 말의 복수형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서를 '성스러운 노래의 책'이란 뜻의 <비블로 프살몬>이란 말로 칭하셨다 (눅 20:42).
 - (4) 이러한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찬양이 아름다운 시로 승화되어 있다.
2.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전체 150개의 시 중 100개의 시는 서두에 저자를 언급하여 이름을 밝혔다.
 - (2) 이 100개의 시에 언급된 저자는 최소한 7명으로 나타난다. 그중 73개의 시는 고라 자손, 12개의 시는 에단 (89편) 그리고 또 1개의 시는 모세 (90편)를 저자로 내세운다.
 - (3) 나머지 50개의 시는 표제어에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한 시편을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다윗의 저작이라고 말한다 (행 4:25). 따라서 여기 속한 다수의 시가 다윗의 저작임을 알 수 있다 (참조, 2, 95, 96, 105편 등).
3. **㉠** 본서가 집성(集成)된 시기는 언제인가?
 - ㉠** (1) 전 오 권으로 편집된 본서의 정확한 결집(結集)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그 편집 과정이 점진적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없다.
 - (2) 즉 그 과정에서 1권은 다윗 사후(死後) 솔로몬에 의해 2권은 고라 자손에 의해 3권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삽이 그리고 나머지 4, 5권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 (3) 이렇게 하여 전권(全卷)이 에스라 시대에 모두 모아 졌다.
4. **㉠** 본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시편에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에서도 본서에 나타난 것처럼 선명하고 아름다운 종교적 경험이 다양하게 표현된 곳은 없다.
 - (2) 이러한 다양한 믿음의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인들의 심경을 적나라하게 읽을 수 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깊은 지혜 (insight)는 이 시편들에서 신앙과 연결됨으로써 그 영원성을 갖게 되었다.
 - (3) 그러나 이 시편은 이제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입장에 있든지 그 입장에 맞는 것을 시편에서 찾을 수 있고 시편 기자의 찬양과 기쁨과 탄식이 곧 우리 삶의 소리가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본서에 기록된 이와 같은 종교적 경험은 순수하고 벽관 감동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표현되어 읽는 이에게 언제 어디서나 심금을 울리게 한다.
 - (5) 그리고 그 모든 영적 경험의 실상(實相)이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통하여 표현되어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따뜻한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5.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생활의 지침서로서 간주되어졌다.
- (2) 그러므로 시편은 개개인 성도의 경건한 삶을 위한 입문서 겸 안내서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신자에 의해 묵상되는 기도서이며 찬양의 책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다.
- (4)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의 예배시에 시편을 자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예를 들어 성서 교육) 개인의 헌신 생활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 시편의 표제문이란 무엇인가?

- Ⓐ (1) 시편의 표제문이란 각 시(詩)의 서두에서 그 시의 내용을 설명한 글을 가리킨다. 본서의 시편 150개의 시 가운데 116개의 시가 표제문이 붙어 있다.
- (2) 이 표제문에는 저자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거나 (참조, 3편) 때로는 암시된 경우가 있다 (참조, 42편).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시편이 쓰여진 동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참조, 3편) 용도를 밝히는 것도 있다 (참조, 120편).
- (3) 한편 표제문들 중 일부는 악기를 통한 반주와 함께 시를 읽어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참조, 6편) 그 시의 기본 성격을 나타내는 표제도 있다 (참조, 32편 - 마스길은 교훈시란 뜻).
- (4) 이 표제문들은 히브리어 원문의 첫 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문과 같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영감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7. ⓐ 표제문에 나타난 시가의 이름과 그 뜻을 설명하라.

- Ⓐ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히브리어 명칭	뜻	이 명칭이 사용된 시	비 고
미즈모르	시 (詩)	3편 등 57개의 시	이 명칭은 종교적 예배에 이용되던 시에만 사용되었다.
쉬 르	노 래	4편 등 30개의 시	이 명칭은 종교적인 노래와 세속적인 노래에 다같이 사용되었다.
마스길	교훈시	32편 등 13개의 시	
믹 담	황금시, 금언시	6편 등 6개의 시	
쉬 가 온	뜻이 분명치 않다	7편	
테필라하	기 도	17편 등 5개의 시	
테힐라하	찬송시	145편	이 명칭에서 시편 전체의 히브리 제목 <테힐림>이 나왔다.

8. ⓐ 표제문에 나타난 음악적 술어와 그 뜻을 설명하라.

- Ⓐ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히브리어 명칭	뜻	이 명칭이 사용된 시	비 고
메낫체아흐	영장, 노래 지휘자	55편 등 51개의 시	합 3:19에도 사용되었다.
네기노트	현악, 줄로 타는 악기	4편 등 6개의 시	언제나 '영장'이란 말과 결합되어 있다.
스미닛	제8음, 낮은 음	6, 12편	
알라못	뜻이 분명치 않다	46, 49편	
깃 딯	기쁜 곡조	8, 81, 84편	

네길로트	관악, 부는 악기	5편	
마 할 랫	질병, 슬픔	88편	

9. ㉠ 멜로디를 지시하기 위해 표제문에 쓰인 말들의 뜻을 말하라.

㉡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히브리어 명칭	뜻	명칭이 사용된 시
야엘렛 샤할	새벽의 사슴	22편
소 산 님	백합화 곡조	45, 69편
요낫 엘렘 르호김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	56편
뭇 랍 벤	'벤'이란 악사의 죽음	9편

10. ㉠ 본서에 자주 언급된 '셀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 ㉡ (1) 학자들은 이 단어를 '들어 올리다'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살랄>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높임' 혹은 '중지(中止)'의 뜻을 갖는 것으로 본다(C. B. Moll, Kimchi).
- (2) 이러한 의미에서 '셀라'는 노래를 부를 때 음성을 높이 올리라는 음악적 지시어라고 볼 수 있다.
- (3) 또한 반주가 있을 경우 간주곡이나 후주곡에서 기악의 소리를 높여서 노래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때에 노래는 잠시 중지하여 쉬게 된다.
- (4) 이 말은 시의 한 연(聯)이 끝날 때 나타난다(참조, 46:7). 이 말은 본서에서 39개의 시에 71번 나타나고 하박국에서는 3번 나온다.

11. ㉠ 본서의 일반적인 분류는 어떠한가?

- ㉡ (1) 본서는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5가지로 분류된다.
- (2) 첫째는 '국가적 시'이다. 이는 국가적인 행사에서 낭송되는 시들을 말한다.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대표적인 시로 19개가 있다(14, 44, 46-48, 53, 66, 74, 76, 79, 80, 83, 87, 108, 122, 124 - 126, 129편).
- (3) 둘째는 '역사적 시'이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이나 거기에 대한 해설을 보여 주는 시이다. 대표적인 시로서 78, 81, 105, 114편 등이 있다.
- (4) 셋째는 '왕적 시'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가리킨다(2, 8, 20, 21, 45, 72, 89, 110, 132편 등).
- (5) 넷째는 '회개의 시'이다. 이는 죄에 대한 극한 슬픔과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소망이 교차되는 시이다(6, 32, 38, 51, 130편 등).
- (6) 다섯째는 '저주의 시'이다. 이것은 좀더 특이한 주제의 시로서 이스라엘 원수를 향한 저주의 노래이다. 저주의 시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다윗의 시이다(35, 69, 105, 137편 등).

12. ㉠ '저주의 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신약의 사상과 모순 되지 않는가?

- ㉡ (1) 우리는 저주의 시를 대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에 대한 사랑'의 교훈(마5:44)과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주의 시는 신약의 사상과 배치되지 않는다.
- (2) 왜냐하면 시편의 저자는 공적이고 법적인 의미에서 신정국(神政國) 이스라엘의 원수, 즉 하나님의 원수를 저주한 것이고 예수님께서서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 (3) 한편 저주의 시를 쓴 다윗은 자기 개인의 원수에게 대하여 심히 관대했다. 다윗은 사

올과 그 권속들이 분명히 그의 원수인 입장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용서하는 정신과 태도를 보여 주었다(삼상 24:1-22; 26:5-12; 삼하 1:17; 2:5; 9:1-13).

13. **㉠** 본서는 그 순서에 있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 ㉠** (1) 히브리 성경은 물론 대부분의 고대 역본들은 본서를 다섯 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그 책들은 각각 송영가(頌榮歌)로 끝난다. 마지막 시(150편)는 본서 전체의 송영가이다.
- (2) 시편 순서적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제 1권 : 1-41편 (41개의 시)
 - ② 제 2권 : 42-72편 (31개의 시)
 - ③ 제 3권 : 73-89편 (17개의 시)
 - ④ 제 4권 : 90-106편 (17개의 시)
 - ⑤ 제 5권 : 107-150편 (44개의 시)
- (3) 한편 1:1에 대한 유대 랍비의 일종의 주해인 <미드라쉬>는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율법의 다섯 책을 주었는데 이와 한 쌍을 이루어 다윗은 그들에게 다섯 책으로 구성된 시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 (4)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시편은 이스라엘의 심장을 이루는 모세 오경에 호응하는 일종의 오경이다. 율법이 회중에 대한 여호와와의 다섯 권의 책이듯이 시편은 여호와께 대한 회중의 다섯 권의 책이다’(F. Delitzsch).

14. **㉠** 시편 각 권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먼저 저자에 관해서 볼 때, 제 1권과 2권은 주로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제 3권은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 제 4권은 주로 저자 미상(著者未詳)의 시요, 제 5권은 28개의 시가 저자 미상이고 15개의 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다.
- (2) 내용과 이야기에 있어서, 제 1, 2권은 전반적으로 슬픔에 잠긴 것이요, 제 5권은 나머지 다른 책에 비하여 보다더 기쁨에 넘친 시이다. 그리고 역사적 요소는 특히 제 3, 4권에 집중되어 있다.
- (3) 하나님의 명칭에 있어서, 제 1, 4, 5권에는 여호와를 노래한 것이 특색을 이루고 있으나, 제 2, 3권에는 ‘엘로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현저하다.
- (4) 하나님의 명칭이 사용된 회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1권	2권	3권	4권	5권
여 호 와	273	30	44	103	236
엘 로 힘	15	164	43	없음	7

15. **㉠** 다윗이 지은 시들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 ㉠** (1) 다윗이 지은 73개의 시는 본서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다. 즉 1권에 37개, 2권에 18개, 3권에 1개, 4권에 2개, 5권에 15개로 분포되어 있다.
- (2) 전체 73개의 시 중에서 55개의 시는 그 내용이 다윗의 생애의 사건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윗의 생애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 (3) 그중 14개의 시는 왕위에 오르기 전의 생애와 관련되어 있고 18개의 시는 그의 왕정 초기(밧세바와의 범죄 이전)와 관련되어 있다.
- (4) 그리고 10개의 시는 범죄 이후 망명 전까지에 속하고, 또 10개의 시는 망명 시기의 시이며, 3개의 시는 망명에서 돌아온 후, 특히 왕위가 끝나 갈 무렵에 쓴 것이다.
- (5) 그 시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다윗의 초기 생애	왕정 초기	범죄 후 망명 전	망명 시기	왕정 말기	현대 미상	(계)
1 권	7, 11, 12, 13, 17, 22, 23, 34, 35	8, 9, 15, 16, 18, 19, 20, 21, 24, 26, 29, 36	5, 6, 32, 38, 39, 40, 41	3, 4, 27, 28, 31	37	14, 25, 30	(37)
2 권	52, 54, 56, 57, 59	58, 60, 68	51, 55, 64	61, 63, 69, 70		53, 62, 65	(18)
3 권						86	(1)
4 권		101			103		(2)
5 권		108, 110		143	139	107, 109, 122, 124, 131, 133, 138, 140, 141, 142, 145	(15)
계	14	18	10	10	3	18	(73)

16. ㉠ 아삽의 시들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

- ㉠ (1) 아삽이 지은 시들은 모두 12개로 다윗의 저작 다음으로 많다.
 (2) 그것들은 제 3 권 (73-89편)에 11개의 시 (73-83편)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제 2 권 (42-72편)에 1개의 시 (50편)가 있다.
 (3) 여기서 아삽은 한 개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가문을 가리키는 통칭이다(C. B. Moll). 이 가문의 대표자 아삽은 레위인 베레가의 아들이었고 다윗이 임명한 약장(藥長)이었다(대상 6:39).
 (4) 이 가문은 여호사밧 때에도 있었다(대하 20:14). 또한 포로 귀한 때에는 245명의 음악가가 돌아왔는데(느 7:47) 대개가 아삽 집안 사람들이었다. 또 한편 스 2:41에는 128명이 느 7:44에는 148명이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이 아삽 가문의 시들은 표현이 성실하고 생동감이 있으며 역사적 사건들을 예언적 방법으로 취급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17. ㉠ 고라 자손의 시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 ㉠ (1) 고라 자손의 시들은 11개로서 제 2권과 3권에 산재하여 있다.
 (2) 즉 제 2권에 7개의 시 (42, 44-49편)가 수록되어 있으며 제 3권에 4개의 시 (84, 85, 87, 88편)가 수록되어 있다.
 (3) 고라는 레위의 증손으로서(민 16:1) 모세를 거역하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거되었으나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않았다(민 26:9-11). 고라 자손은 다윗 때에 성전 문지기로서(대상 9:17; 24:1-19) 또한 성전의 음악을 담당할 자로 존속했다(대상 25:1, 2).
 (4) 한편 고라 자손의 시들은 특히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권능을 제시해 주고 있다(44:4; 45:6; 47:2, 7, 8; 84:3). 또한 여기에는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42:2; 84:2).
 (5) 그리고 이 시들에는 왕의 보좌에 앉으신 <엘로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영혼의 간절함이 뜨겁게 나타나 있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참조, 42, 45, 84편).

18. ㉠ 저자 미상(著者未詳)의 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 (1) 표제문에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들은 모두 50개인데 주로 마지막 두 권(4, 5권)에 포함되어 있다(4권-14개, 5권-28개). 반면 3권에는 1편도 없으며 1, 2권에는 각각 4편씩 포함되어 있다.

(2) 각 권에 포함된 작자 미상의 시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제 1 권 : 1, 2, 10, 33편
- ② 제 2 권 : 43, 66, 67, 71편
- ③ 제 3 권 : 없음
- ④ 제 4 권 : 91-100, 102, 104-106편
- ⑤ 제 5 권 : 107, 111-121, 123, 125, 126, 128-130, 132, 134-137, 146-150편

(3) 이 저자 미상의 시들 가운데에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러 시들이 포함되어 있다. 1권의 1, 2편이 그것이다. 그리고 2권의 67, 71편, 4권의 91, 104, 105, 106편, 그리고 5권의 117, 118, 119, 137편 등이다(모두 12개의 시).

19. **㉠**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리우는 시들은 어떤 것들인가?

- ㉠** (1)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Songs of Degrees)로 불리우는 시들은 모두 15개의 시로서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가리킨다.
- (2) 이 시들은 아마도 지방 혹은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의 큰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부르려고 지은 노래인 것 같다(참조, 122:1, 2).
- (3) 이 시들 중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즐겨 애송(愛誦)되고 있는 130편과 133편이 있다.

20. **㉠** ‘할렐루야 시’란 어떤 시들을 가리키는가?

- ㉠** (1) ‘할렐루야 시’란 히브리어의 두 낱말 〈할렐루〉와 〈야〉로 시작하는 시들을 가리킨다.
- (2) 여기에서 〈할렐루〉는 ‘찬송하다’, ‘찬양하다’란 뜻이고 〈야〉는 ‘주’, ‘여호와’란 뜻이다. 또한 〈할렐루야〉는 명령문으로 ‘여호위를 찬송하라’란 뜻을 가진다.
- (3) 한편 ‘할렐루야 시’에는 다음 10개의 시들이 포함되어 있다. 4권의 106편, 5권의 111, 113, 135, 146-150편이 그것이다.
- (4) 이 가운데 106, 111, 112편을 제외한 7개 시들은 같은 문구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다.

21. **㉠** ‘알파벳 시’란 어떤 시들을 가리키는가?

- ㉠** (1) ‘알파벳 시’란 히브리어 알파벳이 규칙성을 가지고 시의 첫 글자로 사용된 시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속한 시들로는 9개의 시가 있다(9, 10, 25, 34, 37, 111, 112, 119, 145편 등).
- (2) 이러한 ‘알파벳 시’ 중에 가장 정교한 시는 119편이다. 119편은 연(聯)의 수가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의 수(22개)로 결정되어 있다. 즉 각 연의 첫 문자가 정확히 알파벳 순서에 따라 채택되었다(참조, 111, 112편).
- (3) 그런데 145편은 21절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 〈눈〉을 머리 문자로 하는 절이 없기 때문이다.
- (4) 이러한 알파벳 배열의 목적은 의심할 여지없이 어느 경우에서나 기억을 도우려는 데 있다. 111, 112, 119편은 이런 점에 특히 큰 도움을 준다.

22. **㉠** ‘참회의 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1) ‘참회의 시’는 일반적으로 7개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편 가운데 수많은 시가 현저하게 참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꼭 7개의 시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 (2) 그러나 초대 교회 시대의 교부였던 오리겐(Origen)을 위시하여 여러 교부들이 이러한 견해를 동조하였고 그 후 교회에서도 그 7개의 시를 ‘참회의 시’로 부르게 되었다.
- (3) 이렇게 해서 ‘참회의 시’로 불리우게 된 시들은 다음과 같다. 즉 6, 32, 38, 51, 102, 130, 143편 등이다. 이 7개의 시들 중에 130편을 제외한 6개의 시들이 그 제목에 의해 다 읽히지 않는다.

23. **㉠** 시편에 자주 사용된 네 가지 대귀법(對句法)을 말하라.

- Ⓐ (1) 동의(同意) 대귀법 : 둘째 행이 기본적으로 첫째 행의 내용을 반복한다(참조, 1:2;3:7).
- (2) 대조(對照) 대귀법 : 둘째 행은 첫째 행과 날카로운 대조를 보인다(참조, 1:6).
- (3) 종합(綜合) 대귀법 : 둘째 또는 그 이후의 행은 첫째 행을 설명하거나 발전시킨다(참조, 1:1-3).
- (4) 상징(象徵) 대귀법 : 대체적으로 직유법을 사용하여 둘째 행은 첫째 행의 표현을 더욱 심화시킨다(참조, 1:4).
- (5) 이러한 대귀법들은 두 줄로 제한되지 않고 때로는 절(節)과 연(聯)까지 확장된다.

24. Ⓒ 시편의 구성에 따른 구분을 말하라.

- Ⓐ (1) 제 1 권 : 1-41편
 - ① 무명의 시 : 1, 2편
 - ② 다윗의 시 : 3-9편
 - ③ 무명의 시 : 10편
 - ④ 다윗의 시 : 11-32편
 - ⑤ 무명의 시 : 33편
 - ⑥ 다윗의 시 : 34-41편
- (2) 제 2 권 : 42-72편
 - ① 고라 자손의 시 : 42편
 - ② 무명의 시 : 43편
 - ③ 고라 자손의 시 : 44-49편
 - ④ 아삽의 시 : 50편
 - ⑤ 다윗의 시 : 51-65편
 - ⑥ 무명의 시 : 66, 67편
 - ⑦ 다윗의 시 : 68-70편
 - ⑧ 무명의 시 : 71편
 - ⑨ 솔로몬의 시 : 72편
- (3) 제 3 권 : 73-89편
 - ① 아삽의 시 : 73-83편
 - ② 고라 자손의 시 : 84, 85편
 - ③ 다윗의 시 : 86편
 - ④ 고라 자손의 시 : 87, 88편
 - ⑤ 에단의 마스길 : 89편
- (4) 제 4 권 : 90-106편
 - ① 모세의 기도 : 90편
 - ② 무명의 시 : 91-100편
 - ③ 다윗의 시 : 101편
 - ④ 무명의 시 : 102편
 - ⑤ 다윗의 시 : 103편
 - ⑥ 무명의 시 : 104-106편
- (5) 제 5 권 : 107-150편
 - ① 무명의 시 : 107편
 - ② 다윗의 시 : 108-110편
 - ③ 무명의 시 : 111-119편
 - ④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 120-134편

24 시편 서론

- ⑤ 무명의 시 : 135-137편
- ⑥ 다윗의 시 : 138-145편
- ⑦ 할렐루야 시 : 146-150편

25.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1).

연구자료

주제에 따른 본서의 분류

저자 주제	다 윗	솔로몬	고라의 자 손	아삽	헤만	에단	모세	무명
감사와 경배	8, 9, 18, 19, 21, 24, 29, 30, 34, 41, 124, 133, 138		46	75, 76				67, 100, 105, 106, 107, 114, 116, 126, 136
찬양	65, 68, 103, 108, 109, 144, 145		47, 48, 87					33, 66, 92, 93, 95, 96, 97, 98, 99, 104, 111, 113, 115, 117, 119, 119, 121, 134, 135, 146, 147, 148, 149, 150
비탄	3, 5, 12, 22, 31, 56, 69		42, 44	77	88			43, 94, 120
간구와 신앙	4, 10, 11, 13, 14, 15, 16, 17, 20, 23, 25, 26, 27, 28, 36, 39, 40, 52, 53, 54, 55, 57, 60, 61, 62, 63, 64, 70, 86, 122, 131, 132, 139, 141, 142	127	84, 85,	74, 80, 83			90	71, 91, 123, 125, 128, 129
회개	6, 32, 38, 51, 143							102, 130
저주	7, 35, 58, 59, 140			79				137
메시아	110	72	45					2, 118, 196
지혜	37, 101		49	50, 73, 78, 81, 82				1, 112
왕						89		

제 1 편 복있는 사람

단락구분 1-2 복있는 사람의 생활 / 3 복있는 사람의 결과 / 4-5 악인의 종말 / 6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 3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

- 니 그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
- 4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 5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 6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1. ㉠ 본시(本詩)에는 복있는 사람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

- ㉠ (1) 본시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시키면서 참으로 '복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 주고 있다.
- (2) 즉 본시에는 의인의 성격과 조건이 묘사된 가운데 그들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1-3 절). 또한 악인의 운명과 종말은 의인과 달리 멸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4-6 절).
- (3) 이처럼 본시는 시편 전체의 중심 사상에 이르는 지름길로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있는 사람인 것을 본시를 통해 배우게 된다.

2. ㉠ 본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 (1) 본시는 '저자 미상(著者未詳)의 시' 그룹에 속하는 시이다. 따라서 본시에는 표제문도 없고 저자에 대한 언급도 없다.
- (2) 그러나 본시와 유사한 문체로 쓰여진 2편의 저자가 다윗인 것을 볼 때 (행 4:25, 26) 이 시편도 다윗의 저작인 것 같다(참조, 서론 ㉠ 2).

3. ㉠ 본시는 2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

- ㉠ (1) 1편과 2편은 내용에 있어 연결성을 가진다. 특히 1:1과 2:12이 다같이 '복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 서론과 결론 구실을 하고 있다.
- (2) 그러나 1, 2편을 하나의 통일된 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두 편이 모두 시편 전체의 서문(序文)과 같이 시편 전체의 중심 사상을 소개해 주고 있다.
- (3) 이와 같이 내용상 연결성을 가진 시로는 1편과 2편 외에도 42편과 43편, 96편과 97편 등이 있다.

4. ㉠ 복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 (1, 2절)

- ㉠ (1) 복있는 사람은 소극적인 면에서 3가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1절),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다(2절).
- (2) 소극적인 면에서 범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죄는 악인의 죄를 좇는 죄, 죄인의 길에 서는 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죄이다. 이 죄들은 한 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요일 2:15).
- (3) 적극적인 면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 묵상(默想)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른 신앙인의 생활이다.

(4) 이렇게 성도들이 소극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서 떠나는 한편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에 힘쓸 때 복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5. ㉠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각각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1절)

㉠ (1) ‘악인’ (히, 레쉬임)은 도덕적인 면에서 가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해 자연히 육의 욕정에 치우치는 자를 가리킨다(참조, 사 57:20).

(2) 또한 ‘죄인’ (히, 핫타임)은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 야비하고 분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의 <하마르트로이> (sinners)에 해당한다.

(3)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 (히, 레침)는 종교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하찮은 농담거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가리킨다.

(4) 이와 같이 이 말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죄인들의 상태를 단계적으로 묘사하는 말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가 인격적인 면에서 ‘악인의 꾀’를 좇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6. ㉠ 죄악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1절)

㉠ (1) 시편 기자는 죄의 상태를, 3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처음 단계를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이라고 말했다.

(2) 여기에서 ‘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악(邪惡)을 가리킨다.

(3) 우리의 모든 죄악은 바로 이와 같은 사악한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비롯된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켜서 (잠 4:23)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사상이나 교훈에 유혹되어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 범죄의 두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1절)

㉠ (1) 범죄의 두번째 단계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말한다.

(2)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인들과 사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사업이나, 어떤 공적인 일에 있어서까지 그들과 단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다만 악인들과 공존(共存)해야 하는 세상의 삶에는 ‘죄인의 길’과 같은 유혹이 많음을 알고 성도들은 자기가 서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 항상 ‘죄인의 길’에서 떠나라고 힘써야 한다.

8. ㉠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1) ‘오만한 자의 자리’는 죄악의 정상(頂上)을 의미한다.

(2) 이러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고집의 단계를 암시하는데, 즉 죄악스러운 생활 습관이 완고함으로 굳어져 버린 상태를 가리킨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생활 습관이 무엇인가를 찾아 고침으로써 그러한 습관이 굳어져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 ‘여호와와 울법’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절)

㉠ (1)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울법은 모세 오경의 울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2)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울법에 대한 하나의 해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본문에서 복있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주야(晝夜)로 묵상(默想)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4)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의 한 부분의 연구에만 치우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섭취해야 한다(마 4:4).

10. **㉠**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성도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깊이 사모하며 사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성도는 그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할 수 있으며 그것을 대하는 시간이 즐거워질 수 있는 것이다.
- (3)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요 14:15).
- (4)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일에 분주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1. **㉠** 복있는 사람은 율법을 언제 묵상하는가? (2절)

- ㉠** (1) 복있는 사람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주야(晝夜)로 묵상한다.
- (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낮에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 규칙이 아니라 밤에 잠잘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인격적(人格的)인 진리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인격적 요소(지·정·의)가 구비된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말씀이 다스리시도록 맡겨 드려야 한다(참조, 히 4:12, 13).

12. **㉠** 복있는 사람의 '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3절)

- ㉠** (1) 시편 기자는 '복'을 설명하기 위해 복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 (2) 사실 나무가 자라는 데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분(水分)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일기(日氣)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잘 자란다.
- (3)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진다(참조, 요 4:10, 13, 14; 7:37-39).

13. **㉠**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 (2) 이것은 결코 성도가 그의 생활에 있어서 실수나 실패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3) 다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을 겪기도 하지만 항상 물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아니함같이 실패와 환난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궁극적으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다(롬 8:28).
- (4)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힘을 얻어야 한다(시 119:83, 87).

14. **㉠** 악인이 겨와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4절)

- ㉠** (1) '겨'는 성경에서 약하고 부가치한 것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다(욥 21:18; 사 5:24; 렘 23:28). 그런데 겨는 타작을 할 때에 알곡과는 달리 바람에 날려 버리게 된다.
- (2) 이것은 악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한 비유와 매우 대조적이다. 즉 악인은 진정한 생명의 뿌리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패망을 당하여 영영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시적인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15. **㉠** 악인이 심판 때에 당할 처지는 어떠한가? (5절)

- ㉠** (1) 악인은 심판 때에 마치 '겨'와 같을 뿐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치와 당황스러움 속에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여지고 말 것이다.

- (2) 여기에서 '심판'이란 개인적으로 이따금 받는 징벌이 아니라 일시에 이 세상 전체에 내려지는 대심판을 말한다.
- (3) 앞으로 반드시 임할 심판의 날에는 각 사람의 성품과 일이 아무리 교묘하게 감추어지고 위장되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게 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침으로 심판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참조, 히4:12).

16. **㉠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므로써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어디인가? (5절)**

- ㉠** (1) 악인은 심판을 받으므로써 영영히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된다.
- (2) 여기에서 '의인의 회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곧 하늘나라를 의미한다. 그곳에는 성도들 이외에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기에 사악한 자나 성별되지 않은 모든 자는 '의인의 회중'에 참여할 수 없다.
- (3) 그래서 심판의 날은 '분리의 날'이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양과 염소', '가라지와 곡식'을 분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마13:40;25:32,33).
- (4) 하늘나라는 세상에서 일찌기 없었던 완전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살후2:1). 그곳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처소임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행복보다는 그곳에 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17. **㉠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떻게 다른가? (6절)**

- ㉠** (1)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하는 길이다.
- (2) 여기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를 가리키고 '악인'은 믿음 없는 자를 가리킨다. 또 '길'이란 말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을 상징하다.
- (3)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아시고(렘12:3), 은밀한 기도를 들으신다(마6:6).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 미움과 환난을 받으나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한다(요15:19;16:33;눅21:17,18).
- (4) 그러나 악인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이 일시적으로 즐겁더라도 결국은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된다.
- (5) 우리는 생활의 순간 순간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선택할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므로 일락(逸樂, 딤후5:6)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가운데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야 한다.

본장의 요절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 2절).



제 2 편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단락구분 1-3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 4-6 하나님께서 그의 왕을 세우시다 / 7-9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세 / 10-12 군왕들에게 주시는 권면

1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3 우리가 그 맨 것을 꿰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4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

도다

8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0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 그 아들에게 입마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1. ㉠ 본시(本詩)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최고 주권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 (2) 비록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세움 받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결국 모든 열방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 (3)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최후의 승리를 한 후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계 22:5).

2. ㉠ 본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시에는 표제문이 없기 때문에 저자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자료를 통해 볼 때 본시의 저자는 다윗이다.
- (2) 먼저 신약 성경이 본시의 1, 2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본시의 저자라고 밝히고 있다(행 4:25, 26).
- (3) 또 본시의 내용에 있는 열방을 깨뜨리고 부순다는 표현은(9절) 다윗 왕 때의 역사적 실정과 일치한다(삼하 8:3, 6; 10:18).

3. ㉠ '어찌하여' 라는 말을 본시의 첫머리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1절)

- ㉠ (1) '어찌하여' (히, 람마) 라는 말을 본시의 첫머리에 기록한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항하는 행위가 너무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2) 이 말에서 세상의 대적자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 ㉠ '분노하다' 라는 말은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가? (1절)

- ㉠ (1) 이 말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많은 자들이 반대하고 그를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흉계를 꾸미던 모습을 가리킨다.

- (2) 또한 이방의 열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다윗의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모습과 신약 시대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무리들의 모습을 가리킨다.
- (3)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또한 성도들에게 미움을 품고 덤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4) 다만 성도들은 초대 교회 사도들처럼 기도해야 할 것이다(행 4:23-31). 그럴 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

5. **Q** 본시의 저자는 민족들이 무엇을 경영(經營)한다고 했는가? (1절)

- A** (1) 본시의 저자는 민족들이 허사(虛事)를 경영한다고 하였다. 즉 민족들이 경영하는 일들은 모두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뜻이다.
- (2)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한 것은 '여러 국가',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연합하여 소란스럽게 난동을 벌이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만 결국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 (3)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분노를 쏟으며 일을 추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일도 그 일을 추진하기 전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해야 한다.

6. **Q**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는가? (2절)

- A** (1) '세상의 군왕(君王)들과 관원(官員)들'이 서로 꾀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 (2) '군왕들'이란 먼저 다윗 왕 당시 주변 국가들의 군왕들을 가리키며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상의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 (3) 그리고 '관원들'이란 군왕들 밑에 속해 있던 고관(高官)들을 가리킨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유대 산헤드린의 회원들도 여기에 속했다.
- (4) 이러한 지도자층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교회 사이에는 언제나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 (5)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세상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마 16:18). 그 막강한 세상 나라들은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교회는 더욱 흥왕(興旺)해 가고 있다.

7. **Q** '그 기름 받은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2절)

- A** (1) '기름 받은 자'란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다.
- (2) 다윗 시대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다(삼상 2:10).
- (3) 여기서 다윗은 1차적으로 자신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8. **Q**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어떻게 모의(謀議)하였는가? (3절)

- A** (1)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서로 모의하기를 '우리가 그 맨 것을 꿇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그 맨 것'과 '결박'은 다같이 어떤 권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이다(참조, 렘 2:20; 5:5; 27:2).
- (3) 따라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꿇고... 벗어버리자'고 모의하였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 도전하여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충동된 자들로서 결국 사단과 함께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사 14:12-15).

9. **Q** '하늘에 계신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4절)

- A** (1) '하늘에 계신 자'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마 6:9).
- (2) '하늘'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나타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자' 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3) 인간들이 무슨 수단을 쓰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훼손되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들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늘에까지는 미칠 수 없다(마 11:13).

10. **㉠**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4절)

- ㉠** (1) 하나님께서 '웃으셨다'는 것은 자신에 대하여 세상 군왕들이 반역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가소(可笑)롭게 여기심을 뜻하는 표현이다.
 (2) 즉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당장이라도 교회를 멸절시킬 듯한 세력으로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하시면 순식간에 그들을 해치울 수 있으시다(참조, 마 26:53).

11. **㉠**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5, 6절)

- ㉠** (1)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셨다(6절).
 (2) 이것은 대적들이 땅에 속한 세상의 왕권으로 도전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우주적 왕권으로 그들을 압도하신다는 선포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입증하셨다(참조, 요 18:36).
 (4)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왕은 세상의 왕보다 크고 강하시다(요일 4:4).

12. **㉠** '그때에'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5절)

- ㉠** (1) '그때에'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지정하신 때를 가리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분간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방치하시는 기간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3) 그러므로 그가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그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13. **㉠**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을 어느 곳에 세웠다고 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셨다.
 (2) 여기서 '시온 산'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쁨 부음을 받은 장소로 다윗 성이라고도 불리웠다(대하 5:2).
 (3) 또한 '시온 산'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히 12:22).
 (4)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심으로 그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된다.

14. **㉠** '너는 내 아들이라'한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 ㉠** (1)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의미하는 말이다.
 (2) 여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들을 낳듯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3)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으로(요 1:1)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데(히 1:3) 인류의 구속을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고로(요 1:14)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4)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1:12) 위의 개념과 그 의미가 다르다.
 (5) 즉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나 위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을 의미한다(벧후 1:4).

15.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 열방(列邦)을 유업으로 주시고 땅 끝까지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2) 다윗에게는 이방의 매우 적은 부분이 유업이었기 때문에 이 귀절은 분명히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 이처럼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다(마 28:18).
- (4) 또한 예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면서(마 10:1; 눅 10:19) 복음 전파를 부탁하셨다(막 16:15).
- (5)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영역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열방 모든 나라와 땅 끝까지이다(행 1:8).

16. **㉠** ‘철장(鐵杖)으로 저희를 깨뜨린다’ 함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철장과 같은 강한 권세로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철저히 박멸(撲滅)하여 버리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 (2)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에 성취된다.

17. **㉠** 본서의 저자는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10-12절)

- ㉠** (1) 본서의 저자는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덧붙인다.
- (2) 즉 본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대적하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3) 이러한 권면은 회개의 자세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시인하여 겸손하게 ‘여호와와 지혜와 교훈’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8. **㉠** ‘그런즉’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런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앗타>는 ‘지금’이란 뜻을 지닌 말로서 군왕들이 속히 회개하기를 재촉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 (2)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안일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약 3:14).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깨달은 자들은 지체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19. **㉠**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 (1) ‘입맞추다’란 말은 신하들이 왕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엄숙한 의식과 관련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란 말은 메시아에게 존경을 표하라는 권고이다.
- (2)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앙을 표시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놓은 그의 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20. **㉠**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2절)

- ㉠** (1)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 (2) 여기에서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는 함은 교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 (3)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되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는 것은 번영하는 중에 혹은 어떤 사업을 한창 진행하는 중에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뜻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겠으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순식간에 임하여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살전 5:2, 3).

21. **㉠**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12절)

- ㉠** (1)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자를 말한다.
- (2) 이 말씀은 12절 상반절에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3) 즉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흑독하신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고 독실한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겸손히 의지해야 한다.

연구자료

기름 부음의 의미

1. 기름 부음의 의미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붓는 의식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즉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는 의식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성별(聖別)을 의미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출 29:36; 30:26; 40:10; 레 8:11; 민 7:1).

2.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구약 초기까지는 주로 제사장들만 성별된 자로 취급을 받았으므로 그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었다(출 30:23; 레 8:10). 그러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임명될 때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삼상 10:1-16) 성별된 자의 범위가 확대되어졌다. 한편 왕상 19:16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선지자직을 제송할 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족장들(시 105:15)과 바사 왕 고레스(사 45:1)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묘사되어 있으나 이것은 그들의 사명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결코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비롯해 왕,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제충만이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전형(典型)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서 실제적으로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직능을 예표하는 의식이었다. 이러한 예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라는 말 역시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에 의하여 성취되어졌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세 직능을 온전히 소유한 중보자로서(딤후 2:5)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가 되셨다.

제 3 편 여호와와의 구원

단락구분 1-2 대적에게 둘러싸이다 / 3-4 역경 중에서 부르짖다 / 5-6 아짐의 확신 / 7-8 다시 기도하다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
 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셀라)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
 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나이다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셀라)
 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불드심이로다

6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
 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셀라)

1. ㉠ 본시(本詩)의 내용과 그 교훈을 말하라.

- ㉠ (1) 본시에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역경 중에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다윗은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고 천만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극심한 위기와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를 불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이다.
 (2) 이 표제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본시를 지을 때의 배경을 알 수 있다. 즉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하여 도망하는 처지에서 본시를 지었다(삼하 15:14-17).
 (3) 이때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환난기였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다.
 (4) 이처럼 우리도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구원을 호소하여야 한다.

3. ㉢ 다윗은 기도를 시작할 때 자기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 2절)

- ㉢ (1) 다윗은 기도를 시작할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와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다.
 (2) 여기에서 다윗은 '많은지요', ' 많소이다', '많은 사람' 등의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대적(對敵)의 수가 매우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종교 문제를 들춰서 그를 비난하였는데(2절)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충격적인 비난이었고 그를 절망케 하는 비난이었다.
 (4)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종교 문제에 비난을 받을 때에라도 절망하지 말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며 기도해야 한다.

4. ㉣ '나를 가리켜'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나를 가리켜'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남쉬>로서 직역하면 '내 영혼에 대하여' (of

my soul)가 된다.

- (2) 즉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의 가장 깊은 부분인 영혼에까지 소망이 없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 (3)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 만큼 모욕스런 말이 없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환난 가운데는 이런 극한 모욕과 비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5. **Q** 다윗의 대적들이 비난한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2절)

- A** (1)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비난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 (2)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난한 것은 다윗이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엄청난 위협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던 사실(삼상 17:37)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 (3) 즉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전에 다윗이 구원받은 사실마저 우연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다.
- (4) 왜냐하면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일을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한 나머지 인간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 (5) 이렇게 진실한 성도를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멸망이다(참조, 마 21:44).

6. **Q** '셀라'라는 말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2절)

- A** (1) 다윗은 '셀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대적들이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모독의 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2) 이와 같이 '셀라'는 노래의 화음을 표시하는 지시어로서 본서에서는 감정이 절정에 이르는 대목에서 3번 사용되었다(2, 4, 6절).
- (3) 한편 '셀라'의 말의 자세한 의미에 대하여는 본서의 서론 **Q** 10을 참조하라.

7. **Q**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부른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절)

- A** (1)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에 대한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 (2) 또한 히브리 원문에는 본질이 '그러나'(히, 왜)란 말로 시작함으로써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
- (3) 이처럼 우리도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현실을 극복하도록 해야 하겠다.

8. **Q** 다윗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3절)

- A** (1) 다윗은 주님을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
- (2) 이러한 고백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 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써 대적들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 (3) 즉 대적들은 막연하게 '도움 받지 못함'을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3가지 비유를 들어서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 (4) 이와 같이 우리도 대적들로부터 신앙에 관한 비난을 받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9. **Q** 다윗이 주님을 '나의 방패'로 비유한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A** (1) 다윗이 주님을 '나의 방패'로 비유한 것은 다윗 자신이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 (2) 여기서 '나의 방패'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겐 바아디>로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방패'라고 번역할 수 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눅 21:18).

10. ㉠ 다윗이 주님을 '나의 영광'으로 비유한 것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다윗이 주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허락하신 왕적 권위를 유지하고 지켜 주실 분이시라는 뜻이다.
 (2)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하면서 생명을 위협받는 입장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왕위까지 유지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방패처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고 성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11. ㉠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함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한 것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떳떳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2)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 도망을 할 때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숙이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다(삼하 15:30).
 (3) 이처럼 다윗이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자신이 밧세바를 빼앗고 충신 우리야를 죽인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삼하 12:11).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마저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을 성결케 하여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셨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고 더 이상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하신다(참조, 사 43:25; 히 10:17).

12. ㉠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4절)

- ㉠ (1) 다윗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라고 기도하였다.
 (2) 그가 '부르짖었다'고 한 것은 진지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참조, 7:1; 142:1).
 (3) 다윗은 외부적인 환난과 비방이 그를 에워쌀 때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4) 우리도 주위의 시험과 핍박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도록 해야 하겠다.

13. ㉠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응답하셨는가? (4절)

- ㉠ (1)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성산(聖山)'에서 응답하셨다.
 (2) 여기서 '성산'이란 당시 언약궤가 있던 시온 산을 가리킨다. 다윗은 비록 쫓기는 가운데 있었으나 언약궤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점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3) 다윗은 자기가 도피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언약궤 옮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삼하 15:24-26). 이것은 그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궤의 거처를 바꾸지 않았던 것을 말해 주고 있다.
 (4) 이제 다윗은 비록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언약궤를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기쁨으로 간증하는 것이다.
 (5) 이처럼 우리도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편리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

14. ㉠ 다윗이 누워 자고 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다윗이 누워 자고 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붙들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형인 <사마크>는 '세우다', '떠받치다' 라는 뜻이다.
- (3) 또한 다윗이 '누워 자고 깨었다' 고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든든히 떠받쳐 주시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다윗의 심령은 지극히 평온했고 또한 단잠을 잘 수 있었다.
- (5)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매우 큰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동요하지 않게 된다.

15. **㉠** 다윗은 자신의 담대한 마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6절)

- ㉠** (1) 다윗은 자신의 담대한 마음을 '천만인(千萬人)이 나를 들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다.
- (2) 이러한 다윗의 담대함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결과이다.
- (3)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성도는 그가 직면하는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사자같이 담대하여신나(잠 28:1).

16. **㉠** 다윗은 다시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7, 8절)

- ㉠** (1) 다윗은 다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청하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 (2)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후였다. 왜냐하면 7절 후반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다윗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나(4절) 자만하지 않고 평안한 중에서도 다시 기도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 (4)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다.

17. **㉠**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7절)

- ㉠** (1) '악인의 이' 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마치 야수(野獸)와 같이 잔인하고 강한 존재이었음을 암시한다.
- (2) 야수는 그 날카로운 이가 꺾이게 되면 다른 짐승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잡은 짐승을 먹을 수도 없는 무력한 위치에 떨어지고 만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가장 큰 무기를 파괴시키심으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심을 의미한다.

18. **㉠** 다윗은 백성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가? (8절)

- ㉠** (1)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축복을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에게 내려 주시기를 기도했다.
- (2) 여기에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한 것은 인생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경험한 다윗은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서 자기와 동일한 축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구하였던 것이다.
- (4)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자마다 주위의 영혼들을 위하여 이러한 중보 기도(中保祈禱)를 해야 할 것이다.

제 4 편 주께서 주신 기쁨

단락구분 : 1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는 기도 / 2-4 인생들에게 회개를 권고하다 / 5 인생들에게 신앙을 권고하다 / 6 선행(善行)을 위한 기도 / 7-8 주께서 성도에게 주신 기쁨

1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재물을 구하겠는고(셀라)

3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다

4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이다(셀라)

5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이다

6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 ㉠ 본시(本詩)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하라.

- ㉠ (1) 본시는 기도로 시작하여(1절) 인생들에게 회개와 신앙을 권고하고(2-5절) 다시 여호와께로 향하여 기도하며 그를 신뢰하는 내용이다(6-8절).
- (2) 본시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전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기도하는 신앙인의 담대한 모습이다.
- (3) 기도하는 신앙인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욱 큰 기쁨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큰 기쁨을 주신다.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러한 기쁨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된다.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이다.
- (2) '영장(伶長)'이란 말은 성전 음악의 지휘자를 가리키는데 본시의 표제문에서 처음 나오며 시편 전체에 걸쳐 55번 나온다.
- (3) '현악(絃樂)'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길롯>으로 줄로 타는 악기를 말한다.
- (4) 따라서 본시는 노래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현악기의 반주를 곁들여 불리어지는 음악적인 시이다.

3. ㉠ 본시가 저술된 때는 언제인가?

- ㉠ (1) 본시는 3편과 같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쓰여졌는데 3편보다는 후에 저술되었다.
- (2) 본시와 3편은 운율적인 구성에서 매우 비슷하다. 짧은 절(1, 2절), 짧은 대구(3, 4절) 그리고 긴 박자의 서정시형(5-8절) 등이 그러하다.
- (3) 또한 본시는 연(聯)의 구분도 3편에서와 같이 '셀라'라는 말을 도입하여 표시하고 있다(2, 4절).

- (4) 그리고 4:6과 3:2에서 원수의 말을 인용하고 4:8과 3:5에서 평안한 잠을 묘사한 것은 두 시가 동시대에 저술되었음을 입증하여 준다.
- (5) 그러나 4:2의 '어느 때까지'라는 말과 4:6에서 원수의 약해진 말은 본시가 3번보다 후에 쓰여졌음을 보여 준다.

4. **㉠ '내 의(義)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가? (1절)**

- ㉠** (1)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헤 체데크>인데 정의로운 자, 정의를 창조한 자, 오해받고 박해받는 정의로운 자들을 옹호하는 자라는 뜻이다.
- (2) 그러므로 여기서 '의'라고 한 것은 다윗에게 속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 (3)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내어 놓을 만한 의가 없기 때문에 (롬 3:2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인하여 구원 역사를 전개하신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라는 의미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5. **㉠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는가? (1절)**

- ㉠** (1)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곤난(困難) 중에 자기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을 회상하며 말하고 있다.
- (2)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풀어 쓸 때 '나를 좁은 곳에서 넓은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된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진퇴 양난(進退兩難)에 있는 다윗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여 번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이다.
- (4)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과 신실(信實)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

6. **㉠ 다윗은 기도할 때 자기를 어떻게 여겨 달라고 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나를 긍휼(矜恤)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다윗은 전에 자기가 곤난 중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지금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하는 것이다.
- (3) 이러한 말은 다윗이 자주 부르짖는 표현이다. 그는 시편 전체를 통하여 이 말을 수없이 여러 형태로 언급하고 있다(5:2; 6:2; 9:13; 27:7; 30:10 등).
- (4)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7. **㉠ 다윗은 인생들을 향하여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가? (2절)**

- ㉠** (1) 다윗은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꾀활(詭譎)을 구하겠는고'라고 소리를 높여 책망하고 있다.
- (2) 이 말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가 헛된 것임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이다.
- (3)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사람을 향하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8. **㉠ '인생들이'라고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2절)**

- ㉠** (1) '인생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베네이쉬>는 '사람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대중과 구별되는 뛰어난 사람을 의미한다(참조, 49:3; 62:10).
- (2) 즉 다윗은 그의 공격의 화살을 압살롬과 그 도구가 되어 버렸던 귀족 집단을 향해서 쏘았다.

- (3) 다윗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도 꺾박하는 인생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꺾박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도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못할 것이다(마 10:29; 눅 21:18).

9. Q '허사를 좋아하고'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2절)

- A (1) '좋아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에하분>은 '사랑하다' (love)라는 의미이다.
- (2) 또한 여기서 '허사' (虛事)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헛된 도모를 가리키는 말이다.
- (3) 결국 당시 다윗을 대적하던 암살름의 무리는 헛된 일에 몰두하여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10. Q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3절)

- A (1)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 (2) 여기서 '경건한 자'란 악하고 거짓된 행위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를 말한다(약 1:27).
- (3) 다윗은 악한 일을 저지른 요압에 대하여 타협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죄악을 용납하지도 않았다(삼하 3:28; 왕상 2:5, 6).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 (5)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택함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히 4:16).

11. Q 다윗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4절)

- A (1) '떨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게주>는 '분내다', '괴로와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 (2) 따라서 '떨며 범죄치 말라'고 한 것은 과거에 범죄한 사실을 분하고 괴롭게 여기면서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는 뜻이다.

12. Q 다윗은 범죄하지 않도록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가? (4절)

- A (1) 다윗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리에 누워 심중(心中)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 (2) 즉 다윗은 범죄하기 쉬운 인생들에게 선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꼼꼼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 (3) 사람은 분주한 일상 생활 중에서는 경솔히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범죄를 피할 수 있다.
- (4) 성도들도 비록 바쁜 일과(日課)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13. Q 다윗이 인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한 내용은 무엇인가? (5절)

- A (1) 다윗은 인생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라는 권고를 하였다.
- (2) 다윗이 이러한 권고를 한 이유는 당시 암살름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 헛된 경배를 하였기 때문이다.
- (3)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동반(同伴)되지 않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사 1:13)
- (4)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의로운 제사는 어떤 제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애통히 여기는 상한 심령임을 기억해야 한다(51:16, 17).

14. Q 여러 사람의 질문은 무엇인가? (6절)

- A (1) 다윗의 모든 권고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질문하기를 '우리에게 선(善)을 보일 자 누

구노'라고 하였다.

- (2) 이러한 질문은 상한 심령으로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생활을 하고 싶는데(5절) 어떻게 하면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가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사람들은 선한 일에 권고를 받고도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다.

15. **㉠** 여러 사람의 질문을 듣고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6절)

- ㉠** (1) 여러 사람의 질문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라고 기도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은연 중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다.
- (2) 즉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듯 도와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참조, 42:5, 11).
- (3)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비로소 죄악의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16. **㉠**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7절)

- ㉠** (1)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도우심을 받고 있는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다.
- (2) 다윗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영적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위로나 기쁨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이다.
- (3)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의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요 15:11).
- (4) 이러한 기쁨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요 16:22).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세상의 빛이 되어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17. **㉠** 다윗은 자기의 평안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8절)

- ㉠** (1)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였다'고 말하였다.
- (2) 즉 다윗은 아무리 위험한 것이 그를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전혀 불안(不安)함을 느끼지 않고 침대에 눕자마자 곧 단잠에 빠질 정도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참조, 127:2).
- (3) 이러한 평안함은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다(요 14:27). 다윗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은 모두 이런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18. **㉠** 다윗은 자기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고백했는가? (8절)

- ㉠** (1) 다윗은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다윗은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
- (3) 하나님만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며(신 32:12)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게 하셨다(44:2, 3).
- (4) 이와 같이 천국을 향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며 결코 해(害)를 당치 않을 것이다(참조, 23:4).

제 5 편 악인의 심판에 관한 기도

단락구분 1-2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다 / 3 아침에 기도하다 / 4-6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 7 다윗의 신앙적 결심 / 8-10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 11-12 성도가 누릴 복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4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5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서지 못하시며

6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7 오직 나는 주의 동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의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

배하리이다

8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공개 하소서

9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증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10 하나님이며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피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11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1. ㉠ 본시(本詩)에서 다윗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 ㉠ (1) 본시에서 다윗은 많은 악인들의 횡포와 죄악에 괴로워하면서 그 악인들을 처치해 주시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 (2) 다윗은 특별히 행악자들의 실상(實像)을 폭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본시의 많은 부분(4-10절)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 (3) 그러므로 다윗 자신은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있다(7절).
- (4)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의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결심해야 하겠다.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시, 영장(伶長)으로 관악(管樂)에 맞춘 노래'이다.
- (2) '영장' (히, 메넛체카)은 성가대의 지휘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관악' (히, 네킬로트)은 피리와 같이 부는 악기를 가리키는데 이 악기는 주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돕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왕상 1:40; 사 30:29).
- (3) 또한 '노래'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즈모르>는 세속적인 노래와 구별되어 예배 때만 사용되던 노래를 가리키는 말이다.
- (4) 이러한 표제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본시가 다윗의 저작이며 성전에서 악대의 지휘자를 따라 부는 악기의 반주와 함께 연주되었던 거룩한 노래임을 알 수 있다.

3. ㉢ 본시가 쓰여진 시기는 언제인가?

- ㉢ (1)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 바로 직전의 짧은 기간 중에 쓰여졌다.
- (2) 이때 다윗은 자신에 대한 무서운 음모가 그의 원수들에 의하여 꾸며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다.

- (3)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큰 환난을 당하고도 신앙을 잃지 않고 잘 견뎌 낼 수 있었다.
- (4) 우리도 평소에 기도하기를 힘쓰되(골 4:2) 특별히 환난의 예고를 들을 때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눅 22:46).
4. **㉠**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1, 2절)
- ㉡** (1) 다윗은 자기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 (2) 다윗은 이 한 가지 내용을 '귀를 기울이소서', '통촉하소서', '들으소서' 등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 (3) 이것은 중언 부언(重言復言)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면서 호소하는 기도를 의미한다.
- (4) 성도들은 입술에 부친 형식적인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나라 오는 기도를 해야 한다.
5. **㉠** '나의 심사(心思)를 통촉(洞燭)하소서'란 무슨 의미인가? (1절)
- ㉡** (1)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란 말은 다윗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깊은 사정들을 살펴 달라는 의미이다.
- (2) 여기서 '심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기>은 하나님께 쏟아 있는 마음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다윗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다.
- (4) 성도들도 기도할 때 상한 심령을 주께 가지고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참조, 62:8).
6. **㉠**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른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2절)
- ㉡** (1) '나의 왕'이란 말에 있어서 '나의'란 말은 다윗의 신앙을 잘 나타내어 준다. 즉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명령하시는 분임을 믿는 신앙을 나타낸다.
- (2)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왕권을 인정하여 고백한 것은 매우 귀한 신앙이 아닐 수 없다.
- (3) 결국 다윗은 왕인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낮추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있어서 유일한 왕이 되심을 증거한 것이다.
- (4) 우리도 아무리 높은 신분에 올라갈지라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증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해야 한다.
7. **㉠** 다윗은 특별히 언제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3절)
- ㉡** (1)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시각을 아침으로 말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겠다고 하였다.
- (2) 당시 제사장이 드리던 매일 아침과 저녁의 희생은(민 28:4) 성도들에게 아침과 저녁의 기도라는 시간을 지정하게 하였다.
- (3) '기도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락>은 '가지런히 벌려 놓다'라는 말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은 상태를 뜻한다.
- (4) 이처럼 다윗은 아침 제사를 드리듯이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으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다렸다.
- (5)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규칙적인 제사와 같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매우 필요하다.
8. **㉠**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자들을 열거하라 (4-6절).
- ㉡** (1)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4절). 즉 빛과 어두움을 서로 사귄 수가 없듯이 악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 (2)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目前)에 서지 못한다(5절). 그들은 오히려 주께 버림을 당하고 파멸에 처하게 될 것이다(73:3, 18).
- (3) '행악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5절). 여기서 행악자란 참되고 순수한 면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미움 받는 것은 당연하다.
- (4) '거짓말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이다(6절). 이들은 '피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니 거짓말을 통해서 무죄한 자로 피를 흘리게 하는 독설가(毒舌家)를 가리킨다.
- (5) 위에 열거한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악들을 미워하시듯 우리도 마땅히 죄악들을 미워하여야 한다.

9. Q 악인들의 당할 운명은 어떠한가? (4-6절)

- A (1) 악인들의 당할 운명은 '멸망'이다(6절).
- (2) 여기서 악인들이란 보통 악인이 아니라 극악(極惡)한 자, 곧 하나님 원수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용납지 않으시기에 이런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고 멸하신다.
- (3)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처치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의 일시적인 번영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의구심을 갖지 말고 죄악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10. Q 악인들의 행동을 보고 난 후 다윗은 무엇을 결심했는가? (7절)

- A (1) 다윗은 악인들의 행동을 본 후 신앙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결심했다. 즉 '오직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함으로... 경배하리이다'라고 결심했다.
- (2) 당시 다윗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흘리기와 거짓말로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으나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지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 (3) 이것이 성도가 본받아야 할 참된 경건이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경건은...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하였다(약 1:27).

11. Q 다윗은 무엇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였는가? (7절)

- A (1) 다윗은 '주의 풍성한' 인자(仁慈)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 (2)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의(義)나 선행(善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다.
- (3)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12. Q 다윗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인데 다윗이 '주의 집' 혹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7절)

- A (1) 다윗이 '주의 집' 혹은 '성전'이라고 부른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윗 당시 시온에 설치했던 '여호와와 장막'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2)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도 '장막'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다(삼상 1:9; 3:3; 삼하 12:20).
- (3)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성전은 어떤 건물 자체를 가리키기 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했다(창 28:17).
- (4) 신약 시대에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고전 6:19).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함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 뵈을 수 있다(참조, 마 5:8).

제 6 편 병상에서 지은 참회의 시

단락구분 1-3 주의 긍휼을 간구하다 / 4-5 사망에서의 구원을 간구하다 / 6-7 회개의 눈물 / 8-9 기도의 응답 / 10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다

1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4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8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췌이여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1. ㉠ 본시(本詩)의 내용과 중심 사상을 설명하라.

- ㉠ (1) 본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매를 맞으면서도 주의 긍휼과 구원을 간청하고 있다. 이러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의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간다.
 (2) 본시는 일곱 회개시(6, 32, 38, 51, 102, 130, 143 편) 중 하나로 취급된다.
 (3) 비록 다윗은 본시에서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4) 그래서 그는 주의 인자하심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였다.
 (5) 우리는 본시에서 죄가 가져다 주는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크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이다.
 (2) 본시는 4편과 같이 영장(노래 지휘자)이 이끄는 가운데 현악(줄로 타는 악기) 스미닛의 반주로 가창되던 노래이다.
 (3) '스미닛'은 '제 8번째'(eighth)라는 뜻으로 본시가 불리워진 특정한 음율을 지적하는 말로 보고 있다.

3. ㉠ 본시에 나타난 다윗의 고통은 어떠한 것인가?

- ㉠ (1) 본시에 나타난 다윗의 고통은 육체적 질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다윗 자신의 죄악과 원수들의 핍박에 그 원인이 있었다.
 (2) 물론 다윗의 겪은 정신적 고통은 그의 육체를 병약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 2차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3) 이와 같이 성도는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피로와한다. 이러한 고통을 느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

4. ㉠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분노로서 징계하지 마시기를 간구한 것이다.
- (2) 여기서 ‘주의 분으로’란 말과 ‘주의 진노로’란 말은 히브리 어법에서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는 하나의 역설체(力說體)이다.
- (3) 이렇게 다윗이 역설체를 사용한 것은 당연히 받을 징계는 받겠다는 뜻이나 하나님의 분노에서만은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분노가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합3:2).

5. Ⓞ 다윗은 자기의 고통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 3절)

- Ⓐ (1) 다윗은 자기의 고통의 상태에 대하여 ‘내가 수척하였고…나의 뼈가 떨리고…나의 영혼도 심히 떨린다’라고 표현하였다.
- (2) 여기서 ‘수척하였다’는 것은 약해지고 피곤하여 육체가 여위어 마른 것을 의미한다.
- (3) 또한 ‘뼈가 떨린다’란 말은 다윗의 슬픔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자기 몸 전체를 휘어잡고 흔들 정도였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 (4) 그리고 ‘영혼도 심히 떨린다’는 것은 육체적 고난의 원인이 영혼에 있는 것을 밝히면서 마음의 내면적인 번민이 매우 무겁고 괴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태의 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6. Ⓞ 다윗은 깊은 고통의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2절)

- Ⓐ (1) 다윗은 영육간의 깊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나를 고치소서’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4:1;5:2;9:13등) 자기의 죄인 됨과 연약함을 시인하는 말이다(참조, 눅18:13).
- (3) 또한 ‘고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여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자기의 죄인 됨을 시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해야 할 것이다.

7. Ⓞ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라는 말은 ‘언제까지 당신은 당신의 자비 베푸시는 것을 지연하실 것입니까’라는 뜻이다.
- (2)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90:13).
- (3) 이처럼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갈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환난과 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8. Ⓞ ‘돌아와’란 말에서 다윗의 어떠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가? (4절)

- Ⓐ (1) ‘돌아와’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의 심정을 보여 준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버린 듯이 생각하면서 매우 안타까와 하고 있다.
- (2) 이러한 다윗의 갈급한 심정은 그가 더없는 위기에 봉착하여 있음을 의미한다.
- (3)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한다.

9. Ⓞ 다윗은 무엇을 인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는가? (4절)

- Ⓐ (1)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였다.

- (2) 여기서 '인자' (仁慈)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또는 은총을 의미하는 말이다.
- (3)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한 것은 그가 아무리 심한 고통을 받는다 해도 자신의 공로로는 구원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4) 우리들도 어려운 곤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10. **㉠** '음부(陰府)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절)
- ㉠** (1) '음부에서...누구리이까' 하는 말은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강력한 표현이다.
- (2) 여기서 '음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스올>은 죽은 자의 무덤 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지하의 장소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 (3) 다윗이 이러한 음부에 가기를 꺼려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상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 (4)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전10:31).
11. **㉠** 다윗은 밤마다 회개했던 것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6절)
- ㉠** (1) 다윗은 탄식하고 울어서 피곤할 정도까지 회개했으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寢床)을 띄우며 요(褥)를 적셨다'고 묘사하고 있다.
- (2) 이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것은 시적 표현으로 일종의 과장법이지만 다른 시인들처럼 자신의 슬픔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 (3) 다윗은 이 귀절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다.
- (4) 이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마5:4). 죄를 원통히 여겨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임할 것이다.
12. **㉠** 다윗의 눈이 쇠하며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다윗은 근심 때문에 눈이 쇠하여졌으며 그의 모든 대적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 (2) 다윗의 근심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말한다. 그는 눈이 피곤해질 정도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다. 또한 다윗은 대적들의 불신앙과 타락을 인하여서도 울며 괴로와했다.
- (3) 이렇게 죄로 인해 근심하고 괴로와하여 눈이 쇠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밝아진다. 왜냐하면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마5:8).
13. **㉠** 다윗은 행악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명하는가? (8절)
- ㉠** (1) 다윗은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는 말로 엄히 명령하고 있다(8절).
- (2) 여기서 '나를 떠나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박해하거나 모함하지 않도록 멀리 떠나가 버리라는 뜻이다.
- (3) 이렇게 다윗이 행악자들을 떠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다(8,9절).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다윗 편에 계시기에 다윗을 박해하고 모함하는 모든 자들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다.
- (5) 이같이 기도하는 자는 아무리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

14. **㉠**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여 말했는가? (8, 9절)

- ㉠** (1)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했다. 즉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들으셨음이어...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했다.
- (2) 여기서 다윗은 2번은 '들으셨다' (히, שָׁמָע)라는 완료형으로, 1번은 '받으시리로다' (히, יִקְרָא)라는 미완료형으로 표현하였다.
- (3) 이렇게 다윗이 과거로 말한 것은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미래로 말한 것은 앞으로도 다윗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현재의 문제 뿐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신다.

15. **㉠**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원수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0 절)

- ㉠** (1)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다윗의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었다. 또한 그들은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 (2)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로운 자를 대적하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다. 그리고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고 쫓겨 남을 당하고 말 것이다.
- (3) 우리도 많은 대적에 둘러싸였을 때 그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겠다.

화보자료

쇠퇴한 눈매를 지닌 노파. 옆의 사진은 세파(世波)에 시달려 쇠한 눈매를 짓고 있는 노파의 모습으로서 본시 6절의 말을 상기시켜 준다.



본시는 다윗의 참회시이다. 그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자신의 눈이 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6절)이 순전히 자신의 죄때 문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기까지 참회하였다(5절).

제 7 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단락구분 1-2 구원의 호소(呼訴) / 3-5 다윗이 자신의 결백(潔白)함을 말한다 / 6-10 하나님께서 재판을 청구하다 / 11-13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시다 / 14-16 악인의 종말 / 17 다윗의 찬송

1 여호와 하나님이며 내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2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3 여호와 하나님이며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5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6 여호와와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개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7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8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9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10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1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갈으심이여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14 악인이 죄악을 해산함이며 잔해를 잉태하여 궤혈을 낳았도다

15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듬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17 내가 여호와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 ㉠ 본시(本詩)에 나타난 다윗의 결백을 설명하라.

- ㉠ (1) 본시는 매우 절박한 강력한 처한 다윗이 자신의 결백함을 보이면서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 (2)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양심을 지키며 결백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다윗의 결백은 결코 인간적인 의(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믿음 자체를 가리킨다.
- (4)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
- (5)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록 우리가 억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2. ㉡ 본시의 표제어는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식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해 여호와께 한 노래'이다.
- (2) '식가온'은 노래의 분위기를 지정하는 말로 정열적으로 노래 부를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추정되나 아직 그 뜻이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이 말은 합3:1에서 '시기오 낫'이란 복수로 나타난다.
- (3) '베냐민인 구시'는 이곳에서만 언급된 인물로 삼상 24:9에 보이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인물 중의 하나였던 것 같다.

- (4) 이러한 표제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의해 박해를 받던 시기에 자기를 모함하는 말을 듣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며 또한 본시를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 다윗을 쫓는 자들은 무엇과 같았는가? (1, 2절)

- ㉠** (1) 다윗을 쫓는 자들은 사람을 찢고 뼈를 부수는 사나운 사자(獅子)와 같았다.
 (2) 이들은 다윗에게 너무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3)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듯하다가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변절하는 경우가 많다.
 (4) 그러나 다윗은 가장 아프게 박해와 위협을 겪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신뢰를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었다.
 (5) 우리도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는 대적이 강할수록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로 피하여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4. **㉠** '주께 피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주께 피한다' 는 말은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는 신앙적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참조, 11:1; 46:1).
 (2) 다윗은 자기를 해하기 위해 혈안(血眼)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환난 중에서 자기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친구를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
 (3) 오직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구원을 호소하며 기도하였다
 (4) 이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보다 먼저 다윗과 같은 신앙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구원과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5. **㉠** '이것을 행하였거나' 라는 말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3, 4절)

- ㉠** (1) '이것' 이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의 역적 음모를 가리킨다.
 (2) 당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주위에 아첨하는 자들로부터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참소하는 말에 그가 현혹되었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24:9).
 (3)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다윗은 사울에 대한 역적 음모를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런 그의 태도는 굴 속에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삼상 24:1-15).
 (4)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다윗의 생활 자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6. **㉠**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거했는가? (5절)

- ㉠** (1) 다윗은 자신을 쫓는 자들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다면 자신이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여도 좋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거하였다.
 (2) 이렇게 다윗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행하면 혹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다윗처럼 담대히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7. **㉠** 다윗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6절)

- ㉠** (1) 다윗은 여호와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즉 그는 여호와께서 진노로 일어나 사 대적들의 노를 막아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2) 여기서 '진노로 일어나사' 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적(意志的)인 행동으로 당신의 진노를 대적들에게 나타내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 (3) 이때 대적들도 분노함으로 발악을 하나(참조, 2:1) 그들의 분노는 악한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한 분노에 상당한 진노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 (4)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불의한 자들의 분노에 대해 의로운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8. **㉠**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다' 함은 무슨 뜻인가? (6절)

- ㉠** (1)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다' 함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 제도를 규정하셨다는 뜻이다.
- (2)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에 규정하신 심판 제도와 법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다(참조, 롬 13:4).
- (3) 이렇게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억울한 일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참조, 8절). 그는 반드시 판단하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다(눅 18:7, 8).
- (4)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특권이 성도에게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환난과 위기에 처할 때 낙망치 말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눅 18:1).

9. **㉠**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따라 판단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8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라고 했다.
- (2) 여기서 다윗이 '나의 의'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가리키며 '내게 있는 성실함' 이라고 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의 생활을 가리킨다.
- (3) 이러한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며 또한 구원하여 주신다(참조, 창 15:6).
- (4)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의(義)에 이르는 믿음과 성실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하겠다.

10. **㉠**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감찰하신다고 하였는가? (9절)

- ㉠** (1)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心腸)' 을 감찰하신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심장' 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켈랴트>는 본래 콩팥을 가리키는 말로 히브리인들은 콩팥이 감정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감정과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며 의롭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정확히 보수하실 것을 거듭 선언하셨다(렘 17:10; 계 2:20).

11. **㉠** 다윗은 자기의 방패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였는가? (10절)

- ㉠** (1) 다윗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고 고백하였다.
- (2) '마음이 정직한 자' 는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완전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
- (3)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정직한 것과 그의 믿음이 진실했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방패' 라고 불렀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거짓을 미워하고 늘 정직한 마음, 곧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12. **㉠**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란 무슨 뜻인가? (11절)

- ㉠** (1) '매일' (히, 베클 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항상' 이란 뜻을 가진다. 따라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란 '계속하여 악인들에게 진노로 처벌하시는 하나님' 을 뜻한다.
- (2)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심은 흥분이나 들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의에 대한 열심을 나타낸다.
- (3) 이처럼 언제든지 공의를 따라 열심으로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4) 성도들은 이러한 재판장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로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13. **㉠**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12, 13절)**

- ㉠** (1)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칼을 갈고 활시위를 당기고 죽일 기계를 준비하심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 (2) 공동 번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칼을 갈고 화살을 때워 시위를 당겼다가 죽음의 칼을 들고 활촉에 불붙여 겨누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어 심판의 즉각성을 보여 준다.
- (3)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는 이유는 '죄인이 회개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롬 2:4).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보여 준다.

14. **㉠** **'화전' (火箭)이란 무엇인가? (13절)**

- ㉠** (1) '화전'이란 불을 붙여 쏘는 화살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 (2) 또한 이 말은 영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마귀의 것으로 사용될 때는 '시험'의 뜻이 있고(엡 6:16)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될 때는 '심판'의 뜻이 있다.

15. **㉠** **'악인이 죄악을 해산(解産)한다'고 함은 무슨 뜻인가? (14절)**

- ㉠** (1) '악인이 죄악을 해산한다' 함은 악인의 마음과 생활의 결과가 죄악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 (2)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는 과정은 '잔해를 잉태하여 궤흘을 낳는 것'이다.
- (3) 여기서 '잔해' (殘害)는 남을 해하려는 행위를 가리키고, '궤흘' (詭譎)은 남을 해하려는 계획과 속임수를 말한다.
- (4) 이렇게 악인들은 먼저 남을 해하려고 나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옳지 못한 속임수의 방법으로 죄악을 저지른다.

16. **㉠** **악인의 궤흘의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15, 16절)**

- ㉠** (1) 악인은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궤흘을 낳지만 그 결과는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즉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잔해와 포박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된다.
- (2) 이러한 실례(實例)로 우리는 에스더에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궤흘을 냈다가 도리어 자신과 자기 가족의 멸망을 자초한 하만의 경우를 볼 수 있다(에 9:25).
- (3) 이렇게 자기 궤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의 법칙이다(참조, 9:15; 57:6; 잠 26:27; 28:10).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악인의 궤흘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믿음의 순결을 지키도록 힘써야 하겠다.

17. **㉠** **다윗은 무슨 말로 그의 기도를 맺고 있는가? (17절)**

- ㉠** (1) 다윗은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기도를 맺고 있다. 즉 그는 '여호와와의 의를 따라' 감사했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 (2) 여기서 '여호와와의 의'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구원하시고 지켜 주시는 데 있어서의 신실성을 의미한다.
- (3) 또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와의 이름'이란 하나님 자신을 그의 이름과 동일시하여 그의 지극한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기도대로 자신을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한 것이다.
- (5)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같은 응답의 확신을 받게 되며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제 8 편 주의 영광과 사람의 영화로움

단락구분 1 하늘과 땅에 나타난 주의 영광 / 2 주께서 젓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다 / 3-4 우주와 비교된 사람 / 5-8 사람의 영화와 존귀 / 9 주님을 송축하다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2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젓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 ㉠ 본시(本詩)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

- ㉠ (1) 본시에서 다윗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위대함을 찬송하고 있다.
 (2)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광대한 우주와 만물에 대한 관리자로 세우신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3) 여기서 우리는 광대한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보다도 극히 작은 존재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4) 이러한 관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자로 보내 주셨던 것이다.
 (5) 따라서 본시에 나타난 인간의 영화와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히 회복되어진다.

2. ㉡ 본시의 표제문에 대하여 말하라.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딛에 맞춘 노래'이다.
 (2) 여기서 '깃딛'이란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에서 다윗이 배운 악기 또는 노래의 분위기 등을 지시하는 용어이다.
 (3) 따라서 본시의 표제어는 본시가 다윗의 저작이며 성가대 지휘자에 의해 일정한 분위기로 불리어지던 노래임을 가르쳐 준다.

3. ㉢ '주의 이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본시에서 '주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시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 주는 일에 더욱 관련되는 말이다.
 (3)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다윗은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며 하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하고 있다.

4. ㉣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2절)

- Ⓐ (1)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올렘>은 어느 정도 성장하여 떠듬떠듬 말할 수 있는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 (2) 히브리 여인들은 비교적 늦게까지 어린아이들을 젖먹이는 풍속이 있으므로 '어린아이' (히, 올렘)는 '젖먹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었다(Delitzsch).

5. ⓐ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란 무슨 뜻인가? (2절)

- Ⓐ (1) '어린아이와...세우신다'고 함은 하나님께서 말을 잘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뜻이다.
- (2) 즉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아무런 꾸밈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대적들은 더 이상 대항할 말을 잃고 만다(마 21: 15, 16).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증거는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뚜렷하던지 아직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젖먹이까지도 하나님의 원수들의 횡포를 땅에 깔아 뭉개 수 있을 정도이다.

6. ⓐ 다윗은 우주를 누가 만드신 것으로 보고 있는가? (3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고 달과 별들을 베풀어 두셨다고 말함으로써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참조, 창 1:1).
- (2)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능력의 증거라는 뜻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 혹은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눅 11:20).
- (3) 이처럼 우리가 자연과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게 된다.

7. ⓐ 다윗은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 (4절)

- Ⓐ (1) 다윗은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
- (2) 4절에 쓰인 '사람' (히, 에노쉬)이란 단어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힘이나 능력보다는 인간의 허약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또한 '인자' (히, 벤 아담)라는 단어는 <아다마> (흙 또는 먼지)에서 만들어져 다시 먼지로 돌아갈 자임을 암시하는 말이다.
- (3) 이처럼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 속에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권고하신다.
- (4)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심과 사랑에 감탄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우주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창 1:26, 27).

8. ⓐ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하는가? (5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했다.
- (2) 여기서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본질에 가장 가까워서 빛나는 광채로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3) 이렇게 사람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화와 존귀를 누리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사람은 외형적인 면에서는 매우 허약하고 보잘것없으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지극히 영화로운 지위를 갖게 된다.

9. ⓐ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가? (6-8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 (2) 이러한 권한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적 사명’ (cultural mandate, 창 1:28)에 근거한다.
- (3) 그러나 그 후 범죄한 인간은 이 권한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자연에 의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로 전락되었다(창 1:17-19).
- (4) 따라서 만물 통치의 권한은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진다(참조, 고전 15:25-28; 히 2:8).
- (5)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를 믿어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참조, 계 22:5).
10. **Q** **다윗은 어떠한 말로 본시를 끝맺고 있는가? (9절)**

- A** (1) 다윗은 본시의 시작과 같은 어구로 끝을 맺고 있다. 즉 그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라고 했다.
- (2) 이것은 분명히 시적인 효과를 두고 1절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즉 우주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하여 알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3)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사물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야 하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화보자료

천사들의 합창. 아래의 사진은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5세기경의 계시록 사본 삽화의 일부분으로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다.



본시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 (1절)이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한계 내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시의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달과 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1, 3, 6-9절).

제 9 편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다

단락구분 1-3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다 / 4-10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 11-12 여호와를 찬양하라 / 13-14 공평히 여기기를 기도하다 / 15-20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 1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 2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 3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 4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 5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 6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 7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 8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 9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 10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 11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 12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 13 여호와여 나를 공평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 14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 15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승진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 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회개론, 셀라)
- 17 악인이 음부로 돌아감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도다
- 18 공평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함이여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 19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 20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1. ㉠ 본시(本詩)의 내용과 그 교훈을 말하라.

- ㉠ (1) 본시에서 다윗은 자기가 획득한 과거의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후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 실현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 (2) 그런데 본시는 다윗이 법궤를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긴 후에 암몬 자손을 정복한 사건(삼하 12:26-31)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시로 쓴 것 같다.
- (3) 그러나 다윗은 본시에서 어느 특정한 승리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과거에 체험했고 또 미래에 체험할 모든 승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다면 그와 동일하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고 또 미래에도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못랍벤에 맞춘 노래'이다.
- (2) 여기에서 '영장' (伶長)이란 성가대의 지휘자를 가리킨다. 또한 '못랍벤'은 '벤의 죽

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본시의 가락을 맞출 때 사용한 당시 잘 알려진 노래의 처음 부분을 가리킨다(J. Calvin).

3. **㉠** 본시의 형식상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형식상 특징은 히브리 알파벳의 답관체(踏冠體)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점이다.
 (2) '답관체'란 시의 연이나 절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시 형식(詩形式)을 말한다(참조, 서론 ㉠ 21).
 (3) 한편 이러한 답관체 형식의 목적은 시를 읽는 독자들의 기억을 도우려는 데 있다.
 (4) 이와 같이 답관체 형식으로 쓰여진 시를 '알파벳 시'라고 부르는데 시편에는 본시를 비롯하여 모두 9개의 시가 있다(9, 10, 25, 34, 37, 111, 112, 119, 145편).

4. **㉠** 다윗은 어떤 말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는가? (1절)

- ㉠** (1) 다윗은 감사하는 말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즉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라고 했다.
 (2) 다윗이 본시에서 그의 기도를 이런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곤경에 처한 자신(13절)에게 도움을 베푸시도록 하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즉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현재와 미래의 고난에도 은총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4) 이처럼 우리들도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돌아보고 먼저 감사하는 말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5. **㉠**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1절)

- ㉠** (1) 다윗은 '전심(全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서 '전심', 곧 '온 마음'이란 두 마음과 반대되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뜻한다(비교, 약 1:8).
 (2) 이처럼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했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까지 승리한 일들에 대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했다는 말이다.
 (3) 만일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의 지극히 적은 일부분이라도 자기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4) 이와 같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며(신 6:5) 또한 전심으로 감사하여야 하겠다.

6. **㉠** 다윗은 무엇을 전하겠다고 했는가? (1절)

- ㉠** (1) 다윗은 '주의 모든 기사(奇事)'를 전하겠다고 했다.
 (2) 여기서 '기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기적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3) 이렇게 다윗은 어떤 한 가지의 구원이나 승리를 언급하지 않고 자기의 생애를 통틀어 겪어 온 모든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기도한 것이다.
 (4)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이러한 구원 사건의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구원 사건이 다름아닌 하나님의 기사임을 깨닫고 전파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7. **㉠** 다윗은 어떻게 찬송하겠다고 하였는가? (2절)

- ㉠** (1) 다윗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 찬송하리니'라고 말하였다.
 (2) 여기서 다윗이 '주를 기뻐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만이 다윗의 기쁨의 원인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3)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는 진정한 찬송이 울려 나오게 되어 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세상의 소유물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놀라운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합 3:17-19).

(4) 우리 성도들도 신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만으로 기뻐할 때 언제든지 진정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

8. **㉠** 다윗은 원수들이 어디에서 넘어져 망하였다고 간증하는가? (3절)

- ㉠** (1) 다윗은 자기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였다고 간증한다.
 (2) '주의 앞에서' 라는 말을 원수들이 넘어지고 패망하는 원인이 다윗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3) 기드온 300 용사 앞에 미디안의 대군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기인한 좋은 예이다 (삿 7:9).
 (4) 우리들도 원수들이 전복되고 망할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패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 **㉠**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회고하고 있는가? (4-6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송사(訟事)를 변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셨던 것을 말하면서 그 결과 악인과 원수의 성읍이 무수하게 멸망당하였던 사실을 회고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전에 다윗이 부르짖었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음을 의미한다(참조, 7:11-16).
 (3) 이처럼 성도의 바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라고 했다(약 5:16).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

10. **㉠** 다윗이 '열방'(列邦)이라고 표현한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5절)

- ㉠** (1) 다윗이 '열방'이라고 말한 대상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공격한 무리를 가리킨 것으로서 그 무리가 대단히 큰 군대였음을 의미한다.
 (2)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군대를 아끼지 않고 징벌하시면서까지 그의 종 한 사람을 변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다.
 (3)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많은 무리의 패역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4:13).

11. **㉠**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신가? (7절)

- ㉠** (1)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위하여 예비하신 보좌에 영영히 앉아 계신다.
 (2) 여기에서 '심판을 위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의 권위와 직무를 가지고 계심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를 소유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하셔야 할 직무를 갖고 계신다.
 (3) 또한 '영영히 앉으셨다'란 말은 인간들이 제이무리 발악을 하고 기세를 올려도 하나님을 심판의 보좌에서 이끌어 내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4)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영영히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용기와 격려를 주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12. **㉠**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보좌에서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신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엄격한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보응을 주실 것을 의미한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의(義)로 심판하는 분이신 만큼 불의와 횡포가 처벌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이 세상에서 지나치는 것을 허용치 않으신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부당하고 잔혹하게 괴롭힘을 받을 때 우리의 억울함을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도록 하자(참조, 눅 18:1-8).

13. **Q**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9절)

- A** (1) 다윗은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山城)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였다.
- (2) 여기서 '산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가브>는 문자적으로 '언덕, 보루(保壘)로 사람이 적들에게 붙들리지 않으려고 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 (3) 따라서 다윗의 고백은 성도가 압제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압제와 환난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낙망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힘쓰기 앞서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

14. **Q** '환난 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A** (1) '환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밧차라>는 '끊어지다', '자르다'란 뜻을 가진 <바차르>에서 파생된 말이다. 따라서 '환난 때'란 모든 회생이 다 끊어져 대책이 서지 않는 위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극도의 환난과 압박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 (3) 또한 이 말은 성도들이 극도의 환난을 당하여 세상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발동(發動)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참조, 함 3:1-19).
- (4)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를 바라고 기다리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12).

15. **Q** 누가 주를 의지하는가? (10절)

- A** (1)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 이것은 '하나님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신앙은 '하나님 지식'에서 생성된다(참조, 롬 10:17).
- (2)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용어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시는 계시에 나타난 그의 모든 특성을 말한다.
- (3)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는 데에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게 알도록 해야 한다.

16. **Q** 다윗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는가? (11절)

- A** (1) 다윗은 성도들에게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권면한다.
- (2)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 (3) 여기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찬송이란 입술로만 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 (4) 성도들은 이와 같이 찬송과 전도를 연결지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진정으로 찬송할 때 주위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17. **Q**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란 무슨 뜻인가? (11절)

- A** (1)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란 이방의 모든 거짓 신도들로부터 구별된 살아 계시며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한다.

- (2)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소로 시온을 택하여 안식처로 만드셨기 때문이다(132:13).
- (3) 오늘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곧 시온이다.

18. **㉠**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는가? (12절)

- ㉠** (1) 다윗은 하나님을 ‘피흘림을 심문하시는 이’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고하게 피흘린 사람을 위하여 심문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잊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지라도 낙망치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계속하여 기도해야 한다.

19. **㉠**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는가? (13절)

- ㉠** (1)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矜恤)을 호소하는 기도를 한다.
- (2) 이것은 다윗이 이런 기도에서 앞서 1-12절에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고 난 후 이제 그 동일한 은총으로 자기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다.
 - (3)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상황은 매우 절박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 라고 부르며 자신의 끈고가 사망의 문턱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하였다.
 - (4)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매우 큰 끈고를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과거의 은총을 회상하며 더욱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해야 한다.

20. **㉠**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 무엇을 하겠다고 하였는가? (14절)

- ㉠** (1)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하였다.
- (2) 이렇게 다윗이 전도를 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대가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 (3)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왔고 이 기도를 할 때에도 이미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11절).
 - (4) 여기서 다윗은 주님을 찬송하며 전도하며 기뻐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려 한 것이다.
 - (5)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21. **㉠** 다윗은 악인의 운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5-17절)

- ㉠** (1) 다윗은 악인이 반드시 받게 되는 천벌과 그들의 운명을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말하고 있다.
- (2) 즉 악인은 자기가 판 응덩이에 빠질 격이요 또 제가 설치한 그물에 걸릴 것이요(15절) 제가 놓은 울무에 걸려 들고야 말 것이다(16절).
 - (3) 결국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악인의 운명은 최후로 ‘음부’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이다(17절).
 - (4) 다윗이 이렇게 악인의 운명을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은 1-14절까지의 기도에서 큰 확신을 받은 증거이다.
 - (5)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악인의 운명을 깨닫게 되며 또한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22. **㉠** ‘회개은’이란 말은 무슨 뜻이며 이 말이 사용된 목적은 무엇인가? (16절)

- ㉠** (1) ‘회개은’은 ‘묵상’이란 뜻을 갖는데 시를 읽을 때 잠시 멈추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표시로 사용되었다(Calvin).

(2) 즉 이 말은 '셀라'와 합하여 본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16절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상하도록 이끌고 있다.

23. **㉠** 다윗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가 어떠하리라고 말하는가? (18절)

- ㉠** (1) 다윗은 궁핍한 자가 항상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2) 이러한 표현에는 궁핍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 (3) 그러나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 후 하나님께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때에 강력한 손을 펴서 성도를 구원해 내신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또 원하시는 때에 구원해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24. **㉠**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기도하는가? (19-20절)

- ㉠** (1) 다윗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인생과 열방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한다.
- (2)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이다.
- (3)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눈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 구원자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다.
- (4) 이러한 기도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시는 날이 되면 모든 열방에게 두려운 심판자로 나타나셔서 모든 악의 세력과 권능을 부숴뜨리고 파멸케 하실 것이다.

연구자료

성경적 분류에 의한 찬송의 종류

성경에서 찬송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분류했다(엡 5:19; 골 3:19). 이러한 노래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뜻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시(Psalm)

이는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부른 노래로서 주로 본서를 가리킨다. 이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두 가지로서 응답송과 교성(交聲)이 있다. 응답송은 성가대와 회중이 서로 응답하듯 번갈아 부르는 것이며 교성은 성가대가 들로 나뉘어 부르는 것을 말한다.

(2) 찬미(Hymn)

이 노래는 보통 찬양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혼제의 내용이 들어간 것을 가리킨다. 즉 본서를 제외한 성경의 여러 노래들을 기초로 하여 교리나 예배에 필요하게끔 창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뜻한다.

(3) 신령한 노래(Spiritual Song)

이것은 보통 신앙적인 노래를, 세속적인 노래와 구분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으로서 성도의 신앙적 체험에서 우러난 찬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시대와 지방에 따라 독특한 신앙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제 10편 악인의 교만을 꺾으소서

단락구분 1-2 악인의 교만/3-4 악인의 불경건/5-6 악인의 형통/7-11 악인의 강포(強暴)/12-14 악인의 불경건을 하나님께 고발하다/15-18 악인의 멸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다

-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 2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죄에 빠지게 하소서
- 3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 4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 5 저의 길은 언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안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 6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 7 그 입에는 저주와 궤술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 8 저가 향촌 유별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의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 9 사자가 그 굴혈에 었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었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 10 저가 구꾸려 었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의

- 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 11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 13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 13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가
 - 14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나이다
 - 15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 16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 17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 18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 **㉠ 본시(本詩)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심을 탄식하면서 악인의 교만과 죄악상을 열거한 후 하나님께서 악인의 교만을 꺾고 성도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 (2) 우리는 본시에서 악인이 갖가지 죄악을 짓는 원인으로서 그들의 교만과 불경건을 보게 된다. 즉 그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멸시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악인은 단순히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 (4)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에게는 오직 멸망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
2. **㉠ 본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시에는 표제문이 없어 저자가 명시(明示)되지는 않았으나 학자들에 의해 다윗의 시로 인정되어 왔다.
 - (2) 독일의 구약학자 델리취(Delitzsch)는 본시가 앞의 시인 9편에 대해서 ① 똑같은 시의 형식인 4행 대구를 취하고 있으며 ② 특이한 표현들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9편의 저자인 다윗이 본시도 지었다고 주장한다.

3. ㉠ 본시와 9편과의 관계를 설명하라.

- ㉠ (1) 본시는 9편과 같이 ‘알파벳 시’에 속하는데 특별히 9편에 연속되는 알파벳(라뻬)으로 시작하고 있어 9편에 이어지는 속편(續篇)의 느낌을 준다.
 (2) 그러나 본시는 그 주제에 있어서 9편과 뚜렷하게 다르다. 즉 9편은 전적으로 이교도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고 있으나 본시는 이스라엘내의 악한 무리에 대한 탄원(歎願)을 다루고 있다.
 (3) 따라서 두 시는 한 개의 통일된 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문체의 유사성으로 보아 동일한 저자(다윗)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은 확실하다.

4. ㉠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질문했다.
 (2)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피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 감정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3)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의 불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확신으로 용기를 낸 것이다.
 (4)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심을 느낄 때에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계속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5. ㉠ 악인이 가련한 자를 군박(窘迫)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2절)

- ㉠ (1) 악인이 가련한 자를 군박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련한 자’(히, 아니)는 가난한 자, 곧 성도를 의미하며 ‘군박하다’(히, 달락)는 박해한다는 의미이다.
 (2) 따라서 우리는 교만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특성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 교만 때문에 무고한 자들을 박해하여 괴롭게 하면서도 가책을 받지 않는다.

6. ㉠ 결국 교만한 악인은 누구를 배반하게 되는가? (3절)

- ㉠ (1) 교만한 악인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마침내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게 된다.
 (2) 다윗은 3절에서 동의적 대귀법을 사용하여 이 사실을 밝힌다. 즉 ‘악인’과 ‘탐리하는 자(탐심을 부리는 자)’는 같은 인물이다.
 (3) 교만한 악인은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고 자랑하다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게 된다.
 (4)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마 6:24).

7. ㉠ 악인이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은 무엇인가? (4절)

- ㉠ (1)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멸시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2) 즉 악인은 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따라서 아무 보응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은 없다’라며 하나님을 무시한다.
 (3) 이것이 무신론(無神論) 사상의 근원이다. 무신론 사상은 교만한 마음으로 양심이 극도로 둔해졌을 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이다.

8. ㉠ 악인은 어느 정도까지 형통하였는가? (5,6절)

- ㉠ (1) 악인은 그 길이 언제든지 견고한 듯하게 보일 정도까지 형통한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듯하며 자기 적들을 멸시하고 ‘나는 요동치 않고 영원히 환난을 당치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형통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악인의 형통은 단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하나의 표징일 뿐이

다. 도리어 악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롬 2:4).

- (3) 이제 그들의 멸망은 참으로 순식간에 임하고 만다. 불경건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많이 이루어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두는 것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롬 2:5).

9. ㉠ 악인의 입에는 무엇이 충만한가? (7절)

- ㉠ (1) 악인의 입에는 ‘저주와 꾀술(詭譎)과 포학(暴虐)’이 충만하여 혀 밑에는 ‘잔해(殘害)와 죄악’이 있다.
- (2) 여기서 ‘저주’(히, 알라)는 남이 못 되기를 비는 말을 가리키고 ‘꾀술’(히, 미즈모트)은 간교하게 속이는 말을 의미하여 ‘포학’(히, 툽)은 남을 부당하게 억누르는 중상 모략(中傷謀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3) 또한 악인의 혀 밑에 있다고 한 ‘잔해’(히, 아말)는 악인들이 말로써 타인에게 근심과 상처를 준다는 뜻이고 ‘죄악’(히, 아웬)은 악인의 말 자체가 이미 죄악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4) 이렇게 악인의 입에는 남을 해하려는 말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 준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마 12:34).

10. ㉠ 악인은 어떻게 외로운 자를 넘어지게 하는가? (8-10절)

- ㉠ (1) 악인은 은밀한 곳에 앉아서 외로운 자를 엿보다가 강포(強暴)를 행하여 외로운 자를 넘어지게 한다.
- (2) 본문에서 ‘무죄한 자’, ‘외로운 자’(8절), ‘가련한 자’(9절)라고 한 것은 다윗 자신과 같은 성도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 (3) 따라서 이 말들은 악인들이 마치 마을의 출구에 잠복한 강도가 무방비 상태의 여행자를 덮쳐서 해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 (4) 사실 악인들은 억지로 겸손하고 정중한 척하면서 자신의 힘을 숨기지만 해를 끼칠 기회가 오면 즉시 강도와 같이 때로는 사나운 맹수와 같이 악을 행한다.
- (5) 성도들은 이러한 악인들의 술수에 대하여 항상 경각심(警覺心)을 갖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11. ㉠ 악인은 그 마음에 무엇이랴 말하는가? (11절)

- ㉠ (1) 악인은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한다.
- (2) 이러한 악인의 마음에 있는 불경건 혹은 무신론 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흉악한 죄악을 서슴치 않고 범하게 하는 것이다.
- (3)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무신론적 사상이 유혹해 올 수 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므로 유혹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잠 4:23).

12. ㉠ 악인의 교만과 불경건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가? (12, 13절)

- ㉠ (1) 다윗은 교만과 불경건을 보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한다.
- (2)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성(人格性)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이다.
- (3) 또한 ‘가난한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 고난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용적(常用的) 표현이다(참조, 9:12, 18).
- (4) 이렇게 악인의 교만과 불경건의 유혹이 성도들에게 유혹해 올 때 성도들은 기도로서

자기의 마음을 일깨우며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13.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찰하셨다고 하였는가? (14절)

㉠ (1) 하나님께서는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셨다.

(2) 다윗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란 말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다.

(3) 하나님은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창 16:13).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모든 잔해와 원한을 모두 감찰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심판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실 것이다.

14. ㉠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기를 간구하였는가? (15절)

㉠ (1)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라고 했다.

(2) 여기서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와 와라>는 '사악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반복법을 사용하여 악한 성품이 가득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3) 이렇게 악한 자의 '팔을 꺾는다'고 함은 곧 악인들의 세력을 파괴하여서 무력(無力)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4) 비록 악인의 세력이 매우 강성하여져서 기고 만장(氣高萬丈)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파멸되고 만다.

(5)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알렉산더(Alexander)나 나폴레옹(Napoleon)도 결국에는 꺾어졌고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秦始皇)도 죽어 흔적이 없으며 세계 제국을 꿈꾸던 히틀러(Hitler)도 하나님께 꺾임을 받아 죽어 넘어졌다.

15. ㉠ 다윗은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16절)

㉠ (1) 다윗은 여호와를 '여호와는 영원 무궁(永遠無窮)토록 왕이시니...'라고 고백하였다.

(2) 여기서 '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통치권을 갖고 계심을 의미하며 '영원 무궁토록'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상 군주와 달리 시간에 봉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간은 영원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죽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베푸시는 데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다(요 11:25).

(4)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이 보일지라도 적당한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다(참조, 37:11-14).

16. ㉠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예비'하신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17절)

㉠ (1) 여기서 '저희'라고 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예비하신다고 한 것은 성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을 뜻한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고통과 불행 속에 있을 때 절망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힘을 주신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7절).

제 11 편 성도가 피할 곳

단락구분 4:3 악인이 성도를 시험하다 / 4:5 감찰하시는 하나님 / 6-7 심판하시는 하나님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
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쩔인고
2 악인이 활은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 텃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4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와 보
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

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5 여호와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
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향
과 대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도다
7 여호와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
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로다

1. ㉠ 본시(本詩)에서 다윗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 ㉠ (1) 본시에서 다윗은 악인들이 시험하는 말을 듣고 나서 (1-3절)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피할 곳이 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다.
(2) 하나님께서 성도의 피할 곳이 되시는 이유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3) 다윗이 본시를 지을 때는 사울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추격해 오던 극심한 환난기(患難期)였다(참조, 삼상 18:11; 19:10). 그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그의 피할 곳으로 삼았다.
(4) 우리도 극심한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겠다.

2. ㉠ '여호와께 피하였다' 함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이 말은 다윗이 여호와만을 자기의 피난처로 알고 의지하였다는 뜻이다.
(2)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것은 그가 매우 어려운 곤경을 당하고 있음을 암시(暗示)한다.
(3) 당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광분(狂奔)하고 있었다. 그 일이 장기간 계속되는 동안 다윗은 그의 신앙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
(4)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기가 좀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과 인내로써 견디어야 하겠다.

3. ㉠ '너희'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 (1) '너희'란 일반적인 백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다윗의 친구들과 동료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그러나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다윗을 시험하던 악인 곧 다윗의 대적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 악인들은 다윗에게 무엇을 권유하는가? (1절)

- ㉠ (1) 악인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유한다.
(2) 여기서 '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치폴>은 참새같이 작은 새를 가리키고 '네 산으로'란 말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3) 따라서 악인들의 권유는 다윗의 처지가 끝장이 났으니 놀란 참새가 수풀 속으로 도망

하듯이 본국을 떠나 망명하라는 멸시의 의도를 담고 있다.

(4)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곤경에 처할 때 신앙을 포기하고 살라는 악인들의 시험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귀기울일 필요는 없다.

5. **㉠** 악인은 다윗을 어떻게 위협하였는가? (2절)

- ㉠** (1) 악인은 마치 어두운 데서 활을 당겨 쏘려고 하는 것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였다.
 (2) 이것은 다윗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여 있으며 죽을 지경에 있다는 의미이다.
 (3) 다윗이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은 도리어 그의 신앙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매우 놀라운 것임을 보여 준다.
 (4) 우리 성도들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때 이미 그러한 위협을 앞서 간 성도들이 겪은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격려를 받고 이겨 내도록 해야 하겠다.

6. **㉠**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먼저 ‘터’란 말은 정의와 진리 같은 삶의 진정한 기준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터가... 할꼬’라고 한 것은 삶의 기준, 즉 신앙을 상실할 때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리 악인들이 위협하고 시험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 망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이처럼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터를 지켜야 한다. 즉 항상 진리를 따라 삶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한다.

7. **㉠**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4절)

- ㉠** (1)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다.
 (2) 여기서 ‘그 성전’은 ‘그의 거룩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시온’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하늘’을 가리킨다.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한 말씀이 이를 뒷받침한다.
 (3)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권위적인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4)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상의 지극한 곤경과 절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알 수 있다.

8. **㉠**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땅의 인생들을 통촉(洞燭)하시며 감찰하신다.
 (2) 여기서 ‘통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자>는 본래 ‘쪼개다’란 뜻을 지닌 말로 본질에서는 쪼개듯이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동작을 의미한다.
 (3) 또한 ‘감찰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한>인데 불로 금속을 시험해 보듯이 어떤 물건의 가장 깊숙한 본질까지를 응시하여 살핀다는 뜻이다.
 (4)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깊이 아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속은 자기만 아는 줄 알고 행할 때가 너무도 많다. 그러나 성도들은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활해야 한다.

9. **㉠**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는 미워하신다.
 (2) 여기서 ‘감찰하다’ (히, 바한)는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인정치 않으시고 미워하신다(참조, 1:6).
 (3)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진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10. **㉠** 다윗은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6절)

- Ⓐ (1) 다윗은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하였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향을 그물처럼 악인에게 내려치셔서 피할 수 없게 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3)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을 통하여 시행되었고 그 심판은 악인들을 경고하는 거울이 되었다(유 1:7).
 (4) 하나님은 같은 원리로 다윗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오늘날의 악한 세대도 심판하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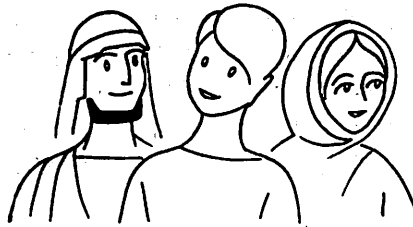
11. Ⓞ '잔의 소득' 이란 무슨 뜻인가? (6절)

- Ⓐ (1) '잔의 소득'이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할당하실 진노를 뜻한다.
 (2) 악인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실 때 한 모금 한 모금 빨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겔 23:34)라고 한 선지자의 경고처럼 그 모두를 마셔야 한다.

12. Ⓞ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2)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義)를 좋아하시는 것은 당신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이다.
 (3)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늘 느끼는 믿음을 말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정직하다.
 (4) 따라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다'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힘써야 한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로다' (7절).

제 12 편 악한 세대에 대한 탄원

단락구분 1-2 악한 세대의 실상 / 3-5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다 / 6-7 하나님 말씀의 순결성 / 8 악한 세대에 대한 탄원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2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5 여호와와 말씀에 가련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7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8 비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1. ㉠ 본시(本詩)에서 다윗이 탄원한 내용을 설명하라.

- ㉠ (1) 본시에서 다윗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거짓말하는 자가 늘어나는 극히 악한 세대를 탄원하고 있다.
 (2) 본시에 나타난 악한 세대는 사울 정권의 말기(末期)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사울이 몰락해 갈 당시 본시에 나타난 것처럼 불법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3) 오늘날의 세대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세대를 하나님께 탄원(歎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하겠다.

2. ㉡ 본시의 표제문을 설명하라.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이다.
 (2) 이 표제문은 6편의 표제문과 같다. '스미닛'은 제 8음이라는 의미로 낮은 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본시를 노래로 부를 때 낮고 준엄한 분위기로 하라는 지시 용어인 것 같다.
 (3) 더 자세한 것은 6편 ㉠ 2를 참조하라.

3. ㉢ 다윗은 무슨 말로 본시를 시작하고 있는가? (1절)

- ㉢ (1)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로 본시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우소서'(히, 호쉬아)는 그 자체에 목적어를 두고 있는 탄원의 기도로서 '구원을 행하소서', '도움을 주소서'라는 뜻이다.
 (2) 이 말에 이어서 히브리 원문에는 '왜나하면'이라는 뜻을 지닌 접속사(키)가 나오므로써 도움을 청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 다윗이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1절에서 8절까지 계속하여 제시된다.

4. ㉣ 다윗이 여호와께 구원하심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 ㉣ (1) 다윗이 여호와께 구원하심을 간절히 요청하게 된 이유는 당시 사회가 극도로 패역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1, 2, 8절).
 (2) 이렇게 최악의 세력이 팽창하여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시 119:126).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이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때 침울하게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한다.

5. **㉠** 다윗은 어떠한 자들이 없어진 것을 탄식하고 있는가? (1절)

- ㉠** (1) 다윗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고 탄식했다.
 (2) 여기서 '경건한 자' (히, 하시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충실한 자' (히, 에무님)는 문자적으로 견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과 의도가 진실하여 믿을 만한 자를 가리킨다(참조, 사 57:1; 렘 7:28; 미 7:2).
 (3) 이와 같이 신실한 성도들이 악한 시대에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추시기 때문이다(참조, 왕상 19:18). 그래서 세상에는 악과 불법만이 횡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4)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에 의인을 숨기시는 것은 성도들이 인위적으로 힘을 규합(糾合)하여 악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참조, 딤후 4:16-18).

6. **㉠** 다윗은 세상의 타락상을 어떻게 말하는가? (2절)

- ㉠** (1) 다윗은 악한 자들의 거짓된 언어 행위를 예로 들어 세상의 타락상을 표현한다. 즉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어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표현하였다.
 (2) 이렇게 악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침하려 하였기 때문이요 아침하려 했던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3) 사실상 거짓말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다(요 8:44).
 (4) 여기서 우리는 거짓말의 악독성을 심각히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7. **㉠**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끊으실 것이라고 하였는가? (3절)

- ㉠** (1)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라고 하였다.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들의 위선과 교만을 계속하여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폐하여 버리실 것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극악한 세대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얻도록 해야 한다.

8. **㉠** 악한 자들은 교만함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가? (4절)

- ㉠** (1) 악한 자들은 교만함으로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하였다.
 (2) 이 말은 악한 자들이 거짓의 효능(效能)에 증독되어서 거짓으로 단련된 혀와 입술만 가지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교만을 보여 준다.
 (3) 이렇게 교만하고 허황된 말로 모든 법과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악의 극치(極致)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 대한 선전 포고(宣戰布告)나 다툼이 없다.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된 수단의 중독성(中毒性)을 깨달아 말에 더욱 조심해야 하겠다.

9. **㉠** 다윗은 무엇에 근거하여 악인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5절)

- ㉠** (1) 다윗은 '여호와와 말씀'에 근거하여 악인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2) 즉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친히 선언하셨던 것이다.
 (3) 이처럼 성도들은 오늘날 비록 가련하고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을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한다.

10. ㉠ ‘이제’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 (1) ‘이제’ (히, 아타)라는 부사는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극도로 부패한 그 시대를 더 이상 참고 보실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 일어나’ 심판하시겠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들의 강포, 중상 모략(中傷謀略) 등으로 눈물과 탄식밖에 남는 것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려 일어나실 때가 가깝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해야 한다.

11. ㉠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하다고 하였는가? (6절)

- ㉠ (1)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고 하였다.
- (2) 이 말은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실 때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서 일곱 번이나 걸러내듯이 진실만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 (4)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순결하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으므로써 온갖 환난과 시험을 이겨 내도록 해야 한다.

12. ㉠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 (2) 여기서 ‘세대’는 악한 자들의 큰 무리를 의미한다. 또한 ‘영영토록’이란 말은 악한 세대가 존속하는 모든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결코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13. ㉠ ‘비루(鄙陋)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 (1) ‘비루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쉬임>은 ‘사악한 사람들’이란 의미이다. 그러므로 ‘비루함이…때’란 말은 사악한 사람들이 득세하여 지배하는 때를 가리킨다.
- (2) 이러한 때가 되면 사악한 지도자에게 추종하는 악한 무리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판을 치게 된다(8절).
- (3) 또한 이렇게 극악한 사회상(社會相)은 곧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악하고 부패한 사회상을 목격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면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어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6절).



제 13 편 고통받는 영혼의 기도

단락구분 1-2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 3-4 나의 눈을 밝히소서 / 5-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

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 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 하심이로다

1. ㉠ 본시(本詩)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말하라.

㉠ (1) 본시에서 다윗은 극심한 고난에 처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함으로써 마음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2) 여기서 다윗이 당한 극심한 고난은 원수들의 모함과 핍박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3) 그러한 모함과 핍박으로 다윗은 육적인 고통도 있었으나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으로 느껴지는 것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기도하여 새 힘을 얻게 되었다.

(4) 이러한 본시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만날 때에든지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을 배우게 된다.

2. ㉡ 다윗이 본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첫마디는 무엇인가? (1절)

㉡ (1)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첫마디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이다.

(2) 여기서 '어느 때까지' (히, 아드 아나)란 말은 다윗이 매우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3)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있었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대하고 있었으며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4)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육적, 영적 고난이 매우 오래 계속되어 탄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5) 그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자포 자기(自暴自棄)하지 말고 그 깊은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 언젠가는 임하여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해야 할 것이다.

3. ㉢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는가? (1절)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고 계시며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다.

(2)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버리심이 느껴질 정도로 고난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우리도 어떤 재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어떤 표징도 발견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생각이 불가피하게 파고 든다.

(4) 그러한 느낌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느낌 자체마저 하나님께 고백하

며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청해야 할 것이다.

4. **㉠** '경영하고'란 무슨 의미인가? (2절)

- ㉠** (1) '경영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쉬트 에초트>는 '묵상하다' (meditate)는 의미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책을 찾느라고 고심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2) 따라서 다윗의 마음은 종일토록 근심으로 연속되는 가운데 원수들의 조롱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3) 이러한 심령의 고통을 갖고 있을 때 다윗은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하여 기도한 것이다.
 (4) 이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롬5:3).

5. **㉠**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밝혀 달라고 기도하였는가? (3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하였다.
 (2)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간구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중에 가장 피로왔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점에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1절).
 (3) 우리도 매우 심한 고통과 근심을 당할 때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6. **㉠** '생각하사'란 무슨 뜻인가? (3절)

- ㉠** (1) '생각하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비다>는 명령형으로서 '보십시오' (KJV, Look./)라는 의미이다.
 (2) 따라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아 주시고 다음으로 자기를 도와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3)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7. **㉠**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3, 4절)

- ㉠** (1)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였고 원수가 승리할까 두려워했다.
 (2) 여기서 '사망의 잠' (히, 쉰나드 마웨드)이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영적 죽음을 가리킨다. 이것을 두려워하여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신령한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은 아니다(참조, 고후 7:10).
 (3) 그런가 하면 원수가 승리할까 두려워한 것도 자기 중심에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한 말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원수는 자기 개인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이다.
 (4) 이같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신령한 두려움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 하였다.
 (5)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신령한 두려움(근심)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8. **㉠** 다윗은 무엇을 의뢰하였다고 말하였는가? (5절)

- ㉠** (1) 다윗은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다고 말하였다. '주의 인자하심'만이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이었고 구원의 근거였다.
 (2)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과 역경의 깊은 수렁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자비와 은총만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긴 터널 속을 지나가게 되든지 우리

의 소망과 구원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9. **㉠** 다윗은 무엇을 기뻐하겠다고 말하였는가? (5절)

- ㉠** (1) 다윗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고 말하였다. 즉 그는 자기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겠다고 하였다.
- (2) 이렇게 다윗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고 할 때에도 사실은 아직 그의 외부적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 (3) 그러나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는 신앙은 그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였다. 이것은 신앙의 오묘(奧妙)이다.
- (4) 이처럼 신앙은 캄캄한 밤중에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태양을 본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예감은 벌써 승리인 것이다.

10. **㉠**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후대(厚待)하셨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후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말>은 순수한 은혜로 어떤 혜택을 베푸는 의미이다.
- (3)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혜택으로 대우하여 주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 (4) 우리는 여기서 '어느 때까지니이까'라는 절망의 상황이 어느덧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본다.
- (5) 우리가 비록 지극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같이 하나님 은총을 갈구(渴求)하며 기도할 때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찬송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료

성경에 나타난 잠(睡眠)의 의미

성경에 있어서 '잠'은 단지 육체적인 수면 상태를 가리키는 원래적 의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의미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육체적인 수면 상태; 창 2:21, 22; 28:16; 삼상 28:16; 시 3:5; 4:8; 127:2; 잠 3:24; 6:22; 렘 31:26; 행 20:9 등.
- (2) 게으름을 상징함; 잠 6:4; 10:15; 20:13; 23:21 등.
- (3) 영적 태만 상태; 사 56:10; 막 13:36; 롬 13:11; 엡 5:14; 살전 5:6 등.
- (4) 육체적인 죽음을 상징함; 삼하 7:12; 왕상 2:10; 11:43; 22:10; 대하 21:1; 욥 14:12; 시 13:3; 마 9:24; 행 7:60; 고전 15:51 등.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들은 피로 회복을 위한 육체적인 수면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차 하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항상 영적으로 각성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사 26:19; 51:17; 52:1; 고전 15:34).

제 14 편 어리석은 자

단락구분 1 무신론자(無神論者)가 어리석은 자이다/2 불경건(不敬虔)과 부도덕(不道德)/4 하나님의 백성을 직취하다/5-7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중
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
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
신즉
3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노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

니하는도다

5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7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
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들이
키실 때에 아람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
하리로다

1. ㉠ 본시(本詩)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규 정하고 그들의 타락을 한탄한 후 그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들의 구원을 예 언하고 있다.
- (2) 또한 다윗은 본시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의 어두운 사회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바울 은 본시를 인용하면서 온 세상의 부패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다(롬 3:11, 12).
- (3) 그리고 본시에 나타난 부패한 사회상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기 도 하다.
- (4) 우리는 비록 우리 주위를 수많은 무신론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 판과 구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겠다(참조, 답전 4:7).

2. ㉡ 본시는 53편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 ㉡ (1) 본시와 53편은 5절 이후 후반부에 나타난 조그만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할 정도 로 유사하다.
- (2) 따라서 두 시는 그 주제에 있어서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함께 비교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이러한 두 시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명칭에 있어서 본시는 '여호와' (히, 예호아)를 사용하는데 비해 53편은 '하나님' (히,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 (4) 이 점에 대해 학자들은 본시가 다윗에 의해 초기에 이스라엘 내의 부패상을 다루고 있 는데 53편은 다윗 후기에 이스라엘 밖의 대적들에 대하여 본시를 재음미하고 개작(改 作)한 것이라고 본다(Delitzsch 등).
- (5) 그 이유는 '여호와' (히, 예호아)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통용(通用)되던 명칭이 고 '하나님' (히, 엘로힘)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명 칭이었기 때문이다.

3. ㉢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이랴 하는가? (1절)

Ⓐ (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한다.

(2)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인 무신론과 구분되는 실제적인 무신론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말한다고 한 것은 입으로 발설하지 않아도 그들의 생활에 방종성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생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깊이 경계해야 할 죄악이다. 사실 엄격한 논증으로 주장되는 이론적인 무신론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언제든 자 신앙의 적은 실제적인 무신론이었다.

4. Ⓞ 무신론자들이 저지르는 죄악 4가지는 어떠한 것들인가? (1-4절)

Ⓐ (1) 개역 성경 본문에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저지르는 죄가 4가지로 나와 있다.

(2) 첫째는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1, 3절).

(3) 둘째는 하나님을 알아 보려고 힘쓰지도 아니하는 것이다(2절).

(4) 세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것이다(4절).

(5) 네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4절).

(6) 오늘날도 비록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나 생활에 있어서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5. Ⓞ ‘어리석은 자’란 무슨 뜻인가? (1절)

Ⓐ (1) ‘어리석은 자’(히, 나발)란 정신 박약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무지하게 행하는 자를 뜻한다.

(2) 즉 그는 신학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도덕적인 무신론자이다. 이런 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해학(諧謔)과 지혜가 있어 탁월한 자일 수도 있다.

(3) 이런 자들이 비록 세상에서 우뢰와 같은 박수 갈채를 받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로 정죄하신다(참조, 고전 1:20).

6. Ⓞ 마음의 무신론은 어떤 생활로 나타나는가? (1절)

Ⓐ (1) 마음의 무신론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못하는’ 생활로 나타난다.

(2) 여기서 ‘부패’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이 썩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행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생활(全生活)이 가증스러울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뜻이다.

(3)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마치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내듯(마 7:17)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다.

7. Ⓞ 여호와께서 무엇을 굶어 살피신다고 하였는가? (2절)

Ⓐ (1)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굶어 살피신다고 하였다.

(2) 여기서 ‘인생’이란 말은 지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탁월하신 통찰력으로 유대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인류를 감찰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 본시의 귀절을 인용하였다(롬 3:10 이하).

(4) 이러한 하나님의 눈길에서 피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

8. Ⓞ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보려 하셨는가? (2절)

Ⓐ (1)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굶어 살피사 ‘지각(知覺)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2) 여기서 ‘지각’이라고 한 것은 ‘깨우쳐져서 건전해진 마음’을 가리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

(3)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헛된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제 15 편 성산(聖山)에 거할 자

단락구분 1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 2 성산에 거할 자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 3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 / 4-5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 다섯 가지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벅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며

4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5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1. ㉠ 본시(本詩)의 내용과 그 교훈을 말하라.

- ㉠ (1) 본시의 저술 시기에 대해서는 1절에 나타난 '주의 장막'이라는 말과 '주의 성산'이라는 말이 그 열쇠를 제공한다.
- (2) 먼저 '주의 장막' (히, 아홀레카)은 본시가 저술될 당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3) 또한 시온을 단순히 '성산' (히, 하르 하코데쉬)이라고 불리웠던 사실은 이미 언약궤가 오벰에돔의 집으로부터 장막 안으로 옮겨져 있음을 암시한다(삼하 6:12; 대상 16:1).
- (4) 그러므로 본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오벰에돔의 집에서 시온으로 옮긴 후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쓰여진 것 같다(Delitzsch).

2. ㉠ 본시가 저술된 때는 언제인가?

- ㉠ (1) 먼저 1절에서 '주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장막' (히, 아홀레카)이라고 한 것을 보아 본시가 아직 성전 건축 전에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또한 '성산'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본시의 저작 시기는 다윗이 법궤를 장막 안에 모신 이후로 나타난다(참조, 삼하 6:12; 대상 16:1).
- (3) 따라서 본시를 저술할 때 다윗은 법궤를 오벰에돔의 집에서 옮겨 오면서 체험했던 거짓 없는 경건과 순전한 겸손을 갖고 있었다.
- (4) 우리들도 그러한 경건과 겸손의 마음으로 본시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하겠다.

3. ㉠ 1절의 처음 질문은 무엇인가?

- ㉠ (1) 1절의 처음 질문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帳幕)에 유할 자 누구오니이까' 하는 것이다.
- (2) 여기서 '유한다' (히, 야구르)는 하나의 나그네로 유숙한다는 뜻이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이다(참조, 39:12).
- (3) 따라서 처음 질문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동거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의미이다.
- (4)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4. ㉠ 1절의 둘째 질문은 무엇인가?

- ㉠ (1) 1절의 둘째 질문은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이다.

- (2) 여기서 '거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שאָקַן)은 몸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 (3) 그러므로 이 질문은 주님의 성막에 형식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아니라 성막에 유하다시피 하면서 그곳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 (4)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의 주님의 성전은 건물로 된 예배당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도의 몸을 의미한다(고전 6:19).
-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5. ㉠ 성산에 거할 자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는 무엇인가? (2절)

- ㉠ (1) 성산에 거할 자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 (2) 여기서 '정직' (히, 타뫼)이란 순진함, 순수함 등을 의미한다. 성산에 거할 자는 첫째, 거짓된 책략들과 관계가 없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이다.
- (3) 또한 '공의' (히, 체택)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산에 거할 자는 둘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옹기하게 생활하는 자이다.
- (4) 그리고 '진실을 말한다' (히, 도베르 에메트)는 것은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5)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생활과 말이 성산에 거할 자로서 과연 합당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6. ㉠ 성산에 거할 자는 또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3절)

- ㉠ (1) 성산에 거할 자는 '참소(讒訴)치 않아야 하고 벗에게 행하지 않아야 하고 그 이웃을 훼방치 않아야 한다.
- (2) 여기서 '참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갈>은 발[足]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로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 (3) 벗에게 행악한다 함은 친구에게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해가 되거나 상처를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 (4) 이웃을 훼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참소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퍼뜨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훼방은 참소와 같은 죄악이다.
- (5) 이처럼 성도들은 벗과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악을 행치 않도록 해야 한다.

7. ㉠ 성산에 거할 자가 지켜야 할 사회 윤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4, 5절)

- ㉠ (1) 성산에 거할 자가 지켜야 할 사회 윤리에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과 약속에 대한 한 가지 사항과 금전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사항 등 모두 다섯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 (2) 먼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한다. 여기서 망령된 자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가리킨다. 성도는 이런 자들을 멸시해야 한다.
- (3) 둘째로 서원(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치 말고 지켜야 한다. 즉 진심(眞心)으로 약속을 하였는데 나중에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해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4) 세째로 금전 문제에서 고리 대금업(高利貸金業)을 해서는 안 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

8. ㉠ 고리 대금업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고리 대금업이 금지되는 이유는 그것의 목적이 보통 은행업(銀行業)과는 달리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빼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로마 시대의 정치가 카토(Cato)라는 사람은 고리 대금업과 살인을 동일한 범죄로 취급하기도 했다.
- (3) 또한 구약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변리(邊利)로 대금하는 것'을 금하시면서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셨다(레 25:35-38).
- (4) 그러나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합당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은행업은 성경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마 25:26, 27).
9. ㉠ 위에 제시된 11가지의 조건을 구비한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5절)
- ㉡ (1) 11가지의 조건을 구비한 자, 곧 성산에 거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 (2) 여기서 '요동치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환난과 천재 지변(天災地變)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이렇게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성산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46:5).
- (4) 그러므로 우리는 성산에 거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하나님과 동행 동사(同行同事)하여 요동치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하겠다.

연구자료

장막에 대하여

1. 거주지로서의 장막

히브리어 <오헬>의 번역어인 장막(tent)은 유목민들의 임시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이동식 가옥으로서(창 4:20; 25:27; 사 8:11) 동물의 가죽이나 검은 모직천(주로 염소털로 직조된 천)으로 만들어졌다. 장막의 모양은 원추형을 비롯해 난형(卵形), 장방형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으며 내부는 중간 버팀목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로 쳐진 휘장에 의해 2등분 되었다. 그리고 양분된 장막 중 뒷부분은 통상 여인의 침실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가죽들을 가두어 두는 축사로 활용되었다. 한편 여러 채의 장막을 소유할 정도로 부유한 자들이나 족장들은 부인 및 여종들의 장막, 손님 접대용 장막, 가축용 장막 등을 따로 분류해서 사용하기도 했다(창 31:33). 이와 같이 장막은 비록 임시적인 거주지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담아 살았던 삶의 요람이었다.

2.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장막

- ① 집, 거처, 거주지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사용됨(참조, 눅 16:9).
- ②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는 장소의 상징으로 사용됨(1절; 출 25:8; 왕상 8:10, 11; 욥 1:4).
- ③ 바벨론, 예루살렘, 유다 등의 지명에 대한 상징적 비유로 사용됨(사 13:20; 33:20; 렘 10:20).
- ④ 육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됨(고후 5:1; 히 8:2; 벧후 1:4; 계 15:5).

제 16 편 부활과 영생의 소망

단락구분 1-2 하나님께 피하다 / 3-6 하나님만 섬기다 / 7-9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 10-11 부활과 영생의 소망

1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피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5 여호와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

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7 나를 혼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9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 ㉠ 본시(本詩)에서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 ㉠ (1) 본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것을 고백한 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 (2) 특별히 1절에 나타난 기도와 10절에서의 기원을 통해 볼 때 다윗은 죽음의 위협에 처한 가운데 본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시에는 비관적인 불평과 침울함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복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너무도 분명한 고백으로서 본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 (4) 이와 같이 성도는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행하도록 해야 한다.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므담'이다.
- (2) '므담'이란 황금, 가장 좋은 금을 의미하는 (카탐)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므담'은 '황금시' 혹은 '금언시'를 의미한다.
- (3) 이 말은 56-60편에서도 표제어로 사용되고 있다.

3. ㉠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했는가? (1절)

- ㉠ (1)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면서 그에게 피하였다.
- (2) 여기서 '피하였다' (히, 카사)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한 마음을 유지한 신앙의 태도를 의미한다.
- (3) 이처럼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로 그 일을 대처해야 한다.

4. ㉠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어떠한 말로 고백했는가? (2절)

Ⓐ (1)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말했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까지도 소유하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고백했던 것이다.

(4)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5. ⓐ 다윗은 땅에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하였는가? (3절)

Ⓐ (1) 다윗은 땅이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였다.

(2)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3)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를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성도 사랑하는 일에 즐거움을 두어야 한다.

6. ⓐ 다윗이 어떤 자에게 피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하였는가? (4절)

Ⓐ (1) 다윗은 하나님 외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피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하였다.

(2)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3)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성도들이 누리는 즐거움과는 (3절) 대조적으로 피로움이 더하고 슬픔이 증가될 것이다.

(4) 이러한 일의 결과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멀리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7. ⓐ 다윗은 무엇을 자기의 산업이라고 고백하였는가? (5절)

Ⓐ (1) 다윗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를 자기의 산업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자기의 산업으로 고백하였다.

(2) 여기서 '산업' (히, 켈렉)이라는 말은 기업(基業)이라는 말과 같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을 기업으로 소유하기 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는다.

(4) 따라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8. ⓐ '줄로 재어 준 구역(區域)'이란 무슨 뜻인가? (6절)

Ⓐ (1) '줄로 재어 준 구역'이란 다윗이 거주하는 곳인 예루살렘 부근을 말하는 것으로 그는 이곳을 경계선으로 표시하여 놓았다(참조, 수 16:4).

(2) 이어서 다윗은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하였고 또 자기의 기업이라고 말했다.

(3)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5절의 '산업'과는 좀 다른 것으로 다윗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산을 가리키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다윗은 지상의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5)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기업의 아름다움을 깨달아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하겠다

9. **㉠**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7, 8절)

- ㉠** (1)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밤마다 그의 훈계를 받고 (7절)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2)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섬기는 자들은 또한 동행하며 사는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10. **㉠**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송축하였는가? (7절)

- ㉠** (1) 다윗은 자기를 훈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2) 여기서 '훈계'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의미한다.
 (3)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11. **㉠**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는가? (7절)

- ㉠** (1) 다윗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록'라고 했다.
 (2)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훈계를 받되 밤중과 같은 고요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서 그의 심장 안으로 은밀하게 훈계를 받았다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quiet time), 한적한 장소(solitary place) 그리고 간절한 마음(great eagerness)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12. **㉠**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생활했는가? (8절)

- ㉠** (1)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생활했다고 고백한다.
 (2) 이것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했다는 의미이다.
 (3) 에녹이나 노아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에(창 5:22, 24; 6:9)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4)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구약 시대와 같이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것을 뜻한다.

13. **㉠**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의 결과는 무엇인가? (8절)

- ㉠** (1)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우편에 계시게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하시는 축복이 결과로 나타난다.
 (2) '주께서 우편에 계신다'고 함은 항상 보호하고 지켜 주시며 힘 주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
 (3) 만일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14. **㉠** 다윗이 갖고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어떤 것인가? (9, 11절)

- ㉠** (1) 다윗이 갖고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10, 11절에 나타난 그의 고백에 나타나 있다.
 (2) 즉 10절에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명백한 부활 사상이다(참조, 행 13:35).
 (3) 뿐만 아니라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라'한 것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는 영생의 소망이다.
 (4) 다윗이 이렇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4:17).
 (5)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증을 보여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롬 10:9)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다(롬 15:13).

제 17 편 정직한 자가 구원을 호소하다

단락구분 1-2 기도를 들으소서 / 3-5 다윗의 결백 / 6-9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다 / 10-12 원수들의 악독성(惡毒性) / 13-14 다시 구원을 호소하다 / 15 응답을 확신하다

1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도 귀를 기울이소서

2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4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5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며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8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0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11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엮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13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 하소서

14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 ㉠ 본시(本詩)의 내용과 특징을 말하라.

- ㉠ (1) 본시에는 악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정직과 결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호소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 (2)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본시의 전체 내용을 이룬다. 그래서 본시를 보통 '기도의 시' 라는 별칭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 (3) 시편의 많은 시들이 기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5개만이 '기도의 시' 로 분류되는데 본시가 그중에 첫번째로 나오는 시이다.
- (4) 그러므로 본시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깊은 원리와 모범을 배울 수 있게 된다.

2. ㉡ 본시의 배경은 어떠한가?

- ㉡ (1) 본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과 그의 무리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시기에 쓰여졌다(J. Calvin).
- (2) 당시 다윗은 사울의 신하들에 의해 많은 모함을 받았는데 특히 그가 반역을 도모하며 사울 왕을 죽이려 하였다는 모함은 전혀 근거 없는 중상 모략(中傷謀略)이었다(참조, 삼상 24:9).
- (3) 이러한 중상 모략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결코 악(惡)으로 대응치 아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생활하였다.
- (4)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고발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사울과 그의 무리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한 것이다.

- (5)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 예수께서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눅 18:1-8).

3. **㉠ 본시와 16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 (1) 본시는 바로 앞의 시인 16편과 시의 사상에 있어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즉 두 시가 모두 내세(來世)의 소망으로 끝나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고(16:10, 11과 17:14, 15) 하나님께서 밤에 가르치신다고 말한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지닌다(16:7과 17:3).
 (3) 이러한 두 시의 공통점은 두 시의 저자가 동일한 사람 곧 다윗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준다.

4. **㉠ 다윗은 무슨 말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라는 말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였다.
 (2) 여기서 '정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즉 의(義)를 의미한다.
 (3)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의에 대하여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뜻이다. 이러한 진실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 주신다(참조, 창 15:6).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할 때에 큰 힘이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의 생활이 진실해야 한다.

5. **㉠ 다윗이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소서'라고 한 기도의 뜻은 무엇인가? (2절)**

- ㉠** (1) 먼저 '주 앞에서'란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면전으로부터'가 된다. 따라서 이 기도는 '나에 대한 판결이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나오게 하소서'라는 뜻이다.
 (2) 이처럼 다윗이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1절).

6. **㉠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권고(眷顧)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밤에' 다윗을 권고하셨다. 여기서 '권고'란 '방문하다', '심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2) 또한 '밤'이라고 한 것은 가장 은밀한 시간과 장소를 상징하는 말로 이때 사람의 속마음이 가장 적나라(赤裸裸)하게 드러나게 된다.
 (3)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내면 깊숙히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심사받으려 했다.
 (4)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때 외적인 행동이나 결과만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 다윗은 무엇으로 범죄치 않을 것을 결심하였는가? (3절)**

- ㉠** (1) 다윗은 '입'으로 범죄치 않을 것을 결심하였다.
 (2) 다윗이 이렇게 결심한 이유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약 3:2).
 (3) 우리도 다윗처럼 입술의 문을 지키도록 결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다(참조, 약 3:6-8).

8. **㉠ 다윗은 어떻게 해서 강포한 자의 길로 행치 않을 수 있었는가? (4절)**

- ㉠** (1) 다윗은 '주의 입술의 말씀에 좇아 스스로 삼가함으로써' 강포한 자의 길로 행치 않을 수 있었다.
 (2) 즉 그는 주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순종함으로써(119:11)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고 그의 원수들의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악행에 악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

(3) 이처럼 사람이 범죄치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한다(119:8).

9. **㉠** 다윗은 무엇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6절)

- ㉠** (1) 다윗은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라는 말을 통하여 자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 (2)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 (3)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다윗은 이미 과거에도 신실하신 응답을 체험하였으므로 그는 여기서도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기도 응답에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10. **㉠**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라고 한 기도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7절)

- ㉠** (1) 이 기도는 다윗이 당한 위협이 매우 큰 것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실 능력이 있으심을 나타내어 준다.
- (2) 여기서 '기이한 인자'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특수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 (3) 우리도 다윗처럼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일상적인 도우심만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은혜와 기적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다(참조, 약 5:15-18).

11. **㉠**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 주시도록 기도했는가? (8절)

- ㉠** (1) 다윗은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 (2) 여기서 '눈동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손)는 사람을 뜻하는 <이쉬>에 접미사 <온>이 붙어 이루어진 말로 '눈[眼] 속에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 (3) 이는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 볼 때 거울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이 조그맣게 보이는 사실에서 유래된 말이다.
- (4) 하나님의 눈동자 속의 작은 사람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를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다.

12. **㉠**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 (1)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는 말은 어미 닭이 어린 병아리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에 품어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3)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성령께서 다윗의 입에 넣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을 전해 주신 것이다(참조, 눅 13:34).

13. **㉠** 다윗은 자기를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했는가? (9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압제하는 악인과 자기를 에워싼 극(極)한 원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기도했다.
- (2) 여기서 '압제하는 악인'이란 이유없이 남을 학대하고 죽이려 하는 자를 가리킨다.
- (3) 또한 '극한 원수' 원문을 직역하면 '영혼을 대적하는 원수' (foes against soul)가 되는데 이는 영혼까지도 멸하려 하는 자들을 말한다.
- (4) 다윗이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듯이 우리들도 위기가 클수록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기도해야 한다.

14. **㉠** 다윗의 원수들이 자기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여기서 '기름'은 마치 비계 덩어리로 딱차서 뚱뚱하게 된 사람처럼 악인들을 채우고

있는 교만을 가리킨다.

- (2) 따라서 다윗의 원수들이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팽차서 육체적인 탐심만을 추구하며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뜻이다(참조, 73:7; 119:70; 욥 15:21).
- (3) 이처럼 영혼의 비만증(肥滿症)이야말로 무서운 병이다. 우리는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단련함으로 이러한 영적 비만증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15. **㉠** 다윗의 원수들은 어떤 짐승처럼 다윗을 해하려 하였는가? (11, 12절)

- ㉠** (1) 다윗의 원수들은 마치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여 은밀한 곳에 었드린 젊은 사자같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다.
- (2) 이렇게 그들이 사자 같았다고 한 것은 그들의 세력이 매우 강하고 야수적(野獸的)인 잔인성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 (3) 또한 '은밀한 곳에 었드렸다' 함은 원수들에게 간사한 책략과 교묘한 술수(術數)가 많아 대항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가리킨다.
- (4) 오늘날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바로 이리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였다(벧전 5:8, 9).

16. **㉠** 세상 사람은 어디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는가? (14 절)

- ㉠** (1) 세상 사람, 즉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금생'(今生)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을 뿐이다.
- (2) 이런 자들은 내세(來世)의 분깃이 없기 때문에 재물과 자녀와 땅의 산업으로 만족해야 하며 또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다.
- (3)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려 무죄한 자를 모함하고 해함으로 온갖 죄악을 행하게 된다.
- (4)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분깃으로 삼고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르게 행할 수 있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17. **㉠**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하겠다고 하였는가? (15절)

- ㉠** (1)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 볼 것을 소망하면서 '깼 때에 주의 형상(形像)'으로 만족하겠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깼 때에'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 이후 부활할 때를 가리킨다. 즉 다윗은 부활 후에 뵈옵게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 (3) 이러한 부활 사상은 앞의 16편의 사상과 상통한다. 비록 구약이 사후의 생명과 부활을 신약처럼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약 여러 부분에서 부활 사상을 명백히 제시한다(참조, 욥 19:25-27; 사 26:19; 단 12:2).
- (4)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데 비해 잠시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 올바르게 살도록 해야 한다(참조, 롬 8:18).

본장의 요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5절).

제 18편 승리의 노래

단락구분 1-3 하나님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다 / 4-19 하나님의 구원을 속고하다 / 20-27 그 구원의 근거를 밝히다 / 28-48 승리를 노래하다 / 49-50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기로 다짐하다

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

2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
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나의 피
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
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
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 사망의 줄이 나를 엮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
게 이르렀도다

6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
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7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
니 그의 진노를 인함으로다

8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솟이 피었도다

9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감암하다

10 그름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11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삼으사 장막
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니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딱딱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딱딱한 구름이 지
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
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
리도다

14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흠으심이여 많은 번
개로 파하셨도다

15 이럴 때에 여호와와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
여 물뿔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16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17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
셨음이여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18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
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0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
의 깨끗함을 좇아 갚으셨으니

21 이는 내가 여호와와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
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3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
서 스스로 지켰나니

2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
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
셨도다

25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27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8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여 여호와 내 하
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려며 내 하
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
패시로다

31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32 이 하나님어 힘이여 내게 떠 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33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
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늦
활을 당기도다

35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
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은유함
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37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

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38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39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40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41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42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쏘아 버렸나이다
 43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룸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4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함이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이다
 45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46 여호와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리이다
 47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48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요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49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50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쁨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1. ㉠ 본시(本詩)에서 다윗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 ㉠ (1) 본시에서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 무수한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후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이 모든 승리의 섬리자로 찬양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본시는 다윗이 왕국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시들 가운데 으뜸가는 시이다.
 (3)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2. ㉡ 본시의 표제문을 통하여 본시의 작성 시기를 설명하라.

- ㉡ (1) 본시의 표제문은 '여호와와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이다.
 (2) 이러한 표제문은 다윗의 말기의 이야기가 기록된 삼하22:1과 같은 내용이다. 즉 다윗은 거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때 여호와께 이 노래를 불렀다.
 (3) 그러므로 본시는 다윗의 어떤 특정한 승리보다는 오랜 기간을 걸쳐 그의 적들을 이긴 다윗의 전반적인 승리와 구원에 대한 노래이다.

3. ㉢ 표제문에서 다윗이 자신을 '여호와와 종'으로 부른 의도는 무엇인가?

- ㉢ (1) 다윗이 자신을 '여호와와 종'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의 왕에 대한 소명(召命)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2) 즉 다윗은 오랜 수난의 기간을 거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결코 자기의 야망을 따라 나라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 놓은 뜻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이다.
 (3) 다윗의 이러한 소명 의식은 그에게 있어서 평화로운 항구와 같았으며 그 무수한 역경과 생소한 재난 속에서 갖는 안전한 피난처와 같았다.
 (4) 우리들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적인 명예나 권세보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이고 뚜렷한 소명 의식 가운데 살아야 한다.

4. ㉣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있는가? (1a절)

- ㉣ (1)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
 (2)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힘'라고 비유한 것은 하나님은 이론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

계적으로 다윗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3)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물맷돌 한 개를 가지고도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참조, 삼상 17:50).

(4) 이처럼 세상과 죄의 힘이 강하지만 그것보다 강한 힘은 하나님이다.

5. **㉠**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1b절)

㉠ (1)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함>은 특별히 깊고 부드러운 내용을 가진 사랑으로서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은 것을 가리킨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모세는 율법을 요약하기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라고 하였다(신10:12).

(3)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감각한 자로 하나님의 은총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끊임없이 그에게 연합되도록 헌신해야 한다.

6. **㉠** 다윗이 하나님을 비유한 여덟 가지 칭호의 뜻을 밝히라 (2절).

㉠ (1)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번호	칭호 (히브리어)	뜻
1	반 석(히, 셀라아)	험한 암벽(岩壁)으로 둘러싸인 땅, 피난하기에 적합하다
2	요 새(히, 메추다)	높은 언덕으로 요새와 망대의 역할을 하였다(삼상 22:4, 5)
3	건지시는 자	위급에 직면했을 때 구원하시는 분(7:1)
4	하나님(히, 엘로힘)	모든 능력의 원천이요 공급자(창 1:1)
5	피할 바위(히, 추리)	돌산(石山)의 봉우리로 피난처가 된다
6	방패	원수의 화살을 막는 무기(5:12)
7	구원의 빨(히, 케렌)	승리의 능력. 동물에게 있어 보호와 방어용으로 쓰였다(눅 1:69)
8	산성	험하고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피난처

(2) 위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칭호는 뜻이 비슷한 명사들을 반복한 것이다.

(3) 이렇게 반복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경우에서 보호자로 경험하였으므로 그 구원의 사실을 역사하려는 데에 있다.

7. **㉠**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하였는가? (3절)

㉠ (1) 다윗은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했다.

(2) 여기서 다윗이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윗 자신이 찬양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내고 있다.

(3) 이렇게 다윗이 찬양으로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자신을 격려하지 않는다면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께 근심과 염려를 다 맡기고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도록 하자(참조, 빌4:6).

8. **㉠** 다윗은 과거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어떤 순서로 회상하는가? (4-19절)

㉠ (1) 다윗은 먼저 자신이 당한 극심한 곤경을 묘사한 다음(4, 5절) 다윗이 그러한 곤경에서 기도하자(6절)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7-15절) 자신을 구원했다고(16-19절) 회상하고 있다.

(2) 이러한 다윗의 회상에 있어서 중심 요점은 다윗의 기도(6절)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도 놀라움에 임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능력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참조, 제8:3-5).

9. **㉠** 다윗은 환난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4, 5절)

- ㉠** (1) 다윗은 자기가 당한 환난을 '사망의 줄이 얹고 불의(不義)의 창수(漲水)가 두렵게 하고(4절) '음부(陰府)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임하였다'고 묘사하였다(5절).
 (2) 이렇게 다윗은 '사망', '창수', '음부' 등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당한 환난이 최악의 것이고 또 급박했던 것임을 밝혔다.
 (3) 그러나 이러한 극한 환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더욱 드높이는 이유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구원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속 4:6).

10. **㉠** 환난을 만났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6절)

- ㉠** (1)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성전에서 들으시고 열납하셨다.
 (2) 여기서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가 기도하면서 지냈던 마음의 열성과 진지함을 가리킨다.
 (3)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윗의 모든 기도를 열납하셨다는 의미이다.
 (4) 이처럼 환난 날에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50:15).

11. **㉠** 환난당한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7-15절)

- ㉠** (1)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계를 자의(自意)대로 주관하시듯이 장엄한 역사로 악인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시고(7절) 악인을 심판하심으로(14절) 응답하셨다.
 (2)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연계의 천재 지변(天災地變)으로 묘사한 것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로 그러한 자연 현상으로 응답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여기서 그는 그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도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손길임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4) 이처럼 성도의 주위에서 일어났던 모든 구원의 사건들은 비록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인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12. **㉠**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6-19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하였다(19절).
 (2) 사실 환난에 처한 다윗은 연약하여 그의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을 대항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17절).
 (3) 이렇게 다윗은 지상적(地上的)인 조건에서 불리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 위로부터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16, 18절).
 (4)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승리하셨다(마3:17).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엡1:5, 9).

13.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따라 다윗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하셨는가? (20, 24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의'를 따라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 손의 깨끗함을 따라' 보상을 하여 주셨다.
 (2) 여기서 '다윗의 의'라고 한 것은 다윗이 완전 무결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정직하게 행하려 하였던 그의 믿음을 말한다(참조, 롬3:28).

(3) 또한 다윗의 손이 깨끗하였다고 함은 다윗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거짓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였음을 의미한다(참조, 욥22:30).

(4) 이처럼 성도가 믿음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보상하여 주신다.

14. **㉠** 다윗이 행한 의(義)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1-23 절)

㉠ (1) 다윗이 행한 의는 여호와와 도를 지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21 절)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었다(22, 23 절).

(2) '여호와와 도(道)'나 율례와 규례는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말한다.

(3) 그러므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었고 또 죄에서 떠날 수 있었다는 말이다.

(4)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함으로 다윗처럼 의(義)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15. **㉠**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보응의 섭리는 어떠한가? (25-27 절)

㉠ (1)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악하고 거짓된 자에게는 그의 엄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보응하신다.

(2) 즉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친절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러우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하여 친절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신다.

(3) 그러나 '사특(邪惡)한 자' 곧 요사스럽고 비열한 자에게는 그들의 숨겨진 악행조차 엄밀히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신다(참조, 7:11).

(4) 그러므로 선인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있더라도 높임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형통하여 기고 만장(氣高萬丈)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낮아질 것이다(참조, 벰전5:5, 6).

16. **㉠**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켜신다 함은 무슨 뜻인가? (28 절)

㉠ (1) 이 말은 다윗이 흑암과 같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의미이다.

(2) 여기서 다윗은 자기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빛과 같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등불의 직분을 행하시고 계심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잠시 흑암 속을 거닐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17. **㉠** 다윗이 '적군에 달리며...담을 뛰어 넘듯이' 전쟁에서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9, 30 절)

㉠ (1) 다윗이 그렇게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29 절)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았기 때문이다(30 절).

(2)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담대하게 하신다.

(3)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참조, 창15:1; 수1:9)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마치 방패로 보호받는 것처럼 안전하다.

18. **㉠** 하나님이 힘으로 다윗에게 띠어주셨다 함은 무슨 뜻인가? (32 절)

㉠ (1) 여기서 '띠'란 군인의 허리띠(belt 혹은 girdle)나 고삐에서 취한 비유로 힘이나 정력을 상징한다(39 절; 사45:5).

(2)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띠어주셨다고 한 것은 연약하고 허약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강하고 용감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 우리 성도들도 많은 약점을 가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모든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19. **㉠**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과 손과 팔을 어떻게 무장시키셨는가? (33-36 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니 높은 곳에 세우시고 (33절)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의 팔로는 낫활을 당기게 하셨다 (34절).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난공 불락 (難攻不落)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요새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날쌔 사슴과 같은 기동력과 전투력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 (3) 따라서 다윗의 승리는 그의 전술이나 경험이나 단련과 같은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에 임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 (全身甲冑)로 무장하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 (엡6:10-17).

20. **㉠** 다윗이 원수들을 철저히 굴복시킨 사실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37-40 절)

- ㉠** (1) 다윗은 원수를 추격하여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고 (37절) 또한 그들을 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굴복케 하여 끊어 버렸다고 하였다 (38-40절).
- (2) 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심판한 것이다.
- (3)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근거로 행해야 한다.

21. **㉠**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란 말은 무슨 뜻인가? (41 절)

- ㉠** (1) '저희'란 다윗의 이방 대적을 가리킨다. 당시 이교도들도 때로는 외국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례가 흔히 있었다.
- (2) 당시 여호와와 이름이 주변 국가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바벨론 왕 산헤립이 랍사게의 입을 빌어서 '여호와와 뜻'을 말했던 것이 그 예이다 (왕하18:25).
- (3)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형통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뿐이다.
- (4)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이다 (출20:7). 오늘날도 진정한 믿음이 없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22. **㉠** 다윗이 열방의 으뜸이 되고 이방인들을 복종케 한다는 말씀이 갖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43-45 절)

- ㉠** (1) 다윗이 열방의 으뜸이 될 것이라 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오랫동안 소유할 것을 가리킨다.
- (2) 또한 이방인들이 그에게 복종케 되리라 한 것은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이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서 다윗의 통치를 받을 것을 가리킨다.
- (3) 이러한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토록 행사될 것이며 (계11:15) 그분의 통치 영역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말1:11)에 걸치는 전세계 (全世界)이다.
- (4) 오늘날 성도들은 왕 되신 그리스도의 대사 (大使)이다 (고후5:20). 그러므로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임을 생각하고 땅 끝까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19:4; 행1:8).

23. **㉠** 이방인들이 다윗의 풍성 (風聲)을 들은 즉시로 다윗에게 순복한다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44 절)

- ㉠** (1) 이 말씀은 다윗이 많은 승리를 통해 이방에까지 큰 명성을 얻어 이방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굴복할 사실을 가리킨다.
- (2)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더욱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복종시켰으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항했던 자들을 순종하게 만들었다.
- (3)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전파만으로도 이방인들을 정복하신다.

24. **Q** 다윗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46-49절)

- A** (1) 다윗이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려는 이유는 그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다(47, 48절).
 (2)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민족들을 굴복시켰으며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3) 오늘날 성도들도 자신들의 모든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살전5:18).

25. **Q**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큰 구원과 인자를 베푸신다고 하였는가? (50절)

- A** (1) 여호와께서는 ‘그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영토록 베푸신다’고 하였다.
 (2) 여기서 ‘후손’이라고 한 것은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의 후계자를 말한다(삼하7:12).
 (3) 더구나 ‘영영토록’이라고 한 말을 볼 때 그 후계자는 솔로몬이나 다른 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4)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다(행3:19).

화보자료

불의의 창수(漲水). 아래의 사진은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모자이크로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 불의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창 7:21-23)을 표현한 것이다.



본사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대적들에 의한 위험을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엄습한 것으로 비유하였다(4절). 또한 그는 그 같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물에서 자신을 건져 주신 것으로 비유하였다(16절).

제 19 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다

단락구분 1-6 자연에 나타난 말씀을 찬양하다 / 7-10 율법에 나타난 말씀을 찬양하다 / 11-13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 14 기도를 들으소서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이 그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7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

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키므로 상이 크나이다

12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 나겠나이다

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 되기를 원하나이다

1. ㉠ 본시(本詩)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라.

- ㉠ (1) 본시에서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1-10절) 그 말씀을 지키므로 죄를 짓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11-14절).
- (2) 본시는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이것이 곧 '자연 계시' (自然啓示)이다.
- (3) 또한 본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 준다고 밝힌다. 이것이 곧 '특별 계시' (特別啓示)이다.
- (4) 이처럼 우리는 자연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밝아진 자만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2. ㉡ 다윗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다윗은 동의적 대귀법에 의해서 한 가지를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즉 하늘과 궁창은 같은 말로서 모든 우주의 전체 구조를 대표하고 있다.
- (3)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신 일을 묵상하게 될 경우 지상의 하찮은 식물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참조, 마 6:24-30).

3. ㉢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이 말은 매일 연속되는 낮과 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을 쏟아 놓고 또 그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뜻이다.
- (2) 즉 연속되는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길어졌다 하면서도 매년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조정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된다.

(3) 이러한 낮과 밤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 놓으신 말씀과 법칙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참조, 창 1:14, 15; 8:22; 렘 33:20, 25).

(4) 이처럼 낮과 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하심에 대하여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4. **㉠ 3절과 4절의 '소리'는 어떻게 다른가?**

㉠ (1) 3절에서는 '(하늘에)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하였고 4절에서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라고 하였다.

(2) 3절에서는 특별히 '들리는 소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소리(히, 콜)라 함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늘과 궁창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그러나 4절에 사용된 '소리'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지 않는다. 즉 4절의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왈>은 '줄' 혹은 '글씨'를 의미하는 말로서 눈에 보이는 언어를 가리킨다.

(4) 이처럼 하늘은 들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보는 소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 주고 있다.

5. **㉠ 하늘의 소리는 어디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는가? (4a절)**

㉠ (1) 하늘의 소리는 온 땅을 통하여 그 말씀은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2) 여기서 '말씀' (히, 밀라)이란 하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한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땅을 통하여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인간의 언어와 지능을 초월한 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사실을 가리킨다.

(4)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는 핑계를 할 수 없다(참조, 롬 1:19, 20; 10:18).

6. **㉠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베푸셨는가? (4b절)**

㉠ (1)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 '장막' (帳幕)을 베푸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태양이 거하는 곳으로 만드셨다는 뜻이다.

(2) 즉 밤이 되면 해가 서산에 기울어 장막에 쉬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이 광경을 시적(詩的)으로 표현하면서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天體)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이러한 천체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의 약정(約定)으로(창 8:22) 그것이 변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 준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言約)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렘 33:20, 21).

7. **㉠ 다윗이 해를 신랑과 같고 장사(壯士)와 같다고 비유한 의도는 무엇인가? (5, 6절)**

㉠ (1) 다윗이 해를 그렇게 비유한 의도는 해의 장엄한 광채와 그 길을 달려가는 신속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2) 즉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과 광채는 마치 장막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화려하고 신선했으며 그렇게 솟아난 해가 하늘을 운행하는 것은 용맹스런 장사와 같다는 말이다.

(3) 이러한 해의 광채와 신속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웅변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해의 광채가 온누리에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장엄한 교향곡(交響曲)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8. **㉠ '해의 온기(溫氣)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다'고 한 말의 뜻은 무엇인가? (6절)**

㉠ (1) 이 말은 해의 영향력이 지구의 구석구석에 미쳐 생명을 유지케 하여 준다는 뜻이다.

(2) 비록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이 태양 빛에서부터는 숨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온 땅에 너저로서 받아들이는 '해의 열기'에서는 숨어 있을 수 없다.

(3) 이처럼 해의 열기에서 자기를 숨길 자가 없다면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자

기를 숨길 자가 있겠는가?

- (4) 따라서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起動)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행 17:28).

9. **㉠** 본시의 후반부(7-10절)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 ㉠** (1) 후반부는 하나님의 율법 곧 특별 계시를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道), ‘규례’ 등 비슷한 말을 반복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2) 앞에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거한다고 했으나 우리 인간은 죄로 영안(靈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연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수단으로 자신에 대한 보다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治癒) 받게 되며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

10. **㉠**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役事)하는가? (7,8절)

- ㉠** (1)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지혜롭게 하며 기쁘게 하여 마음의 눈을 밝게 한다.
 (2)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이다.
 (3)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울이 경계한 의문(疑文)에 속한 계명의 율법(엡 2:15)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함한 의미에서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참조, 히 4:12, 13).

11. **㉠** 하나님의 율법이 정결(淨潔)하고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함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이 고안한 거짓된 신앙 방식과 독단적인 교리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사색을 통하여 고안된 교훈을 따르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더욱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12. **㉠**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또한 더 달다고 하였는가? (10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정금(精金)’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다.
 (2) 여기서 ‘정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즈>는 용광로에서 순결하게 잘 정련(精鍊)된 금을 말한다(참조, 욕 28:17). 이 정금은 가장 희귀하고 값비싸며 모든 사람이 갖기를 가장 열망하는 보물이다.
 (3) 또한 ‘송이꿀’은 깊은 꿀짜기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순수한 덩어리 꿀을 말한다. 이 송이꿀은 사람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나타내는 최고의 상징이다(참조, 119:103).
 (4)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육적인 쾌락에 대한 사랑을 죽어야 한다(참조, 골 3:5; 요일 2:15, 16).

13. **㉠** ‘상이 크다’고 함은 무슨 뜻인가? (11절)

- ㉠** (1) ‘상이 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는 <에케브 롬>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내세의 보상이 크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2)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기억될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 상급이란 곧 영원한 구원이다(벧전 1:8, 9). 반면에 이 세상을 따르는 자의 자취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요일 2:17).

14. **㉠** 다윗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 (1) 다윗은 11절에서 율법의 준수에 따른 놀라운 상급을 확신한 후 12절에서는 갑자기 어

조(語調)를 바꾸어 슬픈 마음으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 (2)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3) 특별히 다윗은 '숨은 허물'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깨달을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 (4) 칼빈(Calvin)은 '자신의 죄악을 백분지 일이라도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율법 준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해서만 구원받게 됨을 기억해야 하겠다(벧전1:18,19).

15. ㉠ '고범죄' (故犯罪)란 무엇을 말하는가? (13절)

- ㉠ (1) '고범죄' (히, 제답)는 자신이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범죄를 말한다(참조, 민 15:30, 31).
- (2) 이처럼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일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7:9)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3)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정직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데 있다(13절).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51:10).

16. ㉠ 다윗이 결론적으로 한 기도는 무엇인가? (14절)

- ㉠ (1) 다윗은 결론적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의 앞에 열납(悅納) 되기를 원하나다' 라고 기도했다.
- (2) 이 기도는 위에서 말한 허물(12, 13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입과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 (3) 이러한 기도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과 구속자'라고 부름으로써 자기의 요청이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
- (4) 이처럼 우리도 외적 범죄에 대하여 자신을 지키는 한편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참조, 갈 5:16-18).

연구자료

원죄(原罪)와 고범죄(故犯罪). 원죄란 인류의 대표적인 아담이 범죄하여 그 죄의 책임과 더러움이 인간의 혈통을 따라 계속 유전되어 가는 죄를 말한다(롬 5:12). 이 죄는 인간 본성 전체를 부패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조그마한 영적 선이라도 행하지 못하게 한다(엡 2:3).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때때로 선행을 해도 그것은 타락한 본질에서 나오는 불완전한 행위에 불과한다. 고범죄는(13절)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범하는 죄를 가리킨다. 따라서 원죄는 하나이지만 고범죄는 여러 종류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회개한 성도들은 이런 모든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항상 고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도 아직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인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참조, 요일 1:8-10).

제 20 편 기도 응답에 대한 왕의 간구

단락구분 1-2 환난 날에 응답하시기를 구하다 / 3-5 기도 응답과 승리 / 6-9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다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불드시며

3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셀라)

4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5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쁨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6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7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 저희는 굶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락하소서

1. ㉠ 본시(本詩)의 내용과 중심 사상을 설명하라.

- ㉠ (1) 본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도와 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교회의 공동 기도가 담겨져 있다.
- (2)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일차적으로 다윗을 가리는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므로 결국 본시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를 주제로 하고 있다.
- (3) 따라서 우리는 본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되며 그리스도 왕국의 견고함과 번영을 보게 됨으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할 수 있다(참조, 뱀전 3:15).
- (4) 이와 같이 메시아의 통치를 주제로 하는 본시는 '메시아 시'라고 불리는 10개의 시(2, 8, 20, 21, 22, 45, 72, 89, 110, 132편) 중 하나이다.

2. ㉠ 본시의 배경과 저자를 설명하라.

- ㉠ (1) 본시는 다윗이 어떤 군사 행동을 앞두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지은 시이다.
- (2) 또한 본시는 왕을 제 삼자로 하고 그를 위한 전승 기원(戰勝祈願)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저작자는 왕인 다윗이다. 시문학(詩文學)에서는 저술자 자신을 제 삼자로 일컫는 경우가 많다(참조, 18편).
- (3) 그리고 본시에 나타난 전쟁은 다윗이 수리아와 암몬을 공격할 때의 전쟁일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참조, 삼하 10, 11장; Delitzsch 등).

3. ㉠ 본시의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시를 저술하신 성령의 목적은 교회에게 공동 기도의 형식을 전달하는 데 있다.
- (2) 이러한 본시의 기도 형식은 교회가 환난 때, 즉 무슨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3) 교회는 환난 때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4. ㉠ 1-5절에 '너' 라는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 ㉠ (1) 1-5절에 '너' 라는 2인칭 대명사가 10번이나 쓰이고 있는데 6절에서는 이 대명사가 가

리키는 사람이 설명되고 있다.

- (2) 즉 '여호와께 속한 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된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가리킨다.
- (3) 아울러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다윗이 예표한 그리스도를 지시한다.
- (4) 여기서 다윗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져 다윗이 승리한 것은 곧 다윗의 백성들의 승리가듯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는 모든 성도의 승리이다(참조, 요 16:33).

5. **㉠ 여호와께서 언제 응답하시길 기도하는가? (1a절)**

㉠ (1) '환난 날에' 응답하시길 기도하고 있다.

- (2) 이렇게 '환난 날에'라고 한 것은 성도가 환난에서 면제받지 않고 언젠가는 환난을 당할 사실을 암시해 준다.
- (3) 본시가 이런 사실을 암시하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환난을 당할 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4) 이처럼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50:15).

6. **㉠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슨 뜻인가? (1절)**

㉠ (1)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한 번 세우신 약속은 결코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창 28:15)도 지키실 것이다.

- (2)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란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3)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갖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 (4) 이런 의미에서 요엘 선지자와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였다(욥 2:32; 롬 10:13).

7. **㉠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1) 이 말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은혜로써 환난을 당한 성도를 구하여 안전하게 이끌어 내신다는 뜻이다(참조, 50:15).

- (2)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기도를 들으시는 '야곱의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다.

8. **㉠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성도를 도와 주시고 불드시는가? (2절)**

㉠ (1)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성소'에서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불들어 주신다.

- (2)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재를 모신 시온 산에 있는 거룩한 처소이다. 또한 언약재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를 도와 주신다.
- (3) 또한 '시온'에서 불들어 주신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후 계속하여 견고한 생활을 하도록 하신다는 뜻이다.
- (4) 여기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와 주심과 불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배우게 된다.

9. **㉠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심과 소원대로 허락하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4절)**

㉠ (1) 3절에서 말한 소제(히, 민카)와 번제(히, 올라)는 성도의 헌신을 상징하며 4절의 소원이나 도모(圖謀)는 성도의 기도를 가리킨다.

- (2) 본시에서 다윗이 먼저 제물 받으시기를 원하고 다음에 소원 허락하시기를 원했던 것은 기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지시하여 주고 있다.

- (3) 즉 성도는 먼저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가운데에서만 하나님께 바른 간구와 기도를 올릴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 (4)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약4:3).

10. ㉠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旗)를 세운다'고 함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이 말은 성도의 승리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다.
- (2) 이와 같이 성도들은 승리하고 형통할 때 이방인처럼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참조, 약5:13).

11. ㉠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다.
- (2) 이 말은 여기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강한 구원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도와 주실 것을 가리킨다.
- (3) 한편 본귀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 (4)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참조, 롬1:4).
- (5)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참조, 고후 13:4).

12. ㉠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의 결과는 각각 어떠한가? (7, 8절)

- ㉠ (1)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강한 듯이 보이며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굽어 엎드러지고 만다'.
- (2)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약하게 보이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일어나 바로 서는' 승리자가 된다.
- (3)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처럼 세상의 무력(武力)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하여야 한다(참조, 146:3-5).

본장의 요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5절).

제 21 편 왕의 승리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

단락구분 1-3 왕의 승리 / 4-6 왕의 장수(長壽)와 영화(榮華) / 7-12 왕의 권세 / 13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1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셀라)
 3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4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5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6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7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8 네 손이 네 모든 원수를 발견함이며 네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이다
 9 네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이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이다
 10 네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이다
 11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제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2 네가 저희로 돌아서게 함이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이다
 13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되나이다

1. ㉠ 본시(本詩)의 내용을 20편과 관련하여 설명하라.

- ㉠ (1)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도자인 왕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데에 그 저술 목적이 있다.
 (2) 왕은 백성의 머리이기 때문에 왕의 안정과 번영과 승리는 곧 몸과 같은 백성들 전체의 기쁨이 된다.
 (3) 이러한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왕국의 목적이며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

2. ㉡ 본시에 나타난 왕의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1-7절)

- ㉡ (1) 본시에 나타난 왕의 승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한다.
 (2) 즉 왕의 승리는 '영영한 장수' (4절)와 '존귀와 위엄' (5절), '지극한 복' (6절), '요동치 아니함' (7절)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얻으실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3) 이처럼 놀라운 승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열거된 모든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3. ㉢ 왕이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하였는가? (1절)

- ㉢ (1)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라고 하였다.
 (2) 이런 사실은 왕이 이미 주의 힘과 구원을 경험했음을 보여 준다.
 (3) 또한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미래형을 사용한 것은 계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왕은 제

속하여 주의 힘과 구원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막강한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계속하여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4.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거절치 아니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은 '입술의 구함' 을 거절치 않으셨다. 즉 20편에서 언급된 왕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다.
 (2)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 에 따라 구하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37:4).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역사하실 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시고 역사하신다 (빌 2:13).

5. **㉠** 하나님께서 왕을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아름다운 복' 이라고 한 것은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 혹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2)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을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셨다는 것은 왕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도 왕의 소원을 예상하고 모든 선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셨다는 뜻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영접하시되, 풍성함으로 영접하시며 (눅 16:22; 엡 3:2) 성도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사 65:24).

6. **㉠** 하나님께서는 왕의 머리에 무엇을 씌우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왕의 머리에 '정금 면류관' 을 씌우셨다. 이 정금 면류관은 왕권의 상징이요 증거이다 (참조, 왕하 11:12).
 (2)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뜻이다.
 (3) 한편 이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적 권위가 영원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메시아의 왕권은 그의 완전한 승리의 결과이다.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계 22:5).

7. **㉠** 왕이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영영한 장수 (長壽) 의 생명을 주심으로 응답하셨다.
 (2)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여러 번 그의 생명을 구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다 (6:4, 5; 9:13).
 (3)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의 자리에 올려 주시고 장수하게 하셨다.
 (4)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사망의 자리에까지 떨어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신다 (계 11:15).
 (5) 이와 동일한 영영한 생명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다 (133:3; 요 6:40).

8. **㉠** 주께서 다윗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다윗에게 입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이 말은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리시고 왕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시적 (詩的) 인 표현이다.
 (2) 이와 같이 다윗이 받았던 영광스런 왕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결과로 따라온 것이다 (5절).
 (3)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단순히 생명만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서 존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구원이다.

9. **㉠**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영영토록 무엇을 받게 하시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여기서 지극한 복은 최상급으로서 왕이 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인간들에게 축복의 한 원천으로 삼으셨다.
- (2)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때(창12:3)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한 것과 같다.
- (3)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한 복을 누리게 되며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0. **㉠** 왕이 어떻게 함으로 요동치 아니하게 되는가? (7절)

- ㉠** (1)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요동치 않게 된다.
- (2)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을 체험하게 된다.
- (3)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지켜 주시고 보호하실 때 어느 누구도 성도를 흔들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萬有)보다 크시기 때문이다(요10:29).

11. **㉠** 왕은 원수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소멸할 것인가? (8-12절)

- ㉠** (1) 왕은 모든 원수를 마치 불 용광로 안에서 소멸하여 버리듯이 완전히 물리쳐 버리고 그 후손을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 (2) 여기서 원수란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무리, 즉 사단의 무리를 가리킨다(히2:14).
- (3) 이러한 자들의 진멸 사건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 날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 (4) 그렇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 즉 십자가상의 승리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롬8:2; 요일3:8).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에 이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할 수 있다(참조, 요16:33; 제17:14).

12. **㉠** '네 손이... 발견함이어'란 무슨 뜻인가? (8절)

- ㉠** (1) '발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차>는 '충족하다', '채우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손'은 능력을 상징한다(눅11:20).
- (2) 따라서 '네 손이 네 모든 원수를 발견함이어'란 '왕의 능력은 그의 모든 원수들을 전멸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 (3)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막강(莫強)하기에 사단과 그 무리들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제19:15, 16).

13. **㉠** 왕은 그의 원수들을 어떤 모양으로 소멸할 것인가? (9절)

- ㉠** (1) 왕은 원수들을 마치 용광로에 넣고 불로 소멸하듯이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 (2)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 심판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대적들에게 다시 이루어질 것을 가리킨다(참조, 벰후2:6).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사실에 경계를 받아 깨어 기도함으로 환난을 당할 때 위로와 격려를 받도록 해야 한다.

14. **㉠** 원수들은 어떤 계교(計巧)를 품었는가? (11절)

- ㉠** (1) 그들은 왕을 해(害)하기 위한 계교를 품었다.
- (2)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전쟁을 하려고 대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이 계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
- (3) 오늘날도 성도를 해하려고 모략(謀略)을 꾸미는 자들이 있는데 그 모략은 저절로 실패하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15. **㉠** 본시의 맺음말은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는가? (13절)

- Ⓐ (1) 본시의 맺음말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이다
- (2) 이 맺음말은 특별히 ‘주의 능력’, ‘주의 권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있다.
- (3) 이것은 20, 21편의 맺음말로서 매우 적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은 능력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베풀어져서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한다(엡 1:19). 따라서 우리들도 주의 능력과 권능을 노래하며 칭송(稱頌)할 것이다.

화보자료

활시위를 당기시는 하나님. 아래의 사진은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5세기의 기도서 삽화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들을 향하여 공의의 화살을 겨누고 계시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악인의 궤계로 인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의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참조, 22:20, 21). 그리고 친히 악인을 대적하셔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심판의 근거는 공의(公義)이다(참조, 9:8).

제 22 편 고난의 부르짖음과 찬양의 노래

단락구분 1-2 고난 중에 탄식하다 / 3-5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다 / 6-11 가련한 처지를 진술(陳述)하다 / 12-21 사망의 진토(塵土)에서 주님의 구원을 애걸(哀乞)하다 / 22-26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찬양하다 / 27-31 은 세상이 찬양할 것을 예언하다

1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까

5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까

6 나는 벨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궤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9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까

10 내가 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11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까

12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들렀으며

13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췌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쫓길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몸에 붙었나이까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까

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까

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까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 내 걸음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까

19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뺨에서 구원하셨나이까

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 할지어다

24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5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값으리이다

26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7 땅의 모든 깔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28 나라는 여호와와 것이요 여호와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29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이다

30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31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1. ㉠ 본시(本詩)의 예표적 의미를 설명하라.

㉠ (1) 본시에서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구원을 애걸한 후(1-21절)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후 주의 이름을 전파할 것을 다짐한다

(22-31절).

- (2) 이러한 내용의 본시는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예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3) 이와 같이 본시는 전형적인 ‘메시아 시’로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 중의 하나이다(참조, 마 27:39, 40, 43, 46; 요 19:24 등).
- (4) 우리는 본시를 통해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이 이미 다윗의 심령 속에서 경험되었던 사실을 보게 되고 우리들의 가슴속에서도 경험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야엘렛사할에 맞춘 노래’이다.
- (2) 여기서 <야엘렛>이란 히브리어로 ‘암사슴’을 의미하는 말이며 <사할>이란 ‘새벽’을 의미하는 말이다.
- (3) 따라서 <야엘렛사할>은 ‘새벽의 암사슴’이란 뜻을 지닌다. 이 뜻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곡조의 분위기를 지시하는 용어로 짐작된다.

3. **㉠** 본시의 배경은 어떠한가?

- ㉠** (1) 본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으며 온갖 수난을 겪을 때에 쓰여진 것이다(참조, 삼상 23:24-29).
- (2) 이 시기에 다윗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본시에 묘사되고 있는 흔히 볼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反映)하고 있다.
- (3) 한편 본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17, 69편은 당시의 상황이 매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 준다.

4. **㉠** 극심한 고난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탄식한 첫마디는 무엇인가? (1절)

- ㉠** (1) 다윗이 탄식한 첫마디는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이다.
- (2) 이 말의 히브리어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아잡타니>란 말 대신 아랍어인 <사박다니>란 말을 사용하셨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평소에 아랍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다윗은 예수님처럼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느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 (히, 엘리)이라고 불렀다.
- (5) 이와 같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할 수 있다.

5. **㉠**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란 무슨 뜻인가? (1절)

- ㉠** (1) 이 말은 다윗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 (2) 이처럼 성도가 환난을 당하여 기도하지만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시거나 숨으신 양 기도에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10:1).
- (3)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멀리 떠나신 것도, 돕지 아니하시는 것도 아니다. 성도가 도움 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도와 주기를 원하신다.
- (4)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는 손길을 잠시 늦추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도에게 더 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다(참고, 고후 12:8-10).

6. **㉠** 다윗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2절)

- ㉠** (1)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할 정도로 기도하였다. 이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지속적이었던가를 보여 준다.
- (2) 즉 다윗은 그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은 중에도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이다.

(3) 성도의 신앙 생활 중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헛수고인 것처럼 여겨치기도 한다.

(4) 그러나 우리는 낙망치 말고 '원한을 가진 과부'처럼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눅 18:1-8).

7. **㉠** 다윗이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기도한 다섯 가지 이유를 말하라 (3-21절).

- ㉠** (1)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성도를 보호하셔서 찬송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이다(3절).
 (2)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4, 5절).
 (3) 세째로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6-8절).
 (4) 네째로 다윗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9-11절).
 (5) 마지막으로 다윗의 대적은 너무나 강하고 억센 반면 다윗 자신은 매우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12-21절).
 (6) 이처럼 성도는 주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다.

8. **㉠** 이스라엘의 열조가 하나님께 의뢰(依賴)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4, 5절)

- ㉠** (1) 여기서 '의뢰한다' (히, 바타흐)는 말은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 자세를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25:2).
 (2) 이스라엘의 열조는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기도의 용기를 얻고 있다.
 (3)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Calvin).

9. **㉠**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다윗을 비웃었는가? (7절)

- ㉠** (1) 사람들은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면서 다윗을 조롱하였다.
 (2) 이렇게 입술을 비죽이며 아랫 입술을 내미는 것은 당시 하류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모독적인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3) 한편 머리를 흔드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향한 경멸의 표시이다(참조, 왕하 19:21; 사 37:22).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경멸과 모욕을 받으셨다(마 27:39).
 (4)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견디 내도록 해야 하겠다(참조, 뱀전 4:13).

10. **㉠** 사람들은 어떤 말로 다윗을 비웃었는가? (8절)

- ㉠** (1)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면서 비웃었다.
 (2) 특별히 '저를 기뻐하시니' 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름 부음을 조롱한 말이다(참조, 삼상 16:1-13).
 (3) 이러한 기름 부음에 대한 조롱은 결국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로 십자가 상에서 모욕을 당하셨다(마 27:43).
 (4) 우리는 이러한 모독적인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처럼 침묵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11. **㉠** 다윗은 자기의 대적들을 어떤 짐승으로 비유하였는가? (12-16절)

- Ⓐ (1) 다윗은 자기 대적들을 황소(12절)와 사자(獅子, 13절)와 개(16절)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잔인성과 야만적인 횡포를 하나님께 아뢰었다.
- (2) 즉 다윗의 대적은 ‘황소’처럼 사나웠고 ‘개’처럼 야비하고 파렴치한 자들이었다.
- (3) 다윗이 이러한 대적들을 특별히 짐승으로 비유한 이유는 그들이 사단의 도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참조, 창 3:1; 애 2:16; 3:46; 암 3:4).
- (4) 오늘날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사실은 사단에게 조종되고 있는 도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단을 이기기 위한 성도의 무기는 믿음의 기도임을 기억해야 하겠다(참조, 엡 6:16; 뱀전 5:8, 9).

12. ⓐ ‘사망의 진토(塵土)’란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5절)

- Ⓐ (1) 여기서 ‘진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파르>는 마른 땅, 먼지라는 뜻 외에 무덤의 의미도 갖는다(참조, 30:9).
- (2) 따라서 ‘사망의 진토’란 말은 죽음에 임박한 위기의 상태를 상징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망의 진토에 버려졌다고 말한다면 생명에 대한 모든 소망이 사라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 (3) 다윗은 바로 이런 상태에 처하였다. 또한 이것은 성도가 받는 고난의 극한 상황을 말한다. 자기의 고난을 가리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고후 1:9)라고 하였다.
- (4) 이처럼 성도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를 의뢰치 말고 부활의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다(고후 1:9, 10).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케 된다.

13. ⓐ 다윗의 옷에 관한 말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18절; 요 19:24)

- Ⓐ (1) 다윗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원수들에게 약탈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다윗이 비유적으로 한 말이 그리스도에게는 사실로 성취되었다. 곧 그리스도께서 못박히신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병들이 그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어 가졌던 것이다(참조, 마 27:35; 눅 23:34; 요 19:24).
- (3)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본시에 나타난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 (4) 이와 동일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참조, 행 14:22; 고후 1:5-7). 따라서 성도들은 지상의 모든 소유가 약탈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 내야 할 것이다(참조, 욕 1:21).

14. ⓐ 다윗이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부른 것은 무슨 뜻인가? (19절)

- Ⓐ (1)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지경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했지만(15절)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망을 품고 탄식을 기도로 바꾸었다.
- (2) 즉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 것이다(참조, 18:1; 합 3:19).
- (3) 즉 다윗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칼과 개의 세력과 사자 입과 들소 뿔’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다(20, 21절).
- (4) 이처럼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를 구원하신다(참조, 요일 4:4).

15. ⓐ 기도 응답을 받은 후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였는가? (22-31절)

- Ⓐ (1) 다윗은 먼저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앞에서 찬송하면서 그들에게도 찬송을 권하였다(22-26절).

- (2)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찬송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27-31절).
- (3) 이와 같이 절망의 심연(深淵)에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자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는 강한 마음을 갖는다.

16. Q 어떤 사람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가? (26절)

- A (1) '겸손한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된다. 여기서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빌 2:3) 스스로를 낮추어 내려 앉는 것을 말한다(눅 14:11).
- (2) 이렇게 남에게 양보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도리어 배부름을 얻는다(참조, 107:9).
- (3) 여기서 배부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위로와 기쁨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17. Q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인가? (29절)

- A (1)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들'과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풍비(豐備)한 자'라 함은 건강하고 튼튼하며 풍요한 환경에 처한 귀족들을 가리킨다.
- (3) 반면에 '진토에 내려가는 자'는 바짝 마르고 가난하며 음식을 먹지 못해 거의 죽어 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4) 이런 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즉 전자는 교만을 버리고 후자는 열등 의식을 버려서 함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이다(참조, 약1:9, 10).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배부른 자와 주린 자, 고귀한 자와 비천한 자,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를 함께 초청하셨다면, 오늘날 복음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초청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눅 14:15-24).

본장의 요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1절).

제 23 편 여호와와 나의 목자

단락구분 1 목자이신 하나님 / 2-3 하나님의 인도 / 4 하나님의 보호 / 5 하나님의 축복 / 6 다윗의 결심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

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 ㉠ 본시(本詩)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 (1) 본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아름다운 시로서 하나님과 성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2)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많지만(사 40:11; 요 10:11; 뱀전 5:4 등) 본시와 같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등 아름다운 회화적(繪畵的) 배경을 가지고 간결하고도 우아하게 표현된 부분은 많지 않다.

(3) 우리는 본시를 통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에 대하여 보다 깊이 확신하고 다윗처럼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결심을 해야 하겠다.

2. ㉠ 본시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본시는 매우 아름다운 전원시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평화롭고도 조용한 즐거움을 그린 시이다.

(2) 그런 사실은 본시 속에 비참한 현실을 아뢰는 구원의 간구가 전혀 없고 단지 감사의 고백이 가득 차 있다는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3) 한편 '다윗의 시' 라는 표제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본시의 저자는 다윗이다.

(4) 따라서 다윗의 통치권이 공고하게 되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때 본시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설명하라 (1-5절).

㉠ (1)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을 취급하듯이 성도들을 보살피시는데 본시에서 다윗은 선한 목자를 예로 들어 3 단계로 나타내고 있다.

(2) 먼저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무리를 인도하여 잘 먹고 잘 지내도록 보살피 주고 자신이 아는 올바른 길로 행하게 한다(2,3절).

(3) 이 올바른 길은 때로 강도들과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는데 그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무리가 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하여 준다(4절).

(4) 이와 같이 인도와 보호를 하신 후 선한 목자는 양으로서는 과분하게 느껴지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 준다(5절).

(5)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시에 나타난 다윗

의 체험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10:7-11).

4. **Q**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가? (1절)

A (1)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였다(참조, 80:1; 사 40:11; 겔 34:11, 12).

(2)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것은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 양을 보호한 바 있던 그 자신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고백이다(삼상 17:34-36).

(3) 즉 양이란 동물은 사자나 곰 같은 맹수보다 약하여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지만 충실한 목자가 곁에 있으므로 해서 목자의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4) 이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고 목자가 있으면 살게 된다는 차원에서 목자는 양의 생명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을 고백하였다.

(5) 우리들도 양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불러야 한다.

5. **Q**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A (1)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Delitzsch).

(2)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주시되(마 16:26) 풍성하게 주신다(요 10:10).

(3) 때로는 성도가 빈곤에 처할 때도 있으나(빌 4:12) 그때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적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4) 반면에 외형적으로 제아무리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아니시라면 그는 빈털털이요, 기아(飢餓) 상태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6. **Q** '푸른 초장'이란 어떤 곳인가? (2절)

A (1) '푸른 초장' (히, 네웃 데쉐)이란 연하고 부드러운 풀이 많은 목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초장' (히, 네웃)이란 말은 '오막살이' 또는 '숙소'로도 번역될 수 있다.

(3) 추운 지역에서도 뜨거운 태양열이 양 떼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운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에서 양의 우리는 매우 중요하였다.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된 성도들을 매우 세심한 배려로써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7. **Q** '설 만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A (1) '설 만한 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메 메누호트>인데 이는 천천히 흘러가는 시냇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런 물이 양들이 마시기에 편리하고 적합하다.

(2) 다윗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은혜를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엡 3:20; 빌 4:19).

8. **Q** '영혼을 소생(蘇生)시키신다'고 함은 무슨 뜻인가? (3절)

A (1)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함은 죄악 가운데서 지쳐 피곤해 있는 영혼을 회개케 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42:5, 11; 43:5).

(2) 이렇게 영혼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

(3)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19:7) 살아 운동력이 있어(히 4:12) 듣는 사람의 영혼을 수술(手術)하여 건강하게 회복시킨다.

(4) 본시의 저자 다윗도 큰 죄를 지어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

여 소생(蘇生)한 경험이 있다(참조, 삼하 12:1-15).

(5) 우리들도 혹 죄로 인해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 있다면 성경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회개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야 하겠다(51:12).

9. **㉠**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가? (3절)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義)의 길'로 인도하셨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을 의미한다.

(2) 이러한 생활은 정직하고(잠 4:11) 공평하게(잠 8:20)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참조, 사 49:10; 계 7:17) 축복을 받게 된다.

(3) 다윗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했다(5:8; 139:24; 143:10).

(4) 그러므로 성도는 의의 길이 평생의 행로(行路)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10. **㉠**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이유는 다윗이 홀름해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사 43:7)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참조, 질 20:9).

11. **㉠**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害)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그 이유는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staff)와 막대기(rod)로 안위(安慰)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지팡이' (히, 미세 아넷)란 손잡이가 있는 지주(支柱)로서 목자가 피곤할 때의 지도하고 양 떼를 인도하기도 하는 지팡이를 가리킨다. 또한 '막대기' (히, 슈벳)는 양 떼에 달려드는 짐승들을 후려 갈기는 작대기 또는 곤봉 같은 것이다.

(3) 이러한 목자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만났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해를 당하지 않았다(참조, 삼상 18:11, 26; 19:10; 21:10-15 등).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되 극한 환난 중에서도 머릿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단 3:27; 눅 21:16-18).

12. **㉠**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5절)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식탁을 베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다.

(2) 이것은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벌어지는 연회(宴會)를 비유로 한 표현이다. 즉 연회에 청함 받은 사람 중 귀빈들에게는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었다(133:2).

(3) 실제로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일행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푸신 적이 있었다(삼하 17:27-29).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마치 귀한 손님처럼 풍성한 은총과 축복으로 맞아 주신다(참조, 눅 15:22-24).

13. **㉠**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무엇을 결심하는가? (6절)

㉠ (1) 다윗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것을 결심한다.

(2) '여호와와 그의 집'이란 하나님의 궤를 모신 장막을 가리키는데(수 6:24; 대상 16:39) 여기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 생활을 상징하는 말이다.

(3) 즉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였기에 '성전에 거한다'고 말할 정도로 성전을 빈번하게 출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이다(참조, 27:4; 65:4).

(4)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체험한 성도들은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제 24 편 영원한 문들이 들릴지이다

단락구분 1-2 창조주 하나님 / 3-6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의 자세 / 7-10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문

1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3 여호와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5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셀라)

7 문들이 너희 머리를 들지이다 영원한 문들이 들릴지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 문들이 너희 머리를 들지이다 영원한 문들이 들릴지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셀라)

1. 본시(本詩)의 내용과 그 영적 의미를 설명하라.

- (A) (1) 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예배할 자들의 자세를 설명한 후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문을 열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이 시는 다윗이 오벧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시온 산에 준비한 장막에 옮기기로 결단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졌다(삼하 6:12-19).
- (3) 이때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따라서 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성도들 중에 임재하실 때에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 (4) 이에 대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만왕의 왕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영접하고(요 1:12)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다(계 3:20).

2. 본시의 저자는 누구인가?

- (A) (1) 본시의 저자는 표제문에 밝혀진 대로 다윗이다. 본시를 다윗이 저작했다는 사실은 가장 비평적인 학자들에게까지 인정되고 있다.

3. 다윗은 어떠한 것들을 여호와와의 것이라고 선언하는가? (1절)

- (A) (1) 다윗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여호와와의 산'이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시온 산을 가리키는 이름인데 신약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장소를 상징한다(요 4:19-24).
- (3) 그러므로 본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기에 올바른 자세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 (4) 즉 유대인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버림을 받고 말 것이요 이방인일지라도 언약을 지킨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 (5) 이러한 복음적 원리에 의해 오늘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롬 11:20).

4. '여호와께서 그 터를... 건설하셨도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게 하신 사실을 가리킨다(창 1:9).
- (2)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본절 앞에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기>가 있어 본절이 앞의 1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3) 따라서 삼라 만상(森羅萬象)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이다(요 1:3).
- (4)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욥 1:21).

5. ⓐ 다윗의 질문의 뜻은 무엇인가? (3절)

- Ⓐ (1) 다윗은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라고 질문한 후 4절에서 그 질문에 대답한다.
- (2) 여기서 ‘여호와와 산’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산을 가리킨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장소를 상징한다(참조, 요 4:19-24).
- (3) 우리는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있는지 다윗처럼 자문(自問)하여 볼 필요가 있다.

6. ⓐ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자는 어떤 사람인가? (4절)

- Ⓐ (1) 그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이다.
- (2)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 함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범되지 않음을 말하고, ‘마음이... 아니하며’는 내부적 마음과 뜻이 옳아야 할 것을 말한다.
- (3) 한편 ‘거짓 맹세치 않는다’는 것은 말에 있어서 거짓된 점이 없어야 할 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말이다.
- (4) 이처럼 손, 마음, 입 등 세 가지 면에서 정결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 (5) 이러한 완전한 정결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만이 가능하다(히 9:14).

7. ⓐ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얻을 축복은 무엇인가? (5절)

- Ⓐ (1) 그는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 (2) 여기서 의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사실을 가리킨다(사 45:25).
- (3) 이처럼 올바른 마음 자세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8. ⓐ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는 누구를 찾는 족속인가? (6절)

- Ⓐ (1)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다.
- (2) 이것은 겉꾸미는 자들과는 달리 행동으로 여호와와 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가리킨다(27:8).
- (3) 이와 반대로 겉꾸미는 자[外飾者]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예배드리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 (4) 우리 성도들은 겉꾸미는 자들의 경우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도록 해야 하겠다(요 4:24).

9. ⓐ ‘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7절)

- Ⓐ (1) ‘문’이란 여호와와 장막 곧 성전의 문을 가리킨다. 7절 후반절에 ‘영원한 문’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염두에 둔 것이다.
- (2) 오늘날 이 ‘문(門)’은 성도들의 마음 문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고전 3:16; 6:19).

(3) 그러므로 본시에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향하여 촉구하시는 말씀이다.

10. Q 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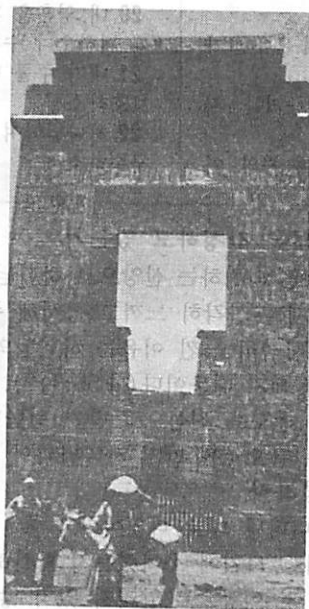
- A (1)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라고 명령한다 (7, 9절).
 (2) 여기서 문들이 머리를 든다는 말은 성전을 의인화(擬人化)시켜 한 말로서 법계를 맞아들이기 위해 성전 문을 여는 모습을 나타내어 준다(참조, 118:19, 20; 사 26:2).
 (3)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셔 들이라는 진지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계 3:20).
 (4)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다(요 1:12).

11. Q 성전 문을 통하여 누가 들어가시는가? (8, 10절)

- A (1)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8, 10절에서 설명되고 있다.
 (2) 첫째,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시다. 이 말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즉 ‘구원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3) 둘째,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이시다. ‘만군(萬軍)의 여호와’ (히, 예호아 체바오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낸 말이다(참조, 창 2:1).
 (4) 이와 같이 구원과 통치의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다.
 (5) 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 중심에 좌정(坐定)하여 계시실 때 성도는 온갖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또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계 22:5).

화보자료

머리를 든 문. 옆의 사진은 가르나크에 있는 혼소우 신전 입구의 문으로서 마치 거대한 머리를 들고 있는 짐승 같다.



본 시편에 기록된 ‘문’ (7절)은 여호와 의 장막 곧 성전 문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문을 ‘영원한 문’ 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성전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참조, 132:14).

제 25 편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

단락구분 1-3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다 / 4-7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다 / 8-14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원리 / 15-22 하나님의 보호를 다시 간곡하게 청하다

- 1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 2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 3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 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 6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 7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 8 여호와여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 9 은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며 은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 10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 11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증대하오니 주의 이

- 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 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 13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 14 여호와와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 15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 16 주여 나는 의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 17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 18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 19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 20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 21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 22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1. ㉠ 본시(本詩)에서 다윗은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가?

- ㉠ (1) 본시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 문제를 심각히 느끼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한다(7, 11, 18절).
- (2) 이렇게 다윗이 죄 문제를 심각히 느낀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죄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사 59:1, 2).
- (3)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진심으로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음으로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여야 한다.

2. ㉡ 본시의 저자와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시의 저자는 표제문에 나타난 대로 다윗이다.
- (2) 본시는 다윗의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본시의 배경도 본시의 내용이 보여 주는 것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 (3) 다윗의 시 중 본시처럼 저작 시기가 확실치 않은 시는 모두 18개인데 그중에 3개가 제 1권에 등장한다. (14, 25, 30편; 서론 ㉠ 15를 참조하라).

3. ㉢ 본시에서 히브리시로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 A** (1) 그것은 본시가 히브리어 알파벳 답관체(踏冠體)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점이다. 본시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각 행(各行)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나타난다.
- (2) 이러한 시들은 시편 전체에 9개의 시가 있는데 이들을 ‘알파벳 시’라고 부른다(참조, 9, 10, 25, 34, 37, 111, 112, 119, 149편).
4. **Q**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한 말은 기도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주는가? (1절)
- A** (1) 이 말은 다윗 자신이 믿음 없는 자들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고 모든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또한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우러러 볼 것이다’로 직역되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를 바라보는 다윗의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 (3)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진지하고 성실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 (4)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기도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도움 받을 줄 알고 두 마음을 품고 요동하는 것이다(약 1:6-8).
5. **Q** 다윗이 부끄럽지 않게 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A** (1)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 (2) 여기 ‘하나님께 의지하였다’는 말은 1절의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라는 말과 함께 다윗의 신앙을 보여 주고 있다.
- (3) 이렇게 신앙으로 행하는 성도들은 비록 원수보다 약한 것 같으나 결국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2절).
- (4) 그러므로 심히 연약하고 주위의 여건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기만 하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6. **Q** 어떤 자가 수치를 당하고 어떤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가? (3절)
- A** (1)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 (2) ‘무고히 속이는 자’ (히, 함보게덤 레콤)란 남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는 자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참조, 렘 3:20).
- (3) 그러나 ‘주를 바라는 자’ (히, 코웨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다(참조, 사 40:31).
- (4) 이처럼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사 49:23).
7. **Q** 주님을 바라는 다윗이 알기 원했던 세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4, 5절)
- A** (1) 그것은 ‘주의 도’, ‘주의 길’ (4절) 그리고 ‘주의 진리’ (5절)이다.
- (2)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리킨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매우 간절히 원하였던 것이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발견된다.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해야 한다(참조, 행 17:11).
8. **Q**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6-8절)
- A** (1)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하심, 인자하심, 선하심, 정직하심 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인자하심’이다.
- (2) ‘인자’(仁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인간의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다.
- (3)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미 영원부터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6절). 그래서

그는 과거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용기를 내어 기도한 것이다.

(4) 우리들도 우리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9. **Q**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7, 11절)

- A** (1) 다윗은 소시(少時, 청소년 시절)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에도 허물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였다(7절).
- (2) 여기서 ‘죄’(히, 하타)는 젊기 때문에 격한 감정으로 저지르는 실수를 의미하고 ‘허물’(히, 파샤)은 장년기에 저지르는 죄를 의미한다.
- (3) 이처럼 다윗은 과거와 현재의 죄를 함께 고백하면서 특별히 그것을 중대(重大)하다고 하였다(11절).
- (4)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하여 민감한 느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 1:8).

10. **Q** 다윗은 무엇을 질문하는가? (12절)

- A** (1)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라고 질문한다.
- (2) 다윗이 이처럼 질문 형식으로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보여 주려는 데에 있다.
- (3)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며 어느 정도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약한 육신에 휩싸여 즐고 있는 상태에 있다(마 27:40, 41).

11. **Q**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네 가지 축복을 말하라(12-14절).

- A** (1)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12절). 이것은 인간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첫번째 축복이다(사 48:17).
- (2) 두번째 축복은 영혼이 평안히 거하는 축복이다(13절). 여기서 ‘평안히’(히, 베토브)란 말은 선(善), 번영의 의미가 있다. 즉 경건한 자는 지상에서 번영하는 축복도 받는다.
- (3) 세번째 축복은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라는 것이다(13절). 경건한 자는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받게 한다(출 20:6).
- (4) 네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겨 주시고 구원에 대한 언약을 보여 주신다.
- (5)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세의 축복과 아울러 현세적 축복도 약속받는다(참조, 답전 4:8).
- (6) 그런데 경건한 자도 때로는 고통, 질병 빈곤 때문에 궁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다(고후 12:7).

12. **Q** 다윗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가?(16-19절)

- A** (1) 다윗은 고통과 고통을 겪으며(16절), 많은 근심거리를 갖고 있었고(17절), 많은 원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19절).
- (2) 이러한 환난을 당하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1, 3, 5절)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다.
- (3) 우리들도 이러한 환난을 만날 때 이미 앞서간 다윗 같은 성도들도 겪었던 것임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들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자(빌 4:6, 7).

13. **Q** 다윗이 간구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15-21절)

- A** (1) 다윗은 온갖 위험 속에 처한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 (2)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심각히 느끼고 긍휼히 여겨 주심을 위해 기도하였다.

(3)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죄인 됨을 시인(是認)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을 받아야만 한다(참조, 눅 18:13).

14. **㉠** '구속(救贖)하소서' 란 말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22절)

- ㉠** (1) '구속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다>는 포로된 사람의 몸값을 치루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을 갖는다.
- (2) 따라서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심한 노예살이로 압박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사울의 무리들이 독재적인 방법으로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 (3) 이처럼 우리들도 환난을 당할 때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고난을 당함을 생각하고(벧전 5:9)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고전 12:26)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15. **㉠** 다윗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22절)

- ㉠** (1) 다윗은 지금까지 환난을 당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으나 여기서는 환난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 (2) 즉 자기가 당하는 환난 중에서 다른 성도들이 환난당함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연구자료

구약의 토지법. 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이 '땅을 상속'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13절). 오늘날에는 이 같은 상속 관념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땅의 상속', 즉 토지 재산에 관한 개념은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토지 소유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백성들 전체의 기업으로 간주되었다(출 15:17; 수 21:19). 그래서 토지는 영원히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레 25:23, 24) 만일 토지가 팔린다 해도 원래 소유자나 그의 근친이 그 팔린 토지의 값을 무르던 도로 찾을 수가 있었다(참조, 레 25:25; 렘 32:6). 또한 팔린 토지라 할지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회년(jubilee year)에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했다(레 27:16-24). 이 같은 규례의 근본 사상은 땅은 여호와의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여호와로부터 땅을 분배받았다는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지로 타인 소유의 땅을 탈취하려고 하거나(비교, 왕상 21:1-3) 이웃의 토지 경계표를 옮기는 일(신 19:14)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러한 토지 소유의 여러 규칙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팔아버린 토지의 값을 주고 토지의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무르는 자'(히, 고엘)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 <고엘>이란 말에는 자기의 백성을 구출하시는 여호와(118:35; 렘 50:34)의 모습과 '구속자'의 임무를 수행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참조, 마 20:28; 막 10:45).

제 26 편 무죄한 자가 하나님의 공휼을 구하는 기도

단락구분 1-2 나를 판단하소서 / 3-5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나이다 / 6-7 서원(誓願) / 8-11 나를 공휼히 여기소서 / 12 확신(確信)

1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3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5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6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7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8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9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11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공휼히 여기소서

12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1. ㉠ 본시(本詩)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 ㉠ (1) 본시에서 다윗은 신앙 생활을 성실하게 하였던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판단하시도록 청구(請求)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
- (2)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비록 성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였을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공휼이 필요함을 고백하였다(3, 11절).
- (3) 이처럼 우리는 성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공휼에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2. ㉠ 본시의 저자와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시의 저자는 표제문에 나타난 대로 다윗 왕이다.
- (2) 다윗 왕이 본시를 통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고백할 때에 자기의 적(敵)들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자신과 대조시키고 있다.
- (3) 여기에 나타난 묘사는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부합된다. 그들은 자신의 영달(榮達)을 위해서 왕을 배반할 정도로 허망(虛妄)하고 간사하였으며(4절), 그 손의 뇌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10절; 삼하 15:6).
- (4)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성전만을 사모하였다(8절; 삼하 15:25).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3. ㉠ 다윗은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하였기에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완전함'에 행하였다(1절).
- (2) 이렇게 다윗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에 있어서 '요동(搖動)치 아니하고 여

호의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1절).

(3) 이와 같이 마음으로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참조, 약 2:22).

(4) 우리들도 이러한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참조, 약 2:23).

4. **㉠** 다윗이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함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완전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툼>은 깨끗한 성품, 성실함, 순수함 등의 뜻이 있다.
 (2) 따라서 다윗이 그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처럼 완전하여 무죄하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지켰다는 뜻이다.
 (3) 우리들도 이러한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7:9; 렘 11:20; 룎 8:27; 살전 2:4).

5. **㉠**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단련하시도록 기도하는가? (2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시고 시험하심으로써 '자기의 뜻과 마음'을 단련(鍛鍊)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2) 여기서 '살피다' (히, 바한)는 말은 깊숙히 있는 본성을 날카롭게 꿰뚫어 본다는 뜻이고 '시험하다' (히, 낫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 증명한다는 뜻이며 '단련하다' (히, 차랍)는 녹인다는 의미이다(참조, 욥 23:10).
 (3) 따라서 다윗은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찾아내듯이 자기의 뜻과 마음을 살피셔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다.
 (4) 이러한 기도는 평소에 경건한 생활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다. 우리도 평소의 생활이 항상 경건하도록 언제나 깨어 근신하도록 해야 하겠다(벧전 5:8).

6. **㉠** 다윗은 무엇이 자기 목전에 있다고 하였는가? (3절)

- ㉠** (1)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하였다. 즉 그는 앞에서 말한 경건한 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하였다.
 (2) 우리들도 경건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식의 교만을 갖지 말고 늘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는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7. **㉠** 다윗이 주의 진리 중에 행한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라(3-5절).

- ㉠** (1) 먼저 다윗이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2) 다윗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았다. 즉 '허망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아니하였으며(4절),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였다(5절).
 (3) 여기서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는 모두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불경건한 자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4)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진리 중에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1:1).

8. **㉠**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6절)

- ㉠** (1) 이 말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무죄의 표시로서 그의 손을 씻고 제단에 나아갔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출 30:17-21).
 (2) 따라서 손을 씻는다는 말은 단지 다윗 자신이 영적으로 순결하고 무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주의 단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제사에 종사하면서 제단 주위로 다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예배드리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4) 이처럼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몸만 와서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평소의 생활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9. **㉠** 다윗이 서원한 두 가지 일을 설명하라(7절).

㉠ (1) 다윗은 ①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②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겠다고 서원했다.

(2)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함은 성도가 소극적으로 해야 할 본분이고(살전 5:18)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을 남들에게 증거함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본분이다(딤후 4:2).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증거하는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한다.

10. **㉠** 다윗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였는가?(8절)

㉠ (1) 그는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고 하였다. 이 장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삼상 2:29, 32).

(2) 이 말에서 다윗은 앞에서 말하였던 예배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고 있다.

(3) 즉 그는 외형적인 예배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다.

(4) 오늘날 성도들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살아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

11. **㉠** 다윗은 9절에서 무엇을 간구하는가?

㉠ (1) 다윗은 자기 영혼을 죄인과 함께, 자기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2) 이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참조, 삼하 15:14).

(3)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나 살인자처럼 종말(終末)을 맞이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자기 생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참조, 마 10:29-31).

(4) 우리도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에 자신의 성도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2. **㉠**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10절)

㉠ (1) 그들의 손에는 '악특(惡惡)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였다.

(2) '악특'이란 말(히, 짐마)은 악한 피를 의미한다. 즉 악인들은 악한 피를 내어 그들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실행하였고 그 수단으로 뇌물을 사용했던 것이다.

(3) 이처럼 악한 피를 내는 자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악한 수단을 사용한다. 뇌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으로서(출 23:8; 신 16:19) 악한 수단이므로 성도는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3. **㉠** 다윗이 1절에 이어 11절에서 '완전함에 행한다'는 말을 거듭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11절)

㉠ (1) 그 이유는 다윗 자신의 목적과 수단이 앞에서 말한 악인들처럼 허탄한 체술과는 달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음을 역설(力說)하려는 까닭이다.

(2) 그러므로 다윗이 사용한 '완전함'이라는 말은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어지는 다윗의 간구에 '구속하시고 공활히 여기소서'란 말은 그것을 확실히 입증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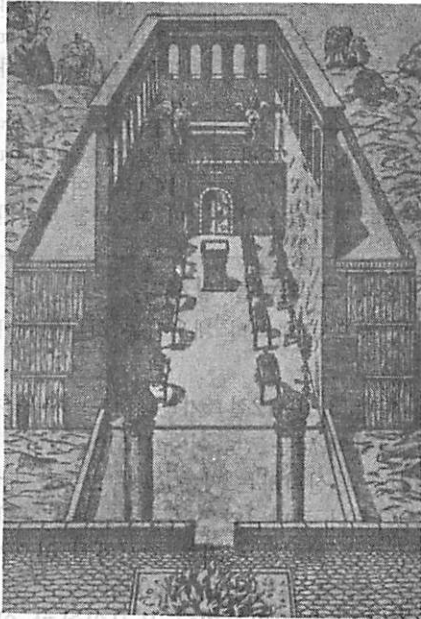
(3) 우리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가운데 행하여 목적과 수단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공활을 호소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14. Q 다윗은 자기 발이 어느 곳에서 있다고 확신하는가? (12 절)

- A (1) 그는 자기 발이 '평탄(平坦)한 데' 섰음을 확신한다. 즉 지금까지는 깊고, 길도 없는 협곡(險谷)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는 넓은 평야가 열린 평탄한 곳에서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참조, 31:8).
- (2) 이러한 느낌과 확신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다윗은 회중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결심한다.
- (3) 우리들도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보호받아 '평탄한 데' 서서 안전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증거하는 일이다(22:25).

화보자료

하나님의 전(殿). 아래의 사진은 콘티 공(公)에게 증여된 성경에 나오는 삽화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단면도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요 특색 가운데 하나는 성전 안에 신상이 없다는 점이다. 성전 내의 지성소에는 단지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으며 속죄소를 덮은 그룹들이 있을 뿐이다(참조, 대하 3:10-13).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함을 명확히 보여 주는데 있어서 우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제 27편 하나님을 바라라

단락구분 1:3 하나님을 향한 확신 / 4-6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불어 안전을 간구하다 / 7-9 자비를 구하는 탄원 / 10-12 유일한 보호자이신 하나님 / 13-14 여호와를 바라지이다

1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 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7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

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1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 내 영접하시리이다

11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12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이다

13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와 은혜 붙 것을 믿었도다

14 너는 여호와를 바라지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지이다

1. ㉠ 본시(本詩)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말하라.

㉠ (1) 본시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노래한 다윗의 신앙시이다.

(2) 특히 본시에는 여러 환난(3, 10-12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 신앙의 승리를 획득한 다윗의 굳은 믿음이 고백되어 있다.

(3)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그가 고통을 당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한다.

(4)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가 처한 환경을 개선시키시고(6절) 새 힘을 공급하신다(참조, 사 40:31).

2. ㉠ 다윗이 여러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1)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빛이요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2) 여기서 '빛'이란 공포와 위협을 몰아내는 것을 말하며(요 12:46), '구원'은 삶의 풍요와 성공을(62:2, 6)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란 문자적으로 요새를 뜻하는데(31:4) 모든 공격으로부터의 승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극악한 세력이 밀려와도 그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118:6).

(4)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 8:31)라고 고백하였다.

3. **㉠** 다윗의 대적들은 그를 해치려고 했으나 결국 어떤 결과만 초래하였는가? (2, 3절)

㉠ (1) 그들은 맹수같이 다윗을 해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실족(失足)하여 넘어지고 말았다.

(2) 그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그들에 비해 다윗이 월등한 힘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참조, 렘 36:26).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안전한 보호처를 마련해 주실 뿐 아니라 친히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신다(참조, 빌 4:13).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자신의 힘이나 세상적인 것(재물, 권세 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요일 5:4).

4. **㉠**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4절)

㉠ (1)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仰望)하며 그 전(殿)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을 요청하였다.

(2) 즉 다윗은 평생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였다.

(3) 이러한 다윗의 간구로 보아 본시는 아마 그가 사울로부터 피신하여 낫설은 객지에서 지은 시임에 분명하다(참조, 삼상 22:1, 2).

(4)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에서 이탈(離脫)되는 것이야말로 죽음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전에 거하기를 소원하였다(26:8).

(5) 이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라 할 수 있다(16:2).

5. **㉠**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4절)

㉠ (1)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안(靈眼)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시의 우아함이다.

(2)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계시에서 약속하신 은혜로운 모든 것, 즉 그의 거룩하심(111:9)과 그의 선하심(숙 9:17)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요일 4:9, 10) 등이다.

(3) 이런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한 자, 곧 구원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참조, 고후 4:16-18; 5:16, 17).

6. **㉠** 다윗은 환난 날에도 자신이 안전할 것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5절)

㉠ (1) 다윗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草幕)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라고 묘사하였다.

(2) 여기서 '초막'이란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레 23:42)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며 '장막'은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느 6:10), 그리고 '바위 위'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제한된 곳(18:2)을 가리킨다.

(3)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절대적인 안전을 베푸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동요(動搖)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 마음에 두려움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다(요 16:33).

7. **㉠** 다윗은 자기 원수들에게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6절)

㉠ (1) 다윗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라는 말로서 자신의 궁극적인 승리를 묘사하였다.

(2) 그가 이처럼 원수들을 격퇴시키고 그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한 이유

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 (3) 더우기 그는 이런 확신에서 자만하지 않고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하였다.
- (4) 즉 그는 '즐거운 제사'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며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겠다고 하였다(89:15;엡 5:19).
- (5) 이처럼 진정한 성도는 그가 획득한 모든 영예와 이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참조, 고후 1:20;빌 2:11).

8. **㉠**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들어 달라고 호소하였는가? (7절)

- ㉠** (1) 다윗은 자기가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 (2) 여기서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란 기도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그 열도(熱度)를 가리킨다.
- (3) 그는 계속 하나님께 자신을 공홀히 여겨 달라고 호소하는데, 그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홀하심으로 인하여 응답되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이다.
- (4)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공홀에 호소하는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기도이다(렘 33:3). 하나님의 공홀하심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참조, 출 33:19;느 1:5;사 63:7;롬 11:30, 31).

9. **㉠**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실 때에 다윗은 마음속으로 무엇이랴 대답하였는가? (8절)

- ㉠** (1) 다윗은 'ஏ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2) 여기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形象)과 실체(實體)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라는 의미이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으라고 명령하신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지 않고(출 33:20), 다만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의인화(擬人化)하여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30:7;67:1;대하 6:42).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에 순종적인 대답을 한 다윗의 신앙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규범이다(참조, 24:6;암 5:4;히 4:16;약 4:8).

10. **㉠**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적인 대답을 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였는가? (9절)

- ㉠** (1) 다윗은 자신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 것과 또 하나님께서 노하여 자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 (2)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얼굴을 찾겠다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숨기시지 말도록 요청한 것은 때때로 그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다른 시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10:1;13:1;69:17).
- (3) 또 그는 사울 왕처럼(삼상 16:1)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자신을 도와 주셨던 사실을 상기(想起)시킴과 동시에 지금도 자신은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으로 양망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3:3-7;4:1).
- (4)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죄인 의식'. 즉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51:1, 14;대하 7:14;단 10:12;눅 15:21;18:13).

11. **㉠**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얼마 만큼 신뢰하였는가? (11절)

- ㉠** (1) 다윗은 자기를 낳아 준 부모(이새)가 비록 자기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영

접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 (2) 여기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말하였지만 성경에서 그의 부모가 그를 버렸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이 말은 환난 때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31:11; 38:11; 욥 2:9; 19:14).
- (3) 다윗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천성적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지상의 부모보다 더 큰 애정과 열정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신다(사 49:15; 63:16).

12. ㉠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하였는가? (11 절)

- ㉠ (1) 주의 길로 가르치시고 자기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 (2)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의롭고 올바른 교훈으로 가르쳐 주기를 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또 그가 하나님에게 인도하여 주기를 요청한 '평탄한 길'이란 울퉁불퉁하고 바위와 돌이 많아 고르지 아니한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기 원수들의 음모와 횡포에서 안전하게 지켜 달라는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4)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로운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신다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난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교훈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

13. ㉠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기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지 말아 달라고 하였는가? (12, 13 절)

- ㉠ (1) 자기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는데, 그것은 위증자(僞證者)와 악담(惡談)을 토하는 자들이 그를 해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중상 모략과 거짓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이다(참조, 42:10; 삼상 24:9; 26:19).
- (2)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뜻은 다윗을 잡아 죄수로 만들어 죽이는 것이다(35:2; 56:2).
- (3) 그러나 다윗은 '산자의 땅', 즉 환난받는 이 세상(사 38:11)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라고 믿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당신에게 의뢰하는 성도를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신다(참조, 5:11; 욥 3:12; 계 3:10).

14. ㉠ 다윗은 결론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였는가? (14 절)

- ㉠ (1)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지어다라고 두 번씩이나 권면하였다.
- (2) 여기서 '바라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웨>인데, 그것은 '기다린다', '고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이처럼 다윗이 자신과 타인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면한 것은 그가 인간의 연약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만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길임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42:5; 삼상 30:1-6).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강한 역경과 고난을 보고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고,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참조, 31:24; 사 29:9; 30:18; 눅 18:1-7; 빌 4:6).

제 28 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구와 감사

단락구분 1-2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다 / 3-5 악한 자에 대한 보응을 간구하다 / 6-7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다 / 8-9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기원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3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4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의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용하소서

5 저희는 여호와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

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6 여호와를 찬송함이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8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9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시오

1. ㉠ 본시가 기록된 때는 언제인가?

- ㉠ (1) 본시는 일반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을 때 기록되었다는 데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 (2) 물론 본시를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환난에서 구출된 후 당시에 했던 기도를 기억하여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 서술된 내용이 너무도 실제적이고 사실적임으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급박한 상황에서 쓴 시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 (3) 그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에 찬 확신을 가지고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감사를 하였다.
- (4)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다. 그는 원인을 모르는 재앙으로 인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당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다(참조, 욥 1:20-22).
- (5) 이러한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즉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마 5:11, 12; 뱀전 4:12-14).

2. ㉠ '반석'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 점)

- ㉠ (1) 여기에 쓰인 '반석'의 히브리어는 <츄리>인데 이는 '힘'과 '부동'을 암시하는 말이다.
- (2)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한 이유는 자신이 험난한 생을 사는 동안 줄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러한 표현은 단 순히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 (3) 한편 다윗은 18편에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시절을 회고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18:2).
- (4) 따라서 다윗의 이러한 표현은 그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참조, 42:5; 출 14:13),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참조, 121:3-8; 수 1:5; 사 41:10; 고후 12:9, 10).
- (5) 이와 같은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참조, 히 11:6).

3. **㉠**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라는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절)

㉠ (1) 이것은 기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 (2) 첫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참조, 신 17:2-5).
- (3) 둘째,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한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시지 않지만(66:18; 잠 21:13; 28:9; 눅 18:11, 12, 14; 약 1:5-7; 4:3) 그외의 기도는 모두 응답해 주신다(참조, 대하 7:14; 요일 3:22).
- (4) 셋째, 기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살면서 접하게 되는 숭한 난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 된다(참조, 출 15:24, 25; 삼상 1:27; 왕하 19:19, 20).
- (5)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야말로 우리 생활의 최우선적인 습관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된다(참조, 마 26:41).
- (6) 한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단호한 권면을 했는데 이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함을 뜻한다(참조, 대상 16:11; 호 14:2; 마 7:7).

4. **㉠** 시인은 주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떠하다고 고백하였는가? (1절)

㉠ (1) 만약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잠잠히 계시면 자신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였다.

- (2) 여기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이란 말은 '내가 주의 은총의 표적을 얻지 못하면'이라는 뜻이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라는 말은 '내게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 슬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간의 삶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절규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을 음미해 보면 잘 알 수 있다(15:34).

5. **㉠** 시인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2절)

㉠ (1) 시인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

- (2) 여기서 성소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을 가졌다는 말이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계가 있으므로 그곳을 바라보는 것은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참조, 단 6:10).
- (3) 이처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간의 삶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절규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

리셨나이까' 라는 말을 음미해 보면 잘 알 수 있다(15:34).

- (4)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진지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의미이며, 압살롬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 가슴이 불붙는 듯한 격렬한 갈망으로 간구했다는 의미이다.
- (5)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비통스런 처지에서도 조금도 신앙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지간에 변치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약 1:27).

6. ㉠ '나를 끌지 마소서'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여기서 '끌다'라고 번역된 동사 <마샤크>는 '뽑아내어 관찰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떨망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였다(참조, 26:9; 32:20; 욥 24:22).
- (2) 이것은 그물에 먹이를 놓아 짐승을 유인하는 수렵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 (3) 따라서 '나를 끌지 마소서'라는 말은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될 멸망의 운명에 속하지 않게 해 달라는 의미이다.

7. ㉠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의 소행은 어떠한가? (3절)

- ㉠ (1)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 (2)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겉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다정스럽게 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 (3) 이처럼 행악자는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르다.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속은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12:2).
- (4)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과 같지 않으려면 진실해야 한다. 진실했던 나다나엘은 예수의 칭찬을 들었으며(요 1:47) 예수 자신도 진실하신 분이셨다(벧전 2:22). 말세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참조, 요 4:23, 24).

8. ㉠ 악인의 소행에 대하여 시인은 어떤 간구를 하였는가? (4, 5절)

- ㉠ (1) 그들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의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報應)하여 달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 (2) 그러나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행악자들에게 복수하려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응을 간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감정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공정히 판단하여 하나님께 그 기에 상응하는 징벌을 구했던 것이다.
- (3)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세상의 향락에만 관심을 쏟았고 하나님을 경멸하였다(참조, 사 5:12; 롬 1:28).
- (4)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며 선인(善人)을 괴롭히는 잘못을 저지른다.
- (5)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도 이러한 잘못이 공공연히 저질러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이다. '신앙의 성숙'(maturity)이라는 것이 점진적인 것임을 감안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어짐을 기억해야 한다(엡 4:13).
- (6) 그래야만 우리는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죄악에 동참하지 않게 된다(참조, 고후 9:10; 히 6:1; 벧전 2:2).

9. ㉠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6, 7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 (2) 그는 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진지하게 그를 찾을 때마다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방패'라고 부름으로 같은 진리를 보다 충분히 선언하고 있다. 덧붙여 그는 자신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도움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 (4)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자로 평했다(롬 4:20, 21).
- (5)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당연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빌 4:6, 7).

10. ㉠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依賴)하는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인가? (7절)

- ㉠ (1)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심오한 기쁨을 체험하게 되며, 언제나 그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 (2)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영적 평강에서 우러나는 것으로서 성령의 열매(갈 5:22)이며 구원의 결과이다(벧전 1:8, 9).
- (3) 이런 영적 기쁨을 체험한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롬 5:2). 그러므로 기쁨에 겨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 (4)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확신의 말을 하였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5:11).

11. ㉠ 시인이 하나님께 한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인가? (8절)

- ㉠ (1)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다.
- (2) 이는 하나님만이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이시다는 고백이다(참조 27:1; 31:4; 37:39; 사 25:4; 렘 16:19; 욕 3:16).
- (3)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옛날과 같이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4) 실제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쳐부수고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여 다시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누렸는데(참조, 삼하 17:24-18:33), 이는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마 8:13)는 예수의 말씀에 부합된다(참조, 마 9:29; 15:28; 막 11:23).
- (5)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해야 한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참조, 17:8; 신 32:10; 사 43:2; 단 3:19-27).

12. ㉠ 본시의 말미(末尾)에 기록된 시인의 기원은 무엇인가? (9절)

- ㉠ (1) 본시의 말미에서 시인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라는 기원을 하였다.
- (2) 그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백성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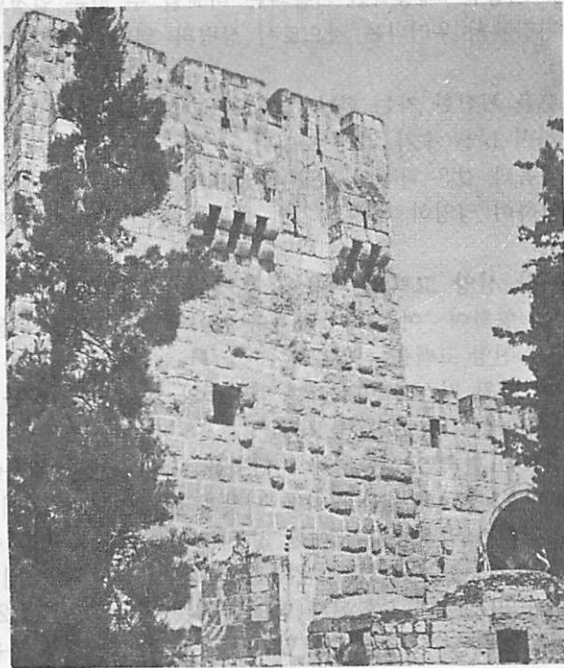
행복과 공동 이익을 위해 세움을 입은 그의 기원을 분석하여 보면 ① 구원의 역사 ② 산업의 축복 ③ 영원한 보호 등으로 구분된다.

(3) 이로써 우리는 지금 다윗의 관심이 자신의 행복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행복된 미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의 은총의 지속적인 진행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이와 같이 우리들은 자신의 관심을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돌려야 한다. 그것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이다(참조, 마 22:37-40; 요 13 : 35; 15:12; 롬 12:9; 13:9; 벰전 1:22).

화보자료

다윗의 탑. 아래의 사진은 '다윗의 탑'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성채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쌓았던 것(참조, 삼하 5:9)을 후대 사람들이 증진한 것이다.



본서에는 하나님이 종종 '산성'으로 묘사되었다(8절; 31:4; 37:39).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그 어느 대적도 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하여 산성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인을 징벌하시는 심판자이시기에 하다(18:14).

제 29 편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다

단락구분 1-2 세상의 권능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권고하다 / 3-9 우뢰와 번개와 뇌우 속에 나타난 그의 능력을 찬양하다 / 10-11 은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백성에 대한 은총을 찬양하다

1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 여호와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 여호와와 소리가 힘있음이며 여호와와 소리가 위엄 차도다

5 여호와와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며 레바

논과 시몬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7 여호와와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 여호와와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9 여호와와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갭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 ㉠ 시인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 ㉠ (1) 시인은 자연의 여러 가지 경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
- (2) 그는 본시에서 '여호와' 라는 이름을 18번이나 사용하였고 '여호와와 소리'(히, 콜 예호와) 라는 말을 7 번 반복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뇌성을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하는 데서 기인된 것이다(참조, 제 10:1).
- (3) 이처럼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다.
- (4) 이러한 시인의 신앙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즉 우리 성도들은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주위의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하신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참조, 막 13:28, 29).
- (5) 그리고 본시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불신자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뇌성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쁨과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
- (6)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할 때 명확히 증명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의 날이다(참조, 말 4:1, 2; 살후 1:6-10; 딤후 4:8).

2. ㉠ '너희 권능 있는 자들' 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 절)

- ㉠ (1)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희 권능 있는 자의 아들들' 이라는 뜻이다.
- (2) 이것의 히브리 원어는 <베네 엘림>인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를 거룩한 천사들로 보았다(Hengstenberg, Alexander, Cheyne 등).

- (3) 그러나 칼빈 같은 주석가는 지상에서 권세 가진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았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교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Michaelis, Kay).
- (4)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주장만을 옹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 ‘지상의 권세 가진 자들’ 그리고 ‘이교도들’ 중 아무 견해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

3. **㉠** 시인은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 (2) 여기서 ‘영광과 능력’이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talent)과 그것을 잘 활용하여 얻게 되는 칭송을 가리킨다.
- (3) 이는 인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르는 말이다. ‘돌리고 돌릴지어다’라는 반복적인 표현은 강조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을 뜻한다.
- (4)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한 이 시인의 외침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의 목표점을 깨달아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 10:31; 골 3:17; 벧전 4:11).

4. **㉠**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2절)

- ㉠** (1)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 (2)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문자적인 해석은 ‘그의 이름의 영광’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이름에 맞는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의미한다.
- (3)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장사치들의 횡화하는 소리가 가득한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경고가 된다(참조, 렘 7:4-11).
- (4) 둘째,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 (5) 다시 말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삼상 16:7) 이시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보다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 (6) 예수께서는 이런 차원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 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 24)고 말씀하셨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참조, 롬 12:1, 2; 히 12:1, 2).

5. **㉠** 시인은 무엇을 ‘여호와의 소리’로 비유하였는가? (3절)

- ㉠** (1) 시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뇌성’(雷聲)을 ‘여호와의 소리’와 동일시하였다.
- (2) 이 뇌성이 여호와와 소리로 불리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위로부터 온다거나 인간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며 그 소리가 멀리까지 미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로 말씀하셨고(출 19:16; 신 5:22)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출 9:22-34; 삼상 7:10).
- (3)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 (4) 이처럼 뇌성을 발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롬 12:16)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잠 1:7; 9:10).

6. **㉠** ‘여호와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인가? (4절)

- ㉠** (1)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가득하다.
- (2)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위엄이 넘칠 수밖에 없

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시할 수 있다.

- (3) 진정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가 가진 위엄은 세상의 위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참조, 대상 29:11; 욥 37:22; 사 2:10; 57:15; 미 5:4).
- (4) 이 하나님께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참조, 엡 6:12; 담후 3:8; 벧전 5:8, 9; 요일 2:15-17; 유 1:3, 4).

7. **㉠**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5절)

- ㉠** (1) '백향목'이라는 낱말은 아라비아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굳건히 뿌리 박힌 강한 나무'이다.
- (2) 이 나무는 풍채가 아름답고 향기가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는 가장 큰 나무이다.
 - (3) 또한 이 나무는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으며, 나무 줄기에 웅이갸 없고 내구성이 강해 고 급 건축용 자재로 많이 쓰인다.
 - (4)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나무를 주 재료로 사용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만큼 이 나무의 우수성은 누구에게나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참조, 왕상 5:6, 10; 6:9, 10).

8. **㉠** 하나님께서 무엇을 꺾어 부수시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 (2)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이스라엘의 영광 (80:10; 민 24:6), 그리스도의 영광 (겔 17:22, 23), 의인의 번영 (92:12), 강대한 나라 (암 2:9), 교만한 자 (사 2:13) 등이다.
 - (3) 이 중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이나 나라를 풍요적으로 지칭하여 사용하였다 (참조, 사 2:13; 암 2:9).
 - (4) 원래 '거만'이나 '교만'은 악한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참조, 잠 1:22; 8:13; 21:11, 42).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권세를 자랑하고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자들이다 (참조, 렘 43:2).
 - (5)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듯 쳐서 그 교만을 꺾으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잠 19:29; 사 13:11; 29:20; 겔 16:50).
 -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교만'과 '거만'한 부분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참조, 잠 3:34; 22:10; 29:8).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록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골 3:12)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 (벧전 5:5).

9. **㉠**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몬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레바논과 시몬은 팔레스틴의 주요한 큰 산인데 레바논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하고 시몬 곧 헤르몬 (신 3:9)은 레바논의 동쪽 산줄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 (2) 그리고 뛰게 한다는 말은 산들이 천둥과 번개의 크고 요란한 소리로 인하여 진동하며 흔들리는 것에 대한 시적 과장법이다.
 - (3) 따라서 본귀절은 백향목과 높은 산, 즉 자연을 뒤흔드는 뇌성이 실로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의 한 표현임을 의미한다.

- (4) 이처럼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주위의 자연과 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된다(참조: 막 13:28-32).

10. ㉠ '여호와와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1) 이것은 일종의 시적인 표현으로 갈라지는 벼락을 의미한다.

(2)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실제적인 사실에 대한 묘사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3)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화염' 이라는 말은 성경에 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참조: 104:4; 사 30:30).

11. ㉠ '가데스 광야' 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8절):

㉠ (1) '가데스 광야' 는 '가데스 바네아' 와 동일 지역으로 모세에 의해 인도되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광야의 오아시스이다(민 32:8; 신 1:2, 19; 2:14; 수 10:41; 14:6, 7; 15:3).

(2) 한편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 반도의 '신 광야' (민 20:1) 에 있으며 팔레스틴의 최남단에 있다. 그 서쪽은 애굽의 시내 부근이며(겔 47:19; 48:28) 동은 애돔(민 20:6) 과 아모리 족속의 산지(신 1:19) 와도 접경하고 있다.

(3) 그리고 '가데스' 란 '거룩한' 또는 '성별된' 이라는 의미이다. 당시 팔레스틴에는 이 이름의 도시가 많았는데 그곳에는 옛날 가나안의 성소가 있었다.

(4) 따라서 '바네아' 란 이 가데스를 다른 많은 가데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일 것이다.

(5) 이외에도 여러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창 14:7에서는 '엔미스밧' 으로, 또 신 32:51과 겔 48:28에는 '므리바가데스' 라 되어 있고 겔 47:19에는 복수형인 '므리봇 가데스' 라 되어 있다.

12. ㉠ '여호와와 소리가 무엇을 진동시켰는가? (8절)

㉠ (1) '여호와와 소리가' 곧 뇌성이 '가데스 광야' 를 진동시켰다.

(2)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다윗에게 대항했던 이웃 나라들, 즉 레바논 숲 근처에 자리잡고 있었던 아람 사람들이나 헤르몬 산에 접하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가데스 광야 주변에 있었던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같은 이웃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 된다.

(3)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지켜 주셨다는 의미이다.

(4) 이 가데스 광야의 진동이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울부짖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의 무리들에게서부터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2:13; 계 12:10, 11).

13. ㉠ 성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1) 여호와와 소리가, 즉 뇌성이 암사슴으로 낙태케 만들고 산림을 말갱게 벗기시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2) 원래 암사슴은 소심한 동물인데다가 새끼를 배개 되면 더욱 소심해지기 때문에 뇌성으로 인해 놀라서 낙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산림을 말갱게 벗긴다는 것은 번갯불로 인해 나무가 타서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말한다.

(4)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징계의 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에 대하여 보응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5)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

이다.

- (6) 그런데 ‘그 전’을 하늘나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로 볼 수도 있고, 지상의 성전이나 예배당 등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가장 타당한 견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킨다고 보는 것이다.
- (7) 왜냐하면 다윗이 의도한 바는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뿐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 (8)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릴 존재들은 바로 당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이다. 따라서 찬양은 곧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참조, 출 15:1-19; 대하 23:18; 마 26:30; 계 5:9-14).

14. **㉠**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0점)

-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였다.
- (2) 여기서 ‘홍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바블>은 창 6-11장의 노아 홍수 사건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자비를 동시에 나타낸다.
- (3) 따라서 본귀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왕으로서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 준다.
- (4)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섭리로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한다(참조, 신 4:39; 대상 29:12; 롬 11:36).

15.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11점)

- ㉠** (1)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
- (2) 힘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며,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게는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준다.
- (3)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政事)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엡 6:12).
- (4) 그러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全身甲冑)를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힘(power)인 것이다(엡 6:13-17).
- (5) 그리고 성경에서는 평강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빌 4:7), 그리스도(요 14:27), 그리고 성령(갈 5:22)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사 26:22; 렘 33:6).
- (6)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평안 가운데 거하며(고후 3:11)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좇으라(딤후 2:22; 히 12:14)고 권고하였다.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며,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참조, 마 19:22; 고후 7:10).

제 30 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답략구분 1-3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다 / **4-5**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권면하다 / **6-7** 과거의 방황에 대해 자책하다 / **8-10** 환난 가운데서 했던 기도를 회상하다 / **11-12**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다.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3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4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5 그 노염은 잠간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6 내가 행동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

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10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움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12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1. ㉠ 무엇을 인하여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가?

㉠ (1)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던 큰 위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2) 그가 당면했던 위협이 무엇인지는 본시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그가 실시했던 인구 조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역병을 가리키는 듯하다(참조, 삼하 24장; 대상 21장).

(3) 그러나 다투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도록 권면하였다(4, 5절).

(4)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데 반해 시인은 조금도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드렸다는 점이다(참조, 눅 17:12-19).

(5)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100:4; 신 8:10; 골 1:12; 2:7; 3:15; 살전 5:18; 딤후전 1:12).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기'이다.

(2) 일반적으로 본시의 저자는 표제문에서 언급된 대로 다윗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바벨

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후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에게 의하여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전자가 훨씬 타당성이 있다.

(3) 그 이유는 '성전'을 다윗이 자신을 위해 지은 왕궁으로 보기 때문이다.

3. **㉠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끌어내어 그의 대적이 그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끌어내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달리타니>인데 그 원래의 의미는 '물웅덩이에서 끌어 올리사'이다.
- (3) 이는 고난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죽음 직전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 (4) 그리고 '대적'이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늘 모함하며 넘어뜨리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안팎의 모든 원수로 이해할 수 있다.
- (5) 다윗은 저지른 잘못(참조, ㉠ 1)의 결과로 백성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원수들이 조롱할까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서 불신자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참조, 눅 17:16; 행 28:15; 고전 15:57; 고후 9:15; 딤펴 1:12).

4. **㉠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2절)**

- ㉠** (1) 하나님께 시인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치셨다.
- (2) '고치셨다'란 말의 히브리 원어(라파)는 일반적으로 질병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 말이 때때로 '회복하다' 혹은 '다시 세우다'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구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 (3)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다.
- (4) 우리들은 질병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경우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이다(참조, 사 41:17; 58:9; 65:24; 눅 11:9; 요일 3:22).

5. **㉠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3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陰府)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 (2)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광대하심을 충분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었던 바 다소의 과장법을 사용하여 죽음에서 놀랍게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
- (3) 이처럼 우리의 위험이 급박할수록 구원은 더욱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법이다.
- (4)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높여야 하겠다(참조, 고전 10:31; 골 3:17; 뱀전 4:11).

6. **㉠ '음부' (陰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3절).**

- ㉠** (1) 음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쇄음>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

테스)이다.

- (2) 본절에서도 사용된 <쇄울>은 죽은 자가 사후(死後)에 가서 거하는 곳을 나타낼 때 가장 흔히 사용된 말이다. 이것이 영역(英譯)될 때는 ‘무덤’(the grave), ‘지옥’(hell) ‘구덩이’(the pit)’ 등의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다(KJV).
- (3) 이 <쇄울>이란 용어는 구약의 지혜서에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을 나타낸다(욘 26:6; 28:22; 31:12; 잠 15:11). 가끔 본절에서처럼 절망의 구렁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 (4) 신약 성경에서는 <하테스>라는 단어가 10번 사용되었다. 이를 KJV에는 ‘지옥’(hell)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의미는 성경 귀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 (5) 보스(G. Vos)에 의하면 악한 사람만이 하테스라고 불리는 장소로 가고, 선한 사람과 그리스도 자신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가 되어 존재하는 데 바로 이 상태를 하테스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 (6) 이러한 여러 사실들에 근거해 볼 때 ‘음부’란 사후의 세계인 것만은 분명하나 구체적 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단어이다.

7. **㉠**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였는가? (4절)

- ㉠** (1)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합세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 (2) 즉 역병에서 살아난 백성들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 (3) 그의 이 권면은 그 백성들이 역병에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뵤전 2:9).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한 주의 성도들은 항상 찬송과 감사로 살아야 한다(참조, 149:1; 살후 2:13).

8. **㉠**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5절)

- ㉠** (1)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며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 (2)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지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 노를 품지 않으신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아 같지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이다’ (사 26:20) 라고 말하였다.
- (3)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죽어 마땅한 냄새 나는 인생들을 처참한 죄의 파멸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었다(참조, 요 3:16; 고전 1:18).
- (4)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약 관화(明若觀火)하다. 그리스도 안에서(갈 5:16) 계명을 좇아(요이 1:16)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엡 4:1; 골 1:10; 살전 2:1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살전 4:1)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9. **㉠** 다윗이 형통할 때에 한 말은 무엇인가? (6절)

- ㉠** (1) 형통하다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평온하고 번영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때 그는 방심하여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고 말하였다.
- (2) 그는 인간으로서의 그의 필멸적(必滅的)이며 변하기 쉬운 신분을 망각하고, 또 그의 마음을 지나치게 자신의 번영에 집착하였던 어리석음과 무분별의 결과로 이 말을 하였던 것이다.

- (3) 여기서 그가 옛날의 잘못을 다시 언급한 것은 자신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 당연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일종의 회개적 성격을 띤 고백이다.
- (4) 흔히 인간들은 부요와 번영을 누릴 때 자만하거나 교만하기 쉽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작은 죄처럼 보일지 모르나 대단히 큰 죄이다(참조, 잠 6:16).
- (5) 그 결과는 재난이었다. 역병으로 인한 7만 명의 죽음이었다(삼하 24:10-15; 대상 21:14).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이다(참조, 약 1:15).
- (6)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보다 형통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형통으로 인하여 방심하게 되면 자칫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된다(참조, 삼하 11:1-4; 대하 32:24, 25).
- (7)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롬 11:20).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 12:3).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

10. ㉠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가? (7절)

- ㉠ (1)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야 굳게 설 수 있으므로 주께서 얼굴을 가리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 (2) 여기서 ‘산’은 곧 ‘시온 산’을 가리키는데, 그곳은 천연적으로 또 인공적으로 만든 튼튼한 요새지로서(삼하 5:9) 이는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
- (3)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얼굴을 외면하시고 진노를 내리신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대상 21:7-12).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여하셔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으며 삶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을 때에야 참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참조, 엡 1:18).
- (5)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11. ㉠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부르짖고 간구하였다.
- (2) 이전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범죄하던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이다.
- (3) 이것이 바로 택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다. 성도들은 징계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고(딤후 2:25)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나(잠 3:12; 히 12:6, 7), 불신자들은 그것을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악해진다(참조, 잠 12:10; 21:7).
- (4)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나태함과 잘못을 깨우치는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참조, 살후 1:8, 9).

12. ㉠ 시인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9절)

- ㉠ (1) 그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塵土)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 (2) ‘피’가 상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명’ (창 9:4, 5)이나 여기서는 ‘죽음’을 뜻한다.
- (3) ‘무덤에 내려갈 때’란 죽는 것을 가리키며, ‘진토’란 생명을 상실한 육체, 즉 시체를 의미한다(참조, 6:5; 88:10; 115:17; 사 38:18).

- (4) 한마디로 다윗의 요구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뜻이다. 그의 요구는 지상의 소유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 (5) 그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그로써 하나님의 찬송이 끝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의 관심은 세상의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귀착되어 있었다.
- (6)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관심이 어디에 모아져야만 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어찌하면 좀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까' 하는 선한 근심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고전 10:31; 살전 4:1).

13. **㉠**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탄원하였는가? (10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간구를 하였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고, 둘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
- (2)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으며(고전 7:25), 지금도 그의 긍휼을 입지 않고는 숨쉬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긍휼을 먼저 구했던 것이다.
- (3) 또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일생 동안 해야 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나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힘 주신다(참조, 27:9; 33:20; 46:1; 121:1, 2; 대하 14:11; 사 41:10; 히 13:6).
- (4)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의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야 할 뿐만 아니라(37:40; 43:5) 그 보좌 앞에 나아가(히 4:16)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27:8, 9).

14. **㉠**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는 '나의 슬픔을 변화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였다.
- (2) 고대 근동에서는 통곡할 때 베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 이유는 '베옷'이 신의 용서를 비는 겸손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3)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슬픔이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 (4)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다(91:15; 사 58:9; 65:24; 눅 11:9; 요 14:14; 15:7; 요일 3:22). 아울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참조, 엡 1:16; 빌 1:3; 살후 2:13).

15. **㉠**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영영히 당신을 찬양케 하려는 데 있었다.
- (2)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제 1의 목적이다. 즉 성도들은 감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참조, 16:9; 44:8; 57:8; 108:3). 그렇다면 찬양은 오직 성도들만의 특권이라는 말로도 이해되어질 수 있다.
- (3) 반면에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요 14:17; 고전 2:14) 부패하고 소행이 가중하며(14:1)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다(엡 5:11).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제 31 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단락구분 1-4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회고하다 / 5-8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다 / 9-13 고난당하는 자신의 상태를 소상히 밝히다 / 14-18 하나님의 자비와 악인에 대한 보응을 간구하다 / 19-22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다 / 23-24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고하다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2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3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 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6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7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8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9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 내 생명이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1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2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13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

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피하였나이다
 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15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16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취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7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18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병어리 되게 하소서
 19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20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름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21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라
 22 내가 경건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3 너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4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라

1. ㉞ 본시의 저자와 쓰여진 시기에 관하여 설명하라.

- ㉞ (1) 본시의 저자는 표제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윗'이다.
 (2)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다니던 시기에 지어졌다.
 (3) 특히 몇몇 귀절들은 그가 마은 광야에 있는 그일라로 도망했던 사건(삼상 23:13)과 일치하고 있다. 그때 사울이 그곳으로 추격해 왔고 그는 다시 심 광야로 피신하였던 것이다.
 (4) 그러나 본시가 그 당시에 쓰여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시가 다윗의 박해 시절에 쓰였다는 것이다.

(5) 이처럼 그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9-18절)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했고 기도하게 했으며 더욱더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하였다. 결국 본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호소이지만 여기에는 응답에 대한 확신의 성격이 짙게 깔려 있다.

2. **㉠ 고난 가운데서 시인이 피한 곳은 어디인가? (1절)**

㉠ (1) 시인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피하였다.

(2) '피하였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될 때의 결과를 다윗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3) 그 결과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패배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말한다.

(4) 이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참조, 46:1; 142:5; 삼하 22:3; 잠 14:26).

3. **㉠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이 되어 달라고 호소하였는가? (2절)**

㉠ (1) 시인은 하나님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保障)'이 되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2) 여기서 '견고한 바위' (히, 레추르마온)나 '보장' (히, 메추도트)은 모두 세상의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를 가리키는 말이다.

(3) 이것은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잠 18:10).

(5)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救贖)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비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沈沒)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 43:1, 2).

4. **㉠ 반석과 산성 되신 하나님께 시인이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3절)**

㉠ (1) 이전에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석이시며 산성이심을 인지(認知)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그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2) 많은 시련과 고통의 오랜 기간을 통하여 시인은 인간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절실하게 느꼈다.

(3) 이는 사도 바울이 갈파한 대로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고전 1:25) 사실을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푸른 초장과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23:2)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48:14).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 위해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신다(출 18:20).

5. **㉠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 (1) '저희'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는 사울 왕과 그 일행을 두고 하는 말이다.

(2) 그리고 '비밀히 친 그물'이란 다윗을 붙잡기 위해 그의 원수들이 꾸민 여러 가지 계략을 가리킨다.

(3) 여기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원수들이 벌이는 음모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 모르는 그는 그러한 책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았다.

- (4)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러한 원수들의 꾀계에서 빼어 달라는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여러 가지 교활한 계교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케 하고(욘 2:4, 5) 악을 행하도록 선동하여(창 3:1-5; 요 13:2, 27)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키려고 애쓴다(참조, 눅 9:39).
- (6) 이러한 사단의 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11:3, 13-15; 엡 6:13-17).

6. **㉠** 시인은 무엇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였는가? (5절)

㉠ (1) 시인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였다.

- (2) 이 '영'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시인이 이것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죽음을 앞 둔 유언이 아니라 다만 그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의 보호에 엄숙히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사 38:16).
- (3) 우리의 생명과 삶의 참된 근원이 하나님이신 만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참조, 눅 23:46; 행 7:59).
- (4)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생명을 주시는 이도 주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주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참조, 요 1:4; 10:10; 11:25; 14:6; 롬 5:21; 요일 5:12).

7. **㉠** 시인은 어떠한 자를 미워하였는가? (6절)

㉠ (1) 그는 '허탄(虛誕)한 거짓을 숭상(崇尚)하는 자'를 미워하였다.

- (2) '허탄한 거짓'이란 거짓된 신들로부터 도움을 바라는 우상 숭배나 요술, 점에 의지하는 행동 따위를 의미한다.
- (3) 이런 것들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하여 만든 무수한 유혹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비록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끝내는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실망시키기 때문에 '허탄한 거짓'이라는 표현을 하였던 것이다.
- (4)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것들에 호감을 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을 미워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지 그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않았다.
- (5)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라는 대조적 귀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단호한 결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참조, 60:4; 렘 17:5).

8. **㉠** 시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1) 그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 (2) 분권절들에서 그는 '주의 인자하심'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 (3)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슬한 폭풍우와 원수 사단의 음모에서 농임을 받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 힘을 얻으며 달음박질하여도 끈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축복을 받았다(참조, 124:7; 사 40:31).
- (4)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도,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는 수많은 은사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되었다(90:14).

- (5)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을 살피시고 우리 개개인의 영혼의 아픔을 알아 주시고 고달픔도 아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합 3:17, 18; 습 9:16, 17; 히 10:34; 벧전 4:12, 13).

9. **㉠** 시인은 자신의 환난과 고통에 대하여 어떤 호소를 하였는가? (9, 10절)

- ㉠** (1)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였다.
 (2)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슬픔의 도가 극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고(9절),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지쳤으며 기력을 잃었고 나아가 빠져져 쇠약해 갔다(10절).
 (3) 한 마디로 그가 직면한 상황은 영과 육의 최악의 상태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이다. 그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 하나뿐이었다.
 (4)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하며 도움을 주시는 자로 확신한 그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현대인들에게 시인의 이러한 모습은 좋은 교훈이 된다(참조, 66:14; 69:17).
 (5)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63:1).

10. **㉠** 시인이 당면한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1-13절)

- ㉠** (1) 시인은 그의 대적들과 심지어는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하였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여 길에서 보면 피하였다(11절).
 (2) 그 이유는 사울이 그를 반역자로 선포한 뒤 그를 죽이려 하고, 그의 친구들은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 감히 그를 숨겨 주려 하거나 도와 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라는 사실조차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3)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고 깨어진 질그릇같이 멸시를 받았다(12절).
 (4) 또한 그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다(13절). 즉 사울의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그로 인해 그는 사면 초가(四面楚歌)의 위협에 처하였던 것이다.
 (5) 그토록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섬기던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환난이 닥쳤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즉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환난들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다(참조, 신 8:2, 3; 욕 23:10; 벧전 1:5-8).

11. **㉠** 환난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는가? (14절)

- ㉠** (1) 시인은 사울과 주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면 초가의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다.
 (2) '그러하여도'라는 접속사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 준다. 이것은 곧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말과도 연결된다.
 (3) 일반적으로 신앙은 환난의 때에 그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다. 자신의 생명이 위

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신앙의 절개를 꺾게 된다(마 26:60-75).

(4)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이다(참조, 마 7:24, 25).

(5)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시인의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다(참조, 빌 3:4-8; 히 11:26).

12. ㉠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15절)

㉠ (1) 이것은 시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있다는 뜻이다.

(2)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었다.

(3) 그에게 있어서 인생관과 가치관의 기초는 하나님이셨다. 또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도 알았다.

(4)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분의 주권 아래서 되어드는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맡겨야 한다(참조, 욥 14:5; 행 17:26).

13. ㉠ 시인은 무엇을 자기에게 비추어 주도록 하나님께 구하였는가? (16절)

㉠ (1) 시인은 ‘주의 얼굴’을 자기에게 비추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기대하였다는 말이다.

(2)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마련인데 시인은 그러하지 않았다. 이전의 여러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긍휼의 손길을 맞본 그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임을 알았던 것이다.

(3)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출 33:19)와 그 자녀들(사 40:11; 막 6:34; 눅 15:4-9)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4)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체험했고 또 날마다 새로운 긍휼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그것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참조, 69:16; 삼하 24:14; 사 55:3; 애 3:22, 23).

14. ㉠ 원수에 대해 시인은 어떠한 간구를 하였는가? (17, 18절)

㉠ (1) 시인은 원수에 대해 하나님께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병어리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다.

(2) 악인을 부끄럽게 해 달라는 것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이 그 공사가 완성되자 스스로 낙담하였던 것처럼(느 6:16) 만들어 달라는 뜻이다(참조, 25:3).

(3) 또한 음부에서 잠잠케 하여 달라는 것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는 말이다(참조, 눅 23:41).

(4) 그리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란 종상과 모략으로 의인들을 비난하는 거짓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시인은 이런 자에 대해서도 징계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다(참조, 12:3; 59:12; 잠 12:19; 유 1:15; 계 22:15).

(5) 이처럼 원수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매우 단호한데, 그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이런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옳지 않았기 때문에 혹독한 저주의 간구를 한 것이다.

15. ㉠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19, 20절)

㉠ (1)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

기사 사람의 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口舌)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 (2)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라든지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라는 말은 중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호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오묘하여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 (3) '구설의 다툼' 이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표현인데, 그들은 언제나 논쟁을 좋아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입히는 말하기를 좋아한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직접적인 보호자가 되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 바룩과 예레미야가 수색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숨겨 주셨던 사건이 그 좋은 증거이다(렘 36:26).

16. **㉠**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무엇인가? (21, 22절)

- ㉠** (1) 시인은 그토록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건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라' 라고 밝혔다.
- (2) 이 말은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해 내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의미이다.
- (3) 더더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는 나약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4)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쉽다. 하루에도 무수히 주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요 13:1; 롬 8:35). 그러므로 우리는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참조, 삼상 1:3; 마 4:10).

17. **㉠** 시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였는가? (23, 24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라는 권면을 하였다.
- (2) 그는 찬양에 불타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 그 자신이 체험한 경험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제의하였다.
- (3)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매혹당하고 있으며, 또 세상의 거짓된 것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다(참조, 딤후 3:1-5).
- (4)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면한 그는 다시 담대할 것을 권면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담대함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 (5)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참조, 27:14; 신 31:7; 수 1:6, 9, 18; 고전 1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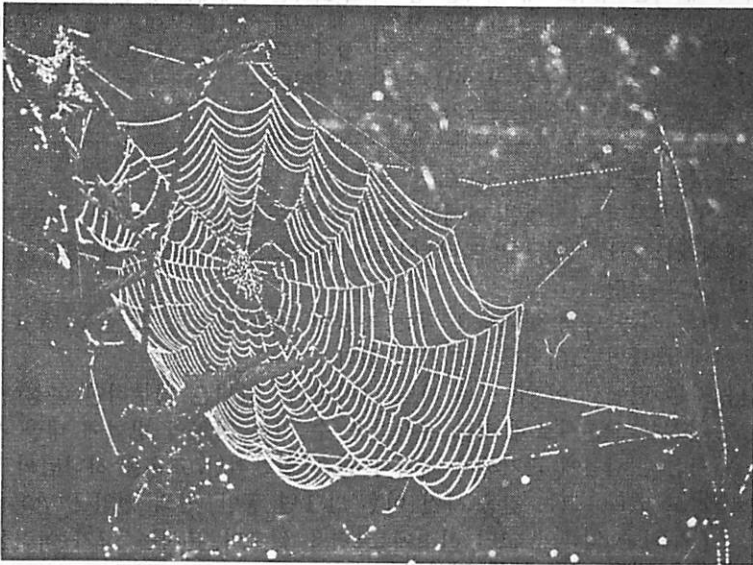
18. **㉠** 시인의 권면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23절)

- ㉠** (1)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시다.
- (2) 또한 하나님은 죄를 무엇보다도 미워하시기 때문에(5:5, 6) 반드시 보응하신다(신 32:34-41). 때때로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은 것처럼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그들의 종국은 풀과 이슬같이 되고 만다(참조, 사 47:14; 나 1:10; 말 4:1).
- (3)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악인들에 대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고 말씀하셨다(마 3:12).

- (4) 특히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의인과 악인, 즉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들을 구분하여 자녀들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고 악한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보응을 하신다(참조, 말3:18; 마 5:22; 25:41; 막 9:43-48; 눅 16:22-24).
- (5)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빌 2:12-16).

화보자료

악인의 그물. 아래 사진은 거미가 숲속 나뭇가지에 쳐 놓은 거미집의 모양이다. 이 거미집은 거미 자신의 배에 달린 방적 돌기(紡績突起)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짓는 것인데 색깔이 없는 투명체이므로 곤잘 곤충들이 이것에 걸리어 거미의 먹이가 되곤 한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파 놓은 올무를 '비밀히 친 그물'로 이해하였다(4절). 사실 악인들의 소위(所爲)는 꼭 거미와 같다. 그들은 행악(行惡)의 거미줄을 쳐 놓고서 한 곳에 숨어 지켜 보는 가운데 의인이 그 거미줄에 걸려 넘어지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제 32 편 회개하는 자의 행복

단락구분 1-2 사죄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이다 / 3-4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의 고통 / 5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다 / 6-7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 8-11 시인의 권면과 훈계

1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2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3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유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6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

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이다(셀라)

8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 ㉠ 본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몇 가지의 특징적인 면에서 앞의 시와 연결되어 있다. 이 두 편의 시에서 시인은 '내가 이르기를' (히, 아마트티)이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 영적인 생활의 일부를 되돌아 보고 있다.
- (2) 또 두 편의 시는 공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권고로 그 끝을 맺고 있으며 이것이 전체 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3) 그러나 다른 면에서 이 두 시는 서로 상이하다. 31편은 외부적인 곤경에서 올리는 기도와요, 본시는 교훈시로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참회의 방법에 대한 시이다.
- (4) 시인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거기서 얻은 일반적인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는 간음 사건 이후 만 1년 동안 단죄 선언을 받은 죄인의 신세였다. 이 무서운 영혼의 고민 시절에 51편을 썼으며, 본시는 그가 이러한 정신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쓴 것이다.
- (5) 즉 전자는 참회의 노력 중에 쓴 것이고, 후자는 마음의 평화를 회복한 후의 작품이다.
- (6) 본시에는 그가 고뇌의 심연 속에서 발견한 귀중한 보배들이 수록되어 있다. 즉 본시는 용서의 은총에 관한 원리로서 진실되고 숨김없는 죄의 고백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며, 그렇게 하면 모든 위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마스크길'이다.
- (2) '마스크길'이란 말은 히브리어 <므할림>과 <마스킬림>으로부터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이것은 특별한 음악 몇 가지를 동반하는 시(詩)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특별한 절기에 노래하는 시를 의미할 수도 있다.

3. ㉠ 어떠한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가? (1, 2절)

- ㉡ (1)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1절)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 (2) 여기에 '죄'의 종류가 세 가지 언급되어 있는데 '허물'(히, 폐사), '정죄'(히, 하타아) 그리고 '간사'(히, 아온) 등이다.
- (3) <폐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반역을 의미하고, <하타아>는 원래 '표적을 벗어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아온>은 '악을 행하다'는 뜻으로 형식적 측면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쓰였다.
- (4) 이런 여러 종류의 죄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다소 구별상의 차이가 있다. 구약에서는 주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였으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로 되어 있다.
- (5) 이 죄는 연대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즉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이다.
- (6)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표현은 다르지만 시인이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해 세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종의 강조법으로서 참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축복받은 사람임을 확증하여 준다.
- (7) 죄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용서받지 못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과 위로를 주신다(참조, 51:12, 13; 사 57:15; 겔 28:21; 숙 1:3; 마 5:4; 눅 15:7; 행 11:18).

4. ㉠ 시인은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하였는가? (3, 4절)

- ㉡ (1) 시인은 자신이 회개하지 않을 때 당한 고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내가 토설(吐說)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津液)이 화(化)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 (2) 여기서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6:2; 31:10).
- (3) 또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라는 말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4) 그리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결과 처절한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의미이다(참조, 22:15).
- (5) 물론 죄를 회개할 때도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엄청나다. 전자의 고통은 일시적이며 소망적이라면 후자는 계속적이며 절망적이기 때문이다(참조, 7:12; 눅 13:3; 요 9:39-41; 고후 12:21).

5. ㉠ 시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5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自服)하였다. 즉 회개하였다.
- (2) 그는 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음을 알았다. 비록 그 죄가 차마 고백하기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이다.
- (3)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숨

겨 두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회개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받았다.

- (4) 우리는 범 죄할 때마다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때그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숨기고 있는가? 우리의 회개를 기뻐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순간마다 모든 것을 주께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잠 1:23; 사 22:12; 겔 18:31; 호 14:2; 율 2:12; 말 3:7).

6. **Q**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6, 7절)

- A**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내어 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며(6절),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서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그들을 애우신다(7절).
- (2) 여기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는 표현은 요엘 선지자의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율 2:32) 라는 예언과 일치하고 있다.
- (3) 그것은 죽음의 깊은 소용돌이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뜻이다.
- (4) 본귀절의 끝 부분에서 시인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비록 짙막한 몇 마디 말로 찬양하고 있지만 그 간결한 표현 속에는 강력한 힘이 내포되어 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모든 위협에서 구해 주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심으로 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노래하게 하신다.
- (6) 이것은 죄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 단지 우리의 죄짐을 주 앞에 내어 놓기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다(참조, 말 3:7; 마 11:28-30; 눅 15:21).

7. **Q** 시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는가? (8절)

- A** (1) 시인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하였다.
- (2) 일반적으로 이 말을 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인이 이미 여기에 언급된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시인 자신이 직접 스승으로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참조, 34:12). 시인은 51:15에서 약속한 대로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죄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 (3)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준 점이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서로간의 신앙 경험들을 나누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제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참조, 골 3:9-14; 딤후 2:12).

8. **Q** 시인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였는가? (9절)

- A** (1) 시인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團束)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권면했다.
- (2) 이는 영적 훈계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이다. 만약 훈계를 받지 않으면 무지한 자와 같으므로 말이나 노새를 자갈이나 굴레를 씌워 복종케 하듯이 짐승 취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훈계하지 않는다. 오직 택한 당신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훈계와 권면을 하고, 안 되면 강제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참조, 히 12:11).
- (4) 즉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짐승 취급을 받으며(잠 12:1) 자신의 길을 그릇하게

제 33 편 여호와와 말씀과 도모 (圖謀)

단락구분 1-3 여호와를 찬양하라 / 4 여호와와 속성 / 5-9 여호와와 창조 사역 / 10-11 여호와와 도모 / 12 선민(選民)의 복 / 13-15 여호와와 인생을 감찰하신다 / 16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는 없다 / 17-19 여호와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도우신다 / 20-22 여호와에 대한 성도들의 바람

1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4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5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어 세상에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찬탄하도다

6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7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공간에 두시도다

8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11 여호와와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12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있도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어

14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15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16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17 구원함에 맡은 헛 것임이어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18 여호와와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느도다

20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함이어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22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1. ㉠ 본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시는 150편의 시 중에서 저자(著者)를 알 수 없는 시에 속한다. 대부분의 시들이 다윗, 솔로몬, 아삽(50, 73-83편), 헤만 등과 같은 저자를 명기(明記)하고 있는데 반해 본시는 그와 같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 (2) 또한 본시는 그 형식에 있어서도 특이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곧 시의 서두가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법적 어투(語套)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 (3) 이러한 시는 대개 내용 전개에 있어서 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 ②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 증거 ③ 하나님의 사역 ④ 하나님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인간의 태도 및 그로 말미암은 축복 고결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4) 시편 가운데서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시로는 본시 외에도 29, 37, 47, 49, 66, 81, 107, 136 편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에서 여호와 찬양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된다.

2. ㉠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에 대하여 살펴보자(1절).

- ㉠ (1) '의인' (righteous one)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로서 행동이 올바른 자 또는 하

나눔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킨다(참조, 창 6:9; 욥 17:9; 잠 28:1).

- (2) 본질에선 '정직한 자'를 가리켜 의인이라 일컫고 있는데 이는 32편 '마지막 절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의인이라 일컫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 (3) 한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측면에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비록 악인은 그의 마음의 교만과 부정적으로 인해 멸망당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합 2장).
- (4)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의인이란 단 한 명도 없으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본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역설하였다(롬 3:9, 10).
- (5)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본래 죄인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그의 의(義)를 힘입기만 하면 '의인'으로 불리움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롬 5장).

3. ㉠ 수금과 비파는 어떠한 악기인가? (2절)

- ㉠ (1) '수금'은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하며 '비파'는 <네벨>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모두 현악기로서 수금은 6줄 내지 7줄, 그리고 비파는 10줄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 (2) 70인역(LXX)에는 <네벨>이 <나블라>나 <프살테리온>과 같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살테리온>은 하아프를 의미한다.
- (3)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및 예배와 관련하여 많은 악기들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한 악기 중 대표적인 것들로는 수금과 비파 외에도 작은 북(149:3; 출 15:20), 나팔(스 3:10), 제금(150:5; 삼하 6:5) 등이 있다.
- (4) 오늘날에는 악기 산업이 발달하여 보다 다양한 악기들이 양산(量産)되고 있으며 이러한 악기들이 교회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 (5) 이러한 추세는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실은 악기 사용의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을 돕는 데 있지 인간 감정을 순화시키거나 충족시키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4. ㉠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야 할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하라(4-11절).

- ㉠ (1) 첫째, 여호와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진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삼상 15:29)라고 묘사하였다.
- (2) 둘째,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대저 나 여호와와 공의를 사랑하며' (사 61:8)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 33:19)라고 말씀하셨다.
- (3) 셋째,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의 덕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하여 개신교 소요리 문답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참조, 고전 10:31).
- (4) 넷째, 여호와와의 도모(圖謀)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心思)는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참조, 롬 1:16). 그리고 그 같은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다(마 27:45-50).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 여호와와의 '입 기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 (1) '입 기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호 페>인데 이는 '입'을 뜻하는 <페>와 '호흡',

‘바람’ (wind), ‘영’ (spirit)을 뜻하는 <루아흐>가 복합된 말이다.

- (2) 흑자는 천지 창조 사역에 삼위(三位) 하나님께서 동참하신 사실을 중시하여 ‘입 기운’을 성령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하려 하기도 한다.
- (3) 그러나 본절이 대귀 형식(對句形式)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입 기운’이란 말은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을 다른 용어를 빌어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4) 그리고 그에 따라 ‘입 기운’이란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 즉 말씀 한 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권능을 강조한 하나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창 1:3, 9).
- (5)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인위적인 창조 사역과는 달리 ‘입 기운’으로 만상(萬象)을 창조해 낸 것이니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 **㉠**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는 말에 대하여 설명하라 (7절).

- ㉠** (1) 이와 동일한 표현은 78:13에도 나온다. 거기서는 그러한 표현을 빌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노래하고 있다.
- (2) 그러나 본절에서는 이러한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본시의 저자는 78:13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는 말로써 홍해의 이적을 노래할 수 있다.
- (3) 아니면 이 같은 말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 들어서자 흐르던 강물이 끊어져 무더기같이 쌓였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수 3:13-17).
- (4) 뿐만 아니라 본절은 창 1:7과도 연관지워 생각해 볼 수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는 기사(記事)가 나온다.
- (5) 여기서 궁창(穹蒼)은 지구와 접해 있는 대기권(大氣圈)을 의미한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이란 이 대기권에 모여 있는 수증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는 말은 바닷물이 증발하여 대기권으로 올라가 수증기 상태로 모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 (6) 이처럼 본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본절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의 기기 묘묘(奇奇妙妙)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7. **㉠** 하나님께서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5절)

- ㉠** (1) ‘짓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르>로서 ‘형성하다’, ‘만들다’, ‘고안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2)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말은 인간 마음의 조성자(造 成者)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선 늘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말이다.
- (3) 즉 하나님께선 인간의 속마음을 항상 살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예의 주시하시기 때문에 마치 인간의 사고(思考)와 염원을 하나님께서 창출해 내시어 인간의 머리 속에 불어 넣으신 것처럼 그 내면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참조, 대상 28:9; 욕 34:21).
- (4) 만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악간 행위를 감찰하시고 이를 인간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5)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분 앞에서 자복하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는 우리의 죄를 사(赦)해 주시사 지난 죄를 기억도 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같은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부족하나마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참조, 사 1:18).

8. **㉠** 본시에 나타난 구원관에 대하여 살펴보라 (16-19절).

- ㉠** (1) 본시의 저자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군대나 말(horse)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임을 간파하고 있다.
- (2) 이와 꼭 같이 다윗도 일찌기 ‘여호와와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삼상 17:47)는 것을 깨달았으며 비록 사람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馬兵)을 예비하거나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 21:31)라고 노래하였다.
- (3) 그리고 본시의 저자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래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4) 이와 관련하여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 14:27)라고 하였다.
- (5) 이처럼 본시의 저자는 인간적 방편이나 공로로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만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관(救援觀)을 표명하고 있다.
- (6) 한편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편을 제시해 주셨으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요 3:16). 이 예수 그리스도께선 근본 하나님이니(요 10:30; 14:9) 누구든지 그를 경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바 이로써 인간 구원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화보자료

말을 탄 아랍인. 옆의 사진은 현대의 아랍인이 교통 수단으로서 말을 사용하는 모습이 다.



성경에서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참조, 사 31:3). 본장에 나오는 ‘구원함에 말은 헛것’ (17절)이라는 표현도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

제 34 편 여호와를 경외하라

단락구분 1-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랑하다 / 3 여호와와 이름들을 돌이키자 / 4-7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 8-10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받을 축복 / 11-14 생명을 사모하는 자는 악을 버리라 / 15-17 의인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 18, 22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구속(救贖)하시다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다

2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다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4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8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11 너희 소자들이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다

12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꾀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14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 여호와와 의인은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시라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7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1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다

22 여호와께서 그 중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다

1. ㉠ 본시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쫓겨 가드 왕 아기스(Achish)에게로 도망갔다가 그 앞에서 미친 체 한 까닭에 도리어 쫓겨 난 이후 지은 시이다(참조, 삼상 21:10-15).

(2) 그런데 본시의 제목에는 아기스란 이름 대신 '아비멜렉'(Abimelech)이란 이름이 나와 있으나 여기서 '아비멜렉'이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과 같은 블레셋의 왕(방백)들을 가리키는 호칭임을 알 수 있다(참조, 수 13:3).

(3) 다윗은 본시에서 여호와께 대한 그의 개인적인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데 자신이 환난 중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받았던 보호와 구원에 대하여 조목조목 증거하고 있다(4, 6, 17절).

(4) 이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며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악을 버리고 화평을 찾아 여호와를 따르도록 중용하고 있다(14절).

(5) 한편 본시는 25, 145편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시편으로서 히브리 철자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알렐>으로 시작하여 진행되다가 열 일곱번째 순서인 <뻐>자로 끝나고 있다.

2. ㉠ 본시의 저자인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할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라(1-10절).

- ㉠ (1) 첫째, 다윗은 '곤고한 자'(히, 아나임)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니 여호와를 송축하여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 (2) 여기서 '곤고한 자'란 일반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
- (3) 이 중에는 다윗 자신도 포함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고통 중에 자신이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음을 고백할 정도로 낮아졌으며(삼상 24:14) 그 같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구원을 이루었다(삼하 1:1-2:4).
- (4) 둘째,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를 찬송하여야 한다는 것이 또한 다윗의 자세이다.
- (5) 이에 대하여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마치 자신의 눈동자 같이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감싸 덮는 것같이 하신다고 노래하였다(17:8; 신 32:10).
- (6)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에 대하여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영적인 축복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신 28장).

3. ㉠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여기서 '저희'란 말은 다음인 17절 이하에 나오는 '의인'(righteous one)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는 말은 의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앙모하므로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된다.
- (2) 한편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히 1:3)로 묘사되었다. 그러므로 본절의 말을 오늘날에 적용할 것 같으면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 된다(참조, 요 5:24).
- (3)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이제 영영히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인즉 그들은 마치 예복을 입고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와 같이 될 것이다(참조, 마 22:1-14).
- (4)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빛을 미워하여 빛에게로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 곧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요 3:20).
- (5) 이상에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알게 되는데 의인이란 빛에게로 나아가 온전히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를 가리키며 악인이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어두움 가운데 침잠(沈潛)해 있는 자를 가리킨다.

4. ㉠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하여 살펴보라(7절).

- ㉠ (1)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 예호와>인데 여기서 <말라크>란 '천사'를 의미한다.
- (2)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40여 회 나오며(35:5; 창 16:7; 출 3:2; 민 22:22; 사 37:36) 신약 성경에는 이와 동일한 말인 '주의 사자'(the angel of the Lord) 또는 '하나님의 사자'(the angel of God)라는 말이 10여 회 나온다(마 1:20; 눅 1:11; 12:8; 요 1:51; 행 5:19).
- (3) 이 같은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지칭하고 있으나 창

- 16:7과 22:11 그리고 출 3:2과 같은 곳에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 (4) 이러한 여호와와 사자가 맡은 바 사명은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자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마 1:18-25) 하나님을 대리하여 심판을 집행하는 심판자 노릇도 한다(참조, 삼하 24:16; 대상 21:15).
- (5) 한편 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 1:14)라고 하였다.

5. **㉠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떠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가? (8절)**

- ㉠** (1) 자신이 체험하였던 경험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려 하는 그의 간절한 염원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직(忠直)한 신앙을 엿볼 수 있다.
- (2) 동양 속담 가운데 '한번 보는 것이 백번 듣는 것보다 낫다'(百聞不如一見)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피상적인 지식보다는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지식이 더 낫다는 의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사귄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무한한 능력 등에 관한 지식의 고귀함을 직시(直視)하였다.
- (4) 즉 그는 환난이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온전히 그분의 뜻을 준행하였을 때 자신에게 내려 주시던 여호와와의 은총이 지극히 크고도 선하다는 것을 맛보아 알았던 것이다(참조, 삼상 24:1-15; 삼하 2:4-7).
- (5) 이처럼 '소중한' 경험을 한 다윗은 이제 그 같은 경험을 자신만이 간직하려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9절)라는 말로써 재차 권고와 증거의 염(念)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 (6)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순전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못성도들도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다윗의 심정을 지녀야 할 것이다(참조, 엡 1:19).

6. **㉠ 성경에서 혀(舌)와 관련하여 주어지고 있는 교훈들을 찾아 보라(13절).**

- ㉠** (1) 혀는 신체 중 유일한 단일 감각 기관이며 중요한 발음 기관이다.
- (2) 이러한 혀에 대해 성경은 막강한 힘을 지닌 세력물로 언급하고 있다. 잠언 기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라고 하였다.
- (3) 그리고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 3:8),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 3:2)고 하였다.
- (4) 이와 같은 혀와 관련하여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 ① '뉘시로 악어를 뉘을 수 없듯이 노끈으로 혀를 뉘 수 없다'(욘 41:1).
- ②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 10:19).
- ③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良藥) 같으니라'(잠 12:18).

- ④ '마음이 사투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잠 17:20).
- 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잠 21:23).
- ⑥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잠 25:15).
- ⑦ '사람을 영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잠 28:23).
- ⑧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 것이라'(약 1:26).

7. **㉠** '마음이 상한 자'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18절)

- ㉠** (1) 자신만을 신뢰하던 교만함과 자신만을 위하던 이기심이 깨어진 자를 가리킨다.
- (2) 이러한 심령의 변화는 대개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은 결과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통회(痛悔)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 (3) 이에 대하여 다윗은 51:17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라는 말로써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되어 있다.
- (4) 이와 동일한 내용의 교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수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바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라고 말씀하셨다.
- (5)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라는 것이다.

8. **㉠** 20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응(應)하였는가? (20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숨지신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므로 온전히 응하여졌다(요 19:31-36).
- (2)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은 것은 죽음을 재촉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강도들은 더 이상 자기의 발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게 되었다(요 19:32).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꺾이우지 않고 온전히 보호되도록 섭리하셨다. 그 이유를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와 연관지워 찾아 볼 수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던 속죄 제물이 다리가 절거나 상하거나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었듯이 세상 죄를 대속하는 속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흠 없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기 때문이다(참조, 신 15:21).

본장의 요절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18절).

제 35 편 여호와와의 도우심을 간구하다

단락구분 1-8 악인의 계계(詭計)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다 / 9-16 여호와와 같은 선 분이 없음을 노래하다 / 11-13 고통 중에서의 기도 / 14-16 선을 도리히 악으로 갚는 우리들 / 17-19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하여 더 이상 관망하시오만 계시지 않음을 간구하다 / 20-21 악인의 행위 / 22-28 공의를 판결하시기를 간구하다

1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 창을 때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4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5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와 사자로 몰아내소서

6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와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7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응징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8 멸망으로 즐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9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어 그 구원을 기뻐하리다

10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다

11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12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13 나는 저희가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4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15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할때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어 비웃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16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17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8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9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20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21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22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3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서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4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어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25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26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궁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27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행동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28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도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1. ㉠ 본시의 내용상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 (1) 본시는 악인에 대하여 품고 있는 다윗 자신의 비감(悲感)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우

심을 호소하고 있는 개인적 호소문(呼訴文)이다.

- (2) 이러한 시는 대개 악인의 실상과 그로 인하여 받고 있는 저자 자신의 고통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 본시에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바 ‘...하소서’, ‘...소서’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는 문장이 15개나 된다(1, 3, 5, 8, 17, 22절 등).
- (4)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원수를 진멸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 (5) 그는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어느 때에든지 그들을 대하기를 친구나 형제를 대하듯이 하였었다(13,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다윗이 환난 중에 빠지는 것을 즐겨워하였다.
- (6) 이러한 악인들의 소위(所爲)에 대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은 점을 염려하였다. 즉 의인들이 악인의 꾀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을 못사람들이 보고서 의(義)의 길을 떠나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 (7)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시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간구하며 이로써 의인들이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27절).

2. ㉠ 성경상에서 다윗의 생명을 해(害)하려 하였던 자들을 찾아 보라(4절).

- ㉠ (1) 첫번째 인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들 수 있다.
- (2)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선 일종의 은인이었다. 그는 사울이 악신(惡神)에게 시달려 버려질 때 수금을 연주하여 들려줌으로써 악신을 떠나게 해주었다(삼상 16:14-23).
- (3)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도 그는 적장 폴리아트를 물리쳐 사울과 함께 조국을 수호하였다(삼상 17장).
- (4)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사울 자신보다는 다윗을 더 칭송하자 이후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틈만 있으면 죽이려 하였다(삼상 18:6-11).
- (5) 두번째 인물로는 다윗 자신의 아들인 암살롬을 들 수 있다.
- (6) 일찌기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육보인 후 후환(後患)이 두려워 예루살렘을 떠났던 암살롬은 다윗의 은전(恩典)을 입어 다시금 궁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삼하 13, 14장).
- (7) 그러나 궁전으로 돌아온 암살롬은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을 규합하여 반역을 꾀함으로써 다윗의 선대에 대하여 도리어 악으로 보응하였다(삼하 15장). 이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키 위하여 피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 이는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삼하 15:14-18).
- (8) 하지만 이상과 같이 다윗의 선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두 사람은 오히려 자신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으니(삼상 31장; 삼하 18장)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말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 ‘내 모든 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절)

- ㉠ (1) 인간의 전인격을 의미한다. 다윗은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로 9절에서 ‘영혼’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 (2) 반면에 뼈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몸 속에 들어 있어 온 몸을 지탱해 주는 버팀대 역할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며 전인격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 그러므로 ‘내 모든 뼈’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곧 나의 전인격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이 된다. 반면에 ‘나의 뼈’가 떨린다는 말(6:2; 렘 23:9)은 나의 몸, 즉 나

의 마음이 떨린다는 말이 된다.

(4) 한편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즉 여자라는 인격체를 만드신 것과 이 인격체에 대하여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창 2:23)고 말한 것은 뼈가 곧 사람의 인격을 의미한다는 것과 연관지워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귀절이라 하겠다.

4. **㉠**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도리어 그 기도가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더라는 것과 관련지워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13절)

- ㉠** (1) 첫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눅 10:5, 6)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 (2) 하지만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한 것이지 처음부터 자신에게로 돌아올 축복이 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수단이 되는 잘못된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 (3) 둘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 6:28)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 (4)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려 한 바는 참된 '사랑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稅吏)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 5:46)라고 역설하셨던 것이다.
- (5) 셋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롬 12:12)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다. 비록 다윗은 이 같은 바울의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지만 성도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자세를 지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참으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도 잊지 아니하였다.

5. **㉠** 비류(匪類)란 어떠한 자들인가? (15절)

- ㉠** (1) '비류' (defamer)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킴>인데 이 단어는 '치다', '때리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나카>에서 온 말이다.
- (2) 그러므로 <네킴>이란 글자 뜻 그대로 하면 '때를 맞은 자', '얻어 맞은 자'라는 의미가 되지만 실상 여기서는 한자(漢字)로 풀이한 뜻 그대로 '천하고 의롭지 못한 무리'라는 의미이다.
- (3) 한편 개역 성경에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 하도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원어에 보다 가깝게 개역할 것 같으면 '나의 알지 못하는 비류가 (내가 환난에 빠진 것을 보고서 물려와)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 하도다'라는 문장으로 개역될 수 있다.
- (4) 이처럼 비류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환난에 빠지는 것을 보고서는 기뻐하며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애쓰는 자들이니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특성을 알 수 있다.

6. **㉠** '무리하게 나의 원수 된 자'란 무슨 뜻인가? (19절)

- ㉠** (1) 다윗 자신이 상대방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위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팬스레 상대방이 다윗에게 악감(惡感)을 품고서 대적한 것을 뜻한다.
- (2) 그 같은 인물로서 우리는 사울의 군장(軍長)이었던 아브넬(Abner)과 사울의 집 족속 시므이(Shimei)를 꼽을 수 있다.
- (3) 이 중 아브넬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못마땅히 여긴 자로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치 아니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Ishbosheth)을 내세워

따로 독립 정부를 수립하였다(삼하 2:8, 9).

- (4) 하지만 아브넬은 훗날 이스보셋과의 불화로 인해 그와 결별하고 다윗 편에 붙으려 하였으나 동생 아사헬(Asahel)의 일로 인해 분을 품고 있던 요압(Joab)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삼하 2:12-23; 3:6-30).
- (5)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로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 가는 것을 보고서는 그 뒤를 쫓으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鄙陋)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삼하 16:7)라고 저주하였는데 훗날 그는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왕상 2:44-46).
- (6) 결국 이로써 ‘무리하게 나의 원수 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는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하겠다.

7. **㉠**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公判) 하시며’란 말에 대해 살펴보라(23절).

㉠ (1)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과 그의 촉급한 심령을 엿볼 수 있다.

(2) 실상 하나님께서는 즐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자(121:3, 4)로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늘 활동하고 계신다(참조, 요 5:17).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떨치고 깨셔서’라고 말한 것은 한시바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래서 다윗은 연이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24절)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5)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점이 없으므로 담대히 하나님께 악인과 자신의 공의로써 판단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중에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려 하신다면 그분 앞에 자신을 뒤흔어 내어 놓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

(6)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이다(롬 12:1, 2).

8. **㉠** 다윗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끝마치고 있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8절)

㉠ (1)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녀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가리켜 주고 있다.

(2) 본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면 일평생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서원(誓願)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후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으로써 기도를 끝 맺는 다윗의 찬양이기도 하다.

(3)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써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 (33:1)라는 사실을 몸소 실행해 보였다.

(4) 아뭏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같은 다윗의 자세는 마땅히 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6-18)고 가르쳤다.

제 36 편 악인의 실상(實狀) 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단락구분 1-4 악인의 실상 / 5-8 여호와의 인자하심 / 9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 10-12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報應)해 주시기를 간구하다

- 1 악인의 죄업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 2 저가 스스로 자궁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 3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꾀술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 4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 5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 6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대

- 7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 8 저희가 주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 9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 10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 11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 12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1. ㉠ 본시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시는 다분히 교훈적이며 '지혜'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에 관해 깨우쳐 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 (2) 즉 본시의 저자인 다윗은 악인의 실상을 파헤치며 동시에 여호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 (3) 이러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본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4절에는 악인의 실상이, 그리고 5-9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생명의 근원 됨이 묘사되어 있으며, 마지막 10-12절에는 의인과 악인에게 보응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실려 있다.
- (4) 한편 본시의 제목 중엔 '영장' (chief musician)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악사들의 대장, 즉 성가대의 지휘자를 가리킨다 (참조, 대상 15:22; 16:5).

2. ㉡ 본절을 좀더 쉬운 말로 의역해 보라(1절).

- ㉡ (1) 본절은 다음과 같이 의역(意譯)할 수 있다. '악인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에게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도다' (참조, RSV).
- (2) 그런데 본절에서 '죄업' (罪孽), 즉 '죄악에 대한 재앙' 이란 말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야>인데 그 뜻은 '허물', '죄과' (罪過), '위반', '범죄', '침해', '방해' 등이다 (창 31:36; 잠 17:19; 겔 33:12).
- (3) 한편 이와 같이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2절에 밝혀져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궁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하지만 이 같은 그들의 생각은 큰 착각이며 무지의 소산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죄악(130:3)과 마음(대상 28:9; 29:17; 살전 2:4; 히 4:12)을 감찰하신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이 은밀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날이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될 뿐이다(90:8; 욥 12:22; 전 12:14).

(6) 따라서 허황된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여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고 마는 악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으며 불행한 자라고 할 수 있다.

3. ㉠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궁중에 사무쳤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한하다는 뜻이다.
 (2)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중에 이르나이다'(57:10) 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이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식으로도 부인될 수 없는데 특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에선 더욱 그러하다.
 (4) 하나님께선 선악과를 따먹고서 눈이 밝아져 자신의 몸이 벌거벗겨져 있음을 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창 3:21) 이는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됨을 예표한다(요일 1:7).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도 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하여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8, 19)고 하였던 것이다.

4. ㉠ '하나님의 산'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 (1) 본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이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즉 '시내 산'(출 3:1; 44:13)이나 본서에 나오는 '바산 산'(68:15) 또는 '시온 산'(2:6)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2) 단지 이 말은 하나님의 변개(變改)치 않으시는 의로움을 비유한 단어인 '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강세적(強勢的)인 효과를 피하고 있는 말일 뿐이다.
 (3) 그러므로 이 말은 5절의 '주의 성실하심이 궁중에 사무쳤다'는 말과 다시금 연관을 맺게 되는데 '주의 성실하심'이란 곧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작정하신 '자비'와 '의'를 반드시 내리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자는 사무엘서의 저자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삼상 15:29)라고 하였다.

5. ㉠ '주의 집의 살진 것'과 '주의 복락의 강수'가 뜻하는 바를 음미해 보라(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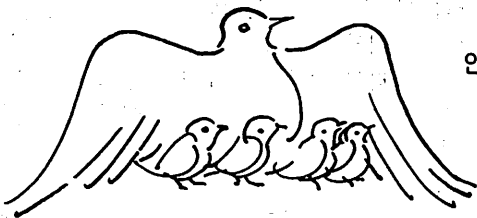
- ㉠ (1) '주의 집'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상징적 거소(居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의 집'이란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있어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창 8:20-22)이 바로 그것이며 출애굽 시대에 있어선 장막(출 40:34-38)이, 그리고 왕국 시대에 있어선 성전(대하 5장)이,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선 교회(행 2:1-4)가 바로 '주의 집'인 것이다.
 (2) 따라서 '주의 집의 살진 것'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殿)을 사모하여 나아오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내려 주시는 은총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3) 그리고 '강수'(江水)란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총의 풍성함, 즉 다함 없는 축복을 의미한다(참조, 렘 31:12).

- (4)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8) 고 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요 7:39) 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 (5) 아뭏든 이상과 같은 축복은 성도들, 즉 선한 싸움에서 이김을 얻은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데 이들은 또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신천 신지(新天地)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참조, 계 22:1-5).

6. **Q** ‘거기’란 어디를 가리키는가? (12절)

- A** (1) ‘거기’(there)란 말은 히브리어로 <암>인데 이는 특정한 곳을 가리킴이 없는 액면 그대로의 ‘거기’를 뜻한다.
- (2) 따라서 다윗이 이 말을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바는 어느 곳에서든 악인이 한번 넘어지면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3) 이처럼 악인이 넘어지고 나면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각양 각색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옳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욥 8:20-22) 라고 하였다.
- (4) 그리고 이사야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사 3:11)고 하였다.
- (5)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으로 잡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점이다.
- (6)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겔 18:23).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겔 18:27).
- (7) 그런데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넘어져 일어설 수 없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지 않는 이유는 악인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장의 요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
나이다’(7절).

제 37 편 의인의 화평과 악인의 멸망

단락구분 1-2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 3-8 여호와께 말기라 / 9-11 행악하는 자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의 차이 / 12-15 악인의 특성 / 16-26 의인의 특성 / 27-33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 34-40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 1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 2 저회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 3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말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 6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험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 9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 10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 11 오직 은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 12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이를 가는도다
- 13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 14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르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 15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 16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 17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 18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회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 19 저회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 20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

- 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 21 악인은 꾸고 갇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 22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 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 24 저는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 25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 26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 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니
- 28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회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 29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 30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 31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 32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 33 여호와와 저를 그 손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 34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 35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 36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 37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불지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 38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 39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회 산성이시로다

1. ㉠ 다윗이 본시를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1) 다윗은 본시를 통하여 악인이 풍요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 가치 기준에 혼란을 가져온 자들에 대하여 악인의 종국은 멀지 않지만 의인의 영광은 영원하리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려 하였다.
- (2) 그래서 흑자는 '본시를 가리켜 <마스길>, 즉 교훈시라고 일컫는다(Matthew Henry).
- (3)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 세상이 운행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악인이 부를 즐기며 쾌락에 탐닉해도 멸망치 않는 사실이 헤어날 수 없는 신앙적 딜레마(dilemma)일 수밖에 없다.
- (4) 그러나 다윗은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악인의 번영을 오래가지 못하는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내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늘나라의 질서이다.
- (5) 이러한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에 구름긴 하늘 아래서도 햇빛을 기대하며 신앙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2. ㉠ 다윗은 누구를 향하여 불평과 투기(妬忌)를 중단하라고 했는가? (1, 2절)

- ㉠ (1) 다윗은 행악자(行惡者)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불평과 투기를 멈추라고 권면하였다.
- (2) 즉 다윗은 부당한 번영을 목격한 자들이 그 마음에 실의와 방황으로 낙담해 할 때 그들을 향하여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 (3) 이처럼 악인의 번영에 마음의 요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정의의 사모하는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하여 겉으로 불평하거나 내심으로 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는 곧 악인과 동일한 자리에 앉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참조, 잠 24:1).
- (4) 더우기 악인의 번영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길지는 않다(참조, 욕 20:5).
- (5)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라면 악인의 번영을 목격하고서 조용히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판단에 맡기며, 끝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참조, 73:17-19).

3. ㉠ 다윗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가? (3절)

- ㉠ (1)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다.
- (2) 비록 악인의 번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마음이 혼란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참조, 롬 12:19-21).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자세이다.
- (3) 또한 하나님의 사랍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실한 은혜로 만족하여야 한다.
- (4)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의뢰하는 자의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신다(참조, 23:1).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뿐이다(참조, 함 2:4).

4. ㉠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이 말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다.
- (2) 사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자들은 비록 그 외적인 조건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면에서 쏟아나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한다(참조, 함

3:17, 18).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을 소유한 자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참된 행복을 안겨 주실 것이다.

(4)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약1:5).

5. **㉠**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의 기쁨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5, 6절)

㉠ (1) 다윗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는 말로써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2) 즉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발견되는 모든 문제들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넘겨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모두 성취해 주신다고 하였다(참조, 22:31, 52)

(3)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기득권을 맡기는 자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롭고 정직한 존재임을 세상 앞에 드러내실 것이다(참조, 마13:43).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애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와 풍요를 얻게 된다(참조, 사 58:13, 14).

6. **㉠**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악인의 번영을 목격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했는가? (7, 8절)

㉠ (1) 다윗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라면 불의한 자가 번성하더라도 불평을 삼가하고 대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쳤다.

(2) 악인들의 번성에 대해 불평하거나 노를 발하는 것은 오히려 악인들의 계획을 성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참조, 72:5-12; 욕 12:6).

(3) 더우기 악인들의 번영을 초조하게 바라보거나 분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불건전한 마음의 상태를 번영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가 악한 감정에 휩싸이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된다(참조, 73:2).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이 번영하더라도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침묵해야만 한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계획을 억제하여야 한다(참조, 롬 12:19).

7. **㉠** 악인과 여호와의 기대하는 자의 현격한 차이는 무엇인가? (9-11절)

㉠ (1) 악인은 잠시 잠깐의 영화를 누리다가 영원히 멸절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잠시 후에 악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에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2) 즉 악인들은 그 쌓은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가 이 땅에서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감쪽같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한 멸망은 필연적이다(참조, 73:17, 19; 말 4:1).

(3)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 악을 일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참조, 눅 12:13-21).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참조, 빌 4:5; 약 5:8, 9).

(4) 반면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즉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자는 넘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란 11절의 온유한 자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5)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긴다는 말은 단순히

현세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기쁨을 동시에 포함한 것이다(참조, 벧후 3:13).

- (6)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와 하나님이 그의 삶에 발견되지 않는 자와는 이생과 내세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렘 17:7).

8. ㉠ 악인의 특성은 무엇인가? (12-15절)

- ㉠ (1) 먼저 악인은 의인에 대한 음모 꾸미기를 즐기며 자신들의 힘이 그를 압제하지 못할 때는 맹렬한 분노를 간직하게 된다(참조, 31:13; 35:4, 7, 16).
- (2) 또한 악인은 자신의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박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넘어지게 만든다(참조, 삼상 24:2; 삼하 18:6-8).
- (3) 이처럼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항상 파괴적이며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참조, 약 1:27).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최후의 날을 이미 정해 놓고 계시며(13절; 2:4; 59:8),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실 뿐 아니라 남을 해치려는 그 계획이 자신에게 함정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참조, 9:15, 16; 잠 26:27; 마 26:52).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분요한 동작에 두려워하거나 개인적인 악감을 품을 필요가 없다. 오직 심판의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적인 행동이다.

9. ㉠ 다윗은 악인이 누리게 될 축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6-19절)

- ㉠ (1) 그는 먼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16절). 왜냐하면 악인들이 취한 불로 소득(不勞所得)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곧 없어지지만(참조, 잠 21:6) 의인의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잠 15:6; 16:8).
- (2) 두번째로 의인은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보존하신다고 했다(17절).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는 어떤 세력에도 기필코 보호하시는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참조, 75:10; 롬 8:33-39).
- (3) 세번째로 여호와께서 완전히 복종하는 자의 삶의 시작과 끝을 당신께서 아실 뿐 아니라 그 기업을 영원케 하신다(18절). 사실 여호와께서 그 삶을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행복보다 더 가치 있다(참조, 나 1:7). 더우기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은 현세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참조, 벧전 1:4).
- (4) 네번째로 의인은 환난 때에도 부끄럽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19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의인들에게도 환난과 기근이 찾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인이 악인과 다른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참조, 욥 36:8-11).

10. ㉠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절)

- ㉠ (1)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 되어 없어지고 만다.
- (2) 즉 악인의 멸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 흔적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망하고 만다.
- (3) 그런데 악인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의인이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56:1, 2).
- (4)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악인의 완전한 멸망을 유도하신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의한 조치이다.
- (5)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순교의 현장에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11. ㉠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21, 22절)

- Ⓐ (1)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2) 즉 악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꾸지만 그것을 갚아야 할 당연한 의무를 망각한다. 더우기 그는 꾸는 것을 갚을 만한 능력도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이웃을 해치고 만다.
 (3) 반면에 의인은 남에게 무엇을 꾸 만큼 가난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웃에게 풍부한 사랑을 나누어 준다(참조, 112:5, 9).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다(참조, 신 15:6; 28:12).
 (4)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발견되는 일이다(22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생활하게 될 것이다(참조, 사 57:13).

12. ⓐ 다윗은 경건한 자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한다고 노래하였는가? (23, 24 절)

- Ⓐ (1)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고 했다.
 (2) 여기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의 발걸음과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스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삶을 후원하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의미이다.
 (3) 더우기 당신께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내용 전체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신다(참조, 35:27).
 (4)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경건한 자들도 가끔은 실수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참조, 삼하 11:4; 갈 6:1).
 (5) 그러나 경건한 자의 삶을 후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원한 실망과 죄악의 늪에서 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능력과 당신의 피신 팔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참조, 삼하 12:13).

13. ⓐ 다윗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체득한 진리는 무엇인가? (25-29절)

- Ⓐ (1) 다윗이 체득한 것은 먼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의인과 그 자손들이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였겠지만 절대적인 빈곤에 얽매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원자가 되셔서 필요를 공급하셨기 때문이다(참조, 92:12).
 (2) 두번째로 그가 체득한 것은 의인들이 종일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어 결국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시편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의 진리이다(참조, 25:13; 102:28; 112:2).
 (3)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삶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이다. 즉 악인이 비록 번성하고 권모 술수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일이 주위에 산재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삶의 모범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4)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며(참조, 33:5; 99:4; 103:6), 또한 정의를 위해 온갖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을 의면치 않으시기 때문이다(참조, 사 43:16).
 (5) 진리가 거부당하며 정의를 사랑하는 자가 오히려 고난을 받는 오늘날 성도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날마다 정의를 위해 땀흘려야 할 것이다.
 (6)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21) 고 당부하였다.

14. ⓐ 다윗은 의인의 모습을 어떠한 말로 묘사하였는가? (30, 31절)

- Ⓐ (1) 다윗은 의인에 대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묘사하였다.
 (2) 즉 의인은 그 성격상 도덕적으로 정당한 말과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한다(참조, 욥 6:25; 15:23).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혼쾌히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언

어 생활을 강조한 표현이다.

- (3) 또한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바른 법도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빛나가거나 허탄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즉 그 은유의 법이 그를 항상 바른길로 인도한다(참조, 18:36;40:8;119:11, 105;신 6:6;사 51:7).
- (4) 이처럼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자신의 주권과 삶의 방향을 맡겨 버리는 자는 항상 말에나 행동에나 실수가 없고, 무엇이 올바른 가를 깨닫고 정당한 삶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참조, 딤후 3:15-17).

15. ㉠ 의인에 대한 악인의 태도는 어떠한가? (32, 33절)

- ㉠ (1)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즉 의인이 이 땅에 살아 있는 한 악인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악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미워한다.
- (2) 악인이 의인을 해하려는 방법은 교묘하다. 악인은 의인을 효과적으로 처치하는 방법을 날마다 궁구하며 자기의 해치려는 동기를 정당화하기에 힘쓴다.
- (3) 이러한 악인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라고 하였다.
- (4) 그러나 제아무리 악인의 기세가 거세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참조, 사 41:10). 더우기 그분은 악인이 당신의 백성을 모함한 그 말대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비록 의인이 악인의 도모로 살해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 (5)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로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다(롬 14:8).

16. ㉠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약속이 주어진다고 하였는가? (34절)

- ㉠ (1) 다윗은 여호와만을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과 악인의 멸망을 목격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2) 본문에서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즉 인간의 다급한 성격을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때사를 성취하게 하시도록 한다는 말이다(27:14; 잠 20:22).
- (3) 또한 '그 도를 지키라'는 명령은 세상의 박해와 환난에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간곡한 당부이다.
- (4) 만약 매사에 신앙의 눈으로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산다면 그는 분명히 이생의 평안과 더불어 영원한 내세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 (5) 간혹 우리의 인간적인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성실히 생활해 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분일 것이다(참조, 55:22; 잠 16:3).

17. ㉠ '본토에 선 푸른 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35, 36절)

- ㉠ (1) 이것에 대해 70인역(LXX)에서와 제롬(Jerome)은 레바논의 소나무라고 번역했지만 확실하지 않다. 여하튼 이것은 오랜 옛날부터 본토에서 자라 수세기가 지나면서 줄기가 거대하여지고 윗등이 넓게 펼쳐진 나무를 가리키는 것만은 확실하다(Delitzsch).
- (2) 이러한 표현을 본문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악인의 세력이 어떤 힘으로도 제거할 수 없게 될 만큼 확장, 견고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 (3) 그러나 이렇게 팽창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세력이 흔적을 감추는 것이 악인과 그가 소유한 힘의 한 특징이다(참조, 욥 20:7).
- (4)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한 단체 또는 국가에 자신의 세력을 극대화 해놓고 거기 소속된 자

들을 착취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에 따라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한 단체와 국가를 주무르고 있는 자들에게 아무 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기대해야 할 것이다.

18. ㉞ ‘완전한 사람’과 ‘정직한 자’는 각각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37, 3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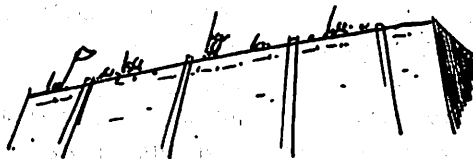
- ㉞ (1) ‘완전한 사람’은 마음에 불순함이 없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를, ‘정직한 자’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를 가리킨다.
- (2)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삶을 추종해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보게 되면 그 결국은 평안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3) 그런데 본문에서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의 맥락에서 재해석 한다면 ‘평화한 자는 그 이름을 남길 후손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 된다. 아마도 이러한 해석이 원문의 뜻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본다(38절).
- (4)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정직을 유지하는 자는 싸움과 박해를 좋아하는 악인과는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악인은 자신의 멸망 뿐 아니라 그 후손의 멸절도 감수해야만 한다(참조, 절 23:25).

19. ㉞ 의인의 구원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39, 40절)

- ㉞ (1)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유래한다(참조, 62:2).
- (2) 즉 비록 의인이 극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어 이 그가 있는 곳을 찾아내셔서 그와 더불어 제실 뿐 아니라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참조, 단 3:24-27).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물론 당신의 백성을 사랑 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의인들이 ‘그를 의지한 연고’이다.
- (4) 즉 당신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피난처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표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신다(참조, 2:12; 잠 16:20; 28:25; 29:25).
- (5)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간직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장의 요절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39절).



제 38 편 죄값으로 받는 고난을 물리쳐 주소서

단락구분 1-4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 죄악 / 5-8 고탄받는 자의 상태 / 9-12 모든 소원을 주께 아
리다 / 13-20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주를 신뢰함이다 / 21-22 나를 도우소서

1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
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2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
히 누르시나이다

3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
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
이다

4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
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5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6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
픈 중에 다니나이다

7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8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
안하여 신음하나이다

9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0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1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
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12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음무를 놓고 나를 해
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계계를 도모하오나

13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병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
함이 없나이다

15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
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16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
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
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

17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나이다

19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20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
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21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1. ㉠ 본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 (1) 본시는 6, 32, 51편과 함께 다윗의 참회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윗은 본시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난 고뇌와 반민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참조, 102, 130, 143편).
- (2) 특히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임을 밝히면서 그러한 고난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고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은연중에 고백하였다.
- (3) 더우기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친구들에게 소외되고, 원수들로부터는 심한 박해를 받아 헤어나올 수 없는 위경(危境)에 처했으나 이 모든 환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도움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
- (4) 이처럼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정확히 깨닫고 그 고난을 정당하게 수용할 뿐 아니라 그 고난의 해결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발견하는 자야말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2. ㉠ 본시의 표제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에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이런 표제어는 다윗의 심경(心境)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즉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솔히 대하거나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신과 타인에게 하나의 기념비적 시문(詩文)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Calvin).
 (3)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정확히 제시하시기 위해서 제공하시는 징계를 너무 쉽고 무감각하게 지나쳐 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그렇기에 그는 나약한 인간 본성을 극복하고 날마다 주의 깨우침에 귀기울이기 위해 이러한 참회의 시를 기록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오늘도 사랑의 매를 들고 징책하고 계신다(참조, 잠 3:11, 12).

3. ㉡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중지해 달라고 호소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노'와 '분노'로 자기를 책하거나 징계치 말아 줄 것을 호소하였다.
 (2) 즉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의 '노'와 '분노'라고 고백하였다.
 (3)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당신의 감정이 격앙하셔서 '노'와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시는 불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이신가. 그렇지 않다. 여기서 '노'와 '분노'를 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셨다는 말이다.
 (4)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에 대해 당신의 의지로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끝내 당신의 의(義)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셨다는 의미이다.
 (5)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정의로움을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핏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안겨 주는 메시지임에 분명하다.

4. ㉢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로 인하여 자신의 형편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는가? (2, 3절)

- ㉢ (1) 다윗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토로하였다.
 (2) 그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하나님께서 내리신 정신적, 육체적 고통, 7:13; 18:14; 욥 6:4)과 그분의 손(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또는 영향력, 출 3:19; 삼상 5:7)에 의한 것이었다.
 (3) 또한 그는 자신에게 미친 하나님의 징계가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육체와 정신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압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인격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참조, 139:7-12).
 (4)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늘 하나님께 매여 있다. 이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울무라기 보다는 우리를 진리와 의(義)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법이다(참조, 요 8:32).

5. ㉣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3, 4절)

- ㉣ (1) 그것은 평안함이 없다는 사실과 늘 죄책감에 휩싸여 산다는 것(4절)이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 중에서 육체적인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자도 있다.
 (2) 여기서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로 대치할 수 있다(참조, 욥 30:17).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에게는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피곤할 뿐이다.
 (3) 왜냐하면 평안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참조, 요 14:27).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신의 건강을 신뢰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4) 또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자는 죄책감이라는 굴레 아래서 벗어나질 못한다(참조, 51:3; 73:21). 그는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빚어진 일련의 고난으로 인하여 번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압감은 단순히 한 순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 가중(加重)되어 끝내 그의 온 인격을 파멸하게까지 한다(참조, 창 4:13).

(5)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평안한 쉼에의 초청을 거듭하고 계신다(참조, 마 11:28).

6. **㉠**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는가? (5-8절)

- ㉠** (1)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이 전적으로 자신의 '우매(愚昧)한 연고' 라고 하였다.
 (2) 즉 그는 '우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게 되었을 때 자기는 건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사실 '우매' (히, 이베레트)라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범죄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킨다(참조, 사 35:8; 속 11:15).
 (4)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행 자지(自行自止)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아픔을 통해 바른 길을 걷게 만드신다.
 (5) 다윗은 이러한 중에 당하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에 관해 악취와 열기와 상처, 경련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그는 자기 몸에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살 소망마저 끊어져 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6)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우매, 즉 죄악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에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이롭게 하시려는 당신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7) 그러므로 성도가 만나는 어떤 상황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라 할 수 있다(참조, 약 1:2-4).

7. **㉠**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은 어떤 말로써 자신의 소망을 피력하였는가? (9절)

- ㉠** (1) 다윗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소망을 말하였다.
 (2)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기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이 있다고 고백하였다.
 (3)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시인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다.
 (4) 더우기 그는 자신의 고통과 탄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매인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참조, 56:8). 그러기에 그는 낙망해야 할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의칠 수 있었던 것이다.
 (5) 이처럼 폭풍이 몰아치면 폭풍을 등지고 피신하기 보다는 폭풍의 눈 방향으로 돌진해 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듯이 우리는 고통이 몰아닥칠 때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고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야를 돌려야 할 것이다.
 (6) 그분은 분명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참조, 히 11:6).

8. **㉠** 다윗은 자신이 현재 처한 3중적인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0-12절)

- ㉠** (1) 먼저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였는데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눈의 빛도 떠났다는 말로 한계에 다달은 자신의 육체를 표현하였다(10절). 이 육신적인 피로움은 분명히 그의 영적·정신적인 고난에서 기인한 것이다(1-5절).
 (2) 다음으로 그는 친구와 친척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기에 감수해야만 했던 환경적인 고통을 한탄하였다(참조, 88:18). 이것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친분 관

계마저도 끊어버리는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들의 한 단면을 꼬집는 말이다(참조, 마 26: 56, 58).

(3) 더우기 그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말로써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묘사하였다. 사실 다윗은 까닭없이 자신의 측근 및 정적(政敵)들에게 모함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었다(참조, 삼하 16:7, 8).

위에 열거한 세 종류의 고통으로 인하여 다윗은 더 이상 살 소망을 지닐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정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4) 이와 같이 절대 절명(絶對絶命)의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는 자야말로 참다운 생(生)을 소유한 자이다(참조, 단 3:13-27).

(5)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구석구석을 간파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며 또한 인간의 삶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9. **㉠** 다윗은 자신이 당한 3중적 고난에 대해 어떠한 변론을 하였는가? (13, 14절)

㉠ (1) 그는 자신의 극심한 고통에 대해 감정을 폭발시킨다거나 자신을 위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2) 단지 그는 침묵으로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적인 침묵이었다(15절).

(3) 이는 분명히 십자가의 극형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행동이다(참조, 사 53:7; 마 26:63; 27:14).

(4)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유일한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주위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도전에도 담대히 대처할 수 있다(참조, 31:24).

(5) 더우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은(4, 5절) 결코 만인 앞에서 자신의 의(義)를 변호하는 데 정력을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겸손한 침묵을 지킬 뿐이다.

10. **㉠** 다윗이 자신의 죄악 다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6-20절)

㉠ (1)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 즉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선을 좇는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였다(19, 20절). 다윗의 이 같은 상황은 아마도 암살림의 반역 때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삼하 15:12, 13).

(2) 사실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좇고자 하는 자는 다윗과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만 한다(참조, 마 5:10-12).

(3) 왜냐하면 불의의 세력들은 항상 의를 위해 힘쓰는 자들의 진지함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4)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 처한 성도들이 명심할 것은 비록 악인들이 악으로 자신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동일한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항상 선으로 악을 갚기 원하신다(참조, 109:5; 롬 12:21).

(5) 이것은 악에 대한 선(정의)의 굴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악을 이기고야마는 선의 한 특징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바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반드시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것은 곧 선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한다(참조, 요 16:33).

11. **㉠**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18절)

㉠ (1)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삶 속에 내재해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범죄를 슬퍼했다.

(2) 즉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제일 원초적인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3) 이와 같이 그는 자신에게 펼쳐진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야를

주위 환경에 들리지 않고 죄많은 자신에게 고정시켰다.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시련의 늪으로 인도하기에 민첩하다(참조, 약 1:13-15).

- (4) 흔히 인간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핑계'와 '변명'을 일삼는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현장에서도 발견되었던 일이다(창 3:12).
- (5)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만 일삼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이이다(참조, 요일 1:8). 그러나 자신의 심연에 깔려 있는 죄악을 드러내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양심의 자유와 고통에서의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 1:9).
- (6) 예수께서는 죄 많고 쉽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고 요청하셨다.

12. Q 다윗은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가? (21, 22절)

- A (1)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 (2) 이것은 진실한 성도의 특권이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참조, 121:1, 2).
- (3)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곁들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소원하였다. 즉 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으신다. 이것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 주신다(참조, 신 4:31).
- (5) 하나님께서는 가끔 당신의 영광스러운 경륜에 따라서 당신의 존재를 성도들에게 감추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니다(참조, 사 49:14, 15).
- (6)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압도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실망치 않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지낼 수 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참조, 렘 33:3).

연구자료

재난에 대처하는 다윗과 욥의 태도 비교

사람들은 재난이 닥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한다. 어떤 이들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수긍하기는 하지만 체념해 버린다. 이외에도 갖가지 모습으로 인간들은 재난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재난은 닥친다. 과연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본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다윗과 욥기에 나타난 욥의 태도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1. 고난 당하는 다윗

본장에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도움을 호소하는 다윗의 심정과 신앙이 잘 나타나 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4절).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느꼈으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했다(15절).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신앙의 자세이다(참조, 합 3:2). 이미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공의, 자신의 죄에 대한 혐오감 등을 모두 깨닫고 있었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소원하며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약간 비약적이기는 하지만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2. 무고한 재난 가운데서의 읍

의인 읍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없는 재난이었다. 읍은 자녀와 재산을 한꺼번에 모두 잃고 몸에 악창까지 발병했다.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읍은 졸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든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친구들은 하나같이 읍을 거짓말장어로 매도하면서 읍에게 죄를 고백할 것을 강요하였다. 읍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자신과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다(읍 21:4).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허락된 것이며, 또한 자신이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을 인정하여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읍 23:10) 그분께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해 주실 것을 회구(希求)하였다(참조, 읍 33장 연구 자료).

3. 비교 및 결론

두 사람의 자세는 유사한 점이 많다. 먼저 그들이 재난을 당하자 주위 사람들이 떠나 갔다(11절; 읍 2:9). 그리고 그들은 재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구원의 소망을 주께만 두었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읍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지만(참조, 읍 31:30)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더욱 애통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재난에 굴하지 않고 굳건한 소망의 신앙을 지킨 것은 이들의 공통된 훌륭한 점이다.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공의로운 판결을 기다렸던 읍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지만(읍 42:10) 무엇보다 큰 축복은 신앙의 성장(읍 42:5)이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이겨 낸 다윗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왕상 15:5).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약 4:8)을 배울 수 있다. 성도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쉬우며 특히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제 3:19)을 믿고 주어진 재난에 수긍할 때에(비교, 출 14:14)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참조, 26:1; 55:22).

제 39 편 덧없는 인생이 추구할 바

단락구는 1-3 언행을 삼가다 / 4-6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 / 7-13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2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발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3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랑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 이니이다(셀라)
 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

께 있나이다
 8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9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옵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10 주의 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 주께서 죄악을 건책하사 사람을 징계 하실 때에 그 영화됨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 뿐이니다(셀라)
 12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13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1. ㉠ 본시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다윗은 본시를 통해서 인생이란 짧고 헛된 것으로서 거기에 소망을 두기 보다는 영원하시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 (2) 한편 다윗이 본시를 쓸 당시에 그는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고통에 얽매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당했던 고난이 육체적이며 영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3)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의 뚜렷한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었다.
- (4) 그런데 보통의 인간이라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철저한 비관주의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5) 하지만 다윗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적인 몸부림의 계기로 삼았다. 즉 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복된 자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 (6)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촉매제라 할 수 있다(참조, 욕42:5).

2. ㉡ 본시의 표제문(表題文)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시, 여두둔으로 한 노래'로 되어 있다.
- (2) 여기서 '여두둔'이란 찬양하다는 뜻으로서 공적 예배를 인도하도록 다윗이 지명한 지휘자 중의 한 사람을 가리킨다(참조, 62, 77편; 대상 16:41; 25:1-3).

(3) 그러므로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를 성가대 지휘자인 여두둔을 따라 온 성가대원들이 부른 노래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 다윗은 누구 앞에서 침묵을 지키겠다고 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자신이 평소에도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이며, 특히 '악인'이 자기 앞에 있을 때는 입에 자갈을 먹어 침묵할 것이라고 하였다.
- (2)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은 의지적으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악한 본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참조, 제 3:2).
- (3) 이러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언어 생활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불화와 파괴와 살인 등의 악한 요소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4)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였다(약 3:6). 만일 이러한 언어와 행위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 인정받게 될 것이다(참조, 약 3:2).
- (5) 더우기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불신자들(악인) 앞에서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기도 하신다(참조, 고후 2:15;3:3).
- (6)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언어와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참조, 롬 8:13; 갈 5:23; 벧후 1:6).

4. ㉠ 침묵 가운데 있던 다윗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2, 3절)

- ㉠ (1)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다윗의 마음에는 근심이 더욱 심했으며,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불이 붙는 것 같았다.
- (2) 즉 그는 침묵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생각이 산란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입에 자갈을 먹일 수는 있었지만 그의 감정은 도저히 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 (3) 그런데 다윗이 침묵한 정도는 선한 말, 즉 정당하고 의로운 말마저도 삼가하기까지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
- (4) 그가 이렇게까지 침묵한 것은 자신의 대적, 곧 악인들 앞에서는 결코 입을 열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1절).
- (5)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어떤 심리학자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면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경고하고 있다.
- (6) 이와 같이 죄악된 세상 앞에서 우리도 가끔은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기 보다는 성실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기에 힘써야 한다(참조, 고전 13:1, 2).

5. ㉠ 침묵을 지키며 고뇌하던 다윗은 결국 누구에게 부르짖기 시작하였는가? (3-6절)

- ㉠ (1) 더 이상 침묵만 할 수 없었던 다윗은 자신의 폭발하는 감정을 주위 사람들에게 쏟아 부지 않고 살아 계신 여호와께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 (2) 즉 그는 자기 주위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으나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는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출시킬 수 있었다.
- (3) 이처럼 자신이 느끼고 고민하는 바를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뚜렷한 차이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말 못 할 일마저도 하나님께 아뢰며 그 해결책을 간구할 수 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다.
- (4)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간구를 기다리시며 또한 당신의 백성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일에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신다(참조, 사 55:6-13).

(5) 그러므로 적어도 자신이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의 문제를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함이 옳은 일이다(참조, 사 42:14).

6. **Q**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첫번째 내용은 결국 무엇을 말한 것인가? (4-6절)

A (1)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첫번째 내용을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덧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2)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그는 짧은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였다(4절). 사실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참조, 전 7:2) 지극히 유한한 존재들이다(참조, 욥 17:14).

(3) 두번째로 그는 극히 유한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무가치할 정도로 미미한 것임을 강조하였다(5절). 이사야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사 2:22) 라고 갈파하였다.

(4)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헛된 것이며 종국에 가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6절).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온갖 노력은 허무하다(참조, 눅 12:13-21; 약 4:14).

(5)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철저히 규명하여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을 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6)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파악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참조, 눅 5:8; 요일 1:9).

7. **Q**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다윗은 결국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라고 고백하였는가? (7, 8절)

A (1)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2) 그는 보이는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기대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과 실의 뿐이었다.

(3) 이처럼 이 세상과 자신에게서 철저히 실망한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죽음 또는 하나님이다. 물론 죽음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활하는 불신앙인이다.

(4)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찾게 될 것이다(참조, 42:11).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를 그분만이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자기를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8절).

(5) 사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면 그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일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51:1, 2; 히 4:16).

(6) 이와 같이 세상과 자신을 향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8. **Q** 다윗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는가? (9-11절)

A (1)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출처가 다름아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하였다.

(2) 즉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이해한 것이다.

(3)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치부마저도 친히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전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만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9. **㉠** 다윗은 자기의 처지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라고 하였는가? (12절)

- ㉠** (1) 그는 말하기를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居留者)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라고 하였다.
- (2)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나그네요 이국 땅을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은 처지라고 하였다.
- (3) 이것은 결국 다윗 자신이 이 세상에는 도무지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신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히 11:13; 13:14).
- (4) 그러므로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분의 긍휼을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는 '부르짖음'과 '눈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 (5)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모든 탄식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참조, 사 25:8).
- (6)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유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나그네요 여행자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여행은 결코 피곤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정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여행에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10. **㉠**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13절)

- ㉠** (1) 다윗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로 자신의 최후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 (2) 이제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린 채 비록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삶의 분량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였다.
- (3) 사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한시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걸린 적이 없으며, 또한 자신의 어리석은 결단과 행동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참조, 삼상 18:10, 11; 19:9, 10; 21:11-15; 23:8; 삼하 11:2-25).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 용서와 건강 회복을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며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비록 우리 주위의 모습들이 최악되고 피폐해 있으며, 또한 우리 스스로도 결코 신통한 구석이 없지만 아직도 삶을 지탱해 나가야 하며,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참조, 왕상 18:36-39).

본장의 요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12절).

제 40 편 기도의 응답에 대해 찬송하다

단락구분 1-4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다 / 5-8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다 / 9-10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다 / 11-16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 / 17 신앙 고백을 하다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3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도다

4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시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9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 내가 주의 의를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취치 아니하였나이다

11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 나이다

13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돌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15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16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

1. ㉠ 본시가 저작된 때는 언제쯤인가?

㉠ (1) 시인이 본시를 저작하였던 때는 정확히 언제쯤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에 의하여 긴박하고 불가항력적인 대환난으로부터 구출되었던 무렵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아마 이 환난은 죄의식으로부터 야기된 어떤 심적 고통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구원에 대한 찬사를 짓게 한 것은 그의 안에 있는 성령이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뒤따르는 영광에 대해 증거하는 예언의 영이었다.

(3) 아니면 그가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의 이행에 대해 말하게 되었을 것이다.

(4) 이처럼 자신의 당면한 환난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사역에 대해 언급한 시인의 깊은 신앙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다(6-10절).

2. **㉠ 시인은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인가? (1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린 신앙의 소유자이다.
 (2)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한 것은 구원이었고, 그는 시간이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채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3)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약한 자라도 도와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그의 백성 중 가장 가치가 없는 자라도 도와 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4) 그러나 시인이 이 기도를 할 때까지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반복적 강조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이 오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을 뿐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다.
 (5)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 아주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그분의 고뇌가 갯세마네 동산이나 십자가상에서 계속되었는데, 당시 그분의 영혼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셨고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던 것이다.
 (6) 이와 같은 인내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당장에 기도의 응답이 없고 환난과 고통이 오래 계속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잘 견뎌 나가야 하겠다 (참조, 눅 21:16-19; 고후 12:12; 딤후 4:2).
 (7)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육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약 5:10, 11).

3. **㉠ 시인의 인내하는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 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다.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2)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란 혼자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극심한 궁지와 환난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건져 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다.
 (3) 이 '반석'은 하나님의 은혜일수도 있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때때로 더딜지는 몰라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그 한 가지 증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5)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 5:7).

4. **㉠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하나님께서 새 노래 곧 당신께 불러 드릴 찬송을 시인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2)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 내어 구원의 찬송을 부르도록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3) 어떠한 곤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울 능력이 있으시며 또 기꺼이 도와 주려고 하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시인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4)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상처 입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하나님께서 죄의 울무를 부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반석 위

에 굳게 서서 당신의 성호를 찬양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9:16; 사 2:3; 잠 22:5; 계 2:14).

5. **㉠**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가? (4절)

- ㉠** (1)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 (2)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를 신뢰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 (3) '교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며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말한다(참조, 10:4; 단 5:20; 렘 43:2).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쉬지 않고 행한다(참조, 막 7:21, 22).
- (4) '거짓에 치우치는 자'란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의 판단 기준을 세상적인 것들에 두는 자를 가리킨다.
- (5) 이러한 자들의 삶을 따르지 않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그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그의 의로우심과 경쟁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명령에는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교만한 자들을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미혹되거나 치우치지 않는다.
- (6) 이런 기준에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참조, 84:12; 101:5; 125:5; 약 4:6).

6. **㉠** 시인은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 무슨 말을 하였는가? (5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며 또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다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언급조차 불가능하다.
- (3)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일평생 찬양해도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갚지 못한다(참조, 115:12; 렘 31:3).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않을 뿐 아니라 한없는 그 사랑을 일생 동안 찬양하며(참조, 96:4; 113:3; 대상 16:25; 29:13; 렘 5:19; 히 13:15),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신 6:5; 11:1; 고후 5:14; 살전 3:12; 히 13:1; 약 2:8).

7. **㉠**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깨우쳐 준 진리는 무엇인가? (6절)

- ㉠** (1)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깨우쳐 준 진리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燔祭)와 속죄제(贖罪祭)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다.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의 형식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어떠한 희생과 예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3) 사무엘은 이미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 (4) 그렇지 않는 제사는 이사가 선지자가 말했듯이 그것은 오히려 가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사 1:11, 12). 오직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다. 곧 하나님이 그의

의지로 제시한 모든 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일이다(참조, 사 1:12, 13; 호 6:6; 암 5:22; 미 6:7).

8. ㉠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깨우침을 받은 시인은 어떤 대답을 하였는가? (7, 8절)

- ㉠ (1) 그는 하나님께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
- (2)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깨우침을 받자마자 곧 그는 이 대답을 하였다.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성도들이 참으로 본받아야 한다(참조, 사 6:8).
- (3) 여기서 '내가 왔나이다' 라는 말은 복종의 자세를 의미한다(참조, 민 22:38; 삼하 19:20). 그리고 시인은 자기 자신을 '두루마리 책' 과 결부시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 책으로서 왕의 의무에 관한 훈계가 포함되어 있어 그가 복종해야 할 바를 제시해 주고 있다(참조, 신 17:14-20).
- (4) 따라서 시인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형식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참조, 신 26:16; 삼상 15:22; 롬 6:17).
- (5) 한편 시인의 이 대답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즉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나도 일치한다(참조, 눅 24:44; 고전 15:3, 4; 빌 2:5-8).

9. ㉠ 시인이 대중들에게 행한 일은 무엇인가? (9, 10절)

- ㉠ (1) 시인은 대중들에게 '의의 기쁜 소식' 을 전하였다. 그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함으로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드러내었다(9절).
- (2) 또 그는 주의 의를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대중 앞에서 결코 숨기지 아니하였다(10절).
- (3) 이러한 시인의 행동은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가 전한 '의의 기쁜 소식' 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 (4) 시인의 이러한 태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서 공히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전 9:16).
- (5)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는 이들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마 28:19, 20; 행 1:8; 롬 15:19, 20; 딤후 4:2).

10. ㉠ 시인이 '인자와 진리' 로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11, 12절)

- ㉠ (1) 시인은 그 이유를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 이라고 밝혔다.
- (2) 그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보호받지 않을 때에는 파멸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와 진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참조, 61:7).
- (3) 사면 팔방 어느 쪽을 둘러보아도 그에게는 여러 가지 위협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이 자기 죄의 당연한 대가라고 자각했기 때문에 용기를 잃었다.

- (4) 지금도 그와 같은 위험은 늘 우리 주위에 상존한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죄의 울무에 걸려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참조, 43:3; 57:3; 잠 20:28; 렘 30:22; 마 27:46).

11. **㉠** 시인은 원수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도를 하였는가? (14, 15절)

- ㉠** (1) 시인은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害)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 (2) 이것은 우리를 격려하여 영적 원수들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소망하게 해준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멸하려고 찾아다니는 자들이며(14절), 삼킬 자를 찾아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다(벧전 5:8).
- (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창 3:15; 마 4:1-11; 막 3:27, 28; 눅 10:18)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승리할 수 있다(참조, 요일 2:13; 계 12:10, 11).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
- (4) 반드시 그들은 수치와 낭패를 당할 것이고 입벌려 야유하던 그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부수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롬 8:31, 37; 고전 15:55, 57; 요일 5:4, 5).

12. **㉠**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16절)

- ㉠** (1) 시인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와 광대(廣大) 하시다 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 (2)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죄 용서함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도하게 된다.
- (3) 이렇게 하여 시인은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
- (4) 이 특권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정말 즐겁고 기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주께서 몸 버려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70:4; 105:3).

13. **㉠** 본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16절)

- ㉠** (1) 시인은 본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 (2)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인간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잊으며 별로 생각지 않으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은 저들을 후원하고 위로하신다.
- (3) 이런 기도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다(참조, 89:14; 신 32:34-41; 애 3:22, 23; 요일 4:8, 16).

제 41 편 경건한 사람의 축복과 고통

단락구분 1-3 구제하는 자의 복 / 4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 / 5-9 악인들이 중상(中傷)하고 비방하다 / 10-12 하나님께 감사하다 / 13 하나님을 찬송하다

1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2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불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4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5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까 하며

6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였으며

7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9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10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11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2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불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13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1. ㉠ 본시의 위치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시는 시편 제 1권을 끝맺는 장이다. 이 제 1권의 모든 시편은 제목에 따라 다윗의 시로 인정되고 있다.
- (2) 본시는 결론 부분에 속하는 다른 시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38-41편).
- (3) 이 시는 서론에서(1-3절)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그의 대적에 대항하는 매서운 불평이 기록되어 있다.
- (4) 그리고 4-9절에는 특수한 대적에 관하여 또한 10-12절에서는 확실한 소망의 표현과 기도가 결합되어 있으며, 결론 부분인 13절은 이 시편에 속한 부분이라기 보다 제 1권과 제 2권을 구별하는 귀절이다(참조, 72편; 89편; 104편의 끝부분).
- (5) 한편 본시는 운율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며, 3절씩 각각 4해(解)로 구성되어 있다.

2. ㉡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시인은 말하였는가? (1-3절)

- ㉡ (1) 시인은 '빈약(貧弱)한 자를 권고(眷顧)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1절), 즉 마지막 날에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너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37:19),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높이 두시리로다'(27:5).
- (3) 둘째,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신다(2절),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다. 우리의 어떤 원수도 위로부터 받은 힘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 우리를 사

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는 인간이나 마귀를 막론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것들의 악 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에 충분하다(참조, 34:7, 17, 19; 창 7:1-3).

- (4) 세째, 세상의 축복을 주신다(2절).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기타 그와 관계된 모든 부분에 형통과 번영을 주시며 마음의 위로와 안식도 주신다(참조, 신 7:12-15).
- (5) 네째, 병 중에 있을 때 그를 돌보시고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3절). 결코 아프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 고통과 질병에 있는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말이다(참조, 103:3; 대하 16:12).
- (6) 이처럼 '구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 중에도 선교와 함께 구제는 빼놓을 수 없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행한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왕하 25:27-30; 렘 38:6-13; 눅 2:2-5; 10:33-35; 19:18; 행 9:36; 10:1, 2; 28:2, 7, 10).
- (7)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구제하며(신 15:7-11; 고전 13:3),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되(갈 6:10)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야 하겠다(고후 9:7).

3. ㉠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4절)

- ㉠ (1) 시인은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 (2) 그는 자신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시험에 합격되지 못할 줄 알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기도자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의 자세이다(참조, 눅 18:10-14).
- (3)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겸손한 자만이 가능하다. 그의 죄 고백은 어떤 특정의 범죄 행위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저지른 잡다한 죄 모두를 가리킨다.
- (4) 이 참회의 고백 후에 그는 '내 영혼을 고치소서' 라는 소망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그가 죄라는 것이 영혼의 질환이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참조, 렘 17:14).
- (5) 이러한 시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하며, 반드시 죄 고백이 선행된 뒤에 우리의 소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레 5:5, 6; 렘 3:13).

4. ㉠ 시인에 대한 그의 원수들의 행동은 어떠하였는가? (5-9절)

- ㉠ (1) 첫째, 그들은 시인의 죽음을 갈망하였다(5, 8절).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시인은 분명히 병에 걸려 쇠약하거나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있었을 것이다.
- (2)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그의 죽음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였다. 그가 죽었을 때 그들은 그의 명성이 아주 없어지고 그에 대한 기억이 아주 뿌리 뽑혀지기를 은근히 바랐던 것이다(참조, 38:12).
- (3) 둘째, 그들은 비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다 주워 모았다(6절). 그들은 우정을 가장하여 그의 병을 슬퍼하거나 위로하는 척하면서 비방거리를 찾았고, 돌아가서는 사실 무관한 비방의 말을 퍼뜨렸다(참조, 12:2; 62:4; 잠 26:24; 렘 20:10).
- (4) 세째, 그들은 그가 이 병에서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또 자기들이 그에게 뒤집어 씌운 악평도 결코 떨쳐 버릴 수 없으리라고 기대하였다(7절). 그들은 그를 치려는 음모가 탄로되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군거렸다.
- (5) 그들은 수군거릴 때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심지어 일종의 불의한 음모를 꾸민다. 시인

은 이것을 ‘자기를 해하려고 피하는 것’ 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시인을 비난함으로써 그의 명성을 파멸시키기를 소원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 (6) 한편 그가 아주 신뢰했던 자 중에서 그의 원수들에게 붙어 원수들 못지 않게 그를 학대한 자가 있었다(9절). 시인이 말한 바 ‘나의 신뢰(信賴)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란 아마도 그와 흥금을 털어 놓던 친구이자 나라의 총리대신이었던 아히도벨을 지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 (7) ‘내 떡을 먹었다’는 것은 그가 친구를 부양하였고 생계를 유지시켜 주어서 은혜에 있어서나 우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각별한 사이였다는 의미이다.
- (8) 그런데도 시인의 이 비열하고 배은 망덕한 친우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치 못하고 그를 버리고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편에 가담하여 그에게 모욕을 주고 멸시했던 것이다(참조, 삼하 15:31; 16:20-22).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발로 차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 행위를 뜻한다(참조, 욥 19:13, 14; 미 7:5).
- (9)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롯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다. 예수께서도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셨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옹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신 후 한 조각의 떡을 유다에게 주셨던 것이다(요 13:18, 26).
- (10) 시인을 파멸의 궁지로 몰아 넣던 악인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겠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서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며 배은 망덕한 짓을 서슴지 않던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행 8:22).

5. **㉠** 악한 원수들에 둘러싸인 시인이 자신을 위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
- (2) 4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자기를 향한 원수들의 무례하고도 악랄한 행위를 견디어 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 (3)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감정적인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게 해 달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이 곧 시인의 행동이었기 때문이다(7:4; 35:13).
- (4) 이러한 시인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원수들로 인해 어떤 위험들에 부딪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생각에 앞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선 순위임을 기억해야 하겠다(참조, 105:3, 4; 대상 16:11; 빌 4:6).

6. **㉠** 시인이 확신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11절)

- ㉠** (1) 시인은 원수들의 기대가 무너질 것을 확신하였다. 그들은 그가 죽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생각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 (2) 그의 회복은 자기 원수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된다. 또한 그것은 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은총을 베푸시리라는 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 즉 당신의 자녀는 불드시고 악인들은 버리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참조, 빌 4:13).

- (4)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시인의 그 확신을 우리의 확신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참조, 합 13:17-19; 빌 1:6).

7. **㉠**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완전한 중에 불드시고 영영히 당신 앞에 세우셨다.
 (2) 이는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그 많은 악한 일에서 그를 건져 내셨고 보호받을 바울처럼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딤후 4:18)을 의미한다.
 (3)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완전함'이란 시인 자신의 행위적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그의 온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4절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적 온전함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본문의 해석에도 무리가 없다.
 (5) 이처럼 세상에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완전성 안에 붙잡아 주실 때에만 의롭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참조, 롬 3:27-29; 5:9, 10).
 (6) 그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드시며 힘 주시고, 당신 앞에 영영히 세워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격려해 주신다(참조, 18:32; 37:17; 63:8; 119:117; 욥 36:7).

8. **㉠** 시인은 본시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지었는가? (13절)

- ㉠** (1) 시인은 본시의 마지막을 엄숙한 찬양으로 끝맺었다.
 (2) 먼저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백히 밝혔는데, 이는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깊은 감명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음이 증명해 준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3) 그리고 '아멘'을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깊은 애착과 더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격려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귀절이 단순히 본시의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권의 결론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5) 본시는 제 1권의 마지막이다. 제 2권은 72편으로 끝나고 제 3권은 89편, 제 4권은 109편, 그리고 제 5권은 150편으로 끝나고 있다. 그런데 이 다섯 권이 각각 엄숙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송영으로 끝나고 있다.
 (6) 그러나 제 5권의 끝에만 뚜렷한 송영이 보이지 않는데, 아마 그 이유는 그 시가 시의 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실들에 근거하여 볼 때 본귀절은 본시의 결론부라기 보다 제 1권의 결론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13절).

제 42 편 하나님을 갈망(渴望)하다

단락구분 1-2 이역(異域)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다 / 3-4 현재의 고난과 과거에 대한 회상 / 5 하나님을 바라라 / 6-7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기다 / 8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 9-10 원수들의 비난 / 11 하나님을 바라라

1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고

3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6 내 하나님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7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록이다

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9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 ㉠ 본시(本詩)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 ㉠ (1) 본시는 작가가 팔레스틴의 북단에서 방랑 생활을 하는 중(6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갈망하며 쓴 영감의 시이다.
- (2) 그런데 이 시의 외향만을 살펴보면 슬픔과 불평으로 일관한 듯하지만 사실은 슬픔의 심연(深淵)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한 소망을 두고 있는 신앙시이다.
- (3) 그러므로 본시는 신앙적으로 방황하며 깊은 고뇌 속에 잠겨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다 줄 것이다.
- (4) 한편 본시는 다음 편(43편)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참조, 5, 11절; 43:5) 후자는 43편에 표제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두 편이 하나의 시라고까지 주장한다.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로 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 표제문을 근거로하여 본시의 작가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었던(참조, 대하 20:19) 고라 자손(참조, 민 16:1-3)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학자도 있다.
- (3) 그러나 칼빈(Calvin)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란 표제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은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를 단지 말아 보관하였다는 의미라고 했다.
- (4) 그리고 이 시의 사상과 내용을 보아서도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망명하던 시기에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사실 시편 중에는 '다윗의 시' 라는 표제문이 없지만 다윗의 시로 인정되는 것이 많다 (참조, 10, 33, 66, 67, 71편).

(6) 마스길과 고라 자손에 대해서는 시편 서론 ㉑ 7과 17을 각각 참조하라.

3. ㉑ 본시의 작가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해매는 모습에 대해서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1절)

- ㉑ (1) 본시의 작가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해매는 모습에 대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渴急)함' 같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사슴'은 열이 높고 다혈질의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덥고 건조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특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 (3) 그리고 '시냇물'이란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 즉 어떠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시내를 뜻한다(참조, 1:3).
- (4) 또한 '찾기에 갈급하다'란 말은 문자적으로 극도의 갈증으로 인해 몸이 비틀릴 정도로 물을 찾는다는 말이다(참조, 율 1:20).
- (5) 이처럼 작가는 자신의 영혼이 쉴 참안식처인 하나님을 찾기 위해 무척 갈급하며 목말라 했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느끼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슴이 목말라 하듯 갈급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기 때문이다(요 4:13, 14).

4. ㉑ 본시의 작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2절)

- ㉑ (1) 작가는 하나님을 '생존(生存)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다(참조, 84:2).
- (2) 즉 무능력한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살아 계셔서 전우주를 다스리시며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을 사모하였던 것이다.
- (3) 하나님에 대한 작가의 이 같은 외침은 그가 얼마나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참조, 마 16:16; 행 14:15; 계 10:6).
- (4)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분, 즉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 (5)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까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 때에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계 4:8).
- (6)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 신경의 암송은 참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㉑ (1)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는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다는 뜻인데(참조, 11:7; 17:15; 사 6:5),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다.
- (2) 여기서 우리는 작가가 그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먼 지방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을 잠시도 잊지 못했던 것이다.
- (3) 그 당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계가 머무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막에서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참조, 요 4:20).
- (4)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 방랑 생활을 하고 있던 본시의 작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성막)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였다.
- (5)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어야 한다(마 6:33).

6. ㉠ 본시의 작가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본시의 작가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는 자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종일 조롱하였기 때문이었다(참조, 삼하 16:7, 8).
- (2) 즉 주위 사람들은 작가의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네게서 아주 떠나 버린 것이 아니냐, 또는 너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고 조롱하였던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와는 완전히 차단되고 세상에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의 눈은 고난이 곧 신(神)의 저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참조, 욥 2:7-10).
- (4) 특히 인본주의(人本主義) 철학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망각되다시피 했으며 혹자는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말까지 외쳐대고 있다(F. Nietzsche).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계시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참조, 계 1:4).

7. ㉠ 본시의 작가가 마음이 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본시의 작가는 '전에 성일(聖日)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였다.
- (2) 즉 그는 공공의 예배에 참석하거나 하나님께 봉사하던 일을 생각하며 상상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인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육체적 고난보다는 경건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영적인 고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 가지 불의가 많은 사회 제도 속에서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하고 저항해야 될 부분은 경건 생활의 방해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8. ㉠ 본시의 작가는 자기 영혼의 치료를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 (5절)

- ㉠ (1) 본시의 작가는 자신의 영혼이 깊은 절망에 빠져 낙심하여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기의 영혼을 힘있게 하였다.
- (2) 이처럼 하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은 회복하기 힘든 영혼의 낙담과 불안을 가장 빠르게 치료한다(참조, 사 40:31).
- (3)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라도 스스로의 연민과 탄식에 빠지기 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혼의 몸살을 앓아야 할 것이다.
- (4) 성도가 이런 신앙 자세로 살아갈 때 언제나 힘있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9. ㉠ 시인은 자기의 영혼이 자기 속에서 낙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였는가? (6절)

- ㉠ (1) 시인은 자기의 영혼이 자기 속에서 낙망했을 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요단 땅은 유대에서 바라보아 강 건너편 땅을 말하고 헤르몬은 갈릴리 북동쪽 64km 지점에 위치한 32km의 긴 산악 지대를 가리킨다.
- (3)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적대자를 피하여 여러 험준한 곳으로 방황했고 또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던 것 같다.
- (4) 그러나 그는 낙망된 순간이 올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용기를 얻었던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인은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분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확인할 수 있다(참조, 121:1, 2).

10. ㉠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밀어닥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7, 8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밀어닥치는 것에 대해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淹沒)하도소이다' 라고 묘사했다.

- (2) 즉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한 가닥 빗줄기처럼 밀어닥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풍우처럼 겹겹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밀어닥친다고 하였다.
- (3) 그러므로 시인은 심신(心身)이 피곤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낙심을 개념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진노의 근원지인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돌진하였던 것이다(8절).
-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고난이 닥쳤을 때 자포 자기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품안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참조, 50:15).

11. **㉠** 시인은 자신에게 느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였는가? (9절)

- ㉠** (1) 시인은 자신에게 느껴진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참조, 18:2;31:3).
- (3)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라고 하는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었다(참조, 13:1).
- (4)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혹시 당신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참조, 9:12;37:28).
- (5)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다.

12. **㉠** 시인은 자기를 비방하는 적대자의 말이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10절)

- ㉠** (1) 시인은 자기를 비방하는 적대자의 말이 자기의 뼈를 찌르는 칼같다고 하였다.
- (2) 즉 시인은 자기를 비방하는 적대자의 말이 자기에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심각한 것이라고 하였다.
- (3) 특히 그들의 비난 중에서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느냐는 비난이 최악의 상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 (4)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분은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로 비난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상처를 안겨 주는 것이 된다(참조, 고전 15:19).
- (5) 만일 성도들 중에 불신자로부터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따지며 조롱하는 말을 듣고 이러한 깊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장의 요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1절).

제 43 편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다

단락구분 1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다 / 2-3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 4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 5 하나님을 바라라

1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어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4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급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 ㉠ 본시(本詩)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전편(42편)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5절; 42:5, 11) 흑자는 이 시의 표제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편의 부록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 (2) 여하튼 본시 작가는 전편에 이어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 (3) 즉 본시의 작가는 원수들의 옹지 못한 폭력과 포악에 의해 자기 나라에서 쫓겨 난 후에 그것을 보응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 (4)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 목적은 단순한 자기의 육체적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려는 일념(一念)에서였다.
- (5) 이처럼 그가 모든 생활과 소원마저 하나님 중심주의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였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2. ㉡ '경건치 아니한 나라'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말인가? (1 절)

- ㉡ (1) '경건치 아니한 나라'란 불친절한 나라 또는 무자비한 나라를 의미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정 없이 핍박하는 나라나 집단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후반절에 가서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로 바뀐다. 이것 역시 다윗을 대적하던 악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정당하고 대적은 부당하다는 근거 위에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호소하였다.
- (4) 그러나 그가 이렇게 호소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그러므로써 또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열리게 되기 위해서였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를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참조, 7:8, 15; 26:1).

3. ㉢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분이 되신다고 하였는가? (2 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였다(참조, 28:7).
- (2) 여기서 '힘'이란 문자적으로 '피난처'를 뜻하기도 한다.

- (3)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알고 그분만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 (4) 이러한 신앙인의 기도는 참으로 힘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응답도 확실하게 전달된다 (참조, 약 5:16).

4. **Q**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말인가? (3절)

- A** (1)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단어이다(참조, 40:11; 57:3).
- (2)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자기 영혼의 안식처인 예루살렘과 거룩한 산 시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고대하는 뜻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다.
- (3)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갈망했던 '주의 성산'과 '장막'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를 뜻한다(참조, 46:4).
- (4) 이런 의미에서 시인의 방랑 생활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지니고 있던 소원은 시온 산에 있는 장막을 방문하는 것이었다(참조, 84:1, 2).
- (5) 이처럼 자신의 형편이 어려운 지경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허락하시며 단절되었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5. **Q**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A** (1)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란 내가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 (2) 즉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말이다.
- (3) 그는 원수로부터 압박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작정이었다(참조, 합 3:17-19; 고후 6:10).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자는 자신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으며 그 상황을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다.

6. **Q** 시인은 하나님과 자기의 친밀성이 매우 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4절)

- A** (1) 시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반복 호칭을 사용하였다.
- (2) 그러나 시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묘사하였다.
- (3)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라고 하였다(참조, 삼하 6장; 대상 15:25-29).
- (4)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입술에는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찰 것이다.

7. **Q**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무슨 말인가? (5절)

- A** (1)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추하고 고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 주심으로 얼굴에 기쁨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말이다.
- (2) 결국 이 말은 나의 얼굴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는 나의 얼굴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사실 인간의 얼굴은 그 마음과 영혼의 반사경이나 마 찬가지이다. 즉 영혼이 죄에 찌들어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은 제아무리 인위적으로 꾸며댄다 하더라도 어두움과 슬픔의 그림자를 감출 수 없을 것이다.
- (4)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의 얼굴은 그가 어떤 선천적인 얼굴을 하고 있든지 그 얼굴에서 기쁨과 평안이 나타날 것이다(참조, 행 6:15).
- (5)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인간의 영혼 속에 비칠 때에 그 빛은 숨겨져 버리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들며 특히 그의 얼굴을 근심과 어두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다(참조, 마 5:14-16).

제 44 편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단락구분 1-8 열조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다 / 9-16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다 / 17-22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다 / 23-26 구원을 간청하다

1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2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삼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를 번성케 하셨나이다

3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나이다

4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5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6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7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오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8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9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욱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1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흠으셨나이다

12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하시며 저

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3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욱을 당케 하시니 둘러 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14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머리 흔들을 당케 하셨나이다

15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16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함이요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고나이다

17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19 주께서 우리를 시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0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뿔뿔히

21 하나님을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 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22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3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24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25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꾸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26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1. ㉠ 본시(本詩)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 (1) 본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탄원시(歎願詩)이다.

(2)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구원 사역을 찬양하며, 그것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간청하였다.

(3) 이 시인이 살던 때가 어느 시대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

제를 받던 때였음이 분명하다.

- (4) 이스라엘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생활하였으나 그 당한 고난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시인은 불평 대신에 종국적(終局的)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에게 진지한 간구를 계속하였다.
- (6)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이럴 때에 우리의 태도는 그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이다(참조, 욥 2:10).

2. ㉠ 본시의 작가는 누구인가?

- ㉠ (1) 본시의 작가에 대해서는 알아볼 길이 없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었던 간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단히 사랑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 (2) 그런데 본시의 표제문(表題文)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로 되어 있다.
- (3) 그러므로 본시는 작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시의 내용이 이스라엘 공식 예배에 사용될 만큼 영적이며 교훈적인 것만은 확실하다.
- (4) 여기서 '마스길', 즉 교훈시라고 한 것은 본시의 내용과 맞지 않는 표제문인 듯하다. 그러나 고난이 교훈을 주며 심령의 슬픔이 훈계에 대한 귀를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이 표제문은 적절하다.
- (5)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암울한 역사마저도 삶의 지혜와 교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참조, 약 1:2-4).

3. ㉡ 본시의 작가가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1-3절)

- ㉡ (1) 본시의 작가가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열조의 날 곧 옛날에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베푸셨던 일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열방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이다(참조, 2절; 80:8; 출 15:17).
-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사랑을 보이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다.
- (4)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천부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다(참조, 요일 4:10).
- (5)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참조, 엡 2:8).

4. ㉢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라고 하였는가? (4절)

- ㉢ (1)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나의 왕'이라고 선언하였다.
- (2) 이 말은 결국 나는 다른 왕을 알지 못하옵고 주만을 왕으로 아오며 주 이외의 절대적인 주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 (3) 이것은 또한 자신과 자신의 삶의 전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의(決意)이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감상적 의사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할 것이며 또한 죽기도 할 것이라는 종(奴婢)의 맹세이다(참조, 마 16:16).

5. ㉣ 시인은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5절)

- ㉣ (1) 시인은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우

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주를 의지하여'란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이다(참조, 빌 4:13).
- (3) 뿐만 아니라 시인은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더욱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임을 보여 주고 있다.
- (4) 이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를 의지한다는 것과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간다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5) 만약 우리가 이뤄 놓은 일 중에 우리 자신의 이름만이 드러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불신앙적 행위의 결과임을 명심하여 경계해야 할 것이다.

6. **Q** 시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어떠한 말을 하였는가? (6, 7절)

- A** (1) 시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라고 하였다(6절).
- (2) 여기서 칼과 활은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전쟁 무기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소유한 능력과 힘을 상징한다.
- (3) 이처럼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참조, 마26:52).
- (4)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7절).
- (5)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7. **Q** 시인은 종일토록 무엇을 자랑하였다고 노래하였는가? (8절)

- A** (1) 시인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였다고 노래하였다.
- (2) 시인이 이같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기 때문이다(7절).
- (3)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한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가장 드러낼 만한 분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한다(참조, 고전1:31).
- (4) 더우기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영영히 감사하겠노라고 노래하였다. 즉 이 두 표현은 모두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의미이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자의 특징은 그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8. **Q** 시인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9, 10 절)

- A** (1) 시인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9절).
- (2)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참조, 127:1; 신32:30).
-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한 자는 결코 미워하시지 않으시며 또한 그를 떠나지도 않으신다(참조, 요13:1).

9. **Q** 시인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또한 적대자들의 노예가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1, 12 절)

- A** (1) 시인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또한 적대자들의 노예가 된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또한 그들을 노예 시장으로 내몰은 자들은 이방 나라

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시인은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소생시키고 자유를 허락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4)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상을 소유한 자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참조, 욥2:10).

10. ㉠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2절)

㉠ (1)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피지배자로 내어 준 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유익한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2) 또한 이 말은 이스라엘의 고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익이 어떤 면에서 보장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는 그들이 이 고난을 패히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3) 그러나 이스라엘의 치욕은 하나님께는 큰 불명예가 되었으며 또 이방 민족의 날뽀는 하나님의 나라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다 주었다(참조, 사52:5; 겔36:20).

(4) 하나님께서 이러한 손실을 당하시면서도 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노출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참조, 사55:8, 9).

(5)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모든 시편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회복되며 또한 우리에게는 성숙한 인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참조, 약1:2-4).

11. ㉠ 시인은 이스라엘이 제일 감당하기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3-16절)

㉠ (1) 시인은 이스라엘이 제일 감당하기 힘든 것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이웃 나라로부터의 조롱과 멸시, 즉 정신적, 영적 고통이라고 하였다.

(2)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나약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 이웃 나라들은 무력하고 약해진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비방하였던 것이다.

(3)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비방과 조롱은 하나님에게 대한 화살이나 마찬가지로(참조, 왕하18:33-35; 19:10-13).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향한 이방 민족들의 비난이 단순히 자기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던 것이다.

(5) 이와 같이 자기 개인의 인격적인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명예가 침해당하는 것을 더욱 분통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다(참조, 마21:12, 13).

12. ㉠ 시인은 이스라엘이 견디기 어려운 이방으로부터의 압제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노래하였는가? (17, 18절)

㉠ (1) 시인은 이스라엘이 견디기 어려운 이방으로부터의 압제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2) 즉 그들은 고난을 당하기 전이나 당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한 삶을 추구해 나간다고 하였다.

(3) 이 말은 결국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 백성 자신의 과오에서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4) 이와 같이 인간들 특히 하나님의 법도를 날마다 청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불어닥치는 고난의 바람을 그들 스스로가 이해하기란 매우 힘든 것이다.

(5)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난제(難題)를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참조, 73:17).

(6)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고난은 결국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에 그 고난을 즐겁게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참조, 욥1:6-21).

13. ㉠ '시랑의 처소'와 '사망의 그늘'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말인가? (19절)

- Ⓐ (1) '사랑의 처소'와 '사망의 그늘'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었던 압제와 핍박의 현장을 상징하는 단어이다(참조, 사13:22;34:13).
- (2) 즉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사랑의 처소란 거칠고 매마른 지대로서 죽음만이 존재하는 곳을 가리킨다.
- (3) 그러나 본시의 작가와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
- (4)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그의 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 (5)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였다(히 11:35).
14. ⓐ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로 어떠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20, 21 절)
- Ⓐ (1)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저 주(主)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라고 말하였다(21 절).
- (2) 다시 말해서 인간의 범죄마저도 날날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 놓을 만한 죄악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참조, 잠16:2; 롬8:27).
- (3) 이처럼 자신의 어두운 부분마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 놓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자들이다.
- (4) 여기서 시인이 강력히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이르는 지름길이다(20 절).
- (5)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온 인격이 움직여야 한다(참조, 사40:31).
15. ⓐ 시인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였는가? (22 절)
- Ⓐ (1) 시인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그들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 (2)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까닭에 이방 민족들이 도전하여 압제와 핍박을 일삼는다고 하였다.
- (3)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신약 성도에게서도 발견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삶에도 적용되었다(참조, 롬8:36).
- (4)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참조, 딤후3:12). 즉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다.
- (5)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도리어 유익함이 된다(119:71).
16. ⓐ 시인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무신다고 생각하였는가? (23 절)
- Ⓐ (1) 본시의 작가는 하나님께서 실지로 주무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2) 여기서 시인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라고 한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만 하시지 말고 일어나 행동하시도록 간구하는 말이다(참조, 왕상 18:27).
- (3) 사실 이교도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가끔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였다(참조, 왕상 18:27).
- (4)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주무시지 않는다. 한 시인은 노래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이다'(121:4)라고 하였다.
- (5) 다만 인간이 성급하여 하나님의 지체하심과 침묵을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출 32:1-6).
17. ⓐ 시인은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청하였는가? (26 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청하였다.

(2)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야말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이 된다(참조, 6:4;31:16).

(3)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노예이며 영
 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할 것이다(참조, 요일4:10).

(4)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도전 앞에서
 도 담대할 수 있으며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다(참조, 롬8:31-39).

화보자료

하나님의 오른손. 아래의 사진은 클레멘스의 한 화가의 작품으
 로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 현재 카탈루냐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성경에서 '손'은 종종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출 3:19
 ;사 43:13). 그리고 '오른편'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 곧 크나큰 위엄
 과 탁월한 능력을 상징한다(참조, 마 25:31-46;막 10:37). 그러므로 '하
 나님의 오른손'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20:6;60:5).

제 45 편 왕의 결혼에 부쳐

단락구분 1-2 인생보다 탁월한 왕의 품격(品格) / 3-5 전쟁에 능한 왕 / 6-7 나라를 정의로 다스리는 왕 / 8 향기와 노래가 있는 왕 / 9-11 왕의 신부 / 12-15 왕의 결혼 예식이 시작되다 / 16-17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1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2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3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 왕은 진리와 은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쫓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데도다

6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평한 흠이니이다

7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8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제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

게 하도다

9 왕의 귀비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10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버 집울 잊어버릴지어다

11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12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13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14 수 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15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6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세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17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1. ㉠ 본시(本詩)는 결국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가?

㉠ (1) 본시는 전체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고 있으며, 교회를 아내로 맞는 신랑으로서, 또 온 인류를 지배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었다.

(2) 이 시가 메시아를 노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은 6,7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히 1:8, 9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천국 잔치에 대해 강론하실 때 천국 잔치를 혼인 예식에다, 그것도 왕실의 결혼 예식에 비유한 것(마 22:2; 25:1)으로 보아 본시가 평범한 왕의 결혼 축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본시를 노래할 때에 그분에 대한 감격과 그의 통치에 대한 만족감과 전적인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이다.

(5)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속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분의 재림 때까지 순결을 잃지 않겠다는 순수한 열정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2. ㉠ 본시의 표제문(表題文)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 (1) 본시의 표제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다.

- (2) 여기서 어떤 학자는 ‘소산님’이란 단어가 6현(絃)으로 된 악기를 의미한다고 한다.
- (3)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결혼식장에서 다른 꽃들과 같이 뿌려진 백합화를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4) 또한 이 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거룩한 사랑에 관한 ‘사랑의 노래’이다.
- (5) 즉 이것은 매우 사랑받는 자의 노래이며 신부의 친구들인 못 처녀들의 노래이고(14절) 또한 그들이 계속하여 부르도록 준비된 노래이다.
- (6) 이 노래 소리는 천국에서도 들려오는 것으로서 사도 요한은 시온 산 위에서 어린양을 시중하는 처녀 친구가 새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계 14:3, 4).

3. **㉠** ‘내 혀는 필객(筆客)의 붓과 같도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라는 말은 나의 혀에서 흘러 나오는 말이 마치 문필가의 붓 끝에서 명문이 흘러 나오는 듯하다는 말이다.
- (2) 다시 말해서 붓이 문필가의 손에 의하여 쓰여지듯 자신의 혀도 자신의 마음의 인도를 받아 말하여진다는 뜻이다.
- (3) 이 말은 아마도 본시의 작가에게 시편의 영감을 제공하여 그것을 쓰게 한 영, 즉 예언자들 안에서 활동하시던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일 것이다(참조, 뱀전1:11).
- (4) 이와 같은 시인의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에게 좋은 규범을 제공한다.
- (5)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 사역에 관한 일들을 결코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항상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경건한 명상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 시인은 왕이 인생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그 입술에 머금을 수 있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는가? (2절)

- ㉠** (1) 시인은 왕이 인생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그 입술에 머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보다도 고귀한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3)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던 복과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국한시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허락하신 것이다(참조, 엡1:3).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소유한 성도들은 세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5. **㉠** 시인은 왕이 지닌 품격(品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절)

- ㉠** (1) 시인은 왕이 지닌 품격에 대해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인생보다 아름다워’란 말은 용모를 나타내기 보다는 그 인격이 고매(高邁)함을 나타낸다(참조, 사53:2).
- (3) 즉 그분은 범죄하여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는 무관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초월적인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그리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운 말씀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 나온다는 뜻이다.
- (5) 즉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선하신 뜻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된다는 말이다(참조, 사61:1-3; 눅4:22).
- (6)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매한 품격은 결국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며 그로 말미

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동인(動因)이 된다.

6. **㉠** 시인은 왕에게 무엇을 위하여 싸워 이기라고 노래하였는가? (3-5절)

- ㉠** (1) 시인은 왕에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워 이기라고 노래하였다(4절).
 (2) 여기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 원문에 근거하여 진리와 온유(겸손)한 의라고 번역하고 있다.
 (3) 이 진리와 온유한 의는 폭군들의 통치 방침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거짓과 불의를 배척한다(참조, 계 19:11-21).
 (4) 그런데 진리와 온유한 의를 소유한 인류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와 거짓에 대항해서 싸우지만 그 싸움은 항상 그리스도 편에서 승리하신다(참조, 요 16:33).
 (5)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속하여 그들로부터의 도전과 유혹을 받고 있지만 진리와 온유한 의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다(참조, 요일 5:4).

7. **㉠** 시인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나라의 왕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6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나라의 왕권에 대해서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흠(筭)은 공평한 흠이니이다' 라고 묘사하였다.
 (2) 즉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하고 어떤 지상의 왕국처럼 쇠퇴함이 없다고 하였다.
 (3) 이 말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말(89:4, 36, 37; 삼하 7:13-16)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을 계승하셔서 영원히 지속시키실 것을 내포한 말이다.
 (4)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라의 흠(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이 공평하여 조금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다(참조, 67:4; 96:10).
 (5)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나라는 비록 인간의 범죄한 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뿐 아니라 세상 끝날 이후에도 계속 존속할 것이다(참조, 고전 15:24).

8. **㉠** 시인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동류(同類) 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였는가? (7절)

- ㉠** (1) 그 이유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참으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죄악을 철저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3)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왕에게 부으셨다는 말은 자발적인 겸손과 수난을 감당하신 메시아에게 영광과 축복을 부어 주심을 의미한다(참조, 빌 2:9; 히 2:9).
 (4) 그런데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자를 정죄하고 세상에서 소외시키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5) 하지만 비록 이 세상에 정의를 침해를 당하고 불의가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공의로우실 질서 아래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의 근거이다.

9. **㉠**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8절)

- ㉠** (1)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는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한다.
 (2) 여기에서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에 필요한 관유(灌油)의 일부로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금하였다(참조, 출 30:23-25).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름다운 인격과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셨다.

10. **Q** '상아궁'은 무엇을 상징하는 곳인가? (8절)

- A** (1) '상아궁'은 영원한 기쁨이 내재해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다(왕상 22:39; 암 3:15).
- (2) 즉 이곳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거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을 말한다(참조, 계 22:3, 4).
- (3) 그러므로 이곳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가 듣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4) 이와 같이 천국의 전초 기지라 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교회)에서는 항상 즐거움의 소리(찬양)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 5:16).

11. **Q** 시인은 왕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9절)

- A** (1) 시인은 왕후를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오벨의 금'으로 단장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매우 순결하고 영화로운 모습을 하였다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출 28:5-8; 대상 29:4; 욥 28:16).
- (3) 그리고 '왕의 오른편'에 섰다는 것은 매우 영예로운 위치를 차지했다는 말이다(참조, 왕상 2:19).
- (4)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왕후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
- (5) 그러므로 왕후가 입었던 오벨의 금으로 치장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입게 된 옷을 말한다(롬 13:14).
- (6) 또한 왕후가 왕의 오른편에 섰다는 것은 죄인의 위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참조, 요 1:12).

12. **Q** 시인은 왕후가 된 이방 여인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는가? (10, 11절)

- A** (1) 시인은 왕후가 된 이방 여인에게 자기 백성과 아버 집을 잊어버리고 왕을 경배하라고 권하고 있다.
- (2) 여기서 자기 백성과 아버 집을 잊어버리라고 한 것은 이제 그녀와 왕 사이를 떼어 놓을 수 있는 모든 결박과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말이다.
- (3)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참조, 눅 9:62).
- (4)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당신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다.

13. **Q**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12절)

- A** (1) 먼저 두로는 일반적으로 이방 국가와 도시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모델이다(참조, 사 49:18-29; 56:6-8; 60:3-14).
- (2) 그러므로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겸손히 그의 은총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3) 그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라는 말은 재물이 많은 자들이나 종교적으로 교만한 자들조차도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 (4) 이와 같이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참조, 계 3:9).
-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들은 그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만 소

유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개해야 할 것이다.

14. **㉠** ‘왕의 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3-15절)

- ㉠** (1) ‘왕의 딸’이란 신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부를 말한다.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있는 성도 모두를 가리킨다(참조, 마 25:1-13).
- (2) 그녀는 외적인 변화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존재로 꾸며져 가고 있다(13, 14절; 엡 5:26, 27).
-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며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함 받게 된다(참조, 요 14:16, 17).

15. **㉠** ‘왕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6절)

- ㉠** (1) ‘왕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참조, 110:3).
- (2) 그리고 그들은 왕의 아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왕의 위치에까지 오를 것이다(참조, 계 5:10).
- (3)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드시는 왕중의 왕이시라 할 수 있다.
- (4)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또한 더 큰 왕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참조, 벧전 2:9).
- (5)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었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4:1; 벧전 2:10).

16. **㉠** 시인은 마지막으로 어떤 결심을 하였는가? (17절)

- ㉠** (1) 시인은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라는 결심을 하였다. 즉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세대에 기억되도록 찬양할 것이라고 하였다.
- (2) 사실 이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만민이 영원토록 기억하며 찬양해야 할 분이다(참조, 벧전 1:3).
- (3)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였다(참조, 빌 2:9, 10).
- (4)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참조, 벧전 2:9).
- (5)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고 하였다.

본장의 요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흠(笏)은 공평한
흠이니이다’ (6절).

제 46 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단락구분 1-3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의 담대한 삶 / 4-5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 6-7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 8: 9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 10-11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셀라)

4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6 이방이 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

리를 발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

8 와서 여호와와 행적을 불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9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데도다

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

1. ㉠ 본시(本詩)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라.

㉠ (1) 본시의 역사적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때이다(참조, 왕하 18:13; 19:37).

(2) 본시는 이렇게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힘과 피난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전멸시키시고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우셨던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이 시는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시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이기도 하다(참조, 47편).

(4) 그리고 이 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그리고 가장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보여 주고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고 어떠한 압제와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 본시의 표제문(表題文)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 (1) 본시의 표제문은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여기서 '알라못'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확실치 않으나 혹자는 이 단어가 처녀들의 성대처럼 쟁쟁하고도 분명한 고음부로 노래하라는 표시라고 한다.

(3) 사실 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서 슬픔에 잠긴 듯한 감정으로 노래하기 보다는 패기와 소망으로 가득 찬 감정으로 노래해야 함이 분명하다.

(4) 그리고 이 시의 이러한 표현 방법과 내용으로 보아서 이 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한 47편을 예시하는 듯하다.

3. ㉢ 본시의 작가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1절)

㉢ (1) 본시의 작가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 묘사하였다.

- (2)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안전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참조, 18:1, 2; 94:22; 잠 18:10).
- (3) 여기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미시라’는 말은 환난 중에 적절한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다.
- (4)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도우미시며 모든 경우와 어떠한 위기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신다는 말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에 처했을 때 자포 자기하거나 끝까지 자기 힘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입을 벌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참조, 50:15).

4. **㉠** 본시의 작가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극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가? (2, 3절)

- ㉠** (1) 본시의 작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외하는 자의 힘과 피난처 그리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극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2) 사실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참조, 창 3:8-10).
- (3)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 더우기 인간은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더 큰 공포심을 느낀다.
- (4)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공포는 쉽게 물러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마저도 제어하실 능력이 계시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권세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특권이 된다(참조, 요 16:33).
- (6) 종교 개혁자 루터(M. Luther)는 바로 이 시에서 용기를 얻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 작시를 하였다.

5. **㉠**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채우는 ‘한 시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4절)

- ㉠** (1)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채우는 ‘한 시내’는 종말적인 강도 아니고(참조, 사 33:21) 땅에 풍성한 소출을 내는 하늘의 강도 아니다(참조, 104:13).
- (2)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을 공급하는 물줄기를 가리킨다(참조, 36:9; 렘 2:13; 17:13).
- (3) 즉 이 시내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며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공급되어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참조, 계 22:1, 2).
- (4) 또한 이 시내는 영원히 솟아나기 때문에 이 시내에서 목을 축인 자는 더 이상의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참조, 요 4:14; 7:38).
- (5) 그리고 이 시내의 혜택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에 잠기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생활할 것이다.

6. **㉠** 본시의 작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성(城)이 요동치 않는다고 하였는가? (5절)

- ㉠** (1) 본시의 작가는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 (2) 즉 그 성이 방어하기가 용이하고 군사력이 우세하여서 적군의 침입에도 패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성이 지탱된다는 말이다(참조, 사 37:35, 36).
- (3)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는 동안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참조, 마 28:20).

7. **㉠**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여기서 먼저 '새벽'이란 모든 어둠의 세력이 걷히고 자유와 기쁨이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눅 24:1).
- (2)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생각지도 못한 때 또는 매우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 주신다는 말이다(참조, 왕하 19:35).
- (3) 한편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두움과 암흑으로 가득 찬 가운데 우리의 자유와 신앙이 억압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
- (4)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과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어두움의 때가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121:4)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신다.
- (5) 이와 같이 새벽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막연히 앉아서 새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파수군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참조, 130:6)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8. ⓐ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국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6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국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을 '이방이 흰화(喧嘩)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이방이 흰화하며 왕국이 동한다'는 말은 세상 나라가 소란스럽고 분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권에 도전한다라는 의미이다(참조, 2:1, 2).
- (3)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여 그 교회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뜻하기도 한다(참조, 벰전 5:8).
- (4)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치 않으시고 땅 위의 사건에 관한 당신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하여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셔서 당신의 왕권을 확립하신다(참조, 사 5:4, 5; 눅 21:25, 26).
- (5)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지나친 낙담과 실망에 휩싸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의 날이 가까움을 인하여 더욱 근신해야 할 것이다.

9. ⓐ '만군의 여호와'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7절)

- Ⓐ (1) '만군의 여호와'란 히브리어의 원뜻으로는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 말은 모든 세력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 (2)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성도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 (3) 또한 그분은 무수한 하늘의 군대를 소유하고 계셔서(참조, 68:17; 왕하 6:16; 마 26:53)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바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참조, 함 3:17-19).

10. ⓐ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7절)

- Ⓐ (1)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언약(言約)의 신(神)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마 22:32).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후손들을 돌보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한다.
- (3)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통괄하시는 역사적이며 실재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밝혀 준다.
- (4)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그대로 신실히 수행하시는 분임을 알려 준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전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이다.

11.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8,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황무케 하시고 또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셨으며 살육의 병기들을 제거하셨다.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황폐와 파멸로 몰아 넣으셨던 것이다.
 (3) 여기서 땅을 황무케 하신다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대적을 초토화(焦土化) 시킨다는 말이 되겠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그의 통치의 날에 행하실 일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사 2:2-4; 11:6-9).
 (4) 또한 그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 뒤에는 항상 평화의 시기가 따름을 의미한다(참조, 사 3:11, 30; 5:31; 8:28).
 (5) 이러한 기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한 자들과 범죄의 수단이 되는 무기들을 장차 메시아의 발 아래 굴복시킬 하나의 예시적 기간으로 암시하고 있다(참조, 사 11:9).

12. **㉠**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은 인간의 오직 자기 중심적인 투쟁 활동을 그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이다(참조, 62:1, 5).
 (2)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이 초연(超然)하여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임해야만 할 경우도 있다.
 (3)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의 어떤 신기하고도 예외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는 한 아무 대책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참조, 왕하 19:29-37).
 (4) 그런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참조, 출 14:13, 14; 대하 20:17-19; 사 30:15).
 (5)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활동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며 끝내는 당신 스스로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본장의 요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절).



제 47 편 하나님을 찬양하라

단락구분 1-2 은 땅에 큰 임금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 3-4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에게 찬양하라 / 5-9 하나님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인하여 찬양하라

1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2 지존하신 여호와와는 엄위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3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4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셀라)

5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어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6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7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8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9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와의 것임이어 저는 지존하시도다

1. ㉠ 본시(本詩)는 어떤 상황에서 저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 (1) 많은 사람들은 본시가 하나님을 위해 거행된 특별한 의식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 (2) 즉 이 시는 법궤를 시온 산으로 옮길 때 지어진 것으로 짐작한다. 이러한 추측은 5절의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어' 라는 표현에서 그 신빙성을 갖는다.
- (3) 그래서 이 시는 24편과 연관시켜 불러진다. 왜냐하면 24편은 다윗이 오벧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시온 산에 준비된 장막으로 옮기는 것을 노래한 것이며 본시는 이 행사 뒤에 언약궤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는 의식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공생애(公生涯)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것과 열방들이 기꺼이 복종하게 될 그의 왕국이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을 예표한 메시아적 시로 보아야 한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를 노래할 때에 높이 들리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가 인류의 주인이심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2. ㉠ 시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하였다.
- (2) 여기서 '손바닥을 치고'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다.
- (3)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는 말은 외적인 모습과 더불어 내적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다. 마음으로부터의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은 없을 것이다(참조, 엡 5:19).
- (4) 만일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내적인 감격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스러운 노래가 아닌 것이 불러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일 것이다.
- (5)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것이며(참조,

요 4:24)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넘친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참조, 마 22:16).

3. **㉠** 시인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였는가? (2절)

- ㉠** (1)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존(至尊)하신 여호와와는 엄위(嚴威)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세계의 통치자이시며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이다.
- (3) 그리고 ‘엄위’ 라는 말은 두려움을 뜻하는데 이것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65:5;68:35;76:7-9).
- (4) 또한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뜻한다(참조, 95:3, 4;96:10;97:1).
- (5)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며 또한 전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 (6)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만이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참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참조, 요 11:27).

4. **㉠** ‘기업’ 과 ‘야곱의 영화’ 는 각각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3,4절)

- ㉠** (1) 먼저 ‘기업’ 이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 곧 가나안 땅을 의미한다(참조, 창 12:1-7).
- (2) 그리고 ‘야곱의 영화’ 란 말 역시 가나안(팔레스틴)을 가리킨다(참조, 암 6:8;8:7).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으며 또한 그를 위해 이처럼 훌륭한 기업을 택하셨던 것이다(참조, 신 7, 8).
- (3)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리부터 준비해 두셨던 땅이기 때문에(참조, 신 32:8)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소유함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
- (4) 그런데 이 땅은 유대 민족에게 국한된 땅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5)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완성될 당신의 왕국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기업 안에서 그 땅을 다스려 나갈 것이다(참조, 벰전 2:25).

5. **㉠**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의 궤(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찬양 속에서 시온 산에 위치한 성막 안으로 모셔 들여진다는 말이다.
- (2) 여기서 올라가신다는 말은 지상의 왕이 행진하는 모습과 동일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참조, 왕상 1:40).
- (3)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할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 행 1:9).
- (4)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활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그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개선하는 장군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68:18).
- (5)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장면을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였다(참조, 히 9:24).
- (6) 예수께서는 하나님 또한 나라의 왕권을 확보하고 계시며 당신께서 하늘나라로 입성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행 1:11) 못 성도들의 찬양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다(참조, 살전 4:16).

6. **㉠**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거듭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거듭 강조한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훌륭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 (2) 특별히 구원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날마다 삶을 통하여 감격에 찬 노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 5:17).
- (3)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또 성도의 죽음 후에까지 계속되는 것이기도 하다(참조, 계 19:5).
- (4)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과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찬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참조, 단 5:4).
- (5)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리고 곤고할 때나 기쁨 때나 언제든지 항상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것이다.

7. Ⓢ 시인은 온 땅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였는가? (7절)

- Ⓐ (1) 시인은 온 땅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지혜의 시'로서 찬양하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지혜의 시'란 교훈시, 즉 <마스길>을 가리킨다(참조, 42편).
- (3) 사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위를 찬양하는 모든 노래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 (4)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과 그는 이방을 지배하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신앙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8. Ⓢ 시인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하였는가? (8절)

- Ⓐ (1) 시인은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다.
- (2)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며 또한 거룩한 지배를 행사하시는 위치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였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온 우주를 초월한 것을 강조한 말이다.
- (4) 사실 하나님의 존재 여부(與否)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영향력을 온 세계에 행사하고 계신다(참조, 마 5:45; 행 14:17; 17:25).
- (5)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9. Ⓢ '세상의 모든 방패'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9절)

- Ⓐ (1) '세상의 모든 방패'란 세상 나라에 있어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방백들의 권세 또는 힘을 가리킨다.
- (2)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이 땅 위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고 있다(참조, 롬 13:1).
- (3)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권력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참조, 잠 8:15).
- (4)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권력자가 있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48 편 하나님의 성(城) 시온

단락구분 1-3 하나님과 그의 거하시는 시온(예루살렘)을 찬양하다 / 4-8 시온을 치는 적들의 패주(敗走)를 묘사하다 / 9-10 하나님을 찬양하다 / 11-14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신뢰할 것을 권고하다

1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 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3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4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음이여

5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6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7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와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름 영광

히 견고케 하시리로다(셀라)

9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10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이다

12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13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4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 하시리로다

1. ㉠ 본시(本詩)는 무엇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가?

- ㉠ (1) 본시는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그 성의 장엄함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성 자체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 (2) 이 시의 창작 동기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 때에 이스라엘을 침입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을 물리친 후 지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대하 20장), 허스기야 시대에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에 지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 (3) 그런데 이 시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물리적인 근거(군대, 무기 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본시의 작가가 예루살렘을 감격적으로 바라본 것은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적과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 일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5) 결국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 (6) 이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는 '하늘의 예루살렘'(히 12:22),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 4:26)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 ㉠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산'은 각각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1점)

- ㉠ (1) 먼저 '하나님의 성'이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곳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영원히 설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다'(132:14)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2)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에서 예루세마는 예루살렘으로 명세하는 것이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경고하셨다(참조, 마 5:35).
- (3) 그리고 ‘거룩한 산’이란 예루살렘 내에 있는 거룩한 시온 산을 가리킨다(참조, 2:6).
- (4)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 불리어지게 된 이유는 이 산에 하나님의 전(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성전 안에는 절대 성결(聖潔)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참조, 속 14:20, 21).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산’이란 영적으로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신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다(참조, 갈 4:26; 히 12:22).

3. **㉠** ‘터가 높고 아름다워’란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이 말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풍치를 두고 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항상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에서 노래한 것이다.
- (2) 즉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그 영적인 아름다움이 온 땅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모든 이방 민족들은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또한 그 영적인 아름다움에 참여하므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
- (4)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아름다움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예루살렘(하나님의 나라)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령하셨다(참조, 벰전 2:9).

4. **㉠** 하나님은 열국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알리셨는가? (3절)

- ㉠** (1) 하나님은 열국에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온에 준비한 궁성들이 그들의 보호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께서만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셨던 것이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당신을 피난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 (4) 즉 하나님은 당신을 주(主)로 의지하고 당신을 찾는 자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기꺼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참조, 9:10).
- (5)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평안이 없고 날마다 부닥치는 현실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곳에서 하던 것을 포기하지 말고 피난처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50:15).

5. **㉠**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음이여’란 말은 무슨 뜻인가? (4, 5절)

- ㉠** (1)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음이여’란 말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함께 힘을 합하였으나 그곳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패퇴(敗退)하였다는 말이다.
- (2) 여기서 시인은 그들이 패퇴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저희가 보고 놀랐다’고 하였다. 이 말은 성벽과 우뚝 솟아 있는 탑을 가진 이 성의 광경(12, 13절)이 도저히 공격할 수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놀랐다는 말이 아니다.
- (3) 그것은 그 성중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마음에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황급히 달아났다는 말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은 자신의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계획과 활동을 정지시키시고 끝내는 그들을 파멸시킨다.
- (5) 그러므로 날마다 죽음의 위협과 불의가 들끓는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두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담대히 말했던 것이다(참조, 빌 4:13).

6. **㉠** 시인은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왔던 무리들이 패퇴(敗退)할 때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6절)

- ㉠** (1) 시인은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왔던 무리들이 패퇴할 때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이와 같은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동시에 조절하고 통제하시는 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도전하는 무리들의 힘을 완전히 꺾을 수 있으며 그들의 생명조차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 (4) 하나님은 당신의 대적들을 물리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공포와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전의(戰意)를 상실하게 만드신다.
- (5) 이처럼 공포와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범죄한 악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 (6)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또한 당하는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다(참조, 요일 4:17, 18).

7. **㉠** '다시스의 배'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인가? (7절)

- ㉠** (1) '다시스의 배'는 본래 다시스로 항해하기 위하여 건조되었던 배를 의미했으나 후에는 배의 종류나 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참조, 왕상 22:48; 사 2:16).
- (2) 그래서 '다시스의 배'란 말은 크고 튼튼하여 장기 원양 항해에 적합한 배를 가리키게 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견디어 내는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참조, 왕상 10:22; 대하 9:21).
- (3) 여기서 시인은 '다시스의 배'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적대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배됨을 묘사하고 있다.
- (4) 그리고 '다시스의 배'를 파괴시키는 '동풍'이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행위를 나타낸다(참조, 읍 27:20, 21).
- (5)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떠한 무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분노 앞에서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결코 이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움추리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 시인은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어떠한 감회(感懷)를 피력(披瀝)하였는가? (8절)

- ㉠** (1) 시인은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그 감회를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와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라고 피력하였다.
- (2) 즉 우리가 이전에 예루살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대로(참조, 대하 12:2-12; 14:9-13) 과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같이 아름다운 성의 구원을 목격했다라고 하였다.
- (3) 특히 그가 예루살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와 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 (4)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같이 당신의 백성이 거하는 곳을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성이 영구할 것이라고 찬양하였다.
- (5)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견디어 내기 힘든 위기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9. **㉠**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였다고 했는가? (9절)

- ㉠** (1)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고 했다.
- (2) 즉 예배하러 모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과 나라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였던 것이다(참조, 대하 20:27, 28).
- (3) 여기서 '생각하다'란 말은 '비교하다'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겪은 위기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비교해 보고 하나님의 미쁘신 사랑을 더 확실하게

달았다는 말이다.

- (4)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받은 환난과 슬픔보다 훨씬 강렬한 것이다(참조, 엡 1:3).
- (5)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10. **㉠** 시인은 무엇이 땅 끝까지 미쳤다고 노래하였는가? (10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찬송이 동시에 땅 끝까지 미쳤다고 노래하였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내용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구원과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찬양도 그만큼 열정적이고 경건하다는 것이 시인의 주장이다.
- (4)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 **㉠**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였는가? (11절)

- ㉠** (1) 시인은 '주의 판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 (2) 즉 이스라엘 역사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판결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전체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 (3) 사실 하나님의 판결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다.
- (4) 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워한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회의적인 태도나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것임을 알고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롬 8:28).

12. **㉠**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가? (12, 13절)

- ㉠** (1)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시온을 편답(遍踏)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권고하였다.
- (2) 여기서 시온을 편답하고 순행하며 또한 망대들을 계수하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위용을 관광하라는 말이 아니다.
- (3) 이 말은 하나님의 성인 시온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인하라는 말이다.
- (4) 사실 우리가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해 너무 치중함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망각해 버릴 때가 있다.
- (5)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자체에만 매달리는 행위는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 된다.
- (6) 그러나 우리들은 역사와 자연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업적을 바라보며 그 속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것이다.

13. **㉠** 시인은 무엇을 후대(後代)에 전하라고 하였는가? (13절)

- ㉠** (1) 시인은 예루살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그 모습과 그 인상을 그대로 후손에게 알려주라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도성과 백성을 돌보셨던 놀라운 사실을 날날이 살펴서 그

구원과 은혜를 후대에까지 전하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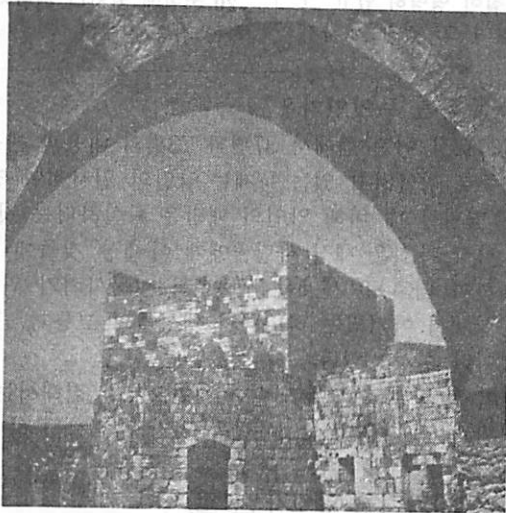
- (3) 이것은 전도와 종교 교육을 강조한 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감격과 특권을 자기 혼자만의 전유물(專有物)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이웃과 후손들에게 나누라는 뜻이다.
- (4) 만약 신앙인에게 있어서 행함이나 나눔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참조, 약2:17).

14. **㉠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14절)**

- ㉠** (1)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
- (2)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에 있어서 견고하며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영원한 축복이다(참조, 계 21:3).
- (3)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죽음 저너머의 영원한 세계에로까지 인도해 주실 안내자라고 하였다.
- (4)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일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다.
-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참조, 요 6:68).

화보자료

하나님의 성(城). 아래의 사진은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로 된 성채(城砦)이다.



본시에서 기자(記者)는 하나님과 그의 거하시는 성인 시온 성을 노래하고 있는데(참조, 8, 12, 13절) 여기서 시온 성이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제 49 편 세상의 영화는 잠깐이다

단락구분 1-4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호소하다 / 5-12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재물의 헛됨 / 13-15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 16-20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다

- 1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 2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 3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도다
- 4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도다
- 5 죄악이 나를 따라 에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 6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 7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 8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
- 9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 10 저가 보리도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 11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히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 이름으로 칭하도다
- 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 13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도다(셀라)
- 14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 15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도다(셀라)
- 16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 17 저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 18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 19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리도다
- 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 ㉠ 본시(本詩)의 저작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교훈적인 시로서 어떤 점에서 37편과 73편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 (2) 이 세 편의 시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는 악인의 일시적인 영광과 거짓된 보장 그리고 의인의 소망은 영원한 데 비해 악인의 패망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본시의 저작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는 어리석음과 허탄함을 깨닫게 하여 더 나은 세계를 구하도록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또한 악인의 형통함에서 야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에 단순한 격언으로만 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참조, 함 3:2).

2. ㉠ '만민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절)

- ㉠ (1) '만민들'이란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다(참조, 150:6).
- (2) 이같이 시인이 세상 만민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제한될 수 없는 범우주적이며 초시간적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주일(主日)에만 제한시키지 말고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서라도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참조, 딤후 4:2).

3. **Q** '귀천 빈부'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2절)

A (1) '귀천 빈부'란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들과 남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다.

(2)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층 계급의 인간을 가리키고 남자의 아들들은 상부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3)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계급 의식을 초월하여 전달되며 또한 모든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4)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각자의 고유한 인격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형상(Image)을 허락하셨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고유한 인격을 무시한 채 인간이 만든 계급으로 인간을 판단하려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중죄(重罪)이다.

(6) 특히 직업에 귀천을 두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7)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격을 동등하게 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은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찾아서 구원하려 하신다.

4. **Q** 시인은 무엇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가? (3절)

A (1) 시인은 자기 입이 지혜를 말하겠다고 자기 마음이 명철을 묵상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여기서 그가 말하겠다고 한 지혜는 자신의 본성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인 지혜를 말한다(참조, 약 1:5).

(3) 이러한 지혜는 결코 경박하지 않으며 사람을 해롭게 하기 보다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령의 윤택함과 삶의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4)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이 명철을 묵상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마음의 묵상에서 나온 것이다(참조, 19:14; 45:1).

(5) 그리고 그가 묵상할 명철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집어 넣으신 것이었다.

(6) 이처럼 우리는 마음에 품은 것과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마 12:34; 롬 10:9, 10).

5. **Q** '죄악이 나를 따라 예우는 환난의 날'이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5절)

A (1) 여기서 먼저 '죄악'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악행과 불의를 가리킨다.

(2) 그러므로 '죄악이 나를 따라 예우는 환난의 날'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불의한 세력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때를 가리킨다(참조, 17:11, 12).

(3) 시인은 이렇게 위험한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하였다. 그가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부터 담대해서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삶 중심에 계셨기 때문이다(참조, 3절).

(4)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고후 4:8)라고 하였다.

(5) 이처럼 그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어떠한 위협과 도전이 온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능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참조, 요 14:27).

6. **Q**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 (6절)

- Ⓐ (1)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모든 삶의 목표를 재물 축적에 두고 그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 (2) 즉 그들은 물질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다(참조, 욥 31:24). 따라서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되고 만다.
- (3)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교만하게 된다(참조, 눅 12:16-19).
- (4) 또한 재물을 의지하여 생활하는 자는 자기가 그 재물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끝내는 물질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다가 죄를 범하게 된다(참조, 딤후 6:10).
- (5) 특히 예수께서는 물질을 의지하는 자를 경고하시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역설하셨다(참조, 막 10:24).
- (6) 이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定)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厚)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딤후 6:17)라고 하였다.

7. ⓐ '그 형제를 구속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7, 8절)

- Ⓐ (1) 그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신 값을 치르고 구한다는 의미이다.
- (2) 그러나 인간이 제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 문제에 관해서는 조그마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 (3) 이처럼 인간이나 인간이 지닌 어떠한 것도 인간 스스로를 죽음에서 구출하지 못한다는 사상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신앙적인 사상이다(참조, 욥 36:18, 19).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썩어져 가는 물질을 의지하는 악행을 범하지 말고 참된 생명의 원천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이다.

8. ⓐ 시인은 죽음의 보편성(普遍性)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9, 10절)

- Ⓐ (1) 시인은 죽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愚蠢)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라는 말로써 표현하였다.
- (2) 이 죽음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과 지혜를 사용하더라도 기어코 찾아오야 한다.
- (3)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히 9:27)라고 역설하였다.
- (4) 이와 같이 죽음 앞에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9. ⓐ 시인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전지(田地)를 자기의 이름으로 칭한다고 하였는가? (11, 12절)

- Ⓐ (1) 시인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집이 영영히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한다고 하였다.
- (2) 즉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살아 있어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생활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름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것이다.
- (3)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에 영구히 거하지 못한다(12절). 왜냐하면 사람은 안개처럼 매우 짧은 순간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참조, 약 4:14).
- (4)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것은 죽음 이후에까지 지니고 다닐 수 없으며 끝내 그 소유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참조, 눅 12:16-21).
- (5) 그러므로 잠깐뿐인 이 세상 생활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

임을 알 수 있다.

10. **㉠** 시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또한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는가? (13절)

- ㉠** (1) 시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그들의 '우매함'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이같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육신 생활에 어느 정도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3) 뿐만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으로 빚어진 일들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게 될 것이다.
 (4) 그러나 사람의 어리석음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운택하게 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침몰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참조, 눅 12:20).

11. **㉠** 시인은 부한 자들의 어리석은 환상과 헛된 욕망이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결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4절)

- ㉠** (1) 시인은 부한 자들의 어리석은 환상과 헛된 욕망이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결과에 대해서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라고 묘사하였다.
 (2) 즉 그들이 죽을 때에 무덤에 장사될 것이며 울타리 안에 있는 양과 같이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3) 여기서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라는 말은 부활의 아침이 올 때 의인들이 그들을 지배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조그마한 자유도 허락되지 않은 채 지배당할 것이라는 말이다(참조, 계 21:8).
 (4) 이것은 결국 종말적(終末的)인 심판 광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악인의 영원한 멸망과 의인의 영원한 행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와 같이 우리는 내세(來世)와 내세에서의 뚜렷한 구별이 있음을 알고 현세에서의 생활이 너무 물질적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2. **㉠** 악인의 멸망 중에서도 시인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15절)

- ㉠** (1) 악인의 멸망 중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ért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소멸하여 구속하시리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2) 여기서 '영접한다' 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음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이다(참조 요 14:3).
 (3) 즉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녹을 취하신 것처럼(창 4:24) 모든 의로운 자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취하실 것을 뜻하는 말이다.
 (4) 또한 이러한 귀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만이 인간이 치를 수 없는 구속의 값을 지불하신다는 사실이다(참조, 7, 8절).
 (5)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휴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13. **㉠** 시인은 악인이 치부(致富)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의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16, 17절)

- ㉠** (1) 시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저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으로다' 라고 하였다.
 (2) 즉 악인이 축적한 재물은 그 악인을 구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7-9절) 결국은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물질의 풍부함에 대해 비굴함이라든지 불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3)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는 물질적인 풍요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여 악인의 부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
- (4) 그러나 재물만을 토대로 쌓아 올린 모든 영화와 행복은 헛되고 덧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때에 이러한 부러움이나 원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14. ㉠ 시인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20절)

- ㉠ (1) 시인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였다.
- (2)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인하여 존귀한 위치에 있으나 그 존귀에 합당한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짐승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11:22).
- (3) 그러므로 사람의 사람 됨은 외부의 조건이 화려하거나 만족스러운 위치에 오르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얼마나 고상한 지혜와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였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4) 그런데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지혜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참조, 잠 1:7).

연구자료

편찬 시기에 따른 시편의 분류

1. 다윗 시대

다윗 자신이 쓴 시는 자신이 죽기 얼마 전, 즉 B. C. 970년 이전에 수집되었을 것이다. 본서의 1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는 다윗 자신의 시이다. 1권 중 다윗의 시가 아닌 것은 단지 1, 2, 10, 33편뿐이다. 이밖에도 다윗이 지은 시로는 제 2권에 18편, 3권에 1편, 4권에 2편, 5권에 15편이 있다.

2. 솔로몬 시대

본서의 제 2권은 솔로몬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라는 말로 끝나는 이유는 2권을 구성하고 있는 시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이기 때문인 듯하다. 한편 솔로몬 자신이 지은 시로서 본서에 실려 있는 시는 72, 86, 127편이다.

3. 바벨론 포수 및 이스라엘 재건 시대

137편은 바벨론 유수(B. C. 586-539) 시대에 지어진 시이다. 그리고 107,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후에 지은 시이다. 또한 147편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시(참조, 느 4장)에 지어진 시이다. 뿐만 아니라 129편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시인데 이 시에는 이스라엘이 당하였던 괴로움(1-4절)과 앞날에 대한 소망(5-8절)이 피력되어 있다. 한편 일명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리는 146-150편은 본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들은 B. C. 444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 50 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

단락구분 1-6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공의를 선포하시다 / 7-15 하나님께서 제사 의식을 어긴 자들을 경계하시다 / 16-21 사람들 사이의 법율을 위반한 자들을 경계하시다 / 22-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1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2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3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4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5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6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셀라)

7 내 백성이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8 내가 너의 제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9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10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11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12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제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13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6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17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18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19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꾀사를 지으며

20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느도다

22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 ㉠ 본시(本詩)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 (1)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 외부적 의식만을 강조하여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꾸짖는 교훈시이다.

(2)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3) 즉 그들은 철저한 형식주의(形式主義)를 지향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4) 이런 때에 본시의 작가는 외식의 탈을 벗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5) 이와 같이 외식주의에 항거하는 목소리는 종교가 외적인 화려함에 치중했을 때 더 높

있는데(참조, 사 1장) 이런 목소리는 오늘날에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 (6)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패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기 보다는 얼마나 크고 훌륭한 건물을 건축하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교인의 수를 확보하느냐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 본시의 표제문(表題文)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 (1) '아삽의 시'라는 표제문을 가진 본시는 흑자에 의하면 단순히 아삽 계열에 의해 보관되어 온 시라고 여겨져 왔다.
 (2) 그러나 표제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본시는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에 의해 지어졌다(참조, 대상 6:39; 15:19; 16:4, 5; 대하 20:14).
 (3) 한편 시편에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가 열 두 편이나 된다(50, 73-83편). 이 열 두 편 중에서 그 내용상으로 보아 아삽의 시가 아닌 것도 있다고 한다.

3. **㉠** 시인은 본시의 초두에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로 사용하여 노래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 즉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로 노래했다.
 (2) 이와 같은 표현은 수 22:22과 본시에서만 사용된 것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면서 또한 무한하신 능력과 공의와 긍휼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는 표현이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낸다.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찬양의 의미와 더불어 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긍휼에 호소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4. **㉠**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우주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우주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표현하였다.
 (2)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로부터 창조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운행되기 때문이다(참조, 요 1:3).
 (3)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전우주적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만약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전우주적인 능력의 소유자에게 대한 반역죄를 범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는 합당한 징벌이 따를 것이다.

5. **㉠** 시인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빛을 발하셨다고 하였는가? (2절)

- ㉠** (1) 시인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발하셨다고 하였다.
 (2) 여기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의 경치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한 그곳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이다(참조, 48:1, 2).
 (3) 사실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거하시며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의 인격과 모습이 완숙한 아름다움으로 덧입혀질 것이다(참조, 행 6:15).
 (4)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시온에서 당신의 빛을 발하시는데 이 빛은 영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계시(啓示)라고 할 수 있다(참조, 요 1:4-9).
 (5) 즉 영적 예배를 이룰 복음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참조, 사 2:3; 미 4:2) 또 그 가르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었기 때문에(참조, 눅 24:27) 시온에서 빛을 발하신다고 일컬을 수 있다.
 (6) 그러므로 시온에서 나오는 빛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참된 빛이며 또한 이

빛으로 인하여서만이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 시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3절)

- ㉠** (1) 시인은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라고 묘사하였다.
 (2) 이와 같은 장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이 세상 사람의 눈을 여실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참조, 출 19:16; 왕상 19:11; 히 12:18)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치시는 장면이다.
 (3) 그런데 이 같은 장면은 인간의 육체적 시야를 현란시키기보다는 죄로 어두워져 있는 영혼을 각성시키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4) 그러므로 자연계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는 막연한 공포나 감격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7. **㉠**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기 위해 무엇을 반포(頒布)하셨다고 하였는가? (4, 5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기 위해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고 반포하셨다고 말했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윗 하늘과 아래 땅에다가 당신의 뜻을 반포하셨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성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당신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지켜 보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3)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모으신 '나의 성도' 또는 '나와 언약한 자'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모세의 언약을 맺으신(참조, 출 24:7)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4)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피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자들을 말한다(참조, 출 12:2-49; 히 9:18).
 (5) 이처럼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만드는 희생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8. **㉠** 시인은 하나님의 직책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6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직책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장(審判長)이라고 하였다.
 (2)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으신다.
 (3)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심판할 만한 권위나 능력 그리고 공평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참조, 롬 3:10).
 (4)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있어서 위안과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참조, 롬 12:19-21).

9.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계신다고 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라는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보호하시는 주권자의 위치에 있음을 밝히셨다.
 (2) 또한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은 당신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당신이 하나의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주는 것이다(참조, 출 20:2).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라는 말을 하신 국가나 개인은 절대 안전과 구원을 확보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이 세상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참조, 합 3:17, 18).

10. **㉠**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하여는 결코 책망하지 않겠노라 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을 인하여는 책망하지 않겠노라고 하셨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의 외적인 의식을 대만히 한다는 이유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하셨다.
- (3)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의 외적인 면에만 너무 치중하여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이다.
- (4)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 제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범 죄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참조, 사 1:10-17).
-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외적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기도와 진실된 감사의 찬양이다(참조, 23절; 34:18; 51:17).

11.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9-13절)

- Ⓐ (1) 그 이유는 희생 제사 제도를 폐지시켰기 때문이 아니다.
- (2) 오직 제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3) 이것은 희생 제사의 핵심이 희생 제물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잠 21:3; 호 6:6; 14:1-4; 6:6-8).
- (4)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고 하셨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과 회개가 없는 예배를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원하시는대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1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신 올바른 제사법은 무엇인가? (14, 15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신 올바른 제사법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誓願)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이다.
- (2)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이다(참조, 95:2; 대하 30:22).
- (3) 또한 하나님께 대한 서원, 즉 하나님과의 엄숙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실천이 따르는 제사가 진정한 제사이다(참조, 롬 12:1-21).
- (4)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난 날에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며 피난처임을 확신하고 그분께 대해 간단(間斷) 없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 (5) 이와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실천 그리고 전인격을 통한 간구가 있는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13. ⓐ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건져 내시겠다고 하셨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인 응답을 하신다(참조, 렘 33:3).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떠한 환난 중에 처하여 있든지 그 이유를 불문하고 건져 내신다고 하였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의 해결자이심을 시사(示唆)해 주는 것이다.
- (4)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그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활동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참조, 롬 11:36)임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참조, 고전 3:9)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까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

10:31).

14. **㉠**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악인들이 당신의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그 입에 두는 것을 싫어하셨는가? (16,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당신의 율법과 언약을 파괴하면서도 입술로만 당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그 입에 두는 것을 싫어하셨다.
 (2) 하나님께 책망받은 그들은 율법이라든지 언약 관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부했을 것이다.
 (3)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방 민족)에게 그것을 강요할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참조, 롬 2:18-20).
 (4)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경의심이 결핍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생활에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했다(참조, 잠 1:25, 29, 30).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결단과 변화 없이 외적인 행동 원리에만 치중하는 자들을 가리켜 참된 이스라엘인이 아님을 강조하셨다(참조, 롬 2:28, 29).

15. **㉠**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책망함에 있어서 그들이 당신의 율례와 교훈을 멸시하는 것 이외에 또 무엇을 힐책하셨는가? (18-20절)

- ㉠** (1)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다(18절). 이것은 십계명 중 제 8계명과 제 10계명을 범하는 행위이다(참조, 출 20:15, 17).
 (2) 두번째로 그들의 음행에 대해서 책망하셨다(18절). 이것은 제 7계명을 어기는 행위이다(참조, 출 20:14).
 (3) 세번째로 그들의 입술과 혀가 사기와 속임 그리고 분쟁에 사용되는 것을 책망하셨다(19절). 이것은 적어도 제 9계명을 범하는 악행입에 분명하다(참조, 출 20:16).
 (4) 네번째로 이웃과 형제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을 책망하셨다. 이것은 이웃을 미워한다는 의미에서 살인하는 것이며(참조, 요일 3:15) 형제와 우애(友愛)롭지 못함에 있어서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지 못한 것이 된다.
 (5)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제 5계명과 제 6계명을 동시에 파괴하는 행위이다(참조, 출 20:12, 13).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에게 뿐 아니라 형제에게 신실하지 못한 자들마저도 싫어하시며 힐책하셨다.
 (7)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 1:21).

16. **㉠**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1, 22절)

- ㉠** (1)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들과 한 통속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무인격체(無人格體)로 보거나 자기들의 합리적인 이성(理性) 속에서만 활동하는 자로 여기는 악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또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 거룩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일어나실 때에 모두 그분의 비난과 심판을 피

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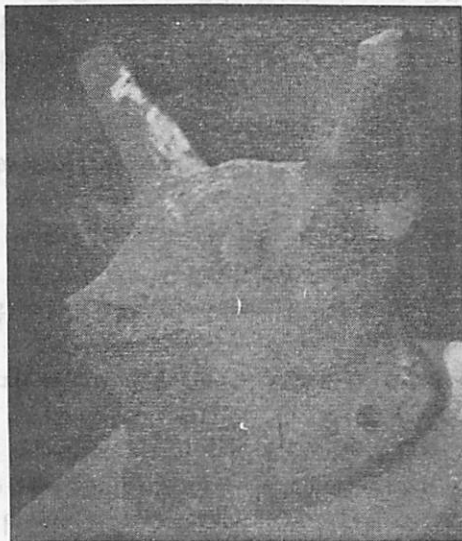
(6)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신다면 그들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참조, 49:7, 8).

17. **Q**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어떠한 자라고 하셨는가? (23절)

- A** (1)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규정하셨다.
 (2) 이것은 제사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음을 밝혀 주는 것이다.
 (3) 이처럼 제사는 단순히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다.
 (4) 이러한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열납되는 제사가 된다(14절).
 (5) 또한 이러한 제사는 일상 생활의 전영역과 전혀 모순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지도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6)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하였다(롬 12:1).

화보자료

가나안인들이 사용하던 수소의 탈. 아래의 사진은 록펠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소의 탈로서 고대 가나안들이 종교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던 것이다.



고대 가나안인들은 우상 신을 숭배함에 있어서 희생 제사와 같은 종교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참조, 레 18:21). 물론 희생 제사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인들의 예배 요소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참조, 레 1:1-17).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었다. 그러기에 본시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8-15절).

제 51 편 다윗의 회개시

단락구분 1-2 회개의 근거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 3-6 다윗이 자신이 죄를 고백하다 / 7-9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다 / 10-13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다 / 14-15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특징 / 16-17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 18-19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다

1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13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17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18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성을 쌓으소서

19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1. ㉠ 본시(本詩)의 중심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표제문(表題文)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우리나라의 아내 밋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한 회개시이다(참조, 삼하11, 12장).
- (2)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비록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그와 불륜(不倫)의 관계를 맺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대한 불의와 불충(不忠)임을 깨닫고 회개의 시야를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다.
- (3) 그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은 철저히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끝없는 분으로서 자신의 죄과를 능히 도말(塗抹)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였다.
- (4) 이처럼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 (5)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영원히 멸시하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긍휼과 죄용서함을 간구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근거로 하여 긍휼을 간구하였고 또한 그분의 자비를 근거로

하여 죄용서함을 간구하였다(참조, 호2:19).

- (2)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근거로 하여 기도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로만이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고 또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145:8, 9).
- (3) 또한 인간이 범한 죄악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용서될 수 없다.
- (4) 만약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의(義)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3. **㉠** 다윗은 어떠한 말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죄용서함을 빌었는가? (1, 2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로써 '내 죄과(罪過)를 도말(塗抹)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다윗이 말한 '죄과', '죄악', '죄'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든 악을 총망라(總網羅)하고 있는 말로서,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린 행위와 그 결과들을 말한다.
- (3)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초점을 자신의 죄악에 두고 있다. 즉 그는 선지자나단이 선언했던 벌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참조, 삼하12:11-14).
- (4) 이것은 회개자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회개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 놓은 죄의 장벽을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에의 진정한 모습이다.
- (5)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야 한다.

4. **㉠** 다윗은 자신의 죄과를 자각하고 있었는가? (3절)

- ㉠** (1)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각하고 있었다.
- (2) 본절에 나오는 '아오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다>는 단순히 이지적(理知的)인 자각이 아니라 전인격적(全人格的)인 승인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수긍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 (4) 사실 회개의 제1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일이다.

5. **㉠** 다윗은 누구에게 대하여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였는가? (4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즉 그는 자기의 범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삼하12:13).
- (2) 그런데 다윗이 범한 죄는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한 살인과 간음이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다고 고백한 것은 인간을 향한 범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참조, 창39:9).
- (4) 또한 그의 이러한 고백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밝히는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증표이다.
- (5) 이와 같이 자신의 범죄가 어떻게 진행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과 그 범죄를 용서해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의 지름길이다.
- (6)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6. **㉠**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라는 말은 그의 어머니가 불륜으로 자기를 잉태했다는 말이 아니라 잉태가 된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지녔다는 의미이다.
 (2) 즉 이 말은 인간에게 아담 이후에 있어져 온 본성적 죄악이 있음을 밝혀 준다(참조 58:3; 욥14:4; 사43:27; 호6:7).
 (3) 이처럼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범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위치에 있다.
 (4)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고 한다. 즉 그들은 사람의 본성이 결코 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에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참조, 눅5:8).

7. ⓐ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는가? (6절)

- Ⓐ (1) 다윗은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하였다.
 (2)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완전한 순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그 기본적인 원칙인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적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아야만 할 것이다.

8. ⓐ 다윗은 자기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7절)

- Ⓐ (1) 다윗은 자기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우슬초(牛膝草)라고 하였다.
 (2) 여기서 우슬초란 문둥병이 치료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되었으며(참조, 레14:2-7), 부정한 물건과 접촉한 후 정결을 위해서(참조, 민19:18),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드릴 때 사용된(참조, 민19:2-16) 박하과의 식물을 말한다.
 (3) 그런데 이 우슬초는 항상 송아지와 양의 피를 곁들여서 부정한 인간이나 사물에게 뿌려졌다(참조, 출12:22).
 (4) 이것은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피의 대속(代贖)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히9:19-22).
 (5)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교제의 장(場)을 개설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9. ⓐ '주께서 꺾으신 때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란 말은 무슨 뜻인가? (8, 9절)

- Ⓐ (1) '주께서 꺾으신 때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란 말은 죄로 인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멎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치되게 해달라는 말이다.
 (2) 이것은 다윗이 어떤 소극적인 평화와 즐거움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죄(赦罪)의 은총을 통하여 얻어지는 감격과 안식을 기원한 것이다.
 (3) 사실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사죄의 은총보다 더 값지고 감격에 찬 기쁨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4) 만약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10. ⓐ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신 증표로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10절)

- Ⓐ (1)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다.
 (2) 즉 그는 자신의 범죄가 그 원인이 되었던 영적인 힘의 소멸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올바른 인격으로 세워 달라고 호소하였다.

- (3) 여기서 ‘창조하시고’란 말과 ‘새롭게 하소서’란 말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온전하고 거룩한 인격을 만든다는 의미이다(참조, 고후5:17).
- (4)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참조, 요15:3) 거룩하게 되는 것은(참조, 요 17:17)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져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11. **Q**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 나지 않기를 간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A** (1)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 나지 않기를 간구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 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를 뜻하기 때문이다(참조, 왕하13:23).
- (2)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참조, 창4:14).
- (3)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 날 정도로 중대한 과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 (4)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어떠한 것이며 어느 정도 심각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12. **Q** ‘자원하는 심령’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12절)

- A** (1) ‘자원하는 심령’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노에 생활에서 해방되어 절대 선(善)을 따라 행하게 되는 마음을 가리킨다.
- (2) 이것은 예언서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리라’는 예언들과 깊은 연계성이 있다(참조, 렘24:7;31:33;겔36:25).
- (3)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인격과도 일치한다(참조, 고 후 5:17;갈 6:15;딤후 3:5).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13. **Q**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날마다 붙들어 주신다면 어떠한 일을 하겠노라고 서원하였는가? (13절)

- A**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날마다 붙들어 주신다면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도(道)를 가르치겠노라고 서원하였다.
- (2) 이처럼 다윗의 결단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참조, 32:8).
- (3) 사실 다윗은 자신이 범죄자였으므로 체협에 의해 범죄자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회개의 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다.
- (4) 이것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난 후 발견한 가장 귀한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임을 알았다는 말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영과 자원하는 심령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자신의 안일한 생활을 즐기기 보다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4. **Q**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입술을 열어 달라고 간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A** (1)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입술을 열어 달라고 간구한 이유는 자기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 (2) 다윗은 그의 범죄 의식이 오랫동안 그의 마음과 입술을 다물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그의 양심이 자유를 얻으면 찬양과 감사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 (3)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인격이 있다면 어찌 감사와 찬송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겠는가(참조, 사 35:6).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5. **Q**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6, 17절)

- A**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란 자신을 신뢰하던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상태를 의미한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화려한 형식과 거창한 제물들이 아니라 회생을 드리는 영적 상태, 즉 감사와 헌신과 자아 부정 그리고 순종이 있는 마음을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40:6; 50:8-13; 사 1:11-17).
- (4) 만약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결핍된 가운데 드러지는 제사(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외식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 (5)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고 하셨다.

16. **Q** '주의 은택'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18절)

- A** (1) '주의 은택'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그 곳에 두셨을 때 지니고 계셨던 당신의 은총을 가리킨다.
- (2) 다윗이 이러한 '은택'을 강조한 것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 (3) 즉 그는 자기가 공적인 인물로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초래할 것으로 알아 하나님의 은택을 간구했던 것이다.
- (4) 사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그 죄의 결과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참조, 수 7:1-24).
- (5)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무슨 허물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의 은택을 간구하여 자신이 범한 죄의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Q**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였는가? (19절)

- A** (1) 다윗은 예루살렘이 안정을 되찾은 후 거기서 드리는 의로운 제사와 번제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삼하 5:9).
- (2) 물론 여기에 언급된 제사들은 단순한 의식적 제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있는 제사임에 분명하다.
- (3) 이처럼 철저한 회개와 감사가 있는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적인 결단과 영혼의 감격이 결여된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러한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할 것이다.

제 52 편 간사한 혀의 멸망

단락구분 1-4 간사한 혀에 대한 고발 / 5-7 하나님께서 악한 혀의 소유자를 영원히 멸하신다 / 8-9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한다

1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 네 혀가 심한 악을 피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셀라)

4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뽑으시리로다(셀라)

6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7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8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9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1. ㉠ 본시(本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뚜렷하게 대조시켜 그 결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교훈시이다.
- (2) 특별히 본시는 악인들의 간사한 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의 혀가 간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려 했던 까닭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능력과 피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언어 생활에서조차도 불의와 거짓을 일삼게 되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2. ㉡ 본시의 표제문(表題文)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라는 말로 되어 있다.
- (2) 여기에 나오는 '도엑'이라는 에돔 사람은 사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85명을 죽였다.
- (3) 이처럼 한 사람의 어리석은 밀고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결국 이것은 다윗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안겨다 주었다(참조, 삼상 21:1-7; 22:9-19).
- (4) 본시의 이 같은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삼상 21:1-7; 22:9-19에 기록되어 있다.

3. ㉢ '강포(強暴)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절)

- ㉢ (1) '강포한 자'란 사울의 목자장(牧者長)으로서(참조, 삼상 21:7; 22:9)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던 도엑을 가리킨다.
- (2)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품성이 간사한 자로서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 사이에 되어진 일(삼상 21:1-9)을 목격하고 그 사건을 사울에게 고발하였었다.

(3) 이 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참조, 삼상 22:9-19, 22).

(4) 이 일 후부터 그는 강포한 자의 대표자가 되었다.

(5) 이처럼 자신의 명예와 출세만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 넣는 자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자였던 것이다.

4. ㉠ 다윗은 강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음을 역설하면서 무엇을 비난하였는가? (1절)

㉠ (1) 다윗은 강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음을 역설하면서 그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다.

(2) 여기서 악한 계획이란 파멸적인 악 또는 파괴적인 악의(惡意)를 의미한다(참조, 6:9).

(3) 사실 하나님은 인간 자신이 선을 드러내는 것도 교만한 것으로 여기시는데 자신의 악행을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단적인 악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이와 같이 죄에 오염되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자는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악을 자랑거리로 생각한다.

5. ㉠ 다윗은 심한 악을 피하는 간사한 혀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3절)

㉠ (1) 다윗은 심한 악을 피하는 간사한 혀의 특징에 대해서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였다.

(2) 여기서 '악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은 인간이 타락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말이다.

(3) 이처럼 심한 악을 피하는 간사한 혀는 결코 생산적이고 거룩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항상 파괴적이고 부패한 일을 일삼는다.

(4) 이런 점에서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말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약 3:6) 고 하였다.

6. ㉠ 다윗은 간사한 혀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4,5절)

㉠ (1) 다윗은 간사한 혀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영히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묘사하였다.

(2) 즉 간사한 혀가 토해 낸 '잡아 먹는 말' 이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킨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혀의 소유자를 파괴시키실 것이라고 하였다.

(3) 여기서 '장막에서 뽑아내며' 라는 말은 그 간사한 혀의 소유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자리도 갑자기 위태로운 상태로 돌변하게 될 것이며 끝내 멸망의 자리로 변할 것이라는 말이다.

(4) 그리고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는 말은 완전한 멸절을 가리킨다. 이것은 또한 후손의 완전한 멸절을 의미하기도 한다(참조, 삼상 22:17-19; 왕상 12:16; 욥 18:14).

(5) 이처럼 간사한 혀가 비록 처세술(處世術)에 뛰어나 순간적인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의를 간과(看過)해 버리시지 않고 공의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보응하신다.

(6) 그러므로 우리는 간사한 혀에 매료되지 말고 그 혀의 결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약 3:2).

7. ㉠ 다윗은 간사한 혀의 소유자가 멸망하는 데 대해서 의인들이 어떠한 논평(論評)을 한다고 하였는가? (6,7절)

㉠ (1) 다윗은 의인들이 간사한 혀의 소유자가 멸망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는 논평을 한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간사한 혀의 소유자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상실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 (3) 사실 사울이 진정한 힘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제아무리 든든한 세력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끝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과 세상에 대한 극단적인 신뢰심을 가지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손해처럼 보이는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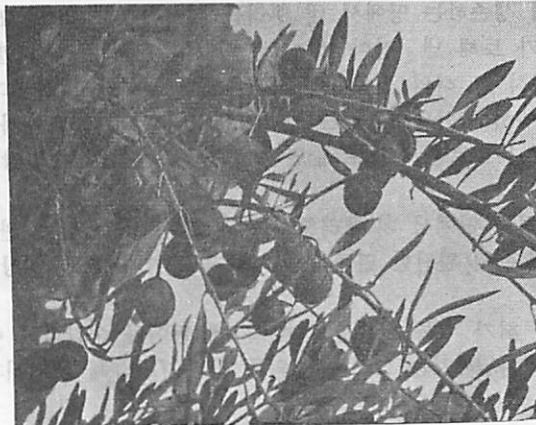
8. Q 다윗은 자기를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8, 9절)

A (1)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늘 푸른 나무이다. 그가 이처럼 뿌리의 진액을 받아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참조, 롬 11:17).
- (3)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비록 자신이 초라하여 볼품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날마다의 은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위주의 삶을 살기 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한다(9절).
- (5) 즉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파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참조, 사 9:9).

화보자료

푸르름을 자랑하는 감람나무. 아래의 사진은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감람나무의 열매 맺힌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침감람나무’로, 그 뒤를 이어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돌감람나무’로 지칭하였다(롬 11장). 어땀든 간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8절)같이 영생할 것이다.

제 53 편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단락구분 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었다고 한다/2-4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들의 악행/5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버리셨다/6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다

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
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노 저희가 떡 먹
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

니하는도다

5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
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
님이 흠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6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
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
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
리로다

1. Q 본시(本詩)는 시편 어느 편과 연관이 있는가?

A (1) 본시에서 다윗은 인류의 도덕적인 어리석음과 부패함을 한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6절)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2) 여기서, 다윗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인류 전체를 영적인 어두움으로 몰아 넣고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3) 또한 본시는 제 14편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5절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

(4) 같은 내용의 시가 거듭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혹자는 다윗 후기의 사람이 전쟁의 패배를 겪고 다윗의 시 14편의 감흥에 따라 노래하였다는 학설이다.

(5) 또 다른 학자는 다윗이 자신의 생을 뒤돌아보며 옛날 그가 저작했던 시(14편)를 다시 한 번 읊조려 본 시가 바로 본시라고 주장한다.

(6) 여하튼 본시는 14편의 사상(詩想)을 그대로 모방한 것임에 분명하다.

2. Q 본시는 14편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A (1) 14편 Q2를 참조하라.

3. Q 본시와 14편에서 하나님의 명칭이 쓰인 부분을 비교하라.

A (1) 14편 Q3을 참조하라.

4. Q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이라 하는가? (1절)

A (1) 14편 Q4를 참조하라.

5. Q 무신론자(無神論者)들이 저지르는 죄악 4가지는 무엇인가? (1-4절)

A (1) 14편 Q5를 참조하라.

6. Q '어리석은 자'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1절)

A (1) 14편 Q6을 참조하라.

7. Q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의 생활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절)

A (1) 14편 Q7을 참조하라.

8. **㉠** 여호와께서 무엇을 굶어 살피신다고 하였는가? (2절)
㉠ (1) 14편 **㉠** 8을 참조하라.
9. **㉠**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내다보실 때에 특히 무엇을 눈여겨 보시려고 하였는가? (2절)
㉠ (1) 14편 **㉠** 9를 참조하라.
10. **㉠** '치우쳤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1) 14편 **㉠** 10을 참조하라.
11. **㉠**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떡 먹듯이 무엇을 먹는다고 한탄하셨는가? (4절)
㉠ (1) 14편 **㉠** 11을 참조하라.
12. **㉠**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1) 14편 **㉠** 12를 참조하라.
13. **㉠** 다윗은 악인들이 두려워할 외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5절)
㉠ (1) 다윗은 악인들이 두려워할 외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꺾고 그들의 힘을 홀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죽이셨고 지옥의 문에 흠어진 자들처럼(141:7) 완전히 멸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였다고 했다.
 (3)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체(교회)와 그 각 개인들을 포위하고 협박하는 자들이 당할 운명이다(참조, 계 20:9).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의 멸망이 이처럼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요 16:33).
14. **㉠**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1)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2)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되면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잃는 가운데 수치와 경멸을 당하게 된다(참조, 창 3:6-10).
 (3)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 특히 인본주의자(人本主義者)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4)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죄의 노예로 그 신분이 바뀌어짐을 뜻하고 또한 그것은 자기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참조, 눅 15:12-18).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근신하며 성결된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자들이다(참조, 요 15:5).
15. **㉠**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는 누구인가? (6절)
㉠ (1)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2)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 스스로의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는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3)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구세주는 '예수', 즉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마 1:21)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형태의 죄악에도 불문하고 그것을 숨기기 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살후 3:3).

제 54 편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소서

단락구분 : 1-3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다 / 4-5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에 대한 확신 / 6-7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다

1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2 하나님이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 하였음이니이다(셀라)

4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니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6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 하셨나이다

1. ㉠ 본시(本詩)는 어떤 상황에서 저작되었는가?

- ㉠ (1) 본시에서 다윗은 자신이 숨은 것을 사울에게 알려 주었던 십 사람들의 배반(참조, 삼상 23, 26장)을 생각하며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 (2) 본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받던 가운데 지은 시들(7, 34, 52, 54, 56, 57, 59, 142편) 중 하나이다.
- (3) 다윗은 이와 같은 배신과 도피라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굳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것이다.
- (4) 이것은 불신 풍조(風潮)가 만연(蔓延)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훌륭한 해답을 주는 시이다.

2. ㉠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였다.
- (2)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거의 하나님의 본체를 뜻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과 능력 그리고 진리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참조, 23:3; 사 42:8).
- (3)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불러 그의 구원과 사랑을 덧입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향하여 우리의 간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으로 자기를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당신의 힘으로 자기를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 (2) 즉 그는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에 의해 불공평과 불평등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 (3)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신의 억울한 처지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자는 자신의 구원이 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참조, 18:1-3).

4. **㉠** ‘외인’과 ‘강포(強暴)한 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절)

- ㉠** (1) 여기서 ‘외인’이란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외인’은 십 땅의 거주민들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십의 거주민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참조, 수 15:55).
- (2) 또한 ‘강포한 자’ 즉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자 역시 다윗을 배신한 십 사람을 가리킨다.
- (3) 다윗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 (4) 즉 그들은 모든 삶의 행동 기준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설정하여 자신들의 부패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였던 것이다.
- (5)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과 무관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셔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참조, 롬 1:28-32).

5. **㉠**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 (1)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 (2)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는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의 위치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아니다.
- (3) 오히려 그는 돕는 자들의 대표로서 인간 구원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말이다(참조, 118:7).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의 안전과 구원이 있음을 깨달은 자는 세상을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다.

6. **㉠** 다윗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5절)

- ㉠** (1) 다윗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며 그 결과 그 원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 (2) 여기서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에게 그 잘못을 반환하신다는 말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公義)의 원리에 따라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 그 악행과 동일한 의미와 형벌을 제공하신다.
- (4)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참조, 88:11; 사 25:1; 애 3:23).

7. **㉠** ‘낙헌제’(樂獻祭)란 어떠한 제사를 말하는가? (6,7절)

- ㉠** (1) ‘낙헌제’(freewill offering)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화목제(和陸祭)의 일종이었다(참조, 출 25:2; 35:29; 레 7:16; 22:21; 민 15:3).
- (2) 다윗이 이 같은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던 것은 과거에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있어질 구원과 은총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하나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며 과거에 있어진 구원과 은총을 참으로 감사하는 자는 미래에까지 그 구원과 은총을 확신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언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고 하였다.

제 55 편 친구의 배신에 대해 호소하다

단락구분 1-11 고난을 한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다 / 12-15 친구의 배신, 행위에 대한 저주 / 16-21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 22-23 하나님을 의지하라

1 하나님여 내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2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3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5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6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리다
 7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리다(셀라)
 8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9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10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11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꾀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12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14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15 사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16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리다
 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리다
 18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19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여 들으시고(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우하시리리다
 20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21 그 입은 우유 기쁨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쁨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밟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리다
 23 하나님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응당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1. ㉠ 본시(本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한가?

- ㉠ (1) 본시에서 다윗은 가까운 친구의 배반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서 적들을 향하여는 분노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
 (2) 이처럼 다윗은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3)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는 가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처세술(處世術)에 의지하려는 자들이 있다.
 (4) 그러나 이런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며 끝내는 절망

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5)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분께 간구하는 자만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참조, 50:15).

2. **㉠** 본시는 다윗이 어떤 환경에 처하였을 때 기록한 것인가?

- ㉠** (1) 칼빈(Calvin)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본시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본시의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중에 지은 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삼하 15-17장).
 (3) 특히 본시에서 언급된 다윗을 배신한 친구는 아히도벨이었음을 알 수 있다(참조, 삼하 16:20-17:4).

3. **㉡**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을 아뢰기 전에 어떤 다짐을 받고자 했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과 자기 간구를 회피하지 마실 것을 다짐받고자 했다.
 (2)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환난 중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3)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그분에게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다거나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간구할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임이 분명하다.

4. **㉢** 다윗은 무엇 때문에 편치 못하여 탄식한다고 하였는가? (2절)

- ㉢** (1) 다윗은 '근심'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여 탄식한다고 하였다.
 (2) 여기서 '근심'이란 문자적으로 수풀을 뜻하기도 한다.
 (3) 사실 근심은 도저히 끝을 볼 수 없는 수풀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늘 괴롭힌다.
 (4)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근심에 잠기게 되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고 또한 탄식할 수밖에 없다.
 (5) 하지만 이러한 근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해결되어 참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다(참조, 요 14:1).

5. **㉣** 다윗이 근심에 잠긴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다윗이 근심에 잠긴 이유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壓制)' 때문이다.
 (2) 즉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백성들에게 다윗의 통치는 실정(失政)이며 불의와 부패를 일삼고 있다는 증상 모략을 하였기 때문에 근심에 잠겼다고 했다(참조, 삼하 15:1-6).
 (3) 이처럼 청결한 양심을 소유한 자들은 흔히 자신에게 들이닥친 비난 때문에 심각한 자기 연민(自己憐憫)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할 때가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비난이 들이닥쳤을 때 자기 주변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러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6. **㉤** 다윗은 대적들의 모함 때문에 자신은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는가? (4, 5절)

- ㉤** (1) 다윗은 대적들의 모함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여 사망의 위협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惶恐)함이 내게 덮였도다'라고 하였다.
 (2) 이와 같이 다윗은 대적들의 도전에 대해서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3) 사실 이러한 슬픔과 두려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원초적(原初的)인 고통이다(참조, 창 3:10).
 (4) 그러므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인간의 속사정을 인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

7. **㉥** 다윗은 대적들의 도전에 직면해서 어떠한 소망을 품게 되었는가? (6-8절)

- Ⓐ (1) 다윗은 대적들의 도전에 직면해서 자신이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광야, 곧 피난처에 날아가서 그 도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 (2) 즉 비둘기가 폭풍을 피하여 바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가듯이 다윗도 이 도성의 위협과 수난을 피하여 광야에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 가고 싶었던 것이다.
- (3) 그가 여기서 기대한 것은 후에 압살롬을 피하여 요단 강 동편으로 피신할 때 이루어졌다(참조, 삼하 15:14).
- (4) 이러한 다윗의 소망은 비겁하거나 불신양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닐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참조, 11:1).
- (5) 사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피곤하여 있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은 어디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 (6)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오직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시며 피난처이시라는 사실이다(참조, 14:6;46:1).

8. Ⓒ 다윗은 성내(城內)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하였는가? (9절)

- Ⓐ (1) 다윗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 기준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에 불의의 세력이 득세하여 추악하고 부패한 일들이 자행된다고 하였다(참조, 삼하 15:1-23).
- (3)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다윗은 하나님께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라고 하는 애타는 간구를 하였다.
- (4) 이 같은 다윗의 간구는 그 옛날 바벨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혼란과 분열이 죄악의 도성이 되어 버린 예루살렘에도 일어나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참조, 창 11:7-9).
- (5)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을 둘러 보면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올바르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 Ⓒ 다윗은 자신의 적대자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닌 결과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였는가? (10, 11절)

- Ⓐ (1) 다윗은 적대자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통치한 결과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殘害)함, 그리고 악독과 압박 꾀사(詭詐)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 (2) 즉 예루살렘은 극도로 부패하였고 혼란이 조성되었으며 정의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 (3)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통치 원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있는 곳에는 결코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조성될 수 없고 부패와 혼란만이 초래될 뿐이다.
- (4) 왜냐하면 인간이란 원래 의롭거나 평화를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파괴와 불의를 자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와 단체를 통솔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격들이 되어야 한다.

10. Ⓒ 다윗은 자기를 책망하고 괴롭히는 자가 누구라고 하였는가? (12-14절)

- Ⓐ (1) 다윗은 자기를 책망하고 괴롭히는 자가 자기의 가까운 친구라고 하였다(13절).
- (2) 즉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함께 동행할 만큼 막역(莫逆)한 친구이자 조연자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의 거침들이 된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삼하 15:12).
- (3) 이와 같은 사실은 그 원수가 남이 아니라 마음을 털어 놓고 대화할 만큼 신뢰했던 자라는 측면에서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 (4) 그러므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27:10)라고 고백하면서 참으로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11. **Q** 다윗은 자기를 배신한 친구에게 어떠한 저주를 하였는가? (15절)

- A** (1) 다윗은 배신한 친구에게 대해서 '사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 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라고 저주하였다.
- (2) 즉 그는 마치 고라와 그 일당의 운명처럼(참조, 민 16:30-33) 갑작스럽고 완전한 멸망이 그의 배신자에게 임할 것을 소원하였다.
- (3) 이러한 그의 저주는 아히도벨의 죽음과(참조, 삼하 17:23) 압살롬의 죽음(참조, 삼하 18:14, 15), 그리고 압살롬 추종자들의 대패(참조, 삼하 18:7, 8)로 실현되었다.
- (4) 그런데 이러한 그의 저주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며 안 된다. 즉 그의 저주는 그 배신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도자를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 (5)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롬 12:19)고 하였다.

12. **Q** 다윗은 자신의 딱한 사정을 누구에게 호소하겠다고 했는가? (16절)

- A** (1) 다윗은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겠다고 했다.
- (2) 즉 그는 자신의 처지를 다른 인간에게 털어 놓고 하소연하기 보다는 우주의 전능한 지배자로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 (3) 그는 이러한 간구 뿐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소유하고 있었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실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자들은 간구에 대한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참조, 50:15).

13. **Q**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때에 부르짖겠다고 하였는가? (17절)

- A** (1) 다윗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정오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겠다고 하였다.
- (2) 우리는 이 귀절과 다니엘의 행위(참조, 단 6:10)로부터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여기서 저녁과 아침의 기도는 저녁과 아침의 일상적인 제사를 말하며(참조, 출 29:38-42) 정오 기도는 특별한 제사 의식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런 경건을 의미한다.
- (4) 이러한 규칙적이고 계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참조, 마 15:22-28; 눅 11:5-8).

14. **Q** '나를 치는 전쟁'이란 어떤 전쟁을 가리키는가? (18절)

- A** (1) '나를 치는 전쟁'이란 다윗이 과거에 겪었던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전쟁, 즉 후세의 피로 전개될 압살롬 군대와와의 전쟁을 가리킨다(참조, 삼하 17:11; 18:6-8).
- (2) 이처럼 다윗은 다가오는 전쟁을 예견했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질 구원마저도 알고 있었다.
- (3) 즉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급한 상황 중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과 평화와 안식을 제공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다(참조, 민 6:24-26).
- (4)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다. 즉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고난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중에도 평안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사 26:3).

15. **Q** 다윗은 자기의 기도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였는가? (19절)

- A** (1) 다윗은 하나님을 '태고(太古)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였다.
- (2) 그는 이같이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계신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인간 역사의 전반적인 것을 아시며, 특히 자신의 대적들의 실수도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믿을 수 있었다.
- (3)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어느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도 달라

지게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신가를 먼저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

16. **㉠**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보응(報應)하셨다고 했는가? (19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고 하였다.
- (2) 즉 악인들이 자기들의 형통함에 도취되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적절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이다(참조, 롬 1:18-32).
-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는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 (4)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다(잠 1:7).

17. **㉠** 다윗은 자기를 배반한 자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가? (21절)

- ㉠** (1) 다윗은 자기를 배반한 자에게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라는 말은 입으로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부르짖고 아침의 말을 뇌까린다는 의미이다.
- (3) 단지 그것은 사악한 생각에서 출발할 전략일 뿐 끝내는 모든 사람을 해치고 자기의 목적인 바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삼하 3:27).
- (4) 이것은 바로 사단의 술책이다. 사단은 사람들을 감언 이설(甘言利說)로 속여 끝내는 멸망으로 이끌고 만다(참조, 딤후 4:3, 4).
-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욕심을 만족시키는 아침과 유희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무엇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여 올바른 말 듣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잠 16:24).

18. **㉠** ‘네 짐’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22절)

- ㉠** (1) ‘네 짐’이란 너의 몫 또는 네게 주어진 운명을 뜻하는 말이다.
- (2) 다윗은 이러한 짐(운명)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전(全)삶을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방책이기 때문이다(참조, 37:5, 6).
- (4)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19. **㉠** 다윗은 이웃에게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어떠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였는가? (23절)

- ㉠** (1) 다윗은 그들이 차신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하는 형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 (2) 즉 그들은 자연의 순리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기간과 또 그들이 살기를 기대하는 그 날의 반도 살지 못하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 (3)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웃에 대한 죄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생활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25:40).

제 56 편 나를 공홀히 여기소서

단락구분 1-2 하나님의 공휼을 간구하다 / 3-8 원수의 적대 행위에 대한 방어책 / 9-11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쁨 / 12-13 구원에 대한 감사

1 하나님이며 나를 공홀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고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3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5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6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7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며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8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9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1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2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 ㉠ 본시(本詩)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1) 본시에서 다윗은 비록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

(2) 즉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정하고 그분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공포나 잡념도 자기를 억누르지 못한다고 노래했던 것이다.

(3) 특별히 본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사실을 노래한 것으로서 뛰어난 신앙시이다(참조, 삼상 21:10-15).

(4) 그러므로 본시는 제 34편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5) 우리는 본시를 접할 때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 ㉠ 본시의 표제문(表題文)은 무엇인가?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므담 시, 영장으로 요넳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로 되어 있다.

(2) 여기서 '므담'은 격언을 담은 시이다.

(3) 그리고 '요넳 엘렘 르호김'이란 말은 외진 곳에 있는 고독한 비둘기의 꼭조라는 뜻이다. 이것은 본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듯하다.

(4) 혹자는 이 같은 명칭이 다윗 자신을 나타내는 비유적 호칭이라고 한다(참조, 55:6).

(5) 70인역(LXX)은 본시의 이 같은 문구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번역하였다.

3. ㉠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휼을 호소하였는가? (1, 2절)

- A** (1) 다윗은 자신의 적대자들이 자기를 삼키기 위해서 종일 치며 압제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공흠을 호소하였다.
- (2) 여기서 종일 치며 압제한다는 말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얼마나 강포했으며 그들의 악행이 끈덕졌던가를 알 수 있다.
- (3) 그가 오죽했으면 적대자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을까 가히 짐작이 갈 만하다 (참조, 삼상 21:10-15).
- (4)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이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공흠만이 그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였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공흠이야말로 모든 인간 문제의 해결책이다.
- 4. C** **다윗은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때에는 무엇을 하겠노라고 하였는가? (3, 4절)**
- A** (1) 다윗은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노라고 했다.
- (2) 사실 인간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 보다는 마음이 혼란하여 동요하기가 더 쉽다.
- (3)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우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찬송하게 되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 입술에 찬송도 있게 하신다 (참조, 50:15).
- 5. C** **‘혈육 있는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4절)**
- A** (1) ‘혈육 있는 사람’이란 다윗을 죽이려는 무리들, 즉 가드에 거주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킨다 (참조, 삼상 21:10-15).
- (2)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후 두려운 마음을 떨쳐 버리고 이러한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하고 담대하게 말하였다.
- (3) 이것은 실로 자기 목에 연민(憐憫)하지 않는 순교자적인 자세이다.
- (4)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 10:28)고 하셨다.
- 6. C** **다윗은 자신의 적대자들이 최후로 노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5, 6절)**
- A** (1) 다윗은 적대자들이 최후로 노리는 것이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라 (5절)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였다 (6절).
- (2) 사실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 방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수치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인격적인 모독은 더 이상 없었던 것이다.
- (3) 그래서 그의 적대자들이 비난하며 악한 마음을 품고 도전한다 하더라도 참아 낼 수 있었으나 그들의 최종 목적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임을 알았을 때 그는 입을 벌려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 (4) 이처럼 진정한 성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응하기 보다는 그 상황의 배후에 아직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 (5)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결과들, 즉 이적들을 불러오게 한다.
- 7. C**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 A** (1) 이 말은 그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이다.
- (2) 물론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러한 도피를 허용하시지 않는 분이다.
- (3) 만약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지나쳐 버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것이며 또한 인류 전체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4)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공의로운 법칙에 따라 악한 자들과 의인들을 구별하여 대우하신다(참조, 마 25:46).

8. **㉠**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이 말은 적대자들로 말미암아 많이 흘린 다윗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의미이다.
- (2)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환난 중에서 곤경을 당하거나 영혼이 피곤해 있을 때를 막론하고 모든 형편을 지켜보고 계신다(참조, 왕하 20:5; 렘 31:18).
- (3)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당신의 백성의 곤경과 피곤함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의 압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만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 (5) 이것이 신앙인이 누리는 특권이다.

9. **㉠**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언제 물러간다고 하였는가? (9절)

- ㉠** (1)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날에 자신의 원수들이 멀리 물러간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능력 있는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눈물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 (3) 물론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강조한 말은 아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가장 확실하고 능력 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참조, 약 5:13-18).
- (4) 우리가 우리의 무릎으로 매일의 환경에 대처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은 후퇴하고 만다(참조, 엡 6:18).

10. **㉠** 다윗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 버렸다고 하였는가? (11절)

- ㉠** (1)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 버렸다고 하였다.
- (2) 즉 다윗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인간과 환경에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 (3)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평범한 한 인간을 용감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참조, 히 13:6).
- (4) 그러므로 변화 무쌍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11. **㉠**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誓願) 한 내용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다윗은 만일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또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였다.
- (2) 그런데 그는 아직 현실적으로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다.
- (3) 즉 그는 아직도 주변에 고통이 산재(散在)해 있지만 이제부터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생활할 것이며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가운데 거할 것으로 확신하였다(참조, 욕 33:30; 요 8:12).
- (4)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백성의 간구를 떨시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온전한 믿음이다. 믿음의 소유자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참조, 히 11:1, 6).

제 57 편 주의 날개 그들로 피하리이다

단락구분 1-2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다 / 3-6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다 / 7-11 감사와 찬송

1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 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옹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 ㉠ 본시(本詩)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시는 표제문(表題文)에서 언급된 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던 때에 지은 것이다(참조, 삼상 22:1;24:3).
- (2) 사울을 피하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확신하고 구원을 위한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 (3)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의 신앙 체험에 의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원수들의 술책이 결국 그들 스스로의 자멸(自滅)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
- (4) 따라서 그는 급박한 위협 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안정시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확고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평화를 지닐 수 있고 또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

2. ㉡ 본시의 표제문(表題文)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므답 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여기서 '알다스헷'이란 말은 멸하지 말라는 의미이다(참조, 58, 59, 75편).
- (3) 이것은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를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부하들도 그의 명령대로 따랐다는 사실과 연관시킬 수 있다(참조, 삼상 24:4-6).

- (4) 또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에게 살해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 (5) 즉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를 멸하지 말라라는 한계선을 계속 두셨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욕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되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한계선을 두신 것과도 같다(참조, 욕 2:6).
- (6)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알다스렛’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확보해 놓고 계신다.

3. **㉠** 다윗은 위급한 중에 어디에서 피신해 있겠다고 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위급한 중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신해 있겠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이란 말은 위험을 느낀 새끼를 어미새가 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피난처를 의미한다(참조, 17:8; 36:7; 63:7; 눅 13:34).
- (3) 이 같은 은유는 신 32:11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 피난처는 어떠한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안전 지대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부패한 바람이 휘몰아치고 불의의 권력들이 기세를 올릴 때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동조(同調)하지 말고 영원한 안전이 약속된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여야 할 것이다.

4. **㉠** 다윗은 기도하는 대상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절)

- ㉠** (1) 다윗은 기도하는 대상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였다.
- (2) 즉 그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였던 것이다.
- (3) 이러한 신뢰야말로 확신 있는 기도의 근거가 된다(참조, 왕하 18:36, 37).
- (4)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아는 일이 중요하다(참조, 히 11:6).

5. **㉠**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기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였는가? (3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당신의 인자와 진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사랑과 진리로써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뜻한다.
- (3)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개인의 공로를 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불변하다(참조, 호 2:19).
- (4)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6. **㉠** 다윗은 자신의 적대자들을 어떤 자라고 묘사하였는가? (4절)

- ㉠** (1) 다윗은 자신의 적대자들을 사자같이 잔인 무도한 자이며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는 자처럼 이성과 동정을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묘사하였다.
- (2)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만을 노리며 그 마음이 적대감으로 불타오르는 자들로부터 피해야 했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부딪힐 때에 물론 그들과 담대히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지금처럼 그들의 맹렬한 분노를 잠시 피해야 할 때도 있다.
- (4) 이러한 태도는 비굴함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온전히 맡겨 버리

는 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참조, 롬 12:17-21).

7. **㉠**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는가? (5절)

- ㉠** (1)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어떤 특정한 이익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불이익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 (3)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 12:27, 28) 라고 하셨다.
- (4)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나 생활에서 우리의 이익과 안경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보이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 (5) 따라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다.

8. **㉠**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였는가? (6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하여금 자기 피에 자신이 넘어지도록 하여 성도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 (3) 그러므로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곧바로 스스로에게 대한 심판임을 깨닫고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할 것이다(참조, 마 26:52).
- (4) 반면에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攝理)를 확신하고 악인들의 횡포 앞에서 비겁한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9. **㉠** 다윗은 무엇 때문에 영감(靈感)에 찬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가? (7절)

- ㉠** (1)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영감에 찬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
- (2) 여기서 '마음이 확정'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맹세하므로 더 이상의 방황이나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 (3) 사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만함이 없이 주를 섬기는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 (4) 왜냐하면 마음의 모습들이 곧바로 생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참조, 마 15:18).
- (5)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마 22:37).

10. **㉠**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내용의 명령적인 말을 하였는가? (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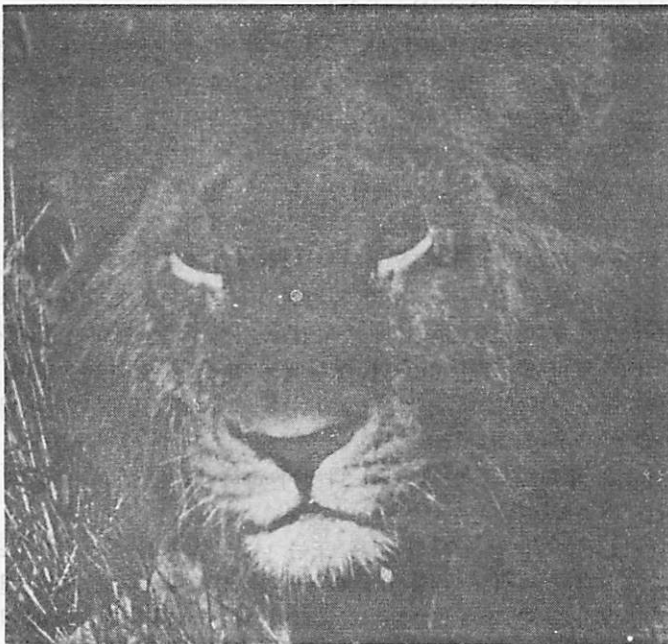
- ㉠** (1)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을 하였다.
- (2) 이 말은 사울을 피해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확신하고 침체해 있던 자신을 격려하는 내용이다.
- (3) 여기서 '내 영광'이란 말은 나의 영혼 또는 나 자신이라는 뜻이다(참조, 16:9; 30:12).
- (4) 이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각성시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를 결심했을 뿐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동안 잠들고 있던 음악적인 재능과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 먹었다.
- (5)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때(새벽)가 가까웠음을 확신하는 신앙적인 결단임을 알 수 있다.
- (6)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삶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다(참조, 빌 4:13).

11. **㉠**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어디에서 하였노라고 말했는가? (9-11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만민과 열방 중에서 하겠노라고 하였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벅찬 감격을 온 땅에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났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송도 제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참조, 10, 11절).
 (4) 사실 자기 한 몸을 피신시키기 위해 찾아 들었던 동굴에서 이러한 우주적 시를 읊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5) 이처럼 신앙인의 시야는 현실 속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넓고 깊게 열려져 있으며 그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화보자료

사자(獅子). 아래의 사진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사자의 모습이다. 사자는 무리를 지어 살며 공동으로 사냥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성경에서 사자는 힘의 상징인 동시에 위험의 상징이기도 했다(참조, 91:13; 암 3:12).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사자 중에 처하며’ (4절)라고 묘사하였다. 한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벧전 5:8).

제 58 편 악인의 본성과 하나님의 심판

단락구분 1-2 악인들의 불의한 재판을 지적하다 / 3-5 악인들에 대한 묘사 / 6-9 악인들의 멸망을 간구하다 / 10-11 의인의 기쁨

1 인자들이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2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3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
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4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
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5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술을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6 하나님이며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
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7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8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
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9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
가 생 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10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
다 하리로다

1. ㉠ 본시(本詩)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 ㉠ (1) 본시는 불의한 재판관들을 정죄하는 시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불의한 재판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밝히고 있다.
- (2) 여기에 언급된 재판관들은 지상의 통치권자나 이스라엘의 이방 지배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있던 악한 재판관들을 가리킨다(참조, 사 1:16-25; 10:1-4; 렘 5:26-29; 미 3:9-12).
- (3) 다윗이 본시에서 불의한 재판관들을 엄중히 다루고 있는 이유도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이스라엘에 부패와 부도덕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 (4) 이것은 한 나라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에 불공평과 불의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5) 만약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그 일을 간과(看過)하지 않을 것이다.

2. ㉡ '인자(人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 (1) '인자들'이란 단어는 능력 있는 자들, 또는 신(神)들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 (2) 그러나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이 단어가 불의한 재판관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
- (3) 다윗은 이들에 대하여 공의로운 말과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잘못임을 지적하였다.
- (4) 사실 진리를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참조, 사

조, 사 56:10-12).

- (5) 더우기 공적인 위치에 서서 백성들의 안녕과 자유로운 삶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재판관들이 침묵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3. **㉠** 다윗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서 발견되는 적극적인 형태의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절)

- ㉠** (1) 다윗은 악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적극적인 형태의 범죄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손의 강포를 달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2) 즉 그들은 우연 발생적인 악행보다는 미리부터 마음의 악한 계획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백성을 공평히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였던 것이다.
 (3) 이것은 침묵하는 그들의 소극적인 범죄 행위보다도 더 무거운 것으로써 공의(公義)라는 구실 아래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악행이다.
 (4)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큰 범죄 행위가 된다 (참조, 롬 13:1).
 (5) 이 같은 형태의 죄악은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 사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유흥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4. **㉠** 다윗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언제부터 악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였는가? (3절)

- ㉠** (1) 다윗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짖을 말하는도다' 라고 하였다.
 (2) 이것은 원죄(原罪)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이 어릴 때부터 악에 대한 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3) 즉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리석은 생각과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4) 이러한 죄성(罪性)은 그들이 자라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
 (5)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삶은 끝내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참조, 약 1:15).

5. **㉠** 다윗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4, 5절)

- ㉠** (1) 다윗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하였다.
 (2) 즉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충고나 좋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고집장이었다는 것이다.
 (3) 그리고 그들은 독소가 들어 있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해친다고 하였다(참조, 140:3).
 (4) 이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利己主義)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5)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불의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서로 물고 뜯는 피의 현장으로 변할 것이며 끝내 공동의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6. **㉠**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란 말은 무슨 뜻인가? (6절)

- ㉠** (1) 이 말은 사자의 이빨처럼 날쌔고 무자비한 악인들의 흉계를 하나님께서 저지시킨다는 뜻이다.
 (2)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악인들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습으로 날마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
 (3)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표준이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웃의 이익과 눈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4) 이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자기 중심의 삶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웃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게 된다.

7. **㉠** 다윗은 악인의 급속한 멸망을 간구하는 말로써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7절)
- ㉠** (1) 다윗은 악인의 급속한 멸망을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라는 말로써 표현하였다.
- (2) 뿐만 아니라 악인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는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라는 말로써 간구하였다.
- (3) 그런데 악인에 대한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가 또 다른 악, 즉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4) 왜냐하면 악인들의 악행은 단순히 인간들을 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성도로서 당연히 드려야 할 기도이다.
- (5) 더우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8. **㉠**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이 말은 악인이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자신을 점점 타락시키며 끝내 멸망시키게 된다는 의미이다.
- (2) 왜냐하면 달팽이는 자기 몸을 밀고 다니는 때마다 자기 몸을 닳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죽음의 날을 더욱 앞당기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이웃을 해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파멸시키는 것이 된다.
- (4) 이러한 결과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이다.
9. **㉠** 다윗은 악인의 계획이 완전히 실행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9절)
- ㉠** (1) 다윗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박한 심판에 대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채하여 버리시리로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이 같은 표현은 아마도 다윗이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가 음식물을 마련하기 위해 가시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착상했을 것이다.
- (3) 즉 나그네가 준비하는 음식이 끓기도 전에 사막에서 흔히 부는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쳐 그 연료(가시나무)를 송두리채 앗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악인의 계획도 그렇게 끝날 것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 (4) 하나님의 심판을 흔히 쾌락 속에 잠겨 있는 악인들을 놀라게 하며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참조, 눅 12:16-21).
- (5) 그들이 절대 안전과 만족을 부르짖고 있을 때 슬픔을 마련하실 것이며(참조, 사 50:11) 악을 발갓아 열매로 즐기기도 전에 진노를 폭풍우처럼 보내실 것이다(참조, 삼하 23:6,7).
10. **㉠** 악인의 멸망을 보고 의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악인의 멸망을 보고 의인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의인의 기쁨은 자기의 육체적 정욕이 성취된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있다.
- (3) 그러므로 의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을 기뻐하는 데 있다(참조, 고전 10:31).
11. **㉠**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그 대적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의미이다.
- (2)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끝내

는 악인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그런데 성도들의 이러한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내는 악인들에게 승리할 것을 믿고 현실의 부정적인 면들에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17-21).

12. **㉠** 다윗은 의인들의 완전한 승리와 악인들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것이라고 하였는가? (11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행위와 생각에 대한 보음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이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따라 악인을 벌하시기도 하고 의인을 후대하시기도 한다.
- (4) 그러므로 당신의 성품에 근거한 행위는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밝히시는 것으로써 모든 인간들은 그 행위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다.
- (5) 사실 오늘날 전개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열고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료

성경에 나타나는 이[齒]. 성경에는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사자같이 짐승을 잡아 먹는 동물의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하면(6절; 신 32:24; 욥 4:10; 욥 1:6; 계 6:8) 노여움을 못이긴 사람이 이를 가는 이야기도 나온다(35:16; 37:12). 또한 이를 잃는 것을 불행한 일로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습성에 의거해 모세 오경에는 ‘이는 이로 값으라’는 규례도 나온다(출 21:24; 레 24:20; 신 19:21). 반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버가 신 포도를 먹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렘 31:29)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뿐임을 교훈하였다. 또한 아모스에는 장차 임할 기근의 재난이 ‘이가 한가하게 될 것’(암 4:6)으로 비유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잠언에는 자비심이 없는 사람들이 ‘앞니는 장검(長劍) 같고 어금니는 군도(軍刀) 같은 자’로 묘사되었다(잠 30:14). 한편 성경에 나오는 동물의 이는 직접적이든 상징적이든 주로 찬탈자, 또는 약탈을 일삼는 강대국을 의미하며(욥 39:17; 단 7:5; 숙 9:7) 드물게는 원수를 의미하기도 한다(57:4). 이 같은 비유는 동물에게 있어서 이란 발톱과 더불어 목표물을 공격하는 강한 무기라는 사실에서 연유한 듯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교훈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일군된 우리 성도들은 말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훗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과 같은 비극을 맛보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참조, 마 24:44-50).

제 59 편 하나님은 나의 산성(山城)

단락구분 1-4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다 / 5-7 원수들의 특징 / 8-14 다윗의 소망 / 15-17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1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뭇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4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5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셀라)

6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7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8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9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0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 하시리이다

11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잇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흠으시고 낮추소서

12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셀라)

14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15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밭을 새우려니와

16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시이다

17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시이다

1. ㉠ 본시(本詩)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시는 다윗이 원수들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노래한 신앙시이다.
- (2) 특별히 이 시를 지을 때의 당시 상황을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위협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 때였다(참조, 삼상 19:11-17).
- (3) 사실 그가 믿고 있던 사울이 그의 상황을 노려 부하들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슬픔과 공포 속에서 피신해야만 되었던 것이다.
- (4)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했고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마음의 평정으로 그 상황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기도와 찬양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 (5)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 나갈 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 다윗은 누구에게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였다:

- (2) 그가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원수(사울의 무리)들이 일어나 치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그의 원수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를 높이 들어 달라고 하였다. 즉 강한 원수보다 더 높이 들어 피해를 막아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다.
- (4) 이처럼 그는 인간보다 더 큰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

3. **㉠** 다윗은 자기 원수들을 가리켜 어떤 자들이라고 일컬었는가? (2-4절)

- ㉠** (1) 다윗은 원수들을 '사악(邪惡)을 행하는 자'라고 일컬었다.
- (2) 여기서 '사악을 행하는 자'란 불의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였다고 했다. 즉 그들은 살인을 즐기는 잔인한 무리였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불의를 서슴없이 행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자야말로 그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결백과 더불어 원수들의 죄악상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4절).
 - (6)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악한 일들을 도모할 때 거기에 동조(同調)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4. **㉠** '열방'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5절)

- ㉠** (1) '열방'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는 사람들, 즉 이방 민족들을 가리킨다.
- (2)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적대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 (5) 다윗은 이런 이유에서 그들의 멸망을 호소했던 것이다.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개인 감정에 얽힌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기 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으로 하여 기도해야 한다.

5. **㉠**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어떠한 모습과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묘사했는가? (6, 7절)

- ㉠** (1) 다윗은 원수들이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여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라는 말을 하면서 다닌다고 하였다.
- (2) 사실 사울은 자기 부하를 저녁 어두운 때에 다윗의 집 근처에 배치하여 다윗의 목숨을 노렸었다(참조, 삼상 19:11).
 - (3) 여기서 '개'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결하고 추악한 동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개 같다는 말은 그들이 불결하고 잔인하며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란 뜻이다.
 - (4)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비방과 저주와 위협의 말이 쏟아져 나오며(참조, 94:4)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일삼는다(참조, 57:4).
 - (5)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행동한다.
 - (6)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절대적인 피해만을 안겨 주며 또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한다.

6. **㉠** 다윗은 원수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실 것이라고 하였는가? (8절)

- ㉠** (1) 다윗은 원수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

으실' 것이라고 하였다.

- (2)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위를 무시하여 멸절시키실 것이라는 말이다(참조, 2:4).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의지에 따라 악인들의 만용(蠻勇)과 부패한 마음들을 철저히 징계하신다(참조, 전3:17; 롬14:10; 계20:13).

7. **㉠** 다윗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다고 했는가? (9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산성, 곧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랄 수 있었다고 하였다.
- (2)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분에게 얼굴을 돌린다(참조, 민6:24-26).
- (3) 성도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지혜이며 또한 의무가 된다(참조, 50:15).
- (4)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며 우리의 방어벽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이 말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추어 인자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의미이다.
- (2)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치고 계신다.
- (3) 그런데 그분은 항상 당신의 의지에 따라 적절한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신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분의 도우시는 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다는 사실만을 믿고 날마다 간구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5:17).

9. **㉠** 다윗은 무엇 때문에 원수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가? (11절)

- ㉠** (1) 만약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재빨리 처벌해 버리신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각하게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즉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시키기 위해서 원수들의 빠른 멸망을 원하지 않았다.
- (3)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인이 오랫동안 생존하여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도덕의 붕괴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염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각성제로 삼을 수도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야(視野)를 지녀야 할 것이다.

10. **㉠**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2절)

- ㉠** (1) 이 말은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가 죄이다란 의미이다.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악된 것들이라는 말이다.
- (2) 사실 혀가 범하는 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의(惡意)가 포함되어 있다. 더우기 저주와 거짓말과 교만하게 말하는 것은 혀가 범하는 고질적인 악에 속한다.
- (3)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약3:6)고 하였다.
- (4) 그런데 혀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것은 곧 마음이 표면화 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말은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마음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말도 변화될 수 있다(참조, 마12:34).

(5)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실수함이 없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1. **㉠**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였는가? (13절)

- ㉠** (1)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기를 원하였다.
- (2) 결국 이 말에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종국에 가서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3)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단순한 의미에서만 악인의 멸망을 소원하지 않았다.
- (4) 즉 악인들의 계교를 좌절시키며 그들의 죄과에 형벌을 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의 왕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었다(참조, 삼상 17:46).
- (5)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삶, 특히 기도 생활에서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이기적인 주제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 **㉠** 다윗은 원수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방황한다고 하였는가? (15절)

- ㉠** (1) 다윗은 원수들이 '식물'을 얻기 위해 방황한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윗은 그 적대자들이 원하는 먹이였던 것이다.
- (3) 그들은 다윗의 집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밤이 새도록 거기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참조, 삼상 19:11-16).
- (4) 이처럼 악한 계획을 가진 자들은 그 계획이 성취되기까지는 만족을 모르며 온 밤을 그 악한 피에 사로잡혀 서성이게 된다.
- (5)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과 만족을 얻지 못하고 늘 불안과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된다.
- (6) 이러한 불안과 불만은 하나님의 품안에서만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참조, 요 14:1).

13. **㉠**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이 밤새도록 방황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은 어떻게 지내겠다고 하였는가? (16절)

- ㉠** (1) 다윗은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고 하였다.
- (2) 사실 다윗은 원수의 기습을 눈치채고 아침이 올 때에 자기 집을 빠져 나가 라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노래할 수 있었다(참조, 삼상 19:12, 18).
- (3) 이처럼 악인들이 어두운 밤에 방황하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신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 (4)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람들의 피난처이며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14. **㉠** 다윗은 어떠한 내용의 찬송을 하였는가? (17절)

- ㉠** (1) 다윗은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라고 하였다.
- (2) 즉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였던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성도들의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 (3) 왜냐하면 인자함이 없는 권능은 두려움을 자아내게 만들고 능력이 없는 인자함은 무능한 존재로밖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신 분이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불러야 할 올바른 찬송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중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그분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찬송이어야 할 것이다.

제 60편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다

단락구분 1-3 하나님의 일시적 징계로서의 패전 / 4-5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다 / 6-8 하나님의 응답 / 9-12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다

1 하나님이며 주께서 우리를 버려 홀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3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4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쁨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셀라)
 5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6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숙곳 끝까지를 척량하리라

7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8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9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10 하나님이며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का 하나님이며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1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1. ㉠ 본시(本詩)는 어떤 정황 중에 저작되었는가?

- ㉠ (1) 본시는 표제문(表題文)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인정하신 것과 아람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을 무찌르게 해주신 혁혁한 승리를 감사하면서 지은 시이다.
 (2) 즉 이 시는 다윗의 왕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 나라의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에 있었을 때 기록되었다(참조, 삼하 8:3, 13; 대상 18:3, 12).
 (3) 다윗은 자신이 형통함에 중에 있을 때에도 역경 중에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다.
 (4) 이처럼 참신앙인은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만을 위해 살아간다.

2. ㉠ 본시의 표제문(表題文)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므담, 영장으로 수산에돔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일만 이천 인을 죽인 때에' 라고 되어 있다.
 (2) 여기서 '므담'이란 교훈시, 황금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시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고 그것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개가를 부르도록 가르쳐야 했다.
 (3)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도들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내용을 오고오는 세대에 전파하며 가르쳐야 했다.
 (4)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과거에만 국한되어 죽어 버린 역사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에도 계속 활동하실 것을 보여 주는 예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수산에돔'이란 곡조의 이름으로 '증거의 백합화'란 뜻을 가지고 있다.

3. **㉠** 본시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 ㉠** (1) 본시는 다윗이 수리아 정벌에 나서자 이스라엘에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에돔 족속이 침략했을 때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다(참조, 삼하 8:13, 14; 왕상 10-13장).
- (2) 즉 다윗이 북쪽 아람 나하라임(메소포타미아)과 아람 소바(다마스쿠스와 유프라테스 상류 사이에 위치)와 싸우는 중에 남쪽에서 침입한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3) 그때에 요압이 지휘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12,000명의 에돔 군대를 무찔러 큰 승리를 얻었다.
- (4) 그런데 다윗은 이 같은 승리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른 결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5)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는 자신과 나라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총을 기대할 수 있었다.

4. **㉠** 다윗은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패전(敗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3절)

- ㉠** (1) 다윗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일시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때문이라고 하였다(참조, 44:9-11).
- (2)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어 그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진정한 안식처가 없음을 주시시켜 주신다.
- (3) 만약 인간이 자기의 실패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줄 알 때에 그것은 그로 하여금 앞으로의 삶을 교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 것과 자신을 실패케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기 때문이다(참조, 욕 5:17, 18).

5. **㉠**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조성시킨 한 공동체가 요동한다는 뜻이다. 즉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사로 빚어진 국가적인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 (2) 사실 에돔의 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 행위였던 것이다.
- (3)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그 틈을 기우소서'라고 하였다. 이 말은 혼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호소이다.
- (4) 이처럼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그 환난의 원인자(原因者)를 바로 찾는 것만이 그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6. **㉠** '포도주'는 무엇을 비유하는 말인가? (3절)

- ㉠**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징계를 비유하는 말이다(참조, 75:8; 사 51:17, 21; 렘 25:15).
- (2)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일어나는 참상이 술취한 자에게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그 당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술취한 듯한 현상이 일어나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암울했음을 알 수 있다.
- (4)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께 나라의 장래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7. **㉠**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란한 상태로 방치해 두시지 않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추진하셨다고 하였는가? (4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旗)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기'는 전쟁에 있어서 군대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표식이다(참조, 출 17:15).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기’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군대의 중심 세력(정신적 지주)이며 통치권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셨다는 의미이다.

(4) 그런데 이 ‘기’는 단지 자랑거리나 강력한 세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확실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공포하기 위해 이스라엘 진중에 달았던 것이다.

(5)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의 성취를 공포하였는데 이 역할을 담당한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사 11:10).

8. **㉠** 다윗은 백성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엇을 구하였는가? (5절)

㉠ (1)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당신의 오른손으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간구하였다.

(2)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을 표시하는 상징적 묘사이다(참조, 출 15:6; 사 41:10; 행 2:33).

(3) 그러므로 다윗의 이러한 간구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적인 간구라 할 수 있다.

(4) 사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 이러한 확신이 없이는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일 수밖에 없다(참조, 히 11:6).

9. **㉠**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란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6절)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내어놓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이 된다(참조, 89:35).

(3)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약속하셨던 말씀을 파기시키지 않으신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한 말과 약속에 대해 신실함을 지녀야 한다.

10. **㉠** ‘세겜’과 ‘숙곳’은 각각 무엇을 대표하는 곳인가? (6절)

㉠ (1) 먼저 ‘세겜’은 요단 강 서편에 위치한 주요 도시로서(참조, 왕상 12:25) 요단 서편 땅을 대표한다.

(2) 다음으로 ‘숙곳’은 요단 강 동편에 위치한 골짜기 도시로서(참조, 창 33:17) 요단 동편 땅을 대표한다.

(3) 그러므로 ‘세겜’과 ‘숙곳’은 이스라엘이 거주할 전영토를 가리킨다.

(4) 가나안 모든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말씀하신 하나님은(참조, 창 13:14,15) 여호수아를 통하여 각 지파에게 그 유업이 될 땅을 나누어 주셨다(참조, 수 14-21장).

(5)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의지에 따라 당신의 나라를 죄인 된 우리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고 계신다(참조, 벰전 1:4).

11. **㉠** 하나님은 무엇이 당신의 소유라고 하셨는가? (7절)

㉠ (1) 하나님은 길르앗과 므낫세를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셨다. 이 두 곳은 바산 지대를 일컫는다.

(2) 다음으로 본절에 언급된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 남부 지방을 통털어 일컫는다.

(3) 이 모든 지역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백성이 거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토를 중시하여 미래에 완성될 당신의 나라를 준비하셨던 것이다.

- (4) 그런 의미에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 즉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힘이라고 하였고 '유다는 나의 흙', 즉 유다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하셨다(참조, 창 49:10).
- (5)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내다보신 당신의 선하신 경륜이다.

12. C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접경 지역의 나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8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접경 지역의 국가들에 대해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 (2) 여기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는 말은 극단적인 모욕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더 이상 주권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예속된 나라라는 의미이다(참조, 민 24:17; 삼하 8:2).
- (3) 또한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는 말은 에돔이 그 주인의 신을 쫓는 종의 신분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민 24:18).
- (4) 그리고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는 말은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 그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위의 국가들에 대해서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계획에 따라 알맞은 처소와 직분을 맡기셨던 것이다.
- (6)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는 세력은 결코 불신 세력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과 그 백성만이 역사의 주체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13. C '견고한 성(城)'이란 어디를 가리키는가? (9절)

- A** (1) '견고한 성'이란 에돔의 수도인 셀라, 즉 지금의 페트라(Petra)를 가리킨다. 이것은 다윗 당시에 공격하기 매우 어려운 성이었던 것 같다.
- (2) 다윗은 견고한 성 셀라 앞에서 자기와 자신의 군대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왕상 11:15).
- (3) 우리가 우리의 힘만 믿고 견고한 성과 같은 사단의 세력 앞에 나섰을 때 우리는 그 세력을 능히 억압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작전 명령을 내려 주시면 우리는 다윗이 거둔 승전 이상의 효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참조, 엡 6:10-17).

14. C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군대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A** (1)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1-3절).
- (2)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이스라엘이 적국에 패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알았다.
- (3) 그러나 이러한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다(참조, 잠 3:11, 12; 히 12:7-13).
- (4)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은 후 자신과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참조, 11, 12절).
- (5) 이처럼 자신에게 불어 닥친 고난의 바람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한 자는 결코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온 정열을 쏟게 될 것이다(참조, 사 40:27-31).

15. C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

였는가? (12절)

- Ⓐ (1) 이스라엘이 대적 앞에서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친히 물리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왕상 11:15, 16).
- (2) 다윗의 이러한 확신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보시고 그의 빛을 비추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신앙에서 기인한 것이다.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모든 장애는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참조, 빌 4:13).
- (4)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일도 성취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화보자료

요단 강 서편의 세겜(Shechem). 아래의 사진은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옛 세겜의 발굴 작업 현장 모습이다.



‘세겜’이란 뜻은 ‘언덕’ 또는 ‘어깨’이다. 세겜은 고대 가나안의 도시(수 20:7)였는데 그리스 산 근처의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하였다(삿 9:7). 성경에서 이 지명은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데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머무른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다(창 12:6). 이 같은 세겜은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하였다(왕상 12:25).

제 61 편 저를 보호하소서

단락구분 1-4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다 / 5-8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다

1 하나님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 내 마음이 놀릴 때에 땅 끝에서 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 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 하소서

3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셀라)

5 하나님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언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

6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8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1. Q 본시(本詩)는 언제 저작되었는가?

- A (1) 본시는 압살롬과 그 무리가 패망한 후에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귀하면서 지은 감격에 찬 신앙시이다(참조, 삼하 15:25).
- (2) 다윗은 본시를 슬픈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마무리짓고 있다.
- (3) 그가 이러한 결론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신실하심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신실하심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새로운 힘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2. Q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르짖음'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1절)

- A (1) 다윗의 '부르짖음'은 일종의 날카로운 그리고 찌르는 듯한 '부르짖음'으로써 간절한 기도를 가리킨다(참조, 17:1).
- (2) 이런 '부르짖음'에는 기쁜 내용을 담은 것도 있고 탄식에 찬 내용을 가진 것도 있다.
- (3) 그런데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든지 주목해야 될 것은 간절한 마음의 상태이다.
- (4) 사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기도는 언제나 간절한 마음에서 아뢰는 기도이다(참조, 왕상 18:36-38).

3. Q '마음이 놀릴 때'란 어떤 때를 가리키는가? (2절)

- A (1) '마음이 놀릴 때'란 자신의 여러 가지 근심된 일에 매여서 극한 좌절에 빠질 때, 즉 마음이 약화되어 갈 때를 가리킨다(참조, 107:5).
- (2) 사실 그 당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로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 (3)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좌절의 순간을 딛고 일어나 '땅 끝에서부터', 즉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느낄 수 없는 망명처(亡命處)에서부터 간절한 기도를 하였다.
- (4) 이처럼 참된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결코 자포 자기하지 않고 늘 눈을 하나님께 돌려 구원을 요청한다(참조, 약5:13).

4. Q 다윗은 하나님과 그 보호를 지칭하는 말로 어떤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는가?(2-4절)

- Ⓐ (1) 먼저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였다. 이 말은 인간의 손이 닿지 못하는 절대 보장된 곳을 가리킨다(참조, 18:2;62:2, 6, 7).
- (2) 다음으로 ‘나의 피난처’라고 하였다. 이 피난처는 어떠한 세력에도 정복되지 않는 곳이다(참조, 18:2;46:7, 11;48:3).
- (3) 또한 ‘건고한 땅대’라고 하였다. 이 말은 원수로부터 함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요새를 가리킨다(참조, 출 14:2).
- (4) 그리고 ‘장막’과 ‘날개’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땅 끝’(2절)에 거할 때에 간절히 사모하던 곳, 즉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임하는 곳을 가리킨다(참조, 17:8; 36:7;57:1).
- (5)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진정한 보호자로 믿고 그분의 보호에 대한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 (6)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유일하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기쁨이다.

5. ⓐ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誓願)한 내용은 무엇인가? (5절)

- Ⓐ (1) 다윗이 서원한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아마도 압살롬으로 인한 도피 생활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신다면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하겠노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8절).
- (2)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서원에 응답하셔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주셨다고 노래하였다.
- (3)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압살롬의 정부를 물리치고 다시 얻은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계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
- (4)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이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축복, 즉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안전(구원) 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5) 그런데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값진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일 것이다(참조, 민 18:20).

6. ⓐ 다윗이 장수하기를 기원한 ‘왕’은 누구인가? (6절)

- Ⓐ (1) 다윗이 말한 ‘왕’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다윗 자신 또는 다윗의 왕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2)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영적인 장막에 거하면서 사모하였던 인류의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 (3) 다윗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히 존속될 것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4)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번영을 소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이다(참조, 마 6:33).

7. ⓐ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는가? (7절)

- Ⓐ (1)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와 진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참조, 57:3).
- (2) 여기서 ‘인자’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진리’는 이 땅에 정의를 펼치시는 당신의 품격을 가리킨다.
- (3) 사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으로서 당신의 나라에 소속된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며 또한 요구되는 품격이다.
- (4) 그러므로 비록 부패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뻐하는

우리들은 삶의 지향점을 '인자와 진리'에 두어야 할 것이다.

8. **㉠** 다윗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목적은 무엇인가? (8절)

㉠ (1) 다윗이 이때껏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2) 즉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원을 실행하는 것이 그 바램이었다.

(3)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단지 우리 자신의 평안과 형통함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온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참조, 약 4:2, 3).

연구자료

장수(長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 인간의 수명

창조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로 지속되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첨단 과학과 의술로도 풀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영원한 형벌(롬 6:23)이므로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제한된 수명밖에 살 수 없는데 이는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시 90:10)고 읊은 모세의 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최장수자 므두셀라를 비롯해 몇 백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또한 장수의 비결도 제시되어 있다.

2. 성경에 나타난 장수의 비결

성경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퇴치시켜서 장수하도록 꾀하는 의학과는 달리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축복으로서 장수가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 30:20), 지혜가 있는 자(잠 3:16),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잠 10:27), 탐욕을 미워하는 자(잠 28:16), 부모를 공경하는 자(출 20:12) 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3. 기독교인들이 취하여야 할 장수관(長壽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도 물론 커다란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육체적 생명 뒤에 있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플의 꽃'(사 40:6)과 같은 육체적 생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차 누릴 영생에 대한 산 소망(벧전 1:3)을 가지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제 62 편 하나님만 바라라

단락구분 1-2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 3-4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 / 5-8 시시(時時)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 9-12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2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3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셀라)

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6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

9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러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10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11 하나님이나 한 두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

1. ㉠ 본시(本詩)에서 다윗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 ㉠ (1) 본시는 원수들에게 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는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고 있다.
- (2) 그는 결코 악인들의 부정직한 이득이나 악행에 대해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였다.
- (3) 사실 세상에서 제아무리 부패한 사상의 바람이나 불결한 도덕의 풍조가 만연하고 물질만능주의가 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 (4)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살 길이며 의무이기 때문이다(참조, 사 40:31).

2. ㉠ 본시의 표제문(表題文)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로 되어 있다.
- (2) 여기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란 말은 여두둔이란 사람의 창법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참조, 대상 9:16; 16:38, 41; 25:1).
- (3) 이 여두둔은 기브온 성막에서 노래와 관현악으로 봉사하던 찬양대의 지도자였다(참조, 대상 16:31-33; 15:16, 17).

3. ㉠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이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1점)

- ㉠ (1) 이 말은 자신의 욕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나타낸다.
- (2) 여기서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을 뜻한다.

- (3) 그리고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지조 있는 신앙인의 태도를 가리킨다.
- (4)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쉽게 내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지 못함을 곧 발견하게 된다.
- (5)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그것을 참을성 있게 기대할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 다윗은 자신이 크게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절)

- ㉠** (1) 다윗이 크게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며 구원일 뿐 아니라 산성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 (2) 사실 피조물은 늘 부족하며 불안정하다. 특히 인간은 매우 순간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참조, 사 2:22).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참조, 신 32:10; 약 1:17).
- (4)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은혜로써 우리를 힘있게 하였고 환난 중에서도 견디게 하셨다(참조, 고후 1:10).
- (5)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 계시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과 구원 그리고 산성으로 믿는 자에게 요동함이 있을 수 없다.

5. **㉠**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절)

- ㉠** (1) 이것은 원수들의 간악하고 계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던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즉 다윗은 이 당시 압살롬과 그 무리들에게 배신당하고 또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여 앞날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참조, 삼하 15:13-17:26).
- (3) 그런데 이때에 다윗을 반역한 자들은 실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합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16:12, 13).
- (4)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비록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에게 담대히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다.
- (5)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간악한 세력에 도전을 받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수하는 일에 담대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 4:19).

6. **㉠**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자행하는 이중(二重) 인격적인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4절)

- ㉠** (1) 다윗은 원수들에 대해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는 말로써 그들의 이중 인격적인 행동을 비난하였다.
- (2) 사실 이 당시 그의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문 길 곁에 서서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였을 뿐 아니라 사울 왕가의 시므이도 다윗을 살인자로 몰아 붙였다(참조, 삼하 15:3-5; 16:7, 8).
- (3) 사실 이들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체 했지만 속으로는 다윗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며 은밀히 그를 칠 계획을 세웠고 또한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 (4) 이처럼 악인들은 위선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성취하고자 한다.
- (5)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진리를 거스려 성도들을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참조, 마 7:15).

7. **㉠** 다윗은 자기의 소망이 오직 어디에 있다고 하였는가? (5-7절)

- ㉠** (1) 다윗은 자기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였다.

- (2)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없는 반면에 그분에게는 영원한 평화와 구원이 있기 때문이었다.
- (3) 한편 자신이 어떠한 것에 유일한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태도가 결정되며 끝내 그 사람에 내세(來世)가 결정된다.
- (4) 요즈음은 물질과 쾌락에다가 자기의 전생애를 내맡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인격이 소망하는 것의 반영(反映)이라고 할 수 있다.
- (5)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세상이 멸망할 때 그 소망과 그 자신마저도 세상과 더불어 소멸되고 말 것이다(참조, 약 5:1-3).
- (6) 그러나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는 자는 어떠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전과 구원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8. **㉠**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고하였는가? (8절)

- ㉠** (1)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시시(時時)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말로 권고하였다.
- (2) 여기서 '시시로'란 말은 가끔이란 뜻이 아니라 항상성을 의미한다. 즉 그는 백성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했던 것이다.
- (3)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즉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으라는 뜻이다(참조, 142:2; 마 11:28).
- (4)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확실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그 확실한 내용을 이웃에게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 (5) 이것이 없다면 그 확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거짓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9. **㉠** '천한 자'와 '높은 자'는 각각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9절)

- ㉠** (1) 여기서 '천한 자'는 사람의 아들들, 즉 보통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높은 자'란 말 역시 같은 뜻이다.
- (2) 그러므로 이 두 말은 결국 온 인류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 (3) 다윗은 이 귀절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의지할 수 없는 거짓된 존재임을 역설하였다(참조, 렘 17:9; 롬 5:12; 엡 2:1).
- (4) 그래서 그는 인간의 허무함과 실속이 없는 상태를 '저울에 달면 들러 입김보다 경하리로다'라고 표현하였다.
- (5) 이처럼 인간의 유한함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자만이(참조, 사 2:22)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할 수 있게 된다.

10. **㉠** 다윗은 어떠한 말로써 악인들에게 권면하였는가? (10절)

- ㉠** (1) 다윗은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置心)치 말지어다'라는 말로 권면하였다.
- (2) 그 당시 압살롬을 지지하던 무리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행포와 박해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도록 권고하였다(참조, 삼하 15:1-17:26).
- (3) 왜냐하면 그들이 지닌 힘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의하여 그들에게 대여된 것이기 때문이다.
- (4) 더우기 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탈취물로 기뻐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일일 뿐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자의 소행이다(참조, 출 20:17; 렘 17:11).
- (5) 또한 그들은 재물이 많아짐에 따라 그들의 정열을 부의 축적에다 쏟아 부었다. 이것은 재물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는 행위로써 그 결국은 허무와 죽음만이 남게 될 것이다(참조, 눅 12:16-21).

11. **㉠**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으로 자기에게 거듭 강조하셨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

였는가? (11절)

- A**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자기에게 강조하셨던 말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셨다' 라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모든 권능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신다고 다윗에게 알려 주셨던 것이다.
- (3)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실 수 있으며 또 그에게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시다.
- (4)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능력과 활동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에 의해 사용되어진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며 그분이 주신 권능을 그분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11:36).

12. **Q** 다윗은 '인자함' 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였는가?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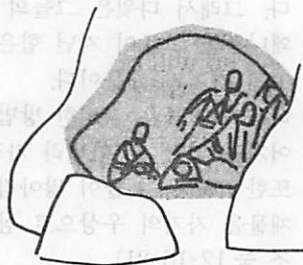
- A** (1) 다윗은 '인자함' 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다. 사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며 자비하시다(참조, 130:4, 7).
- (2)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고후 1:3) 시라고 말하였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죄인된 우리들이 그분을 의지해야 할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다(참조, 요일 4:10).

13. **Q** 다윗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당신의 어떠한 성품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하였는가? (12절)

- A** (1)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른 심판을 하시는 것은 당신의 인자하심, 즉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 (2)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행한 대로 보상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공의의 표현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3)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행위는 무죄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해주는 당신의 사랑임에 분명하다(참조, 왕상 8:32).
- (4)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은밀히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추구해 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참조, 마 25:34-40, 46).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세에서 비록 불평등과 불이익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사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참조, 롬 12:19, 20).

본장의 요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7절).



제 63 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다

단락구분 1-2 성소를 대신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길명하다 / 3-7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 8-11 의인의 안전과 악인의 최후

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 이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5 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7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8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9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 칼의 세력에 붙인 바 되어 사랑의 밭이 되리이다

11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다

1. ㉠ 본시(本詩)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다윗이 암살됨 일당에게 쫓기어 성전을 잃어버리고 유다 광야로 추방되었을 때 성전을 동경하며 지은 시이다(참조, 삼하 15:23, 28; 17:16).
- (2)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쫓겨 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었으며 찬양과 감사의 생활도 할 수 있었다.
- (3)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經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비록 좌절과 실의(失意)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켜 희망과 용기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다.
- (5)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2. ㉡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불렀다.
- (2)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하나님 또는 나의 강한 산성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강하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만 방치해 두지 말고 우리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5) 이러한 인정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Q** 다윗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였는가? (1절)

- A** (1)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困乏)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다.
- (2) 이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으로써 영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뜻하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설명으로 유다 광야를 가리키는 것이다(참조, 삼하 16:2; 17:29).
- (3) 여기서 광야란 물과 음식이 전혀 없고 맹수와 고독과 죽음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 (4) 이런 곳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곳에서 견뎌 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 (5)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이다.

4. **Q**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자신의 영혼과 육체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는가? (1절)

- A** (1) 다윗은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仰慕)’ 했다고 했다.
- (2) 즉 그는 자신의 온 인격이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바랐다고 하였다.
- (3) 그는 주의 임재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참아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그것을 찾기까지 혈떡일 수밖에 없었다.
- (4)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따라 그 온 인격이 반응한다.

5. **Q** 다윗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보기를 소원하였는가? (2절)

- A** (1) 다윗은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소에서 다시 한번 경건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간절한 동경을 나타낸 것이다.
- (3) 여기서 그가 성소에 올라가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화려한 예배 의식과 친구들과의 교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였다.
- (4) 즉 그가 지금 제일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이다.
- (5)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된다(참조, 고후 3:18).

6. **Q**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였는가? (3절)

- A** (1)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仁慈)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다고 했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죽는 것이 그의 분노 아래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의미이다.
- (3)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의 위대함을 체험한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그 입에 늘 찬양이 머무른다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히 13:15).

7. **Q** 다윗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했는가? (4절)

- A** (1) 다윗은 자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했다.
- (2) 즉 그는 한순간의 열렬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분을 찬양하겠다고 했다.
- (3)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윗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 생애의 진지한 과업이 되어야 한다.
- (4) 현재의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해서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비를 제공하

시기 때문이다.

8. **㉠** 다윗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손을 들겠다고 하였는가? (4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을 들겠다고 하였다.
 (2) 여기서 손을 든다는 말은 굉장히 벽찬 감격을 억누르지 못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외적 표현이다(참조, 134:2).
 (3)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고 그를 향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큰 감격과 흥분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참조, 출 3:13, 14).

9. **㉠**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만족한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5절)

- ㉠** (1) 다윗은 자신이 만족한 상태를 ‘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 하였다고 했다.
 (2) 여기서 ‘꿀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것은 희생 제사 후에 제사장들에 있어서 하나의 즐거운 일로 되어 있다(참조, 레 7:6-15).
 (3) 물론 이러한 즐거움은 육체적 포만감(飽滿感)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거룩한 자를 영적으로 예배한 후의 감격에서 유발되는 즐거움으로 표현된 것이다.
 (4) 사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품안과 그와의 교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공급하실 풍족한 즐거움이 마련되어 있다(참조, 36:8; 65:4).

10. **㉠** 다윗이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 한다는 말은 언제 한 것인가? (6, 7절)

- ㉠** (1) 다윗은 이 말을 길고도 불안한 밤중에 하였다. 즉 유다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며 이러한 찬송을 하였다(참조, 삼하 16:14).
 (2) 이처럼 그는 불안하고 고독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과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졌다.
 (3) 그는 이러한 기억과 묵상을 통하여 밤의 공포와 하루 동안 지쳐 있던 육신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릴 수 있었으며 미래에의 용기마저도 확보할 수 있었다(7절).
 (4) 사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참된 휴식을 얻을 수 있다.
 (5) 적어도 한 시간의 묵상이 한 시간의 잠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참조, 16:7; 17:3; 119:62).

11. **㉠**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직하려는 매우 진지한 열망과 신중하고 열성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우리는 변하기 쉽고 부패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 가운데 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3)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우리의 본성에 얽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야 한다(참조, 빌 3:14).
 (4)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새로운 교제의 장(場)을 마련하신다(참조, 눅 15:21-24).

12. **㉠**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에 원수들은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는가? (9, 10 절)

- ㉠** (1)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이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인 바 되어 시랑(豺狼)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원수가 단지 자신만의 적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됨을 시사하였다.
- (3)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시종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반기를 든 자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 (4) 그런데 그가 그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채택한 것은 무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참조, 롬 12:17-21).
- (5)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우신 판단으로 그들을 정죄하시며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멸망을 조성하신다(참조, 16:10; 욥 19:28, 29; 계 13:10).

13. ㉠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1절)

- ㉠ (1) 이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참조, 18:50; 72:1).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신이 맡은 소임임을 알았다.
- (2) 뿐만 아니라 '주로 맹세한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는 끝내 승리를 거두고 자랑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참조, 롬 8:17; 고후 1:5).
-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린 자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안전과 번영을 약속하신다(참조, 사 65:16).
- (4) 또한 '거짓말 하는 자', 즉 다윗의 적대자들(참조, 삼하 15:3; 16:7, 8)의 입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영원히 침묵하게 만드신다.
- (5) 이 같은 사실은 인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일들을 예표한 것으로 그분의 재림 때에 그의 신실한 친구들은 승리의 환호를, 그의 적대자들은 영원한 침묵의 세계로 빠져들 것이다(참조, 마 22:22).

연구자료

그리스도인과 찬양

찬양은 하나님, 인간, 죄, 그리스도의 구속 등과 더불어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찬양은 고난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많다. 본시도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고생하면서(1절) 지은 것으로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5절). 이처럼 찬양은 신앙을 가진 자들 누구나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본고는 이와 같은 찬양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찬양의 원어

찬양이라는 말은 예배, 경배, 감사 등의 개념과 떨어져 생각할 수는 없다. 찬양은 그 자체로서 경배요 감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스바>는 '찬양하는 것', '찬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래 뿐만 아니라 언어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다른 단어로써 <테힐라>가 있는데 이는 찬양하는 시를 가리키는 데 쓰였던 말이다. 신약에 와서 찬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

네오)로 일컬어졌는데 원래 이 단어는 '가치'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즉 찬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원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찬양이 노래만이 아니고 예배 및 생활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2. 찬양할 이유

(1)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 :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활동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102:18). 물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103:20, 21; 21;148:2) 하늘(89:5), 땅(98:4), 눈, 안개, 광풍, 불(148:8) 등 모든 자연계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2) 그리스도의 사역 :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다(참조, 계 19:5). 또한 이러한 사역을 담당하셨던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막 14:26).

3. 찬양과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서는 제물보다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69:30, 31). 즉 형식이나 물질로 표시되는 경배 행위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혼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실되고 체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과 물질적인 풍성, 안락에서 비롯된 자기 만족적이며 즉흥적, 일시적인 찬송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이 될 수 없다. 찬양은 오히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잉태되어 고난이 지나간 후에 빛을 발하는 것이다. 즉 고난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신뢰한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에서 벗어난 후에 주의 도움과 은혜를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뜻이다.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자! 또 지난날 처해 있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해 보자! 어찌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지 않겠는가.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는 그 만큼 성장한 신앙을 가진 자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예배할 때 뿐만 아니라 침상에서나(63:5, 6) 식사할 때도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찬양이 계속될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신앙은 더욱 성장하며 생활에는 즐거움이 있게 된다.

제 64 편 악인의 횡포에서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다

단락구문 1-2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 3-6 악인의 특성 / 7-10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 1 하나님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 2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 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 3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 4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 5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여 비밀히 음무 농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 6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모

- 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 7 그러나 하나님여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에 상하리도다
- 8 이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도다
- 9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도다
- 10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도다

1. ㉠ 본시(本詩)에 언급된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시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다. 그들은 다윗의 전생애를 따라 다니며 괴로움을 안겨 주었다.
- (2) 다윗은 본시에서 원수들의 악한 계획과 극도에 달한 그들의 악행 그리고 끝내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게 될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 (3)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의 도전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는 단 한 가지, 즉 하나님이 자기의 공격 무기인 동시에 방어 무기였음을 밝히고 있다.
- (4)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대해야 할 원수들은 영적인 대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과 무기도 모두 영적인 차원에서 가져야 한다(참조, 엡 6:10-18).

2. ㉡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존시켜 달라고 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원수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보존시켜 달라고 간구하였다.
- (2) 그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과 그의 세대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였다.
- (3) 더우기 그는 원수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방해가 되는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다.
- (4) 이처럼 그는 간구의 초점을 자기 자신의 안전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나라의 안전에 맞추어 간구하였다(참조, 약 4:3).
- (5) 이런 간구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참조, 왕상 18:37, 38).

3. ㉢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기를 숨겨 줄 것을 간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이유는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되기 위해서였다.

- (2) 여기서 그가 느끼고 있었던 위협은 원수들의 은밀한 음모, 즉 그 권위에 반대하여 자행되는 악한 꾀였다(참조, 삼하 15:1-12).
- (3) 그런데 그가 느꼈던 것 보다 더 큰 위협은 요란, 즉 공공연한 반란이었던 것이다(참조, 삼하 17:1-14).
- (4) 이런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숨겨 줄 것을 호소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 (5) 하나님을 자기의 보호자로 삼는 자는 이처럼 자기의 어떤 세력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참조, 사 40:31). 이것이 구원과 안전을 얻는 방법이다.

4. **㉠** 다윗은 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할 준비를 마친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3절)

- ㉠** (1) 다윗은 원수들이 악한 준비를 모두 마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鍊磨)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라고 묘사하였다.
- (2) 이것은 그 원수들이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중상 등의 악한 말을 통해 다윗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삼하 15:2-6; 16:5-13).
- (3) 그러나 이러한 악한 말의 소유자는 비방하는 상대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끝내 자기 스스로 그 악한 말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참조, 마 7:1, 2).
- (4)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약 3:6)고 경고하였다.

5. **㉠** 다윗은 원수들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4절)

- ㉠** (1) 다윗은 원수들의 뻔뻔스러움에 대해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완전한 자'란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 즉 그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성결을 유지한 자로 자처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 인격을 소유했던 것이다(참조, 욥 1:1; 2:3).
- (3) 그런데 이런 흠없는 자에 대해서 원수들은 은밀히 숨어 있다가 그를 공격하고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 (4)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욕되게 한 것이므로 분명히 신성 모독죄(神性冒瀆罪)에 해당한다(참조, 삼하 1:14).
- (5) 이와 같이 양심이 마비된 자들은 극악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임을 알지 못하고 자행 자지(自行自止)한다.

6. **㉠** 다윗은 원수들의 악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된다고 하였는가? (5, 6절)

- ㉠** (1) 다윗은 원수들의 계획이 여러 사람의 의논을 거쳐 수립된다고 하였다.
- (2) 이것은 단체적인 범죄로서 악을 서로 장려(獎勵)하는 행위이며 자신들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무신론자(無神論者)들의 소행이다.
- (3) 이처럼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이 극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한다(참조, 창 11:3, 4).

7. **㉠**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묘사하였는가? (7절)

- ㉠** (1)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에 상하리리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이처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다.
- (3) 그러므로 악인의 풍요와 평안함은 결코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며 불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눅 12:16-21).

8. **㉠**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공격하던 악인들을 어떻게 징벌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은 악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셨다.

(2) 즉 다윗을 비난하고 중상 모략하던 그 악한 말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헐뜯는 내용이 되었으며 다윗을 죽이려던 음모가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조 삼하17:1-23).

(3)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서 불평등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는 내용이다.

9. **㉠** 머리를 흔드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행동인가? (8절)

㉠ (1) 머리를 흔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조롱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참조, 마27:39).

(2) 악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인격적인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3)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은 자들은 결코 인간들의 환영을 기대할 수 없다.

10. **㉠** 다윗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9절)

㉠ (1)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표현하였다.

(2)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두려움을 제공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119:120).

(3) 다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식하고 그가 온 인류를 지배하고 계심과 공의로우신 판단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서 활동하시며, 위협이 닥칠 때 의인을 위해 개입하시고 악인에게 무서운 패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밝혀 주는 역할을 한다.

11. **㉠**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의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0절)

㉠ (1)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의인에게 있어서 더한층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며 또한 즐거움과 자랑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2) 여기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동료들의 비참한 말로(末路)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당신의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3) 그리고 절박한 위협에서부터 구출된 그 은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기 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4) 더우기 선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자들은 교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자랑하게 된다.

(5)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모두 마친 후에 얻게 될 영광스러움을 예표한 것으로 현재의 고난을 달게 참을 수 있게 만드는 활력소를 제공해 준다 (참조, 고후4:16-18).

본장의 요점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10절).

제 65 편 주의 권능과 위엄

단락구분 1-4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감사하다 / 5-8 우주와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 9-13 땅을 윤택케 하시는 주의 은택(恩澤)

1 하나님이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3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좇아 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6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띪을 띪시며

7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원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8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9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11 주의 은택으로 년사에 판 쇠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쁨이 떨어지며

12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띪을 띪었나이다

13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1. ㉠ 본시(本詩)에서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 (1) 본시는 다윗이 지은 감사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의 크심과 인류와 온 땅에 풍성함을 주시는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

(2)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구속자, 창조주, 공급자로 묘사하였다.

(3) 특별히 다윗은 일반 은총도 직접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본시에서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분임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한 것이다.

(4)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체취를 느끼며 평범한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2. ㉠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1) 이 말은 지정된 시간에 찬송을 부르기 위해 밤 동안 성전에 머물러 있던 레위인들의 마음 상태를 빌어 온 표현이다(참조, 134:1, 2).

(2) 즉 이 말은 시온,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3) 우리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곧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된다.

3. ㉠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1) 다윗은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로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

(2)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도의 진실한 간구를 지나쳐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된다(참조, 마 7:7-11).

- (3) 예수께서도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실 것이며 또한 기쁨도 제공하실 것이라고 하셨다(요 16:24).
- (4)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육체'에게 개방된 것이다(요 14:13, 14).

4. **㉠**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이 말은 자신이 지은 죄가 힘겹도록 무겁다는 말이다. 즉 죄의 포로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자유인답게 활동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 (2) 이것은 물론 다윗이 밧세바 사건(참조, 삼하 11:12)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은 때의 고백이라 할 수 있다(참조, 51:1-5).
- (3) 그런데 그는 자신이 철두 철미한 죄인임을 자각한 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였다(참조, 눅 15:17-19).
- (4)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요일 1:9).

5. **㉠**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는가? (4절)

- ㉠** (1) 다윗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있는 자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주께서 택하신'자는 아론 자손(레 8:2)이나 레위 자손(민 18:21-23)처럼 특별한 기능을 맡은 자가 아닌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모든 자를 가리킨다(참조, 신 7:6).
- (3)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배제된 것이다.
- (4) 결국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뛰어 넘고 그분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의미이다(참조, 제 3:20).

6. **㉠** 다윗과 그 무리들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는다고 하였는가? (4절)

- ㉠** (1) 다윗과 그 무리들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을 얻는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성전의 외형적인 미(美)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전이 가져다 주는 신령한 은혜를 가리킨다.
- (3) 즉 성전은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함이 깃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곳이 은혜롭고 만족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다윗과 그 무리들이 만족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 수 있다.
- (5) 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주의 백성이다(참조, 16:2, 5).

7. **㉠**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5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라고 묘사하였다.
- (2)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온 세계의 왕이시요 구주이심을 명확히 하였다.
- (3) 다윗의 이러한 신앙관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으로써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참조, 요 3:16).
- (4) 결국 이러한 신앙은 온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만들며 더 나아가 선교의 필연성(必然性)을 느끼게 만든다.

8. **㉠**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였는가? (6, 7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며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환화(喧譁)까지 진정시키신다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은 자연계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관리해 나가시는 창조주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다(참조, 36:6;93:1;사 51:10;마 8:26, 27).
- (3)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마저 통괄하시는 인류의 주인임을 밝혀셨다. 사실 인간도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지배를 받는 피조물이다.
- (4) 이상과 같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 운행이 그분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어 간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땅히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으셔야 만 한다(참조, 145:10).

9. ㉠ '땅 끝에 거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8절)

- ㉠ (1) '땅 끝에 거하는 자'란 세상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킨다.
- (2) 다윗은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활동하시는 표적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석진 곳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
- (4)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신 4:19).

10. ㉠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8절)

- ㉠ (1)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 뜨는 곳과 해지는 곳에서도 즐거워한다'는 의미이다.
- (2) 즉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 (3)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내에서만 영광받으실 분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온 인류에게서 찬양받으실 만유(萬有)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
- (4)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나 사상이 달라짐을 알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 ㉠ '하나님의 강'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9절)

- ㉠ (1) '하나님의 강'이란 하나님의 근원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저장해 두시는 곳으로 여겨지는 구름과 대기권을 가리킨다.
- (2)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장해 두신 물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어 인간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하신다.
- (3) 사실 겨울 한 철(11-2월) 동안에 내리는 비로 1년을 지내야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비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진다.
- (4) 만약 그 땅에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공급되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해 버릴 것이다.
- (5)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막과 같이 변해 버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단비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12. ㉠ 다윗은 땅 자체에 유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10절)

- ㉠ (1) 다윗은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라고 묘사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비를 땅에 공급하셔서 땅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신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칠고 매마른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도 때를 따라 흡족한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평온하게 만드신다(참조, 절 34:26).
- (4)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요 14:27).

13. ㉠ '년사(年事)에 관 씌우시니'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1, 12절)

- ㉠ (1) 이 말은 온 누리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가을철의 아름다움을 뜻한다.
- (2) 다윗은 이러한 풍성함을 자연계가 창출해 내는 단순한 귀결(歸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택(恩澤)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 (3) 더우기 그는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라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당신의 자비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 (4) 즉 하나님께서 산과 들 그리고 모든 땅의 푸르름과 더불어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셨다고 했다.
- (5)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푸르름과 풍요로움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창 1:29, 30).

14. ㉠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응답하고 있는 산과 들 그리고 곡식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3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응답하고 있는 피조물의 모습에 대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라고 묘사하였다.
- (2) 이것은 자연을 의인화(擬人化)한 표현으로(참조, 사 14:8; 35:1; 55:12) 신앙인의 관점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말이다.
- (3) 이처럼 참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 (4) 이 같은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출발한 것이다(참조, 롬 11:36).

연구자료

언약적 축복으로서의 아침과 저녁. 본시에 나타난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라는 귀절은(8절) 창 8:22의 내용과 관계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거로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것과 '무지개'(9:13)를 제시하셨다. 따라서 본시에서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러한 언약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기뻐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즉 파종과 추수가 가능하고 계절이 순환되며 아침과 저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오늘날도 이 언약이 준수되어 오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심코 보내기 쉬운 하루하루와 계절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 같은 언약을 계속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제 66 편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단락구분 1-4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유하다 / 5-7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 8-12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 13-15 서원을 갚겠습니다 / 16-20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다

1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
어다

2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
할지어다

3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
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
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4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셀라)

5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6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
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
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7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셀라)

8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9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
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 하나님이며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
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11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

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12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
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3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
의 서원을 갚으리니

14 이는 내 입술이 발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나이다

15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
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
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17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
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
지 아니하시리라

19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
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
지도 아니하셨도다

1. ㉠ 본시(本詩)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한 후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본시의 지은이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다윗이 지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2) 여하튼 시인은 자신이 국가의 대표자로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밝히고 있다.
- (3) 특히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환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환난이 이스라엘을 침몰시키기 보다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하였다고 역설하였다.
- (4) 이처럼 불신자(不信者)들은 환난을 무의미하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여기나 성도들은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참조, 약 1:2-4).

2. ㉡ '온 땅'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1절)

- ㉡ (1) '온 땅'이란 온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가진 모든 영혼을 가

리킨다(참조, 150:6).

- (2)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
- (3)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 본연(本然)의 위치를 떠난 자는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한 인류를 고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막혔던 입을 열어 주셨다(참조, 마 9:12).
- (5)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본래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 것이다(참조, 빌 2:11).

3. **㉠**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2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명예에 적합하게 찬양하라는 의미이다.
- (2) 즉 하나님을 단순한 비인격적인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와 창조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인격적인 분으로 알아 거기에 적합한 찬양을 드리라는 뜻이다.
- (3) 성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지 않고 자신의 심적 평안과 성취욕에 의해 찬송하는 것이다.
- (4)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삼가해야 한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와 만족을 허락하실 것이다(참조, 살후 3:16).

4. **㉠**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대해 온 세계는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였는가? (3, 4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대해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했다.
- (2)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굴복시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게 만드신다.
- (3) 더우기 당신의 권능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불러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참조, 출 15:11).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는 곳에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5. **㉠**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셨던 일이 어떻다고 하였는가? (5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셨던 일이 ‘엄위(嚴威)하시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엄위하시다’라는 말은 두렵다 또는 도덕적으로 경외할 만하다는 의미이다.
- (3) 즉 죄악된 인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다.
- (4) 이처럼 인간은 지고(至高)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어느 정도 누추한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얼마 만큼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 (5)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 할 수 있다.

6. **㉠** 시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간주되는 것은 어떤 사건인가? (6절)

- ㉠** (1)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간주되는 것은 출애굽 때에 홍해를 통과한 사건이다(참조, 18:15-19; 74:13-15; 77:16-20).
- (2)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기쁨과 완전한 자유를 뜻하는 것이었다(출 15:1-21).
- (3) 반면에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두렵게 기억되는 사건이다(참조, 출 14:28).
- (4)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감격을 제공하며 불신자에게는 죽음과 공포를 안겨 주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7. **㉠**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7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治理)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鑑察)’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2) 즉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통치가 영원까지 계속되며 또한 세상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을 당신께서 지켜 보시기 때문에 악인은 자고(自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였다.
 (3) 악인들은 순간적인 자기 만족과 성취감에 빠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무시할 때가 많다.
 (4)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하여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며 공의로우신 판단을 실시하신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기 있게 만든다.
8. **㉠** 시인은 무엇 때문에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였는가? (8, 9절)
- ㉠** (1) 시인은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主)’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였다.
 (2) 시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 되었던 것과 같은 시련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승리와 환희를 맛보면서 지내 온 날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였다.
 (3) 이스라엘의 전역사를 살펴보면 죄와 고난 그리고 구원이라는 하나의 큰 획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험한 곳이나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영원한 안전을 허락하신다(참조, 출 19:4).
9. **㉠** 시인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시련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0-12절)
- ㉠** (1) 시인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시련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순수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조성하신 당신의 사랑이라고 하였다.
 (2) 고대 전승(傳承)에 의하면 은은 순수하다고 인정되기 전에 오랜 연단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시련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다양한 것이었다.
 (3)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4)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은 교회를 정결케 만들고, 성도를 온전한 인격으로 육성한다(참조, 단 11:35; 약 1:2-4; 계 2:10).
10. **㉠** ‘풍부한 곳’이란 어떤 곳을 가리키는가? (12절)
- ㉠** (1) ‘풍부한 곳’이란 원기를 돋구는 곳, 풍부한 위로가 있는 곳 또는 자유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참조, 23:4; 렘 31:25).
 (2) 즉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차지하게 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
 (3)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셨지만 그곳을 통과한 후에는 이러한 험과 풍요가 있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4) 따라서 출애굽의 여정과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록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미래에 주어질 ‘풍부한 곳’을 바라보고 견뎌 나가야 할 것이다.
 (5) 이러한 삶의 태도는 현세를 회피하는 염세주의적(厭世主義的) 사고(思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온 것이다(참조, 히 11:6).
11. **㉠** 시인은 하나님께 행한 서원(誓願)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3-15절)
- ㉠** (1) 시인은 서원에 대해서 ‘이는 내 입술이 발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2)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서원은 개인이 고통을 당할 때에 주로 이루어진다(참조, 사 11:30, 31; 삼상 1:11).

- (3) 이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은 그 개인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든다.
- (4)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한 서원이 환난이 끝나면 잊혀지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저질러지는 실수이다.
- (5) 그러나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원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꼭 이루고야 만다(참조, 15:4; 전 15:4-6).

12. **㉠** 시인은 서원을 갚는 예식 중에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였는가? (15절)

- ㉠** (1) 시인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겠다고 하였다.
- (2) 그런데 그 당시 드리었던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참조, 엡 5:2).
- (3)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물의 풍성함이라기 보다는 그 제물에 결들여 있는 제사자의 마음과 신앙임을 알 수 있다.
- (4) 이와 같은 사실은 희생 제물에 있어서 그 피와 기름을 가장 중요시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피와 기름은 생명의 핵심이다(레 17:11).
- (5) 그러므로 서원을 갚는 예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그 서원의 이행(履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3. **㉠**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6절)

- ㉠** (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란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가리킨다.
- (2)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 (3) 그런데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죄의식이나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공포감이 아니다.
- (4) 이것은 종교적인 두려움으로서 상대방의 인격을 대단히 존중한 나머지 우러나오게 되는 경외심을 의미한다.
- (5) 만약 하나님을 믿노라고 떠벌이면서 그분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임에 분명하다(참조, 함 2:20).

14. **㉠**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은 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7절)

- ㉠** (1) 시인은 은혜받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또한 그 험로 높이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2)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참조, 마 7:7-11).
- (3) 더우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격려하시고 소망과 믿음을 간직하게 하신 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이다.

15. **㉠**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였는가? (1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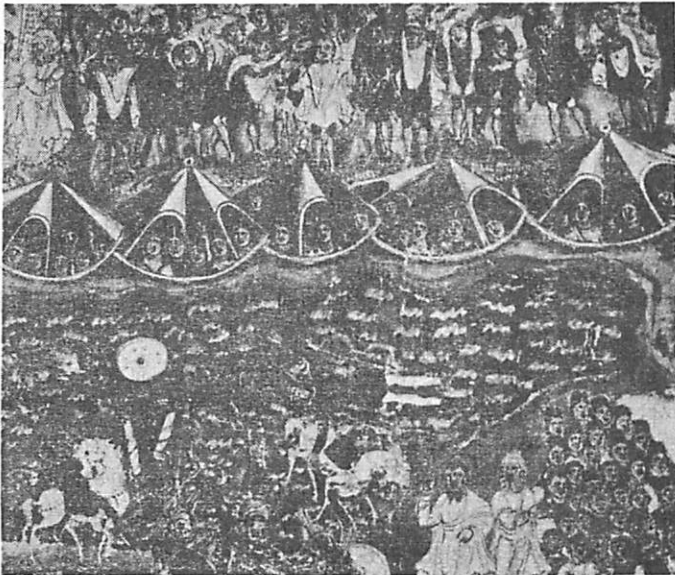
- ㉠** (1) 인간이 마음에 죄악을 품은 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죄악을 품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범죄하고 싶은 욕망에 못 이겨 범죄할 기회를 노린다는 의미이다.
- (3) 이처럼 죄는 기도자의 자격을 상실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를 유발한다.
- (4) 즉 죄를 마음에 품고 다니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자는 자신의 외적 행위가 정결해야 될 뿐 아니라(참조, 마 5:23, 24) 내적인 상태까지 정결하여 범죄의 가능성과 경향성을 모두 제거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5:8).

16. ㉠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19, 20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라고 표현하였다.
- (2) 즉 그는 자신의 삶을 둘러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결코 들어주실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부패한 존재임을 발견하였다(5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쁨의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날마다 그의 영혼을 위해 은혜를 공급하시며 은총을 덧입히신다는 사실을 확증시키셨던 것이다.
- (4)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은혜입은 심령이 마땅히 행할 바이다.

화보자료

홍해의 이적. 아래의 사진은 7세기경의 모세 오경 사본의 삽화로서 현재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그림은 출 14, 15장의 내용을 표현한 것인데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연 중에 잘 나타나 있다.



본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애굽하던 당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건(출 14:21-31)이 기록되어 있다(6절). 이로써 본시의 기자는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것이다.

제 67 편 만방에 알릴 주의 근원

단학구분 1-3 이스라엘에 번영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 4-5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 6-7 하나님 나라의 확장

1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셀라)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3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4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

리하실 것임이니이다(셀라)
 5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6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1. ◎ 본시(本詩)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소원하는 탄원시이다.
 (2) 특히 본시는 이스라엘을 열방에 대한 대제사장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3) 즉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삼아 온 세계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다.
 (4) 더우기 본시는 신약 교회의 영광스런 상태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할 것이다.
 (5) 그러므로 본시는 오늘날의 교회에게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를 하도록 비전을 제공한다.

2. ◎ '우리'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절)

- Ⓐ (1) '우리'란 2절의 '만방'과 상반되는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2)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배타적(排他的)인 의미에서 사용된 표현은 아니다.
 (3) 왜냐하면 이 '우리'는 결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단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는 그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항상 활동해야 할 것이다.

3. ◎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란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이것은 완전하고도 충분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말이다.
 (2) 특히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축복의 형태를 따른 것으로 영혼의 평안을 소원하는 말이다(참조, 민 6:22-26).
 (3) 사실 하나님의 얼굴 빛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과 평안을 상징하는 단어이다(참조, 80:7, 19).
 (4)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기 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사 40:31).

4. ◎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과 이스라엘 위에 복을 내려 달라고 호소한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그 이유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번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땅

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여기서 '주의 도(道)'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과 번영을 허락하심으로써 열방은 그것을 목격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 백성을 위해 복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며 끝내 그것을 목격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참조, 슄8:23).
- (5)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참조, 마 6:9, 10, 33).

5. **㉠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누가 되기를 소원하였는가? (3절)**

- ㉠** (1) 시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였다.
- (2) 이러한 소원은 모든 인류가 음악적인 소양을 지니게 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 (3)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고 마음이 변화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 (4) 구원의 은총을 덧입지 못한 자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 자신과 우상을 찬양하는 것일 뿐이다(참조, 단 5:4).

6. **㉠ 열방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열방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완전한 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절대적인 공평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결국 사단의 노예였던 이방인들이 더 이상 악한 세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사랑에 찬 통치 아래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 (4) 이와 같이 사단의 지배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구원과 안전을 부여받고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뿐임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찬송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7. **㉠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6절)**

- ㉠** (1) 이 말은 영적으로 풍부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낸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레 26:4).
- (2) 즉 이러한 표현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그러므로 소산의 증가란 곧 의인의 수확이 증가될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4) 한편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 땅에 풍부한 영적 소산이 많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마 28:19, 20).
- (5) 이런 이유에서 이 땅에 소산을 많이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구원얻는 백성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공동 작업임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참조, 고전 3:9).

8. **㉠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복을 주시면 어떤 결과가 따른다고 했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위에 복을 주시면 자연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히시면 언젠가는 온 땅이 마치 물이 바다를 다 덮는 것과 같이 주를 알고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참조, 사 11:10, 11).
- (3) 이런 일이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들만이 소유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골고루 전달해야 한다.

- (4)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뱀전 2:9). 즉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 (5)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들도 단순히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 (6) 더우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소유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참조, 창 12:2, 3).

연구자료

예배용 음악의 내용

예배용 음악이란 교회 음악을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 가운데 한 부분이다. 예배용 음악은 주악과 성가대의 찬양과 회중 찬송으로 구분된다.

1. 주악

예배의 처음과 끝, 또는 필요한 때에 악기로 연주되는데 보통 전주, 간주, 후주로 나뉜다.

(1) 전주(Prelude) : 예배를 시작하기 약 10분 전쯤의 시간에 교인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엄숙하고 신앙적인 곡을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주(Interlude) : 성찬식이나 헌금할 때 등의 예배 중간에 연주하는 것이다.

(3) 후주(Postlude) : 예배가 끝난 후 회중이 나갈 때에 기쁨과 승리의 느낌을 주는 장엄한 곡을 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성가대의 찬양

(1) 입례송(Introit) :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사랑을 찬양하며 회중들의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첫 송영이라고도 한다.

(2) 기도송(Response to prayer) : 대표 기도에 대한 응답송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다.

(3) 찬양(Anthem) : 성가대의 음악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서 보통 오르간이나 피아노로 반주한다.

(4) 축도송(Benediction) : 축도가 끝난 후 이에 화답하는 음악으로서 보통은 아멘송이 사용되지만 성삼위를 찬양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복이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곡도 쓰인다.

3. 회중 찬송

회중 찬송은 종교 개혁 이후부터 대두되었는데 이는 예배하러 모인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가리킨다.

이상과 같은 예배용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므로 바른 자세로, 정확한 곡조로, 알맞은 속도와 크기로, 그리고 반주에 잘 맞추어서 하나님을 목상하면서 불러야 할 것이다.

제 68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단락구분 1-6 의인을 들보시는 하나님 / 7-10 광야 유랑 생활과 가나안 정적을 주관하신 하나님 / 11-18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신 하나님 / 19-23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 24-27 성소(聖所)에 행차하시는 하나님 / 28-35 승리에 대한 예언적 선포

1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흠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2 연기가 물려갈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3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이다
 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하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이다
 5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 내사 형통케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7 하나님이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셀라)
 8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 하였나이다
 9 하나님이어 흠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였고
 10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1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12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13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14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흠으실 때에는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15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어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16 너희 높은 산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

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17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 사 땅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21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2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23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24 하나님이어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25 소고 치는 동녀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26 이스라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이다
 27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나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28 네 하나님께서 네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29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30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밭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흠으셨도다
 31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32 땅의 열방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이다(셀라)

33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

도다
 35 하나님이며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1. **㉠** 본시(本詩)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신앙시이다.
 (2) 그런데 본시의 배경에 대해서 혹자는 다윗이 법궤를 오벨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갈 때(참조, 삼하6:2-18)로 보고 또 다른 사람은 다윗이 아람과 압몬 족속을 정복했을 때(참조, 삼하10, 11장)라고도 한다.
 (3) 어쨌든 본시는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담고 있다.
 (4) 이러한 신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용기를 준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힘이 약한 것을 문제시하지 말고 우리를 어떤 세력 앞에서 도 굴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1:27).

2. **㉠**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였는가? (1, 2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던 자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게 되며 또한 악인이 그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2) 이것은 의(義)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성을 강조한 말로서 옛날 법궤가 광야에서 진행할 때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와 흡사하다(참조, 민10:35).
 (3)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득세를 오랫동안 묵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그의 적대자들을 연기가 사라지듯 망하게 하실 것이다(참조, 22:14; 97:5).
 (4) 이러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은 악인에게는 공포를 일으키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안겨다 준다(참조, 살후1:8; 벴후3:7).

3. **㉠**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의인은 어떤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 한다고 하였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게 되면 악인은 멸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즐거움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심판의 이중성(二重性)을 보여 준다.
 (3) 즉 악인이 파멸될 때 의인은 구출을 받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게 된다(참조, 52:6; 58:10; 64:7-10).
 (4)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으로 유일한 소망을 삼는 것이 마땅하다.

4. **㉠**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4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이다.
 (2) 즉 죄인의 구체적 세력인 애굽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말을 타고 호령하는 왕처럼 그들 앞에서 광야를 가로질러 가셨던 것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참조, 신20:1-4).
 (4) 이와 같은 사실은 광야처럼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법을 제공해 주는 귀한 진리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5. **㉠**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4절)

- ㉠** (1)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 (2) '여호와'란 말은 단순히 <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지존자, 영원한 자를 뜻하는 <예호와>의 단축형이다(참조, 출15:2).
- (3)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힌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품격과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더 깊고 넓은 인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그 개인의 신앙 상태와 성숙도를 알 수 있다.

6. **㉠** '거룩한 처소'란 어디를 가리키는가? (5절)

- ㉠** (1) '거룩한 처소'란 이 땅에 존재하는 장막이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 즉 하늘을 가리킨다.
- (2)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참조, 사1:17).
- (3) 이처럼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된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은 권력과 부를 지닌 자들에게 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참조, 출22:22-24; 신10:18).
- (5)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이다(참조, 약1:27).

7. **㉠** 다윗은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6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 '고독한 자로 가속(家屬)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囚禁)된 자를 이끌어 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란 하나님께서 버림 받고 방탕하는 자들을 평화와 보호가 약속된 가정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한다.
- (3)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착을 허락하셨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 (4) 그리고 '수금된 자로 형통케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압박하는 폭군과 적대자로부터 영적인 의미로는 그들 자신의 정욕과 죄로부터 구출해 내신다는 의미이다(참조, 146:7).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자유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만드신다.

8. **㉠** '거역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6절)

- ㉠** (1)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를 가리킨다.
- (2) 사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써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박탈당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기름진 땅에 거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메마른 땅'에 불과하다(참조, 민14:29-35).
- (3) 여기서 '메마른 땅'이란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광야를 가리킨다. 한편 이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참조, 히3:17-19).
- (4) 진정한 풍요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반역죄를 회개하고 그분과의 긴밀한 교제를 시작해야 한다(참조, 제3:20).

9. **㉠** 다윗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친히 그들 앞에 서서서 광야를 행진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였다고 했는가? (7, 8절)

- ㉠** (1)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 하였다(참조, 사5:4, 5).

- (2) 이처럼 자연계의 변화와 진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준다(참조, 출19:16-18; 신 5:22, 23).
- (3)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은 이웃 나라들에게는 두려움과 위압감을 조성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를 믿고 의지하도록 격려했을 것이다.
- (4) 오늘날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천개되는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륜(經綸)과 위엄이 있음을 발견한다.

10. **㉠** '주의 산업'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9, 10절)

- ㉠** (1) '주의 산업'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 (2)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말할 수 없이 피곤한 생활을 하였다.
 - (3)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었다. 즉 그들은 육신적인 고통과 자연에서 얻어지는 고난을 안고 생활했던 것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흠족한 비', 즉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물, 대적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 등을 허락하셨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아서는 풍족하지 못할 것 같고 고난 중에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로 영육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간다.

11. **㉠** 출애굽 행군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주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11절)

- ㉠** (1) 주께서 주신 말씀은 당신의 능력과 지혜가 합쳐져 있는 것이다(참조, 합3:9).
- (2)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장애물(애굽, 광야, 내분 등)을 극복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 들어 있는 말씀이다.
 - (3) 이러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현실의 삶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가나안에 안착할 수 있었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이 비록 장애에 성취될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현실의 문제임을 믿고 담대히 행동한다(참조, 히11:1, 2).

12. **㉠** '여러 군대의 왕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2절)

- ㉠** (1) '여러 군대의 왕들'이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에 패주시켰던 왕들을 가리킨다(참조, 수 18:19-22; 사 3:10, 29; 4:14-16; 7:19-25; 삼상 7:10, 11).
- (2) 그런데 그들을 도망하게 한 세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배후에서 섭리하시던 하나님이었다.
 - (3)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방금 끝내고 별 준비 없이 가나안으로 진입했을 뿐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매우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를 무찌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주시고 많은 전리품(戰利品)을 얻게 하셨다.
 - (5) 이와 같이 최악의 세력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 세력을 무찌르고 당신의 백성에게 안전한 처소를 제공하신다.
 - (6)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악의 세력에 승리하느냐 못 하느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

13. **㉠**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13절)

- ㉠** (1) 다윗은 변화된 이스라엘을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2)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광야에 있었을 때는 '양우리'와 같이 더럽고 추한 형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비천한 존재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현재 삶이 역경과 비천함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담대히 이겨 나가야 한다.

14. **㉠**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왕을 홀으시는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14절)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왕을 홀으시는 모습이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라고 하였다.

(2) 여기서 '살몬'은 요단 동편 바산에 위치한 살몬 산을 가리키는 말로 이 산에는 종종 눈이 내리곤 하였다.

(3) 그리고 '눈이 날림 같도다'라는 말은 눈이 오는 것 같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께서 열왕을 홀으실 때는 이 땅에 눈이 와서 덮임 같이 온 땅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칼을 드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징벌하실 것이며 또한 당신의 거룩함으로 이 땅을 덮으실 것이다.

15. **㉠** 다윗은 바산의 산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가? (15절)

㉠ (1) 다윗은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며 '높은 산'이라고 하였다.

(2) 여기 말하는 '바산의 산'은 아마도 약 2,730m의 헤르몬 산을 가리키는 듯하다.

(3) 이것은 요단 강 동편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을 뜻한다. 즉 장엄한 이 산은 세상의 세력, 특히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를 비유한다.

(4) 그런데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한 이유는 이 산의 웅장함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5) 즉 이 산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능력을 보여 줄 만큼 웅장하고 높은 산이란 말이다.

16. **㉠**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16절)

㉠ (1)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시온 산을 가리킨다.

(2) 이 산은 세상의 다른 산보다 높거나 뛰어나지 못하다. 더우기 목초지로서도 적당하지 못하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임재의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해 택하신 산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산보다도 탁월하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그 피조물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개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 삶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는 자는 비록 과거에 그가 비천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비천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17. **㉠** 다윗은 시온 산이 영광스럽고 장엄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7절)

㉠ (1) 다윗은 시온 산이 영광스럽고 장엄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중에 계심이 시온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라고 하였다.

(2) 즉 하나님은 시온 산에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실제로 무수한 하늘의 군사를 거느리고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은 영광스럽고 장엄한 것이다.

(3)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하심은 오늘날 성도 개개인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임재해 계시며 당신의 군대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3:16).

18. **㉠** 주께서 오르신 '높은 곳'은 어디인가? (18절)

- A** (1) 주께서 오르신 '높은 곳'은 시온 산 성소를 말한다(참조, 삼하 6:12-19; 대상 15:11-28).
 (2) 이곳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실 곳을 예표하고 있다(참조, 엡 4:8).
 (3) 그런데 당신께서는 이곳에 오르시면서 영적인 원수들을 완전한 포로로 삼으시고 그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가지고 오르실 것이다(참조, 삼하 8:2; 왕상 4:21).
 (4)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굴복하고 복종한 뒤에 당신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당신의 처소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참조, 요 14:2, 3).
 (5)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다.
- 19. Q**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였는가? (19절)
A (1)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다.
 (2) 즉 당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영원한 사랑과 구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다.
 (3)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4:10).
 (4) 만약 우리가 이러한 찬송 생활을 게을리 한다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 20. Q**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 하였는가? (20절)
A (1)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였다.
 (2) 즉 추상적인 의미에서만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지로 그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다.
 (3)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가장 안전한 도피적인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4) 이러한 구원 행위는 우리들의 선행이나 생래적(生來的)인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조건적인 긍휼에서 기인한 것이다(참조, 고후 1:10).
- 21. Q**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 (21절)
A (1)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사단, 곧 옛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며(창 3:15) 당신의 구원을 인정치 않는 나라의 권세자들과 당신의 왕권에 대해 도전하는 자를 파멸시키실 것이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떤 타협이나 조건이 전혀 필요 없는 원칙적이며 절대적이다.
 (4)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다.
- 22. Q**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인의 '정수리'를 치시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A (1) 먼저 '정수리'란 문자적으로 머리카락이 붙은 정수리라는 의미이다.
 (2) 이것은 정수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길다랗게 땅아내려서 자신이 무사(武士)라는 사실을 자랑하던 아랍 사람들의 풍습에 근거한 표현이다.
 (3) 그러므로 이 문구는 이 같은 풍습에 근거를 두고 악인의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4) 하나님은 이런 이유에서 '정수리', 곧 악인의 가장 교만한 것을 파멸시키고자 한 것이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파멸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참조, 잠 8:13; 16:5, 18).
- 23. Q** 하나님께서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실 사람은 누구인가? (22절)
A (1) 하나님께서 바산과 바다 깊은 데서 돌아오게 하실 사람은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

들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비록 산중에 숨고 바다 밑에 숨었다 할 지라도 찾아내시어 그들을 철저히 보복하실 것이다.
- (3) 다윗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손길에 대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139:8) 라고 하였다.
- (4) 이처럼 인간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철저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을 뿐더러 그분의 심판도 피할 수도 없다(참조, 암2:13-16).

24. **㉠**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했는가? (23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 주심에 대해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 (2) 이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계 14:20).
- (3)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죄악이 무죄한 자를 단순히 괴롭히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피를 흘리게 만들며 끝내 죽음을 안겨 줄 정도로 극악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징벌도 극도에 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4)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결국 당신의 백성에게 평안과 자유를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한다.

25. **㉠** 다윗은 누가 성소(聖所)에 행차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가? (24절)

- ㉠** (1)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 (2) 즉 지금 가나안 정복 사업을 모두 마치고 악을 파멸시키신 그분께서 이제는 안식하시기 위해 시온 산으로 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 (3) 그런데 시온 산으로 오르는 하나님이 단순히 승리자로서가 아니라 다윗 자신의 하나님 이요 왕이시라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자신을 사랑하며 위하는 일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더 이상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요 왕이심을 깨닫게 된다.

26. **㉠**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오르실 때 그 주변의 모습은 어떻다고 하였는가? (25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오르실 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제가 시온으로 옮겨질 때 '소고치는 동녀(童女)중에 가객(歌客)은 앞서고 악사(樂師)는 뒤따른다'고 하였다(참조, 삼하6:15).
- (2) 여기서 소고를 치는 처녀들은 합창단이나 악기 연주자들과 혼합되지 않았고 단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 따름이었다(참조, 출15:20; 사11:34).
- (3) 즉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였다.

27. **㉠** '이스라엘의 근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6절)

- ㉠** (1) '이스라엘의 근원'이란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발생시킨 조상들을 가리킨다(참조, 사 48:1; 51:1).
- (2) 이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사사(士師)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헌신했던 자들이다(참조, 사 5:9).
- (3) 이렇게 충성된 조상들에게서 난 후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 (4) 흔히 사람들은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직책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만을 생각하고 그들이 감당한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는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28. **㉠** 다윗은 찬양하는 무리 중에 어떤 지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가? (27절)
- ㉠** (1) 다윗은 찬양하는 무리 중에 '작은 베나민과 유다와 스블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스블론과 납달리는 북쪽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유다와 베나민도 남쪽의 주요한 지파이다(참조, 사 4:6, 10; 5:18).
- (3) 이처럼 남북 각 두 지파를 언급한 이유는 찬양하는 무리 중에 네 지파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온 지파의 대표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다(참조, 150:6).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9. **㉠** '네 힘을 명하셨도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8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주심으로 인해 그들이 모든 대적들을 막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 (2)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승리가 자기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임을 안다(참조, 빌 4:13).
- (3) 더우기 그는 현재의 승리에 도취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 (4) 그리고 끝내 그러한 도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소원하였다.
30. **㉠**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견고케 하시면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였는가? (29절)
- ㉠** (1)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견고케 하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하였다.
- (2) 이러한 예언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두드러지게 성취되었다(참조, 대하 9:1-12).
- (3)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게 될 사실도 예표한다(빌 2:10, 11).
- (4) 즉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개종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에 대한 예언이다(참조, 엡 3:6).
31. **㉠** 다윗은 이방 나라의 멸망을 어떤 말로 호소하였는가? (30절)
- ㉠** (1) 다윗은 이방 나라의 멸망을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라는 말로 호소하였다.
- (2) 여기서 '갈밭의 들짐승', 즉 하마, 악어 등은 애굽 제국을 상징한다(참조, 74:13; 사 36:6; 절 29:3).
- (3) 그리고 '수소의 무리'는 다른 이방 세력을 가리킨다. 특히 앗시리아는 사람의 머리와 날개 달린 수소로 알려져 있다.
- (4) 또한 '만민의 송아지'는 수소나 들짐승보다 더 악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반 백성들을 가리킨다.
- (5) 마지막으로 '은 조각'은 이방 나라의 궁성에 화려하게 치장한 마루 바닥을 가리킨다.
- (6) 이들은 모두 전쟁을 즐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실현될 때 모두 멸망되고 말 것이다(참조, 사 35장).
32. **㉠** 다윗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예언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31절)
- ㉠** (1) 다윗은 이방의 도움 요청에 대한 예언으로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리다' 라고 표현하였다.
- (2) 여기서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라는 말은 애굽에서 사신(使臣)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말한 것이다(참조, 사 43:3; 45:14).

(3) 그리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라는 말은 구스가 외적의 침입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에 원조를 부탁할 것이라는 말이다(참조, 대하 14:9).

(4)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막강한 국방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로부터 도움을 호소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33. Q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란 무슨 뜻인가? (33절)

A (1)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역사와 우주 위에 군림하고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자란 뜻이다.

(2) 그는 하늘에서부터 이 낮은 세상에 그의 권능과 선하심을 행사하신다.

(3) 특히 하나님은 ‘웅장한 소리’ 로서 당신의 의지를 이 땅에 전달하신다(출 19:16-19).

(4) 이 ‘웅장한 소리’ 는 오늘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성도 개개인의 양심을 통하여 아직도 그 ‘웅장한 소리’ 를 발하고 계신다.

34. Q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였는가? (34절)

A (1)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다고 하였다.

(2)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범위를 가르쳐 주는 표현이다.

(3)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신 동시에 당신의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다.

(4)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참조, 요 1:14) 인간 위에 계셔서 역사와 우주를 통괄하는 분이시기도 하다.

35. Q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35절)

A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 을 주신다.

(2) 그러나 허탄하고 거짓된 우상들은 그 숭배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공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그들 자신도 도울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5:1-5).

(3) 이에 비하여 원수들을 무찌른 이스라엘은 모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일과 싸움에 대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참조, 빌 4:13).

(4)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자신의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이다(참조, 대하 20:12).

본장의 요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19절).



제 69 편 역경 중에 구원을 호소하다

답락구분 1-12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다 / 13-18 구원으로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다 / 19-21 주밖에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다 / 22-29 원수들을 징계해 주실 것을 호소하다 / 30-36 혁신과 전승

1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3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4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이 주게 되었나이다

5 하나님이며 나의 우패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6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7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8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10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11 내가 굶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팔거리가 되었나이다

12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13 여호와여 열납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며 많은 인자와 무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4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5 큰 물이 나를 압몰하거나 깊은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16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17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19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20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궁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21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22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덧이 되게 하소서

23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25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26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꺾박하며 주께서 상케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27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8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29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31 이것이 소 곧 뿔과 굵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32 은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

33 여호와와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떨시게 아니하시나니

34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라도

35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니

36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니

1. ㉠ 본시(本詩)와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을 논하라.

- ㉠ (1) 본시는 사람들로부터 가혹한 고난을 받고 있던 다윗의 탄원시로서 부분적으로 그 자신의 죄에 관한 부르짖음이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
- (2)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 상황이 어떻게든 본시는 22, 35, 40편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3) 또한 본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중에 하나이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것으로 유명하다(참조, 요 2:17; 15:25; 19:28; 행 1:16, 20; 롬 15:3).
- (4) 그러므로 본시를 노래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거기에 따르는 수난을 기억해야 하고 동시에 성도의 삶이 고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 2절)

- ㉠ (1)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리고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감당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을 나타내는 말들이다(참조, 18:4; 42:7; 88:7, 17; 124:4, 5; 130:1).
- (3) 특히 ‘수렁’이란 위험과 고난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한 개인을 어려움에 빠뜨려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참조, 40:2).
- (4) 이같이 경건한 사람도 영적인 고통과 절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3. ㉠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3절)

- ㉠ (1)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였다.
- (2) 그는 이처럼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아무런 도움도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 (3) 사실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에게 아무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절망만이 남게 될 것이다. 성도에게는 이런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이다(참조, 사 40:27).
- (4) 그러나 이런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필요한 때이다(참조, 사 40:31).

4. ㉠ 다윗은 자기가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4절)

- ㉠ (1) 다윗은 영적인 고통의 원인에 대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고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꿰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다.
- (2) 사실 인간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이웃에게 미움을 받으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까닭없이 미움을 받을 때는 더욱 견뎌 내기 힘들다.
- (3) 그러나 불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 (4) 오히려 우리는 무죄하신 예수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견뎌 났음을 기억하고 고난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참조, 요 15:25).

5. ㉠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엇을 아신다고 하였는가? (5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우매함’을 아신다고 하였다(참조, 38:5).
- (2) 여기에서 어리석음은 일종의 죄로 취급되고 있다(참조, 잠 14:8, 29; 막 7:22; 롬 1:21, 22).
- (3) 이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기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죄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 (4) 그런 까닭에 그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그 죄의 용서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이다.

(5) 이상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6. **㉠**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곧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는가? (6절)

- ㉠** (1)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에게 수치와 욕을 당케 한다고 보았다.
 (2) 즉 그는 비록 자기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일지라도 자기가 대적들의 손에 넘기워지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 주는 것으로 보았다.
 (3) 이처럼 그는 자신의 패배를 원치 않는 이유를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4)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내용도 우리 자신의 이익에 기본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이익에 관심을 둔 것이어야 할 것이다.

7. **㉠** 다윗은 그가 무엇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쫓겨났다고 하였는가? (7절)

- ㉠** (1)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쫓겨났다고 하였다.
 (2) 즉 다윗의 고난은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 압살롬, 요압 그리고 기타 여러 적대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헌신과 경건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4)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쫓겨나게 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마 5:9-12).

8. **㉠** 다윗은 자기의 형제와 부모의 불친절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8절)

- ㉠** (1) 다윗은 자기의 형제와 부모의 불친절에 대해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묘사하였다.
 (2)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자신의 혈육마저도 자기를 멀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다(참조, 38:11).
 (3) 이러한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하셨다. 즉 그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았을 뿐더러(참조, 요 7:5) 같은 땅에 거하는 동포마저도 영접하지 않았다(참조, 요 1:11).
 (4)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참조, 빌 3:19, 20).

9. **㉠**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9절)

- ㉠** (1) 먼저 그는 시온 산 위에 장막을 세웠다(참조, 삼하 6:12-19).
 (2) 다음으로 법궤를 영구적이고 웅장한 전에 안치하려고 하였다(참조, 132:2-5; 삼하 7:2).
 (3)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 이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집했다(참조, 대상 28:11-18; 29:2-5).
 (4) 마지막으로 그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을 구체적으로 했다(참조, 대상 28:9, 10, 20).
 (5) 이와 같이 그는 왕으로 있던 전기간 동안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을 품었고 또한 그 열심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하였다.
 (6) 이러한 다윗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적절하게 가르치고 있다(참조, 렘 20:9; 23:1-9).

10. **㉠** 곱하고 금식하며 그리고 굶은 배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인가? (10, 11절)

- ㉠** (1) 이러한 행위는 영적인 슬픔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상징적인 것이다(참조, 30:12; 35:13; 109:24; 왕하 12:16, 22).
 (2) 이처럼 다윗은 원수들에게 대하여 조금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자기 자신

을 경계하며 기도하였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의 도전에 대하여 악한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만 자신을 지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참조, 롬 12:17-21).

11. ㉠ '성문에 앉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2절)

- ㉠ (1) '성문에 앉은 자'란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나 재판관들을 가리킨다(참조, 룻 4:11; 삼상 9:18; 삼하 15:2).
- (2)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취한 무리'란 비천한 하류 계층을 의미한다.
- (3) 다윗은 이렇게 지도층 인사나 비천한 자들에게서 모두 회롱을 당하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음을 자행하는 자들에게는 신분이 구별없다. 즉 세속적인 조건이 좋아서 신적인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12. ㉠ '열납(悅納)하시는데'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13절)

- ㉠ (1) 이때는 악인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기에 적절하고 의인의 아픔이 극에 이른 때를 가리킨다.
- (2) 즉 이때만 성도가 악인에게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말한다.
-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고 호소할 때에야 비로소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억울한 피해를 받을 때에 거기에 집착하여 좌절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것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13. ㉠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였는가? (16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많은 공훈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였다.
- (2) 사실 그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4절) 그들이 다윗을 핍박하는 명목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었다(7절).
- (3)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 의(義)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공훈에 호소하였던 것이다.
- (4) 이러한 그의 태도는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요 대변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음을 보여 준다.

14. ㉠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숨기지 말아 달라고 간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17, 18절)

- ㉠ (1)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숨기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참조, 10:1; 13:1; 22:24; 27:9; 민 6:25).
- (2)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 가까이 계셔 줄 것을 간구하였다.
- (3) 이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다.
- (4)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날마다 더 불러 계심을 확증시켜 주신다(참조, 요 14:16, 17, 26).

15. ㉠ '주께서 나의 패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19절)

- ㉠ (1) 이 말은 대적의 손에서 그가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을 의미한다.
- (2) 더우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3) 그래서 그는 담대히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 (4)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그의 모습을 계속 지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5) 이러한 확신은 결국 고난의 해결자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신에게 발생한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 일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된다.

16. **㉠** 다윗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20, 21절)

㉠ (1) 다윗은 자신을 도울 자가 없음에 대해 '급혹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였다.

(2) 이 말은 사랑하는 자기 친척과 동포, 특히 자신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절망적인 상황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마 26:56).

(3) 더우기 사람들이 '쓸개'와 '초'를 먹게 만들었다고 한 것은 다윗의 고통이 극열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마 27:34).

(4)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다윗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로 본다.

17. **㉠** 다윗은 원수를 몰락하도록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22절)

㉠ (1) 다윗은 '저희 앞에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덧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2) 이러한 다윗의 호소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혈기가 아니라 적대자들에게 대한 의로운 분개의 폭발이었다.

(3)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권을 인정치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노였다.

(4)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감정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의 불이익에 대해 분을 낼 줄 알아야 한다.

18. **㉠** 악인의 눈이 어두워지며 그 허리를 떨게 만들어 달라는 다윗의 호소는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23절)

㉠ (1) 악인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 달라는 말은 그들의 이해가 부분적으로 어두운 것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해서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뜻이다.

(2) 그리고 그 허리를 떨게 만들어 달라는 말은 그들이 자랑하는 힘을 박탈하여 기동력이 없게 만들어 달라는 뜻이다.

(3) 다윗이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닌 지혜와 힘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잘못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와 힘을 주신 것이 인간 자신의 악한 계획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19. **㉠**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한 내용은 무엇인가? (25절)

㉠ (1) 다윗은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라는 말로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한 것이다.

(2)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들과 그 땅이 로마 군대에 의해 황폐해질 것을 예언한 기도이다(참조, 미 3:12).

(3) 특히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을 자랑했으나(참조, 마 23:38) 그것마저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4) 더우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시온 산을 멀리한 채 세계 여러 처소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다.

(5)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징계이다(참조, 요 3:36).

20. **㉠** '주의 치신 자를 꺾박하며' 란 무슨 뜻인가? (26절)

- Ⓐ (1)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인간들이 또다시 박해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
 (2)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와 곤핍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제공하신다(참조, 사 42:3).

21. Ⓒ 다윗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7절)

- Ⓐ (1) 다윗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였다.
 (2)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한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인간들에게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특별히 당신의 아들의 희생이 발생하는 의(義)의 영향력을 공급하시려고 하신다(참조, 요일 4:10).
 (4) 그러므로 문제는 항상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혜택을 덧입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참조, 사 59:1, 2).

22. Ⓒ 다윗은 '생명책'에 어떤 사람의 이름만이 기록될 수 있다고 하였는가? (28절)

- Ⓐ (1) 다윗은 의인들의 이름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즉 '생명책'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이름만이 기록될 수 있는데 이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출 32:32; 절 13:9; 단 12:1).
 (3) 그러므로 이 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은 언약의 파기를 뜻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을 의미한다(참조, 출 32:32).
 (4)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이름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으며 당신께서도 그 이름을 영원히 보장하신다(참조, 계 3:5; 21:27).

23. Ⓒ '가난하고 슬프오니'란 말은 무슨 뜻인가? (29절)

- Ⓐ (1) 이 말은 물론 원수들의 변영과 부유함에 비해 자신의 처지가 형편 없음을 뜻한다.
 (2)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는 세상으로 향하던 자신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3) 이처럼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할 수 있다.

24. Ⓒ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하였는가? (30, 31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고 하였다.
 (2) 여기서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로서 합당한 동물을 가리킨다(참조, 레 1:3-9).
 (3) 다윗은 여기서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제사가 의식적인 제사보다 나음을 말하고 있다(참조, 삼상 15:22).
 (4) 그러므로 형식과 화려함만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날의 예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5. Ⓒ '은유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32절)

- Ⓐ (1) '은유한 자'란 고통받는 자, 빈궁한 자를 가리킨다.
 (2) 즉 이들은 다윗과 같이 의로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난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3)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것이다.

(4)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의 유기체적인 공동체임을 시사하는 말이다.

26. **㉠** '궁핍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33절)

- ㉠** (1) '궁핍한 자'는 무엇이 결핍된 자, 특히 감정적으로 부족한 자를 가리킨다.
- (2) 이러한 사람은 예수께서 설교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 (마 5:3)를 의미한다.
- (3) 그러므로 '궁핍한 자'는 종교적, 지적, 사회적으로 가진 것을 자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며 비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기도를 즐겨 들으실 뿐 아니라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참조, 10:17; 149:4).

27. **㉠**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는가? (33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하여 수감(囚禁)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한 채 고난받는 자를 특별한 관심으로 보살피신다고 하셨다.
- (3) 그리고 이런 자들이 교회 역사를 주도해 왔으며 교회를 정화하고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신다(참조, 마 5:10-12).

28. **㉠** 다윗은 누구에게 찬송할 것을 권유하였는가? (34절)

- ㉠** (1) 다윗은 '천지'와 '바다와 그중의 모든 동물'에게 찬송할 것을 권유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무인격체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한 말이다.
- (3) 이처럼 지각 없는 피조물에게조차 찬송할 것을 권유한 이유는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다윗의 이런 권유는 단순한 감정적인 발상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 신앙에 근거한 호소였다.

29. **㉠** 다윗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거하며 또 무엇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가? (35절)

- ㉠** (1) 다윗은 이스라엘이 시온과 유다 성읍들에 거하며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2) 그런데 그들이 거하며 소유하게 될 시온과 유다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건설하신 것이다.
- (3) 그러므로 시온과 유다 성읍들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 (4)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여 교만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축복을 멈추시고 고난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다(참조, 대하 36:14-21).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경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0. **㉠** 시온과 유다 성읍들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36절)

- ㉠** (1) 시온과 유다 성읍들은 '그 종들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상속될 것이다.
- (2)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건설하신 땅은 끊어지지 않는다.
- (3)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며 섬길 후손을 안전케 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기업(시온과 유다 성읍들)을 맡기신다.
- (4)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복음적 교회가 결코 망하는 일없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마 28:18-20).

제 71 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다

단락구분 1-4 구원을 호소하다 / 5-8 체험을 통한 감사와 찬송 / 9-18 노년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마소서 / 19-21 하나님의 의와 그 효력 / 22-24 주의 의와 성실을 찬양하다

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3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4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5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6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불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7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요

8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동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9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10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피하여

11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12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13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1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15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 내가 주 여호와와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17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18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9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20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1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22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24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이다

I ㉠ 본시(本詩)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 ㉠ (1) 본시는 작가 미상의 시로서 전체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시인의 노후(老後)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 (2)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일생 동안의 사랑에 근거하여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 (3) 더우기 그는 하나님의 의(義)와 구원 사역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하였는데 이는 이제껏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였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 번 체험한 사람은 전생애를 통하여 감격에 찬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2. Q 시인은 자기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였는가? (1-4절)

A (1) 시인은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였다.

(2) 즉 그는 하나님께로 피하면 그 안에는 완전한 평화와 안전히 보장됨을 확신하였다.

(3)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풍요함과 그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덧입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3. Q 시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했는가? (2절)

A (1)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義)를 근거로 하여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2)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고 항상 당신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구원하신다.

(3)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에게 누적되어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4. Q '무시(無時)로 피하여 거할 바위'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3절)

A (1)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란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간구하였다.

(2)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의 보호함을 얻는 자는 어떤 적이 침입해도 결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참조, 롬 8:37-39).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 자신의 보호처를 삼지 말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품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한다(17:8).

5. Q '흉악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4절)

A (1) '흉악한 자'란 히브리어 원어로 <호메츠>인데 이는 발효되어 부푸른 자를 의미한다.

(2) 즉 죄로 인해 뿌리부터 부패하여 그 악이 온 전체에 만연한 자를 말한다.

(3) 이 '흉악한 자'의 특징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누룩이 자꾸 부푸러 오르는 것처럼 더 큰 범죄를 생각한다.

(4) 또한 이런 자는 자신만 범죄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온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 교회는 이런 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참조, 딤후 5:20).

6. Q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이 되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5, 6절)

A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모태'에 있던 때와 '어미 배'에 있던 때, 즉 아주 어릴 때에도 자기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소망과 의지가 되시기에 충분하다고 고백했다.

(2)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분께 찬양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에도 돌보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지금에야 더 큰 안전과 위로를 제공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

(3)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단지 과거의 체험으로만 남아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안겨다 주기도 한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솔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곧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참조, 엡 1:3-14).

7. Q 시인은 무리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 하였는가? (7, 8절)

A (1) 시인은 무리들에게 '이상함'이 되었다고 하였다.

(2) 다시 말해서 시인은 자기의 초라한 모습과 거듭되는 환난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서 따돌림과 병신 취급을 당하였다고 했다.

(3)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27:10).

(4)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참조, 고전 15:19).

8. **㉠ 시인은 자신의 노후(老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였는가? (9절)**

- ㉠** (1) 시인은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라고 간구하였다.
- (2) 이러한 그의 간구는 만약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다면 그것은 곧 자기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 (3) 특히 자신의 힘이 쇠하고 무력한 때 하나님의 도움은 더 긴급하게 여겨질 것이다.
- (4)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해 일생을 바친 자들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9. **㉠ 시인은 자기의 원수들이 어떤 말로 공모(共謀)한다고 하였는가? (10-12절)**

- ㉠** (1) 시인은 자기의 원수들이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전질 자가 없다'라는 말로 공모한다고 했다.
- (2)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리신 것 같은 때에 그를 위협하고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였다.
- (3) 이것을 달리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시인과 함께 계셔서 그의 힘이 되셨을 때에는 악인들이 그를 해롭게 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유일한 보호막임을 알 수 있다(참조, 요 16:33).

10. **㉠ 시인은 자신의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떤 호소를 하였는가? (13절)**

- ㉠** (1) 시인은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謀害)하려 하는 자에게는 육과 수육이 덮이게 하소서' 라고 호소하였다.
- (2) 즉 그는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 고발하였던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당신의 공의(公義)에 입각한 심판을 악인에게 베푸실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적대자들에게 직접적인 보복을 퍼붓기 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性品)에 호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참조, 롬 12:19, 20).

11. **㉠ 시인은 자신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겠노라고 하였는가? (14절)**

- ㉠** (1) 시인은 자신의 기쁨을 항상 소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겠다고 했다.
- (2) 이처럼 시인은 원수들이 제아무리 자기를 절망으로 몰아 넣으려고 해도 항상 소망을 품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였다.
- (3)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자들은 이 같은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
- (4) 그리고 그 기쁨의 가장 뛰어난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고 의미 있게 찬양할 것이다.

12. **㉠ 시인은 자신의 입술로 무엇을 전파하겠다고 하였는가? (15절)**

- ㉠** (1) 시인은 '축량할 수 없는 주의 의(義)와 구원'을 전파하겠다고 했다.
- (2) 여기서 '주의 의'란 당신 스스로가 약속에 충실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평화가 깃들도록 하시는 모든 노력들을 가리켜 한 말이다.
- (3)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로운 행위는 곧바로 구원과 연결된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범위가 인간의 상

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다고 하였다.

- (5) 이처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지 감사와 찬양밖에 없을 것이다.

13. **㉠** 시인은 무엇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는가? (16절)

㉠ (1) 시인은 '주 여호와와 능하신 행적(行蹟)'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

(2)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갖게 되리라는 말이다.

(3) 즉 더 이상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생활하겠노란 뜻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결정하지 않고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도록 힘쓴다(참조, 딤후 1:13, 14).

14. **㉠** 시인은 무엇만을 진술(陳述)하겠다고 했는가? (16절)

㉠ (1) 시인은 '주의 의(義)만' 진술하겠다고 했다.

(2) 즉 시인은 자기의 구원과 형통을 자신의 힘과 노력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돌리겠다고 하였다(참조, 20:7; 44:3, 6).

(3) 이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할 참된 성도의 태도이다.

15. **㉠**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제부터 교훈하셨다고 했는가? (17절)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고 했다.

(2) 어려서부터 부모와 교사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교육받는 것은 복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지혜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잠 1:7).

(3) 더우기 어렸을 때 주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은 성장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군으로 사역하게 된다(참조, 딤후 1:5).

(4)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어린 영혼들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16. **㉠** 시인이 늙어서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 (1) 그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심을 후세대(後世代)에까지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2)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볼 때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본시(本詩)의 작가처럼 자신의 사욕(私慾)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전파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눅 22:42).

17. **㉠** 시인은 하나님의 대사(大事)를 찬양하였는데 그 대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19, 20절)

㉠ (1) 그 대사란 과거에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가리킨다.

(2) 즉 이스라엘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을 보이신 사실을 가리킨다(35:10; 89:6, 8).

(3) 때로는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성도들에게조차 크고 위험한 일이 닥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부조화와 불균형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신실한 당신의 종들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활동하셔서 끝내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히게 하신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통의 나날이 거듭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다 아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참조, 50:15).

18. **㉠** '땅 깊은 곳'이란 무엇을 비유한 말인가? (20절)

㉠ (1) '땅 깊은 곳'이란 극심한 불행을 묘사한 하나의 비유이다(참조, 88:6; 130:1).

(2) 또한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묘사한 것이기도 하다(참조, 26:19).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극심한 고난이 되었든 죽음이 되었든지 간에 개의치 않으

시고 성도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4)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서는 사망이나 음부까지도 무력하게 되며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다(참조, 호 13:14).

(5) 이러한 사실은 부활의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제공해 준다(고전 15:15).

19. **㉠**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신 고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이 주어지기를 기대하였는가? (21절)

㉠ (1) 시인은 고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욱 창대(昌大)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대하였다.

(2) 이처럼 시인은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이 결코 자기를 완전히 잠식(蠶食)시켜 버리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였다.

(3)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고난의 통로를 완전히 빠져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공급하신다(참조, 욕 42:12-17).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와 찬송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 5:16-18).

20. **㉠** 시인은 무엇을 찬양하겠다고 하였는가? (22절)

㉠ (1) 시인은 하나님 그 본체와 성실하심을 찬양하겠다고 했다.

(2) 이 찬양은 비파와 수금에 있는 찬양인데 이것은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 바쳐지는 찬양을 가리킨다.

(3) 이러한 찬양은 자신의 기쁨과 환희의 최고조를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절대 헌신을 상징한다(참조, 33:2).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다(고후 1:3, 4).

21. **㉠**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23절)

㉠ (1)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자기 입술이 기뻐 외치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영혼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2) 즉 그는 자기의 입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이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하였다.

(3)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형식적인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중심에서 흘러 나오는 신령한 찬양을 불러야 할 것이다(참조, 엡 5:19).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없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경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이다(사 1:10-14).

22. **㉠**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義)를 전파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였는가? (24절)

㉠ (1) 시인은 하나님의 의가 전파될 때에 자기를 모해(謀害)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구원 행위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는 신앙에 근거하여 한 기대이다(35:4; 40:14; 70:2).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전파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에게도 그 통치의 영향력이 미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4)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전하는 것이 모두 헛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히 11:6).

제 72 편 하나님의 의(義)를 따르는 왕

단락구분 1 이상적(理想的)인 왕의 인격/2-4 공의(公義)를 통치 기준으로 삼은 왕/5-7 진정한 평화의 실현/8-11 의로운 왕이 전세계를 통치하다/12-15 사랑을 베푸는 왕/16-17 의가 실현된 나라/18-19 찬양

1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3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4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5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6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7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한 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8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9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10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11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2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15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16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17 그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18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1. ㉠ 본시(本詩)는 누구에 대한 예언적 노래인가?

- ㉠ (1) 본시는 127편과 함께 솔로몬의 작품으로 인정된다. 그가 본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로 의와 평화가 실현된 나라와 그 통치자이다.
 (2) 즉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통치가 의와 평강과 능력 그리고 자비와 번영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하였다.
 (3) 그런데 본시는 다른 왕적 시편(2, 24, 45편)과 같이 구약의 왕(솔로몬이나 그의 후손)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눅 1:31-33)에게 귀착된 메시아적 시이다.
 (4) 결론 귀절(18, 19절)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짙은 송영으로 되어 있다.

2. ㉠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자신을 포함)을 위해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1절)

- ㉠ (1) 솔로몬은 하나님께 '판단력'을 구하였다.
 (2) 여기서 '판단력'이란 히브리 원어로 (미쉬파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판결 또는 통치권을 가리킨다.
 (3)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판결과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왕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이다(참조, 왕상 3:7-13).

(4)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기준은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며 또한 최선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5) 더우기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통치권을 당신의 뜻에 따라 행사하신다(참조, 롬 13:1-3).

3. **Q**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왕의 아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였는가? (1절)

A (1) 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의' (義)를 달라고 간청하였다.

(2)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준에 맞는 삶을 가리킨다.

(3)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의 통치 원리를 하나님의 '의'에 맞추는 것은 곧 그 나라를 부강케 하는 지름길이다(잠 29:4).

(4) 그러므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통치자는 자신의 사욕(私慾)을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야 한다.

4. **Q** '왕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A (1) '왕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솔로몬의 후손을 가리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豫示)하는 말이다(참조, 2:6, 7).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통치자로서(답후 4:8)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실 것이다.

(4)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통치권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불의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요 5:22).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할 것이다.

5. **Q**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과 의를 소유한 자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가는가? (2, 3절)

A (1)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과 의를 겸비한 자는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여 정의로운 통치를 해나갈 것이다.

(2) 이렇게 의로운 정치가 실현될 때에는 온 땅의 백성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이며 모든 황폐한 곳마저 풍성한 실과를 산출해 내게 될 것이다(참조, 슄 7:7-10).

(3)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권세 없는 서민에게조차 평등하게 대하시며 또한 그 정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4)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며 개인적인 욕망에 집착하는 통치자를 향하여 분을 발하시고 동시에 여러 가지 재난을 내리신다(참조, 왕상 16:30-33; 17:1; 약 5:17).

6. **Q** 의로운 통치자는 누구의 편이 되어 활동하는가? (4절)

A (1) 의로운 통치자는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편이 되어 활동한다. 반면에 백성을 압박하는 자를 징벌한다.

(2) 이처럼 의로운 통치자는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 왜냐하면 의로운 통치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그 나라에 평안이 깃들도록 한다. 왜냐하면 백성을 압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다(출 3:9; 욥 27:13).

(4)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이 이러한 통치 원리를 가지고 행하지 않을 때 당신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게으르고 공정치 못한 그들을 징벌하신다(사 1:23; 렘 5:28; 슄 7:10).

7. **Q** 시인은 의로운 통치의 혜택을 받은 백성들이 그 왕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는가? (5절)

- (A)** (1) 시인은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라고 하였다.
- (2) 즉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로운 통치를 실시하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3)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면 온 국민이 그 지도자의 발자취를 좇아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게 된다.
- (4) 이런 나라야말로 영원히 생존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다(참조, 사 9:7; 계 14:7).

8. Q '저의 날'이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6, 7절)

- (A)** (1) '저의 날'이란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날, 곧 메시아의 날을 가리킨다.
- (2) 이날은 모든 피압제자들과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날로서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이날을 기다리던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기운이 제공될 것이다(참조, 신 32:2; 사 55:10, 11; 호 6:3).
- (3) 그리고 이날이 완전히 찾아들 때에 의인은 넘치는 번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의인을 더 이상 방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비록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있을 번영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한다(참조, 히 12:1-3).

9. Q 시인은 의로운 왕의 통치가 어디에까지 이른다고 하였는가? (8절)

- (A)** (1) 의로운 왕의 통치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 (2)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실과 일치한다(창 15:18).
- (3) 그런데 그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취되었다(왕상 4:21, 24).
- (4)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므로, 그리스도에 의한 통치가 실현되기 전까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11, 17절; 스 9:10).

10. Q '광야에 거하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9절)

- (A)** (1) '광야에 거하는 자'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킨다(74:14; 사 23:13).
- (2) 그런데 이들은 의로운 통치자 앞에서 엎드리며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 (3) 여기서 이들이 엎드리며 티끌을 핥는 것은 그 당시 패전군이 승전군 앞에서 행하던 관습으로서 얼굴을 먼지 속에 파묻고 자기들의 가장 낮춰진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참조, 창 33:3).
- (4) 즉 이것은 완전한 패배의 상징적 표현이다.
- (5) 이처럼 의로운 통치자 곧 메시아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면 메시아를 거부하던 자들과 무관심하던 자들조차도 그분 앞에서 항복하게 될 것이다.

11. Q 시인은 누가 의로운 통치자에게 공세(貢稅)와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가? (10, 11절)

- (A)** (1) 시인은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2) 여기서 다시스는 스페인의 타테수스(Tartessus)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고대 무역의 중심지였다(왕상 10:22; 대하 9:21; 렘 10:9; 겔 27:12). 그리고 섬들이란 일반적으로 지중해의 해안과 섬들을 가리킨다.
- (3) 또한 스바는 아라비아 남동쪽에 있으며 시바는 아프리카 나일 강 중류 지대에 위치하였다(창 10:7; 사 43:3).

- (4) 이러한 지역들에서 공물과 예물이 바쳐졌다는 것은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창했는가를 보여 준다(왕상 4:24; 10:23).
- (5)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주위의 많은 이방인들이 온 인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할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다.

12. **㉠** 의로운 통치자는 어떤 자에게 공물과 자비와 구원을 베푸는가? (12-14절)

- ㉠** (1) 의로운 통치자는 궁핍한 자와 가난하여 도움이 없는 자, 즉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자에게 공물과 자비와 구원을 베푼다.
- (2) 즉 그는 그들 영혼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잔인한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
- (3) 그런데 궁핍한 자와 가난하여 도움이 없는 자들에 대한 사랑은 성취될 메시아 왕국의 주요 관심사였다(참조, 사 11:4; 29:19; 41:17).
- (4) 더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들에 대해 대단한 배려와 은총을 아끼지 않으셨다(마 11:5; 눅 4:18).
- (5) 그러므로 의로운 통치자의 지배를 받고 사는 우리들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요일 4:20, 21).

13. **㉠**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4절)

- ㉠** (1) 이 말은 의로운 통치자가 의인의 생명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뜻이다(참조, 116:15).
- (2)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고난과 죽음까지 당한 영혼들을 당신께서는 소홀히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3)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의 회생에 대해서 반드시 하늘의 상으로 보답하시겠다고 했다(마 5:10-12).
- (4) 이런 이유에서 우리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마 6:25-33).

14. **㉠** 시인은 누가 누구에게 스바의 금을 드릴 것이라고 하였는가? (15절)

- ㉠** (1) 시인은 사람들이 의로운 통치자에게 스바의 금을 드릴 것이라고 하였다(왕상 10:10; 젤 27:22).
- (2) 즉 의로운 통치자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 (3)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통치자가 형통하게 되기 위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4) 이처럼 메시아의 통치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한다.

15. **㉠** 시인은 의로운 통치가 실현된 나라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6절)

- ㉠** (1) 그는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禾穀)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산꼭대기의 땅'이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가리키며 '화곡이 풍성'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번영을 의미한다.
- (3) 즉 비록 쓸모없는 땅에서도 새 생명의 탄생과 더불어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4) 또한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할 것이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계 21:2)의 주민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5) 결국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불모지 같은 이방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며(마 9:37; 요 4:35) 하나님의 교회가 번영하게 되는 것을 예언한

말이다.

16. **㉠** 시인은 의로운 통치자의 이름이 언제까지 기념될 것이라고 믿었는가? (17절)

- ㉠** (1) 시인은 의로운 통치자, 즉 솔로몬과 그 후손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념될 것이라고 믿었다.
 (2) 그런데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사실은 메시아 왕국의 영원성을 예시(豫示)한 것이다(45:2, 6; 사 9:7).
 (3) 또한 이것은 메시아의 영광과 그 사역을 해치려는 흑암 세력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의 영원성을 예시한 것이다(참조, 고전 11:24, 25).
 (4) 마지막으로 이것은 메시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 삶의 터전을 확보한 자들이 영원한 안전을 누리게 되는 근거가 된다.

17. **㉠** 시인은 사람들이 누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가? (17절)

- ㉠** (1) 시인은 사람들이 의로운 통치자로 인하여 복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두셨다(창 22:18).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3) 이와 같은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취되었으나 이것은 육적인 성취일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눅 1:48).
 (4)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 이시다.

18. **㉠**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였는가? (18절)

- ㉠** (1)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홀로 기사(奇事)를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였다.
 (2)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므로 스스로 충족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신다(참조, 출 3:14).
 (3)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속하신 분이시다.
 (4) 하나님의 혼자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86:8, 10; 욥 5:9) 그분께 인간은 단지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이다.

19. **㉠** 시인은 온 땅에 무엇으로 찬탄해지기를 소원하였는가? (19절)

- ㉠** (1) 시인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탄해지기를 소원하였다.
 (2) 사실 인간의 범죄 이후(창 3:6) 온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불의와 부패가 가득 차게 되었다(참조, 창 11:1-4; 롬 1:20-23).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불의와 죄악의 세력을 소멸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셨다(빌 2:5-11).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각자의 마음과 입술 그리고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0. **㉠** 본시(本詩)는 무슨 말로 끝을 맺고 있는가? (19절)

- ㉠** (1) 본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必)하다' 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2) 그래서 흑자는 이런 부분을 들어 본시가 솔로몬의 작품이 아니라 다윗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말은 시편 제2권 전체를 끝맺는 말로서 제2권의 시들을 지은 주요 작가라는 점에서 다윗을 언급한 것이다.

제 73 편 배교의 유혹을 극복하다

단락구분 1-3 하나님의 선하심 / 4-12 악인들이 누리는 행복 / 13-14 배교(背教)의 유혹 / 15-20 배교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 / 21-28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

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 이는 내가 악인의 행동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4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5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6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웃이며
 7 살짐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8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9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0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라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12 불지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하도다
 13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15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

하리라 하였더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고통을 행하였으리이다
 16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20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21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찢렸나이다
 22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23 내가 항상 주의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6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7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1. ㉠ 본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시는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의 문제를 그 주제로 삼고 있다(참조, 37:1-38; 욥21:7-15; 렘 12:1-3).
- (2) 즉 시인은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실족할 뻔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2절).
- (3) 그러나 그는 배교의 유혹에 대한 뼈저린 투쟁 후에(13-16절) 그의 눈은 이 주제에 대하여 밝게 떴고 그는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게 된다(17-20절).
- (4) 그리고 그는 이전의 어려움과 위협과 더불어 현재의 만족과 안전을 비교 대조시킨 뒤에(21-24절), 본시의 마지막 부분을 의인의 궁극적인 구원과 악인의 멸망에 대한 확신

을 표현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있다.

- (5) 본시를 통하여 우리는 악인이 누리는 세상적인 축복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참조, 딤후 1:2).
- (6)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슬픔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칭함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7-10).

2.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바쳐진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정결’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적인 진실을 의미한다.
- (3)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 내고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 (4)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을 베풀고 계신다.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의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이 사실을 확고히 붙드는 자는 능히 이겨 낼 수 있다(참조, 렘 12:1; 함 1:13).

3. ㉡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

- ㉡ (1) 본시의 저자 아삽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음을 짓누르게 하는 시험들은 보통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미약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많이 입은 자에게까지도 그러한 시험이 미치고 있음을 말하려는 데 있다.
- (2)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본으로 보여 줌으로써 아삽은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매우 조심스럽게 살피도록 자극하고 있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 내고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참조, 갈 2:20; 빌 3:12-14; 히 12:1, 2).

4. ㉢ 시인이 실족할 뻔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3절)

- ㉢ (1) 아삽이 실족할 뻔한 근본 원인은 그가 ‘악인의 형통(亨通)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疾視) 하였기’ 때문이었다.
- (2) 즉 그는 악한 자들의 현재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번영을 보고 그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판단하여 그 처지를 부러워하였던 것이다.
- (3) 다시 말해서 아삽이 실족할 뻔한 근본 원인은 그의 가치 기준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4)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요 15:19)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요 17:14, 16)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며(롬 12:2)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며(벧후 1:4)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약 1:27).
- (5)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이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참조, 엡 4:17; 5:6-14).

5. **㉠** 시인은 악인의 일생이 어떠하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4, 5절)

- ㉠** (1) 그들은 평생 악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5절).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건강하였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죽었다(4절).
- (2) 이러한 악인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시인과 많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소지(素地)가 된다(참조, 17:14; 37:1, 35; 욥 12:6; 21:7; 전 8:14; 렘 12:1-3; 함 1:1; 말 3:15).
- (3)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89:14) 악을 미워하시며(5:5, 6; 함 1:13) 분명히 보우하시는 분(73:1:6; 렘 12:1) 이라고 시인은 생각했는데 실상은 악인들의 삶이 형통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말 2:17).
- (4)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잠 24:1).
- (5) 따라서 우리들은 징계 없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사생자이기 때문이다(히 12:8). 또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 (37:2)이기 때문이다.

6. **㉠** 악한 자들의 행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6절)

- ㉠** (1) 교만한 자들의 행동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교만’ 과 ‘강포’ (強暴)이다.
- (2) 이 ‘교만’ 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며(렘 43:2),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들며(호 7:9, 10), 스스로를 속이게 한다(렘 49:16).
- (3)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잠 6:16, 17), 꾸짖으시며(119:21), 물리치신다(약 4:6)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
- (4) 또한 ‘강포’ 는 ‘교만’ 을 모체로 하여 출발하는데 교만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며, 자기들의 강포한 행동을 매우 빈번하게 행하기 마련이다(시 74:20). 이런 점에서 시인은 교만과 강포를 매우 적절한 순서로 나열했다고 볼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신자들의 행동 규범으로(롬 12:16)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골 3:12; 벧전 5:5).

7. **㉠** ‘살점으로 저희 눈이 솟아났다’ 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 (1) 이것은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이 먹어 살이 찌서 눈이 얼굴 밖으로 나올 정도였다는 말이다.
- (2) 시인은 이 말을 단순히 육체적인 용모를 말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그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교만하여진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 (3)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귀절을 ‘그 비etz덩어리에서 악이 나온다’ 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본귀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유익하다.
- (4)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의 청지기일 뿐이다(참조, 24:1, 2; 마 20:8; 눅 12:42; 16:2, 3; 롬 14:8; 16:23).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물질을 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여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8. **㉠**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유보다 지나며’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 (1) 이 귀절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항상 그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쌓아 주시고 채워 주셨다는 의미이다.
- (2)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강포를 행하며 불의를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을 본 시인의 마음에는 큰 동요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 (3) 이런 문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처참한 시험에 빠져 있던 욥의 고백이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12:6).

9. **㉠** 악한 자들의 행실은 어떠한가? (8절)

- ㉠** (1) 그들은 '능욕(凌辱)하며 악하게 압제(壓制)하여' 거만히 말한다.
 (2) 즉 그들은 의인을 조롱하고 괴롭히며 압제자의 입장에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높은 위치에서 말하였다.
 (3) 이처럼 그들은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허탄한 말을 토하기를 좋아하였던(벧후 2:18) 것이다.
 (4) 여기서 우리는 어떤 행실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며, 말을 할 때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참조, 사50:4; 전12:10; 고전2:4; 14:9, 19; 딤펴전6:3).

10. **㉠** 시인은 악한 자의 말하는 태도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9절)

- ㉠** (1) 시인은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2)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란 그들이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거만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엄성을 경멸한다는 말이다.
 (3) 그리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그들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험담하며 악담을 일삼는다는 말이다.
 (4) 실제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극히 드물다. 그만큼 인간의 혀는 제어하기 힘들다는 말이다(약 3:2-6). 그러나 우리는 이 혀를 바로 사용하여야 한다. 남을 깎아 내리거나 악담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의를 전하고(35:28) 주의 말씀을 노래하며 (119:172), 참되고 의로운 말(잠 10:20)을 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11. **㉠** 돌아온 악한 백성들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였는가? (10, 11절)

- ㉠** (1)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라지 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하였다.
 (2) 여기서 '잔에 가득한 물'은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행실을 말하며, '마신다'는 것은 그대로 모방하여 행동함을 의미한다.
 (3) 그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과 무관한 분으로 생각하여 그분을 무시하고 배교하였던 것이다(11절).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신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여 그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으면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여서도 안 된다(참조, 히3:12; 약2:4; 4:16; 요이1:9-11).

12. **㉠** 시인이 마음에 불평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12-14절)

- ㉠** (1) 그것은 악인이 번성하고 잘되는 반면에 시인은 고난과 정계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2) 즉 악인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해지는'(12절) 반면 시인은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懲責)을 보았던'(14절) 것이다.
 (3) 이처럼 시인의 순전한 마음과 행실에 대해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보다 더 긍휼을 베푸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었다.
 (4) 일상 생활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때마다 우리는 시인처럼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37:7).

13. **㉠**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시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15 절)

- ㉠** (1) 그는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꾀술(詭譎)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 (2) 다시 말해서 그가 악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고백이다.
- (3) 이 고백에서 우리는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4)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경우에도 선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요 18:10; 롬 2:18).

14. **㉠** 시인은 어떻게 배교의 유혹을 극복하였는가? (16, 17 절)

- ㉠** (1) 먼저 그는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구하려고 대단히 고민하였다(16 절). 이것을 한 마디로 '근신'이라고 한다.
- (2) 이 '근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딤후 1:6, 7)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딤후 2:11, 12).
- (3) 따라서 우리 주위에 산적(山積)해 있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늘 '근신'해야 한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悖逆)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잠 2:11, 12).
- (4)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얻게 되었다(17 절).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곧 '기도'를 의미한다.
- (5) 시인은 자기 앞에 닥친 유혹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결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참조, 출 33:12, 13; 왕하 13:4).
- (6)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시험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한다.

15. **㉠** 시인이 깨달은 내용은 무엇인가? (18-20 절)

- ㉠** (1) 첫째, 그는 악인들의 번영이 불안정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고 말하였다(참조, 잠 23:34; 렘 23:12; 겔 13:10, 11; 마 7:26, 27).
- (2)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악인들을 풀과 같이 속히 베시며 푸른 채소 같이 최잔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37:2).
- (3) 둘째, 그들이 종국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알았다(참조, 37:10; 잠 14:32; 딤후 4:14).
- (4) 셋째, 그들의 번영이 예고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참조, 37:35, 36).
- (5)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 이세벨, 아달라, 헤롯 등은 모두 이런 줄지에 몰락을 당한 자들이다(삼상 31:1-6; 왕하 9:7, 30-37; 11:4-16; 대하 23:1-21; 행 12:23).
- (6) 넷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20절). 하나님은 악인을 철저히 미워하시며(11:5; 잠 15:26), '재'와 같이 여기신다(말 4:3).
- (7)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은 시인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배교의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이다.
- (8) 우리도 이 사실들을 확실히 믿어 세상의 어떠한 번영과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마 6:31-34).

16. **㉠** 배교의 유혹을 극복한 시인은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였는가? (21, 22 절)

- Ⓐ (1) 그는 '내 마음이 산란(散亂)하며 내 심장이 찢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愚昧無知)하니 주의 앞에 짐승' 이라고 고백하였다.
- (2) 즉 그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이면(裏面)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뒤에 자신을 우매 무지한 자라고 자책하면서, 통회 자복하였다.
- (3)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영적으로 성숙케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참조, 욥 42:1-6; 롬 5:4; 히5:14; 벰전 1:7).
- (4)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신앙을 성숙케 만드는 데에 이용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시인처럼 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17. Ⓞ 시인이 항상 주와 함께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이었는가? (23절)

- Ⓐ (1) 그가 주와 함께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을 붙드셨다.
- (2) 여기서 '오른손을 붙드셨다' 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반에 걸쳐 간여하시면서 그를 보존하셨다는 말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31:23; 37:28; 수 24:17; 삼하 8:6) 바른길로 인도(출 13:21) 하시는 분이시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18. Ⓞ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어떠한 보답을 하시는가? (24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당신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 어느 곳에서든지 그를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양육하셔서 당신의 영광에 동참케 하신다는 말이다.
- (3) 때때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흑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신 17:11).
- (4) 그리고 나그네 길 같은 인생(창 47:9)인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참조, 롬 8:18).
- (5)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107:8-21; 살후 2:13).

19. Ⓞ 시인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5절)

- Ⓐ (1) 시인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
- (2) 이 고백은 그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 (3) 흔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삶의 목적을 둔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며, 세상의 썩어질 것을 바라는 자들이다(참조, 마 6:19-24).
- (4)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고 만족하는 삶을 살며,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참조, 계 3:20).

20. Ⓞ 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였는가? (26절)

- Ⓐ (1)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반석' 과 '영원한 분깃' 으로 비유하였다.
- (2) 여기서 '반석' 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상징으로 원어적 의미는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땅' 이다(참조, 삼하 22:2).

- (3) 이것은 쇠잔(衰殘)하는 육체와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쓰인 말로서 비록 육신은 약하여 언젠가는 기력이 약해 죽게 되지만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히 안식할 처소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18:2).
- (4) 그리고 '영원한 분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처지나 축복의 비유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시기 때문이다(참조, 16:5).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며 '영원한 분깃'이 되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아야 한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서 있지 않고 영원한 분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무의미할 것이다.

21. ㉠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가? (27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멀리하고, 음녀같이 당신을 떠난 자를 멸하신다.
- (2) 여기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고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
- (3)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 버리신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영적 순결을 잃은 음란한 자들을 복종시켜 하나님을 모든 선한 것들의 유일하신 창조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으며,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한다. 자신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자와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2. ㉠ 시인은 결론적으로 무엇이 참된 복이라고 하였는가? (28절)

- ㉠ (1)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였다.
- (2)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악인들의 최후를 알았고, 의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떠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 (3) 그리고 본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온 세상이 다 불신앙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만큼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참조, 롬4:20-24; 고전 16:13; 골1:23; 딤후1:12).
- (5)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늘 하나님만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참조, 2:12; 잠16:20).

본장의 요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25절).

제 74 편 파멸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다

단락구분 1-2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시인의 호소 / 3-11 그들이 겪은 고통의 짐상을 탄원하다 / 12-17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다 / 18-23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다

1 하나님이며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나이까
2 옛적부터 일으키고 구속하시 주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3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시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4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뉘화하며 자기기를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5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6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들을 쳐서 부수고
7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덮었나이다
8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9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랜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10 하나님이며 대적이 언제까지 훼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11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떼사 저희를 멸하소서
12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3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15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팔리우셨나이다
16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17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18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9 주의 뱀비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시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20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21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22 하나님이며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뉘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1. ㉠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 ㉠ (1) 본시는 갈대아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전 국토가 황폐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문이다.
(2)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한 후 그들이 원수에게서 겪은 참상을 하나님께 아뢰었다(1-11절).
(3) 그런 연후에 그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였다(12-17절).
(4)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함으로써 시를 끝맺고 있다.

- (5) 이것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참조, 삼상 7:5-9; 사 37:4).
- (6)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상 16:11; 뵤 4:6)이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엡 6:18; 살전 5:17).

2. ㉠ 본시의 표어는 무엇인가?

㉠ (1) 본시의 표어는 '아삽의 마스길'이다.

(2) '아삽'은 어느 한 개인을 가리킨다고는 보기 어렵고 한 가문 내지는 부족 이름으로 보는 것이 통례다(참조, 스 2:41; 3:10; 느 7:44; 11:22).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서 서론 ㉠ 16을 참조하라.

(3) '마스길'은 '지혜를 얻다'라는 뜻의 원어 <하스킬>에서 파생되었거나(참조, 2:10; 사 44:18) 음악 용어인 <하스킬>에서 파생되었을 것(참조, 대하 30:22)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45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을 노래하는 시의 주제에 사용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상적이거나 교훈적인 시에 사용된다.

(4) 이러한 표제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은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도문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 본시의 저작 시기는 언제인가?

㉠ (1) 본시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보통 세 가지의 대표적인 학설이 있다. 첫째는 이집트의 시삭(Shishak, B. C. 940-915)이 이스라엘 침입 때(왕상 14:25, 26)이며, 둘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정복 때이고, 마지막으로 초기 마카비 시대의 수리아 침략 때이다.

(2) 그런데 첫째 학설은 성경에 시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거나 불살랐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그의 침범은 단순한 습격이었고 성전의 보화를 빼앗아 갔을 뿐이었다(왕상 14:25, 26; 대하 12:2-12).

(3) 둘째 학설도 신빙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본시에 묘사되어 있는 상황이 마카비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성전이 수리아의 손에 더럽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다지 큰 손상은 없었다.

(4) 따라서 우리는 본시가 느부갓네살의 이스라엘 정복시에 저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는 B. C. 586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의 상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4. ㉠ 시인은 본시의 서두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였는가? (1절)

㉠ (1) 그는 서두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나이까'라고 기도하였다.

(2) 여기에는 그가 애 통하게 된 두 가지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 받은 것'과 '주의 진노를 받은 것'이었다.

(3) 즉 그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비참할 정도로 황폐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4)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졌다고 해서 이와 같이 버림 받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롬 5:3; 약 1:2-4) 오래 참음으로써(롬 12:2; 약 5:11) 극복하여야 한다(롬 8:35-37).

5. ㉠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가? (2절)

㉠ (1) 그는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시 주 기업(基業)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과 '주의 거하신 시온 산'을 기억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2)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였다'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이고, '주의 기업의 지파'란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도 하나님께 특별히 소유된 선민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주의 거하신 시온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던 곳을 가리킨다(참조, 76:2).

- (3) 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한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느9:17; 사54:8; 눅6:35; 히5:2; 딤후3:4-7).
- (4) 비록 이스라엘의 현실은 비참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시다(약1:5).

6. **㉠ '주의 발음 드시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이 말은 황폐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여 달라는 말이다.
- (2) 좀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원수 사단에 의하여 입은 하나님의 성전 된 성도들의 상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 (3) 또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주는 말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시고 고치시며 해결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출14:13).

7. **㉠ 원수들이 행한 악은 무엇인가? (4-8절)**

- ㉠** (1)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소란과 난동을 피웠다(4절).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엄숙하고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승리를 자축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들의 기를 성전에 꽂아 그들의 소유의 표시로 삼았던 것이다.
- (2) 둘째, 그들은 성전을 약탈하였다(6절). 그들은 조각품들을 도끼와 철퇴 같은 것들로 부수고 거기에 붙어 있던 금을 모조리 벗겨 갔다(참조, 왕상 6:22,32,35).
- (3) 셋째, 그들은 성전을 파괴하는 죄악을 범하였다(7절). 즉 그들은 성전을 훼파하고 불살랐던 것이다(참조, 왕하 25:9; 대하 36:19).
- (4)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다(8절; 왕하 25:9, 10; 애 2:1-9).
- (5) 이처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원수 바벨론 군대의 죄악상에 우리들의 눈을 돌려야 한다.
- (6)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성결치 못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이 범한 죄와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하여 늘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롬 6:13, 19; 벧전 1:15).

8. **㉠ 원수들의 범죄에 대하여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는가? (9-11절)**

- ㉠** (1)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에 의하여 그토록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괴로움을 보다 가볍게 해줄 만한 위로가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그 괴로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9절).
- (2)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압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알지 못하여 답답해 하며 원수들의 그러한 압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10절).
- (3)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는 원망 섞인

기도를 하였다(11절).

- (4)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그들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 (5)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시인과 같은 실수를 곧잘 저지른다. 즉 우리에게 임한 환난의 현상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다가 그 환난의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참조, 대하 28:21-23).

9. **Q**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였는가? (12절)

- A** (1) 시인은 하나님을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였다.
- (2) '왕'은 자신이 의도하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즉 세우실 뿐 아니라 허시고, 대적의 손에 주었다가 구원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존재이다.
- (3) 시인은 하나님이 바로 태초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던 왕이시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 (4)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와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말하며, 우리의 주 되심을 말로써가 아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다.

10. **Q**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의 소유자이신가? (13-17절)

- A** (1) 시인은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였다. 첫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능력(13-15절)이고, 둘째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16, 17절)이다.
- (2)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13절), 용들의 머리며 악어의 머리인 애굽 군대들을 쳐서 몰살시켜 버리신(14절) 분이시며, 또한 광야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였다(16절).
- (3) 더우기 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요(16절) 창조하신 분이심(17절)을 밝히고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며(참조, 히 2:14, 15)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18:2; 딤후 1:12; 4:17, 18).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생을 주관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사실도 아울러 기억하여야 한다(참조, 5:8; 25:5; 사 48:17).

11. **Q** 시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기도하였는가? (18절)

- A** (1) 그는 하나님께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愚昧)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凌辱)함'을 기억하시기를 기도하였다.
- (2) 즉 시인은 '이것을 기억하소서'라는 강조형 어법(語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비방함에도 그때까지 형벌을 받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탄원한 것이다.
- (3)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대조하기 위하여 그는 이러한 사람을 '우매한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 (4) 이 '우매한 백성'의 원어(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악하고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켜 악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 (5)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그것은 곧 악한 죄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33:8; 119:161; 잠 1:7).

12. **Q**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시인은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19절)

- Ⓐ (1) 그는 ‘주의 산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2) 여기서 ‘산비둘기’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고, ‘들짐승’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포악한 원수들을 가리킨다.
- (3) 따라서 시인은 약하고 보잘것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이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같은 간구를 하게 되었다.
- (4) 오늘날 우리 교회도 신자들로 구성된 훌륭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지만 원수인 사단과 싸우는 점에서 볼 때는 그의 먹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참조, 요 14:30; 엡 6:12; 히 2:9; 벧전 5:8).
- (5)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단의 꾀계를 알 수 있고(고후 2:11),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요일 2:13; 계 12:10, 11).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다(참조, 마 4:1-11; 막 3:27, 28; 눅 10:18).

13. ㉠ 시인은 무엇을 돌아보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20절)

- Ⓐ (1) 그는 하나님께 ‘언약’을 돌아보시라고 기도하였다. 그 이유는 ‘땅 흑암(黑暗)한 곳에 강포(強暴)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 (2) 즉 이스라엘 지역에 원수들의 포악한 행패가 난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악 밑에서 허덕이고 있었으므로 시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시기를 구했던 것이다.
- (3) 여기서 ‘언약’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것으로서(창 15:8-21; 17:7, 8) 가나안 땅이 그들 후손에게 기업을 분깃으로 보증되었다.
- (4) 이와 같은 시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근거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참조, 요일 5:14).

14. ㉠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학대받은 자를 위하여 시인은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21절)

- Ⓐ (1) 시인은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였다.
- (2) 여기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거절받는 고통을 당하여 부끄럽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는 뜻이다.
- (3) 또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신다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주께 돌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 (4) 이 실패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헤어나기 힘든 궁지에 몰렸을 때에라도 항상 우리의 비참을 위하여 예비된 해결책이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이다(참조, 삼하 24:10; 대상 21:8; 욥 19:7; 단 6:11; 요삼 1:2).

15. ㉠ 결론적으로 시인은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22, 23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의 비방을 기억하며(22절), 주를 항거하는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말라고 간구하였다(23절).
- (2) 즉 지금 당면한 그들의 문제가 곧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므로 주께서는 소극적으로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니라 대적들에게 직접 보응을 내리셔야 할 때라는 것이다.
- (3) 시인의 이 말이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한 민족의 정복은 항상 그 백성의 신과 신들에 대한 승리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히 신에 대한 모독이 승리의 노래 가운데 끼어 있게 마련이다(참조, 왕하 19:10-13; 사 10:8-11).
- (4) 오늘날 우리를 향한 불신자들의 비방은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임을 기억하여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참조, 롬 12:19, 20).

제 75 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

단락구분 1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원 / 2-3 공의의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 / 4-5 오만한 자에 대한 시인의 경고 / 6-8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 9-10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찬양

1 하나님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2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3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셀라)

4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5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6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

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8 여호와와 그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9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1. ㉠ 본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자연 질서와 윤리적 질서를 유지하시고, 때가 이르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다.
- (2) 시의 구성상 실제적인 찬양은 비록 첫 절과 마지막 두 절에 국한되어 있지만(1, 9, 10 절), 그 중간(2-8 절)에 있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대한 언급 역시 이런 맥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본시를 찬양시라고 한다.
- (3) 이처럼 시인은 삶의 전반에 걸쳐 의로운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직접 간접으로 감사의 찬양을 돌리고 있다.
- (4)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참조, 롬 6:17; 골 3:16; 살전 1:2; 살후 1:3). 이 감사는 곧 성도의 특권이다(참조, 고후 9:15; 엡 5:4).

2. ㉠ 본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데 일반적으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 (2) 물론 본시의 표제에는 아삽의 것으로 되어 있어 본시의 저자를 여호사바트 혹은 히스기야 시대의 한 아삽 계열의 레위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pulpit 주석).
- (3) 그러나 본시의 내용이 사울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오른 다윗의 형편과 본시의 사정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다윗의 시로 본다.
- (4) 그런데 본시의 표제가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 것은 아삽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되어 그의 계관 시인(桂冠詩人)으로서 이 시를 지었거나, 아니면 다윗이 지어서 성전의 악장인 아삽에게 넘겨 준 것으로 추측된다.

3.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아삽의 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이다.
- (2) '아삽의 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서 서론 ㉠ 16을 참조하라.

(3) '알다스헛'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57편 ㉑ 2를 참조하라.

4. ㉑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가? (1절)

- ㉑ (1)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인하여 감사드렸다.
- (2)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섭리와 은총의 배려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 (3) 따라서 그는 삶의 전반에 걸쳐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렸던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감사'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강렬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5) 다윗이 이같이 감사를 되풀이 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 생활 가운데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에는 이 감사가 곧 성도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다 (참조, 엡 1:16; 빌 1:3; 살전 5:18; 살후 2:13).

5. ㉒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2, 3절)

- ㉒ (1)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통치에 관계되는 말이다. 따라서 '정한 기약'은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정의의 판단'은 심판의 기준을 가리키는 말이며, '땅의 기둥'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의미하고, '땅과 그 모든 거민'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불신자들을 이른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심판 때에 공의의 원칙으로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는 오직 택한 자들만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 (4)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땅의 기둥'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 큰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참조, 107:8-21; 출 15:1-19; 눅 17:12-19; 고후 9:15).

6. ㉓ 어리석은 자의 속성은 무엇인가? (4, 5절)

- ㉓ (1) 본귀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속성에 대하여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 (2) 첫째, 어리석은 자의 속성은 '오만' (傲慢)이다. 즉 태도를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참조, 잠 14:16).
- (3)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경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한다.
- (4) 둘째, 어리석은 자의 속성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공의를 싫어하며 (잠 21:10) 잔인하고 (잠 12:10), 자신의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자이다 (잠 29:11).
- (5)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요동하는 바다 (사 57:20)와 어두움 (잠 4:19)으로 비유하였다.
- (6) 셋째, 이들의 속성은 '교만'이다. 이 교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10:4),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렘 43:2),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다 (호 9, 10).
- (7)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싫어하시며 꾸짖으시고 물리치신다 (참조, 119:21; 잠 6:16, 17; 약 4:6).
- (8)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칫하면 이 '오만'과 '악행' 그리고 '교만'이 우리의 삶 속에 숨어 들어오게 되므로 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조, 출 24:7; 왕하 22:8-20; 고후 13:1-3; 갈 1:6-11; 딤후 3:16, 17).

7. **Q** '높이는 일'은 어디에서 말미암는가? (6, 7절)

- A** (1) 먼저 시인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게서도 말미암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 (2) 즉 모든 권세와 권력의 근원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있지 않다는 말이다.
- (3) 그런 뒤에 시인은 '높이는 일', 즉 권세와 권력의 근원이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시라고 결론을 내렸다(참조, 삼상 2:7; 단 2:21; 4:17).
- (4) 시인이 이 말을 한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교만'을 꺾기 위한 것으로,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켜 큰 실수를 범하는 자들이라고 담대히 말한다. 왜냐하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권세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에 합당한 권세에 한한다(참조, 롬 13:1-7; 딤후 3:1; 벰전 2:13-17).

8. **Q**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A** (1) 하나님의 손에는 잔(盞)이 들려 있다.
- (2) 그런데 그 잔에는 술거품이 이는데, 속에 여러 가지 섞은 것이 가득한 잔을 하나님께서 쏟아 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신다고 시인은 말했다.
- (3) 여기서 '술거품이 이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섞은 것이 가득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하마르)는 '찌꺼기가 가득 찬 것' 또는 '붉은 것'이라는 뜻으로 독한 술을 의미한다(참조, 잠 9:2; 23:30, 31; 아 8:2; 사 5:22).
- (4) 즉 하나님의 보응의 신속성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독한 술이 머리속에 퍼지는 힘과 그 속도, 그리고 취하게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 (5) 따라서 시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목적이 악인들에게 준엄한 형벌을 내리시려고 함에 있음을 하려는 데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직분을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권세 가진 자가 행하여야 될 의무이다(참조, 스후 7:8-10; 엡 6:9; 골 4:1).

9. **Q** 시인은 누구를 선포하고 찬양하겠다고 하였는가? (9절)

- A** (1) 그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고 말하였다.
- (2)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생의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재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깊숙히 간여하셔서 성도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참조, 5:8; 25:5; 27:11; 139:24; 사 42:16).
-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바른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자가 되며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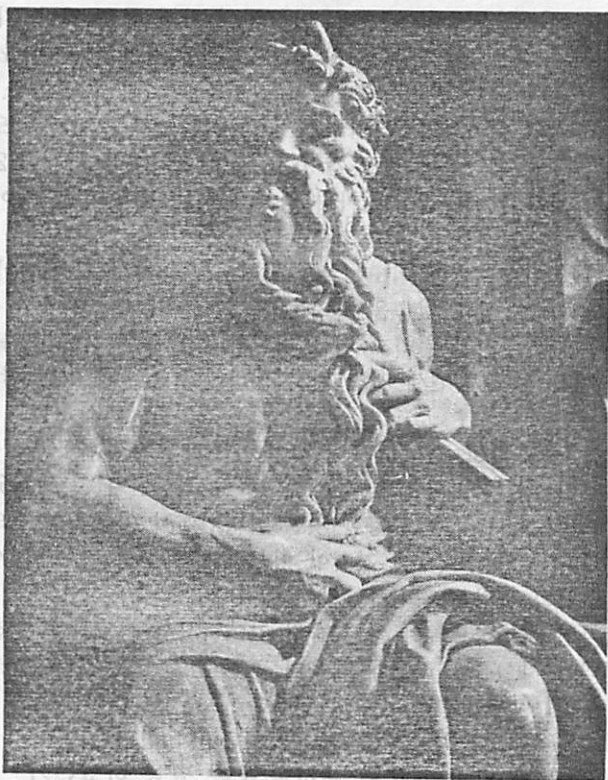
10. **Q** 시인은 의인의 빨과 악인의 빨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였는가? (10절)

- A** (1)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빨'을 높이 드시고, '악인의 빨'은 다 베실 것이라고 말했다.
- (2) '빨'은 '권세'와 '영광'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혹자(Basil)의 지적대로 빨은 육체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높고 견고함과 동시에 머리의 장식 및 방어 무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빨은 힘과 권세 그리고 교만을 동시에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 (3) 그런데 악인들은 이 빨을 악용하여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조리 없애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공의를 행하는 의인의 빨은 높이 세우신 것이다.
- (4)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용한다면 당연히 베임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왕상 3:11-14; 대하 7:14, 15; 잠 22:4; 29:23; 약 4:10).

화보자료

머리에 뿔이 달린 모세 상(像). 아래의 사진은 미켈란젤로(Buonarroti Michelangelo, 1475-1564)가 제작한 모세 상이다. 그의 머리에 뿔을 달아 놓은 것은 출 34:29에 나오는 '광채'(히, 카란)란 말을 '뿔'이란 말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상에서 '뿔'(horn)이란 말은 대개 '권력'과 '힘'을 상징한다(참조, 왕상 22:11; 속 1:18-21). 그러므로 본시에 나오는 '악인의 뿔', '의인의 뿔'이란 말도 사실은 '악인의 권세', '의인의 권세'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Living Bible은 이 말을 '악인의 힘'(the strength of evil men), '의인의 권세'(the power of good men)로 번역하였다.

제 76 편 마땅히 경외할 여호와

단락구분 1-3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 4-6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 7-9 인간이 경외하여야 할 하나님께 대한 찬양 / 10-12 하나님께 대한 서원(誓願)을 행할 것에 대한 촉구

- 1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었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 2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 3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셀라)
- 4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 5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 6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 7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 번 노

- 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 8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 9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은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셀라)
- 10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 11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갓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 12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1. Q 본시는 어떠한 내용의 시인가?

- A (1) 본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전쟁을 좋아하며 용맹스럽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잘 갖춘 원수들을 놀라운 권능으로 막아 주신 은혜와 구원을 찬송한 것이다.
- (2) 먼저 그는 시온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양을 드렸고, 계속하여 적을 무찌르시는 승리의 하나님과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한 후 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촉구로 시를 끝맺고 있다.
- (3) 이는 오늘날 교회가 외부의 적들에 의하여 심각한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 앞에 나서서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시이다.
- (4) 그러므로 교회의 한 지체된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18:35; 33:20; 삼하 22:36)가 되시고 전신갑주가 되셔서(엡 6:10-17) 사단의 공격을 분쇄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2. Q 본시가 저작된 시기는 언제인가?

- A (1) 본시는 예루살렘이 외부의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둔 후 그 승리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진 노래로서 저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 (2) 첫번째 견해는 여호사바 왕이 통치할 때 쳐들어왔던 암몬 족속들로 인해 유다의 구원을 노래한 시라고 한다(대하 20:28).
- (3) 두번째 견해는 다윗이 에돔과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거둔 승리를 기념하여 기록한 시라고 한다(삼하 8:9, 13; 10:6-19; 대상 18:3-10).
- (4) 세번째 견해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의 연합군을 아하스가 무찌른 것을 노래하는 시라고 한다(왕하 16:5).

- (5) 이러한 여러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시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앗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B.C. 701년 천사에 의하여 전멸된 사실을 기념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왕하 19:35).
- (6) 또 70인역(LXX)에도 본시의 제목이 '앗수르에 대한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본시의 내용 또한 그 사건과 매우 흡사하므로 본시가 히스기야 시대 때 기록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 본시의 서두에서 시인은 무엇을 찬양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신' 것을 찬양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앗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다는 말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 (4)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17:8). 이 하나님을 우리는 크게 높여야 하며 찬양하여야 하겠다.

4. **㉠**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처소가 시온에 있기 때문이다.
- (2)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택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 (3) 본절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므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사실이다.
- (4)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것같이 오늘날 우리를 값없이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다.
- (5)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여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하겠다(참조, 대하 32:2-22).

5. **㉠**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3절)

- ㉠** (1) 시온에서 하나님께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셨다'.
- (2) 여기서 '화살과 방패와 칼'은 인간의 모든 전쟁 무기를 의미하는 말이고, '깨치셨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원수들의 세력을 빼앗아 없앴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협하는 사단의 권세를 철저히 그리고 무기력하도록 부수어 버리신다. 그리하여 사단에게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다(참조, 14:6; 신 32:10; 룻2:12; 요일4:16).
- (4)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힘과 능력의 주(28:8; 엡6:10) 되신 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참조, 롬13:12-14; 고전1:27; 고후10:4; 딤후1:12).

6. **㉠** 시인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찬양하였는가? (4절)

- ㉠** (1) 시인은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掠奪)한 산에서 존귀(尊貴)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2) 여기서 '영화롭다'(히, 나을)란 말은 '빛으로 들렀다'는 뜻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상징한다(참조, 딤후6:16).

- (3) 그리고 '약탈한 산'이란 포악하여 약탈을 일삼는 나라들을 의미하므로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탈을 일삼는 나라들을 무찌르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이 존귀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 (4) 그러므로 주는 '영화롭다', '존귀하시다'는 시인의 찬양이 곧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하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참조, 62:11; 96:5-8; 고후4:10-12).

7. **㉠ 원수들의 비극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5, 6절)**

- ㉠** (1) 원수들이 당한 비극을 시인은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奪取)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몸을 놀리지 못하다' 야곱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라고 표현하였다.
- (2) 여기서 '마음이 강한 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던 종족을 말한다(참조, 사10:12-14). 그리고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참조, 렘51:39; 요11:11; 행13:36; 고전11:30).
- (3) 또한 '자기 몸을 놀리지 못한다'는 것은 갑작스런 적의 기습으로 말미암아 항거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다.
- (4) 이것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앗수르의 산헤립 군대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모두 전멸시켜 버린 사실을 상기하여 시인이 언급한 것임이 분명하다(참조, 왕하19:35).
- (5)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참조, 잠24:12; 계20:12, 13).

8. **㉠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7절)**

- ㉠** (1)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경외'(敬畏)해야 할 대상이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느 누구도 '경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어느 누구도 주의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이다.
- (3) 경외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잠8:13)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다(33:8).
- (4)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다(참조, 25:12; 31:19; 눅1:50; 행10:35).
- (5)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참지혜의 삶이다(참조, 잠1:7).

9. **㉠ 땅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불의한 산헤립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심판의 소식을 들은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잠잠하였던 것이다(참조, 대하32:23).
- (3) 이와 같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을 거스려 불순종하던 모든 악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산헤립 군대를 전멸시키신 것처럼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참조, 사 34:5; 요 12:48; 벧후 3:7; 갈 5:10).

10. **㉠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구원하려고 일어나시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은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다.
- (2) 여기서 '은유한 자'란 환난과 핍박 아래서 높은 것을 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안내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한다.
- (3) 그리고 '일어난다'는 말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와 의인에 대한 구원을 의미한다(참조, 3:7; 7:6; 44:26).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갈구하는 '은유한 자'를 사랑하셔서 참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신다(참조, 37:11; 마5:5).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유로 옷입고(골3:12) 은유를 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딤후6:11).

11. **㉠** 사람들이 품는 '분노'는 중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10절)

- ㉠** (1) 사람들이 품는 분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분노는 주께서 금하실 것이다.
- (2) '사람의 노'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악한 마음 및 적개심을 말하는데, 이 분노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3)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중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당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리고 '남은 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는 악인들의 잔인함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을 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매순간마다 일어나는 분노들을 신앙의 힘으로 아름답게 승화시킨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새로운 분노가 일어난다 해도 놀라지 않도록 하자. 세상 끝날까지 사단은 이것으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 (6) 따라서 우리는 분노의 마음을 오래 품지 말고(엡4:26), 노하기를 더디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14:17).

12. **㉠** 시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가? (11절)

- ㉠** (1)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誓願)하고 갓으라'라고 말하였다.
- (2) '서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형식적인 약속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벨엘에서 한 야곱의 서원(창 28:20-22)과 한나의 서원(삼상 1:11) 그리고 바울의 서원(행 18:18)을 들 수 있다.
- (3) 또한 시인은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라도'라고 말하였다.
- (4) 시인이 이 같은 '서원'과 '경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한 것은 앗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여 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감사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 (5)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상 유래 없는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참서원'과 '참예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희박하다는 말이다.
- (6) 따라서 우리는 시인의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 그 '서원'과 '예물'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참조, 116:17; 살전 5:18; 살후 2:13).

13. **㉠** 시인은 하나님께서 방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였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신다고 시인은 말했다.
- (2) 여기서 '방백들'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말하며, '심령'은 '지각(知覺)' 혹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말이다.
- (3)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통찰력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만, 악한자들은 이것을 빼앗겨 버리므로 환난이나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 (4)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명석하고도 기발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자의 눈을 어두워지게 하여 그들의 지식을 빼앗아 버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제 77 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단락구분 1-3 환난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다 / 4-9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 탄원하다 / 10-15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함으로써 고난을 극복하다 / 16-20 하나님을 찬양하다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3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셀라)

4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피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5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6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8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9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셀라)

10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11 곧 여호와와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12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13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14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셀라)

16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17 구름이 물을 쏘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살도 날아 나갔나이다

18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리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취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9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20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1. ㉠ 환난 가운데 있던 시인의 태도를 살펴보라.

- ㉠ (1) 본시는 인간으로서는 감내(堪耐)하기 힘든 환난을 시인이 어떻게 이겨 냈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고 있다. 비록 그 환난이 개인적인 것인지 국가적인 것인지 본시에서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양쪽 모두 우리의 생활에 적용이 가능하다.
- (2) 먼저 그는 환난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참조, 롬 12:12; 엡 3:13; 6:18; 약 5:11).
- (3) 그러나 그는 계속되는 환난으로 인하여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자주 낙심하게 되었다.
- (4) 이러한 가운데 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의심을 극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 (5)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 (6)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닥칠 때 결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 기도만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아삼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이다.
 (2) '여두둔의 법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62편 ㉠ 2를 참조하라.

3. ㉠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1절)

- ㉠ (1)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2) 즉 누구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3) 때때로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포 자기하거나 낙심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야 한다(참조, 마7:7-11).
 (4) 이러한 경험을 한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삼하 22:7)라고 고백하였다.

4. ㉠ 환난 때에 시인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2절)

- ㉠ (1) 환난 때에 시인은 주를 찾았고 밤에는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으며 그의 영혼이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였다.
 (2) 여기서 '주를 찾는 것'이란 기도하는 행위이고, '손을 들고 거두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며,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말은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는 근심과 슬픔 가운데 거하겠다는 의미이다.
 (3) 이처럼 자신에게 환난이 닥쳤을 경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시인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4)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출9:33; 왕하13:4) 지연되는 응답도 있기 때문에(22:1,2; 눅18:7) 우리는 중도에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5. ㉠ 시인은 어떤 탄식을 하였는가? (3, 4절)

- ㉠ (1) 그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라고 탄식하였다.
 (2) 즉 자기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해결자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시는 분이 되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말이다.
 (3)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분이 되셨는가? 그것은 그가 당한 환난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욕23:15).
 (4)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에서 위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안식이나 평안함을 주지 못할 경우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참조, 55:2; 142:2; 143:4).
 (5) 그러나 우리는 그로 인하여 많은 불안과 슬픔과 근심을 겪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어야 한다(참조, 42:5, 11; 43:5).

6. ㉠ 탄식 후에 시인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5-9절)

- ㉠ (1) 그는 먼저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회고하였다(5, 6절). 그런 후에 현재 그가 당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다.
 (2) 즉 그는 환난 가운데서 묵상을 통하여 자기 성찰을 하였던 것이다(참조, 애 3:40).
 (3) 그리고 그가 가졌던 의문들은 회의(懷疑)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성찰을 통하여 그 환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롬 2:18; 12:2; 갈 6:4).

7. ㉠ 사색의 결과 시인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10절)

- ㉠ (1)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 대해 깊이 사색한 결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라는 결론을 내렸다.
- (2) 그런데 본절은 히브리 원문의 뜻이 분명치 않으므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 (3) 그러나 앞뒤 문맥으로 보아 본절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증으로 바뀐 것이 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즉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환난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신 때문이었다는 말이다.
- (4)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환난과 고통과 슬픔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8. ㉠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고백하였는가? (11, 12절)

- ㉠ (1) 자신이 당한 환난의 근본 원인을 알게 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겠다고 고백을 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 이전에 시인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현재의 모든 의심을 없애는 강력한 해독제가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애 3:22, 23; 요일 4:8, 16).
- (3)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인이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4) 그러나 그토록 힘든 환난 가운데서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나 본성을 변질시키는 분이 아니며, 따라서 조만간 자기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였다.
- (5) 우리는 이 시인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지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버린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참조, 롬 1:17; 4:12; 요일 2:13-17).

9. ㉠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이 세상에서 참으로 거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도(道)'이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도'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데 본질적인 의미로 볼 때 이것은 신약 시대의 '십자가의 도'와 동일하다.
- (3) 따라서 '하나님의 도'는 범죄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고전 1:18).
- (4) 그러므로 영원히 죄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롬 3:23; 6:23; 약 1:15)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심으로(고후 5:15)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은 역사상 가장 거룩한 것이다.

10. ㉠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였는가? (14, 15절)

- ㉠ (1) 시인은 본절에서 하나님을 기적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였다.
- (2)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14절), 야곱과 요셉의 후손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 (3)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이로서(72:18; 출 15:14)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그것이 증명되었다(참조, 80:1; 출 7:8-11:10; 신 9:29).
- (4)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다(참조, 삼상

17:34-37, 45-47).

11. ㉠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의 예를 들어 보라(16-19절).

- ㉠ (1) 시인은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널 때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 (2) 먼저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라는 말은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모습을 의인화한 것이다(참조, 114:3; 출 14:29; 함 3:10).
- (3)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멸하신 장면을 두 절(17, 18절)에 걸쳐 언급하였다. 즉 이 말씀은 아마도 출 9:23에 기록된 사실과 유사한 것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18:7; 97:4).
- (4) 여기서 '구름이 물을 쏟는다' 는 것은 폭우를 의미하는 말이고, '궁창이 소리를 발한다' 는 것은 천둥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의 살이 날아갔다' 는 것은 번개를 비유한 말이다.
- (5)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19절).
- (6)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었다는 말이다(참조, 78:52, 53; 106:9; 출 15:13; 사 63:13).
- (7) '주의 종적(踪跡)을 알 수 없다' 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평상시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가리킨다.
- (8)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全能)하신 분이시다(렘 32:17, 27).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12. ㉠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20절)

- ㉠ (1) 하나님께서 이러한 홍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 (2)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구원하고 인도하여 여러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며 약속한 기업을 소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다
- (3)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으로 비유된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의 전(全)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다(참조, 23:2; 27:11; 42:16; 48:14; 139:9, 10; 눅 1:79; 요 16:13).

본장의 요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1절).

제 78 편 하나님의 사랑과 범죄한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

단락구분 1-8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부(當付) / 9-11 에브라임 자손들이 저지른 죄 / 12-16 줄애굽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 17-22 양식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의 죄 / 23-31 음식에 대한 탐욕의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 32-39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 / 40-55 줄애굽 사건에 대한 회상 / 56-64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 65-72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

1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3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바라
4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도다
5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시라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6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7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8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않게 하려 하시미도다
9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10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11 여호와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12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도되
13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14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15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같이 저희에게 물을 흠족히 마시우셨으며
16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7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19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물을 준비하시라
20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넘쳐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미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22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23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24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25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26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27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28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돌리셨도다
29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30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그 입에 있을 때에
31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발하시라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없드려드리셨도다
32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34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 하나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은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6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 하였으니
 37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라
 38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39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40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41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재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42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43 그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안 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44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45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46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47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48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49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멸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50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시라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염병에 붙이셨으며
 51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짜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52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3 저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엎몰 되었도다

54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55 또 열방을 자기 앞에서 쫓아 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56 그렇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57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궤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58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59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라
 60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61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62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63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64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엮드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65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의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66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욱되게 하시고
 67 또 요셉의 장막을 싫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69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으며
 70 또 그 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1. ㉠ 본시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논제(論題)는 무엇인가?

- ㉠ (1) 우리가 본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시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논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으며,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3)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배은 망덕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4)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은혜를 거스렸다.

- (5)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재앙들을 내리시지만 그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다.
- (6)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는 것과 (참조, 롬8:5, 8; 갈5:19-21; 엡4:22; 골3:9)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영원하며 회생적이라는 사실이다(참조, 렘31:3; 롬5:8; 엡2:4).
- (7)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일상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엡4:22) 새로운 인격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갈5:22, 23) 삶을 살아야 한다.

2. Q 본시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인가?

- A (1) 본시가 기록된 시기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다윗의 통치 시기이거나 혹은 솔로몬의 통치 시기일 것이라는 두 가지 견해로 압축된다.
- (2) 그런데 만약 다윗의 통치 시기로 간주할 경우 '다윗'이 언급되어 있는 점(72절)이라든지 '성전'이 언급되어 있는 것(69절)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 (3) 그렇다면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 이 시가 지어졌다는 반증이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가 솔로몬이 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지어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Q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하셨는가?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였다.
- (2) 이것은 불의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과 훈계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말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따라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보이시고(암3:7; 고전2:16),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고후13:1-3; 갈1:6-11), 올바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상고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행17:10, 11)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유1:3).

4. Q 하나님께서 어떤 교수법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겠다고 하셨는가? (2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다.
- (2)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일을 말한다.
- (3) 이것은 물론 구약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참조, 삿9:7; 삼하12:1; 14:5; 왕상20:39 등) 보다 명확한 비유의 말씀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참조, 마13:34; 18:23-34; 막4:3-20).
- (4) 그런데 이처럼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더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납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이 '비유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매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참조, 사5:1-6; 눅10:25-37).

5. Q 하나님의 교훈의 내용은 무엇인가? (3절)

- A (1) 하나님의 교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이며 알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열조가 전해 주었던 것이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교훈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참조, 창 3:1-6; 뱀후 3:4, 5).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성도들이 단지 지식으로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약 1:22-25).
- (4)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롬 2:13) 라고 담대히 말하였다.

6. **㉠** 시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였는가? (4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영애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반드시 전하겠다고 말하였다.
- (2) 이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데,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 본 증인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66:16; 71:15; 119:13, 46; 요일 1:1).
- (3)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끝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
- (4) 우리는 시인의 이 같은 고백에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신 6:7).
- (5) 이와 같이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한다. 세상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다.

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5-8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 (2)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증거’와 ‘법도’, 즉 ‘율법’을 자손 대대로 가르쳐 전하게 하셨다(참조, 신 4:9; 6:7).
- (3) 그러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열조 곧 완고(頑固)하고 패역(悖逆)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않게’ (8절) 하려 하셨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8. **㉠** 에브라임 자손들이 범한 죄는 무엇인가? (9-11절)

- ㉠** (1) ‘에브라임 자손’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자손들로서(창 41:52; 수 16:4, 10), 여호수아로부터 사울 왕이 등극(登極)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역할을 한 족속이었다(참조, 수 18:1).
- (2)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부분을 예로 들어 전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제유법’으로 단순히 한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 (3) 이들이 범한 죄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그들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물러간 것이다(9절).
- (4) 이 말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계셀에 거한 가나안 족속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도망친 것을 가리킨다(삿 1:29).
- (5) 그들이 저지른 두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죄(10절)였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았다(참조, 사 5:24; 30:9; 렘 6:19; 9:13; 호 4:6; 암 2:4; 막 7:9).
- (6)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 망덕의 죄를 저질렀

다(11절).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과 여러 기적들을 잊었다(참조, 신 32:6, 7; 사 1:2, 3; 렘 5:7-9, 24).

(7) 에브라임 자손들이 범한 이런 류(類)의 범죄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른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서슴 없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참조, 창 31:38-42).

9. **㉠**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총을 베푸셨는가? (12-16절)

- ㉠** (1)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여러 가지 이적을 그들을 위하여 베푸셨다.
- (2) 그런데 여기서는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그들을 인도하신 것(13절)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14절) 그리고 바위에서 먹을 물을 내신 이적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총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신 7:6-8; 렘 31:3; 말 1:2).
- (4) 이 사랑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롬 9:6-13)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여야 한다(참조, 107:8-21; 단 3:16-18; 6:10).

10. **㉠**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17-20절)

- ㉠** (1) 그들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였다(17절).
- (2) 또한 먹는 음식에 대한 탐욕(貪慾)으로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18절).
-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신 분이시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예비할 만큼 능력 있는 분은 아니라고 매도(賈渡)하며 철저히 불신앙을 고수했다(19, 20절).
- (4)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악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게 된다(참조, 눅 21:34; 딤펴전 6:10).

11. **㉠** 당신의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21-2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단히 분노하였는데(21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緣故)이었다(22절).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와(24, 25절) 메추라기를(26-28절) 넘치도록 내려 주셨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셨을 뿐이지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미워하지 않았다기 보다 오히려 이 세상의 어느 민족들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셨다(참조, 출 32:34; 신 7:8; 렘 31:3; 말 1:2).
- (4)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비록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못할지라도 우리의 수준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참조, 요일 3:14, 16, 18, 23).
- (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으며 그분께서는 우리도 그 사랑을 보이도록 요구하셨다(마 18:21).

12. **㉠** 하나님께서 탐욕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진노를 내리셨는가? (30, 31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사(30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서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서 앞드러지게 하셨다(31절).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묘사한 것이

다(참조, 민 11:31-34).

- (3)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어 먹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자 그들에게 매추라기 떼를 보내어 고기를 먹게 하셨다.
- (4) 그런데 그들은 적당한 분량만큼 잡지 않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탐욕의 죄에 빠졌던 것이다.
- (5)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어 보기도 전에 제앙을 내려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기브룻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 이라고 불렀다.
- (6) 이 사건의 언급을 통하여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무엇보다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려는 데 있다(참조, 39:10; 갈 4:8; 엡 2:3).
- (7) 따라서 우리는 더러운 본성, 특히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약 1:15) 때문이며, 탐욕은 일반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딤후 전 6:9-11).

13. ㉠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32절)

- ㉠ (1)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완악하여 하나님의 기사(奇事)를 믿지 않았다.
- (2)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박함과 완악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대양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였다(참조, 95:8; 렘 2:20; 5:3; 7:28; 룎 2:5).
- (3)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였다. 이런 자들을 향해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속, 강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잠 28:14),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잠 29:1).
- (4)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여지지 않게 해야 한다(참조, 히 3:13).

14. ㉠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인가? (33절)

- ㉠ (1) 하나님께서는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다.'
- (2) 이것은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민 14:22-34).
- (3)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이 같은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염원(念願)하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 (4)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는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가장 귀한 것들을 빼앗아 버리신다는 사실이다.

1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실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4-37절)

- ㉠ (1)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았고(34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35절).
- (2) 그러나 그것은 '아침'(阿諛)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들의 말에는 진실성이 없었다(36절).
- (3)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37절).
- (4) 여기서 나타난 그들의 회심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당면한 고난을 모면하려는 궁여지책(窮餘之策)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 (5) '정함이 없으며 성실치 못하다' 라는 시인의 말은 그들의 위선의 원인과 근거를 지적하고 있다. 즉 무엇이든간에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말하는 것이 다른 거짓되고 더러운 위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참조, 마23:5-7; 롬10:3; 벧후2:10-22).

16. **㉠** 위선적인 마음으로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38, 3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愼)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다(38절).
- (2) 이것은 그들이 육체뿐이며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창6:3; 욕7:7; 롬17:18).
- (3)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하고 잘못을 범하기 쉬운 인간들을 동정하셔서 오래 참으시고(민14:18) 진노 대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참조, 103:13; 사63:9; 요11:35, 36; 히4:15).
- (4)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마5:39)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6:27, 28)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17. **㉠**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40-42절)

- ㉠** (1) 먼저 그들은 광야에서 그분께 반항(反抗)하며 사막에서 여러 번 그분을 슬프시게 하였다(40절).
- (2) 하나님께서 그토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감사하기 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며 패역하였고 교만하였다(참조, 신31:27; 32:15-18; 행7:30-43). 그러한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다(참조, 95:10; 창6:6; 엡4:30; 히3:17).
- (3)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다(41절).
- (4)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킬 충분한 소지가 된다(참조, 출17:2, 7; 신6:16; 민34:7, 8).
- (5)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다(42절).
- (6) 즉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에게 보여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들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저질렀다.
- (7)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죄악이다(참조, 롬8:5, 8; 갈15:19-21; 엡4:22; 골3:5, 9).
- (8)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의 본성과 늘 갈등을 일으키고 싸운다(참조, 롬7:19-23; 갈5:17).
- (9) 이러한 것들을 이겨 내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전의 상태를 알고(엡2:1-7)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하며(엡4:22),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롬12:1, 2). 그리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18. **㉠**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예로 들었는가? (43-51절)

- A** (1)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리셨던 여러 재앙들을 그 증거로 내세우셨다.
- (2) 그것들은 피 재앙(44절), 파리 및 개구리 재앙(45절), 황충(蝗蟲)과 메뚜기 재앙(46절), 우박 재앙(47, 48절), 염병 재앙(50절) 그리고 애굽인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51절) 등이다.
- (3) 물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 만큼 분명한 것은 거의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를 예로 들었던 것이다.
- (4) 이것이 보여 주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한량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다.
- (5) 우리는 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입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살아 있는 것도 은혜요 건강 주신 것도 은혜며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참조, 행 11:23; 13:4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참조, 롬 5:2; 고후 4:15).

19. C 하나님께서는 애굽인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52-55절)

- A** (1)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여러 재앙을 내리신 것과는 달리 당신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같이 지도하셨다(52절).
- (2)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원수들은 모두 바다에 빠뜨리셨다(53절).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54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셨다(55절).
-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직접 택하셔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 (5)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여 언제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롬 3:24; 엡 1:7; 2:5-10; 3:7; 벧전 4:10).

20. C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 (56-58절)

- A** (1)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않았고, 그들의 열조처럼 배반하고 성실치 못하며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56, 57절). 또한 그들은 우상 숭배까지 하였다(58절).
- (2) 이것은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대변하여 주는 말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발에서 도가 지나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 (4)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늘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참조, 145:7; 롬 12:3; 고전 1:4; 3:10; 15:10; 고후 12:9; 엡 2:4).

21. C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셨는가? (59-64절)

- A** (1)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노하셔서 그들을 대단히 미워하셨으며(59절), 그들이 세운 실로

의 성막에서 떠나셨다(60절).

- (2) 또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61절), 그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칼날에 죽게 하셨다(62절).
- (3) 그리하여 많은 청년들이 죽어 처녀들이 배필을 구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63절),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 죽음을 면치 못하는 참혹한 슬픔을 겪게 되었다(64절).
- (4)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는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이런 엄청난 진노의 채찍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 (5) 그러나 그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악용하였고 멸시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다(참조, 삼상4:10, 11).
- (6)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보살피 주신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참조, 요8:33-44; 9:39-41; 살후1:8, 9).

22. **㉠** 당신의 진노의 채찍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65, 66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물리쳐서 길이 욱되게 하셨다.
- (2) 여기서 '대적'은 블레셋을 가리키는 말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갔으며, 언약궤를 빼앗아 가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참조, 삼상4:2-11).
- (3) '자다가 깬 자같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 두시다가 갑자기 능력을 행하시는 사실을 표현한 말이며,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고 힘을 내는 용사같이 일어나신 것을 의미한다(참조, 사42:13; 습10:7).
- (4)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를 들어 쓰셨지만 결코 그들의 편은 아니셨다(참조, 사10:5-19).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 (5)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대적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물리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참조, 삼상7:10; 17:40-51).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잠3:12; 히12:6, 7).

23. **㉠**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다 풀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67절)

- ㉠** (1)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싫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 (2) '요셉의 장막'은 베냐민 북쪽에 있던 실로의 성소로서 에브라임 족속의 경내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소가 되어 사사 시대 동안 지속되었다(참조, 삿18:31; 21:19; 삼상1:3, 24; 2:14; 3:21; 4:4).
- (3)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장 ㉠8을 참조하라.
- (4)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여 당신의 법궤를 다시는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
- (5)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날의 교회나 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재능으로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버리시고

축대를 옮기신다는 사실이다(참조, 계2:5).

- (6)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에브라임 지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잠 28:20; 고전 4:2; 딤후 2:10; 계 2:10).

24. ㉠ '요셉의 장막' 과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택하신 것은 무엇인가? (68-72 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 대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왕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다는 의미인데 이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루어졌다(삼상 16:1-12).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장막' 대신에 '시온 산'을 택하셔서(68절; 삼하5:9) 그곳에 성전을 지으시고 법궐을 그리로 옮기시기로 하셨다(69절; 삼하6:12-17).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자 다윗을 택하셔서(삼상 16:1, 11, 12, 19)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70, 71절).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72절).
- (4) 이 같은 하나님의 선택은 피선택자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은 다윗이 일찍이 목동이었던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하여 준다(참조, 롬3:24, 28; 갈2:16).
- (5) 원래 이방인이던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았는데 이 역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한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한다면 다윗처럼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마땅하다(참조, 마6:33, 34; 롬12:1, 2; 갈2:20; 살후 1:8).

화보자료

애굽에 내린 개구리 재앙. 옆의 사진은 「17세기의 사람들」에 수록된 삽화들 중의 하나로써 애굽에 내렸던 개구리 재앙(출 8:1-15)을 묘사한 것이다.



본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치 않도록 교훈하기 위하여 지난 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들(44-51절)을 회고시키고 있다.

제 79 편 이방 대적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

단락구분 1-4 이스라엘 민족의 참혹한 상황 / 5-7 하나님께 대적들에게 진노를 내려 달라고 탄원하다 / 8-11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탄원하다 / 12-13 하나님의 복수를 바라는 기도를 하다

1 하나님이며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2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3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4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5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6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7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8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들

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9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10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며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11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2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훼방한 그 훼방을 저희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13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1. ㉠ 본시는 어느 나라의 침략때 기록되어졌는가?

㉠ (1)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기록되어졌다.

(2) 이 이방 나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본시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다.

(3) 즉 본시가 애굽 왕 시삭의 침략 때에 기록되어진 것이라는 견해(왕상 11:40; 14:25; 대하 12:2)와 마카비 시대 때 로마가 침략한 것을 말한다는 견해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 때라는 견해 등이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견해가 B. 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정복 때라는 것이다(렘 39:5, 6).

(5)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인접 국가들의 조소와 비난을 받았다.

(6) 이 같은 모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찢는 아픔이었다. 이런 비참하고 욕된 상황 속에서 시인은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7) 본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된다는 사실이다(참조, 왕하 13:4; 요삼 1:2).

2. ㉠ 바벨론 군대가 저지른 만행은 무엇인가? (1절)

- Ⓐ (1) 바벨론 군대는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들무더기가 되게 하였다.
- (2) '주의 기업' 이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며, '주의 성전을 더럽힌다' 는 말은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파괴하고 그 기물과 장식품들을 가져 가고 성전을 불질러 버린 것을 의미한다(참조, 렘52:13, 17-23).
- (3) '예루살렘으로 들무더기가 되게 하였다' 는 말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버렸다는 의미이다(참조, 렘9:11; 26:18; 미3:12).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바벨론 군대의 만행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 (5) 즉 오늘도 사단은 바벨론 군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어려운 시험에 굴복케 하여 신앙의 순결을 잃도록 노력하고 있다(참조, 대상21:1; 욥2:7; 숙3:1; 고후11:3).
- (6) 따라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약4:7; 뱀전5:9)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엡6:10-17).

3. ⓐ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무엇인가? (2, 3절)

- Ⓐ (1) 그들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
- (2)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살육을 묘사한 것으로 그들의 궤박과 잔혹성을 잘 드러내 준다.
- (3)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매장하여 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바벨론 군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묻어 주지 않고 짐승이나 새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악랄한 행동을 하였다.
- (4) 그리하여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렀으나 아무도 죽은 자를 매장할 자가 없었다(3절).
- (5) 오늘날 우리를 궤박하는 원수 사단도 그들처럼 참으로 잔인하고 악하다(참조, 뱀전5:8).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해 온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이를 잘 증명하여 준다.

4. ⓐ 이스라엘을 향한 이웃 나라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4절)

- Ⓐ (1)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소(嘲笑)하며 조롱하였다.
- (2) 마땅히 이스라엘을 도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 나라들은 그러하지 않았다. 어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로 인한 환난보다 이웃 나라들의 조소와 조롱에 더욱 가슴 아팠을 것이다(참조, 애1:7, 21; 2:15, 16).
- (3)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도 적용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하지만 조금의 도움도 베풀지 않는다. 심지어는 같은 성도들조차 비난하고 조소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 (4) 이럴 때 참 진실한 성도라면 당연히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서 같이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곧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다(참조, 욥2:11; 요11:23-35; 고후7:5-7; 갈6:2; 살전4:18).

5. ⓐ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탄원하였는가? (5-7절)

- Ⓐ (1) 바벨론의 침략과 이웃 나라들의 비웃음을 견디던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하였다(5절).
- (2) 시인의 이 절규에는 당시 그들이 당하던 비참한 고통의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자만이 하게 되는 피맺힌 울부짖음이기

때문이다(참조, 13:1;74:10;89:46).

- (3) 곧이어 그는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라고 탄원하였다.
- (4)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며 믿지 않는 나라를 가리킨다.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말한다.
- (5) 그런데 시인이 갑자기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이 당한 불행의 원인이 이방 나라들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109:1-31; 신20:10-18; 렘10:25; 겔25:1-17; 습3:8).
- (6) 이 시인이 탄원하는 태도에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한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함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
- (7)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고통이 없을 수 없다. 아니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고통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간절히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롬5:3; 12:12; 엡3:13; 약1:2-4).

6. **Q**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환난의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 (8절)

- A** (1)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환난의 또 하나의 원인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이다.
- (2)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겪는 환난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만약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더라면 이방을 통한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은 자명하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신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신28:25,26).
- (3) 그렇다면 그들이 겪고 있던 환난은 결국 그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참조, 잠3:12).
- (4) 그런데 보통 환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창3:16,17) 또 하나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벧전1:7)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때 그 근본 원인을 명확히 깨달아야 하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참조, 롬5:3;12:12; 약5:11).

7. **Q** 시인은 조상들의 죄악을 앞에 놓고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8절)

- A** (1)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금홍’을 구하였다.
- (2) 이미 시인은 하나님께서 금홍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 이 속성은 성경 전반에 걸쳐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크고(사 54:7) 확실하며(사 55:3) 무궁하다(애 3:22).
- (3) 이 금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충분히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자(참조, 78:38; 애 3:22; 롬 9:15).
- (4) 이러한 하나님의 금홍을 늘 넘치도록 받으며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금홍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골 3:12).

8. **Q**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는가? (9, 10절)

- A** (1)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다(9절).
- (2) 왜냐하면 그들이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기 때문이다(10절).

(3) 여기서 시인은 환난 가운데서 당면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만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보다 큰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될 것을 걱정하였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한다. 설혹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참조, 고전10:31).

9. ㉠ '간헐 자' 와 '죽이기로 정한 자' 를 위하여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11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 '간헐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保存)하여' 달라고 간구하였다.
- (2) 여기서 '간헐 자' 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를 말하며 '죽이기로 정한 자' 는 바벨론의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다.
- (3) 이런 자들이 당한 처지의 비참함은 구구한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경우처럼 충애를 받고 높이 대접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고난과 학대를 받았다(애1:3-5;5:18).
- (4) 그런데 시인은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매어 달리는 기도를 하였다.
- (5)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121:1-8).

10. ㉠ 시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시인은 본시의 말미에서 주를 비웃고 모욕한 인접 국가들에게 그 죄값을 칠 배나 갚으실 것을 호소하고 있다(12절).
- (2) 이것은 시인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멸시받고 비방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분개한 거룩한 열정에서 한 말이었다.
- (3)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주께 감사하여 주의 영예(榮譽)를 대대로 전할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였다(13절).
- (4)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되는 것' 은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전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겠다고 하였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의 해결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찬양은 곧 감사와 같은 의미이다.
- (6)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참조, 107:8-21; 출15:1-19; 요11:41; 살전5:18; 살후2:13).

제 80 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

단락구분 1, 3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이스라엘을 돌보시도록 간절히 호소하다 / 4-7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곤경 / 8-16 황폐된 포도원 같은 이스라엘 / 17-19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하다

1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취소서

2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5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6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름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7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8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9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안하며

10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12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13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14 만군의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15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6 그것이 소멸되고 작별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17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 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 ㉠ 본시는 분위기가 어떠한가?

㉠ (1) 본시는 시인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긍휼과 은총을 간구하는 내용으므로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긴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그들이 다시 이전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시인의 확고한 믿음은 절망적인 현실에 비취는 한줄기 빛과 같이 아름답다.

(3) 이처럼 본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때 번창했으나 이제는 쇠하여 버린 포도와 포도원의 비유처럼 대단히 암울한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시인의 호소로 인하여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어찌하면 시인이 어두운 현실을 언급한 것은 그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4) 이러한 시의 긍정적 분위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고 방식이다. 즉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게 되든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10:4; 17:8; 32:7; 잠28:25; 롬16:2; 히2:18; 4:15; 벰전1:3).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1) 본시의 표제문은 '아삽의 시, 영장으로 소산님 에돏에 맞춘 노래'이다.

(2) '소산님 에돏'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5편 ㉢ 2를 참조하라.

3. **㉠**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였는가? (1절)

- ㉠** (1)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하였다.
 (2) 여기서 ‘요셉’이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요셉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3)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 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참조, 23:1-3; 78:52, 53).
 (4) 또한 시인은 ‘그들 사이에 좌정(座定)하신 자’로 하나님을 묘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다고 보다 인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악을 사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강조한 표현이다(참조, 애3:22, 23).
 (5)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 시인은 ‘귀를 기울일 것’과 ‘빛을 비출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다. 즉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탄원하였다는 말이다.
 (6) 이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내어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약 1:5).

4. **㉠** 시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인가? (2, 3절)

- ㉠** (1)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인의 궁극적인 관심의 초점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참조, 사1:26; 11:12; 27:13; 겔20:40; 36:8; 숙1:17; 10:6).
 (2) 그가 기도한 간절한 구원의 호소는 단순히 그들이 당하고 있던 비참한 전쟁을 벗어 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전쟁 이전의 상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보다 심오한 의지의 노력이며, 이것은 민족적 회복 뿐 아니라 영적 부흥의 소망을 포함하며 (18절) 죄의 회개로 인한 성결(7, 19절)도 포함한다.
 (3) 다시 말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풍성함의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이다(참조, 사11:11; 마 17:11; 엡 2:11-22).
 (4)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상적인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는 자에게만 고난이 큰 유익이 된다(참조, 119:67; 사 63:9; 호 5:15; 살전 1:6).

5. **㉠**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4,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노하시어서 그들의 간구를 거절하셨다.
 (2)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가 본시에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다(약 4:3).
 (3) 아마도 그들은 시인과는 달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참조, 출 15:24; 16:2, 8; 민 16:41).
 (4) 따라서 이번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그 결과 그들은 슬픔과 고통의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5절).
 (5)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대신에 그들처럼 책망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6)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른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여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더 풍성히 주실 것이다(참조, 출 9:33; 왕상 3:7-14; 왕하 13:4; 대하 1:7-12).

6. **Q**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하여 어떤 수치를 당하였는가? (6절)

- A**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들에게 다름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주위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 (2) 즉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알잡아 보고 침략을 일삼으며 노략하고 조롱하였다는 말이다.
- (3)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 (4) 결국 그들은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수치를 당하였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신자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게 된다(참조, 히10:33).

7. **Q** 시인은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는가? (8-11절)

- A** (1)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었다(8절).
- (3)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땅이므로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번성하였다(9-11절).
- (4)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서 번성하며 축복을 누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자유의 사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5)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만하신 은혜임을 알아 그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눅7:1-5; 행11:23; 13:48; 롬5:2; 고후4:15).

8. **Q** 하나님께서 '포도원 담'을 헐어 버리신 결과는 무엇인가? (12, 13절)

- A** (1) 하나님께서 포도원 담을 허시자 길에 지나가는 자들이 모두 그 열매를 따먹고 산돼지가 그 나무를 해치고 들짐승이 그것을 먹었다.
- (2) 여기서 '담'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가리키는 말이며 '길에 지나가는 자'나 '산돼지'나 '들짐승'은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이방 나라들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본 귀절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 (4)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들어 주지 않으시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불신자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참조, 스9:7; 단9:78).

9. **Q** 시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였는가? (14, 15절)

- A** (1)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에 있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시인은 하나님께 포도나무를 보살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14절).
- (2)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응답을 위하여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직접 애써서 심으시고 기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15절).
- (3) 여기서 '주의 우편에 있는 자'나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따라서 시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10. ㉠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환난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6절)

- ㉠ (1) 시인은 포도나무가 불에 타고 잘라지며 하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 (2) 하나님의 포도원이 산태지나 들짐승에 의하여 황폐하여진 것보다 더 큰 환난은 포도나무가 불타고 잘리워져서 뿌리째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다.
- (3)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였다고 시인은 밝히고 있다.
- (4) 이는 교회가 망하는 것의 근본 원인이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부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사를 관심 있게 살펴보면 보다더 명확히 알 수 있다.
- (5)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우리 자신에게서 몰아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참조, 창19:15; 롬6:23; 약1:15).

11. ㉠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17-19절)

- ㉠ (1)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시인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 (2) 먼저 그는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라고 기도하였다(17절).
- (3) 여기서 '주의 우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따라서 시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다.
- (4) 그 다음에 그는 서원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겠다고 기도하였다(18절).
- (5) 끝으로 그는 세번째 반복 문구(文句) 로써 본시를 종결지었다(3, 7절).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비는 것이었다.
- (6) 이처럼 시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앙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시인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 (7) 따라서 험한 세파를 헤쳐 가며 사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지배하고 또 자기 신앙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단3:8-25; 6:10-23).

본장의 요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9절).

제 81 편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다

단락구분 1-4 하나님을 찬양하다 / 5-7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 8-10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 11-12 이스라엘의 불순종 / 13-16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주실 것을 약속하시다

1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2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3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4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5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6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7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브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셀라)

8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들기를 원하노라

9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박한 대로 버려 두어 그 임의대로 행게 하였도다

13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14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회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회 대적을 치리니

15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저회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16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회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1. ㉠ 본시름 내용에 따라 구분하라.

- ㉠ (1) 본시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1-4절)는 찬양시이고, 후반부(5-16절)는 교훈시이다.
- (2) 전반부(1-4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을 기쁨으로써 찬양하는 내용으로, 주로 장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일에 읽혀지도록 지어진 시이다.
- (3) 후반부(5-16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교훈적인 성격의 시이다.
- (4) 그런데 이 '찬양'과 '교훈'의 두 시는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배의 2대 목적이기 때문이다.
- (5) 그 2대 목적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는 것을 말한다(27:4).
- (6)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이 두 가지의 것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지 못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 받을 것이 확실하다.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아삽의 시, 영장으로 깃딛에 맞춘 노래'이다.

(2) '깃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8편 ㉔ 2를 참조하라.

3. ㉑ 본시 서두에서 시인은 무슨 노래를 하였는가? (1절)

㉒ (1) 시인은 본시 서두에서 소리 높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2) 본절에 나오는 '높이'라는 말은 참되고 진실함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본절에서 시인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그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곧 신앙인의 바른 삶의 태도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에 최우선권을 두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참조, 대하20:19; 느12:42; 요4:24).

(4)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일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고전10:31; 골3:17; 벧전4:11).

4. ㉑ 시인이 노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1절)

㉒ (1) 시인이 높은 찬양을 드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2)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많은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이다.

(3) '야곱의 하나님'이란 늘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며, 끝날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4)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각자각자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여야 한다. 때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들 곁에 계시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살피신다(참조, 17:8; 신32:10; 롯2:12).

5. ㉑ 하나님을 노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절)

㉒ (1) 그것은 '시를 읊으며 소고(小鼓)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르는' 것이다.

(2) 당시 성전의 예배 의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악기는 수금과 비파와 제금이었다(대상15:16; 대하5:12; 24:25; 느12:27). 여기에서의 소고는 제금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악기들까지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적 교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환희를 보다 실감 있게 표현하려는 데 있다.

(4)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드릴 때 참된 기쁨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못해서 하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위선의 의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참조, 요4:20-24; 롬12:1).

6. ㉑ '월삭' (月朔)과 '월망' (月望)에 대하여 설명하라 (3절).

㉒ (1) '월삭'이란 월력의 기준으로 하여 매달 초생달이 뜨는 첫날을 종교적인 축제일로 지키는 유대인의 절기를 말한다. 그중 7월의 월삭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다(참조, 레 23:24; 느 8:2).

(2) 그 이유는 이스라엘 종교력의 7월은 민간력의 1월에 해당되어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3)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비슷했다. 예를 들면 안식이 있었고(암8:5) 기쁨이 있었으며(호2:11) 성전에는 특별한 제물이 드려졌는데 이는 안식일에 드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제물이기도 하였다(민28:9-15).

(4) 이때 드리는 예배 의식에는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으며(민 10:10) 성대한 만찬이 베풀어진다.

(5) 그리고 ‘월망’이란 만월(滿月) 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장막절이 시작되는 7월 15일을 의미한다(참조, 민 29:12).

7. **㉠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율례(律例)’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規例)’이기 때문이다.
- (2)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은 야곱의 모든 자손이 지켜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의무이다(참조, 95:1; 사 30:29; 고전 14:15; 엡 5:19; 골 3:16; 약 5:13).
- (3)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의무를 수행치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 의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향한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야 그것이 가능하다.

8. **㉠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 (1) 이 문장의 참의미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원문의 의미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앞뒤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말을 들었노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 (3) 그렇다면 이는 바로의 거만한 말에 대한 언급이다. 즉 그는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출 5:2)라고 말했다.
- (4) 만약 우리가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바로에 대한 이 언급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9.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은총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셨는가? (6, 7절)**

- ㉠** (1) 먼저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신 것을 말씀하셨다(6절).
- (2) 즉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 총리 대신인 요셉의 배려로 애굽으로 내려 가서 살던 중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세워 그들을 애굽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면서 이끌어 내셨다.
- (3)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셨으며, 특히 ‘트리바’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출 17:7; 민 20:1-13)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다(7절).
- (4)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이고 한량없으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준다.
- (5) 왜냐하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78:38; 사 54:7; 55:3; 애 3:22; 롬 5:15-20; 엡 2:4, 5; 뱀전 1:3).

10. **㉠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8-10절)**

- ㉠** (1)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상기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9절).
- (2)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우상 숭배’가 그들의 영적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출 32:1-8; 민 25:1-18; 사 10:5-16; 17:11-13).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여러 범죄들 중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하여 지적하셨던 것이다.
- (3) ‘우상 숭배’란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 놓고 섬기는 것을 말한다. 좀더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참조, 왕하 17:33; 대상 12:33; 습 1:4, 5; 마 6:

24; 눅 16:13; 약 4:8).

- (4)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에 관심과 사랑을 쏟게 되므로 예수께서는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눅 16:13)고 단언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고전 10:21)고 말하였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마 10:37-39; 눅 14:26; 골 3:5; 요일 2:15).

11. ㉠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11, 12절)

- ㉠ (1)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 (2)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강박(剛復)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였다.
- (3) 이처럼 그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하였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 자신의 사악한 뜻과 망상에 맡겨 ‘탐욕’과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 결과 그들은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고 말았다.
- (4)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권면과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더러운 죄악의 길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가장 큰 죄는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이다(참조, 신 11:28; 삼상 12:15; 앰 5:6; 딤후 1:9; 히 2:2, 3).

12. ㉠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였는가? (13-16절)

- ㉠ (1)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 대신 또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13절).
- (2) 이때 그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다(14-16절).
- (3)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치셔서(14절)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다(15절).
- (4) 반면에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고(겔 27:17)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참조, 출 23:25; 레 26:4; 잠 28:20; 사 30:23; 말 3:30; 마 6:33; 눅 18:30).
- (5)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

본장의 요절

‘우리 능력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1절).

제 82 편 불의한 재판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단락구분 1-4 재판장들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 5 불의한 재판장들이 끼친 결과 / 6-7 그들이 당하게 되는 비참한 멸망 / 8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 1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 2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셀라)
- 3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 4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 5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 7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었더지리도다
- 8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을 되겠음이니이다

1. ㉠ 본시에 강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1) 본시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재판장들이 저지르는 불의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책망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2) 본시에는 먼저 재판장들이 행하여야 할 의무가 무엇이며(3, 4절) 그렇지 못할 때 파생되는 결과(5절)가 어떠한 것인지가 언급된 뒤 불의를 행하는 재판장들에게는 흑독한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6, 7절).
- (3)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다. 특별히 지도자의 입장에 선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본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4) 오늘날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 (5) 만약 우리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감당치 못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이스라엘 재판장들에게 임한 진노가 역시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임무란 곧 '사랑'이다(참조, 마22:39; 요13:35; 15:12; 살전3:12; 히13:1; 약2:8; 요일4:7).

2. ㉠ '재판장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 (1) '재판장들'이란 원어로는 <엘로힘>인데 그 뜻은 '신들'이다.
- (2) 그런데 이 '신(神)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천사들'이라는 견해와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그 당시의 '재판관들'이라는 견해이다.
- (3) 만약 우리가 첫번째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몇 가지 의문점을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첫째, 천사들이 악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하여 책망을 받은 곳이 성경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본시에서만 책망받는다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 (4) 둘째,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심(7절)은 성경의 전체적인 사

상과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5) 따라서 본절에서의 ‘재판장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장들을 말한다든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3. **㉠** 당시의 재판장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2절)

- ㉠** (1) 그들은 재판을 할 때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렸으며 늘 악인들을 두둔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 (2) 누구나 마찬가지로지만 특별히 재판장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참조, 신16:20; 잠21:3; 사 56:1; 욥13:7; 골4:1).
- (3)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의 이스라엘 재판장들은 비양심적으로 불의한 재판을 하였으며 악인들의 뇌물에 매수당해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세의 율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신1:17; 16:19; 레19:15) 그들은 서슴 없이 행하였다.
- (4) 공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공의를 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보고도 묵인 내지는 동조를 해 버린다면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사1:17, 23).

4. **㉠** 재판장들이 행하여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3, 4절)

- ㉠** (1) 재판장들이 행하여야 할 의무는 가난한 자와 고아의 권리를 옹호하며,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 (2)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모든 억눌린 자들을 보호하며 돌보아 주는 것이 재판장들의 의무이다(참조, 욥29:12).
- (3) 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재판장 자신들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권세이므로 당연하게 행하여야 한다.
- (4) 따라서 영적인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벧전 2:9) 언제나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하며, 그들이 당하는 불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여야 할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을 돌볼 때 분명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마 25:34-40).

5. **㉠**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악의 동기는 무엇인가? (5절)

- ㉠** (1) 제사장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며 직책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무지 무각’ (無知無覺) 하였기 때문이다.
- (2) 그들은 지각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리를 공의로 판단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득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어 버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채 ‘흑암 중에 왕래’ 하였다.
- (3) 이처럼 영적 어두움에 거한 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며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쉽게 죄악과 타협하게 되고 위기 의식을 잃게 되며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 (4) 이 영적 어두움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기도를 생활화하여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다(참조, 마 26:41; 행 20:31; 고전 10:12; 16:13; 딤후 3:14-17; 벧전 5:8).

6. **㉠** 재판장들의 불의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5절)

- ㉠** (1) 재판장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인들과 손잡을 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 (2)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땅 위에 사는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도덕 규범이 붕괴되어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다.

- (3) 역사를 통하여 볼 때 한 나라의 멸망은 종교의 타락에서부터 비롯된다. 종교인들의 타락은 곧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를 가져 오며 사회의 부패는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4)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세인(世人)들의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는지, 기독교인의 급격한 수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오히려 더 심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 (5) 그 한 원인은 본질이 밝혀 주는 바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며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사랑하는 삼군 목자들에게 의해 사회의 부패가 조성된다는 말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깊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교회를 돌이켜 보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자르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행할 때 가정과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7. **㉠**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가? (6, 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불의를 행하자 ‘범인(凡人)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질 것’이라는 형벌을 내리셨다.
- (2) 그들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므로 ‘신’이라고 불리었고(요10:35),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의를 일삼음으로 인하여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 (4) 한편 ‘범인같이 죽는다’는 것은 죽을 때에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필부의 죽음과 같이 된다는 말이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진다’는 것은 과거의 사악한 방백들이 형벌을 받음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5) 이처럼 교회나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주어진 권세를 악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진노의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참조, 약3:1).

8. **㉠** 본시의 말미(末尾)에서 시인은 무슨 기도를 하였는가? (8절)

- ㉠** (1) 시인은 본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라고 기도를 하였다.
- (2) 여기서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은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시인이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호소한 이유는 이미 지상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지 않을 것 때문이다(참조, 애3:59; 벰전2:23; 계16:7).
- (3)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즉 이 세상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 시인의 주장이다.
- (4)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모든 일상 생활의 주인으로 모셔 우리를 다스리도록 늘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참조, 신26:16; 삼상15:22; 행5:29; 엡6:6).

제 83 편 원수들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다

단락구분 1-4 원수들을 벌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다 / 5-8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누군지를 밝히다 / 9-12 미디안을 예로 들어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다 / 13-18 예언적 저주를 하다

1 하나님이며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며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2 대저 주의 원수가 환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3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4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5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6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7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8 앓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뭇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셀라)
9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벳에게 행하신 것같이 저희

에게도 행하소서

10 그들은 언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11 저희 귀인으로 오렘과 스웁 함께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하소서
12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13 나의 하나님이며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이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개같이 하소서
14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는 화염같이
15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16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케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18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1. ㉠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한 내용은 무엇인가?

- ㉠ (1) 시인은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동일시하여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호소하였다.
(2) 먼저 그는 이스라엘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었다(1-8절). 즉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3)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행하신 사건(참조, 사7:19-25; 8:1-12)을 상기하면서 현재의 원수들도 그렇게 될 것을 소원하였다(9-12절).
(4) 원수들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시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원수를 벌해 주실 것을 탄원하였다.
(5) 이는 오늘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참조, 열 6:10-17; 약 4:7; 벰전 5:8).

2. ㉠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어떤 호소를 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며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며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라고 호소하였다.

- (2) 여기서 시인이 반복법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하여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잠잠치 말라고 호소한 것이다.
- (4) 사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그의 도움을 지연시키든지 간에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므로 시인의 이러한 호소를 용납하신다.
- (5)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것이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대하 7:14; 요일 3:22).

3. ㉠ 원수들이 저지른 죄악은 무엇인가? (2-4절)

- ㉠ (1) 그들은 '뉘화(喧譁)하여 머리를 들었다' (2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였고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 하였다(3절).
- (2) 여기서 '뉘화한다'란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린다는 말이며, '머리를 든다'는 것은 교만으로 인해 우쭐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의 숨긴 자'란 '주의 보호를 받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 (3) 그들이 꾸민 음모의 내용은 4절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이다.
- (4)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절시키려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다.
- (5)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교만은 그 도를 더해갈 것이다(참조, 렘 43:2; 딤후 3:1, 2).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교만의 유혹에 쉽게 빠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 (6) 이러한 때에 우리는 원수들처럼 교만으로 하나님과 형제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실족치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롬 12:16; 골 2:18-23; 3:12; 벰전 5:5).

4. ㉠ 원수들이 동맹을 맺은 목적은 무엇인가? (5절)

- ㉠ (1) 그들이 동맹을 맺은 것은 '음모를 꾸며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였다.
- (2) 여기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은 것을 주를 대적하는 것으로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원수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에는 너무나 마음이 잘 합치된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수들의 주인은 곧 사단이기 때문이다(참조, 요 14:30; 엡 2:2; 6:12).
- (4)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불신자들이 세상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서로 물어 뜯고 싸우면 서로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대항하여 싸울 때는 너무도 단결을 잘한다.
- (5) 이에 대하여 성도들은 으레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마음을 담대히 가져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실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벰전 5:7-10).

5. ㉠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은 자들은 누구인가? (6-8절)

- ㉠ (1)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은 자들은 '에돔 사람', '이스마엘 사람', '모압 사람',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거민' 그리고 '앗수르' 등이다.
- (2) 여기서 '에돔인'과 '이스마엘인'은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선두에 나섰다.
- (3) 이런 경우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즉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중 상당수가 교회다니 적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 (4)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맺어 낳은 족속들로서 이들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다(참조, 민 22:6; 사 3:12-30; 삼상 14:17). ‘하갈인’은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않고 단 세 군데에서만 언급이 되어 있다(대상 5:10, 19-22). 그들은 아마 이스마엘의 지파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할 뿐이다.
- (5) ‘그발’은 살만에셀 2세 시대(B. C. 828-810)로부터 느부갓네살 왕 시대(B. C. 635-560)까지 베니게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 ‘아말렉’은 팔레스틴 남방 광야에서 시내 반도까지 이르는 땅에서 거주하던 족속으로 시므온 지파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대상 4:42, 43)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 (6) ‘블레셋’은 팔레스틴 남부 연안에 거주하던 족속으로 에돔과 모압처럼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다(왕하 25:1-21). 그리고 ‘두로 거민’은 초기에는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었으나(삼하 4:11; 왕상 5:1-18)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기뻐한 자들이었다(겔 26:2).
- (7) ‘앗수르’는 살만에셀 때부터(B. C. 1280-1261) 번창하기 시작하여 대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무수히 침략하였는데 대상 19장과 삼하 10장에는 롯의 자손을 도와 준 기록도 있다(삼하 10:16; 대상 19:6, 16).
- (8)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도 대개가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참조, 마 10:21).

6. ㉠ 시인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였는가? (9절)

- ㉠ (1) 시인은 이스라엘 사사(士師) 기드온이 불과 3백 명의 병력으로 무려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킨 기적적인 전쟁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삿 7:1-25).
- (2) 또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여사사 드보라가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내세워 기손 강가에서 야손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전멸시키고 대승한 사실도 언급하였다(삿 4:12-24).
- (3) 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 (4) 따라서 시인이 별안간 이 사실을 언급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만 하신다면 그들이 당면한 위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 (5) 오늘날 시시 때때로 닥쳐오는 사단의 여러 위협들 가운데서 우리도 시인처럼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참조, 121:1-8; 신 32:10; 잠 22:12; 행 26:22; 롬 16:2). 그럴 때 우리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을 것이다(삼상 14:6; 17:47).

7. ㉠ ‘엔들에서 패망(敗亡)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 (1) ‘엔들’이라는 지명은 사사기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사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를 대파한 ‘므깃도’와 ‘다아낙’ 부근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참조, 수 17:11; 삿 5:19).
- (2) ‘땅에 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시체들이 땅에서 썩어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거름처럼 밭에 짓밟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 (3) 따라서 본귀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군대들이 전쟁의 대패(大敗)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였다는 의미이다.
- (4)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메시지이다. 즉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결말은 반드시 비참하여지리라는 것이다.

(참조, 삼상 2:10; 마 25:41; 요 16:11).

8. **㉠** 시인은 원수들을 무엇과 같이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는가? (11절)

- ㉠** (1) 시인은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엿 갈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갈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 (2) '오렙'과 '스엿'은 미디안 군대의 총수로서 미디안까지 그들을 추적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에 의하여 사로잡혀 살해되었다(삿 7:25).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에게 직접 살해된 미디안의 왕들이었다(삿 8:21).
- (3) 이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비참한 죽임을 당했던 자들이었다. 따라서 시인은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들도 이러한 종말을 맞게 하여 달라고 본절에서 기도하고 있다.
- (4) 원수들에 대한 이 같은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특권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의 특권이 되기도 한다.

9. **㉠** '하나님의 목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12절)

- ㉠** (1) '하나님의 목장'이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시인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고백한 것이다(23:1-6).
- (3) 따라서 이 표현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상처입은 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목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참조, 56:1-4; 90:1; 신 33:27; 잠 30:4).
- (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8, 29).

10. **㉠** '검불'과 '초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 (1) 여기에 나오는 '검불'과 '초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을 빗대어 사용한 말이다.
- (2) 이러한 표현은 성경의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것에 대한 시적(詩的)인 묘사이다(참조, 욥 13:25; 15:7; 21:18; 41:29; 사 17:13; 40:24; 41:2; 렘 13:24; 말 4:1).
- (3) 이 원수들의 종말이 먼지같이, 지푸라기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준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면 사단의 세력은 견줄 수 없이 두려움에 우왕 좌왕하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참조, 왕하 6:17-20).
- (4)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핍박과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당신께서는 사단의 역사를 먼지같이, 지푸라기같이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참조, 막 3:27; 롬 16:20).

11. **㉠** '광풍' (狂風)과 '폭풍' (暴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 15절)

- ㉠** (1) '광풍'과 '폭풍'은 엄청나게 크고 무섭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2) 원래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 (3) 이처럼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므로 약한 하나님의 징계로는 별반 효과가 없다.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14절)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한 진노의 채찍이 임해

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인은 이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 (4) 우리들도 매일 범죄하는 삶을 산다. 때때로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원수들처럼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한다(참조, 잠 3:12; 23:13; 딤후 2:25; 히 12:6, 7, 11).

12. **㉠** 수많은 진노 뒤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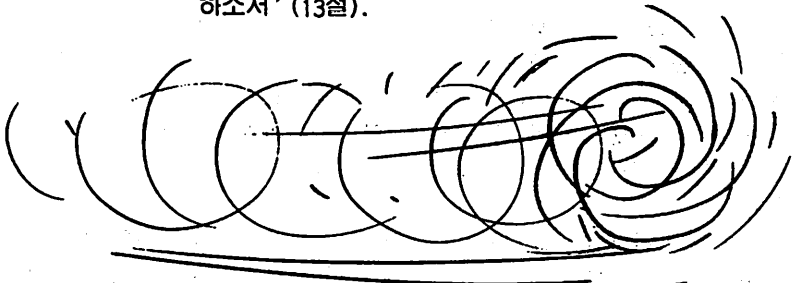
- ㉠** (1)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를 통하여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찾게' 하기 위해서이다.
 (2) 여기에는 원수들일지라도 징계의 채찍을 맞고 난 후 당신께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3) 하나님은 원수들이 저지르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들 자체를 미워하시지 않으신다. 즉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므로 만약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받아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4)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 55:7).

13. **㉠**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기도한 시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17, 18절)

- ㉠** (1) 시인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여 놀라며 치욕과 멸망을 당하도록 기도한(17절) 목적은 그들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임을 알게 하는 데에 있었다(18절).
 (2) 단순히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심오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시인의 신앙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다.
 (3)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바쁜 오늘날 우리들은 삶의 모든 목적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들리는 데에 집중시켰던 시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고전 10:31).
 (4) 중세 종교의 암흑 시대에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본장의 요절

'나의 하나님이어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같이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개 같게
 하소서' (13절).



제 84 편 하나님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다

단락구분 1-2 주의 전을 사모하다 / 3-4 성전에 사는 이들이 누리는 기쁨 / 5-7 시온 순례자들이 누리는 기쁨 / 8-9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다 / 10-12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 확신하다

1 만군의 여호와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셀라)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7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셀라)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쁨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 ㉠ 시인이 간절히 사모한 것은 무엇인가?

㉠ (1) 본시의 전반에 걸쳐 시인이 가장 간절하게 사모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2)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면서 예배드리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을 찾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 시인의 이러한 생각은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그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지상 최대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4) 우리는 어떠한가? 매주 혹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이 세상의 일들보다 더 사모하는가? 사랑이 없고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다(참조, 17:8; 잠4:4).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1) 본시의 표제문은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이다.

(2) ‘고라 자손’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 속에 삼키운 바 된 고라의 후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따라 폭동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민 26:10).

(3) 그들의 직업은 성막이나 성소의 문지기 또는 보호자였다(대상 9:19; 26:1-19). 또한 그들은 성전의 노래하는 자들로도 활동하였다(대하 20:19).

(4) ‘깃딧’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서 8편 ㉠2를 참조하라.

3. ㉠ 본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시의 표제에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고라 자손의 시' 라고만 되어 있다.
- (2)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시의 저자가 '다윗' 이라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 (3) 그 이유는 본시가 그의 탁월한 문학적 기질을 매우 많이 풍기고 있으며, 그에 의해 지어진 제 63편의 시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 (4) 본시가 기록되어진 때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피해 다니며 지낼 때 성전을 사모하여 지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참조, 삼하 15:13-37).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

4. ㉠ 시인은 무엇이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절)

- ㉠ (1) 시인은 본시의 서두에서 '주의 장막' 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감탄하였다.
- (2) 여기서 '주의 장막' 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킨다(참조, 43:3; 46:4; 132:7). 그리고 '사랑스럽다' 는 것은 '아름답다' 는 뜻이다.
- (3) 이처럼 시인이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고 한 것은 성전의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므로 아름답다는 말이다.
- (4)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종종 부르고 있는데 이는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건물 자체가 성전이므로 거룩하다는 생각이다.
- (5) 그러나 실상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건물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처장에 지나치게 애써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바로 선포되도록 애쓰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5. ㉠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2절)

- ㉠ (1) 시인은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宮庭)을 사모하여 쇠약(衰弱) 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었다.
- (2) 여기서 '여호와와 궁정' 은 '주의 장막' 과 같은 말이다. 그리고 '부르짖는다' 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리넨>인데 이는 '항상 기뻐하다', '항상 노래하다' 라는 의미이다.
- (3) 따라서 시인의 이러한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어 준다.
- (4)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신앙의 모범이다. 즉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며 항상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 (5)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6. ㉠ 시인은 어떠한 자를 부러워하고 있는가? (3, 4절)

- ㉠ (1)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였다.
- (2) 시인은 이것을 좀더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 (3) 이처럼 쫓겨다니는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시인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공경하였고 신뢰하였으며, 마음껏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가장 소망하였다.
- (4) 이제 우리는 자신들이 가장 관심을 쏟고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재리(財利)에 우리의 촉수(觸手)를 세우는지 아니면 시인처럼 하

나눔과의 영적 관계에 마음을 두는지 자기 진단을 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7. ㉠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가? (5, 6절)

- ㉠ (1)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2)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걷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생활의 인도자로 삼고자 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말한다.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 '눈물 골짜기'로 '기쁨의 샘'이 되게 하며 '이른 비'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
 (5)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수 1:8).

8. ㉠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7절)

- ㉠ (1)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2) 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야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3)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신앙 생활을 하려는 자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언제나 실패하고 만다. 시인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4)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려면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의지하여야 한다(참조, 롬 8:16-27).

9. ㉠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8, 9절)

- ㉠ (1)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보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2) 여기에 하나님의 명칭이 세 가지 나온다. 즉 '만군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말하며, '방패이신 하나님'은 일상 생활에서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참조, 20:1; 33:20; 말 1:6).
 (3) 그리고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 달라'는 것은 강조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 ㉠ 주의 전에 거하는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10절)

- ㉠ (1) 본절에는 주의 전에 거하는 기쁨이 '주의 궁정(宮庭)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2) '문지기로 있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히스토렙>인데 그 뜻은 '문지방에 앉다'이다. 이것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천한 데 거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다.

(4) 오늘날처럼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없이 수많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딤후 3:1-5).

11. **㉠** 시인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였는가? (11절)

- ㉠** (1) 시인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비유하였다.
 (2) 여기서 '해'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인도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또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다(참조, 사 60:19, 20; 말 4:2).
 (3) 그리고 '방패'로 비유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도 않은 위태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참조, 18:35; 33:20; 신 33:29; 삼하 22:36).
 (4)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출 13:21; 14:19; 34:5-8).

12. **㉠**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11절)

- ㉠** (1)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분이시다.
 (2)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도록 이끄신다는 의미이다.
 (3)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영광과 육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마 7:11).
 (4)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거처할 곳도 주시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그때 그때 채워 주신다(참조, 왕상 17:6; 19:6-8; 마 14:19-21).

13. **㉠** 본시의 말미에서 시인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가? (12절)

- ㉠** (1) 본시 말미에서 시인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였다.
 (2)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한다면 결코 축복을 내려 주지 않으신다.
 (3)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복된 자가 되려면 일상 생활에서 말씀을 따르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119:35; 엡 5:9; 약 2:17; 요일 3:18).
 (5)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약 1:22).

본장의 요약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잠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절).

제 85 편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단락구분 1-3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 4-7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기원하다 / 8-9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 10-13 이스라엘이 얻게 될 하나님의 영적·육적 축복에 대한 기대

1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2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셀라)

3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4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5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다

6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다

7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 내가 하나님 여호와와 하실 말씀을 들으니 내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10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12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로다

13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1. ㉠ 본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말하라.

- ㉠ (1) 본시의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중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불드시고 보살피시는 '사랑'이다(참조, 요일 4:8, 16).
- (2) 지난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써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번영케 하셨고, 그들이 지은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덮어 주셨다(1-3절).
- (3) 이러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다(4-7절).
- (4) 그런데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과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신의 풍성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보다 명확히 깨달을 수 있다(참조, 렘 31:3; 립 5:8; 었 2:4).
- (5)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육적·영적 축복을 기대하는 시인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10-13절).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언제나 넘치는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 (7) 그러므로 우리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려면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참조, 요 15:1-17).

2. ㉠ 본시가 쓰여진 시기는 언제인가?

- ㉠ (1) 본시가 쓰여진 시기를 확정지을 만한 분명한 언급이 본 시편에는 없다. 그러나 본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도 이와 같다.

- (2)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유배지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난관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만이 많을 때 본시가 기록되어졌다고 본다(참조, 말 2:17).

3. **㉠** 하나님께서는 '주의 땅'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捕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
 (2) B. C. 605년에서부터 시작하여 3 차례에 걸쳐(B. C. 597, B. C. 586)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가나안 땅에는 노동력을 상실한 일부 유대인들만 남게 되었는데, 이때 가나안 땅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다.
 (3)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대로(렘 25:11; 29:10-14) 70년 만인 B. C. 536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시인은 이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알고 본시 서두에 이것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4) 이처럼 시인은 이전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이다. 즉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140:13; 눅 17:12-19).

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2,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는 은혜를 베푸셨다.
 (2) 비록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보다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다(참조, 마 9:13).
 (3)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당시의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되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마 18:21, 22) 하나님의 용서의 본을 좇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창 45:8-15; 삼하 19:18-23; 막 11:25, 26; 눅 17:3, 4; 엡 4:32).

5. **㉠**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4절)

- ㉠** (1)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라고 간구하였다.
 (2)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그들의 회심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환난의 근원인 주의 분노를 거두실 것을 바라는 두 가지이다.
 (3) 그의 첫번째 간구는 인간의 단순한 바램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80:3, 7, 19), 두번째 간구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의 원인과 기원이 곧 '주의 분노' 이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시면 그들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특별히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순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만 비로소 그의 긍휼과 위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5) 그러므로 혹 우리 가운데 환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회개하자. 그럴 때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들이 제거될 것이다(참조, 욕 42:1-6; 행 9:35; 11:18).

6. ㉠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5-7절)

- ㉠ (1) 시인은 오래 계속되는 환난을 몹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구원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를 하였다.
- (2)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기도의 논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곧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출 34:6, 7)라는 말씀이다.
- (3)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분노를 품으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정된 원리로 받아들였다. 우리도 이 원리를 근거로 기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면한 고통을 즉각적으로 제거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여 낙심치 말고 계속적으로 진지하게 기도드려야 한다 (참조, 엡 6:18; 살전 5:17).

7. ㉠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대하여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 (8절)

- ㉠ (1) 이스라엘을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시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평' (和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2)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화평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의 백성 중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기로 하셨다.
- (4)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번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강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참조, 마 16:17, 18).

8. ㉠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자에게 가까이 임하는가? (9절)

- ㉠ (1)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의 구원이 가까이 임하신다.
- (2)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 행 9:31).
- (3) 그런데 그의 계명이란 예수께서 마 22:37-40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다 (참조, 눅 10:27; 요 13:34).
- (4)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단언하셨다 (요 13:35).

9. ㉠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본귀절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이는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들의 미한다.
- (2) 따라서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는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불리운다 (사 8:8).
- (3)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된다 (참조, 요 3:16).

10. ㉠ '궁핍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 (1) 본귀절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조화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구속 사역은 주의 진리와 의를 그르치심이 없이 불쌍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으며 화평케 하실 수 있다.
- (3)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엄정하셔서 죄와 불의에 대하여 철저히 하시며 동시에 증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조화시키시는 분이시다.
- (4)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조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참신자의 삶이다.

11. ㉠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조화된 결과는 무엇인가? (11절)

- ㉠ (1)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의 두 속성이 조화된 결과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下鑑)하였다.
- (2) 여기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는 말은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성장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의가 하늘에서 하감한다는 것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 (3) 이처럼 메시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 (4)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날마다 성숙해 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12. ㉠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주신다.
- (2) '좋은 것'이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 그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 (3)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에 대한 증거로 '땅의 산물'을 언급하였다.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었다(참조, 창 24:35; 신 29:5; 삼하 6:11; 사 30:23; 말 3:10).
 - (4)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마 11:13; 눅 11:13; 요 10:28; 계 2:10, 17).
 - (5)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영적 물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임을 바로 깨닫고 그 은총에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다(참조, 100:4; 107:22; 신 8:10; 골 1:12; 3:15; 살전 5:18).

13. ㉠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는 뜻은 무엇인가? (13절)

- ㉠ (1) 본 귀절은 대단히 난해하여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대적인 해석이 있을 수 없으나 일반적 해석에 따르면 '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그의 종적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이다.
- (2) 즉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실 것이며, 그에게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 (3) 따라서 본귀절이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길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이다(참조, 신 8:2; 32:11, 12; 눅 1:79; 요 16:13).
 - (4)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가는 그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23:2; 48:14; 눅 1:79).

제 86 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단락구분 1-7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 8-10 하나님을 찬양하다 / 11-13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감사 / 14-17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다

1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2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며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4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5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6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8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9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10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11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 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13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14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15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니이다

16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1. ㉠ 본시의 종류를 말하라.

㉠ (1) 본시는 내용상으로 볼 때 '탄원시'이다. 이 탄원은 85편과는 달리 개인적인 호소로 일관되어 있다.

(2) 그러나 시인이 어떤 처지에서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단지 곤고하고 궁핍하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3) 그런데 본시의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탄원시와 구성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탄원시가 흔히 그 서두에 고통당하는 까닭을 밝히고 있는데 반하여 본시에서는 14절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밝히고 있다.

(4) 그리고 그보다 먼저(12, 13절) 이미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시의 내용상 다소 순서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5) 이처럼 본시는 찬양과 감사가 함께 삽입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환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개인적인 탄원시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2. ㉠ 시인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1절)

㉠ (1) 시인은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 (2) 본시의 표현이나 내용으로 볼 때 시인이 당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확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 (3)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당면한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참조, 59:16; 삼상 26:24).
- (4) 따라서 환난이나 여러 가지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참조, 99:6; 단 6:11).

3. **㉠** 시인은 자신을 어떠한 자라고 고백하였는가? (2절)

- ㉠** (1) 시인은 자신을 '경건한 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라고 고백하였다.
- (2) 여기서 '경건하오니'의 히브리 원어는 <하시드>인데 이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경건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교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
- (3)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34:22; 37:40).
- (4)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하심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 (5)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할 수 있는 삶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감사의 고백이 된다(참조, 롬 12:11; 딤후 2:14; 뱀전 3:13).

4. **㉠** 시인은 자신의 고백을 근거로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는가? (2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여 줄 것과 자신을 구원하여 줄 것을 간구했다.
- (2)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보존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쏟았다. 물론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도 호소하였지만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시 여겼다.
- (3) 그가 지상의 것들을 초월하지는 않았지만 늘 가치의 기준을 영적인 것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간구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들의 관심도 영적인 것에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이 닥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인과 같은 그런 간구를 할 수 없다(참조, 고전 14:1; 딤후전 3:1; 뱀전 2:2).

5. **㉠** 간구를 통하여 시인이 바란 것은 무엇인가? (3, 4절)

- ㉠** (1)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기대하였고, 그에게 내적 위로와 기쁨을 채워 주실 것을 바랐다.
- (2) 다시 말해서 그의 소원은 고통당하는 상태로부터의 구원과 회복을 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기쁨과 희락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었다.
- (3) 이처럼 참신앙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과 화평의 상태에 궁극적으로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흔히 당장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들의 기쁨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초조해 하거나 불평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인처럼 인내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37:7; 사 30:15; 애 3:26).

6. **㉠**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5-7절)

- ㉠** (1) 하나님은 선하사 사유(赦宥)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시다.

- (2) 즉 하나님은 속성이 선하신 분이시므로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 (3) 그러나 선하시고 긍휼의 풍성하심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에게만 국한되어 있다(5절).
- (4) 이같이 불신자들에게는 엄격하시지만 택한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7절) 열심으로 부르짖었다(참조, 대하 7:14; 요일 3:22).
- (5)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닫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확신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37:4).

7. **㉠**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은 무엇인가? (8-10절)

- ㉠** (1) 시인은 먼저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라고 찬양을 돌렸다(8절).
- (2) 여기서 '신들' 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이방 신들' 이나 '천사들' 혹은 '세상의 왕들'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 (3) 따라서 시인의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느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사역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 (4) 그 다음에 그는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9절).
- (5)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자리에 초대되었음을 지적하여 주는 말인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참조, 요 3:16).
- (6) 또한 그는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奇事)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찬양하였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사역의 위대하심' 을 깨닫고 경탄하게 된다는 말이다.
- (7) 이와 같이 시인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기도 가운데서 진심으로 찬양드리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기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참조, 대하 23:18; 마 26:30).

8. **㉠**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난 후 시인은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11절)

- ㉠** (1) 시인은 기도의 첫머리에서 '주의 도' 를 가르쳐 달라고 한 후 그렇게 되면 자신은 진리 안에서 걸어가겠다고 기도하였다.
- (2) 인간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이상 '주의 도', 즉 '하나님의 뜻' 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요 14:17)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때 비로소 그 뜻을 바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 갈 수가 있다(참조, 롬 2:18; 12:2).
- (3) 또한 그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였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당신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참조, 행 21:14; 롬 1:10; 엡 6:6; 골 4:12).

9. **㉠**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였는가? (12, 13절)

- A** (1) 시인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였다.
 (2)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서 그의 영혼을 깊은 음부(陰府)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13절).
 (3)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은덕을 입은 시인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다.
 (4)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전생을 바쳐야 한다(참조, 골 3:17; 벰전 4:11).
 (5)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10. C 시인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14절)

- A** (1) 교만한 자가 일어나 시인을 치고 강포(強暴)한 자의 무리가 그의 혼을 찾았으며 자신들 앞에 주를 두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2) '교만한 자'는 히브리어로 <제딤>인데 이것을 '이방인들'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제림>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앞뒤 문맥으로 볼 때 '교만한 자'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3) '강포한 자의 무리'란 잔인한 무리를 말하며 '혼을 찾는다'는 말은 죽이려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주를 멸시한다는 말이다.
 (4) 비단 시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들의 위협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당황치 말아야 한다.
 (5)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환난이나 고난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 대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 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마 26:41; 고전 10:13; 히 2:18; 벰후 2:9; 계 3:10).

11. C 당면한 위험 가운데서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15, 16절)

- A** (1) 먼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찬양한 후에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2) 그가 찬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도 크시고 충만하시다(참조, 78:38; 사 54:7; 애 3:22; 고전 7:25; 벰전 1:3).
 (3)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크고 풍성하신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요 1:16; 행 4:33; 롬 5:15-20; 고후 9:8; 엡 2:4, 5; 벰전 3:7).
 (4) 셋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패역하여도 진멸시키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으신 분이시다(참조, 민 14:18; 사 1:18).
 (5) 넷째로 하나님은 인자(仁慈)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시다(참조, 느 9:17; 은 4:2).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넘치도록 발견하게 된다.
 (6) 이런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알았기에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것이다(참조, 99:6; 138:3; 145:18).
 (7) 시인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

나눔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참조, 고전 4:16; 엡 5:1; 살전 1:6).

12. **Q** 시인은 자기에게 무엇을 보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17절)

A (1) 시인은 하나님께 '은총의 표징(表證)'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2) 그가 구한 '은총의 표징'은 단순히 자신만이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신뢰나 확신 같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징이다(참조, 사6:17; 왕하20:8; 사7:11).

(3) 이는 그가 '은총의 표징'을 구한 목적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즉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증거를 구하였던 것이다.

(4) 그런데 그가 구한 표적은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의 메시야이심에 대한 표적을 구한 것과는 성격상 판이하게 다르다. 전자가 선한 목적에서 요구되었던 데 반해 후자는 그리스도를 시험하려는 그들의 악한 목적에서 요구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사6:36-40; 마12:38-45).

(5)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증거들을 요구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할 것은 그것이 선한 목적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증거를 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다

화보자료

기도하는 자. 아래의 사진은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노인의 모습이다.



기도란 하나님과 교통(交通)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거짓됨이 없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잠 15:8).

제 87 편 시온이 영광을 받게 되다

단락구분 1-3 시온을 찬양하다 / 4-6 시온 시민권 / 7 축복의 근원인 시온

1 그 기지가 성산에 있음이여
 2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
 들을 사랑하시느도다
 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
 하는도다(셀라)
 4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
 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
 도 거거서 났다 하리로다

5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6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
 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7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1. ㉠ 본시가 지어진 시기와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시가 지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이다.
 (2) 이때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집되고 성전이 재건되어 하
 나님께 대한 제사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던 중이었다.
 (3) 그런데 비록 그들이 재건의 단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위의 원수들에 의하여 약화되어 갔고, 성전의 본래 가지고 있던 내적인 장엄
 성이 사라졌다.
 (4) 이 모든 상황들은 그들로 하여금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포로 생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5)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한 패배 의식과 당시 당하고 있던 막중한 고통으로 인
 하여 성도들이 낙심했고 좌절했으며 절망에서 헤어날지 못하였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그들에게 그들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뿐 아니라 그들이 지
 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한한 영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 본시를
 기록하였다.

2. ㉡ 하나님의 기지(基址)가 세워진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하나님의 기지가 세워진 곳은 '성산'이다.
 (2) 여기서 '하나님의 기지' 곧 '하나님의 터'는 '성전'을 말하고, '성산'이란 '시온 산'을
 가리킨다.
 (3)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만으로 국한시키는 것보다 영적인 의미로 적용시
 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즉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세워진다.
 (5) 그런데 본절에서 밝혀 주는 바와 같이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이다. 이는 교회의 구성
 원인 성도들의 행위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이다(롬 5:1-11).
 (6) 이처럼 당신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어 교회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벧전 1:15, 16).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점차적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다.

- (7)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히 12:4).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며(엡 6:18)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119:9, 10).

3. Q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A (1)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2)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거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더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고 밝히고 있다.
 (3)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는다.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을(롬 9:13)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가 알 수 없다.
 (4)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웅장하고 우아하며 화려한 거처는 많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며 그의 은혜가 뚜렷하게 보이고 그의 진리가 선포되며 그의 백성이 축복을 받는 시온을 더욱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참조, 78:67, 68).
 (5)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의 참모습을 잃지 않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보다 잘 감당하여야 한다(참조, 마 28:18-20; 딤후 2:1, 2; 엡 4:11-15).

4. Q 시인은 하나님의 성 시온을 향해 무슨 말을 하였는가? (3절)

- A (1) 시인은 하나님의 성을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하였다.
 (2) 그러나 당시 그들 주위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을 멸시했고 천하고 추악한 것으로 간주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조차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시인은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3) 이 하나님의 성은 곧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곳에 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며(대하 7:16) 당신의 피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이다(참조, 행 20:28).
 (4)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다(참조, 고전 3:16; 6:19; 고후 6:16; 엡 2:21, 22).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갈 4:7; 롬 8:16, 17) 우리는 영광스럽게 된 것이다.
 (5) 그러나 이 영광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이다(참조, 고전 2:13; 엡 1:18).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였다(벧전 2:9).
 (6)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비참한 상태에 처하거나 세상의 비방을 당할 때 조금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회가 오늘날처럼 비방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지 말자.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영광스럽다'고 하신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5. Q 하나님께서 택한 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4절)

- A (1) 하나님의 성의 범위는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까지이다.
 (2) '라합'은 애굽의 시적(詩的)인 명칭인데(89:11; 사 30:7; 51:9) 이 말은 '교만' 또는 '맹렬함'을 의미한다. 이 말로 애굽을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잔인함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3) 본절에서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거기서 났다'는 말은 '시온에서 났다'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남을 얻었다는 뜻이다.

- (4) 여기에 언급된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요 원수들이다. 이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대단히 놀랍다. 이는 이전부터 되어 오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재확인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참조, 창 17:4, 5; 롬 4:11; 13).
- (5)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산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참조, 요 1:17; 3:16; 행 15:11; 롬 11:6).
- (6)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참조, 사 19:23-25; 엡 2:19).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고전 10:31; 골 3:17; 벧전 4:11).

6. **㉠** 시인은 시온에 대해 무슨 말을 하였는가? (5 절)

- ㉠** (1) 시인은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고 말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면서부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을 암시해 준다.
- (3) 이사야 선지는 이 귀절에서 약속된 내용을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고 말하였다(사 54:2, 3).
- (4) 이러한 교회의 성장 뒤에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영원히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확장과 부흥은 가능한 것이다(참조, 마 16:18).
- (5)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선교 1세기 만에 팔목할만한 성장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여야 하겠다(참조, 사 60:4).

7. **㉠**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登錄)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6 절)

- ㉠** (1)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때를 말한다.
- (2) 그리고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창 12:3; 행 15:23-31; 엡 2:19; 3:6).
- (3) 따라서 본귀절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4)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방인들이 갑자기 높임을 받고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다(참조, 롬 11:13-24).
-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마 6:33; 롬 12:1, 2; 갈 2:20).

8. **㉠**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무슨 말을 하는가? (7 절)

- ㉠** (1)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나의 모든 근원(根源)이 네게 있다'고 말한다.
- (2) 여기서 '근원'이란 생명과 기쁨 그리고 행복의 원천을 말한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 기뻐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누리는 참기쁨과 행복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리하여 이 말씀은 절망과 패배 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었다.
- (5) 뿐만 아니라 이것은 험한 세파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부귀 영화와 쾌락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대신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고후 5:7; 갈 5:16, 25; 엡 4:1; 5:2, 8; 요삼 1:3, 4).

연구자료

구약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심, 신성(神性), 권위, 존엄 등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참조, 8절). '영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안데렐>, <홀>, <하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카블>으로서 그 뜻은 '어려운', '존귀함', '무게', '명성', '명예' 등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 안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여러 신적인 특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도 존엄하여 누구든지 그분의 얼굴을 본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다(출 33:20).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은 불(출 24:16-18), 구름(출 29:43; 겔 44:4) 등이 있었으며 때로는 심판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참조, 사 2:10, 19, 21). 즉 심판은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하심을 탈취하려는 교만하고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방어이다(참조, 행 12:23).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의(義)와도 관련이 있다(참조, 사 40:4, 5; 60:1-3).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이나 인간에게 돌려서는 안 되며(사 42:8) 더우기 가시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신 4:15).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책임이 있으며(고전 10:31) 그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96:8).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산 몸이므로(고전 6:20; 빌 1:20) 자신의 자랑과 영예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롬 3:27; 엡 2:8-10) 것이다(참조, 벧전 2:9).

제 88 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단락구분 1-2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호소하다 / 3-5 시인의 비참한 상황 / 6-9 시인의 고민 / 10-12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다 / 13-14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다 / 15-18 시인이 마음에 병이 들다

1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2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3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4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5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륙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6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7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이다(셀라)

8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갈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이다

9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

의 두 손을 들었나이이다

10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훈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셀라)

11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12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믿음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13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14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15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이다

16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이다

17 이런 일이 몰같이 종일 나를 에우며 함께 나를 들렀나이이다

18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이다

1. ㉠ 본시가 보여 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 ㉠ (1) 본시가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도무지 어찌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확고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다.
- (2) 아마도 시인은 문둥병이나 증풍 같은 생명을 갉아 먹는 병으로 젊어서부터 대단히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의 물골은 더 볼 수 없어 친구들은 그를 떠나버렸고, 이제 그는 죽음에 직면한 것이다.
- (3) 그는 당면한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고백할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낮지 않고 계속되는 괴로운 병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4)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암담한 분위기로 본시를 끝맺는다.
- (5) 그러나 우리는 시인의 첫마디가 '여호와'로 시작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그의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확고한 믿음이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다.

(6) 이와 같이 우리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형통할 때는 물론이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난의 때에도 이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참조, 마 21:22; 롬 1:17; 4:12; 엡 6:16; 히 11:13; 요일 2:13-17).

2.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표제문은 '고라 자손의 찬송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랏르 안눗에 맞춘 노래' 이다.
- (2) '고라 자손의 찬송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는 구절을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본시의 저자 헤만을 '고라 자손'인 동시에 '에스라인'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 (3) 다윗 왕의 수하에서 찬송 직무를 수행하던 헤만(대상 6:33)은 '고라 자손'이지만, '에스라인'이 아니라 '레위인'이므로 그가 본시의 저자라고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 (4) 또한 본시에 나오는 헤만을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세라의 아들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유대인'이므로 곤란하다(왕상 4:31; 5:11; 대상 2:6).
- (5) 그렇다면 본시에 기록된 '에스라인'이라는 말이 오기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 신빙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본시의 저자가 어떤 인물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 (6) 그리고 '마할랏르안눗'은 '병'이나 '슬픔'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마도 본시가 구슬픈 곡조로 노래되었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3. ㉡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였는가? (1, 2절)

- ㉡ (1)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였다.
- (2) 여기서 그는 자신이 당했던 엄청난 고뇌와 슬픔을 고백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그가 목적하는 것은 아무리 그토록 극심한 환난이 자신에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 주려는 데 있다.
- (3)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탄식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방하고 멸시하며 비난한다.
- (4)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영혼으로 기도하였다. 그의 부르짖음은 불만의 토로(吐露)가 아니라 간절함이었다. 그의 기도는 지속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간구였다.
- (5) 이러한 시인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을 버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참조, 욥 1:21, 22).

4. ㉢ 시인이 당면한 상황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였는가? (3-5절)

- ㉢ (1) 그가 당면한 상황은 실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
- (2) 그의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려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고(3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과 같이 되어 힘이 하나도 없었다(4절).
- (3) 뿐만 아니라 죽은 자처럼 버려져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끊어진 채 무덤에 누워 있는 살해당한 사람처럼 되었다(5절).
- (4)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너무 큰 슬픔이나 환난을 당할 때 마음이 가려져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기도 한다.
- (5) 그 한 예로 우리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이유도 없는 환난에서 하나

님의 은밀하신 섭리를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였다.

- (6)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이다. 일시적인 환난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는 시인과 읊처럼 설사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7) 이런 경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욥 5:17-22; 롬 5:3; 8:35-37; 엡 3:13; 약 1:2-4; 5:11).

5. **㉠**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6, 7 절)

- ㉠** (1) 하나님께서 시인을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陰沈)한 데' 두셨고(6 절), '분노'로 그를 무겁게 누르셨으며 '주의 모든 파도'로 그를 괴롭게 하셨다(7 절).
- (2) '깊은 웅덩이'는 은유적으로 쓰여진 말로서 당면한 재앙의 심각함을 표현한 것이다. 또 '음침한 데'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
- (3)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그는 알지 못하였고 우리도 알 수 없다.
- (4)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슬픔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깨달았으면서도 마음을 높여 하나님께 기도한 시인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106:23; 대하 32:26).

6. **㉠** 시인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였는가? (8 절)

- ㉠** (1) 시인은 그의 아는 자들이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고 그들이 그를 가증되게 여김으로 인하여 그가 간헐서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조차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였다.
- (2) 여기서 '아는 자'는 친구를 말하며 멀리 떠난다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셔서'란 친구들에게 보기 싫은 자가 되게 하여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이다.
- (3) 또한 '간헐다'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혔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참조, 렘 32:2; 33:1; 36:5), 이러한 문자적인 해석보다 욥의 말에서처럼 더 이상 어찌해야 할 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참조, 욥 3:23).
- (4) 그가 이제 모든 인간적인 도움들이 자기에게서 사라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5)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베푸셨던 도움의 방편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다.
- (6) 이러한 시인의 인식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다.

7. **㉠**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시인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9 절)

- ㉠** (1)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시인은 그러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매일 기도를 하였다.
- (2)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의 표현이다(참조, 68:31; 욥 11:13).
- (3)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수없이 밀려드는 고통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집요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았다. 그는 당면한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긍휼을 호소하였다. 그의 기도는 간절하였고 진실했으며 매일 계속되었다.

- (4)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만 붙잡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참조, 27:5; 31:7; 50:15; 91:15; 138:7).

8. **㉠ 시인은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였는가? (10-12절)**

- ㉠** (1) 그는 하나님께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의(義)를 만방에 알릴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였다.
- (2) 그러나 그의 이러한 질문들은 질문의 형식을 띠기는 하였지만 차라리 하나님께 대한 간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3)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처한 자신을 지금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뒤늦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하였다(참조, 욕 7:8; 10:21).
- (4) 그의 이러한 호소 이면에는 살아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의 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 (5) 오늘날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는 시인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충성된 마음이 없이는 이 세상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가 없다(참조, 갈 5:16, 25; 엡 5:2, 8; 살전 2:12; 4:1).

9. **㉠ 시인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13절)**

- ㉠** (1)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실되고 인내심 있는 기도를 드렸다.
- (2) 즉 그는 마지 못해 매일 눈가림식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 즉 오래도록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다.
- (3) 그는 자신의 간구가 정당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비록 즉각적인 응답을 하여 주시지 않으셨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며 또 더 풍성히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참조, 22:1, 2; 왕상 3:7-14; 대하 1:7-12; 7:14; 눅 18:7; 요일 3:22).
- (4)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던 것을 중단해 버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 (5) 우리가 정욕을 위해 구하지 않으며(약 4:3)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약 1:5-7) 교만하지 않고(눅 8:11, 12)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참조, 65:2; 105:3, 4; 대상 16:11; 빌 4:6).

10. **㉠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탄식을 하였는가? (14절)**

- ㉠** (1)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라고 탄식하였다.
- (2) 언뜻 보기에 이 탄식은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탄식 속에는 무언(無言)의 기도가 들어 있다.
- (3) 그는 교만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건짐 받기를 비통하게 간구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탄식은 바울이 말한 '말할 수 없는 탄식'(롬 8:26)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4) 때때로 우리도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탄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을 원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안타까움의 탄식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참조, 민 12:10, 11; 사 6:22; 애 1:4, 11; 롬 8:23).

11. ㉠ 본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15-18절)

- ㉠ (1) 본시의 마지막 네 구절은 어릴 때부터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 '슬픈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다.
- (2) 그는 여러 가지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사실상 여러 가지 공포와 떨림 가운데 영겨 있다고 고백하였다(15절).
- (3) 또한 하나님의 분노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자신에게 밀어 닥쳤다고 슬픔을 하소연하였다(16, 17절). 그리하여 그는 8절과 유사한 탄식으로 끝을 맺었던 것이다(18절).
- (4) 본시가 이처럼 감사로 끝나지 않고 슬픈 탄식으로 끝을 맺어 마치 긍휼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탄식의 짐을 하나님께 풀어 놓음으로써 구원에 대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5) 그렇지 않다면 그는 분명히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어, 우리를 결코 실망과 좌절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여야 한다(참조, 27:5; 31:7; 50:15; 욥 2:1-7).

화보자료

고레스(Cyrus) 왕의 무덤. 아래의 사진은 이란의 파사르가테스에서 발견된 고레스 왕의 무덤이다.



본시 4절에 언급된 '무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르>인데 '음부' (히, 웨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부'란 말은 대개 죽은 자의 거처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참조, 115:17; 창 37:35).

제 89 편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다

단락구분 1-4 하나님께 찬양드릴 것을 서약하다 / 5-14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하심을 찬양하다 / 15-18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행복을 노래하다 / 19-29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 30-34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 / 35-37 언약의 영원성 / 38-45 임금과 왕족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짐상을 슬퍼하다 / 46-51 당면한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다 / 52 송영(頌詠)

1 내가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
이다

2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
였나이다

3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
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였나이다(셀라)

5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
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
리이다

6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
구며 권능있는 자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
리이까

7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위
하시오며 들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
할 자시나이다

8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며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렸나이다

9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
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10 주께서 라합을 살륙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
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흠으셨나이다

11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
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12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
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13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
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14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15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
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16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

하여 높아지오니

17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
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18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19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
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도되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를
으로 부었도다

21 내 손이 저와 함께 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
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2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
가 저를 끈고케 못하리로다

23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
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24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25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
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26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
로다

27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
뜸이 되게 하며

28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29 또 그 후손을 영구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0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
로 행치 아니하며

31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
하면

32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
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33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34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다
 35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36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셀라)
 38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39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판을 땅에 던져 욱되게 하셨으며
 40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훼파하셨으므로
 41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욱을 당하나이다
 42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43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서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44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얹으셨으며
 45 그 소년의 날을 단축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셀라)
 46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47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48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셀라)
 49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50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훼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훼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1 여호와여 이 훼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훼방한 것이로소이다
 52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1. ㉠ 본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다른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그 언약의 내용은 삼하 7장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케 만드실 것과(삼하 7:9)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것(삼하 7:11),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삼하 7:13) 등이다.
 (3) 그런데 본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 놓았다.
 (4) 그리하여 시인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그 왕족들이 당하는 참상을 슬퍼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5) 따라서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 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활기 있고 능동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하며, 교회 내의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또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참조, 삼상 7:5-9; 사 37:4; 갈 5:16, 25; 엡 5:8).

2. ㉡ 본시가 지어진 시기는 언제인가?

- ㉡ (1) 본시의 저작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다.
 (2) 혹자는 본시를 유다가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지어진 것이라고 하고(Delitzsch), 어떤 이는 므낫세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을 받아(대하 33:11) 포로로 잡혀간 후에 지어졌다고 하며(Herkenne), 또 어떤 이는 유다 왕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대하 35:20-24)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Keszler).
 (3) 그러나 시인은 38-45절에서 유다가 겪은 재난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는데 왕이 패전의 고배를 마셨을 뿐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이러한 처지에 부합되는 것은 주전 6세기에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의 전쟁밖에 없다(참조, 대하 36:10, 17-20).
 (4) 따라서 본시는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직후, 즉 B. C. 597년이나 B. C. 586년 직후에 지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3. ㉢ 본시의 표제문은 무엇인가?

- A** (1) 본시의 표제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크’이다.
 (2) ‘에스라인 에단’이란 여기서는 다윗 때의 에단(대상 15:19)의 자손을 가리키나, 아마도 이 시인은 여두둔(참조, 39편)과 같은 인물일 것이다.
 (3) 왜냐하면 38-45절의 재난들은 다윗 왕의 통치 때가 아닌 유다의 몰락 시기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용어는 에단의 이름을 딴 찬양 단체를 의미할 것이다.
4. **C**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였는가? (1절)
A (1) 그는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1절)라고 말하였다.
 (2) 그가 이러한 말을 할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유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하고 대대에 전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되어졌다는 데에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3) 그는 엄습해 오는 무서운 시험에 대하여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언약을 마음속에 되새김으로써 이 시를 시작하고 있다.
 (4)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행할 때 어떤 절망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단호히 그 절망감을 뚫고 나가서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외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 같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들려올지라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근거하여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참조, 창 14:23; 욥 2:9, 10; 단 6:1-28; 고전 10:13; 히 2:18; 벰후 2:9; 계 3:10).
5. **C** 역경 가운데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A (1) 역경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그 성실하심이 견고히 세워졌기 때문이다.
 (2)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은 징계 아래 두셨을지라도 택하신 백성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특별히 오늘날처럼 사단이 활개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벰전 5:8) 우리는 이것을 더욱 명심하여야 한다.
 (4) 그리하여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로 인하여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라도 우리는 절망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참조, 117:2; 애 3:22, 23; 요일 4:8, 16).
6. **C**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3, 4절)
A (1)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堅固)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2)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가계(家系)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언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심에 있어서 다윗이라는 한 개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라 세세(世世)에 영원토록 존속될 전체 교회라는 존재를 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3) 이 언약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은 스룹바벨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였다. 다윗의 자손들은 이름도 없이 그저 지내왔으며 5세기 동안 안을 그렸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확실하였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으며 그 왕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되어 갔고 또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참조, 마 16:18; 행 20:28; 엡 2:9).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이다. 그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으며(수 23:5-15)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되었다(히 6:12-20).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롬 4:20, 21; 히 11:13-40).

7. **㉠** 시인이 하나님께 한 보편적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 (5절)

㉠ (1)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會中)에서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2) '하늘'은 여기에서 19:1에서처럼 물질적인 하늘이 아니고,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주의 기사'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보전하시고 지키시는 일 중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3) 그리고 '주의 성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맺으신 약속에 대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말이며, '거룩한 회중'은 '하늘'과 같이 천사들을 가리킨다.

(4) 본절에서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예배와 경외의 대상이 되실 정당한 권리를 지니신 분이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가 조급의 주저도 없이 확고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임을 주장한다.

(5) 아몽든 시인의 찬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드리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도의 마땅히 할 일이다(참조, 33:1, 2; 96:1-13; 100:1-5).

8. **㉠**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엇과 비교하였는가? (6-8절)

㉠ (1) 그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예증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가 비교한 것들은 이 지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이다.

(2) '궁창'(穹蒼)이나 '권능 있는 자'나 '거룩한 자의 회중', 또는 '둘러 있는 모든 자' 등은 모두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들이다.

(3) 따라서 시인의 이 같은 비교는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견줄만한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4)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단순한 말에서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그리고 행동 속에서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言行心事)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고전 10:31; 골 3:17; 뱀전 4:11).

9. **㉠**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시인이 든 실례는 무엇인가? (9, 10절)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다.

(2) 그는 먼저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언급한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부수고 그 원수들을 능력의 팔로 흠으셨다고 말하였다.

(3) 이 같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듯이 그들을 당면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하여 시인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4)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결코 어떠한 찬양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라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87편 **㉠** 5의 (2)를 참조하라.

10. **㉠**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1-13절)

- ㉠** (1)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당신께서 만드신 전우주 만물까지다.
- (2) 이것을 시인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며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으며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 한다고 표현하였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시인은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주는 능력이 많으시고 주의 힘은 위대합니다’ 라는 뜻이다.
- (4) 본귀절들에서 시인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려는 데 있다.
- (5)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이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 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택함을 받은 우리가 전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참조, 고전 10:31; 골 3:17; 뱀전 4:11).

11. **㉠** 하나님 보좌(宝座)의 기초(基礎)는 무엇인가? (14절)

- ㉠** (1)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다.
- (2)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도덕적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란 말이다.
- (3)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의와 공의’로 우주 만물을 다스려 오셨다. 여기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포함되어 있다.
- (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진노의 채찍을 드시면서도 동시에 독생자를 보내어 회생시키면서 까지도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다.
- (5)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닮기를 요구하고 계신다(참조, 엡 4:13). 따라서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동시에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생활화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참조, 롬 8:29; 고전 15:49; 고후 3:18; 빌 3:21; 골 3:10).

12. **㉠** 어떤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인가? (15절)

- ㉠** (1)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유복(有福)한 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 (2)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관대하신 도움을 받아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다.
- (3) 그러므로 참된 행복이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복돋워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도록 하게 하심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다.
- (4) 우리는 생활의 아주 적은 부분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참조, 민 11:1-10; 눅 7:1-5; 행 13:44-48; 롬 5:2; 고후 4:15; 유 1:4).

13. **㉠**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유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15, 16절)

- ㉠** (1) 그들이 유복한 이유는 그들이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기 때문이다.
- (2)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행복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주의 섭리 안에 안주함을 뜻한다.
- (3)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와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는 같은 의미로 사

용되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은 주의 이름과 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 (4) 또한 '종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뜻하며,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자고(自高)하면서 우쭐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오만을 비난하려는 의도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道)를 아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참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 (6)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는가? 생활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고 마음에 참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 사 35:10; 51:11).

14. Q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였는가? (17절)

- A (1) 시인은 하나님을 '저희 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였다.
- (2) '저희 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바탕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자녀들이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양육되고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 (3) 따라서 우리는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녀들을 결코 연약한 상태로 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107:8-21; 116:17; 엡 1:16; 빌 1:3; 살전 5:18; 살후 2:13).

15. Q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18절)

- A (1)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나 실권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것을 시인은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라고 표현하였다.
- (2) 여기서 '방패'는 방어용 무기(대하 14:8)로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 (3) 본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왕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이다.
- (4) 곧 왕의 치세(治世)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과 이에 따라 이러한 은혜로운 행위는 결코 인간적인 매개체가 아닌 보다 차원 높은 근원으로부터 우리 나오는 것이다.
- (5)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의 통치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정의롭고 바른 정치를 해야 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바른 자세이다(참조, 신 17:16, 17; 롬 13:3).

16. Q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여 왕으로 삼으셨는가? (19, 20 절)

- A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 (2)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도록 세움을 입은 것은 인간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 (3)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람의 투표에 의하여 왕이 된 것이 아니며, 또 다윗 자신의 손으로 왕위를 찬탈(篡奪)한 것도 아니며, 또한 더럽고 비열한 간계로 왕위에 앉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하여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뿐이다.
- (4) 이토록 다윗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

명하신 왕을 세상 왕들과 명백히 구별하려는 데 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롬 13:1) 라고 가르친 교훈이 진실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권을 획득한 왕들과 다윗 왕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5) 특히 20절에는 다윗 자신이 왕권을 누릴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오직 모든 것이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이 보다 명백히 언급되어 있다.

(6)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 보자. 오늘날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누리는 명예, 권력,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눅 7:1-5; 17:11-19; 행 11:23; 롬 5:2).

17. **㉠** 하나님께서 택한 자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21-23 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 다윗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는 것과 또 하나는 원수로부터의 보호이다.
- (2) 이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내 손' 이나 '내 팔' 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데 이것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고 그를 힘있게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21절).
- (3) 또한 어떤 원수들도 그를 착취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22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원수들을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하셨다(23절).
- (4)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두 가지 은혜의 약속은 단순히 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이다.
- (5) 따라서 우리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셔서 붙들어 주시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여 주신다(참조, 사 35:3, 4; 43:1, 2).

18. **㉠** 무엇이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24 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함과 인자함' 이 그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에게 내리셨던 은혜를 계속하여 끊임없이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되었다(삼하 7:9).
- (3)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의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심에 대한 증거를 다윗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여전히 자비로우신 모습으로 다윗을 대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다.
- (4)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우리 구원의 전과정 속에 나타나심을 뜻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므로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참조, 요 15:1-11).

19. **㉠**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의 세력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25 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에 대하여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 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라는 말은 바다와 모든 섬들을 지배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며, '오른 손을 강들 위에 세우게 할 것이니' 라는 말은 강들이 흐르는 모든 내륙 지방을 지배하게 할 것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이 '바다' 를 지중해로, '강들' 을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들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윗 왕국의 확장을 메시아 왕국의 확장으로 이해한다면 이것들을 전세계의 바다와 육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4) 우리는 이 왕국의 확장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적극 동참하여 말씀 전파에 힘써야 하겠다(참조, 마 4:17; 12:22-29; 13:25-30; 막 1:15; 눅 4:43).

20. ㉠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였는가? (26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고 고백하였다.
- (2)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였다. 이는 택한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참조, 롬 8:15; 갈 4:6). 한결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만이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는 고백을 감히 할 수 있다.
- (3)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더라면 결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참조, 신 32:6, 7; 사 1:2, 3; 렘 2:5-7; 5:7-9, 24).
- (4)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하나님이며 구원의 바위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참조, 엡 2:8).

21. ㉠ **다윗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27-29절)**

- ㉠ (1)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되(82:6)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택하여 '장자'로 삼아 주셨다(27절; 출 4:22; 렘 31:9).
- (2)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으며(출 22:29-31), 다른 자녀들이 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특권들(창 25:23; 43:33; 48:19; 신 21:17; 대하 21:1, 3; 렘 31:9, 20)을 누렸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큰 축복임에 틀림없다.
- (3) 그 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셨고(27절), 그를 항상 사랑해 줄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맺은 언약을 영구히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28절; 삼하 7:15, 16; 23:5).
- (4) 끝이어서 그 후손의 왕위를 영원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29절; 삼하 7:12, 16). 이 '왕위'는 다윗 자손들의 왕위 계승에 대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 주신 것을 볼 때 그분께서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매우 기쁘게 받으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생활 가운데서 행동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것을 기뻐하신다(참조, 마 16:16-19).

22. ㉠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불순종하면 어떠한 보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32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당신의 법을 버리고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30절) 율례를 파하며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31절)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犯過)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懲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다(32절).
- (2) 여기서 '지팡이'나 '채찍'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도구를 의미한다(참조, 삼하 7:14; 왕상 11:14-40; 12:16-20; 왕하 9:27; 12:17-20).
- (3) 따라서 다윗 자손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들의 저지르는 죄에 상응하는 징계로 그들을 반드시 치실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신 32:34-41).
- (4)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한다면 본질의 말씀에서 언급되었다시

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게 된다(참조, 신 11:28; 28:15; 삼상 12:15; 28:18; 왕상 13:21; 렘 12:17; 엡 5:6; 살후 1:8).

23. **㉠**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함께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33, 34 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면서도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 (2)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33절) 그와 맺은 언약을 어기거나 그에게 한 약속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다(34절).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땅히 징벌하실 치명적인 범죄를 한 자들에게까지 용서에 대한 희망을 남겨 두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 (4)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참조, 막 1:4; 행 11:18; 롬 2:4; 벧후 3:9).

24. **㉠**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35-37 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35절).
- (2) 그래서 그에게는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그의 왕위는 해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며(36절), 하늘의 충실한 증인인 달처럼 그의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37절)을 하셨던 것이다.
- (3)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 당신의 '거룩함'으로 하셨다는 사실이다.
- (4)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신 까닭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이다(계 4:8).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간에 맺은 언약과는 비록 그 형태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 성격이 전혀 판이하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 사이의 언약이 가변적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적이다(참조, 약 1:17).

25. **㉠**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한 내용은 무엇인가? (38, 39 절)

- ㉠** (1)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욱되게 하셨으며' 라고 한탄을 하였다.
- (2) 다시 말해서 그는 다윗의 왕위가 더럽혀지고 끊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셨기 때문이라고 한탄을 하였다.
- (3) 그러나 그의 이 한탄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물려드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어 놓음으로써 그로 인해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연약한 상태로 부터 하나님께서 속히 구해 주시기를 간청하려는 의도이지 하나님을 경망스럽고 변덕스러운 분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참조, 13:1; 44:23; 79:5).
- (4)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시인 역시 그토록 비참하고 혼란으로 점철된 광경 앞에서 동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이다.
- (5)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마고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종종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히 내어 놓고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시인의 한탄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참조, 롬 8:36, 37).

26. **㉠** 이스라엘이 당한 재난에 대하여 시인은 어떠한 사실을 깨달았는가? (40, 41절)

- ㉠** (1) 시인은 그들이 당면한 재난의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保障)을 철폐(毀破)하셨으므로' 길에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奪取)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한다고 고백하였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대로 그 왕국을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믿음이 시인의 가슴속에 굳게 심어져 있는 까닭이다.
- (3)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당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약탈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이웃에게 조롱을 당한다고 하소연하는데 이러한 이방인들의 조롱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므로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간접적인 호소를 하였던 것이다.
- (4)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재난을 당하게 될 때 그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당면한 재난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 (참조, 27:1-3; 141:5; 삼하 16:5-13).

2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42, 43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패역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셨는데 그중에서 자주 사용한 방법 중 하나가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이다.
- (2) 본절에서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뜻이고,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란 군사적인 열세를 의미한다. 또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하게 했음을 뜻한다.
- (3) 흔히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간의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 삼상 17:47; 대하 20:15).
- (4) 그 좋은 예로 우리는 기드온이 3백 명의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순 사건을 들 수 있다 (삿 7:15-23).
- (5) 따라서 이스라엘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미 시인도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이다.
- (6)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인의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용하시고 의도하신 것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각성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조, 눅 19:40).

28. **㉠**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하셨는가? (44, 45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광을 뺏으시고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을 뿐 아니라 (44절) 그 소년의 날을 단축(短促)케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 (45절).
- (2)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뺏으시고 그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위당한 것을 가리키며, '그 소년의 날을 단축케 하시고'란 다윗 왕국의 상태를 한 인간의 일생으로 비유하여 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성대케 하셔서 완전한 성숙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쇠퇴케 하셨다는 의미이다.
- (3) 그리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폐위당한 이스라엘 임금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 수모를 당한 것을 의미한다 (참조, 왕하 25:29).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32절의 언급대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

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택함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소망을 앗아가 버리시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참조, 요 8:33-44; 9:39-41; 살후 1:8, 9).

29. **㉠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살펴 보라(46-51절).**

- ㉠** (1) 시인은 슬프고 비참한 다윗 왕국의 상태에 관하여 하소연한 후 본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스스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온다.
- (2) 여기서 그는 자신의 하소연과 기도를 함께 결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의 진리를 계속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고 있는데, 그는 네 가지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3) 첫째, 그는 재난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46절).
- (4) 여기서 그는 매우 직접적인 말투로 하나님께 질문하였는데 이는 암암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비로우신 얼굴로 대하게 되면 그때 즉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5) 둘째, 그는 인간의 생명이 지극히 짧은 것과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 기도했다(47, 48절).
- (6) 그가 이 기도를 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 극히 짧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서둘러 베풀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 (7) 셋째,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하여 기도하였다(49절). 즉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베푸셨던 인자하심을 왜 지금은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탄식성을 띤 질문을 하였다.
- (8) 이 질문을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영원히 다윗의 자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을 맹세하셨던 고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열조들에게 임했던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도 미칠 것을 그는 변함없이 기대하였던 것이다.
- (9) 마지막으로 그는 원수들의 무례함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였다(50, 51절).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모욕하고 멸시할 뿐 아니라 오만 불손한 말로 괴롭히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했다(참조, 벧후 3:3, 4).
- (10) 이처럼 어려운 재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시인의 신앙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택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창 43:14; 왕하 19:16).

30. **㉠ 시인은 어떻게 본시를 끝맺고 있는가? (52절)**

- ㉠** (1) 시인은 '찬양'으로 본시를 마무리하였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이다 아멘 아멘'.
- (2) 그가 이렇게 찬양으로 끝맺은 것은 그들에게 닥친 재난들로 인한 비통한 슬픔을 진정 시키기 위해서였다.
- (3) 그러나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본시의 서두에서 찬양으로 시작한 그가 또다시 찬양으로 끝맺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도 마땅히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준다.

본장의 요절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6절).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소망도 인간들은 가질 수 없음을 그의 기도 속에서 밝히고 있다.

제 90 편 인생 무상에 대하여 탄식하다

단락구분 1-2 영원하신 하나님 / 3-6 허무한 인생을 탄식하다 / 7-10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의 슬픔을 탄식하다 / 11-13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기를 기도하다 / 14-17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다

1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이시니이다
 3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 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같은 뿐임이니이다
 5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간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 으니이다
 6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썩 바 되어 마르나이다
 7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8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 사오니
 9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 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14 아침에 주의 인차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년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16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1. ㉠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라.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소망도 인간들은 가질 수 없음을 그의 기도 속에서 밝히고 있다.
- (2) 기도의 서두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하여 언급한 뒤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적인 어조로 기도하였다. '티끌'이나 '어제'나 '한 경점(更點)'과 '잠간 자는 것', '아침에 돋는 풀' 같은 표현들은 모두 이것을 적절히 표현한 말이다.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인생은 한 평생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다.
- (4)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축복을 내려 주시도록 간구하였던 것이다.
- (5)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으며 슬픔과 고통의 짐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성공같이 보여도 사실은 실패이다(참조, 눅 15:11-24).

2. ㉠ 본시의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시의 저자는 표제문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모세'이다. 그 이유는 본시의 내용과

언어의 형태가 완전히 모세의 스타일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 (2) 그리고 본시가 저작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과 불평과 반역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인 것이 확실하다.

3. **㉠** 시인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여 말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하나님을 '거처'로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가 되셨다고 말하였다.
- (2) 여기서 '거처'는 '피난처' 혹은 '안식처'라는 뜻인데(32:7;91:9) 이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이전의 정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이에 대하여 허슬리(Horsle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와 순례자는 아브라함 때부터 매 세대마다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가나안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며, 지금은 이 황무한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보호하심 밖에서는 그들의 집과 거처에 대한 위로를 찾아볼 수 없다.'
- (4) 따라서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며 안식처가 되어 주심을 의미한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감추신다(17:8;57:1;룻 2:12).

4. **㉠**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시인은 어떤 말을 하였는가? (2절)

- ㉠** (1) 시인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造成)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 (2)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 (3) 여기서 모세가 말한 영원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많은 변화를 세상에 주시지만 자신은 변치 않으므로 성도들에 대해서도 변치 않으신다(참조, 민 23:19;사 57:15).
- (4) 그러므로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된다. 세상의 위로는 죽음과 동시에 끝나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참조, 93:2;잠 8:23;미 5:2;합 1:12).

5. **㉠**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티끌'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
- (2) 이 말은 인간이란 결국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으므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창 3:19).
- (3)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죽음의 운명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다(참조, 89:48;103:16;전 3:20;고전 15:53;히 9:27).
- (4)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수천 년 동안이라도 살 것처럼 현실 생활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시인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인간이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 (5)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자들의 부류에 속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

로 인하여 영혼의 깊은 잠을 자게 된다(참조, 창47:9; 욥 14:2; 약 4:14).

6. **㉠** 시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였는가? (4-6절)

㉠ (1) 시인은 인생을 시간으로 비유하였고 풀로 비유하였다.

(2)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밤의 한 경점(更點)'과 같고 '잠간 자는 것'과 같으며(4, 5절) '풀'과 같다(5, 6절; 102:4, 11; 사 40:7; 약 1:10, 11).

(3) 여기서 '밤의 한 경점'이란 일몰에서 일출까지 세 시간씩 네 단위로 나누는데 그중의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63:6; 119:148; 출 14:24; 사 7:19).

(4) 본귀절들에 나타난 시인의 이 비유들은 모두 사람의 일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참조, 욥 14:2; 전 6:12; 벰전 1:24; 약 4:14).

7. **㉠** 인간의 일생이 허무하고 덧없는 원인은 무엇인가? (7-10절)

㉠ (1) 인간들의 일생이 불행하여진 원인은 인간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2) 때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그들을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다(참조, 잠 17:3; 사 48:10; 숙 13:9; 벰전 1:5-8).

(3) 그러나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모두 하나님의 분노의 채찍임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그토록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것도 바로 그들의 더러운 죄악 때문이었다(참조, 창 3:16, 17; 레 26:14-20; 민 26:9, 10; 사 20:10; 잠 15:10; 렘 1:16; 30:14).

(4) 죽음이란 것은 원래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죽음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일 뿐이다. 그리하여 인생은 짧고 허무하며 수고와 슬픔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5)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이 되어 버린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참조, 출 17:3; 민 21:5; 신 1:27; 욥 7:11).

8. **㉠**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한 첫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11, 12절)

㉠ (1) 시인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간구하였는데 그 첫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짧아진 인생을 그들이 깨달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生)의 단명과 불확실성, 그리고 거기에 항상 죽음과 영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3) 그럴 때 우리는 남은 일생이 어느 정도 짧은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4) 따라서 우리가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된 지혜로 진정한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다면 이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참조, 욥 28:28; 잠 9:10).

9. **㉠** 시인의 두번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인가? (13절)

㉠ (1) 시인이 두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분노를 제거하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2)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많이 체험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약속된 땅에서부터의 추방은 그들에게 너무나 쓰라린 고통이었다.

(3)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쏟으신 무서운 진노(민 14:23, 32)를 자주 기억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시인은 '언제까지니이까'라는 말로써 그들이 오래도록 겪고 있던 고통을 탄원하였던 것이다.

(4) 이러한 시인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

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은 2:1-7).

10. ㉠ 시인의 세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14, 15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도 하였다.
- (2)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호소가 들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장래의 기쁨의 완전한 샘물이 될 것을 호소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쁨이 자기들이 이전에 겪었던 고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기를 호소한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들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은 그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요일 1:4). 또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이 겪은 온갖 환난을 능히 보상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자(4:6, 7).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을 누리는데 은혜로운 자는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참조, 24:1-4; 34:9, 10; 마 6:33).

11. ㉠ 마지막으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堅固)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라고 간구하였다.
- (2) 여기에서 '행사' 나 '영광' 은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우심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롬 9:23). 그리고 '우리 손의 행사' 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견고케 하소서' 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게 하여 달라는 말이다.
- (3) 따라서 시인의 이 간구를 한 마디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役事)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현저하게 계속되기를 기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의 하는 사업들이 성공하도록 하시는 축복이 자기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까지 계속되기를 간구하였다(참조, 창 17:7).
- (5) 이러한 시인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지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참조, 고전 10:31; 골 3:17; 벧전 4:11).
- (6) 둘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사랑을 충만히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참조, 눅 1:76-79).
- (7) 셋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며 다스려 주시지 않을 때는 결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손길을 내미실 때에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참조, 37:5; 마 6:19-21, 33, 34; 눅 12:15-21; 약 4:13, 15).

본장의 요절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절).

제 91 편 피난처와 요새이신 하나님

단락구분 1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 2-4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 5-13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의 안전함 / 14-16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약속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이다

2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군의 음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4 저가 너를 그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5 너는 밤에 놀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6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7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이다

8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이다

9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2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이다

13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이다

14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15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1. ㉠ 본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안정성에 대한 것이다.
- (2)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호와 지키심의 손길이 완벽하여 그 품안에 거하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언급하였다(1-13절).
- (3)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며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하였다(14-16절).
- (4)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들 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17:8).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 되어 주신다(18:2).
- (5)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삼하 22:3).

2. ㉠ 본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시는 제 4 권에 있는 대부분의 시처럼 표제문이 없다. 그래서 본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견해가 통용되고 있다.
- (2) 유대의 전통은 본시의 저자를 모세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본시와 신 32, 33 장과의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3)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견해는 본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본다. 그래서 본시는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임했던 형벌인 온역(溫疫)이 일어났을 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삼하 24장).
- (4) 70인역(LXX)과 갈대아 역, 벨게이트 역, 수리아 역, 아랍 역, 에티오피아 역 등에도 다윗이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 (5) 그러나 본시의 저자를 우리는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견해 모두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3. Q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 (1절)

- A (1) '지존자(至尊者)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 (2)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란 하나님 안에서 그 품을 휴식처로 삼고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과 내적 교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3) 이런 자들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한 보호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다(참조, 신 32:10; 수 1:5; 사 41:40; 고후 12:9, 10).
 - (4)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145:20) 참성도들(37:28)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보호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동시에 위로이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때가 없을 수 없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로와 기쁨을 얻어야 한다(참조, 요 13:1; 벧전 1:43; 요일 4:16; 계 7:16).

4. Q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2절)

- A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요 '요새'(要塞)시며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 이시다.
- (2)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이신 것은 죄악의 폭풍이 몰아치는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32:7; 46:1; 대하 32:22; 행 27:14-44).
 - (3) 그리고 '요새' 이신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으로(엡 6:12) 십자가의 군병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도록 우리의 든든한 방어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18:2; 고후 1:10; 빌 2:25; 딤후 1:12; 2:3, 4).
 - (4) 또한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 이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지 않으시며, 거짓되지도 아니하시고, 약하지도, 죽지도 아니하시므로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말한다(참조, 52:9; 대하 14:11; 렘 17:7).
 - (5)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보호의 은총을 내려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2:12; 잠 3:26; 눅 24:46).

5. Q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3, 4절)

- A (1)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냥군의 울무에서와 극한 염병(染病)에서 건지시며(3절), 우리를 그 것으로 덮으셔서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4절). 또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된다(4절).
- (2) 여기서 '새 사냥군의 울무'나 '극한 염병'이란 사단의 은밀하고 음흉한 공격이나 노골적인 맹렬한 공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깃'이나 '날개' 그리고 '방패'와 '손 방패' 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말하면 각종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참조,

17:8;35:2;36:5;57:1;124:7;140:5;141:9;왕상8:7;잠6:5).

(4)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참조, 민6:26;대상22:9;눅24:36;롬1:7).

6. **㉠**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결과는 무엇인가? (5-8절)

- ㉠**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밤에 놀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 하게 된다(5, 6절).
- (2) '밤에 놀렘'이라는 말씨는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워졌다. 낮은 낮대로 위험이 뒤따르는데 이것을 '낮에 흐르는 살'로 비유하였다.
- (3) 그리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은 대단한 두려움을 주는 질병을 의미하며,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란 전쟁으로 인한 황폐를 말한다.
- (4) 따라서 본귀절은 여러 가지의 두려움과 위험 그리고 질병과 전란(戰亂) 등의 내우 외환(內憂外患)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 (5)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7절). 다만 우리는 아무런 해(害)를 입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보게 된다(8절).
- (6)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 이 세상의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파멸당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의 본성이 아직 죄에서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참조, 롬3:24;고전6:20;갈4:4, 5;골1:14;히9:15;계14:3, 4).

7. **㉠** 시인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였는가? (9, 10절)

- ㉠** (1)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거처'로 고백하였다(9절).
- (2) 그는 다른 사람의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예를 직접 들어서 설명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결과 화가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災殃)이 자기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는 고백을 아울러 했다(10절).
- (3) 이처럼 인용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언급한 것은 독자들에게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자극을 받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짓되고 세상적인 피난처에서 떠나게 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 (4)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은 어디 위치하는가? 그가 진정 우리의 '피난처'이고 '거처'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늘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요 거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11:1;14:6;18:2).

8. **㉠**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11-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시인이 어디를 가든지 지키게 하시었고,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으며, 그로 사자와 독사를 짓밟아 누르게 하셨다.
- (2) 이것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시인이 특별히 언급한 것이다.
- (3) 즉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보호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말을 하였다(참조, 34:7).
- (4) 여기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는 말은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거칠고 험악한 여러 장애물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걸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 (5) 또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는 것은 사단과 죄악

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다(참조, 7:5;44:5;60:12).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참조, 마 6:13; 고전 10:13; 히 2:18; 벧후 2:9; 계 3:10).

9. **㉠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한 데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14절)**

- ㉠** (1) 시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2) 여기에서 '사랑한즉'이란 하나님을 기쁨으로 신뢰하며, 그 품안에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3)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건지리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던 것처럼 사단의 음흉하고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신다는 의미이다(3, 7, 10-13절).
 (4)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시인 뿐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참조, 97:10;145:20).

10. **㉠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knowing about)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체험을 통하여 알아서 그를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말(to know)이다(참조, 약 2:19).
 (2) 그리고 '내가 저를 높이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드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는 '영화'(glorification)를 의미한다.
 (3) 따라서 본귀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높이 드셔서 영예롭게 하시며 나아가 영원한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깨달아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며 영생의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참조, 빌 2:15; 골 3:12; 벧후 2:9; 계 17:14).

11. **㉠ 시인의 간구(懇求)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15, 16절)**

- ㉠** (1)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응답(應答)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長壽)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들도 허락하여 주심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3)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택한 백성들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다(참조, 65:2;105:3,4; 대상 16:11; 사 56:7; 빌 4:6).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되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참조, 왕상 3:7-14; 대하 1:7-12;7:14; 요 일 3:22).
 (4)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참조, 69:16;109:21; 단 9:18).

제 92 편 하나님의 행사(行事)를 찬양하다

단락구분 1-4 하나님을 찬양하다 / 5-11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 12-15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들

1-3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니이다

4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5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6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7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8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9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

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흠어지리이다

10 그러나 주께서 내 뺨을 들소의 뺨같이 높으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11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12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13 여호와와 그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14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15 여호와와 그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이다 여호와 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1. Q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A (1)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택한 자녀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참조 창 14:18-22).

(2) 더군다나 그는 위대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생각이 깊으신 분이시다. 그리하여 우둔하고 미련한 자는 결코 깨닫지 못한다(롬 11:33, 34).

(3) 또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동시에 의인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5:5, 6; 신 32:34-41).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며 일체의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다(25:8; 33:5; 나 1:7).

(5)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절대자로서 또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을 믿으며 그를 닮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엡 5:13).

2. Q 시인이 좋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A (1) 시인은 '십현금(十絃琴)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다고 여겼다.

(2) 그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근거를 밝힘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찬양을 드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3) 그 찬송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인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

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라는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다는 의미이다.

- (4) 그리고 시인이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한 의도는 예배하는 자들을 자극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 데에 있다.
- (5) 이러한 것들에 근거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정성드려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참조, 9:11; 33:2; 67:3; 사 42:12; 히 13:15; 계 19:5).

3. Q 시인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였는가? (4, 5절)

- A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크신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 일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들렸다.
- (2) 여기서 '주의 행사'란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베푸신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일 수도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오묘하신 행사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전자가 보다 더 적합하다.
- (3)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시는 크신 사랑을 깨달았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진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뒤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결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참조, 4:7; 45:15; 대하 30:21; 느 8:17; 행 2:46; 11:23).

4. Q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시인이 한 말은 무엇인가? (5, 6절)

- A (1)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이해한 시인은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愚蠢)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無知)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 (2)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악인의 불의와 강퍽(剛愎)함에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시고, 허다한 거짓과 속임수와 악탈과 피흘림 등 온갖 흉악한 악인들의 행위들을 막으시지 않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시인이 경탄하는 하나님의 생각의 깊음이다(참조, 욥 11:8).
- (3) 그리하여 우준하고 미련한 불신자들은 결코 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다(참조, 욥 11:33, 34).
- (4) 시인의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섭리적인 통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는 더러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5)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판단을 정결케 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에게 진리의 풍성한 깨달음을 주신다(참조, 사 6:1-8; 빌 3:4-7).

5. Q 악인의 인생은 그 결과가 어떠한가? (7절)

- A (1) 악인은 '풀같이 생장(生長)하고' 다 흥왕(興旺)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 (2) 비록 그들이 흥왕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풀과 같아서 그 형통함은 잠깐 뿐이요 곧 사라져 버린다(참조, 73:18-20).
- (3) 다시 말해서 악인의 인생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임을 당하는 풀과 같이 허망하다(참조, 90:5, 6).
- (4) 따라서 우리는 속히 망할 운명에 처하여 있는 자들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 즉 오늘날은 흥왕하다가도 내일은 잘려 날아가 버리는 자들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129:6; 말 4:1).

6. Q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8절)

- A** (1)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至尊)하신 분이시다.
- (2) 이는 늘 유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이 세상과는 대조적인 존재이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고정되고 지속적인 것이 없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을 비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 (3) 또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현상적인 것으로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인색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쉽게 이러한 죄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참조, 135:13; 145:13; 사 57:15; 애 5:19; 뎀전 1:17; 계 1:8; 11:17).
7. **Q** 시인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하였는가? (9절)
- A** (1)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敗亡)하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흠어지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 (2) 즉 그는 전절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을 멸망시키시지 않을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3) 여기서 시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원수의 종말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데에 있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들의 종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나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당황하게 된다(참조, 11:5; 75:8; 출 23:7; 잠 15:26; 16:4; 21:12).
8. **Q**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10절)
- A** (1) 하나님께서 시인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그에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다.
- (2)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뿔을 장식으로 달고 다녔는데 이것은 힘과 권세의 상징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뿔이 종종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 (3) 그리고 여기에 '들소' 라고 표기된 짐승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학자들 간에 매우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견해는 보카르트(Bochart)의 견해로서 그는 이 '들소'를 눈처럼 색깔이 희고 또 날카롭고 긴 뿔을 가지고 있는 들염소의 일종으로 보았는데 이 짐승은 머리를 높이 쳐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인의 뿔을 높이셨다는 말은 시인이 그의 원수들을 눌러 이기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사상의 표현이다.
- (5) 또한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이며(출 30:29; 레 8:11; 민 7:1), 특별한 명예를 부여하셨다는 의미인 동시에(삼상 24:6, 10)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다(23:5).
- (6)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참조, 신 7:6-26; 왕하 13:23; 뵤 4:19).
9. **Q** 시인은 무엇을 보고 들었다고 고백하였는가? (11절)
- A** (1)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원수의 보응(報應)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라고 고백하였다.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내려 치시는 것을 시인이 직접 보고 듣고서 위로를 얻었다는 뜻이다.
- (3) 하나님께서 시인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권속이므로 시인의 원수는 곧 하나님 자신의 원수임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4) 또한 오늘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도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며 자녀이므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이기 때문이다(참조, 롬 8:14, 16, 17; 엡 5:1).

10. **㉠** 의인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12-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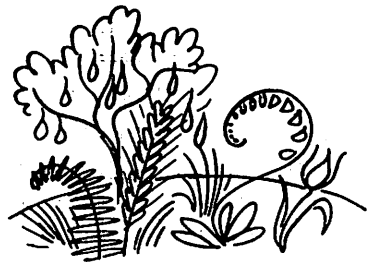
- ㉠** (1)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發育)하며(12절),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져 흥왕할 뿐만 아니라(13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津液)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靑靑)해지는(14절) 축복을 받게 된다.
- (2) 여기서 '종려나무'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나무 중의 하나로서 보통 영적인 아름다움, 고귀함, 풍성함, 한결같은, 인내, 의인의 승리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 (3) 그리고 '백향목'은 놀라울 만큼 크고 높이가 자라며, 천 년 이상 계속 자랄 뿐 아니라 내구성(耐久性)이 강하여 잘 썩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 (4) 따라서 본귀절들이 의미하는 바는 의인들이 잠간 동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새로운 힘으로 다시 소생하여 잘 성장하고 흥왕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 (5) 이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 진리를 수호하며 살고자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비록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참조, 잠 11:18; 마 5:12; 6:4, 6, 18).

11. **㉠**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어떠한 고백을 하였는가? (15절)

- ㉠** (1)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와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와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나다'라고 고백을 하였다.
- (2) 이 고백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을 받는 것과 의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직접 체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다.
- (3) 그의 고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정직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참조, 신 32:34-41). 또한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참조, 27:10; 37:25; 사 41:17).
- (4) 오늘날 우리도 시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즉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생활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본장의 요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12절).



제 93편 여호와와 왕이시라

단락구분 1-2 주의 보좌는 영원하시나이다 / 3-4 주는 큰 물보다 위대하시나이다 / 5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나이다

1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2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3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4 높이 계신 여호와와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5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1. ㉠ 본시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 (1) 시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본시를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고백하였다.
 (2) 즉 시인은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와 같은 제아무리 이 세상의 강한 것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왕권을 손상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부터 견고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능력과 권위를 입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3)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역경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열망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

2.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입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두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2) 여기에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란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자, 즉 권위의 근원자가 되심을 의미한다. 또한 '능력의 띠를 두르시고'란 하나님께서 스스로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능력의 행사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3) 이와 같이 권위와 능력의 갑옷을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으며, 또한 불가능한 일이 없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정사(政事)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반딧불보다도 더 미약한 존재이지만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훨씬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만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엡6:10-17).

3. ㉠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노래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라고 노래하였다.
 (2) 즉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를 보여 주는 표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당신의 섭리 가운데 돌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마24:29).
 (4) 그러므로 본절의 노래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과 상태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사11:1-9).

4. **㉠** 시인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였는가? (2절)

㉠ (1) 시인은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2) 즉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원성을 고백한 것이다. 여기에서 '영원'이란 성경에서 항상 끝없는 기간으로 표현되지만 (90:2;102:12)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미래는 없고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점이다. 즉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또한 물질적인 존재로서 변화하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는 영적인 존재로서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참조, 계 1:8).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신데도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시켜 생각하므로 그분을 다른 모습으로 바꿀 때가 많다. 이러한 제한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역적인 행위이다 (참조, 창3:5).

(5)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며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약속 또한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조, 145:13; 사9:7; 단2:44; 뱀후1:11).

5. **㉠**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보다 위대하시다고 고백하였는가? (4절)

㉠ (1) 시인은 '높이 계신 여호와와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2) 여기서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는 인간에게 항거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자연 세계의 위대함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3)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제아무리 두렵고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물소리와 파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147:18; 148:7,13).

(4) 한편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는 세상 세력, 즉 애굽이나 앗수르,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침입해 오는 대적들을 가리켜 큰 물이나 하수로 자주 비유되었기 때문이다 (참조, 사8:7,8; 28:2; 59:19; 렘46:8).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유희과 필박이 무수히 몰려온다. 그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에 소속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요일4:4-6).

6. **㉠** 시인은 여호와의 증거가 어떠하다고 노래했는가? (5절)

㉠ (1)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라고 노래하였다.

(2) 여기에서 '증거하심'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승리를 약속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리킨다.

(3) 한편 이 같은 하나님의 증거는 첫째로 자연 만물을 통하여 (8:1; 19:1, 2; 롬1:20),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민12:6-8; 히1:1; 뱀후1:21) 확실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는 죄로 인하여 흐려지고 희미해졌다.

(4) 따라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죄인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구원 계획과 이 구원 계획의 실현 방법을 보여 주셨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증거하심은 절대적인 신뢰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

도는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틀림없이 성취될 것임을 믿어야 한다.

7. **Q**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5절)

A (1) 시인은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라고 노래하였다.

(2) 여기에서 '거룩함'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쉬>는 '성결함', '불가침'을 의미한다. 또한 '주의 집'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스5:2,8; 눅2:49)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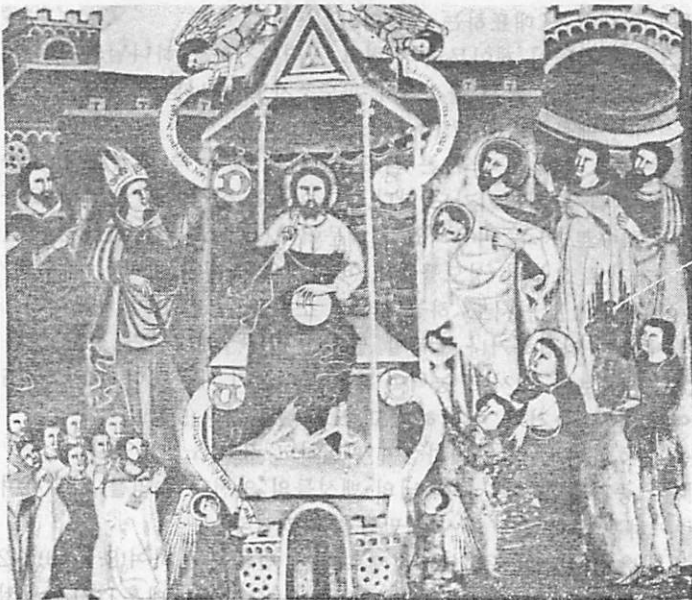
(3) 따라서 본질은 성전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모든 불경건한 행위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요구라 할 수 있다.

(4) 한편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였다(고전3:16,17).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전2:13).

화보자료

여호와의 통치. 아래의 사진은 「사물의 특성에 관한 책」의 14세기 사본에 나오는 삽화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들의 찬양을 묘사한 것이다.



여호와의 통치(1절)는 그분의 주권과 관계 있다. 즉 그분의 주권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에 미치므로 그분의 통치는 범우주적인 것이 된다(잠조, 대하 20:6; 단 4:25).

제 94 편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어

빛을 비추소서

단락구분 1-3 하나님이어 빛을 비추소서 / 4-7 악인들의 행위 / 8-11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치(懲治)하지 아니하시라 / 12-15 마음이 정직한 자가 평안을 얻으리라 / 16-19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불드셨나이다 / 20-23 여호와와는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반석이시라

1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어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어 빛을 비추소서

2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3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4 저희가 지꺼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궁하나이다

5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끈고케하며

6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7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8 백성 중 우준한 자들이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이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9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10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라

11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12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3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

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판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14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 하시리로다

15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좃으리로다

16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꼬

17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던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18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대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불드셨사오며

19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20 울레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21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22 여호와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23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1. ㉠ 본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시는 비탄의 시로서 악인에 대한 고발(1-7절), 악인에 대한 선포(8-11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시인의 담대함(12-23절) 등이 기록되어 있다.
- (2) 여기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지 않고 이스라엘 내의 사악한 지배 세력들을 가리킨다. 그들의 불의한 지배는 선한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로부터 받은 온갖 침해 만큼이나 괴롭고 가혹한 것이었다.
- (3) 시인은 이 같은 사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들을 물리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보호와 인도의 손길을 펼치시며 악한 자들에게 파멸로 보응하시리라는 확신으로 자신을 위로하였다.

(4) 그러므로 본시를 읽는 자들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인식하고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반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참조, 딤후 3:16, 17).

2. **㉠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였는가? (1, 2절)**

- ㉠** (1) 시인은 하나님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며’,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라고 불렀다.
 (2) 즉 시인은 이러한 호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주적인 재판관이심을 고백하였다.
 (3) 그런데 시인이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두 번씩이나 사용한 것은 당시 악인들의 불의한 행위가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온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외침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터 나오는 절박한 외침이 되어야만 한다. 특히 대적들로 인해 극심한 핍박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성도는 험기와 정욕으로 그들을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의뢰해야 한다(마 26:52). 왜냐하면 보수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신 32:35).

3. **㉠ 시인이 요청한 하나님의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하나님의 빛이란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의미한다.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추잡한 모든 죄악들을 들추어 내어 심판하는 공의의 빛이 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의지하려는 백성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 된다(참조, 119:105; 함 3:4).

4. **㉠ 악인들은 어떤 죄악들을 저질렀는가? (4-6절)**

- ㉠** (1) 악인들은 지꺼리며 오만히 말을 하며 자궁하여 주의 백성을 파쇄(破碎)하며 주의 기업을 끈고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였다.
 (2) 여기에서 ‘지꺼리며 오만히 말을 하며’란 ‘침을 튀기면서 마구 지껄이다’라는 뜻으로서 분별없는 혹은 경솔한 말을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하며 피 흘림과 폭력과 소름 끼치는 잔인한 험박을 가리킨다. 또한 ‘주의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가리킨다.
 (3)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 대해 공평과 공의를 베풀도록 명령하셨다(출 22:22; 신 24:17).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려해 주신 특별한 보호의 권리를 침해하는, 즉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하는 행위인 것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악한 자들의 특성은 남을 해하는 불의한 일들을 거리낌없이 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은 힘없는 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특색이다(참조, 요일 3:4-6).

5. **㉠ 악인들이 이처럼 담대하게 죄를 저지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 악인들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야곱에 관해서 알고 있는, 즉 이스라엘 사람임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호칭을 자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창 49:24; 사 2:3; 41:21).
 (3) 이와 같이 악한 자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선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만든 우상처럼 취급하여 그분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단지 제사 제물만을 탐하는 저속한 신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 (4)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불의한 죄악들(4-6절)을 거리낌없이 짓게 한 동기가 되었고 그들의 죄악들을 합리화시키는 방편이 되었다.
- (5) 그러나 악인들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이 비록 자신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목적과 같은 분으로 여겼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 의해 당신의 능력을 제한당하거나 상실해 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참조, 사 45:9, 10; 약 1:13).
- (6)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같이 보인 악인들의 개가(3절)를 수치와 고통으로 바꾸시기 위해 준비하셨다(8-11절).
- (7) 그러므로 본귀절들에 언급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들의 행위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출 5:2; 왕하 18:34, 35) 도덕적으로 타락하며(롬 13:12, 13; 뱀전 4:3)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36:1).
- (8)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경건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여기에서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의미한다)이 없을 때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참조, 마 12:44, 45).

6. **㉠** 시인은 악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8절)

- ㉠** (1) 시인은 그들을 ‘우준(愚蠢)한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라고 불렀다.
- (2) 여기에서 ‘우준한’이란 ‘짐승 같은’, ‘추악한’, ‘추잡한’이란 뜻이며 ‘무지한’이란 ‘어리석은’, ‘바보 같은’이라는 뜻이다.
- (3) 따라서 이 호칭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방 민족과 같이 불의한 일들을 하며 오만하게 행하는 악인들에 대한 강한 풍자의 신랄한 비판이 담겨 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같은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역시 우준하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꾸지람을 받게 된다(참조, 마 25:26, 30).

7. **㉠** ‘귀를 지으신 자’, ‘눈을 만드신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9절)

- ㉠** (1)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다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특별히 ‘귀’와 ‘눈’을 언급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다고 여겼던 악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힐책하기 위함이었다(7절).
- (2) 즉 시인은 인간의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모든 행위와 언어를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열방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징치(懲治)하실 것을 확신하였다(10절).
- (3)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행위와 언행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는 분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11절).
- (4) 이와 같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여기면서 마음껏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으며 결코 하나님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살전 2:4).

8. **㉠** 시인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가? (12절)

- ㉠** (1) 시인은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주의 징벌'이란 악인들의 강포와 꺾박으로 인해 의인들이 겪는 환난을 가리키는데 시인은 이 징벌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로 묘사하였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잠 3:11, 12)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징표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을 제어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신앙의 연단인 것이다(66:10; 사 48:10).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은 그 징계를 통하여 좌절하거나 그 징계를 이성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벧전 4:12) 오히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34:19; 롬 8:35-39; 고 후 4:17; 딤후 4:5; 약 5:13).

9. **㉠**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란 무슨 뜻인가? (15절)

- ㉠** (1) 비록 지금은 사악한 자가 번영하고, 경건한 자가 고난(3-6절)을 당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 (2) 따라서 그때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을 것이다. 즉 정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눈으로 보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진 것같이 보이고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신앙의 연단과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으며 때가 되었을 때 의인에 대한 축복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게 된다.
- (4)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는 악인의 번영과 풍요를 결코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시기가 가까움을 느끼고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공고히 세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참조, 엡 3:13; 히 12:11).

10. **㉠** 시인은 행악자들의 꺾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고백하였는가? (17절)

-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혼이 벌써 적막(寂寞) 중에 처하였으리라'고 고백하였다
- (2) 여기에서 '적막 중'이란 '음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질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었더라면 결코 시인이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과 덫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 준다(참조, 18, 19절).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연단시킬 때 환난 중에서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겨 낼 적당한 힘과 피할 길을 주신다(고전 10:13).
- (4) 한편 시인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그가 바라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그 환난을 이겨 내려고 했었다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보다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성도가 환난 중에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이다(참조, 31:7-24).

11. **㉠** 시인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어떻게 보존하셨다고 고백했는가? (18, 19절)

- Ⓐ (1) 시인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대적들이 파놓은 울무와 덫과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능력의 팔로써 성도의 발 뿐만 아니라 생각마저도 보존해 주신다.
- (3)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대적들의 흉계 때문에 진퇴 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 빠진 자들에게도 주어진다.
- (4)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걱정과 회의에 빠져 방황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만은 그런 상태로 버려두지 않고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
- (5) 한편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대적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같이 큰 사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길로 인해 구원함을 얻었다고 고백하였다.
- (6)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것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연단임을 증거하였다(고후 1:8-10).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식하여야 한다(요 5:17; 고후 4:17; 계 7:14).

12. ⓐ 시인은 당시의 재판장을 무엇이라고 호칭하였는가? (20, 21절)

- Ⓐ (1) 시인은 그 당시 재판장을 가리켜서 '올레를 빙자(憑藉)하고 잔해(殘害)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라고 불렀다.
- (2) 여기서 '올레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 한다는 말은 불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올레를 훼방하였다는 뜻이다.
- (3) 이처럼 당시 재판장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레 19:15; 신 16:18)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82:3)을 망각한 채 높은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판결과 사악한 행위를 하였다(21절).
- (4)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여 의인의 영혼을 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사악한 권력자들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21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말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 (5)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불의한 일들을 자행하는 악한 권력자를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6) 그러므로 비단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29:1, 2; 롬 14:8; 고전 4:2).

13. ⓐ 시인은 자신을 지켜 주신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22절)

- Ⓐ (1)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고 비유하였다.
- (2) 여기에서 '산성' 과 '반석'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18:2). 그런데 '산성' 과 '반석' 앞에는 '나의'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피상적이며 관념적인 외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난처를 정하고 피했을 때 악인들의 환난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다.
- (4) 한편 이러한 시인의 고백 가운데는 지금까지 그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호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담겨져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공적으로 만든 인간의 요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산성과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참조, 142:5; 144:2).

14. **㉠**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어떻게 보우하실 것이라고 노래했는가? (23절)

- ㉠** (1) 시인은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라고 노래하였다.
- (2)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멸하고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여 피흘리게 하며 의인들을 핍박했던 악인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노래하였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산성과 반석이 되시지만 악인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보우하는 분이시다(참조, 삼하 3:39). 따라서 보우의 날에는 악인들의 위용과 권세도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된다.
- (4) 한편 성경에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보우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우의 결과	참조 귀절	보우의 결과	참조 귀절
평생 동안 고통당함	욥 15:20; 잠 15:6	거처가 사라짐	욥 8:22
빈곤하게 됨	욥 27:14	망할 날을 기다림	욥 21:30
슬픔이 가득함	32:10	후세대가 없음	37:28
이름이 지워짐	9:5; 잠 10:7	영원히 망하게 됨	92:7
선한 자에게 굴복함	잠 14:19; 말 4:3	늘 불안 가운데 있음	잠 28:1
부끄러움을 당함	잠 13:5	환난 때 죽음을 당함	잠 14:32
소망이 사라짐	잠 10:30	어둠 가운데 행함	잠 4:19
잘 되어도 그 기간이 짧음	전 8:13	평안이 없음	사 57:21

(5) 시인은 이처럼 악인들이 당시에는 번성하고 온갖 축복을 누리는 것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우으로 패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의인들에 대한 승리의 확신으로 본시를 끝맺었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혼이 벌써
적막(寂寞)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17절).



제 95 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단락구분 1-2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 3-5 여호와와는 크신 왕이시로다 / 6-7 여호와 앞에 경배하자 / 8-11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 3 대저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 4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 5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 6 오라 우리가 곁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 7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 8 이르시기를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맛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 9 그 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 10 내가 사십 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 11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 ㉠ 본시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시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두 가지 이유, 즉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하였다.
- (2) 그와 더불어 시인은 그들의 선조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므리바 같은 곳에서 (출 17:7; 민 20:2-24; 27:14)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음을 강박하게 갖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 (3) 한편 학자들간에는 히브리 원본에 누구의 시란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본시의 저자에 관해서 일치된 견해가 없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히 4:7에 본시를 인용하면서 본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소개함에 따라 우리도 본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심하거나 시험한 일이 없었는가 반성해 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목자로 인정하며 찬양하여야 할 것이다(1-7절).

2. ㉠ 시인은 백성들에게 누구를 향하여 찬양하도록 권면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구원의 반석'이란 신 32:15에서 인용한 것으로 '우리 구원의 힘'이란 뜻이며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 말은 시인이 대적들로 인하여 무수한 절망 가운데 처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다(참조, 144:2).
- (3) 이와 같이 시인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 요구는 단순히 의식적인 것을 가리키지 않고 악기와 노래 등 백성들이 할 수 있

는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을 가리킨다.

- (4) 그것은 '노래하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리아>라는 말이 음성이 되었든 악기가 되었든 간에 어떤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뜻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악기와 노래를 연합하여 찬양할 것을 암시한다.
- (5) 한편 시인이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였기 때문에 본시를 가리켜 '초청시'라고도 한다.
- (6)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요구가 만민에게 해당되며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불성실한 찬양임과 동시에 설령 그 찬양이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진심으로 드러지는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 시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자세로 찬양할 것을 요구했는가? (2절)

- ㉠** (1) 시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요구하였다.
- (2) 여기에서 '나아가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담>은 '서두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에 태만하였던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속히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한편 시인은 69:30, 31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급이 있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다.
- (4)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라고 하였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내세우며 단지 형식적인 마음 자세로 나아가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면서 우리의 첫번째 의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다(참조, 히 13:15).

4. **㉠**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근거는 무엇인가? (3-5절)

- ㉠** (1) '여호와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수 있다.
- (2) 여기에서 '모든 신'이란 사람들이 헛된 망상으로 꾸며낸 우상들을 때로는 말하는 데 사람들이 소위 신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한다(참조, 출 12:12; 신 10:17).
- (3) 그러므로 시인은 본절을 통해 사람들이 머리로 짚낸 허구적인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심을 증거하였다(참조, 145:3).
- (4) 시인은 그 증거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라고 명하였다. 그는 은 우주 삼라 만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으로 선언하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만든 우상과 같이 취급하며 거기에다가 복을 비는 무속주의 신앙가들이 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제한된 사고 방식이라는 틀 속에다 끼어 맞추는 극도의 불경건한 행위이다(참조, 호 4:12, 13; 고전 8:4).

5. **㉠** 하나님께서 모든 신 위에 계신 크신 왕이시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백성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6절)

- ㉠** (1) 시인은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였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며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100:3; 102:18; 149:2; 신 32:6; 사 29:23; 43:21) 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무릎을 꿇어서 헌신의 표를 드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 (3)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존경심과 거룩한 경외감으로 드리는 영혼의 경배 못지않게 외적인 신앙 고백도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 꼭 필요하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살아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며 또한 믿음으로 행할 때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약 2:14-26).

6. **㉠**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을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7절)

- ㉠** (1) 시인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고 설명하였다.
- (2) 즉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물과 꿀을 먹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창 29:2-10; 삼상 17:34-36; 대상 4:39-41; 겔 34:14) 그들의 선한 목자로 비유하였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지켜지며 양육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 떼로 비유하였다.
- (3) 이 같은 비유는 이스라엘이 힘을 회복하고 번영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오직 목자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음성을 좇아 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보여 준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 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샅군 목자를 따라가거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갈 때 위태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헌신적이고 온유하신 목자를 따라 행할 때 평강의 길로 인도 받게 된다(참조, 23:1, 2; 사 40:11; 요 10:11; 히 13:20; 뱀전 5:4).

7. **㉠** 하나님의 양 떼인 이스라엘에게 시인이 원한 것은 무엇인가? (7절)

- ㉠** (1)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오늘날'이란 표현은 지금이 결심을 해야 할 가장 적당한 시기임을 암시한다. 즉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일들을 계속한다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다.
- (3) 이와 같이 성경에는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貫盈)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 있을 때 최후의 경고로써 '오늘날'이니 '지금'이 여호와의 뜻을 찾을 때니'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참조, 미 10:12).
- (4) 한편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 당시를 가리켜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후 6:2)라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지금'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된다(참조, 사 49:8).
- (5)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때가 늦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기 이전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한다(참조, 24:3, 4; 뱀전 1:22).

8. **㉠** 시인은 이스라엘을 경책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언급하였는가? (8절)

- ㉠** (1) 시인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트리바 혹은 맛사 사건을 언급하였다.
- (2) 여기에서 '트리바 혹은 맛사 사건'이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도하에 르비딴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가의 여부를 시험하며 모세와 다투었던 사건을 가리킨다(출 17:1-7).
- (3)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을 강퍽하게 먹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교만하게 거절하고 공공연히 그 말씀을 모독과 경멸로써 적대하였기 때문이었다.

(4) 한편 시편 기자가 홍해를 지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무수한 죄악들 가운데 유독 프리바 혹은 맛사 사건만을 언급한 것은 다른 사건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실들까지도 그밖에 아울러 강조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9. **㉠**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선조들에 대해 얼마나 인내하셨다고 하였는가? (10절)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십 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세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도르>는 한 시대 혹은 사람이 사는 생애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온 생애를 통해서도 고칠 수 없는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3)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근심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심하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쿠트>는 '다투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여러 행사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완악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질책하는 말씀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한 선조들에게 사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당신께 행했던 근심의 회수를 계산하시면서 (민 14:22) 인내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불의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없게 될 것이다(참조, 히 4:1, 2, 11).

10. **㉠** 하나님을 근심시킨 결과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당하였는가? (11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선조들을 당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2) 여기에서 '당신의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의 안식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안식을 가리킨다(참조, 창 12:5; 히 11:10).

(3)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결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모든 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채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민 14:29-38).

(4) 이러한 결과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이었다(민 14:28).

(5) 그러므로 시인이 프리바 혹은 맛사의 사건을 언급하고 그와 같은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단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도록 교훈하고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6)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 안식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써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히 4:5-9).

제 96 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단락구분 1-3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영광을 선포할지이다 / 4-6 여호와는 광대하시나이다 / 7-10 영광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 11-13 여호와께서 의와 진실하심으로 세계를 판단하시리로다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이다
 2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이다
 3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이다
 4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이며
 5 만방의 모든 신은 헛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7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8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

릴지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9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이다
 10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1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12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1. ㉠ 본시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대상 16:23-33에 기록된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시로서 시인은 온 세상이 주를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2) 즉 시인은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4-6절), 온 세상에 대한 주의 의로우신 통치로 인하여 (10절) 그리고 주께서 의로써 이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므로 (13절) 주를 찬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기까지는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실현된다는 의미로 볼 때 본시는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시라고 할 수 있다.

2. ㉠ 시인은 어떤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라고 하였는가? (1절)

- ㉠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새 노래'란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인격이 부르는 노래이다.
 (3) 그러므로 새 노래는 영원히 새롭게 될 노래이며 결코 낡거나 사라져 버릴 노래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새 노래, 곧 은혜의 찬송이 되어야만 한다(참조, 149:1; 사 42:10; 계 14:3).

3. ㉠ 시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요구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이다'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온 땅'이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

한 모든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3)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방편인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히 전파되기 전에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본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사건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겠다. 이 예언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고 구원의 반열에 속하게 되었다(참조, 요 3:16, 17).

4. ㉠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절)

㉠ (1) 성도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宣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여기에서 '선포하는'이란 구원의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적으로 전하라는 뜻으로서 이는 전도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들에게 전파되고 확산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임을 밝히셨다(마 24:14).

(4) 그러므로 성도가 부르는 새 노래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어야 하며 성도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매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사 35:10; 51:11).

5. ㉠ 시인은 성도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였는가? (3절)

㉠ (1) 시인은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그 영광', '기이한 행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명칭들로써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을 이전에 베풀어졌던 여느 구원들과 구별하였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이다(행 1:8).

6. ㉠ 시인은 하나님과 우상을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4, 5절)

㉠ (1) 시인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방의 모든 신은 헛 것이요'라고 설명하였다.

(2) 여기에서 '모든 신'이란 히브리어로 <엘릴림>인데 이는 '헛 것'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이며 천사나 우상을 가리킨다(참조, 95편 ㉠ 4).

(3) 이처럼 이방의 신들은 실재하지 않는 허황된 신들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하늘을 만들 수도 없으며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유한한 인간의 불완전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시인은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는 광대한 분이시라고 선언하였다.

(5) 그 예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고 했다.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의 일부로서 천지 창조의 둘째 날 만들어진 것이다(창 1:8).

(6)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공의 신이 아닌, 성도의 삶을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시는 전지 전능한 분이심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야 할 것이다(7절).

7. ㉠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6절)

㉠ (1) 시인은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성소'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제사와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가리키며(출 25:8, 22; 왕상 8:16, 19; 9:3)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시는 천국(102:19;대상 16:27;사 6:1)을 가리킨다.

- (3) 이사야는 그곳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라고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있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마저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다(사 6:1, 2).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와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설 때에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게 되고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사 6:5-8).
8. **㉠ 시인은 만방의 족속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7-9절)**
- ㉠** (1) 시인은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만방의 족속들에게 요구하였다.
- (2) 여기에서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란 창조와 인류 구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인해 그 이름이 받을 만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 (3) 또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란 일반적으로 '성일(聖日)의 의상' 또는 '거룩한 예배에 적합한 제복'을 가리키며 그 속에는 예배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악세사리가 포함되어 있다(참조, 29:2;대상 16:29). 이 말은 영적으로 볼 때 '찬미의 제사'(히 13:15) 곧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호 14:2)를 가리킨다.
- (4) 한편 본시가 기록될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이방인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 (5)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활동의 다양함과 찬란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찬사와 영광을 받으려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우리는 이러한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사와 영광을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참조, 57:5).
9. **㉠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10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판단하시리라'는 말은 '심판하시리라' 또는 '통치하시리라'라는 뜻으로서 심판과 통치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 (3) 따라서 본절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면서(요 3:17)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롬 8:16) 위로와 기쁨을(롬 14:17)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요 14:16).
- (4) 그리고 본절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장차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최후의 심판 날에 그리스도께서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어(롬 14:10-12;고후 5:10;약 2:12) 악인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의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마 13:43).
- (5) 한편 시인은 이 같은 사건에 관한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 그것이 확실하게 실현될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다시 한번 13절에서 강조하였다.
10. **㉠ 시인은 자연 만물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11, 12절)**
- ㉠** (1) 시인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 할지로다'라고 하였다.
- (2) 즉 이 말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게 되었지만(롬 8:20)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만물이 하나님

께서 지으신 본래의 상태로 회복될 것을 가리킨다.

- (3)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사 65:25).
- (4)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면서 자연 만물의 회복을 시적인 언어로 비유하였고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된 그 기쁨이 얼마나 열광적인 것인가를 보여 주었다.
- (5)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고대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란 말로서 서로 화답하며 영영토록 하나님께 찬양하여야 할 것이다(대상 16:33-36).

화보자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 아래의 사진은 이집트 콥트 교회의 제사장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으로서 상당한 전통을 지닌 예식이다.



찬양은 피조물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다(7-12절).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선 하나님과 교제를 찬양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스스로는 기쁨을 갖는다. 한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5절)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10, 13절).

제 97 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다

단락구분 1-6 여호와와의 보좌 / 7 악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 8-9 지존하신 여호와 / 10-12 의인이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 1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 2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 3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데다
- 4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 5 산들이 여호와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 6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 7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궁하

- 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이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 8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 9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 10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시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 11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 12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1. ㉠ 본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송한 시로서 악인이 심판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2) 이와 더불어 시인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선포하면서, 의인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하면서 본시를 끝맺고 있다.
- (3) 한편 본시는 3절을 한 음절로 하는 총 4음절의 시로서 본시의 저자나 기록 연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읽으면서 조그마한 꾀박과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낙망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한 모습들을 반성하며 의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12; 약 1:4; 5:7; 딤후 4:2).

2. ㉠ 시인이 땅과 허다한 섬에게 기뻐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하나님께서 온 땅과 허다한 섬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땅'이나 '허다한 섬'은 온 세계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바다 저편의 지역들, 즉 이방 나라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까지도 확장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이와 같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곧 초월적(超越的)인 능력과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왕권이 인류의 구원과 행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무질서와 불의, 비행 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께서 통치하시며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의롭게 살아야 한다(참조, 11:3, 4).

3. **㉠**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인가? (2절)

- ㉠** (1) 시인은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기초'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콘>은 '맞추었다', '예비하였다', '굳게 하였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콘>에서 온 말이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의 보좌가 의와 공평 위에 굳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89:14).
 (3)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	참조 구절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섬	왕상 22:19; 대하 18:18
구름으로 가리워져 있음	욥 26:9
공의의 심판을 위한 것임	9:4, 7, 8
하늘에 있음	11:4; 103:19
영원함	45:6; 애 5:19
거룩함	47:8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음	93:2
영광이 충만함	사 6:1-3

4. **㉠** 시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하였는가? (3절)

- ㉠** (1) 시인은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데다' 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불' 이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89:46; 애 2:3), '하나님의 복수' (히 12:29) 를 나타낸다.
 (3)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고 온갖 불의한 일들을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창 19:24), 고라의 무리들(민 16:35), 오십인 대장과 그 부대(왕하 1:9-12), 나답과 아비후(사 47:14) 등에게 불로써 심판하셨다.
 (4)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 날에는 이 불로 인해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벧후 3:10-12) 악인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마 25:41).
 (5)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악인들과는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레 6:12, 13)일 뿐만 아니라 악인들로부터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사 31:9; 숙 2:5).
 (6)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불은 성도들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불로써 그 모습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심판의 불을 피할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5. **㉠** 시인은 번개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였는가? (4절)

- ㉠** (1) 시인은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라고 하였다.
 (2) 시인은 여기에서 '그의 번개' 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번개' 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길을 정하신 것으로서(욥 28:26; 38:25; 숙 10:1)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임을 밝혔다.
 (3)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번개' 를 시내 산 강림에 동반하시고(출 19:16; 20:18) 애굽에 내린 재앙에 수반하심으로써(77:18; 78:48; 출 9:23, 24) 그것이 당신의 능력(삼하 22:15) 과 심판(계 8:5; 11:19; 16:18) 을 상징하는 것임을 보여 주셨다.
 (4) 그러므로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은 비록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자랑하며 교만히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번개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5)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두려워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참조, 148:8).

6. **㉠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때 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 (1) 그때는 산들이 여호와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을 것이다.

(2) 여기에서 ‘산들’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완강히 저항하고 거부하는 악인들의 완고함을 비유하는 표현이다(참조, 사 40:4).

(3)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신원의 날이 이 땅에 선포될 때 이러한 악인들과 세상과 세상의 왕인 사단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선언하였다.

(4) 한편 이 같은 시인의 선언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인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과거처럼 보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악인들의 심판이 변경될 수 없는 분명한 것임을 더욱 확증한다.

(5)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들의 완고한 꾀박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으며 악인들의 변성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갓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1:4).

7. **㉠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결과를 당할 것인가? (7절)**

㉠ (1) 시인은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궁(自矜)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2) 여기서 ‘허무한 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엘릴림>은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 적용되는 말로서 ‘단순한 헛것들’이라는 뜻이다.

(3) 이처럼 우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배은 망덕하게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들어 낸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우상 숭배자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4) 이와 같은 실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3,000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살륙된 사건(출 32:1-28)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알을 숭배하고 산당을 세운 결과 앗수르를 이용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건 등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왕하 17:9-12).

(5)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상 숭배자들은 온갖 악인들과 더불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계 21:8; 22:15).

8. **㉠ 시온과 유다의 딸들은 주의 판단을 듣고 어떻게 행하였는가? (8절)**

㉠ (1)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라고 노래하였다.

(2) 여기서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란 아브라함의 참자손, 즉 육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갈 3:7).

(3) 한편 시인은 ‘시온이 보고’라고 하지 않고 ‘시온이 듣고’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모든 세계로 확장됨으로 인해 성도가 저희 눈으로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하기 보다는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리라는 것을 뜻한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오히려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의 손길이 된다. 그 결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9. **㉠ 시인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어떻게 노래하였는가? (9절)**

- Ⓐ (1) 시인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超越)하시니이다’ 라고 노래하였다.
- (2) 여기에서 ‘온 땅’이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며 ‘모든 신’은 ‘거짓 신들’ 즉 우상들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천사들을 가리킨다(참조, 7절).
- (3) 이처럼 시인은 모든 위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다른 모든 존재들의 우월성을 제한하였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남은 모든 백성들의 기쁨이 된다(8절). 이 기쁨은 단순히 세상에서 권력자들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육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기쁨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다(참조, 사 61:10).

10. Ⓢ 성도는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10절)

- Ⓐ (1)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여야 한다.
- (2)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서(45:7)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게 하고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게 하며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참조, 잠 4:27; 롬 12:9; 벧전 3:11).
- (3) 그런 연고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악은 조화될 수 없는 불과 물 같은 것임을 밝히면서 성도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촉구하였다.
- (4) 이러한 촉구는 비단 시편 기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한 것으로 사도 바울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고하였다(살전 5:22).
- (5)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불의에서 떠날 때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일을 일생의 최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롬 16:17-19; 딤후 2:19).

11. Ⓢ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가? (10절)

- Ⓐ (1)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보존하시며 또한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은총을 베푸신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을 구해 주셨고(단 6:22)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 주셨다(단 3:27).
- (3)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144:2) 라고 노래하였다.
- (4)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무수히 많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고 스테반(행 7:59, 60)이 그랬으며 바울 이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러했다.
- (5) 이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론 육적인 것에도 해당이 되지만 종국적으로는 불멸의 영혼, 곧 걸사람이 부패할 때 점점 더 새롭게 되는 속사람에게 해당이 되며 그 영혼이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임을 보여 준다(딤후 4:18).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보증하셨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력하여야 한다(참조, 미 6:6-8; 고전 13:1-13; 요일 4:8).

12. Ⓢ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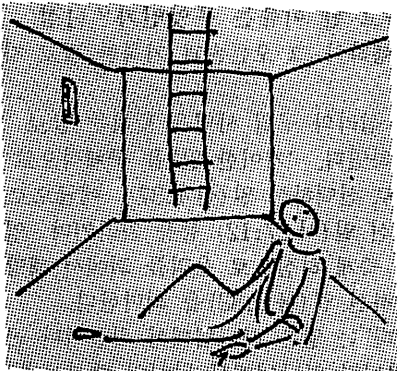
- (2) 여기에서 '의인'은 '정직한 자'를 가리키는데 이는 단순히 외적인 경건성과 행위에 있어서 의로운 자만을 가리키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적인 마음의 정직성까지 갖추어진 자를 의미한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셨는데 이 '빛'은 '기쁨'을 비유하는 말이다. 여기서 '뿌리셨다'는 말은 적당한 때 싹터 올라서 풍요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유로 인해(요일 4:4)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잔인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는 좌절과 실망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
-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며(126:5, 6)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다(요 16:20-24).

13. Q 의인의 기쁨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12절)

A (1) 의인의 기쁨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다.

- (2) 즉 성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최고 기쁨으로 여겨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빌 4:4).
- (3) 이와 같은 성도의 기쁨은 단지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으로만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찬양과 감사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을 시인은 그 거룩한 기쁨에 감사할지언다'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그 거룩한 기쁨'이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미 12:5).
- (4) 오늘날 성도들은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하나님을 체형적으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영적 기쁨을 맛보며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 5:16-18).

본장의 요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0절).

제 98 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단락구분 7-3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 4-6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 7-9 여호와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계를 판단하시리로다

-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그 구원을 베푸셨도다
- 2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 3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 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 5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 로 찬양할지어다
- 6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 7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 8 여호와 앞에서 큰 풀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 9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1. ㉠ 본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시는 단순히 '시' (히, 미즈물)라는 제목이 붙은 시로서 메시아 왕국의 건설과 그 왕국에 이방인을 초대하는 것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 (2) 또한 이 시편은 음율적으로 각 3절씩 세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첫 음절은 찬양의 근거를(1-3절), 두번째 음절은 찬양의 방법을(4-6절), 그리고 세번째 음절은 모든 자연으로 하여금 찬양에 함께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7-9절).
- (3) 그리고 본시의 시작과 끝 부분은 96편에 인용한 것이며 중간 부분은 사 40-66장에서 인용된 것으로 본시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었고 종교적 서정시의 원천이 되었다.
- (4)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본시를 읽으면서 메시아의 때를 열망하며 위로를 받았듯이 오늘날의 성도들은 본시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다(참조, 히 11:40).

2. ㉠ 시인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기이한 일'이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사역을 뜻하는 말로 그 결과를 '그 오른손...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표현하였다. '기이한 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일(신 4:37),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일(출 12:29-42),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일(사 27:12) 등을 가리키며 영적으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갈 1:4)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롬 8:32)을 의미한다.
- (3) 한편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위험이나 곤고에 처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구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이 다른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고 결정하셨으며

권능으로 그 일을 직접 행하셨던 일임을 밝혀 주는 말이다.

- (4)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엡 5:19).

3.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누구에게 나타내셨는가? (2절)

㉠ (1)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목전에서 당신의 의를 명백히 알도록 나타내셨다.

(2)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원천으로서 이 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성실하심이 나타난다.

(4) 한편 시인은 1-3절까지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을 시인이 영적 통찰을 통해 마치 과거의 사건처럼 보았음을 뜻한다.

(5) 이와 같은 시인의 통찰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오늘날도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참조, 행 1:8).

4. **㉠**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맺으신 거룩한 언약(창 22:16-18)을 가리키는 말로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구원의 뿔, 곧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눅 1:68-75).

(3) 또한 '하나님께서...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공로나 의에 기초된 것이 전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기인한 것임을 잘 나타내 준다.

(4) 한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속성들로서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충성, 견고를 뜻하며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낸다. 또한 '성실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메드>는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낸다.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엡 4:1-3; 빌 1:27; 골 1:10).

5. **㉠** 시인은 누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였는가? (4절)

㉠ (1)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이다'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온 땅'이란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킨다.

(3) 이러한 시인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엡 2:14)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복음 시대의 상태를 암시한다.

(4) 그러므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주요한 인무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과 입과 호흡과 행위로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15:9-13).

6. **㉠** 여호와를 찬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6절)

㉠ (1) 시인은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였다.

(2) 이 같은 찬양의 방법 중 '수금'과 '나팔'과 '호각'은 인간이 만든 악기이며 '소리'와 '음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악기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서 나오는 자발적인 기쁨의 노래라면(150:2) 그 찬양의 방법이 악기가 되든 목소리가 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150:3-6).

7. **㉠** 시인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어떤 칭호를 사용하였는가? (6절)

㉠ (1) 시인은 하나님을 '왕 여호와' 라고 호칭하였다.

(2)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단순히 세상의 왕들과 같은 차원에서 '왕' 이라고 호칭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소유하고 '만군의 영광스러운 왕' 으로 호칭하였음을 뜻한다(24:10).

(3) 또한 이 호칭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군의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도록 요구하는 시인의 명령이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시인의 겸손한 신앙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를 만나거나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 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치장하며 정성을 다할 줄 알거늘 그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8. **㉠** 시인은 누구를 향해 '외칠지어다' 라고 명령하였는가? (7절)

㉠ (1) 시인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라고 명령하였다.

(2) 즉 이러한 시인의 명령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을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인간을 제외한 자연 만물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황폐하여졌고 범죄한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다(롬 8:21, 22).

(3) 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서 영적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육체까지 구속을 받고 완전히 양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롬 8:23).

(4) 그러므로 본절의 '외칠지어다' 라는 말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참된 자유를 회복받고 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외침을 토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9. **㉠**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1) 그리스도께서는 땅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것이다(참조, 96:13).

(2) 여기에서 '땅' 이란 단순히 육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3)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의' 와 '공평' 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또 의인과 악인을 가려 내셔서(마 13:36-43) 악인은 '불과 유향 못' (계 20:10)에 집어 넣으실 것이고 의인은 '천국' (살후 4:18)으로 인도하시 '의의 면류관' (살후 4:8)을 씌워 주실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기쁨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마 25:1-13).

제 99 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단락구분 1-3 여호와께서 만민을 통치하실 것이로다 / 4-5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께 경배할지로다 / 6-9 여호와를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이다

1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도다

3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4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5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 상 앞에서 경배할지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6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7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8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니이다

9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1. ㉠ 본시의 내용상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즉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오실 분(1-3절), 현재에 존재하시는 분(4, 5절), 과거에 존재하셨던 분(6-9절)으로 찬양되고 있으며, 또한 각 부분은 '그는 거룩하시도다'라는 찬양으로 끝맺고 있다.
- (2) 또한 본시는 93, 97 편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찬미시로서 '거룩하시도다' (히, 카도쉬)라는 말이 3회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본시를 사6:3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스랍들의 지상의 메아리'라고도 부른다(Keil & Delitzsch).
- (3)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읽으면서 복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가 율법 아래서 사는 자들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 여호와와의 통치는 만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절)

- ㉠ (1)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으로 인해 만민은 떨게 될 것이다.
- (2) 여기에서 '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가즈>는 신체나 마음의 동요를 뜻하는 말로 '두려워하다', '노여워하다'란 말인데 여기서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더욱 적절하다.
- (3)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파멸로 치닫고 있었는가를 발견한 후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 것이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31:19; 잠13:13).

3. ㉠ 시인은 메시아 왕국에서의 하나님의 위치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2절)

-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고 노래하였다.
- (2) 여기에서 '광대하시고' 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가들>은 '탁월하심', '장엄하심'이란 뜻이며,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방들의 계략과 의도와 모든 세력을 깨뜨리고 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위대한 분으로, 모든 민족에게 높으신 분으로 등장하시기 때문에 만민이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없다(1절).

4. Ⓢ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높으심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게 되는가? (3절)

- Ⓐ (1) 그들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순수하고 영원한 분이므로 모든 죄악과 사망 권세로부터 성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크고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자발적인 찬송을 하게 되며 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 악인들과는 달리 축복이 된다(참조, 5:11, 12).
- (4)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입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참조, 150편; 골3:16).

5. Ⓢ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4절)

- Ⓐ (1)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공평'과 '공'과 '의'이다.
- (2) 여기서 '공평' (公平, uprightness)과 '공' (公, judgement)과 '의' (義, righteousness)는 유사하면서도 각기 약간씩 의미에 차이가 있는 말들로서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공평	히브리어로 <메샤린>이며 '길을 평탄하게 하다', '길을 반반하게 하다' 또는 '수로의 물을 끈게 흘러 내려가게 하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17:2; 98:9
공	히브리어로 <체다카>이며 넓은 의미로는 성실함, 생활이 맑고 깨끗함, 감정 및 행동의 올바름을 보여 주는 고결성을 뜻한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흠없음 또는 죄없음을 뜻한다.	왕상 10:9
의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이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입법자, 심판관, 통치자로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뜻한다.	9:4; 욥 27:2; 34:5

* 개역 성경에는 공평, 공, 의가 혼용되어 있다.

6. Ⓢ 시인은 백성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였는가? (5절)

- Ⓐ (1) 시인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라고 요구하였다.
- (2) 여기에서 '발등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뎀>은 고귀한 사람들이 좌석에 앉을 때 발을 올려 놓거나 받치기 위한 낮은 발판을 가리키며 영적으로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상징한다(대상 28:2).
- (3) 성전은 성경에서 '발등상' 외에도 '하나님의 보좌' (마 5:34), '집' (마 11:17), '안식' (95:11), '처소' (신 26:15)라고 불리워지는데 이것은 외형적인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 땅' (사 66:1; 마 5:35; 행 7:49)과 '하늘나라'를 상징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가리킨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우리는 외형적인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품고 헌신하여야 한다(참조, 148:1-7).

7. **㉠**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 기도에 응답받은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언급하였는가? (6절)

- ㉠** (1) 시인은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 이라고 언급하였다.
- (2) 모세와 아론은 다같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앞장 섰던 인물들로서 아론이 제사장인 반면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여기서 모세를 제사장으로 취급한 것은 제사장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코하님>이 왕의 아들들과 같이 매우 신분이 높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모세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기 때문이다(출24:6-8;40:18-33).
- (3)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첫번째 대선지자로 사사 시대 말기에서 왕정 시대 초기에 걸쳐 활약한 지도자였다(참조, 삼상7:15-17).
- (4)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실증하시기 위해서 그와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인물들인데 시인은 이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설명하였다.

8. **㉠** 여호와께서는 구름기둥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7절)

- ㉠** (1) 여호와께서는 구름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 (2)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 말씀하셨고(출16:10;33:9) 그 후 성전에서 사무엘을 만나셨던 사건을 가리킨다(삼상3:3-14).
- (3) 이 같은 경험을 통해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어 모세는 '하나님의 은 집에서 사환'으로(히3:5), 아론은 '여호와와 성도'로서(106:16), 사무엘은 '주의 종'으로서(삼상3:10) 각각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였다.
- (4) 한편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임재(출40:34)와 인도(출40:36, 37)와 보호(출14:19)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 주신 외적인 표적들이었다.
- (5) 이와 같이 시인은 이러한 과거의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를 순종하도록 요구하였다.
- (6)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믿음을 예수께서는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요20:29).

9. **㉠**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와 행위에 대해 어떻게 행하셨다고 하였는가? (8절)

- ㉠** (1) 시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다.
- (2) 이러한 시인의 말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므리바 사건(민20:12, 13)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이 가정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던 사건(삼상8:1-5)을 언급한 것이다.
- (3)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의 행위에 대해 보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하였다.

- (4) 그런데 시인의 이 기록은 단지 모세와 아론과 다니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시인의 말이 비록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5)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북이스라엘은 B. C. 722년 앗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B. C. 586년 바벨론에 의해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푸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하게 될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참조, 미7:18-20).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값을 갚으시기는 하지만 그 죄를 끝까지 기억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준비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명심해야 한다(사1:18, 19). 이것은 진노 중에서도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한 역사적 증거이다(참조, 합3:2).

화보자료

그들 사이에 좌정(座定)하신 하나님. 아래의 사진은 생 제니 교회의 출입문에 새겨진 부조로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을 보필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들의 활동에 대한 첫번째 언급은 창3:24에 나오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제 100 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단락구분 1·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할지어다 / 3 여호와를 지은 자시니이다 / 4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5 여호와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므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대저 여호와를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1. ㉠ 본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시는 ‘찬양의 시’ 또는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은 시로서 비애나 원망이 한 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 특징이다.
(2) 즉 시인은 본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온 땅으로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3) 왜냐하면 모든 택한 백성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3절).
(4) 오늘날 자동차, 강도, 살인 등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것들로 온통 가득찬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며 사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로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읽으면서 창조주로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참조, 135:4-14; 136:5-26).

2. ㉠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누구에게 요구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요구하였다.
(2) 여기에서 시인이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지 않고 ‘온 땅이여’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도처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개념이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영적 이스라엘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마 28:19; 막 16:15; 행 1:8).
(4)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열 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와 그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다(마 28:19; 막 16:15; 행 1:8).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민족이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공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우리 또한 시인이 찬양을 요구하였던 ‘온 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96:1).

3. ㉠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찬양하여야 하는가? (2절)

- ㉠ (1) 성도는 기쁨으로 여호와의 섬기며 노래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한다.
 (2) 이것이 복음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참조, 행 2:46, 47).
 (3) 이와 같은 성도의 기쁨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발작적이면서도 광란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 심취해 있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잠시 잠간의 기쁨(잠 14:13; 전 2:10)과는 차원이 다른 순결한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인 것이다(사 61:10; 렘 15:16; 행 8:5; 롬 5:11).
 (4) 성도의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그의 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다(롬 15:13; 갈 5:22).
 (5) 한편 본질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시편 기자의 삶을 잘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항상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89:16; 고전 13:6).

4. ㉠ 시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3절)

- ㉠ (1) 시인은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묘사하였다.
 (2) 이러한 시인의 묘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소유라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순하고(렘 11:19), 남을 공격할 줄 모르며(사 53:7) 맹수의 공격에 대해 자기 방어력이 약한 성품을 지닌(미 5:8) 양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길러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이다(23:1-5).
 (4) 그런 까닭에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신있게 사용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며(벧전 1:3, 23)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17:8; 신 32:10) 자상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5) 한편 본질은 인간의 기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본질은 진화론(進化論)과 같은 그릇된 인간 기원론과 달리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명백한 성서적 견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창 2:7).

5. ㉠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자들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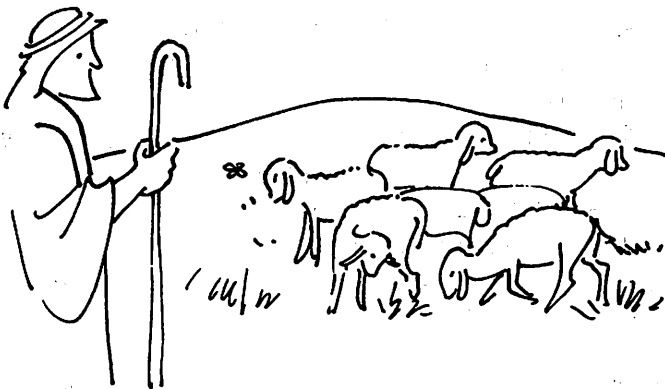
- ㉠ (1)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권고하였다.
 (2)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은 주의 성전의 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성전의 뜰에 찬양을 하면서, 창조와 인류 구원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96:8).
 (3) 이러한 현상은 축제 기간에 백성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감사의 예물을 바침과 동시에 창조주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는 것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열방의 백성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게 될 모습을 예표한다.

(4) 우리는 본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점진적인 것임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달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성숙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참조, 히 6:1, 2; 벰전 2:2; 벰후 3:18).

6. **Q** 시인은 여호와와 선하심을 어떻게 노래하였는가? (5절)

- A** (1) 시인은 '대저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노래하였다.
- (2) 여기에서 '선' 과 '인자하심' 과 '성실하심' 은 하나님의 고귀한 속성들로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변화하는 인간의 선과 인자와 성실과는 달리 어떤 처지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자세한 것은 98편 **Q**4와 138편 **Q**5를 참조하라.
- (3) 한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많고 (출 34:6), 크고 (31:19), 항존(恒存)하시고 (52:1) 라는 수식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의 무한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취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에서 (마 5:45; 행 14:17)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31:19), 당신의 선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데 (86:5; 사 63:9) 에서 잘 증거해 주고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여야 하고 (출 18:9), 기념하여야 하며 (145:7) 그 은혜에 만족하여야 한다 (렘 31:14).

본장의 요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

제 101 편 다윗이 하나님께 서약하다

단락구분 1-2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서약하다 / 3-5 사악한 자들의 모든 태도를 싫어하고 혐오하다 / 6-8 악인이 멸망당하기를 바라다

- 1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 2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 3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불점지 아니하리이다
- 4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 5 그 이웃을 그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

- 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이다
- 6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이다
- 7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 8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이다

1. ㉠ 본시의 중심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쓴 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간의 참된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 (2) 특히 본시는 다윗이 나라를 맡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서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때문에 본시는 '통치자의 시' 라고도 불리운다.
- (3) 다윗은 본시를 통하여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 선한 정치와 덕망과 경건을 유지하여 확실하게 권선 징악(勸善懲惡)을 베풀겠다고 하였다.
- (4) 이러한 각오는 오늘날 통치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다. 통치자들은 자비와 공의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야 하고 그들의 사생활과 공생활에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 (5) 특히 신실한 자에게는 관심과 그만한 보상을, 행악자들은 명백히 처벌하는 정의로운 직무를 행해야 한다(참조, 78:12; 왕상 3:14; 잠 20:7).

2. ㉡ 다윗은 무엇을 찬송하겠다고 했는가? (1절)

- ㉡ (1) 그는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다.
- (2) 즉 다윗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는 말로서 의롭고 정직한 왕이 될 것을 선언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인자와 공의' 를 그의 삶과 통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 (3) 다윗은 이 말 뒤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는 말을 덧붙여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4) 이같이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 지침이 되어야 한다(참조, 렘 7:5-7).

3. ㉢ 다윗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겠다고 했는가? (2절)

- ㉢ (1) 그는 완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집안에서 행하겠다고 했다.
- (2) 이는 '내가 주의(主意) 깊게 나 자신을 살피겠나이다' 란 뜻이다. 자기 마음대로 무슨 악

이든 저지를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것처럼 자신을 삼가하여 절제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든 덕성이다.

- (3) 다윗의 각오는 다른 왕들처럼 자기 자신의 울무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지혜롭게 수행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데 있었다.
- (4) 그러므로 최고 권좌에 올라 자기 권력을 최대한로 이용하여 악을 행하는 대신에 자체와 극기으로써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참지각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 (5)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행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우리는 자신들이 현명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빙자하여 완전한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4. ㉠ 다윗은 어떤 것을 멀리한다고 했는가? (3절)

- ㉠ (1) 그는 '비루(卑陋)한 것'과 '배도자(背道者)의 행위'를 미워하여 멀리한다고 했다.
- (2) 여기에서 '비루한 것'이란 '속된 것', '악한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본질의 뜻은 '악한 것과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소행을 미워한다'는 의미이다.
- (3) 다윗은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다음에 이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원수가 되리라는 말을 덧붙였던 것이다.
- (4)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의 일을 해나갈 때 항상 올바르게 선한 것에 염두를 두고 생활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불의한 일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의로운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참조, 욕31:7).

5. ㉠ 다윗은 자기에게서 무엇이 떠난다고 했는가? (4절)

- ㉠ (1) 그는 '사특한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했다.
- (2) 그가 3절에서 '비루한 것'과 '배도자'에게서 떠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역시 그의 마음은 이런 불의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 (3) 이런 말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는 '악한 일은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란 말을 덧붙혔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기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이웃에게도 잘못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참조, 롬 4:14).

6. ㉠ 다윗은 어떤 자들에 대하여 그 대가(代價)를 치른다고 하였는가? (5절)

- ㉠ (1) 그는 '이웃을 그혹히 하는 자'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멀리하겠다고 하였다.
- (2) 다윗은 자기 주위에 간신배와 사악한 무리들을 두지 않길 원했다. 그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출20:16)는 율법에 금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왕권을 확고히 세우는 데 저해 요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또한 '교만한 자'의 말로는 멸망뿐이기 때문에 다윗의 관심은 이런 자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오직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왕권이 영원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던 것이다(참조, 삼하 7:25-29).
-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불의와 교만에 대하여 민감해야 되고 그러한 일에 대해 결단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단성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 (5)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는 데 있다면, 이러한 결단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참조, 딤후 3:16, 17).

7. ㉠ 다윗은 어떤 자와 함께 하겠다고 하였는가? (6절)

- ㉠ (1) 그는 '이 땅의 충성된 자'와 함께 거하여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로 자기를 수종(隨從) 들게 하겠다고 하였다.
- (2) 특히 다윗이 '충성된 자'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언급한 것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

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다윗이 본문에서 한 말의 의미는 사람의 특성을 지혜롭게 살펴서 아주 완전하고 성실히 생활을 하는 자들로 자신의 가장 친밀한 친구를 삼아 그들에게 직책을 맡기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 (4) 이 말은 오늘날 정치에서나 사회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나 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측근을 올바르게 고르지 못한다면 한 나라나 사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5) 그러므로 통치자나 지도자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하(手下)에 있는 자들도 성실한 자와 정직한 자들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참조, 단 4:26, 27; 롬 12:8, 9).

8. ㉠ 다윗은 어떤 자들을 물리쳤는가? (7절)

- ㉠ (1) 그는 '거짓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자신의 목전에 서지도 못하게 하였다.
- (2) 다윗이 가장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이다 (참조, 31:18; 40:4; 52:3; 58:3; 59:12; 62:4; 63:11 등). 사실 궁중에서 참소(讒訴)하는 간신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패는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 (3) 이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기의 주위에서 모든 거짓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자기의 주변 인물들이 의로운 자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볼 줄 아는 것도 왕의 책임이다 (참조, 욕 1:5).
- (5)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들도 항상 자기의 주위와 자신을 되돌아 보아 거짓되거나 죄악 가운데 있지 않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6)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 있거나 나태해 있으면 이러한 일에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서 모든 죄악들로부터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 (참조, 사 8:11).

9. ㉠ 다윗은 어떤 자에 대해 저주를 했는가? (8절)

- ㉠ (1) 다윗은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이 멸하여지고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기'를 원했다.
- (2) 여기에서 '아침마다'라는 말은 '매일 일찍'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뜻은 '매일 일찍이 인내와 노력으로 나의 궁정을 행악자로부터 보호하고 온 땅을 깨끗게 하겠다'는 다윗의 각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3) 또한 그는 자기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성' (참조, 삼하 6:12-19)이 행악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했다 (참조, 15:1-5).
- (4) 다윗이 이렇게 행하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의 왕국이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참조, 2:6-9).
- (5)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에 자신의 왕국의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영혼을 다 불러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이다 (마 25:31-33).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실 때는 어느 행악자도 함께 거할 수 없다. 다만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따름이다 (참조, 마 25:30).

제 102 편 고통당하는 자의 간구

단락구분 1-11 곤경에 빠진 자가 슬픈 탄식으로 울부짖다 / 12-14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다 / 15-17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다 / 18-22 하나님께 경배하다 / 23-28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다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2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닳나이다

4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5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영이같이 되었사오며

7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8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책망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 하나이다

9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었사오니

10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11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12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음이니이다

14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푼히 여기나이다

15 이에 열방이 여호와와 이름의 경외하며 세 제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17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18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다

19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20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1 여호와와 이름의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22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도다

23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케 하셨도다

24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년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25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26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 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

28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1. ㉠ 본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시는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로서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약속된 구원의 때 (참조, 렘 25:12)를 기다리며 지어진 것이다.
- (2) 본시의 목적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데에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번영에 대하여 보다 큰 관심을 일으키는 데에도 있었다.
- (3) 특히 이러한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본시의 소제목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시는 시편 기자가 슬픔에 억눌린 자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쓴 것이 분명하다.

- (4) 또한 본시는 25, 26절을 그리스도에 적용해 볼 때 (히 1:10-12) 메시아의 날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의미로 분석해 본다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 교회의 환난에 대해 말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 (5)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 고난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도 본시의 저자처럼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2. **㉠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가? (1절)**

- ㉠** (1)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이 상달(上達)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 (2) 이러한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참조, 27:7; 39:12; 54:2; 55:1).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확실한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 (3) 정작 이러한 믿음이 수반되지 않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참조, 렘 29:13).

3. **㉠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2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자기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해 달라고 했다.
- (2)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70여 년 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 (참조, 렘 25:12)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 (3) 그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게 느껴졌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재림의 때가 너무나 길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넘보며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유혹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경성하여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主)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겠다 (참조, 계 22:20).

4. **㉠ 시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3절)**

- ㉠** (1) 그는 자신의 고통을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냉과리같이 됐다'고 묘사했다.
- (2)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모든 소망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듯했고 육신마저 숲처럼 타버리는 듯한 고통이 있었다고 했다. 여기에서 '냉과리'는 덜 구워져서 연기와 냄새가 나는 숲을 말한다.
- (3) 시인이 이러한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랬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한다 (참조, 31:10; 32:3; 42:10).

5. **㉠ 시인은 자신의 절망을 어떻게 말했는가? (4, 5절)**

- ㉠** (1) 그는 너무나 큰 절망감에 휩싸여 음식조차도 입에 대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이 풀같이 쇠잔(衰殘)하게 되었으며 탄식으로 인해 피골이 상접(相接)하게 되었다고 했다.
- (2) 이 말의 뜻은 그가 모든 기쁨을 거절하고 심지어 식음까지도 전폐할 정도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신앙의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암담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 (4)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영원한 절망을 허락지 않으신다(참조, 벧전 1:7).
- (5)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록 더욱 주를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참조, 86:2).

6. **㉠ 시인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6, 7절)**

- ㉠** (1) 시인은 자신을 ‘광야의 당아새’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로 비유하였다.
- (2) 여기서의 ‘당아새’는 히브리어로 <카아트>이며 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펠리칸(pelican)으로 번역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말이지 정확하게 펠리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뭏든 본질의 분위기로 보아서 우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새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 (3) 그리고 시인은 자신을 ‘참새’로 묘사했는데 참새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치포트>는 본래 모든 종류의 새를 가리키는 말이다.
- (4) 또한 참새는 원래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들과 떨어져 있는 참새는 고독하게 보이므로 시인은 자신을 ‘외로운 참새’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외로움을 나타내었다.
- (5) 여하튼 시인은 외로운 새들을 열거함으로 자신의 고독함과 우울함을 대변하였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는 듯한 고독함을 느낄 수 있고 외로움을 체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므로 고독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참조, 마28:20; 살후2:16).

7. **㉠ 시인은 원수들이 자신을 궤방했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 빠졌는가? (8, 9절)**

- ㉠** (1) 그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을 섞어 마실 만큼 슬픔이 계속되었다.
- (2) 이것은 큰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다. 당시에는 슬픔을 당한 자들이 애곡할 때 몸을 쭉 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 관습이 있었다(참조, 신9:18; 삼하 12:16; 13:31).
- (3) 시인은 원수들의 궤방으로 인하여 음식을 더러운 먼지와 더불어 먹을 만큼 비참한 처지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 (4)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가중하여 묘사한 것은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었사오니’라는 말이다. 이는 애곡하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잠시 음식을 먹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동안에도 눈물이 흘러 그 슬픔이 한 순간도 그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 (5) 신자의 생활 가운데에는 악의 세력들이 궤방함으로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때는 정작 자기 주위에는 아무 도움도 없는 듯하고 단지 슬픔만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지기 쉽다.
- (6) 그러나 이때 우리 신자들은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간구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히5:7).

8. **㉠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무엇으로 여겼는가? (10절)**

- ㉠** (1)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분과 노’에 있다고 했다.
- (2) 이 말은 시인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재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징벌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치실 때 단순히 신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서 주시려는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9. **㉠ 하나님께서 시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10, 11절)**

- ㉠** (1) 하나님께서 시인을 ‘드셨다가 던지셨다’. 그 때문에 시인의 처지는 ‘기울어지는 그림

자 같고 풀의 쇠잔함같이' 되었다.

- (2) 이것은 시인이 당한 슬픔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인을 돌보아 주고 사랑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 (3) 개인에게 있어서 행복한 처지에서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는 것이다(참조, 욕2:8).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므로 동정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 (4) 이러한 내용은 본시가 저작될 당시 느헤미야로 인하여 비극이 고조된 사건(느1:1;2:1)을 가리킨다.
- (5) 즉 수산에서 느헤미야의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동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은 더욱 깊어져 갔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로 자신이 '던져지고' 가련하게 된 처지를 하나님께 하소연하였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비록 본절에서는 슬픔이 시인의 개인적인 슬픔으로 나타나 있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공적인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다.
- (7) 시인의 슬픔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슬픔이었고 이러한 슬픔을 통해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였던 것이다(참조, 사63:15).

10. ㉠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12, 13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면서 정한 시기가 왔으니 시인에 대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 (2) 여기에서 '정한 기한'이란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 시대의 끝날과 예루살렘의 회복(렘 25:11, 12; 29:10)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한을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 (3)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 (4) 특히 시인이 구원의 기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하므로 괴로운 포로 생활이 한시 바빠 끝나기를 고대하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분명히 앞으로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며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다(참조, 계22:20).

11. ㉠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4-17절)

- ㉠ (1)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 (2) 이 귀절은 미래의 사실을 예시하고 있지만 과거 시제로 묘사되었다. 이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된 후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운 사건을 회상한 것이다(참조, 학 1:15).
 - (3) 또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교회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한다. 즉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진 백성을 자기에게로 다시 모으시고 자신의 사망에서 교회를 생명으로 옮기실 때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예견한 내용이다(계 21:1-8).
 - (4) 이러한 일은 바로 '빈궁한 자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시인은 말하였다. 여기에서 '빈궁한 자'란 교회의 부구를 기다리며 의롭게 흩어져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루바빠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6) 비록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빈궁한 자'의 위치에서 사는 듯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12. Q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는 무엇을 위하여 기록된다고 했는가? (18절)

A (1) 시인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다'고 했다.

(2) 여기에서 '이 일'이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신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3) 또한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분명히 구해 내실 것이다.

(4)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모든 자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다. 과거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남아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참조, 대상16:36).

13. Q 시인은 여호와께서 땅을 감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는가? (19-22절)

A (1) '간헐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는 데 있다고 했다.

(2)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시온에서 선포하실 것이며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실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 때문에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4) 이런 일들은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126:2)와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때(참조, 학1:14)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됨으로 이루어졌다.

(5) 궁극적으로 이 일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49:10)란 예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6)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참조, 사61:3).

14. Q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쇠약케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23, 24절)

A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간구했다.

(2) 즉 그는 포로 생활 중에 자기를 데려가지 말라는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가 이러한 간구를 하게 된 것은 포로 기간 중에 그가 당한 고통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다.

(3) 또한 이 간구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호해 달라는 성도의 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년'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기간으로 해석된다.

(4) 성도들의 삶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책임하게 외면하시지 않는다.

(5) 비록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여러모로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놓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높히시고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다(참조, 110:1).

15. Q 시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말했는가? (25-28절)

A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존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 앞에서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끄는 영원한 보호이다.

(3) 그러므로 주의 보호 아래에 사는 자는 그 연수가 끝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분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2:17).

제 103 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단락구분 1-2 여호와를 찬양하다 / 3-5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다 / 6-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다 / 15-18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 19-22 여호와와의 권능을 찬양하다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7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8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18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9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20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 여호와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 ㉠ 본시의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시는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의 다각적인 인자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시이다.
 (2) 특히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분을 송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다윗은 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는 중에 베푸시는 자비를 찬양하였다.
 (4)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로 때문이거나 혹은 저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셨기 때문이다.
 (5)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죄값으로 인해 심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자비로써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참조, 요 3:16).

(7)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전생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히 2:12).

2. **㉠** 다윗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 (1, 2절)

- ㉠** (1)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며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다짐하였다.
- (2) 다윗이 자신에게 이렇게 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특히 다윗은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을 첨가시킴으로 전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란 다윗 자신이 소유한 지·정·의 뿐만 아니라 온 육체와 영혼을 의미한다.
- (3)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을 수가 없었다.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한 일깨움을 준다.
- (4) 그리고 이 말들을 통하여 오늘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생활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지 않았던가.
- (5)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온 인격을 통한 감사, 또한 그 감사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골 3:16).

3. **㉠**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셨는가? (3-5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로부터 구속하시며,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다.
- (2)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하나씩 열거하면서 지적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충분히 실감했던 것이다. 그래서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 (3) 이처럼 의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며 그 자비에 대해 찬양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원 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찬양이어야 함을 일깨워 주는 부분이다.
- (4)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기가 일쑤였다.
- (5) 감사할 조건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 조건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108:1).

4. **㉠**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6-9절)

- ㉠** (1) 다윗은 하나님을 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묘사했다. 특히 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찌기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내용이다(출 34:6).
- (2)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자비는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리시고(참조, 9:9; 욥 35:9-14), 화를 내시기 보다 잘못을 지적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데서 나타난다(참조, 겔 18:27; 요일 2:2). 또한 그것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에게 소상히 계시하는 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 (3) 이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참조, 엡 2:4).
- (4) 그러나 모두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며 사는 자들에게 그 사랑은 느껴질 수 있다(참조, 롬 5:5).

5. **㉠**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10-14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죄악을 멀리 옮기

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다.

- (2)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요 3:16).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 주시고 인간들 대신 죽게 만드셨다(사 53:5).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와 명예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한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의 체질(약함)을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다(11절; 창 2:7; 욥 34:15).
- (4)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러한 사랑의 약속을 맺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참조, 계 3:20).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가식이나 변명보다는 단 순히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주로 모시면 되는 것이다(참조, 요 1:12).

6. **㉠** 다윗은 여호와와 사랑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15-18절)

- ㉠** (1)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 까지 이르고 그분의 의는 자손 대대에까지 미친다고 다윗은 말했다.
- (2) 다윗은 인간의 힘에 의지하기 보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은 덧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37:2; 102:11; 사 40:6; 약 1:10; 벰전 1:24).
- (3) 의인은 자기가 의뢰할 대상을 올바르게 찾는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들을 대대로 사랑하신다(참조, 출 20:6).
- (4) 이러한 다윗의 말은 자기의 뜻을 독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에 모든 인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며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참조, 31:19).

7. **㉠**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조차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했는가? (19, 20절)

- ㉠** (1) 다윗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2)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권능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상의 피조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참조, 148:2; 살전 4:16; 계 10:1).
- (3) 또한 다윗은 본절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배의 모범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 (4)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천사의 모범적인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나태한 잠을 깨우기 위해서였다.
- (5) 그러므로 이런 말 속에는 '너희가 부여받은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일이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8. **㉠** 다윗은 누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는가? (21절)

- ㉠** (1) 다윗은 '천군'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천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많은 존재들을 가리킨다(참조, 148:2; 사 40:26; 눅 2:13; 히 12:22). 다윗이 천군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앞으로 오실 사랑의 왕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준비 작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 때 '허다한 천군들'이 나타나 그리스도를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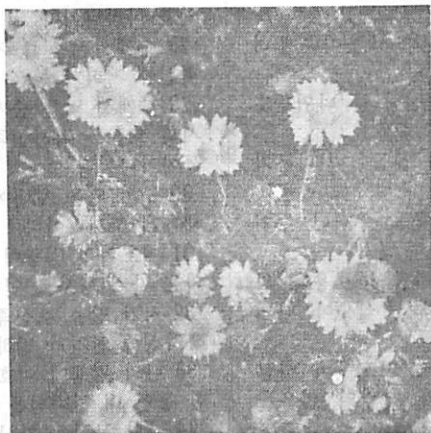
했다(눅 2:13).

9. **Q** 다윗은 결론적으로 찬양해야 할 대상을 누구들로 지칭하고 있는가? (22절)

- A** (1) '여호와와 그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자들'에게 찬양하라고 했다.
 (2) 즉 다윗은 결론적으로 찬양해야 할 대상을 모든 피조물로 언급하였다. 이는 비록 그들이 말을 못 하고 지각은 없다고 할지라도 저희를 만드신 창조주께 찬양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여기에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에서 찬양을 받지 않는 구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4) 특히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이유는 성도들이 이 일에 더욱 열성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5) 이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역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에게서 찬양을 기대하시고 당시의 입을 여사 친히 당신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는가.
 (6)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하겠다(참조, 108:1).

화보자료

들의 꽃. 아래 사진은 팔레스틴 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 대륙의 어느 곳에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노란 국화'인데 그 학명은 '크리산테뎀 코로나리움'(Chrysanthemum Coronarium)이다.



꽃의 영광은 그 아름다움에 있다. 그러나 꽃은 그 생명이 짧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물 중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인간도 그 수명은 지극히 짧다. 그러기에 인간은 종종 꽃에 비유되고 있다(15절; 욕 14:2; 벰전 1:24).

제 104 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단락구분 1-4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다 / 5-8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다 / 9-18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해서 섭리하시다 / 19-24 해와 달의 규칙적인 운행 / 25-26 하나님께서 바다를 중만케 하시다 / 27-30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로 이끄시다 / 31-35 하나님을 찬양하다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2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3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6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7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뢰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8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 갔나이다

9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0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니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니

11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12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13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14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니

15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16 여호와와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17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임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18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19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20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21 젊은 사자가 그 잠을 깰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

22 해가 뜬으면 물러가서 그 굴혈에 눕고

23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24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25 저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26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27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29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30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시니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1 여호와와 영평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32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발하도다

33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 나의 목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35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1. 103편과 본시의 내용을 비교하라.

- Ⓐ (1) 본시는 저자가 확실치는 않지만 103편의 저자와 동일 인물(다윗)로 추정되며(Matthew Henry, John Calvin)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
- (2)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했고 그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다. 반면에 본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통치와 관대함을 찬양하고 있다.
- (3) 또한 103편에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찬양되었고 본시에서는 자연의 하나님으로 찬양되었다.
- (4) 특히 본시는 전반적으로 자연에 대한 묘사가 빼어나고 그러한 묘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다.
- (5)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뿐 아니라 인간마저도 창조하셨고 다스려 나가시는 만물의 주인이심으로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것이다(참조, 롬 11:36).

2. ⓐ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1-4절)

- Ⓐ (1) 그는 하나님의 위엄이 지대하기 때문에 옷을 입듯이 빛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치시며, 창공의 물 위에 주의 집을 세우시며, 구름을 수레로 삼고 바람을 주의 사자로 삼으시며,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삼으신다고 묘사하였다.
- (2) 다윗은 본절에서 천지 창조의 첫날과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묘사하였다. 그것은 2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시며 ‘옷을 입을같이’ 그 빛을 입으셨다(창 1:2).
- (3)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궁창을 만드셨으며, 그에 따라 무엇이 구별되었던가를 간단히 나타내고 있다(창 1:6, 7). 본절에는 궁창의 창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거처로서 그 영광이 언급되고 있다(3절).
- (4)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참조, 요 8:12). 만물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빛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다(참조, 요 3:16).
- (5)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것처럼 그 빛을 모든 자에게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이다(마 5:14-16).
- (6)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는 연단과 도전을 받아야 하며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참조, 갈 2:20).

3. ⓐ 다윗은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는가? (5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다’고 했다.
- (2) 여기에서 ‘땅의 기초를 두었다’는 말은 어떤 물질 위에 땅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공간 위에 땅을 매어 달았다는 의미이다(참조, 욕 26:7).
- (3)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서 유래된 표현법이다.

4. ⓐ 다윗은 바다와 육지의 창조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6-9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먼저 온 땅을 바다로 덮으신 다음 물에게 명하여 정해진 처소에 돌아가게 만드신 후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고 다시 덮이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다.
- (2) 다윗은 이러한 내용을 본절에서 의인화(擬人化) 시켜서 묘사했다. 창조 직후 세상은 물로 덮혀 있었다(참조, 창 1:2).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물은 물대로 모이게 되었고 물이 드러났다(창 1:9). 하나님께서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로 칭하신 것(참조, 창 1:10)이 땅과 바다의 시작이 되었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은 창조시에만 있고 지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저장하게 하시어서 언덕이나 계곡에 샘물로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여금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
- (4) 더욱 신기한 일은 바다의 물을 쉬임 없이 하늘로 올려 보내어 구름을 만들어 적합한 시기에, 또한 절기를 따라 땅에 쏟아 주시어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인간들이나 동물들을 키워 주시는 일이다.
- (5)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샘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서 찾아 볼 수 있지 아니한가? 물을 다스리고 순종케 하심도 하나님의 권능의 일부이다(참조, 욥 28:24-28).

5. **㉠**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위하여 어떤 섭리를 행하셨는가? (10-13절)

- ㉠** (1)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위하여 골짜기에서 샘물을 솟게 하셔서 들짐승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며 또한 그 물가에서 공중의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게 하시고 온 땅에 비를 내리시게 하셔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셨다.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동물에게까지 그 은택을 베풀어 주시며, **㉠** 것들에 대해 소홀히 행하지 않는다(참조, 마 6:26, 28, 29).
- (3)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법칙을 허락하셔서 그 변치 않는 법칙에 의하여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무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푸시는데 몸소 흠으로 빚고 생명을 허락하신 인간(창 2:7)을 소홀하게 다루시겠는가.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참조, 8:12; 잠 16:20).

6. **㉠**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떠한 혜택을 허락하셨는가? (14,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게 하는 기름과 사람에게 힘을 주는 식물을 주셨다.
- (2) 하나님께서는 만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그분의 특별한 사랑 중 한 가지가 바로 인간에게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음식물로 채워 주신 것이다.
- (3)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관대하고 풍부하게 베풀어 주신 것은 자신의 선하심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
- (4)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택을 남용하거나 무절제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부히 공급해 주시는 만큼 우리 각자가 자발적으로 당신께서 허락하신 부요를 절제하여 사용하도록 원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롬 13:14).

7. **㉠** 다윗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6-18절)

- ㉠** (1)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로 말미암아 나무가 흡족하고 활기있게 자라서 새들의 거처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 들사슴들과 너구리들은 바위가 저희의 피난처가 된다고 선언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며 귀중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 (3) 다윗이 화제의 초점을 사람에게서(14, 15절) 동 식물에게로 옮긴 것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동·식물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참조, 마 6:26).

8. **㉠**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서 찾았는가? (19, 20절)

- Ⓐ (1) 다윗은 해와 달이 서로 번갈아 교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조화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다.
- (2) 다윗이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질서 정연하여 도저히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3) 우리도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깨달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 (4)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는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돌리지 않음으로 무시되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접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시각을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참조, 19:1).

9. Ⓢ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허락하셨는가? (21-24절)

- Ⓐ (1) 하나님께서는 맹수들을 밤에 다니게 하셔서 사람들이 낮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맹수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낮에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맹수들이 돌아다니며 인간을 해치는 원인은 아담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 (3) 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자연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셨다 (창 1:30).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지배권은 상실되었다 (참조, 창 3:17-19).
- (4)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쇠로 된 우리로 짐승을 붙잡아 두듯이 낮에는 빛으로 수많은 짐승들을 붙잡아 두시므로 당신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이 다소나마 그대로 남아 있게 하셨다.
- (5) 이 귀절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으므로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당신의 계획 아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참조, 145:17).

10. Ⓢ 다윗은 바다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발견하였는가? (25-30절)

- Ⓐ (1) 그는 바다의 광활함과 그 속에 사는 수많은 생물들이 조화 있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 (2) 바다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 광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바다 속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생물들이 먹이의 순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 (3) 특히 다윗은 개역 성경에 '악어' (원래의 뜻은 바다 괴물이다) 라고 번역된 <리위야단> 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작은 물고기로부터 괴물같이 큰 것들에 이르기까지 끌고루 먹이신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 (4) 이러한 모든 생물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 된다고 다윗은 덧붙여 이야기했다 (29절).
- (5)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수많은 생물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겠는가. 반면에 우리들이 무서워하리만큼 큰 괴물들도 자기 힘에 의해 살아가지 못하는데 연약한 인간이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 (6)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 하여 그 뜻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하겠다 (참조, 고전 8:6).

11. Ⓢ 다윗이 자연 현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31-35절)

- Ⓐ (1)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죄인과 악인은 소멸하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 (2)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섭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를

찾았던 것이다.

(3)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들은 찬양을 잊어버리고 생활해 왔다. 그 원인은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야 하겠다(참조, 145:17).

화보자료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래 사진은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그림으로서 1542년에 제작된 시편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삽화이다. 이 성경은 현재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교황 바울 3세(Paul III)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본시에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어' (19절)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대부분의 고대 근동 국가가 태음력(太陰曆)을 채택하였듯이 이스라엘도 태음력을 사용하여 달과 년, 그리고 각종 절기를 정하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제 105 편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단락구분 1-7 여호와와의 성호를 찬양하라 / 8-11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 / 12-15 이방의 객이 되었던 족장들을 돌보신 여호와 / 16-22 요셉을 인도하신 여호와 / 23-38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여호와 / 39-45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가나안을 소유케 하신 여호와

1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3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4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5-6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7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10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2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13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 하였도다
 14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15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16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 그 밭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 곧 여호와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20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21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

를 관리케 하고
 22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23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어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고
 24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25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26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27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28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29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30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3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떼가 오며 저의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32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33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34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35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36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37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38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39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40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41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42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43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4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45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1. ㉠ 본시의 내용상 특징을 설명하라.

- ㉠ (1) 본시는 마지막 절이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106, 107, 111, 112, 113, 117, 118, 135, 136, 146-150편의 시들과 더불어 '할렐루야 시'라고 불리운다.
 (2) 1-7절까지는 본시의 서론으로서 찬양에 대한 권고가 기록되어 있고, 8-45절까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당신의 인자하심이 설명되어 있다.
 (3) 또한 본시의 주제나 문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는 아삼의 시(78편)의 일반적인 특성과 비슷하며 1-15절까지는 대상 16:8-22에서 인용되었다.
 (4) 한편 본시의 저자에 관해서는 1-15절까지의 기록이 다윗이 법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시온으로 옮긴 후 불렀던 감사의 노래 첫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그 감격을 과거 그들의 선조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사실과 연결시켜 백성들 중 어떤 사람이 지었을까 하는 견해가 있다.

2. ㉡ 시인이 이스라엘을 향해 촉구한 것은 무엇인가? (1-6절)

- ㉡ (1) 시인은 ① 여호와께 감사하고 ②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③ 여호와와 모든 행사와 기사를 말하고 ④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고 ⑤ 그 성호를 자랑하고 ⑥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고 ⑦ 여호와와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했다.
 (2) 여기에서 '행사'와 '기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뜻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이처럼 시인이 이스라엘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둔 까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들이 받은 모든 축복과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원과 삶의 평강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엡 2:8).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행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으며, 또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에 전력하지 않을 수 없다(참조, 고전 9:16).

3. ㉢ 성도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성도는 성호(聖號)를 자랑하여야 한다.
 (2) 여기서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로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내와 공평과 정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렘 9:24).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은 자신들의 성취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렘 9:23)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여야 한다.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으시고 양육하시며 돌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성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당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엡 2:9).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 상태에 머물리지 않고(롬 6:16) 사망의 권세에서 놓임을 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롬 8:2; 딤후 1:10).
 (5) 그런 까닭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롬 4:20; 고전 10:31) 하나님

만을 자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삶의 목표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와 성도의 삶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참조, 요일 4:4-6).

4. **㉠** 시인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였는가? (4절)

- ㉠** (1) 시인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권고하였다.
 (2) 즉 이 권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실하게 의지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127:1; 요3:27).
 (3) 그런데 시인은 ‘항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순간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변화해서는 안 되며 또 자신이 완전한 삶을 산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4)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 능력을 구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기쁨(5:11), 구원(22:4, 5), 승리(25:2, 3), 은혜(31:19), 자비(32:10), 복(40:4), 안전(56:4, 11), 인도하심(잠 3:5, 6), 기업(사57:13)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길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임을(마 16:24)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그럴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는 고백이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다.

5. **㉠**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8-11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창 15:18-21) 과 이삭(창 22:16; 26:3-4) 과 야곱(창 28:13-15; 35:12) 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2)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11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에게만 적용되었던 약속이 아니라 ‘천 대에까지 이르는 약속’이었다.
 (3)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신실치 못한 분이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바벨론에서 회복될 수 있었겠는가.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시간이 오래 경과한다고 해서 폐기되거나 잊혀지지 않는다. 세상이 그것을 이미 무효화시키고 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성취하신다.
 (5) 이 약속대로 오늘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전세계를 유리하는 방랑의 민족 신세로 지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 한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성도들이 소유하게 될 하늘나라를 상징한다(참조, 엡 1:11; 딤후 1:2; 요일 2:25).
 (6)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과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만을 신뢰하여야 한다(참조, 함 3:17-19).

6.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언약을 맺으셨는가? (12,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구(人數)가 적어 매우 영성(零星)하며 가나안의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유리하며 방황할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2) 여기에서 ‘매우 영성하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킴아트>는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가치 없는’이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발전하기 이전 그들의 연약한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3) 또한 ‘이 나라’에서란 갈대아, 블레셋, 애굽, 시리아 등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들’은 아

람 사람들, 가나안 사람 등을 가리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행로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라.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창 11:28) → 시리아의 하란(창 12:4-6) → 벨엘(창 12:8) → 애굽(창 12:10-20) → 가나안 땅(창 13:1-5) → 그랄(창 20:1) → 브엘세바(창 22:19)
이삭	브엘세바(창 21:2) → 블레셋의 그랄(창 26:6) → 브엘세바(창 26:33) → 기랴아르바(창 35:27)
야곱	브엘세바(창 21:26) → 하란(창 20:1) → 애굽(창 46:1-27)

(4)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우월성이나 인구의 많음이 결코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임을 제시하였다(신 7:7, 8).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데는 (롬 8:15; 갈 4:6)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요 1:12, 13).

7.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14, 15절)

㉠ (1)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緣故)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2) 이 묘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창 12:11-20)와 그 후 그랄 왕 아비멜렉(창 20:2-11) 앞에서 자신의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라를 취할 위협에 처하게 되었던 사건과,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창 26:7-11)에게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 사건을 가리킨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면서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과 구분되는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주위에 전파하였기 때문이다(창 20:7).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을 징계하시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자나 통치자들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참조, 출 11:5-7; 사 25:4).

8.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여보내기 전에 먼저 무엇으로 준비하셨는가? (16, 17절)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후 가나안에 기근을 보내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고 기록하였다.

(2) 즉 이 말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 가서 훗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마침 기근으로 고생하던 가나안 거민들, 특히 그의 가족들을 살린 사건을 가리킨다(창 37:28, 36; 41:56, 57).

(3) 이러한 모든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으로 인해 하나의 부족에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의 축복에 대한 약속도 성취되었기 때문이다(창 13:14-17).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환경적으

로 준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현재의 삶이 불공평해 보이고 어려울지라도 낙망하지 말고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인내하여야 한다(참조, 롬5:3,4; 고후4:17; 히12:11-13).

9. **㉠** 요셉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가? (17-19절)

- ㉠** (1)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종으로 팔렸으며(창37:28,36),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국가적인 중죄를 범한 자들을 가두는 옥에 갇히는 수옥을 겪었다(창39:20).
- (2) 시인은 옥에 갇힌 요셉의 신세를 '그 발이 착고(着網)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요셉은 좌절하거나 이러한 상황에 빠뜨린 하나님과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꿈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창37:5-11)을 더욱 굳게 붙잡은 채 자신의 신앙과 인내를 단련하였다.
-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응할 때, 즉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그의 꿈 해몽이 바로의 귀에 전해지게 하심으로써(창41:14-36) 그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게 하셨다(20-22절; 창41:40-45).
- (4) 이와 같이 성도가 당하는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시련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인내를 연단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욘5:17; 히12:11; 뱀전4:12,13).

10. **㉠** 이스라엘은 요셉으로 인해 어떻게 되었는가? (23-25절)

- ㉠** (1) 시인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어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라고 기록하였다.
- (2) 여기에서 '함 땅'이란 '애굽'을 가리킨다(78:51; 106:22). 그 당시 바로는 도합 70명에 달하는 야곱의 자손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했다(창46:27,34).
- (3) 그 이후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이 중다(衆多)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출1:7)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된 남자가 603,550에 이른 사실에도 잘 나타나 있다(민1:46). 이 수자를 총인구의 1/4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인구를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동안 이스라엘의 인구가 대규모로 증대하였음을 뜻한다.
- (4) 그러나 그 후 애굽의 왕권이 바뀔므로 인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미워하며 노예로서 학대하여 국고성 비둑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출1:8-14).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더욱 번식하며 창성하게 되었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방의 객이 되고 이방의 학대와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결코 패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참조, 144:1,2).

11.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2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애굽에 보내셨다.
- (2) 모세('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는 레위 족속 출신의 아르람과 요게벳의 아들로써(출6:16-20) 40세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생활하였고, 애굽 사람을 쳐죽임으로 인해 그 후 40년간 미디안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한 인물이었다(출3:3-6).
- (3) 또한 모세의 형인 아론('건식 있는'이라는 뜻)은 모세의 조력자요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구속에 중역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다(출4:13-31; 7:1,2).

- (4) 그러나 시인은 ‘그 중’, ‘택하신’ 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의 훌륭한 임무 수행이 그들의 우수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임을 명백히 밝혔다. 결국 시인은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음을 더욱 뚜렷이 보여 주었다.
- (5) 우리는 본절을 통해 교회에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재능이나 능력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신의 의지에 의해 일으켜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참조, 엡 4:11, 12).

12. **㉠**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행한 것은 무엇인가? (27절)

㉠ (1) 그들은 여호와의 표징(表徵)을 보이고 기사를 행하였다.

- (2) 여기에서 ‘여호와의 표징’과 ‘기사’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가리키는데 시인은 본시에서 열 가지 재앙 중 여덟 가지 재앙을 언급하였다(28-36절).
- (3) 비록 시인이 언급한 여덟 가지 재앙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 본시에 등장하는 재앙과 출애굽기에 기록된 열 가지 재앙에 대한 비교는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순	서	내 용	출애굽기	105 편
첫	째	재앙	물 → 피	29절
둘	째	재앙	개구리	30절
세	째	재앙	이	31절
네	째	재앙	파리	31절
다섯	째	재앙	가축 전염병	
여섯	째	재앙	독종	
일곱	째	재앙	우박과 불	32, 33절
여덟	째	재앙	메뚜기	34, 35절
아홉	째	재앙	어두움	28절
열	째	재앙	장자의 죽음	36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등과 같은 미천하고 약한 동물들도 사용하셨다. 더우기 애굽이 농경 국가인 까닭에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물을 피로 만드시고, 흑암, 우박, 불, 장자를 치시므로 자연계의 주인이심을 보여 주셨다.
- (5) 이 사건은 이방이 섬기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 줌과 동시에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성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

13. **㉠**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37절)

㉠ (1) 시인은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라고 기록하였다.

- (2)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죽이고 난 직후에(출 12:29, 30)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며(출 12:36) 자신들의 가축을 데리고 나온 사건을 가리킨다(출 12:32).
- (3) 이와 같이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창 46:27, 34) 하나의 국가를 이룰 정도로 번성하게 되고, 애굽의 객이요 종된 위치에서 하룻밤 만에 풍성한 경제력을 소유한 자유민이 되었던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 (4) 더우기 시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애굽에 하나님의 준엄한 열 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잘 나타내 준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실 때 그저 막연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밀한 섭리 아래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의식하고, 이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임을 기억해야 한다(37:5; 잠 16:3; 뱀전 5:7).

14. **㉠** 시인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노래하였는가? (39-41절)

-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노래하였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낮에는 작열(灼熱)하는 사막의 열기와 추적하는 애굽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출 14:19, 20), 언제 발행하고 행군을 중지하며 또 얼마간 체제할 것인가를 알려 주시기 위해서(출 40:36-38) ‘구름기둥’을 준비하셨으며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는 사막의 추위를 막고 어둠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출 13:21; 40:38).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출 16:3)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하늘 양식’, 곧 만나로 풍족하게 먹여 주셨고(출 16:13-21), 므리바에서는 반석 가운데 물을 내어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 주셨다(출 17:1-7).
- (4)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온전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42절). 시인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 (5) 한편 본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손길을 상징한다(참조, 마 1:21; 요 3:16, 17; 롬 5:9).

1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44절)

- ㉠** (1)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땅을 주셨으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다.
- (2) 여기에서 ‘열방의 땅’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출 3:8).
- (3)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일곱 족속, 즉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고(신 7:1) 그들의 집과 포도원, 경작지 등 모든 소유를 차지하였으며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다(참조, 신 6:10, 11; 수 24:13). 당시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가나안 왕국 수만 해도 무려 31개에 이르렀다(수 12:24).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지키고 그 법을 좇게 하기 위함이다(45절).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당신을 섬기도록 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실제적이고도 경험적인 경건을 쌓아가야 한다(신 6:6-9; 약 2:26).

제 106 편 여호와여 우리를 공홀히 여기소서

단락구문 1-5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 6-12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 13-15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치신 하나님 / 16-18 지도자를 거역한 악인을 치신 하나님 / 19-23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 24-27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벌 / 28-31 바알브올과 연합한 이스라엘 / 32-33 므리바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한 이스라엘 / 34-39 이방과 혼란한 이스라엘 / 40-46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 47-48 우리를 구원하소서

1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2 뉘 능히 여호와와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꼬
 3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시라
 5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행동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6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탄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7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치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9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매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땅야를 지남 같게 하시라
 10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11 저희 대적은 물이 덮으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12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13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가 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16 저희가 전에서 모세와 여호와와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17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18 불이 그 당 중에 불음이여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19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20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21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22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2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서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24 저희가 나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25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와 말씀은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26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었더지게 하고
 27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었드르드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28 저희가 또 바알브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29 그 행위로 주를 격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30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31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이다
 32 저희가 또 므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33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명령되이 말하였음이다

34 저희가 여호와와 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 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35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36 그 우상들을 섬기므로 그것이 저희에게 음무가 되었고

37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38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39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4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시

41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매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42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

종케 되었도다

43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사 저희가 피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44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45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47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시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이다 할렐루야

1. ㉠ 본시의 중심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1) 105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한 시인 반면 본시는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이 보여 준 악의와 배은 망덕, 교만, 불성실 등에 대한 언급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노래한 시이다.

(2) 그리고 본시는 ‘할렐루야 시’로서 78, 105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시들과는 그 목적과 유형이 다르다. 즉 78편이 교훈적이고, 105편이 찬송가적인 반면 본시는 참회적인 시라고 할 수 있다.

(3) 한편 본시의 저자에 관해서는 다윗 또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무명의 시인이 썼다는 견해가 있는데 본시의 첫 절과 마지막 두 절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시온산으로 옮긴 후 언약궤 앞에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로 연주케 했던 그의 노래의 일부라는 사실 때문에(대상16:34-36) 다윗 저작설이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다.

2. ㉡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2) 즉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순간마다 하나님께 배은 망덕(背恩忘德)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죄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신 것은(롬6:6)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골2:13).

(4) 한편 본절에서 ‘선하시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키토브>는 강조형으로서 하나님이 선하시되 악한 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즉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심을 의미한다(25:8; 33:5; 34:8; 나1:7; 마19:17).

(5) 그런 까닭에 시인은 ‘뉘 능히 여호와와 능하신 사적(事蹟)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廣布) 할꼬’ (2절) 라는 표현을 사용해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나타냈다.

(6)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단지 순간적이면서도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일생을 통해 삶의 전영역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

으며, 또한 이것이 감사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다(골 3:15; 살전 5:18).

3. **㉠** 시편 기자는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였는가? (3절)

- ㉠** (1) 시인은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였다.
 (2) 이 선언은 앞절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의 찬송이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결부되어 모든 행실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이 되어야 함을 밝혀 주고 있다.
 (3) 먼저 '공의를 지키는 자들'이란 '정직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며, '의를 행하는 자'는 '깨끗하고 순결하여서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에게 진실되고 공평하게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4) 그런데 시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일평생 의를 행하는 자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감사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마음과 행실로써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15:1-5).

4. **㉠** 시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4, 5절)

- ㉠** (1) 시인은 ① 주의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로 기억해 주시며 ② 주의 구원으로 권고(眷顧)하시며 ③ 택하신 자의 행동함을 보게 하시며 ④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⑤ 주의 기업과 함께 사랑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다.
 (2)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택하신 자', '주의 나라', '주의 기업'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게 하시며'란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하게 됨을 가리키는데(참조, 요 3:3; 벰전 3:10) 본시의 저작 시기를 바벨론 포로 생활 중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인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열망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3) 어쨌든 시인의 기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택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그 자신도 동참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이와 같이 성도는 기도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참된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16:11; 사 35:10).

5. **㉠** 시인은 그 당시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6절)

- ㉠** (1) 시인은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탄(邪惡)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2) 즉 이 고백은 당시 백성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결코 그들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악들과(7, 13, 14, 16, 19-21, 24, 25, 28, 32-39절) 비교해 볼 때 더욱 심했으면 심했지 못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3) 시인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15, 17, 18, 26, 27, 40-43)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며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4)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죄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32:1-5; 51:1-10; 요일 1:9, 10).

6. **㉠**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행했던 일은 무엇인가? (7절)

- ㉠** (1)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한 채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이 홍해에 이르러,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고 앞에는 홍해의 푸른 물결이 앞을 가로 막는 사면 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 빠졌을 때 모세에게 불평하였던 사건을 가리킨다(출14:10-12).
- (3)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였던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열 가지 재앙을(출7:14-12:36) 눈으로 목격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기사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위급한 현실 앞에 그러한 사실을 모두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 (4) 시인은 이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어떻게 값있는가를 보여 주었고,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악하고 수치스러운 어리석음을 드러낸 배은 망덕한 일이었음을 비난하였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신앙을 사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고 깨닫는 일임을 알 수 있다(143:4,5).

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8-11절)

- ㉠ (1) 시인은 이스라엘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했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그들에게 그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비방 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나타낸다(참조, 출14:17, 18).
- (3)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에 홍해를... 남지 아니하였도다’(9-11절)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비교, 출14:15-30). 이 서술 가운데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출14:21에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크신 권능을 인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악인을 심판하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시다(참조, 23:3; 77:14).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그 배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8. ㉠ 이스라엘은 왜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는가? (13, 14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이 미구(未久)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2)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애굽의 군대를 그곳에 수장(水葬) 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망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에서 물이 없음을 원망하였고(출15:24), 신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함을 불평하였으며(출16:3),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는 탐욕에 가득 찬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다(민11:4).
- (3) 한편 본질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땅히 사람이 바라야 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며,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4) 물론 인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흐려지지는 않는다(참조, 민11:23; 사50:2).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불충(不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떠났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야 한다(19:8; 119:105; 잠6:23; 벧전2:2).

9. **㉠**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육식을 내교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 어떤 일을 당하였는가? (15절)

-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였다.
- (2) 이 말은 먹을 고기가 없다고 이스라엘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고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 개월간' 을 먹여 주신 사건을 가리킨다 (민 11:20).
- (3)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무절제한 식욕에 빠지게 되었고, 흑자는 콜레라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갑자기 기운이 빠지며 전신을 바짝 마르게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시인은 이 병이 탐욕에 가득 찬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라는 표현을 통해 밝혔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들의 요구 이상으로 채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육식이 부익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 (5) 따라서 우리는 탐욕에 젖은 자들이 물질의 풍요함을 잠시 동안 누리려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물질의 풍성함 자체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조, 마 19:23, 24).

10. **㉠**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결과 받은 징벌은 무엇인가? (16-18절)

- ㉠** (1) 시인은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중에 불음이여 화염(火焰)이 악인을 살랐도다' 라고 기록하였다.
- (2) 이 기록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한 결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모든 소속' 을 산 채로 읍부에 빠지게 했고, 그들을 추종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자 250명은 '여호와께서' 나온 불로 소멸을 당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민 16:31-35).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죄를 준엄하게 심판하신 까닭은 그들을 방편으로 해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그들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 (4) 한편 시인은 아론을 가리켜 '여호와와 성도' 라고 칭했다. 즉 이 말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여호와께 성결' 이라는 글을 새긴 패를 착용한 사람 (출 28:36) 이라는 뜻으로서, 아론이 이렇게 불린 것은 그가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뽑힘을 받아 공적인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조, 레 16:3-25).
- (5) 물론 그 당시 모세, 아론의 위치와 오늘날 목회자들의 위치는 그 개념부터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질투했다고 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반박하는 그러한 질투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참조, 막 3:29).

11. **㉠** 이스라엘은 호렘에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가? (19-23절)

- ㉠** (1) 이스라엘은 호렘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그들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 (2)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렘 산(시내 산과 동일시됨, 출 3:1; 18:5; 신 4:10-15) 으로 올라간 이후 그곳에서 40일을 지체하자,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 성급한 백성들이 아론을 재촉함으로 인해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모은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출 32:1-8).

- (3) 그 당시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의 신성한 황소인 아피스(Apis)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었다.
- (4)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출 20:4; 레 26:1; 신 7:25)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출 32:10)고 선언하셨지만 간절한 모세의 간구로 그 노를 거두시게 되었다(비교, 23절; 출 32:7-14, 30-35).
- (5) 어쨌든 호렘 사건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21, 22절).
- (6) 이처럼 하나님의 기사를 목격하고, 체험하며,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자행하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경각심을 준다.
- (7)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신앙에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 요소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눅 21:19; 고전 13:7; 히 10:36),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대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도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눅 9:23).

12. ㉠ 이스라엘은 낙토(樂土)를 보면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24, 25절)

- ㉠ (1) 시인은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기술하였다.
- (2) 이 표현은 열 두 명의 정탐군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군의 부정적인 보고만을 믿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거역하며 멸시하였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민 13:25-14:11).
- (3)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流離)하는 신세가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다(민 14:29-38). 이 사실을 시인은 '제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었 더지게 하고'(26절)라고 표현하였다.
- (4) 한편 시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를 B. C. 722년 앗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왕하 17:6)과 B. C. 586년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왕하 25:7, 8) 그리고 A. D. 70년 로마에 의한 유대의 멸망으로까지 보았음이 틀림없다(27절). 왜냐하면 그 사건들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비운을 겪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여기고 그 약속만을 신실하게 붙잡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食言)치 않으시기' 때문이다(민 23:19).

13. ㉠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일을 의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8-31절)

- ㉠ (1) 그 이유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음행하기 위해 이방 여인을 막사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을 목격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었다(민 25:6-8, 14, 15).
- (2) 이 사건을 시인은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30절)라고 묘사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일'(민 25:11)이라고 기록하였다.
- (3)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바알브올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며 그 앞에 절한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열병을 거두셨다(민 25:8).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그와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할 것이라는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민 24:11, 12).
- (5)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출 29:29, 30)에 따라 당시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민 24:7)가 대제사장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여기에서 다시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 (6) 우리는 본 사건을 통해 인간의 질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욕정으로부터 출발하는 육적인 질투(고전 3:3-5; 고후 12:20)와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출발하여 불의에 대해 항거하는 영적인 질투(민 25:11; 고후 11:2)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질투와는 달리 영적인 질투를 오히려 의롭다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4. ㉠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던 동기는 무엇인가? (32, 33절)

- ㉠ (1) 시인은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妄靈)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밝혔다.
- (2) 이 말은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물이 없음을 원망하자, 모세가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친 사건을 가리킨다(민 20:1-11).
- (3) 이 일 가운데는 모세의 몇 가지 잘못된 태도가 발견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민 20:8)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① 회중에 대해 원망하고 ② 망령되이 말하고 ③ 반석을 두 번 치는 과오를 범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반석을 두 번 친 사건은 분노의 표시이며 기록하지 못한 행동으로서 모세의 혈기로부터 기인한 일이었다.
- (4)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민 20:12; 신 1:37), 이 징계대로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았다(신 34:1-8).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낸 그곳의 이름을 <트리바>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다름'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다투었음을 기념하여 지어진 것이다.
- (5) 시인은 이와 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에게만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든 이스라엘에게 더욱 큰 잘못이 있음을 밝혔고, 그들의 불경건과 어리석음은 결코 핑계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하였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혈기부리는 일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설령 혈기 부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겸손과 은유를 기억하면서 인내하고(마 11:29) 악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 태도이다(참조, 7:9; 28:4).

15. ㉠ 이스라엘이 이족(異族)들을 멸하지 않은 결과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었는가? (34-39절)

- ㉠ (1) 이스라엘은 결과로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기므로 그것이 저희에게 율무가 되었다.
- (2)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신 7:2-5)을 어기고, 이방 족속들의 풍습을 좇았으며, 바알과 아스다롯, 그모스, 몰록, 레판, 암몬 등 이방 신들을 섬겼다(왕상 11:7;

왕하21:19; 대하28:23; 행7:43).

-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 18:21; 20:3; 신 12:31; 18:10) 그들의 자녀를 거짓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불로 지나가게 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 (왕하 16:3; 17:17; 21:6; 대하 28:3; 33:6).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광적(狂的)인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 결과 '너희의 남겨 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 (민 33:55)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참조, ㉑16).
- (5) 한편 이스라엘이 내쫓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은 다음과 같다.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	삿1:21
므낏세 지파	벨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므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	삿1:27
에브라임 지파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	삿1:29
스불론 지파	기드론 거민과 나합물 거민	삿1:30
아셀 지파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흠 거민	삿1:31
납달리 지파	벨세메스 거민과 벨아낫 거민	삿1:33
단 지파	헤레스 산과 아얄론, 사알빔에 거한 아모리 사람	삿1:34, 35

- (6)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록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을 좇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죄악에 감염되어 양심이 무디어지고 죄를 죄악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엡4:18; 요일2:11).

16. ㉑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가? (40-42절)

- ㉑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맹렬히 노하시고 미워하시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매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治理) 하였고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하셨다.
- (2) 이 말은 이스라엘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삿3:8-10),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삿3:12-14),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삿4:3),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삿6:1), 18년 동안 암몬 자손에게 (삿10:8),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삿13:1) 치리를 당하였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부터 앗수르의 통치를 받으며 (왕하17:6), 남유다가 B.C. 586년부터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던 (렘 25:11) 사건들을 가리킨다.
- (3)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4절),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창15:1-21) 을 기억하시며,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45절)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구해 주셨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출12:30-38), 사사 시대에도 웃니엘 (삿3:9), 에훗 (삿3:15-29), 삼갈 (삿3:31), 드보라와 바락 (삿4:4-24), 기드온 (삿7:19-25), 임다 (삿11:12-33), 삼손 (삿15:8-20) 을 통하여 그리고 통일 왕조 시대에는 다윗을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43, 46절).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43절)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에도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겸손히 부르짖기만 하면 항상 경청하셨고 구원을 베푸셨다.

(6)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와 죄악의 종착역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과, 이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 겸손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겸손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이기 때문이다 (참조, 대하7:14; 렘29:13).


17. **㉠**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47절)

- ㉠** (1) 시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聖號)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라고 간구하였다.
- (2) 이 간구는 신30:4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노래인데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 (3) 이 간구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B.C. 536년 일부가 돌아왔고(스2:3-19), 나머지는 B.C. 457년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스7:1-8:36), B.C. 516년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여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
- (4) 한편 시인은 6-46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사(救援史)를 언급함으로써 과거에 베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노래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해 주시도록 간구하였다. 이 간구는 개인의 간청이지만 전체 민족에 대한 기도와 포로 생활로부터의 특별한 구원을 의미한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하고 있는 단체와 사회, 그리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함이 마땅하다(스9:6; 단9:4).

18. **㉠**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48절)

- ㉠** (1) 성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야 한다.
- (2) 즉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하며, 이 목표는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참조, 150:6).
- (3) 왜냐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왕상8:27),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사57:15).
- (4)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의 요구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아멘'이란 '진실합니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동의와(왕상1:36) 맹세(민5:22; 신27:15)를 표시하는 말이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48절).

제 107 편 고난 중에 함께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단락구분 1-3 여호와께 감사하라 / 4-9 여호와께서 사막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다 / 10-16 하나님께서 갠힌 자들을 풀어 주시다 / 17-22 병중에 있는 자들을 구해 주시다 / 23-32 항해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 33-43 하나님의 크신 섭리(攝理)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2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 지어다 여호와께서 태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시라

3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4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5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6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8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도

9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10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15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도

16 저가 늦문을 깨뜨리시며 쇠빛장을 꺾으셨음이라

17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18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19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도

22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라도

23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차는

24 여호와와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25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27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28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9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30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도다

31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도

32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라도

33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4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열밭이 되게 하시며

35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36 주린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37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38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시지라도

39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40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41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
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42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
기 입을 봉하리로다

43 지혜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
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1. ㉠ 본시(本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 (1) 모든 인류(人類)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다.

(2) 특히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자신의 섭리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으로 표현되었다.

(3)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며, 이스
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아버지
가 되시기 때문이다.

(4) 이런 의미에서 본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개인적인 입장을 다룬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
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5) 본시의 작가가 찬양한 분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여러 가
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또 우리에게겐 기쁨과 유익이 넘치게 된다.

2. ㉠ 시인은 무슨 이유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는가? (1-3절)

㉠ (1)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2)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찬양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을 그분의 선하심
으로부터 충분히 찾을 수 있다.

(3) 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다. 특
별히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의 자
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4) 정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양같이 각자 자기의 길로 흩어졌을 때, 우리를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참조, 사 53:6; 마 24:31; 요 11:52).

(5)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대해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성도들
은 더 깊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고전 1:4).

3. ㉠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
을 때 그들이 행한 마지막 행동은 무엇인가? (4-7절)

㉠ (1) 그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2) 본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流離)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방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신 32:10), 그들이 바른길로 가도록 인도하셨고 그들이 거할 성인 약속의 땅 가나안
을 허락하셨다.

(3) 이처럼 그들은 고난 중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일한 신앙 대상인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4) 이와 같이 우리의 절박한 필요 때문에 부득이 드리게 된 기도라 하여 하나님께서 응답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도가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분명히 신실한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5) 그렇다고 해서 절박할 때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신실한 기
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참조, 대하 7:14; 렘 29:13).

4. **Q**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8, 9절)

- A** (1)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2)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었으며,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구출되었다(민 21:6-9).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言約)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었다(참조, 창 17:3-8).
 (4) 한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생계를 돌보시며 음식으로 육신을 먹이시고 또한 영혼을 위한 양식마저 제공하신다.
 (5)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의에 주리고 목말라 있어야 한다(마 5:6).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만족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요 6:35).

5. **Q**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至尊者)의 뜻을 멸시' 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10, 11절)

- A** (1)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처지가 된다.
 (2) 여기에서 갇힌 자가 '흑암에 앉아 있다'는 말은 고독하고 쓸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어두운 감옥이나 밀폐된 감옥에 앉았다는 뜻이다.
 (3)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님의 결을 떠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곤고와 환난만 있을 뿐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추호(秋毫)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에게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참조, 삼상 15:22; 행 5:29).

6. **Q**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12절)

- A** (1) '저희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2)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며, 그들의 눈을 낮게 하여,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신다(참조, 눅 15:11-32).
 (3) 그러므로 고난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단지 그것은 겸손케 하는 섭리로써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의 심령이 교만하고 무디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의 은택(恩澤)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
 (4) 그러나 그 교만한 자가 낮아지게 되면 죄를 고백하게 되며 자기 앞에 놓인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게 된다(참조, 잠 3:7; 26:12; 롬 12:16).

7. **Q**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13절)

- A** (1)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2) 비록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성경께서는 그들을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인도해 주며, 오직 그분만이 그 어려움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알려 주신다(참조, 27:1).

8. **Q**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 결과는 어떻게 맺어졌는가? (13, 16절)

- A** (1)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 함을 받았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2)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팔을 내미신다.
 (3)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려 하실 때에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튼튼한 옥문과 착고(着網)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가릴 수 없다 (참조, 행 16:26).

(4) 이러한 경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인식(認識)하게 되고, 그분 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화된다(참조, 잠 3:5-7).

9. **㉠ 미련한 자는 무슨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가? (17, 18절)**

- ㉠ (1) '저희 범과(犯過)와 죄악' 때문에 고난, 즉 육체적인 병에 걸리게 된다.
- (2) 영혼의 죄는 대개 병의 원인이 된다. 사실상 질병은 우리 자신이 초래하는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습관을 고치게 된다.
- (3) 만일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병도 모르고 살 수 있을 것이다(참조, 창 3:16-24; 레 26:21-25).
- (4) 그러나 우리의 죄악은 병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든다. 죄인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잘못했으며 영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서도 죄악을 행했다.
- (5) 또한 그들은 무절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강을 잃었으며 정욕에 탐닉(耽溺)함으로써 생명을 위협스럽게 한다.
- (6) 이러한 사람의 길은 어리석음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어리석음을 책망할 징계의 채찍이 필요하다(참조, 민 12:9, 10; 16:22, 46; 왕하 5:26, 27).

10. **㉠ 질병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9-2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危境)에서 건지셨다.'
- (2)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병중에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 즉 완쾌된다는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왕하 20:4; 사 38:4) 간절적으로 말씀을 전달하여 낮게도 하시며 직접 말씀을 해서 낮게도 하신다는 의미이다 (참조, 욕 33:23, 24).
- (3) 이러한 역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치유(治癒)에서 확연히 드러난다(마 9:2, 22; 15:28; 16:18). 이 같은 치유를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은혜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영적인 치유라고도 말할 수 있다.
- (4) 정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병을 낮게도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며 성화(聖化)시키신다(참조, 요 16:12-15).

11. **㉠ 시인이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23-28절)**

- ㉠ (1)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위를 느끼게 하고 인간이 나약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 (2)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해하는 일을 위험한 모험으로 여겨서 영업하는(23절) 일이 아니면 결코 큰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 그 때문에 성경에는 바다를 여행하는 즐거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참조, 온 1:11-16; 마 14:22-32; 막 4:37-39).
- (3) 그러므로 시인은 폭풍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 (4)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아직 깊은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영업하는 자가 되도록 세상의 바다, 시련의 바다로 보내신다.
- (5) 거기서 그들은 다른 자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 즉 그들은 그곳에서 영적 고갈(枯渴)이라는 심연(深淵)과 궁핍이라는 폭풍우와 꺾박이라는 태풍과 유혹이라는 파도를 넘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되고, 결국 그분을 경외하게 되며 찾게 된다(참조, 호 5:15).

12. **㉠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29-32절)**

- Ⓐ (1) 맹렬한 파도와 바람이 갑작스럽게 고요해진 것은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攝理)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을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인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 (3)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도 순간적으로 평온하게 바꾸실 수 있는데, 마음의 태풍이 그렇게 속히 평정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인다.
- (4) 진정 이런 평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다. 이러한 평안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그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 (5)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항구이자 소원의 항구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의 항해에서 벌써 난파당했을 것이다.
- (6)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폭풍우를 이기고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부응(副應)하는 데에 달려 있다(참조, 고후 4:17, 18).

13. Ⓒ 인간의 죄악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33, 34절)

- Ⓐ (1) 하나님으로 하여금 강을 광야로 만드시며 옥토를 염밭이 되게 하신다.
-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로 성읍들을 멸하기도 하시고(창 19:24, 25), 바벨론에 주신 경고처럼 정원을 광야로 변하게 하시고, 야생 짐승들이 포효하는 처참한 곳으로 바꾸실 수도 있다(참조, 사 13:15-22:50:2; 렘 50:13-15, 38-40; 51:13, 37-43).
- (3)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런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신 것을 거두시지는 않는다. 오직 옥토를 염밭으로 변하게 하시는 당신의 섭리는 그 거민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주를 따르는 성도들은 죄악에서 떠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그 세상을 옳게 분별하며 주의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다(참조, 딤후 3:1-5).

14. Ⓒ 세상의 풍요와 빈곤은 누구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35-39절)

- Ⓐ (1)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현상들, 즉 황폐와 번성, 억압과 자유 같은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 (2)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대체로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역할을 할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자기의 자녀를 일깨우시고, 풍요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신다(참조, 욕 1:21).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자신의 신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며 그 뜻에 순응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신 27:16).

15. Ⓒ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40, 4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핍한 자리에서 높이 들어서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하셨다(참조 108:7, 8; 삼상 2:8).
- (2) 그 결과 곤고한 자들과 무시당한 자들이 구원될 뿐 아니라 그들은 곤고한 상태에서 벗어나 높은 자리에 이르며, 그들이 예속되어 섬겨 왔던 자들을 오히려 지배하게 된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비천한 자리에서 억압당하며 고생하고 있다고 있어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양자(兩者)의 조건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눅 16:19-13).

16. Ⓒ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인간들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42, 43절)

- Ⓐ (1)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한다'.
- (2)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시는가를 보는 것은 성도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어 도공(陶工)이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것같이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신다(롬 9:21).
- (3) 또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깨우치신다.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공평하게 대하시는가를 볼 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백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득(體得)하는 것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좇는 것은 그 모두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26:3).
- (5)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할 태도이다.

연구자료

물[水]에 대한 성경적 이해

물은 단지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 외에도 신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며 나아가서는 인간의 모든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특히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는 중동 지역은 대부분의 토양이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경에서 물에 대한 기사가 많이 언급된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식수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고 또한 종교적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식수로서의 물 : 창 21:14; 출 15:27; 민 20:11; 사 15:19; 왕상 13:19; 단 1:12; 막 9:41

(2) 특수한 용도 : 안수(출 30:18-20), 성결례(출 40:7-32), 성결(출 19:10), 세례(행 8:36-39), 성화(엡 5:26)

(3) 상징적 의미 : 불안정(창 49:4), 비겁(수 7:5), 영적 성장(1:3), 평화(23:2), 괴로움(사 43장), 박해(124:4,5), 음행(잠 9:17), 복음(사 11:9), 구원(사 55:1), 성령(겔 47:1-12), 영생(계 22:17), 그리스도(요 4:10-15), 중생(요 7:37, 38)

이상과 같이 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육체적 갈증은 물을 마심으로써 해소될 수 있지만 영혼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가 성 여인처럼 예수께 나아감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곧 영생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요 4:5-42).

제 108 편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하소서

단락구분 1-5 하나님께 대한 신앙 / 6-10 하나님의 임위(嚴威) / 11-13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1 하나님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2 비파야, 수금야, 켈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4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5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6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7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짐을 나누며 속곳 골짜기를

척량하리라
 8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9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10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11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12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1. ㉠ 본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다윗의 두 시(詩), 즉 57:7-11과 60:5-12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혼합시이다. 그렇지만 앞의 두 시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시구(詩句)로 이루어져 있다.
 (2) 다윗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두 시를 이런 식으로 한데 묶어 하나의 시로 만들었을리는 없다. 이 시는 다윗의 새로운 간구이자 새로운 고백으로서 두 시의 간구와 고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이러한 사실은 만일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감정을 지니고 기도한다면 전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참조, 마 26:44).

2. ㉠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1절)

- ㉠ (1) 다윗은 마음을 정한 후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
 (2)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였기 때문에(112:7; 사 26:3) 모든 사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3)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4)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주를 따르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생활은 너무도 말파는 동떨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5) 신자(信者)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일과 세상을 쫓는 일을 동시에 한다면 기필코 벌하실 것이다(참조, 약 3:11).

3. ㉠ 다윗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가? (3절)

- ㉠ (1) 그는 비파와 수금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

했다.

- (2) 다윗은 악기와 자신이 함께 어울려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열정은 인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우리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찬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고무(鼓舞)시켜야 한다(참조, 71:6).

4. **㉠**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는가? (3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찬미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기로 결심하였다.
- (2) 그의 마음은 감격으로 가득 차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는 심지어 모든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주목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 (3)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또한 권리이기 때문이다(86:12).

5. **㉠**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4, 5절)

- ㉠** (1)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을 궁창에 미칠 만큼' 크기 때문이다.
- (2)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하늘의 모든 복된 거민들에 의해 찬송되고 있다. 다윗이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찬송을 가장 넓게 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참조, 57:3), 그 복된 거민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었다.
- (3)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간청을 해야 한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소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만큼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참조, 대상 29:13).

6. **㉠**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6절)

- ㉠** (1) 다윗은 '주의 사랑하는 자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용하신 그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 (2)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 분명히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분에게 있어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귀하다. 그들은 때로 환난을 당하나 그 어려움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 (3)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는 그분이 내리시는 구원의 손길을 함께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응답을 많이 체험할 수 있다.
- (4)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신앙이 구체화되고 성장한다(참조, 단6:10).

7. **㉠** 다윗은 어떤 사실을 전망하고 기뻐하였는가? (7, 8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왕국이 모두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있으며 이미 그것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처럼 확신하며 기뻐하였다.
- (2) 즉 에브라임은 그의 생명을 수호하는 병사들과 상비군(常備軍)을 마련해 줄 것이요(참조, 사 5:14; 12:13-15; 삼하 23:30), 유다는 그의 법정을 위해 유능한 치리자들을 보내 줄 것이다(참조, 창 49:8-12).
- (3) 유다는 '그의 홀'이 될 것이며 에브라임은 '그의 머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8절).
- (4)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믿는 자들은 그 약속들 속에서 개가(凱歌)를 부를 수 있으며,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덕(恩德)에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8. **㉠** 다윗은 막강한 여러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인 조력자(助力者)로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9-11절)

- ㉠** (1) 다윗은 이웃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좌절을 맛보았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결핍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만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 굳게 붙들었다.
- (2)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도리어 자기를 괴롭히는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려 했다(9절).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게 했다(참조, 삼하8:2).
- (3) 그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되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특별한 갈등 속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마침내 견고한 성에 들이실 것이다.
- (4) 이처럼 주께서는 우리를 끈고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위로하신다. 불운한 사건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곤경에 처하더라도 인내해야 하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참조, 롬5:2,3).

9. **㉠** 다윗의 간구는 무엇인가? (12절)

- ㉠** (1) 다윗은 소망 속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다.
- (2) 이러한 싸움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전쟁으로부터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었으므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
- (3) 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낙망을 극복하게 한다. 만약 우리가 인간과 더불어 약속하고 또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참조, 사25:1).

10. **㉠**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었는가? (13절)

- ㉠** (1) 그는 대적을 물리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2)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참된 용기의 밑거름이 된다. 그분의 지휘 아래 맡겨진 의무를 행하는 자들은 그 일을 용감히 행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 (3) 우리가 용감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에게 힘과 결단력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분은 다름아닌 하나님이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용감히 행할지라도 그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실 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정작 우리는 그분의 발 아래 우리가 지닌 모든 칭송을 내려놓아야 한다(참조, 빌4:13).

본장의 요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은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5절).

제 109 편 잠잠하지 마음소서

단락구분 1-5 원수의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 고하다 / 6-20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파멸하실 것을 간구하다 / 21-29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고 도움을 간구하다 / 30-31 혁신 중에서 감사하다

1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어 잠잠하지 마음소서
 2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꾀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3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4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6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7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8 그 년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9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 고리대급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12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흥할 자도 없게 하시며
 13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14 여호와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15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16 저가 궁핍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나이다
 17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

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18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 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 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19 저주가 그 입은 옷 같고 항상 떠는 떠와 같이 하소서
 20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21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 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22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23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24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였으며
 25 나는 또 저희의 훼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26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어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좇아 나를 구원하소서
 27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28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29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 같이 입게 하소서
 30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31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1. ㉠ 본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 (1) 본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난들을 열거한 다음 참된 감사의 표현 형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
 (2) 다윗은 이 시에서 자기가 겪은 환난을 탄식하기는 하지만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豫表, 3, 16, 22, 69편)이기 때문에 이 시에 표현된 모든 것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3) 왜냐하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2:27). 그러므로 성도들은 원수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에 보응(報應)하시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참조, 대하 14:11).

2. **㉠** 다윗은 대적의 악함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1-3절)

- ㉠** (1) 다윗은 '저희가 악한 입과 꾀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즉 다윗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악의에 넘치는 말들로 공격당하고 있음을 탄식한다.
- (3) 이처럼 사단은 공개적으로 또한 격렬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데 본래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요 8:44)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놀라운 속임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고(誣告)한 비방을 퍼부어 마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버림 받아야 할 자들인 것처럼 모략(謀略)한다.
- (4) 결과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豫表)이므로 그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가 당한 환난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명심해야 한다.
- (5)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부르사 자기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신다(골 1:24).

3. **㉠** 다윗은 대적에게 사랑으로 대했지만 대적들은 오히려 어떻게 다윗을 대하였는가? (4, 5절)

- ㉠** (1) 대적들은 다윗에게 '악으로 그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그의 사랑을 갚았다.'
- (2) 다윗은 그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고 모든 경우에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악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격분했다.
- (3) 즉 다윗이 대적들을 은혜롭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그를 미워했던 것이다.
- (4) 이같이 악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항하기 보다 오히려 참고 사랑하며 그들에 대한 온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겠다(참조, 요일 4:7).

4. **㉠** 대적들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4절)

- ㉠** (1)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
- (2) 의인은 기도에 힘쓴다(참조, 단 6:11).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거짓되게 고소하고 거짓으로 내세웠을 때 다윗은 기도로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했다.
- (3) 그들은 그의 사랑에 대한 적대자들이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이다.
- (4) 이처럼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해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버리거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해야 한다(삼상 12:23).

5. **㉠** 다윗은 대적에게 어떤 말로 저주했는가? (6절)

- ㉠** (1) 더 악한 자를 세워 그 대적을 다루게 하고 그 대적 곁에 악인을 세워서 그들의 잘못을 고하게 해 달라고 저주했다.
- (2)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탄식을 늘어 놓았으나 이제는 한 개인에게 그 탄식을 하고 있다. 여기서 다윗이 가리키는 그 사람이란 여러 악한 사람들 중에 반역과 폭동으로 다윗에게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오게 했던 도역(삼상 22:9-19)이라고 볼 수 있다.
- (3) 그런데 신약의 기록에는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가리킬 때 이 시를 인용했다(행 1:20).

여하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다윗이 이런 저주를 할 때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무절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4)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한다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욕망을 억제하고 성령의 인도 아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응답으로 원수를 물리쳐 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삼하 16:12).

6. ㉠ 다윗은 대적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는가? (7-12절)

㉠ (1) 대적들이 죄인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랬으며, 일찍 죽게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 는 과부가 되어 유리 구걸(流離求乞)하게 하고 저희들이 벌어들인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탈취당하길 원했다.

(2) 이러한 진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당신의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생명을 누릴 만한 가치도 없음을 이 사실에서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박탈하시고 그들을 권세와 권위의 자리에서 던져 버리시는 경우도 그들이 그 같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3)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일시적인 악은 선한 자들에게나 악한 자들에게나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은 결코 섞일 수 없다.

(4) 왜냐하면 선한 자들은 항상 여러 방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우리는 이 귀절에서 악인들이 지금은 높은 지위와 평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모든 허영과 권세는 머지 않아 빼앗기게 되리라는 말을 들을 때 큰 위로와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마 25:32-36).

7. ㉠ 다윗은 악인의 집 가문에 대해 어떠한 저주를 했는가? (13-15절)

㉠ (1) 그는 악인들이 완전하게 파멸을 당함으로써 다시는 예전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게 되기를 원했다. 본절에서 '후대에' 또는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다.

(2) 이러한 멸망은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로써 심히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저희의 저주가 '완벽한 것이 되도록' 여호와께 그 열조의 최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기' (14절)를 바랐다.

(3) 이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경의 교훈과 완전히 일치하는 원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근거하여 천 대에 이르도록 계명을 지킨 자의 후손에게 자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신 7:9).

(4)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후손은 삼사 대에까지 형벌을 받게 된다(출 20:5).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악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않으신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의 은혜와 조명을 거두어 버리심으로써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멸망을 위한 진노의 그릇을 예비해 놓으셨다(롬 9:21). 우리는 이 지엄(至嚴)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기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겠다(참조, 대하 6:31).

8. ㉠ 대적은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가? (16-20절)

㉠ (1) 그는 공홀히 여길 일을 생각치 아니하고 저주와 악담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2) 다시 말해서 다윗의 대적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랬고 좋아했다(참조, 삼상 22:9, 10). 따라서 그는 아무에게도 선한 말을 하거나 좋은 소원을 주지 않았으며 더우기 어느 누구도 선하게 대하지 않았다.

- (3) 실로 그의 저주가 이웃에게 자라처럼 행해졌던 것 만큼 하나님의 저주는 그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참조, 애 3:60-66).
- (4) 이것은 또한 신약 시대에 가롯 유다의 완전한 파멸을 가리키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심판을 말한다. 이러한 모든 말 뒤에 '아멘'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다' 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다' 는 말이다.
- (5) 이러한 저주는 주 예수의 모든 대적자들에게 대한 보응이다.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는 그의 적들은 그 모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참조, 고전 16:3).

9. **Q** 모든 저주를 마친 다윗의 자세는 어떠하였는가? (21, 22절)

- A** (1) 다윗은 원수들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성실성을 원수들의 행동과 대조시켰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보상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한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선택에 기인하였고 자신의 안전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 (2) 만약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다윗은 분명히 이러한 자랑을 가장 많이 해야 할 사람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지 않으면 연기처럼 공허하게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보상을 받을 만한 어떤 의(義)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참조, 롬 3:23, 24).

10. **Q** 다윗은 자신의 환난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23절)

- A** (1) 석양(夕陽)의 그림자와 메뚜기에 비유했다.
- (2) 왜냐하면 동이 틀 무렵이나 한낮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림자를 거의 볼 수 없지만 석양이 질 때 길게 나타난 그림자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처량함과 고독함을 더해 주기 때문이다.
- (3) 또한 자신을 메뚜기에 비유한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무상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메뚜기들이 언제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다윗은 끊임 없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고 쉼 만한 곳도 없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쉼 만한 장소를 찾을 수 없다(고전 4:11).
- (5) 그렇지만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은 앞으로 있을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롬 8:18).

11. **Q**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24, 25절)

- A** (1) 슬픔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져서 몸은 수척하였고 그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 (2) 이와 같이 다윗은 죽음에 직면하여서 모든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어 극도로 피로움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더우기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의 슬픔은 더욱 가중되었다.
- (3)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선포했던 저주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율법은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가 놀렘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신 28:37)고 말한다. 다윗은 이런 시험을 받은 것이다.
- (4)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이러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남겨

두었던 저주를 오히려 우리가 받게 된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모든 일에 경성하여 주님의 법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참조, 40:8).

12. ㉠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였는가? (26, 27절)

- ㉠ (1) 다윗은 구원이 자신에게 미치기를 간구했는데 일반적인 방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독특하고 특별하신 방법으로 나타나서 자기 원수들이 무안을 당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 (2)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굴복시키길 원했다.
- (3) 이같이 다윗은 어떤 영광도 자신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다. 다윗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 (4)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는 거의 없다.
- (5) 우리는 우리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확신하게 되며 그들은 이 사실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참조, 고전 10:31).

13. ㉠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에게 퍼붓는 저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28, 29절)

- ㉠ (1)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저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대적들의 위협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 (2)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자기 원수들의 음모와 공격을 대담하게 무시해 버리며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었다.
- (3)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장래에 자기가 모든 슬픔에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을 믿은 것이다.
- (4)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 앞에 당한 시련을 인내로써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참조, 롬 12:12).

14. ㉠ 왜 다윗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30, 31절)

- ㉠ (1)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와 함께 하시고 여러 환난과 대적자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2) 분명히 다윗이 당한 환난과 가난은 하나님께 버림 받은 것으로 여길 만한 것이었다 (참조, 시 22:1).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 (3) 이러한 태도에서 다윗은 진정한 감사의 찬송이 울려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영혼의 깊은 바다에서부터 마음으로 느끼는 감사를 열렬한 찬송으로 부르고 있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 (5)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찬양의 모범이다. 환난 중에 있을수록 그 가운데 포함된 찬양의 조건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참조, 128:1, 2).

제 110 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단락구분 1, 3, 5, 6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 / 2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무 / 4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 / 7 그리스도의 존귀

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흠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 하시리라 이

르시기를 너는 켈기세택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6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7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1. ㉠ 본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1)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예수께서 본시의 처음 귀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마 22:41)도 본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시라는 것을 먼저 전체하신 상태에서 질문하셨다.

(3) 이 사실에 대해 현대의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신약 시대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에 부정할 수 없을 만큼(마 22:46) 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본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4) 특히 본시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예언자적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 또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되어 있다.

(5)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 그분의 은총과 통치에 복종하며 우리의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분을 높이 찬양해야 한다(계 5:12).

2. ㉠ 다윗은 누구를 보고 '주' 라고 칭했는가? (1절)

㉠ (1) 예수께서는 본질의 말씀을 들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다'(마 22:43)고 말씀하셨다.

(2) 이러한 예수의 답변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장차 자기의 계보(系譜)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이란 예언을 나타내고 있다.

(4) 이 뿐만 아니라 그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단지 그 그림자만 나타날 뿐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빛과 영광을 발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5) 이러한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벧후 1:17).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자의 정당한 주이시며 그분의 권함에 대해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분을 주로 인정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 결과는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은 것처럼(막 16:19) 우리 또한 큰 영광 속에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참조, 벧전 5:4).

3. **㉠ '주의 권능의 힘을 내어 보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2절)**

㉠ (1) 그리스도의 왕국이 거대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2) 다윗은 사실상 많은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아왔는데(삼하 8:2) 이런 경험을 상기하며 그리스도의 왕국도 확장되길 원했다.

(3)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지구상의 가장 먼 지역에게까지 넓히셔서 그리스도께서 시온 산에서만 왕으로 통치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4)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자기 자녀의 반열(班列)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다.

(5)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리라는 계획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6) 그러나 우리에게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엡 2:14), 복음이 널리 반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은혜 대열에 속하게 되었다.

4. **㉠ '주의 권능의 날에, 즉 복음이 전파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

㉠ (1) 주의 백성이 거룩한 웃을 입고 즐거운 헌신하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2) 실로 그리스도는 수많은 백성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할 것이다.

(3) 그때 그들은 기쁨의 백성들이 된다. 이것은 강제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 마음을 가지고 그 대열에 속한 것이다.

(4) 이처럼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기뻐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산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기꺼이 드려야 한다(롬 12:1).

5. **㉠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무엇이 되었는가? (4절)**

㉠ (1)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서 제사장을 위해 준비된 분이시다.

(2)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종말의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분의 제사장직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변치 않을 직무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3) 한편 그리스도는 아론의 서열에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에 선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앞선 제사장이며, '그 보좌에 앉은 제사장'(속 6:13)이었으며 의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다.

(4) 멜기세덱의 반열을 좇은 그리스도도 역시 그와 같은 분이였다. 히브리서 기자(記者)는 이 말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히 7장).

(5)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장직은 파기(破棄)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시다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셨으며,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수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셨다.

(6)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변함없고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다(참조, 히 6:20).

6. **㉠ 주께서 진노의 날에 어떻게 행하시는가? (5, 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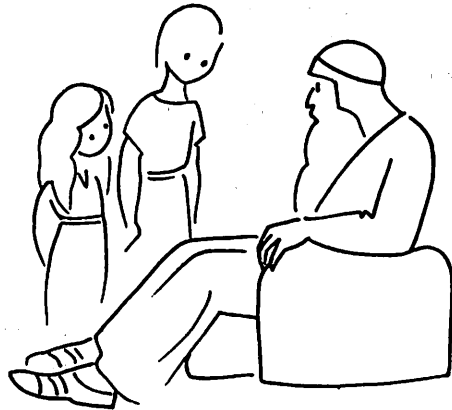
- Ⓐ (1) '여호와와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열왕을 쳐서 과하실 것'이다.
 (2)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멸망시키기 위해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있다.
 (3) 대적들이 잔악하고 맹렬하게 활동할 동안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노의 때가 차면 이에 대한 모든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4) 이런 보응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를 그리스도께 일임(一任)하였다. 이 권세는 유대 민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참조, 요 12:48).
 (5) 그러므로 세상이 악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을 잃지 않아야 한다(참조, 히 12:1,2).

7. ⓐ 그리스도의 존귀를 다윗은 어떻게 묘사했는가? (7절)

- Ⓐ (1)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묘사하였다.
 (2) 여기에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셨다는 것은 저주를 담당했다는 의미를 지닌다(Matthew Henry). 정작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대속하기 위한 저주가 되사 이 시냇물을 마셨던 것이다(갈 3:13).
 (3) 이런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는 '머리를 숙이시어' (요 19:30)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부활해서 자신의 힘으로 머리를 높이 드셨다.
 (4) 이것은 그분의 존귀함과 죄악에 대한 근본적인 승리를 나타낸다. 그분이 높아지심은 그분의 낮아짐에 대한 보상(補償)이었다(빌 2:8,9) 실로 그분은 길가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머리를 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5)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머리를 높이 들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다스리게 될 것이다(참조, 마 11:38; 계 20:4).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1절).



제 111 편 여호와를 찬송하라

단락구분 1 여호와께 찬송하라 / 2-4 여호와와 행사가 크시다 / 5-9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다 / 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1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 여호와와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3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4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케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5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6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7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으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8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9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10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1. ㉠ 본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 (1) 본시는 찬양시로서 다윗이 절기 때 예배를 위해서 지은 시이다.

(2) 특히 본시는 배열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히브리 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첫머리에 할렐루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주제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3) 다윗은 이 주제를 통하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없다. 그 일이란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에 대한 성실한 복종을 말한다(참조, 욥 28:28).

2. ㉠ '할렐루야'의 뜻은 무엇인가? (1절)

㉠ (1) 그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이다.

(2) 다윗은 본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만 아니라 남들도 찬송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3) 이처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야 하며 우리 전생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출 32:29).

3. ㉠ 다윗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는가? (1절)

㉠ (1) '정직한 자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2) 다윗은 사적(私的)으로나 공적(公的)으로 그리고 크고 작은 회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다.

(3) 어떤 곳에서든지 정직한 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드린다는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것이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해야 한다(참조, 행 8:4, 35).

4. ㉠ 다윗은 여호와와 행사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2절)

- Ⓐ (1) 그는 '여호와와 의 행사(行事)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도다' 라고 그 위대함을 찬양했다.
- (2) 여호와와 의 행사는 그 규모와 탁월함에서 위대함이 나타난다(사 41:28).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비하며 위대하다.
- (3)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신비로운 행사를 대할 때마다 즐거워한다.
- (4)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는 그분이 이루신 일들의 가장 기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표면 뒤에 깊이 감추어진 사실을 살펴보지 않으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 (5) 정작 주의 일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시에 모두 드러낼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본질적인 것들을 살펴 나가야 한다.
- (6) 이러한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참조, 딤후 3:16, 17).

5. Ⓒ 다윗은 여호와와 의 자비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는가? (3, 4절)

- Ⓐ (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존귀하고 엄위한 행사를 기억하게 하시므로 자신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셨다.
- (2)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행사에서 기쁨을 느끼며 그분이 행사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행사보다 더 기쁜 대상이 없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행사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전 3:14). 왜냐하면 '그 의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정작 그 행사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기에 합당하며 찬양하고 마음에 새길 만큼 소중한 것이다(참조, 잠 3:3).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일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느껴야 한다(참조, 사 55:8).

6. Ⓒ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가? (5절)

- Ⓐ (1)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좋은 표본이다.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허락하신다. 다른 자들에게는 일반 섭리에 의해서 주시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언약에 의해서 양식을 허락하신다(참조, 암 4:6).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 가운데서도 언약의 사랑을 만끽(滿喫)하며 살아간다(참조, 89:3, 4).

7. Ⓒ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행사(行事)의 능(能)'을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보이셨다.
- (2)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심으로써(참조, 수 23:1-6)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 또한 다윗 시대에는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예속(隸屬)되었으며, 속국이 되었다(참조, 삼하 8:1-12).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나라들을 처분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보여 주셨고, 그 처분을 선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 (5)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며 크신 권능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참조, 17:3).

8. **㉠**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7,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공의로 자신의 일을 행하시며, 이 일을 영원히 지속하신다.
- (2)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의와 신실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사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 (3) 실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실과 정의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그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다(89:14).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연구함(3절)으로 그 기준을 배우게 된다.
- (4) 그 절대적인 진실과 정의의 기준은 우리들 안에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성(人性)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행하여졌다(참조, 사 53:11; 숙 9:9).
- (5)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해야 하며 말씀에 충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히 13:21).

9. **㉠**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9절)

- ㉠** (1)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수 많은 구속의 역사(役事)를 되풀이 하셨다(참조, 출 3:8; 렘 29:10).
- (3) 이러한 구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에서 완성을 이루었다(참조, 렘 31:31-34; 롬 5:12-21). 이러한 언약은 인간이 죄를 범한 후부터 영원까지 이룰 것이다(참조, 삼하 23:5).
- (4) 이 언약의 대열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참조, 요 5:24).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언약의 결과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참조, 사 65:17-25).

10. **㉠**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10절)

- ㉠** (1)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요 인생의 목표와 지식의 참된 목적이 되는 지혜의 열쇠가 된다.
- (3) '여호와를 경외함'은 신앙심에 대한 구약적 용어이다. 경외함은 무서워함이 아니요, 마음속 깊이 순종한다는 표현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이다.
- (4)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두려움은 영광스러운 두려움이다(참조, 신 4:6).

본장의 요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10절).

제 112 편 여호와를 경외하라

단락구분 1 축복의 조건 / 2-4 후손이 축복을 누리다 / 5-9 의인이 누릴 축복 / 10 악인의 패망

- 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 2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이다
- 3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이다
- 4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 5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이다
- 6 저가 영영히 요동치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

- 원히 기념하게 되리이다
- 7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 8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의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이다
 - 9 저가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이다
 - 10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이다

1. ㉠ 본시는 111편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 ㉠ (1) 본시는 111편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며, 표제 역시 동일하게 '할렐루야'이다.
- (2) 내용에 있어서도 본시는 111편의 마지막 절에 대한 주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서 111편의 '보충시'라고도 불린다.
- (3) 비록 본시가 성도들의 행복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앞장의 시편과 유사점이 많다.
- (4) 특히 두 시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지혜가 되는 것인가를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 (5) 그러므로 본시를 노래하면서 우리는 서로서로 행복한 사람의 성품에 부응(副應)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보장된 특권과 위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 1:6).

2. ㉡ 시인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1절)

-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다.
- (2) 그런데 이들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위엄에 대한 끊임없는 존경과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이다(참조, 119:161).
- (3) 또한 이들은 그분과 더불어 기뻐하며 그 계명의 공평과 인자(仁慈)로 즐거워한다(101:1). 실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읽고 듣고 명상하면서 탐구하고 대화하게 되는 것인 이들의 기쁨이다(1:2).
- (4)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기쁨이 늘 깊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계명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데 있다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참조, 창 26:4, 5).

3.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2절)

- ㉢ (1)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며 그러한 정직자의 후대가 큰 축복을 받게 된다.
- (2) 비록 당대에는 크게 되지 못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

하는 자의 후손은 그의 은택을 입는다.

- (3) 또한 그들이 의로운 조상이 간 길을 따른다면 그들은 조상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 (롬 11:28)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에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참조, 행 3:25).
- (4)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의 자손들은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며 정직한 자의 자손에 부여된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어떠한 일도 삼가해야 한다.

4.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은 무엇인가? (3절)

- ㉠** (1) 그들은 세상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며 특히 그들의 영혼이 잘 될 것이다.
- (2) 또한 부요와 재물이 정직한 자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진정한 부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 (3) 은총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때문에 그들은 부요와 재물을 갖지만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이며 번영 속에서 성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를 때, 우리 역시 그러한 영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참조, 벰전 4:11).

5. **㉠**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4절)

- ㉠** (1) 태양이 지상의 어느 한 부분에만 비치고 그 나머지는 어둠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인간의 환난에서 제외시켜 주신다.
- (2) 또한 온 세상이 환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사 평안하고 복되게 해주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그들의 형편은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운명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형통함을 기뻐하고 있지만 이는 빛 가운데서 앞을 못보는 것과 같다.
- (4)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자들이며 사망의 흑암에 빠져서 결코 평안한 안식의 때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 (5)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비쳐지고 있는 경건한 자들은 육신에 해로운 일은 당하기 쉬울지 모르나 결코 흑암 속에 빠지는 일은 없다 (참조, 고전 10:13).
- (6) 실로 흑암 중에서도 의인들에게는 빛이 있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흑암 중에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 빛을 얻었고 기뻐하였으니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였다 (행 16:25).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당하는 어려운 환난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참조, 롬 5:3, 4).

6. **㉠** 의인들은 어떠한 지혜를 갖게 되는가? (5절)

- ㉠** (1) 의인들은 자기에게 허락된 부 (3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모든 일을 공의로 처리하는 지혜를 갖는다 (사 28:26).
- (2)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는 그들은 더 강성해질 것이고 더욱 부를 누릴 것이다.
- (3) 또한 자기들의 지혜를 잘 사용하는 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큰 뜻 (요 17:17)을 이해하며, 부족한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약 1:5) 하나님께 간구한다.

7. **㉠** 의인들이 누리는 혜택은 무엇인가? (6절)

- ㉠** (1)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의 행복도 확고 부동하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 (2)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 주시기 때문에 모든 생활의 변화 속에서도 이들은 요동치 않는다고 말한다.
- (3)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들이 신과 같은 입장에서 변함없는 생활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들 역시 인간이며 똑같은 처지에서 고민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심지어는

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 (4) 그렇지만 이들의 확신은 요동치 않으며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인내를 가지고 자기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극복해 나간다(참조, 롬 5:3).
- (5)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도 이와 같다. 즉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범죄하기 쉽지만 우리 뒤에 악의 권세를 이긴 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 요동함이 없이 죄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요일 2:1).

8. **㉠** 시인은 의인들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한다고 했는가? (7, 8절)

- ㉠** (1) 의인은 원수가 자신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경을 이겨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 (2) 시인은 의인들이 사소한 비방에 두려워 떠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흉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평안함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 (3)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절박한 위협에 직면할 때 두려워하는 내색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난을 문제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마저 없다면 이는 하나님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무감각한 결과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 (4)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 버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악인의 비방이나 어려운 역경은 의인의 생활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 (5) 시인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을 요동치 않고 확신하는 데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참조, 54:7; 59:10).
- (6)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재난에 놀라고 당황할지는 모르나 그들의 마음은 약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난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수 없으며 오히려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담대하여 믿음에 굳게 서기 때문이다(참조, 롬 5:3, 4).
- (7) 요컨대 그들은 자기들이 연단받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현재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며 악한 자들에게 보응(報應)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한다(참조, 약 5:11).

9. **㉠** 시인은 의인의 자비로움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9절)

- ㉠** (1) 의인들은 결코 인색한 일이 없이 항상 자기들이 허락하는 만큼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도량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은 말했다.
- (2) 여기에서 시인은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라는 말을 통해서 의인들이 닥치는 대로 온정을 베풀지 않고 분별력과 식별력(識別力)을 가지고 궁핍한 자들의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음을 나타내었다.
- (3) 시인은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 때 받을 대상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도도 없이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궁핍한 자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기 위해서 적절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쓰라고 가르쳐 준다(참조, 고후 9:6-12).

10. **㉠** 악인은 의인의 행동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10절)

- ㉠** (1) 악인들은 의로운 자들을 해하며(시 105:25), 그들의 번영을 한탄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악인들의 소욕은 결국 소멸되고 만다.
- (2) 악인은 의로운 자들이 번영과 영광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한탄하며 애타게 될 것이다.
- (3) 이같이 그들의 욕망은 전적으로 세상과 육에 속한 것이다. 그런 욕망이 그들을 지배했으므로 그 욕망이 소멸될 때 그들 역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참조, 37:20).

제 113 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단락구분 1-3 하나님을 찬양하라 / 4-5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라 / 6-9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 1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 2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지로다
- 3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 4 여호와와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도다
- 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오 높

- 은 위에 앉으셨으나
- 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 7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 8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 9 또 임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데도 할렐루야

1. ㉠ 본시의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할렐시'(Hallel, 113-118편)라고 불리우는 시들 중 하나로서 유월절에 낭송되었다. 그러므로 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고 선한 과업(課業)을 촉진(促進)하기 위해서 저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본시의 주된 내용은 여호와가 하늘보다 뛰어나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향하여 인간을 주시하시며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흥망 성쇠(興亡盛衰)를 바라보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인은 이러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했던 변화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경고하며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2. ㉠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께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1절)

- ㉠ (1) 그들은 그분을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그분에게 수종드는 자는 그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분의 총애를 받기 때문이다.
- (2) 주인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과 그의 명예를 찬양하는 것은 종 된 자로서는 즐겁고 기쁜 일이다. 이러한 일을 맡은 자는 레위인이라고 주석가 칼빈은 말한다. 단 레위인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이다.
- (3) 성령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한 것은 단지 그러한 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보여 주어 모든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찬양을 하기 위함이었다.
- (4)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슥 14:21) 레위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는 가장 미천한 자가 될 것이며 불신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참조, 벧전 2:9).

3. ㉠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2, 3절)

- ㉠ (1)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시간과

- (1) 장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참조, 115:18;121:8;131:3).
- (2) 시인은 전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 (3)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찬송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인생이란 이 짧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 (4)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찬양'이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갖는 즐거운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 (5) 이러한 찬양은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의인의 찬양은 우주적이다.'
- (6) 우리도 이처럼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자(참조, 골 3:16,17).

4. ㉠ 시인은 여호와와 존귀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4절)

- ㉠ (1) 시인은 '여호와와 존귀가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나고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말하였다.'
- (2) 인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열방의 세력들이 하늘을 치솟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다.
- (3) 정작 하나님의 존귀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지고(至高)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 (4) 특히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면서 우리들이 그분과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려고 한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그것은 곧 불경건이라 말할 수 있다.
- (5) 그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시며'라는 말로써 책망의 뜻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이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는 일에 무감각한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러서도 안 되고 무감각해서도 안 된다(참조, 96:4).

5. ㉠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5, 6절)

- ㉠ (1)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시고 비할 데 없는 높으신 존귀를 지니고 계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모든 인간들을 감찰하신다.
- (2) 시인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를 그분의 지고하신 영광과 권세와 대조시켜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자신의 입장을 고조(高調)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그분의 영광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구별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자신을 낮추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위엄을 감당할 수가 없다.
- (4) 정작 하나님께서 그토록 높으신 위치에 있으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배하시며 감찰하신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크나큰 겸비(謙卑)이다.
- (5) 이런 일을 통하여 그분은 자비하심으로 땅을 충만케 하며, 인내로써 선을 행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서로 낮추며 사랑으로 아껴 주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준수해야 한다(참조, 요 17:21-23).

6. ㉠ 시인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찬양하는가? (7, 8절)

- ㉠ (1) 이 귀절은 삼상 2:8의 한나의 기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오랫동안 경멸의 대상이 되어 온 자들이 때때로 갑자기 명예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처럼 인간의 예상을 훨씬

능가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위 정하신 섭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했던 것이다.

- (2) 모든 일이 항상 획일적으로 일어난다면 모든 인간들은 그것이 단지 자연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화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만사가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에 따라 다스려지고 있음을 가르쳐 준다.
- (3) 실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내셨다. 예를 들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종의 신분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으며 (창 41:9-45) 망국(亡國)의 일개 포로에 지나지 않았던 다니엘은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단 2:46-49).
- (4)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시며 모든 일이 자신의 뜻에 의해 나온다는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알게 하려 하셨다(참조, 사 28:29).

7. Q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한 여자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가? (9절)

- A (1)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들이 갑자기 잉태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를 회상하게 한다(참조, 창 21:2; 25:21; 30:22; 삼상 1:19).
- (2)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저희의 불명예를 씻어 주셨다. 이처럼 시인이 잉태하지 못한 어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말한 이유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찬양해야 함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찰하셔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고 보잘것없는 혈통에서 태어난 자들을 높이시고, 잉태하지 못한 여자를 출산하게 할 만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자비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모르는 자가 될 것이다.

연구자료

찬송의 대상에 대하여, 성경에는 찬송이라는 용어가 약 400 회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 쓰인 문맥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거스틴(St. Augustine, 354-430)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찬양하는 것은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고 했으며 633년의 톨레도 교회 회의(Councils of Toledo)에서는 '찬송은 노래(Canticum)와 높임(Caudem), 그리고 하나님(Deity)의 세 요소가 포함된 것'이라고 정의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노래는 찬송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노래를 예배 도중에 부르는 것은 실로 불경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준비 찬송'이라는 말도 합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찬송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결코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 114 편 열조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단락구분 1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다 / 2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시다 / 3-5 바다와 요단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뉘어지다 / 6-7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셨고 땅이 울법을 받을 때에 진동하다 / 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다

- 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 2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 3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 4 산들은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양 같이 뛰었다

- 5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쩔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쩔인고
- 6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은 어쩔인고
- 7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 8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 ㉠ 본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고 국가를 형성하게 된 근원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후손에게 길이 남기고자 하였다.
- (2) 그래서 본시를 지어서 생생한 찬양의 음율에 맞추어 유월절 만찬을 끝낼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권능과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 (4) 그리고 이 사실을 그보다 더 큰 기사와 이적,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에 적용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할 것이다.

2. ㉠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가? (1, 2절)

- ㉠ (1)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향한 언약의 뚜렷한 증거이며 상징(출 2:24)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싼 대가(代價)를 치루고 사신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시인은 증거했다.
- (2) 여기에서 '유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함하는 집합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거하시는 성소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토를 주심으로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 (3) 만약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그들은 무책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인은 이러한 뜻으로 그들은 마음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다.
- (4)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일찌기 100여 년 전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인간의 이권(利權) 다툼에서 벗어나서,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한다(참조, 마 22:37, 38).

3. **㉠** 시인이 출애굽 사건 때 나타난 이적을 언급한 목적은 무엇인가? (3, 4절)

- ㉠** (1) 시인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이적을 계속 나열하기 위해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지니지 않은 바다와 강과 산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게 되었던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 (2) 시인이 바다와 요단 강이 물러갔다고 표현한 것은 시적인 표현이지 그 당시의 상황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참조, 출 15:21; 수 3:17).
- (3) 정작 자기의 조물주인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던 바다는 그분의 이름을 성결케 해주었고, 요단 강은 물러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으며, 산들은 흔들림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엄위(嚴威) 앞에 얼마나 위압당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 (4) 이처럼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 역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그 뜻을 따라야 한다(참조, 행 5:24).

4. **㉠** 시인은 독자에게 감흥을 주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가? (5, 6절)

- ㉠** (1) 무생물인 바다와 요단 강과 산들을 생물처럼 활유법(活喻法)의 형식을 빌어서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했다.
- (2) 시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책망하고 있다. 즉 거대한 자연인 바다나 강이나 산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물러나는데 하물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는가.
- (3) 이 말씀은 겉으로 바다와 요단 강과 산들에 대해서 묻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5. **㉠** 시인이 온 땅을 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 (1)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못으로 변하게 하시고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실 만큼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 (2) 온 땅과 그 모든 거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 앞에 떠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을 누가 그렇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
- (3) 이러한 기적은 지금 우리의 심령에서도 일어난다. 세상의 세파 속에서 척박해 있고 황량하고 거친 우리의 마음에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샘물을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고전 10:4)를 통해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 (4)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참조, 수 5:24).

본장의 요절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8절).

제 115 편 주께만 영광을 돌리라

단락구분 1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 / 2-8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 9-15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과 축복을 믿어라 / 16-18 하나님을 찬양하라

- 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 2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 4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 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걸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 8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다
- 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 10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

- 회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 11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 12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 13 대소 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 14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 15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 16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 17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다
- 18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1. ㉠ 본시의 형식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본시는 이스라엘의 삼 대 절기인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에 찬양하는 <할렐>시 (113-118 편) 중 하나인데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제사장이나 다른 선창자(레위 지파에 한함)를 따라서 백성들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불리워졌다.

(2) 그 형식을 분류해 본다면

구 절	내용	노래하는 자
1-8절	백성들이 열방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노래하는데 특히 본절에서는 우상을 예배하며 자기들을 헐뜯고 있는 이방인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며 본시를 시작한다	모든 백성
9-11절	선창자는 9-11절의 앞부분(...의지하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며 백성들은 세 절의 각 뒷부분(그는 너희의 도우시요 너희 방패시로다)으로 응답하고 있다	제사장과 백성
12, 13절	모든 백성들이 크게 합창한다	모든 백성
14-16절	이에 대해 선창자가 응답한다	제사장
17, 18절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한다	모든 백성

(3) 본시가 나타내려는 의도처럼 악의 세력들이 오만하고 위협적으로 성도를 괴롭힐 때, 성도는 하나님께 불평하기 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을 찬양함으로 이 시련을 이겨 나가야 한다(59:17).

2. **㉠ 시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시인은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로는 자신들이 처한 고난 중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 (2)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은 나눌 수 없을 만큼 밀접해 있다. 인간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 (3)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 위로와 도움을 바라고 있었으나 자기들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가 전혀 의롭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우셨기 때문에(참조, 엡 1:3-5)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분께로 나갈 수 있다.

3. **㉠ 시인은 열방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할 때 어떤 말로 대응했는가? (2, 3절)**

- ㉠** (1)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고 대답하였다.
- (2) 시인의 이러한 기도 속에는 이방 사람들의 추잡한 미신에 대한 비웃음이 포함되어 있다.
- (3) 그런데 이 귀절에서 조심스럽게 고찰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4)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상에다 제한시키길 거부하고 있다. 요컨대 시인은 우주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둔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교훈이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 (6) 정작 이러한 경교가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광적인 망상을 변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리를 곡해(曲解)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참조, 벰후 1:20, 21; 3:16).

4. **㉠ 시인은 우상의 무능함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4-7절)**

- ㉠** (1)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한다'고 하였다.
- (2) 시인이 이렇게 우상을 무능한 존재로 묘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을 확고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 (3) 정작 인간들이 자신이 만든 형상에다 신성을 부여하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시인은 우상에게 존귀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참조, 호 8:6).

5. **㉠ 시인은 우상을 만드는 자나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8절)**

- ㉠** (1) 시인은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나무 줄기나 돌맹이 그 자체와 같이 우매(愚昧)한 자라고 말한다.
- (2)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성이나 판단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만든 형상에 신성(神性)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 (3) 또한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받아야 하는 예배가

우상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 (4) 실로 세상은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알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에게서만 얻는 줄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우리가 지녀야 할 근본 신앙 자세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환경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상의 허구성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끊임없이 밝혀 주어야 한다(참조, 사 44:9; 렘 10:3-11).

6. **㉠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9-11절)**

- ㉠** (1) 죽은 우상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서 시인은 하나님을 '그들의 도움과 방패'라고 말했다.
- (2) 시인은 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일반적인 교훈을 하고(9절) 둘째로는 특히 아론의 집에 대해서 말한다(10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권면을 하였다(11절).
- (3)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차등(次等)을 두지 않고 택하셔서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렘 1:4-6).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참조, 행 26:6, 7). 이 때문에 시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먼저 말한 것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레위인을 세우셨고, 특별히 아론의 집을 제사장으로 세우사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게 하셔서 성전의 일을 보도록 하셨기 때문에 시인은 일반 백성들에게서 보다 아론의 집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다.
- (5) 이것은 구원이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약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특권을 그들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인은 각절을 구분해서 표현했던 것이다.
- (6)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언약을 파괴하실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창 15:1).
- (7)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상에 대해 곳곳하게, 또한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이겨 나아가야 하겠다(참조, 요일 5:4, 5).

7. **㉠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창 12:1-3)을 마음에 두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살피 주신다(참조, 렘 31:33).
- (2)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멸시를 당하는 자라고 간과(看過)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므로 그 자비하심을 더욱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 (3) 정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므로(삼상 16:7), 우리가 처한 위치가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참조, 행 10:34, 35).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자비롭게 대하여 주신다.

8. **㉠ 시인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다'라는 말을 반복한 목적은 무엇인가? (12절)**

- ㉠** (1) '복을 주시리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끊임없이 그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2)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계속되고 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미천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신 사랑을 어디에 비길 수가 있겠는가?
- (3)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신 축복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참조, 요 3:16).

9.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13-15절)**

- ㉠** (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되는데 당대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된다.
- (2) 다시 말해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역시 축복을 받을 수 있다(참조, 수 2:12, 13).
- (3)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그분을 마음속에 모실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다(참조, 롬 10:9, 10; 계 3:20).

10. **㉠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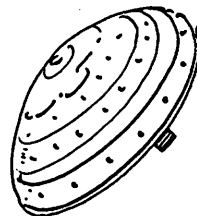
- ㉠** (1) '하늘에 계시며' 필요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땅을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인류가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뜻이다(참조, 113편 **㉠** 5).
- (2)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축복들로 인하여 인간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3) 실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만드신 것을 인간에게 주시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 1:28)고 명하셨다.
- (4) 이 명령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는 말씀과 연관을 맺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임무를 말해 주고 있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해야 한다(참조, 행 1:8).

11. **㉠ 시인은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했는가? (17, 19절)**

- ㉠** (1) 시인은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2) 시인은 매우 정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서 죽은 자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서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교통이나 친교가 없기 때문이다.
- (3) 찬양의 시간은 현재이다. 찬양이란 과거에 행했어야 할 단순한 의무나 요구는 절대 아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의무로써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응답이다.
- (4) 정작 생명은 제한되어 있고 생(生)은 변화가 많으므로, 찬양하라는 요구는 순간에 의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찬양드릴 만한 때이다. 지금 이 시간의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인간은 자기 앞에 주어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완수할 수 있다(참조, 104:33).

본장의 요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1절).



제 116 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다

단락구분 1 하나님을 사랑하다 / 2-5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하다 / 6-9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 10-14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다 / 15-19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 1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 2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 3 사랑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 4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 5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 6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 7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 하심이로다
- 8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 9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 10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 11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 12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 14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 15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 16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며 주의 영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 17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 18 내가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 19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와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1. ㉠ 본시의 저자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시의 저자는 주석가마다 다른 추측을 하지만 대체로 다윗을 저자로 본다(Calvin).
- (2) 그 이유는 본시의 내용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의 다윗의 모습과 너무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참조, 삼하 16-18장).
- (3) 이러한 견해는 자기가 얼마 동안 인간의 배반과 속임수로 슬픈 경험을 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장사로 불렸다고 말하는 11절을 볼 때 확실히 증명된다.
- (4) 여하튼 다윗은 지극히 어려운 갖가지 위협들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그가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고뇌가 어떤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호가 얼마나 신묘하고 엄위(嚴威)한 것이었는지를 말한다.
- (5) 그가 겪었던 절망적인 상태는 그가 보호를 받게 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더라면 그의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 (6) 이 시를 통하여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한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다윗과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편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왕상 5:7).

2. **㉠**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결의(決意)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 있었는가? (1, 2절)
- ㉠** (1) 하나님께서 다윗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기 때문이다.
 (2) 다윗은 환난 중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즉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은혜롭게 받아들이셨으며 그의 처지를 감찰하시고 그에게 평안의 응답을 허락하셨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귀를 기울임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에게 축복과 도움으로 나타난다.
 (4)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구원과 구속(救贖)을 체험할 때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받으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 구속받은 자들에게 사랑의 예배를 요구하신다(참조, 롬 12:1).
3. **㉠** 환난 중에서 다윗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3, 4절)
- ㉠** (1)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신실하고 열심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였다.
 (2) 그는 가장 어려운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성도들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의 기도는 짧은 것이지만 적절한 내용이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3) 다윗의 기도의 열심과 겸손은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때에는 진정 겸손한 마음과 갈급한 심정으로 나와야 한다(참조, 42:1).
4. **㉠**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어떤 자에게 미치는가? (5, 6절)
- ㉠** (1) '낮게 되고 어리석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
 (2)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란 너무 순박하여 악한 일들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3) 그러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와는 반대로 매우 간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켜 나가고 유지해 나아갈 온갖 방책들을 가지고 있다.
 (4)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묘사하였던 것이다. 다윗 자신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기가 당한 위험을 전혀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5) 정작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대책을 가질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지혜를 나타내사 그들의 안전을 방패하려는 모든 위험 사이에 다 자신의 섭리에 따른 은밀한 보호를 허락하신다(참조, 37:28; 잠 2:8).
5. **㉠** 다윗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 다윗을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후대한다는' 말은 위로와 안식을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2) 하나님은 영혼의 안식처이다. 그분에게만 편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들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3) 이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평안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평안은 믿음으로부터 온다.
 (4) 이러한 믿음은 자기 의존(自己依存)을 근본적으로 배제한 훈련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 평안함은 단순히 나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길을 두루 다니시는 동안 모든 것을 아셨던 것과 같은 이러한 평안이다(참조, 요 14:27).

6. **㉠** 하나님은 환난 속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은 다윗을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셨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환난으로 떨어지려는 것을 막은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이 미 그가 처해 있는 환난으로부터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
 (3) 그 환난을 다윗은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으로 묘사했는데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 다윗의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참조, 삼하 15:30).
 (4)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환난을 제거해 주셨다(참조, 삼하 18:28). 슬픔과 사망과 꾀사(詭詐)와 같은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자비의 결과이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자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
 (6) 이 소망이 이루어져 성도들에게 환난이 사라질 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후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생활 속에서 끊이지 말아야 한다(참조, 계 22:20).

7. **㉠** 다윗이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이다.
 (2) 이러한 고백을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3)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다.
 (4)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생활의 방향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참조, 히 11:6).

8. **㉠** 다윗이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고 담대히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구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삼하 16:12).
 (2) 다윗은 이러한 신념으로 많은 고초를 견디었기 때문에 기도로써 말할 수 있었고(4절), 찬양으로써(12절)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이처럼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저희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행 9:19, 20; 롬 10:10).
 (4) 그러므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값주고 사신 분께 대한 자기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해서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참조, 마 10:22).

9. **㉠** 다윗은 어떤 이유로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 라고 했는가? (11절)

- ㉠** (1) 다윗이 과거 사울에게 쫓길 때를 언급한 내용인데 그때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삼상 27:1) 사무엘이 자신에게 행했던 모든 일(참조, 삼상 16:13)이 거짓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2) 정작 다윗은 자신이 고국에서 추방당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엄습해 오는 사망의 위협을 당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기쁨 부음을 받은 것이 허사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3) 그렇지만 다윗이 이 말을 한 의도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가 무너질 때 가질 수 있는 심성(心性)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 (4) 실로 인간은 항상 자기의 기대에 대해서 실망을 느낀다. 왜냐하면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안정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급한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서둘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 (5) 만일 선한 사람들이 잘못 말한다면 그것은 갑작스런 시험으로 인해 성급하게 처리했기 때문이지, 악한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1:1), '그 형제를 공박하는' (50: 19, 20) 것과 같이 고의적이거나 미리 계획한 일은 아니다.
- (6) 그렇지만 우리는 경겁(驚怯) 중에 잘못했을지라도 다윗처럼 (31:22)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성도가 행해야 될 모범이기 때문이다.

10. **㉠**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12절)

- ㉠** (1)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보답을 드리기에 적합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다.
- (2) 어떠한 보상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열납되는 유일한 보답의 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있음을 알았다.
- (3)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또는 조심성 없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본다면 그 분에 대해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결코 등한시(等閑視)해서는 안 될 이 교훈을 잊어버린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96:4).

11. **㉠** 다윗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간다고 말하는가? (13, 14절)

- ㉠** (1) 그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라고 했다.
- (2) '구원의 잔' 이란 감사의 화목제를 드린 후에 (레 7:11) 그 희생 제물을 기억하면서 마셨던 것을 가리킨다.
- (3) 좀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구원의 잔' 은 '고난의 잔' 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다윗의 고난은 그리스도 고난의 예표(豫表)이므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면 그 잔이 실로 구원의 잔이 된다(참조, 요 18:11; 빌 1:19).
- (4) 그러므로 구원의 잔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찬양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다윗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50:23)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한다(참조, 롬 12:1; 고후 8:5; 히 8:15, 16).

12. **㉠** 하나님은 성도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15절)

- ㉠** (1) 다윗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했다.
- (2) 그는 이것을 방패로 삼아서 번번이 자신을 억압하여 금방이라도 자신을 삼켜 버릴 듯한 사망의 공포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참조, 23:4).
- (3)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간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서 확실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했던 것이다.
- (4) 성도들 역시 세상의 동요(動搖)에 얼마 동안 붙들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있다.

- (5) 세상에서 무죄한 죽음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들이 사나와져서 하나님을 내쫓을 것처럼 행동할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굳게 잡아야 한다.
- (6) 즉 성도들의 죽음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토록 무가치하고 이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귀중하며 성도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것이다(마 23:25).

13. **Q**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16절)

- A** (1)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다. 다윗은 왕이었고, 거기서 영광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 (2)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영광이 된다. 정작 다윗이 자신의 구원받은 이유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결코 자신의 경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한다.
- (3)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인간에게 그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말미암아 된 일로써 우리는 자녀 된 도리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참조, 롬 8:16; 갈 4:6).

14. **Q**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다윗의 자세는 어떠하였는가? (17-19절)

- A** (1) 다윗은 자신과 공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
- (2)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13, 14절에서 잘 나타나있지만 본절에서 다시 반복함으로 간절함과 그의 솔직한 마음을 강조하였다.
- (3) 다윗은 백성들과 더불어 율법의 의식을 지키면서 이러한 것이 무의미한 경배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행하면서 이것을 지키도록 하신 목적과 감사제를 드리게 하신 본래의 의미를 특별히 유의했다.
- (4) 본절에서 '여호와와 전정(殿庭)'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당시 그곳에만 제단이 있었고 그곳을 떠난 제사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곳에서 거룩한 회중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도 그곳에서 제사를 행하도록 하셨다.
- (5) 정작 다윗은 구석에서 움추려 찬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예배는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 앞에서 행해진 것이다. 그의 예배는 걸치레나 과시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예배였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뜻을 찬양해야 한다(참조, 대상 29:10-13).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12절).

제 117 편 자비를 베푸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단락구분 1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다 / 2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

1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저를 칭송할지이다

2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렘무야

1. ㉠ 본시의 의의를 설명하라.

- ㉠ (1) 본시는 가장 짧은 장(章)이지만 구속사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또한 구약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선민 사상(選民思想)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일 신약 교회의 모형이다.
 (3) 이것은 구약 교회에서부터 이미 이방의 구원에 대해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제 유대인들만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主)로 모신 모든 자는 선민이 될 수 있다.
 (4) 바로 이 때문에 여호와는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과 같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만민이 경배해야 한다고 했다(롬 15:11).
 (5) 그러므로 우리 이방의 죄인들에 대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한 본시를 우리는 영적인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2. ㉡ 시인이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2)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세기를 내려오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나머지 민족들은 '목석(木石)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고'(단 5:4) 진실한 하나님께는 어떠한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
 (3) 그러나 여기에 '모든 나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부르심이 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르심은 어떤 이방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지 못하는 한 저희와 함께 찬양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되었다(마 28:19, 20). 더우기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막혔던 장벽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가까워졌다(참조, 히 6:9).
 (5) 이것은 수세기 동안 예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였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후사(後嗣)가 되었다(엡 3:3, 6).

3. ㉢ 어떤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가? (1절)

- ㉢ (1)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
 (2) 즉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적대자들이 되어 왔던 자들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신민(神民)이 될 것이다.
 (3) 이러한 예언은 '그를 찬양하라'고 반복되는 시인의 부르짖음에서 잘 나타난다. 모든 민족에게 보내진 복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은혜는 그들에게 그분을 찬양하도록 한다.

- (4)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성령으로 자신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소리를 들어주시므로 우리는 크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참조, 렘 7:9, 10; 막 13:11).

4. Q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할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가?(2절)

A (1) 시인은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데 있다고 하였다.

- (2) 하나님의 속성들, 즉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송축하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밝게 빛난다(참조, 69:30; 빌 1:20).

(3) 이같이 이방인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들려야 하는 두 가지 큰 사항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진실하심과 그 긍휼하심'(롬 15:8, 9)이라고 이해했다. 복음을 기뻐하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가진다.

- (4) 첫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정녕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다. 그 자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신 권능으로 나타났다(참조, 암 5:12).

(5) 둘째, 그분의 진실하심이 불변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이다. 비록 유대인들이 완고하고 약속의 대열에서 이탈되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참조, 렘 31:31)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 (6) 정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의 우리에게 위로의 근원이 된다. 또한 그분의 진실하심은 우리의 모든 희망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참조, 100:5; 116:5; 골 3:16).

본장의 요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도 할렐루야'(2절).

제 118 편 여호와와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

단락구분 1-4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부른다 / 5-18 시인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 / 19-23 보좌에 나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라 / 24-29 구속자의 왕국을 전망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2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3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4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5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6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고

7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8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9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10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이다

11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이다

12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이다

13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14 여호와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5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 여호와와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18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19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 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20 이는 여호와와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이다

21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 이는 여호와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르다

24 이 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이다

25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26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 여호와와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비취셨으니 줄로 회생을 제단 뿔에 뿔지어다

28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9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1. ㉠ 본시의 기록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대부분의 주석가들(Calvin, Matthew Henry 등)은 다윗이 폭풍과 같은 많은 시련을 거치고 마침내 기쁨 부음을 받아 왕국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을 때(삼하2:4) 본시를 기록하였다고 생각한다.

(2)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즐거운 감사의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를 신뢰하는 기대 속에 참여하도록 고무시켰던 것이다.

- (3) 실로 다윗의 이러한 감사와 신뢰의 노래는 본시의 후반부(22절)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이 귀절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다(마 21:42).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해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참조, 사 45:22, 23).

2. ㉠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가? (1-4절)

- ㉠ (1)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권면한다.
- (2) 특히 다윗이 이스라엘과 아론의 자녀로 제한하여 말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당시의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 (3) 다윗은 이런 논리를 전개하기 위하여 116편에서 말했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먼저 제사장 직분으로서 찬송을 지휘했던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로 말씀을 옮긴다.
- (4) 이것은 다윗이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것(22절)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그 시작과 첫 열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1:16; 2:9, 10).
- (5) 여하튼 다윗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라기 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 (6)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 가운데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고는 결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51:17).

3. ㉠ 다윗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5절)

- ㉠ (1)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고통 중에서 이끌어 내셨다.
- (2)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아 환난 날에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3) 또한 다윗이 기도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는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였다. 이것은 심한 환난을 당할 때가 가장 기도를 드리기에 적절한 때임을 가르쳐 준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때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32:7; 59:16).

4. ㉠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담대함을 가진다고 말하는가? (6, 7절)

- ㉠ (1)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모든 음모를 담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한다.
- (2)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악한 계교(計巧)를 더 의심하여 불안에 떨게 되는 사람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데 있었다.
- (3) 다윗은 이 말씀으로 근거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신앙을 은근히 책망하고 있다.
- (4) 실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찬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그들의 배은 망덕(背恩忘德)으로 이러한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 (5) 만일 그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에 복종했었다면, 그들은 자기들을 괴

틈히는 환난이나 공포를 언제나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 주신 이상으로 장래 일에 대해서 그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권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112:7; 렘 17:7).

5. **㉠**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8, 9절)

- ㉠** (1) 그는 하나님을 도저히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히 뛰어난 분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도움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2) 정작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인자하심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맡기는 자는 모든 왕들과 땅의 방백들이 그를 보호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다.
- (3)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충분히 도와 주실 분으로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 (4) 성경의 등장 인물 중에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며 자기가 당하는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므로 성도들 중에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다(참조, 욕 42:10; 단 6장; 행 16장; 고후 7장).
- (5)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같은 인간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육체를 의지하는 자는 정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참조, 잠 16:20; 29:25).

6. **㉠** 다윗은 맹렬하게 덤벼드는 원수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10-12절)

- ㉠** (1) 다윗은 별과 같이 자기를 에워싸고 덤벼드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
- (2) 다윗은 공개적으로 '여호와와 이름' 만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힘만으로는 아무런 구원의 방도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구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 (3) 다윗은 원수들의 분노를 '별'에다 비유했는데, 별은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주 사납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4) 그러나 원수들의 분노는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어 삼시간에 사납게 타올라 온 수풀을 사르고 곧 꺼져 버리고 만다.
- (5) 즉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맹렬하게 공격해 왔으나 그들의 사나움은 곧 가라 앉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세력이건 간에 다윗을 도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곧 사라지고 말았다(참조, 삼하 18:28).
- (6) 실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충성스럽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와 투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부여한다(참조, 삼상 17:45).

7. **㉠** 다윗이 원수와 맞섰을 때 누가 도와 주셨는가? (13, 14절)

- ㉠** (1) 하나님께서 그러한 급박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을 도우셨다.
- (2) 여기에서 다윗의 대적자는 사울을 가리킨다(Calvin).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이다(참조, 삼상 18:10, 11).
- (3) 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에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능력과 찬송'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자기의 피난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는 뜻이다.
- (4)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삶의 전영역에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실한 고백을 해야 한다(참조, 은 2:9).

8. **㉠** 다윗이 '여호와와 오른손'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 말한 목적은 무엇인가? (15, 16절)

- ㉠** (1)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종종 은밀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 주사 그 구원이 자기에게서 오는 것임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 (3)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발전시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4)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참조, 렘 20:13).

9. **㉠**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7절)

- ㉠** (1)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찾아 헤매는 대적들 손에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와 행사를 선포 하겠다고 했다.
- (2) 하나님의 활동은 다윗에게서 선포되었고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었다(참조, 16, 22, 51, 110편).
- (3)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의 영광과 용기는 그분을 섬기며 의지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참조, 73:28; 107:22).

10. **㉠**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적을 통해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 ㉠** (1) 그 이유는 다윗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적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도록 했다.
- (2)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대적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도록 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다만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적절하고 자비롭게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
- (3)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며 당신께 충성하도록 하시고,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아 당신께 복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로 인해 악의 질병에서 구해 주시며 영적인 건강으로 이끌어 주신다(참조, 벰전 4:12, 13).

11. **㉠** 성전에 들어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19-21절)

- ㉠** (1) 다윗은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
- (2)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과 그 무리들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갈 수 없었지만(참조, 삼상 19:29) 이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받고서는 크게 즐거워하였다.
- (3)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던 위선자들처럼 공연히 성전들만 밟는 것이 아니라(사 1:12) 다윗은 감사제를 드리려고 나갔다.
- (4) 그런데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제사는 '의의 제사' 라야 한다. 거룩한 규례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겸손한 청원자들이 되어야 한다.
- (5)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을 때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야' 하며 허락받은 한 지정소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실로 하늘의 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우리가 그를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소망을 지녀야 할 것이다(참조, 롬 9:5).

12. **㉠** 다윗이 '건축자의 버린 돌' 을 언급한 목적은 무엇인가? (22, 23절)

- ㉠** (1) 자신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 의해 버림 받은 돌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건물의 초석처럼 귀히 쓰이게 된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 (2) 그러나 그 근본적인 언급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건축

자의 버린 돌'이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와 군중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참조, 4:8, 10, 11).

- (3) 유대인들은 그를 약속된 돌(단 2:34), 즉 약속된 메시아로 고백하기를 거부했다. 또한 그들은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를 따르지도 않았다. 가장 필요한 머릿돌(벤전 2:7)을 버리고 자기들의 건축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결국 그들은 이방인 '빌라도' 앞에서 부인(否認)'(행 3:13)까지 하였다. 그때에 그들은 가이사 이외에 다른 어떤 왕도 모시고 있지 않다(참조, 요 19:12)고 말했다. 그들은 이 돌을 짓밟고 그것을 도성 밖에 있는 쓰레기 가운데 던져 버렸다(참조, 눅 23:33).
- (5) 이것은 그리스도께는 수치였지만 동시에 그를 경시했던 자들의 파멸을 입증해 주었다(마 27:25).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참조, 요 17:21).

13. **㉠** '이날'은 언제를 말하는가? (24절)

- ㉠** (1)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복되고 즐거운 날에 대해 말하고 있다.
- (2) '이날'은 여호와와 정하신 날이다. 이것은 복음이 지배하는 모든 때, 즉 '정하신 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날은 기쁨으로 지켜져야 하는 끊임없는 축제의 때이다.
- (3) 더우기 이날은 버림 당한 돌이 높임 받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 (4) 이날에 해야 하는 행사가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또한 우리의 유익으로 여겨 모두 기뻐해야 할 것이다. 안식일은 기뻐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안식을 의미한다(참조, 히 4:3).

14. **㉠**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25, 26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 주셔서 그의 나라가 형통하게 되고 영원히 번창하기를 간구하였다.
- (2) 이 말은 다윗이 대관식 때 한 말이다(Calvin).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豫表)로서 그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 그 영원한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으며,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승된 왕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우게 될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였다.
- (3) 그러므로 이 귀절이 말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며, 다윗 시대에 어렵듯 했던 것이 이제 밝히 나타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 (4)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는 이이며, 이미 오신자이며, 다시 오실 자이시다(계 1:8). 그는 여호와로부터 위임을 받고, 그분을 위해 일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 (5) 그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오시는 자여 복이 있으라'(마 21:9)는 고백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를 찬양하고 경외하며 그를 높이 존중하며 영원히 송축해야 한다(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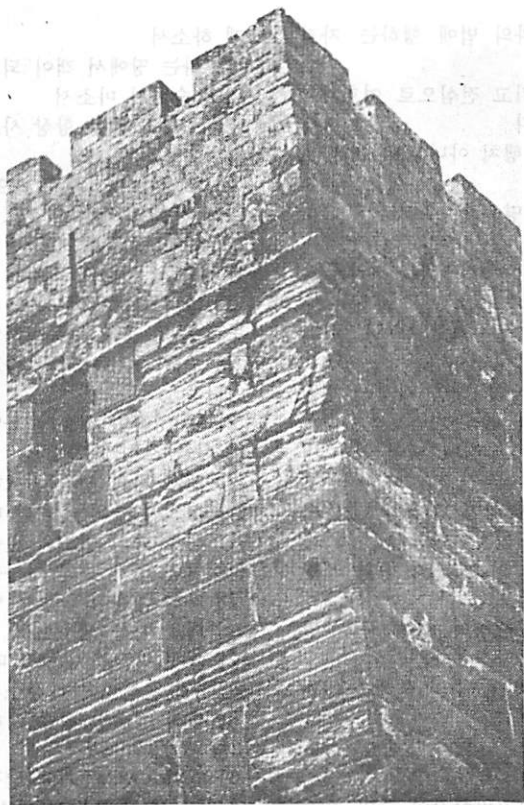
15. **㉠** 다윗이 성도들에게 '희생을 제단 뿔에 떨어다'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인가? (27-29절)

- ㉠** (1) 합법적인 제도상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엄숙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참조, 레 1:2).
- (2) 다윗은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식적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았다.
- (3) 그러나 다윗은 항상 자기의 중심을 그 의식 배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고, 이것들은 다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말했다.

- (4) 이제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가고 자신의 흠없는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리스도(참조, 히 9:12)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남아 있다.
- (5) 하나님의 영광은 그를 향한 우리의 고백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한다(눅 19:38).

화보자료

집 모퉁이의 머릿돌. 아래의 사진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한쪽 모퉁이를 찍은 것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르로시 피나>인데 이는 본래 돌로 된 건축물의 모퉁이 제일 윗 부분에 놓여진 돌을 의미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셨다(마 21:42-44).

제 119 편 구원을 얻은 자의 교훈

단락구분 1-8 주의 율례에 대한 결단 / 9-16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다 / 17-24 하나님의 관용을 구하다 / 25-32 악에서 떠날 것을 간구하다 / 33-40 진리의 길을 택하다 / 41-48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 49-56 주의 규례를 기억하고 위로하다 / 57-64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다 / 65-72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우다 / 73-80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과 즐거움 / 81-88 끝까지 구원과 위로를 간구하다 / 89-96 주의 법도를 기억해야 할 이유 / 97-104 가장 큰 지혜의 근원 / 105-112 영원한 기쁨 / 113-120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 121-128 주의 가르침을 사모하다 / 129-136 주의 계명을 사모하다 / 137-141 하나님의 의와 진실 / 142-144 의와 진리이신 주의 법도 / 145-152 구원을 향한 기도 / 153-156 구원에 대한 확신 / 157-160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다 / 161-168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다 / 169-176 의로운 말씀을 찬양하다.

1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2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3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시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5 내 길을 굳이 정하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7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8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9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나이다

10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13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 하였으며

14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16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7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

게 하소서

19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21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22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훼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23 방백들도 앉아 나를 훼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24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나이다

25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26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대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27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28 나의 영혼이 놀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9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30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31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32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 가리이다

33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5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나이다

36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37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38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39 나의 두려워하는 재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40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41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2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재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43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44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45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46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47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목상하리이다
 49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50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51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2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3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잠혔나이다
 54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55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57 여호와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58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59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60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61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62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63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64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5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6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9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0 저희 마음은 살찌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74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이니이다
 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76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7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78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엿드려 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목상하리이다
 79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80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81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83 내가 연기 중의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84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85 주의 법을 좃치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응덩이를 팠나이다

86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87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8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90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9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3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94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95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니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96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같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8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100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101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104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6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108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09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음무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1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12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3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4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5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116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17 나를 불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18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원니 저희 궤사는 허무함이니이다
 119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끼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120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121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122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고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123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124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125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126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127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8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9 주의 증거가 기이하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30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131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혈떡였나이다
 132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33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134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135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취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36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137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138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 하도소이다

139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140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141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2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143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44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145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146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147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148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149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0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151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152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153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54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155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56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157 나를 꾀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58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제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159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161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꾀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의하나이다

162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3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64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166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167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8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169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1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발할지니이다

172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173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4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75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176 잃은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 ㉠ 본시의 구조적 특성에 관해 설명하라.

- ㉠ (1) 본시는 히브리 시의 특성인 답관체(踏冠體), 즉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엄격히 지켜진 시이다.
- (2) 그 때문에 본시는 22연(聯)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마다 8절로 이루어졌고 그 연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적당한 문자로 시작되었는데 예를 들면, 첫 연에서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문자 <알랄>으로 시작되고 두번째 연에서는 <베트>, 세번째 연에서는 <김멜> 등으로 시작되었다.
- (3) 특히 본시는 9가지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했는데 그것들은 동의어(同意語)이며 각기 전체를 함축하는 표현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4) ① <토라>, 즉 '율법'이다. 본시에 나타난 율법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 율법이

라고 하기 보다는 광의적인 범위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의미한다. 이 법칙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② <에두트>, 즉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증거와 의지를 보여 주는 어휘로 사용된다.

③ <미쉬파트>, 즉 '심판'이다.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내려지는 심판적인 선언으로 행동이나 언어가 수반된다.

④ <호킴>, 즉 '규례'라는 말로 한 번 번역된 말이다(91절). 원래는 입법자로서 하나님의 법령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⑤ <다발>, 즉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들'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⑥ <피쿠딤>, 즉 '교훈'이다.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교훈을 말한다.

⑦ <미츠와>, 즉 '계명' <피쿠딤>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⑧ <이므라>는 본래 '약속'을 의미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발> 대신에 사용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적용된 말이다.

⑨ <테레킴>, '길(道)들'이라는 말인데 행동 영역을 표현한 말이다.

(5) 본시 중에서 이 9개의 단어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 귀절은 단지 하나뿐이다(112절).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시인은 커다란 존중과 애정을 가졌던 것이다.

(6)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이 시가 성화(聖化)된 영혼의 열성으로 이루어진 노작(勞作)이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지배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고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7) 또한 본시에서는 경건한 생활에 관한 교훈들도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 본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생활 태도를 확고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

2. ㉠ 시인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1-3절)

㉠ (1) 그는 여호와와 뜻대로 행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다.

(2)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백성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복이 있으며, 복을 받게 될 것이다(엡 1:3).

(3)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바른길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행복의 길을 찾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좁고 험악하지만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기쁘게 걸어야 한다(참조, 마 7:13, 14).

3. ㉡ 시인은 성도들에게 주의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가? (4-6절)

㉡ (1) 시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행하라고 말한다.

(2) 사단은 인간들을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자유 의사대로 하도록 우리 인간들을 유혹한다(창 3:1-3).

(3) 이러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참조, 엡 6:17).

(4)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하고 그대로 행하도록 명하셨던 것이다(참조, 겔 44:24).

4. ㉢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가져야 하는 마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7, 8절)

Ⓐ (1) 시인은 자신의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가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지도가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우리는 이 귀절에서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예속(隸屬)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배운 자가 아니고서는 거짓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다.

(4) 우리가 생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입과 혀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이것은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는 한 올바르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지만 그분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결심을 하고 배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참조, 절 36:27).

5. Ⓒ 청년이 행실을 깨끗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

Ⓐ (1)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2) 여기에서 깨끗케 한다는 것은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3)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원죄(原罪)를 지녔을 뿐 아니라 많은 죄악으로 물들어졌다.

(4) 특별히 청년들은 정욕에 이끌려 범죄하기가 더욱 쉽다.

(5) 그러나 청년들은 그들의 행실을 깨끗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생명이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의 부패로부터 깨끗케 되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참조, 딤후 4:12, 13).

6. Ⓒ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바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10절)

Ⓐ (1)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2) 자기 마음의 성실성을 알고 있는 시인은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한 성실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3) 정작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행사를 계속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다.

(4) 사실 선한 자들은 방탕하기 쉬운 자신의 성격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의 방황을 막아 주는 그분의 은총에 더욱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참조, 107:14; 요 16:13).

7. Ⓒ 시인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11절)

Ⓐ (1) 그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다.

(2) 여기에서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뜻을 상고하며 그대로 행하기를 애썼다는 의미를 지닌다.

(3)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 이 교훈과 친숙한 생활을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죄악의 울무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말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법을 단지 아는 것이나 관심 없이 읽어 내려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는 데 있다(참조, 잠 3:3).

(5) 한편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지 않는 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89:14).

8. Ⓒ 시인이 여호와께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 (12절)

Ⓐ (1)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였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조명되는 빛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교훈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벽함을 신뢰하여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무시하는 자가 적지 않다.

9. **㉠**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13-16절)

㉠ (1) 그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즐기며, 잊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2) 시인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마음의 열정을 이제는 입술에다 적용시키고 있다. 곧이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자신의 간곡하고도 거침없는 노력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하였다.

(3) 그에 덧붙여 시인은 자신의 각오를 말하는데,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그 율례를 즐거워 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4) 선한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데 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인간의 육체적 욕망도 역시 정복된다.

(5) 우리의 본능적인 상태는 죄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 정작 율법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의 변함없는 기질은 죄로 향할 수밖에 없다(참조, 11절; 약 1:18).

10. **㉠** 시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 (1) 시인은 자기가 사는 동안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다.

(2) 이것은 그가 자기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확신하고 끝까지 이렇게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살아야 할 목적에 대해 심사 숙고(深思熟考)하는 자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4) 시인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합리적인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주된 존재 목적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86:9).

11. **㉠** 시인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여 달라고 간구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18절)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2) 다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자기의 눈을 열어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는 눈에 베일이 가려서 하늘의 교훈을 분별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므로 자신의 무지함과 동시에 온 인류의 무지를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로운 조명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참된 진리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고 시인은 말한다.

(4) 그 때문에 시인은 율법의 교훈을 '기이한 것'이라고 말하여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 경외심을 갖도록 만든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도록 하며,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초월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율법에서 심계명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언약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것들도 율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寶庫)를 감추고'(골 2:3)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롬 10:14)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12. **㉠** 시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삶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 (19, 20절)

㉠ (1) 시인은 세상을 영원히 있을 곳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연연해 하지 않

고, 오직 율례만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했다.

- (2)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 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들의 생활이 편하고 평탄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잠시 동안 있을 곳으로 아는 자, 즉 자기의 기업은 하늘에서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거나 동요되지 않는다(참조, 마 6:19, 20).
- (3) 오히려 율법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데 한결같이 큰 열심을 기울인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도 세상의 것을 쫓기 보다 말씀에 충실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겠다(참조, 딤후 3:1-5).

13. Q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꾸짖으셨는가? (21절)

- A (1)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꾸짖으셨다.
- (2) 여기에서 시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응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했다.
 -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자신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리석음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 (4) 시인이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켜 ‘교만한 자’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겸손케 해주는 반면, 모든 반역은 교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 (5)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을 물리쳐 주는 하나님의 율례를 조심해서 그리고 주의 깊게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 수 있다(참조, 105절; 수 1:8).

14. Q 시인은 주위의 비방과 멸시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22, 23절)

- A (1) 그는 오히려 의연한 태도로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다.
- (2) 즉 주위의 비방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시인은 깨끗하게 인내하며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였다. 사단은 그를 절망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악한 행위로 그에게 달려들었으나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고 있다.
 - (3)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종종 핍박과 환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또한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사람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에 만족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참조, 롬 8:35-37).

15. Q 시인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24절)

- A (1) 그는 하나님의 증거를 즐거움으로, 모사(謀士)로 여기므로 극복했다.
- (2) 시인은 사람들이 잔악한 불의와 거짓으로 자신을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법에서 취한 아름다운 기쁨이 이 모든 것을 격퇴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하였다.
 - (3)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의 증거가 ‘나의 모사’라고 함으로써, 자기는 단순히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 (4)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 말씀의 교훈에 겸손히 복종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속임수나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유혹에 맞서 단호하게 서 있어야 한다(참조, 엡 6:10-20).

16. Q 시인은 환난 중에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가? (25-27절)

- A (1) 시인은 마치 무덤 속에 갇힌 것 만큼이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처지에서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하며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 (2) '자신의 행위를 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때까지 어떠한 일을 시도하거나 수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여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主權)에 맡긴다.
- (3) 거기에 덧붙여 시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자기가 장래에 좋은 소망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그 이유 때문에 시인은 그토록 어려운 처지에서서도 율법에 대한 참이해를 구했던 것이다.
- (4) 그러나 시인은 성령을 자신의 교사로 모시고 있지 않은 채 하나님의 법을 대하게 되면, 별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혜의 은사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이 길이 자기에게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다.
- (5)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셔서 하늘의 지혜에 대한 맛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맛볼 수 없다.
- (6)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성령의 조명(照明)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참조, 요 16:4, 7-14).
17. **㉠** 시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옳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했는가? (28, 29절)
- ㉠** (1) 그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다.
- (2) 시인은 이러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했던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거짓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상황 윤리(狀況倫理)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 (3)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을 허락치 않는다(참조, 삼상 15:1-23).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인은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다.
- (4)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전격적으로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는 결코 거짓된 행위를 할 수 없다.
- (5) 이처럼 우리들도 자기가 처해진 상황만 바라고 악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하겠다(참조, 출 15:27).
18. **㉠** '성실한 길'을 택한 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30-32절)
- ㉠** (1) '성실한 길', 즉 진리의 길을 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의 규범으로 삼고, 의욕적으로 말씀을 지키기에 노력한다.
- (2)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넓히시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충분히 준행할 수 있다.
- (3) 특히 시인은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단지 외부적인 행위에 의존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율법에 대한 즐거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 (4) 그 이유는 경건한 생활이 오히려 평안함과 무관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낳게 만든다(참조, 마 23:5-7).
- (5) 이러한 자세는 '성실한 길'을 택한 자로서 '달려가는' 자세가 아니다. 성도들은 달려가는 자세가 항상 필요하다. 신앙 생활에서 이처럼 적극적이고 정력적인 면이 없을 때 평안이 없다(참조, 딤후 4:7, 8).
19. **㉠** 시인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그것에 대한 각오는 무엇인가? (33, 34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는 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이에 따라서 자신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 (2) 그는 '율례의 도'를 배우고자 갈망했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라는 각오에서 잘 나타나 있다.
- (3) 그가 이런 각오를 가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주의 율례를 즐거워했기 때문이다(16절).

(4)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겠다(참조, 계 2:26).

20. **㉞** 시인이 자신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졌던 태도는 무엇인가? (35, 36절)

- ㉞** (1) 그는 인간의 탐욕으로 행하지 않고 모든 관심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 (2) 그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했던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율례를 행하게’ (겔 36:27) 하신다.
- (4)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증거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21. **㉞** 시인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 달라고 간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37, 38절)

- ㉞** (1) 그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들과 같은 허망한 것을 따르게 되면 경건과 거룩한 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2) 그래서 그는 주의 도에 거닐길 원했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길 바랐던 것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도를 따르기 보다 주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이다(참조, 신 7:12-16).

22. **㉞** 시인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꾀방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39, 40절)

- ㉞** (1)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기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는 악의 꾀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 (2)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주의 의를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 (3)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다. 신앙은 입으로만 수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참조, 롬 14:22, 23).

23. **㉞** 시인이 자신을 꾀방하는 자에게 담대히 말하겠다는 각오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41, 42절)

- ㉞** (1)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꾀방하는 자들과 대적하겠다고 했다.
- (2) 특히 시인은 본절에서 ‘인자하심’을 먼저 말하여 자신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 (3) 그는 자기가 처해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세력들과 싸우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로써 인간의 모든 심령 골수를 찢러 쪼갤 만큼 날카롭다(히 4:12).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이 유혹해 올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다(참조, 마 4:1-11).

24. **㉞** 시인은 무엇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 달라고 했는가? (43, 44절)

- ㉞** (1) 시인이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서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보다더 큰 각오를 하나님께 나타내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그대로 따르기를 '주저해서도 안 된다. 주의 말씀은 성도들의 발에 등이요, 빛이다 (105절).

25. **㉠** 시인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45-48절)

- ㉠** (1) 그는 주의 말씀을 잘 따랐고, 열왕 앞에서도 당당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만큼 말씀을 사랑하였고 즐거워하였다.
- (2) 그는 너무나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인양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를 당하더라도 그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
- (3) 이러한 그의 태도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법을 묵상하리이다'에서 잘 나타난다.
- (4) 여기에서 손을 드는 행위는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기도하는 것(28:2; 애 2:19; 딤후 2:8), 축복하는 것(22:4; 레 19:22), 맹세하는 것(106:26; 창 14:22; 신 32:40; 절 36:7; 계 10:5), 어떤 일에 가담하는 것(10:13; 창 41:44; 히 12:12)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5) 여기에서의 손을 드는 행위는 '어떤 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나타낸다(참조, 히 12:12).
- (6) 이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노력해야 한다(참조, 행 6:4).

26. **㉠** 시인이 곤난 중에서 위로함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49, 50절)

- ㉠** (1)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소망을 주었고 위로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 (2)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근심 중에 있게 하실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이다.
- (3)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죽은 자처럼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주며 그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준다(참조, 고후 1:4).

27. **㉠** 교만한 자가 시인을 조롱했을 때 시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51, 52절)

- ㉠** (1) 그는 하나님의 옛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 (2) 여기에서 '하나님의 옛 규례'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Calvin).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심판주로 알려 주셨다는 증거를 의미한다(참조, 렘 25:5-11).
- (3)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영원한 공의의 법을 세워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려 하였다.
- (4)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나타내며,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된다.
- (5) 또한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얼마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반면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내하여 싸움을 마친 후에 영원한 축복을 허락받는다(참조, 절 3:21).

28. **㉠** 시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53-56절)

- ㉠** (1) 악인들은 율법을 어기지만 시인은 자신의 생활 전부가 말씀과 연관된 생활이었다.
- (2) 그는 모든 관심을 주의 법에 집중했는데 그 법을 노래로 부를 만큼 즐거워했으며, 밤에

도 그 법을 생각했다.

- (3)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 (4) 이런 생각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태도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무관한 듯이 살아가고 있다. 말씀은 말씀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다시 확인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29. **㉠** 시인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57-60절)

- ㉠** (1)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신속히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 (2) 사람에게에는 자기의 잘못을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틈이 있으면' (행 24:25) 회개를 하겠다고 한다.
- (3) 그러나 시인은 자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서 자기의 잘못을 신속하게 회개하였다. 이것은 그가 '은혜받을 만한 때' (고후 6:2)를 알았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이 말씀에 어긋나 있지 않은가 민감하게 바라보아야 하며, 잘못되었을 때는 신속히 회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것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꼭 지켜야 할 것이다(참조, 계 2:5).

30. **㉠** 시인은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61, 62절)

- ㉠** (1) 그는 위급한 상황에 있었지만 주의 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 (2) 의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거나 어려운 음모에 걸려 들지라도 실망하여 주의 도를 멀리하거나 자포 자기(自暴自棄)하는 일이 없다(참조, 욕 1:20-22).
- (3)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이 잠든 밤중에도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 (4)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귀감(龜鑑)이 되는 말씀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쉽게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환난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 (5) 진정한 신자는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한다(참조, 벰전 1:6; 4:12, 13).

31. **㉠**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자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63, 64절)

- ㉠** (1) 그는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본다.
- (2) 먼저 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사랑을 주의 교훈을 따르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3) 이처럼 성도는 신앙 가운데서 낙관적(樂觀的)인 사고(思考)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세상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각처럼 결과를 맺고 말 것이다.

32. **㉠**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각오로 살아가겠다고 했는가? (65-67절)

- ㉠** (1) 시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며 앞으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
- (2) 그는 '뱀박' (161절)과 악한 자들의 '훼방' (22절)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의 계명' (105절)을 살펴보고 그것을 의지하였다.
- (3)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당한 역경이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되었

기 때문이다(71절).

- (4)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 때 환난 중일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환난을 이겨 나가야 한다(참조, 롬 8:18).

33. **㉠** 하나님의 법이 선하기 때문에 시인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겠다고 하였는가? (68-70절)

- ㉠** (1)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 거짓말로 시인을 괴롭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주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였다.
 (2) 이러한 그의 열망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기에 갈급한 심정에서 잘 나타난다.
 (3) 그러나 교만한 자들이나 패역(悖逆)한 자들의 마음은 둔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곡(歪曲)하거나 거짓 증거를 일삼아 의인들을 괴롭힌다(참조, 10:4).
 (4) 이와 같은 유혹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억지로 해석하여(참조, 벰후 3:16)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케 하는 이단의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며 자기의 수중으로 끌려고 한다.
 (5)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야 하며 말씀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참조, 요일 2:5).

34. **㉠** 시인은 율법의 가치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71, 72절)

- ㉠** (1) 그는 율법이 자기에게 '천천 금은보다 승(勝)하다'고 하였다.
 (2) 그는 지상의 어떤 부(富)보다도 주의 율례를 더 귀하게 여겼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71절).
 (3)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알아야 한다.
 (4) 지금도 암흑과 같은 세계에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공산 국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북한의 주민들을 생각해 보라.
 (5)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당연한 사실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택으로 깨닫고 자기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겠다(참조, 갈 5:16).

35. **㉠** 시인은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을 달라고 하는가? (73, 74절)

- ㉠** (1)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다.
 (2)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결과적인 용법으로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에서는 '주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라는 목적 용법으로 되어 있다.
 (3)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나 자신을 위하여 더 많이 행하여 달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주께서 주신 이 몸이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34절).
 (4) 이러한 마음 때문에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시인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다.
 (5) 이처럼 우리의 생활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이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진정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겠다(참조, 131절; 마 5:6).

36. **㉠**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말했는가? (75-77절)

- ㉠** (1) 그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

고 있기 때문이었다.

- (2) 그는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는 데 대해, 감히 항의(抗議)할 수 없었던 것이다.
- (3) 단지 그가 내세울 수가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뿐이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의롭기 때문에, 성실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참조, 롬 3:24).
- (5)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실은 모든 자에게 다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참조, 마 22:14), 즉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요 3:16)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 한한다.

37. **㉠** 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78-80절)

- ㉠** (1) 그것은 '주의 교훈'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었다.
- (2) 그는 주위의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하고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법도를 목상하였다.
- (3) 이것은 그가 인간의 방법으로 악의 세력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정작 그의 관심은 인간적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는 각오에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 (4)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 주의 일이 여가 활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말씀을 목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참조, 신 5:33).

38. **㉠** 시인은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환난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81-83절)

- ㉠** (1) 그는 비록 몸은 지치고 쇠약해 있지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 (2) 시인은 고난 중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를 '연기 중의 가축병'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연기 중의 가축병같이 자신의 마음이 조이고 말랐다는 의미이다.
- (3) 그렇게 혹독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신뢰는 변함이 없었다.
- (4) 고난은 진실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가려 내게 한다. 사실 환경이 좋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나 다 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정작 얼마 되지 않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고 더욱 신앙 가운데 정진(精進)하여야겠다(참조, 벰전 1:6, 7).

39. **㉠** 시인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떤 각오로 나아갔는가? (84-88절)

- ㉠** (1) 그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고', '주의 입의 증거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나아갔다.
- (2)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으며 거의 죽이다시피 했으나, 그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계속 그 법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다.
- (3) 이러한 그의 자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낸다.
- (4)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조그만 역경에도 쉽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고 걱정을 한다. 이것은 진정한 신자의 자세가 아니다.
- (5) 진정한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 (요 16:33)인 줄 알아서 그분을

의지하여 본시의 시인처럼 악의 세력들이 멸할 날(84절)만 기다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마 8:26; 막 9:23).

40. ㉠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89-91절)

- ㉠ (1) 그는 하늘과 땅의 불변하고 영원함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 불변을 묘사했다.
 (2)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며, 하늘에서 고정되어 확고하게 운영되어진다(참조, 89:2; 약 1:17).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에 이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참조, 146:6).
 (3) 천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계속 지켜지는 것처럼(참조, 렘 31:35, 36; 33:25)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다. 그 때문에 시인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4) 우리도 역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영원하며 불변하다(참조, 요 3:16).

41. ㉠ 주의 법은 시인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92-94절)

- ㉠ (1) 주의 법은 시인에게 삶의 소망을 주었으며 기쁨을 허락하였다.
 (2)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진정한 사랑만이 무서운 고난에서 사람을 건져 낼 수 있음을 시인은 알고 죽음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법도를 찾았던 것이다.
 (3) 또한 그는 확실한 믿음으로 간구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즉 내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참된 종이며 당신을 좇는 자이니 자기를 구해 달라는 말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한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행 16:25).
 (5)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러한 소망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참조, 창 18:14; 약 5:16).

42. ㉠ 악인들이 시인을 죽이려 했을 때도 시인이 주의 법을 목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95, 96절)

- ㉠ (1) 그는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란 말은 그 영역이 제한이 없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완전성을 보여 준다.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신뢰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된다(참조, 롬 16:25-27).

43. ㉠ 주의 계명은 시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97-101절)

- ㉠ (1) 주의 계명은 시인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고, 스승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했으며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2)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종일 목상하였기 때문이었다.
 (3)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은 세속적인 지식이나 사람의 간교한 모략(謀略)이 따르지 못할 무한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한다(참조, 잠 1:7).
 (4)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생의 지혜'를 허락하기 때문이다(참조, 요 5:39; 딤후 3:16, 17).

44. ㉠ 시인은 주의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102-104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주의 법을 계속해서 배웠으며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로 거짓된 행위를 멀리했다.
 (2)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한다. 특히 시인의 삶이 악에서 멀리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대로 살아가길 좋아했기 때문이다(103절).

- (3) 이처럼 성경 말씀은 인간의 결단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개인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4)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의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영생을 얻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참조, 딤후 3:16, 17).

45. **㉠** 시인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105, 106절)

- ㉠** (1) 그는 주의 말씀을 자기 삶의 참된 안내자로 여겼기 때문에 주의 규례를 꼭 지키겠다고 했다.
- (2) 사실 주의 말씀은 인간이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는 등이요 빛이다(참조, 잠 6:23). 주의 말씀을 기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찾기 위해 헤매는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 (3)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주의 법을 따르는 것을 생활의 최우선에 두며 거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참조, 요 1:10-14).

46. **㉠** 시인이 마음에 품은 결심은 무엇인가? (107-112절)

- ㉠** (1) 그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주의 법을 멀리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겠다고 결심하였다.
- (2) 그는 주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원수가 생명을 노리며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다.
- (3) 그렇지만 그는 무작정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깊은 도(道)를 가르쳐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다. 이 간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입의 낙헌제', 즉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있었다(109절).
- (4)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감사의 찬양과 더불어 그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참조, 12, 26, 33절; 요 16:13).

47. **㉠** 시인은 무엇에 희망을 가지는가? (113-116절)

- ㉠** (1) 악한 원수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의 약속에 희망을 걸었다.
- (2) 그의 삶은 거짓이나 불의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고후 10:16). 이처럼 의인은 죄를 행하는 사람과 성별된다(6:8). 그러나 악인과 교제를 갖는 삶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참조, 고전 15:33). 그는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3)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15절에서 행악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각오에 잘 나타난다.
- (4) 그러므로 성도의 자세는 악한 행동에서 멀리 떠나 있어야 하며, 환한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에 소망을 두며 주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데 있다(참조, 딤후 1:9).

48. **㉠** 하나님은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117-120절)

- ㉠** (1) 하나님은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를 다 쓰레기처럼 취급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 짓된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 (2) 악인은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결국 선한 자에게서 분리되어 '찌꺼기같이' 버려지게 된다. 이는 저희들이 선한 목적에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참조, 마 13:30, 49, 50).
- (3)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례에 주의 의를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지만 순종치 않는 자에

48. 시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의 법을 정제하신다(참조, 뱀후 2:4, 5).

(4)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법을 붙들어야 하며 우리 주위에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하겠다(참조, 잠 15:29).

49. **㉠** 시인이 자기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말아 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121, 122절)

- ㉠** (1) 그가 '공과' 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2) 이 말의 뜻은 '내가 어떤 사람도 압제하지 않았으니 주께서도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마십시오'란 의미이다.
 (3) 그러나 그는 자기가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기의 판단에서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122절에서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의 태도로 보아 잘 알 수 있다.
 (4)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이다. 그러나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 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
 (5)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의로와지는 길을 열어 주셨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의의 인침을 받는다(롬 3:23-31).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롬 3:24).
 (6) 이러한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저주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다(참조, 요 5:24).

50. **㉠** 시인은 얼마 만큼 주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123-125절)

- ㉠** (1) 그는 눈이 쇠약해질 만큼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했다.
 (2) 이러한 시인의 열정은 좀더 주의 율례를 배우고자 했고 그 깊은 뜻을 깨닫기 원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율례를 배우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계 22:20).

51. **㉠** 악한 자들이 주의 명령을 어기고 있을 때 시인의 자세는 어떠한가? (126-128절)

- ㉠** (1) 그는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했으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했다.
 (2) 악한 자들은 주의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려 했지만 시인은 더욱 계명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에 맞는대로 주의 법도를 선택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법도 전체를 온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 복종하였다는 말이다.
 (3) 이처럼 성도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법도를 열심히 따라야 한다(참조, 뱀후 3:16, 17).

52. **㉠** 시인이 주의 증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129, 130절)

- ㉠** (1) '주의 증거가 기이(奇異)하기' 때문이다.
 (2) 시인은 이러한 기이함 때문에 어리석은 자도 주의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19:7; 잠 1:4).
 (3)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깨달음을 준다. 세상에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울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혜를 얻게 된다(참조, 105절).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우리의 적은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물리친다면 영원히 우리는 버림 받게 될 것이다.
 (5)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훈에 복종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참조, 고전 1:27-29).

53. **㉠** 시인은 하나님께 공훈을 구하며 부수적으로 어떤 것을 간구했는가? (131-133절)

- Ⓐ (1) 시인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무런 죄악도 자신을 주장치 못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 (2) 그가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계명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조건도 되었다.
- (3)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참조, 잠 16:9). 그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법도를 지키는 자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참조, 창 4:7).
- (4) 그러므로 우리들도 날마다의 생활에서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며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파하고 그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야겠다(참조, 딤펴전 4:6).
54. ⓐ 시인은 자신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가? (134절)
- Ⓐ (1) 그는 주의 법도를 지키며,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였다.
- (2) 여기에서 주의해서 생각할 문제는 시인이 압박 속에 있을 때는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신다면 더욱더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겠다는 그의 각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신의 정욕을 위한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분의 뜻을 위한 간구가 되어야 한다(참조, 요 15:7).
55. ⓐ 시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135절)
- Ⓐ (1)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다.
- (2) 그는 종으로서 주인의 은총을 열망하며, 주인의 행사에 관해서 염려하였다. 그래서 그는 율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기 원했고 그대로 행하려 했던 것이다.
- (3)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례를 지키는 데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총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인 율례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참조, 느 8:3).
56. ⓐ 시인이 슬퍼한 이유는 무엇인가? (136절)
- Ⓐ (1)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그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자들 때문에 모든 눈물을 다 쏟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특별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 (3) 이 말씀은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69:9)라고 한 말씀과 일치한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열렬한 열심으로 타올랐으며, 하나님의 계명이 하찮은 것으로 여김 받을 때 그의 마음은 분노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에게 의해 높임을 받게 되기를 바라야 한다(참조, 사 8:20, 21).
57. ⓐ 시인은 주의 법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137-141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법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게’ 여겼다.
- (2) 그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적들은 이런 주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시인을 멸시하니 시인의 분노는 불같이 타올랐던 것이다(139절).
- (3) 그러한 와중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이었다.
- (4) 이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멸시받고 몽매(蒙昧)한 짓을 한다고 손가

락질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참조, 행 7:60).

58. **㉠** 하나님의 법은 시인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142-144절)

- ㉠** (1) 하나님의 법은 환난과 우환 가운데서 시인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2) 왜냐하면 시인은 주의 법을 진리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은 비록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것 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3) 그래서 시인은 환난 속에 있지만 오히려 주의 증거를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이다(144절).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유익을 느낄 때는 우리를 압제하려 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맞설 때이다. 정작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며 이것을 통해서 모든 슬픔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된다(참조, 고후 1:5).

59. **㉠** 시인은 하나님께 어떤 서약을 했는가? (145, 146절)

- ㉠** (1)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며, 그에 대한 감사의 증거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서약했다.
 (2) 즉 시인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열심으로 계속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다.
 (3) 그는 이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더욱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각오가 있었다.
 (4)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즐거움과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즐겁게 섬기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간구해야 한다(참조, 단 4:34, 35).

60. **㉠**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는 어떠했는가? (147, 148절)

- ㉠** (1) 그는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
 (2) 유대인들에게 저녁, 아침 및 한낮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55:17). 시인은 아침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한밤중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거나 아침을 바라며 아직도 어둠이 깃들었을 때에 아침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3) 이처럼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참조, 살전 5:16-18).

61. **㉠** 시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가? (149-152절)

- ㉠** (1)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규례를 따라' 살려 달라고 간구했다.
 (2) 그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간구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규례로 지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149절), 그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152절).
 (3) 지금도 그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신다(참조, 요 3:15-17).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에 대해 대응하며 살아야 한다(참조, 엡 6:12).

62. **㉠** 시인이 악인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 (153-156절)

- ㉠** (1) 시인이 간구하기를 악인들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자신은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구해 달라고 했다.
 (2) 구원은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주의 계명

을 아는 것과 행하는 일에 대해서 구하지 아니할 때 이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참조, 116:4).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우리의 전심을 그분께 의지해야 한다(참조, 마 16:24).

63. **㉠** 악인들이 시인을 폄박하였지만 그는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157-160절)

㉠ (1)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영원한 줄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

(2) 또한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참조, ㉠ 56).

(3)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는 말씀을 묵상하며(15, 23, 48절) 그 가르침에 따르려는 태도(12, 26, 33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4) 이처럼 말씀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며,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여지(餘地)를 우리에게 허락한다(마 5:44).

64. **㉠** 시인이 가장 관심 있게 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161-164절)

㉠ (1)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의 관심은 주의 법에 있었다.

(2) 이러한 그의 태도는 '방백들의 폄박'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경외하게 했고 '탈취물(奪取物)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

(3) 그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는 오직 주의 말씀에만 국한(局限)되었다. 그 때문에 그는 거짓을 멀리했으며 '주의 법만 사랑했던' 것이다(163절).

(4) 이와 같이 말씀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참조, 사 33:6).

65. **㉠**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65-168절)

㉠ (1) 그는 주의 증거를 지키고 사랑하며 주의 제명대로 행한다.

(2) 그 때문에 그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그는 오직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주의 법을 지키기에 애쓸 따름이다.

(3)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 지금 나의 행동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66. **㉠** 시인이 부르짖고 있는 간구의 내용은 무엇인가? (169, 170절)

㉠ (1)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다.

(2)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50:15; 91:15). 그러므로 시인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부르짖었던' 것이다.

(3) 시인의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 자신을 의지하거나 과학이란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원시적인 것인 양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4)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흐트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며 본시의 시인처럼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간구해야 한다.

67. **㉠**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는가? (171-173절)

㉠ (1)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율례를 가르칠 때 그 의로움에 시인의 마음은 찬양의 노래로 가득 찼다.

(2)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내면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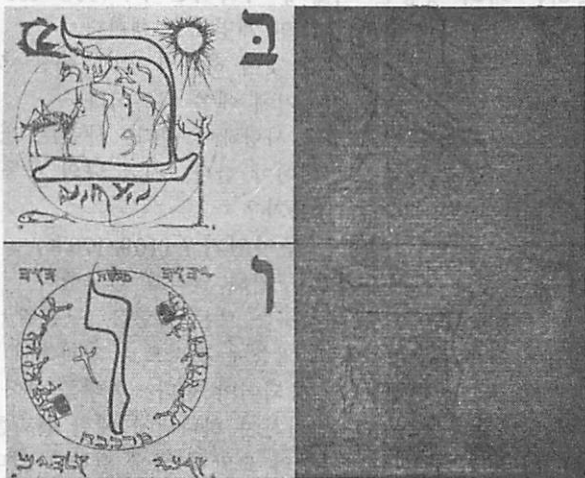
- (3)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체험하고 계속해서 그 결심을 지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도움으로 그를 붙드시는 것이다(참조, 요 14:16).

68. **Q** 시인은 방황 속에서 무엇을 간구했는가? (174-176절)

- A** (1) 그는 구원을 갈망하며 주의 규례로 자기가 처한 어려움에서 도움을 달라고 간구하였다.
- (2) 그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열정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175절).
- (3) 이처럼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중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갈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4) 그러므로 신자 된 우리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충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행 17:11, 12).

화보자료

알파벳 시편. 아래의 사진은 아브람 크롤의 작품으로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조형화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판화이다.



‘알파벳 시편’이란 위의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규칙성을 띠고 시의 매절이나 구의 첫 글자로 사용된 시편을 말한다. 본시는 이러한 알파벳 시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시이다.

제 120 편 고통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단락구분 1-2 불행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다 / 3-4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다 / 5-7 싸우기를 좋아하는 악한 이웃들을 향해 탄식하다

1 내가 환난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3 너 꾀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 할꼬
 4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5 매씩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6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7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회는 싸우려 하는도다

1. ㉠ 본시의 표제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시는 이와 같은 표제 아래 함께 배열된 열 다섯 편의 시편(120-134편) 중 첫 번째 시이다.
 (2) 이 시편들은 모두 동일한 필자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았으며, 동시대에 기록된 것도 역시 아니다.
 (3) 이 시편들 중에 다섯 편은 저자가 확실히 나타나는데 다윗이 그중 네 개의 시(122, 124, 131, 133편)를 썼고, 솔로몬이 한 개의 시(127편)를 썼다. 그러나 126편과 127편은 그보다 훨씬 뒤에 쓴 것으로 추측된다(Matthew Henry).
 (4) 이 시편들 중에 어떤 시편은 가정에 대하여(127, 128편) 또 어떤 것은(122, 134편) 대중 집회에 대하여, 또 어떤 시편은(124, 132편) 일상적인 일에 대하여 저작한 것이었다.
 (5) 그 구성면에서 보면, 시의 절정 부분에서는 앞에 나온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6) 예를 들면 120편에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 나는 그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할지라도...’. 121편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123편에는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로 반복 강조한다. 이 시편들의 형식이 대부분 이와 유사하다.

2. ㉡ 본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시는 도역이 사울에게 다윗을 비난하던 때(참조, 삼상 22:9, 10)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한다(John Calvin, Matthew Henry 등).
 (2) 왜냐하면 52편과 유사한 입장을 띠기 때문이다. 다윗은 여호와와의 회중에서 쫓겨 난 자 신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이 시를 썼던 것이다.
 (3)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

3. ㉢ 다윗은 환난 가운데 누구에게 부르짖었는가? (1절)

- ㉢ (1)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2) 그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상에게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69:6)께

부르짖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다윗이 여호와만 자기가 처한 환난에서 건져 주실 분으로 알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3) 그의 부르짖음은 아무 응답이 없이 끝나는 신세 타령이 아니었다.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부르짖은 데 대한 응답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다른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한다.
- (5) 이것은 인간의 교만과 무지의 소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의지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도움을 얻고자 하지만 혼자만의 신세 타령에만 그칠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지와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만군의 여호와께 모든 삶을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하겠다(참조, 잠3:5).

4. **㉠** 다윗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가? (2절)

- ㉠** (1) 그는 '거짓된 입술과 꾀사(詭詐)한 혀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 달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거짓된 입술과 꾀사한 혀'로 묘사하였다. 이같이 히브리인들은 특히 혀의 시험에 대해 세심했다(11:2;55:21;140:3;잠12:13, 18, 22;마12:34-37;약3:2-10).
- (3) 그는 자신에게 이런 사악한 자의 권세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권능의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였던 것이다.
- (4) 다윗처럼 뛰어난 인품을 지닌 사람도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대접을 받게 된다 해서 이상할 것이 있겠는가.
- (5)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악인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에 더욱 인내해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참조, 약1:4).

5. **㉡** 다윗은 '꾀사한 혀'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는가? (3, 4절)

- ㉡** (1) 그는 '장사(壯士)의 날카로운 살과 로렘나무 숯불'이 필요하다고 했다.
- (2) 다윗은 거짓된 혀가 어떠한 벌을 받을 것인지를 비유로 묘사하였는데 장사가 쓴 날카로운 화살처럼, 또한 맹렬하게 타들어가는 로렘나무 숯불처럼 거짓된 혀에 재앙이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 (3) 악한 자들이 악한 권세로 다윗을 해하려 했지만 그들이 말한 저주는 오히려 자기 머리에 돌아갔던 것이다.
- (4) 이처럼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악의 세력들에게 비방과 저주를 받지만 급기야는 그 비방과 저주가 악의 세력들에게 돌아갈 것이다(참조, 겔18:20).

6. **㉢** 다윗은 자신의 화가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했는가? (5절)

- ㉢** (1) 그는 자신이 '메섹에 유하고 계달의 장막 중에 거했기' 때문에 화(禍)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2) 여기에서 메섹 족속은 야벳의 후손(창10:2)을 가리키고 계달 족속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말한다(창25:13). 다윗이 원수들의 악독함을 더욱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 야만 민족의 이름을 원수들 대신 썼던 것이다.
- (3) 다윗이 그와 같이 악독한 원수들과 함께 살며(삼상18:2)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해 주었으나 오히려 그들은 그를 죽일려고 했다(참조, 삼상18:11). 그 때문에 다윗은 '내게 화로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이 죄악된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과 비방을 듣게 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5)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약속의 계명으로 위로받아야 하며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참조, 롬 4:20, 21).

7. **㉠** 다윗은 어떤 자와 함께 거하였다고 하였는가? (6절)

- ㉠** (1) 그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다'고 말했다.
 (2) '화평을 미워하는 자'란 여기에서 사울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윗이 그에게 평화를 제공하면 할수록 사울은 그에 대해 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삼상 18:11).
 (3) 그러나 다윗은 화평을 원하는 자였기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도 도망을 다녔지 저항하지 않았다(참조, 삼상 24:4-22).
 (4) 이와 같이 성도는 선으로서 악을 갚을 줄 아는 도량을 가져야 한다. 자기에게 해를 준다고 그에게 저주를 하거나 미워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오히려 자기가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해하려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자(참조, 마 10:13).

8. **㉠** 다윗은 원수가 무엇을 원한다고 했는가? (7절)

- ㉠** (1) 그는 화평을 원했지만 원수는 싸우려고 했었다.
 (2) 다윗은 사울과 화평하길 원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삼상 24:4-7; 26:6-12). 그러나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어 그를 죽이려 했다(삼상 18:28; 24:2; 26:2).
 (3)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끊임없는 관용을 배울 수 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기쁨을 주어야 하며, 그들이 선한 뜻을 갖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만일 온유함과 자비가 배척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보호자이심을 보여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각 우리를 위해 도움을 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처지를 아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참조, 빌 4:6).

본장의 요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1절).

제 121 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다

단락구분 1-2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시다 / 3-4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다 / 5-8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다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 ㉠ 본시의 내용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라.

- ㉠ (1) 본시는 120편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하나로써 지은 이가 밝혀지지 않은 시이며 여호와의 도움을 노래하고 있다.
(2) 시인은 산을 향해 눈을 들어 자신에게 임하는 도움을 보며 만족해 하고 있다. 즉 주무시지도 않고 관찰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있다.
(3)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얻도록 인도하며 격려해 준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보호 아래에 있게 되며, 이러한 일을 즐거움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2. ㉡ 시인은 도움을 기다리며 어디를 보았는가? (1절)

- ㉡ (1)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2)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산'을 의미한다(87:1; 125:2).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133:3).
(3) 시인은 그 장엄한 산을 향하여 볼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권능에 자신을 맡겼다.
(4) 이처럼 우리는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 놓여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며, 그분의 권능과 인자하심, 그분의 섭리와 은총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또한 그분에게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확신해야 한다(115:9).

3. ㉢ 시인은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였는가? (2절)

- ㉢ (1) 그는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왔다고 했다.
(2) 이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표현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다른 어떤 곳에도 미련(未練)을 두지 말아야 한다(참조, 5:3; 27:14; 130:7).

4. ㉣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 주신다고 하였는가? (3, 4절)

- A** (1)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 주신다고 했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악의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상 감찰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참조, 잠 15:3).
5. **Q** 시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는가? (5절)
- A** (1) 그는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들이 되실' 만큼 성도들을 보호하신다고 말했다.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버리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그림자가 되시기로 약속하신다. 그는 결코 멀리 있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우편에서 도움을 허락하신다. 여기서 우편은 든든한 보호를 의미한다.
 (3) 또한 이 귀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하려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빌 2:6)을 볼 수 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이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을 주시기 위해 사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신다(요 14:16, 26).
6. **Q**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는 묘사를 어떻게 나타내었는가? (6절)
- A** (1)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다'라고 묘사했다.
 (2) 하나님은 저희를 '밤낮으로' (사 27:3)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태양의 열로부터 막아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사 저희를 인도하셨다(출 13:21, 22).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4)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사랑하시어 악의 세력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참조, 145:20).
7. **Q** 시인은 여호와께서 성도를 어떻게 대하셨다고 했는가? (7절)
- A** (1) 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신다고 했다.
 (2)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일거수 일투족(一舉手一投足)을 다 감찰하시며 성도들이 환난에 빠져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 주신다.
 (3)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악으로부터라도 지켜 주실 것이다. 악은 여러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를 취하건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고 정결하며 거룩하게 지켜 주신다(참조, 37:28).
8. **Q** 여호와께서는 성도를 언제까지 지키시는가? (8절)
- A** (1) 시인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다.
 (2) 이 표현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누리게 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 28:6)는 축복으로부터 왔음이 분명하다.
 (3) 이것은 시적 표현으로 여호와의 보호, 인도, 축복이 경건한 자의 모든 행위와 매일의 생활에 임하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4) 하나님은 온 인간을 구원하시며 인간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적 필요에도 실제로 관제하신다(참조, 왕상 17:8-16).
 (5) 하나님은 그의 독생 성자와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셨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구원의 참의미는 앞으로 올 영생에 대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 122 편 희망의 노래

단락구분 1-2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 3-5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 동경하다 / 6-9 예루살렘을 축복하다

1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2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3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데도다
 5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8 내가 내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1. ㉠ 본시의 저자와 사용된 곳을 설명하라.

- ㉠ (1)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윗이 기록한 시이다.
 (2)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다룬 것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처음 선택되었기 때문이다(삼하 5:11). 예루살렘이 전에는 여부스 족속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수 15:8) 거룩한 도성으로서 백성들이 새로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다.
 (3)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복음의 교회, 즉 '위에서부터 내려 온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2. ㉠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누가 기뻐했는가? (1절)

- ㉠ (1) 다윗이 기뻐하였다.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소가 언젠가는 확실하고 안정된 자리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나(참조, 신 12:10, 11) 모세 때로부터 천 년이 훨씬 지나도록 언약궤는 마치 순례자들처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다(삼하 7:6).
 (3) 마침내 다윗에게 시온 산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곳ियो,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할 곳으로 계시되었다(참조, 삼하 7:1-17). 이제 다윗은 이 계시를 큰 기쁨으로 받아서 온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기뻐하였던 것이다(참조, 삼하 7:10).
 (4)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숙한 경배를 드리는 곳으로 시온 산을 택했다는 말씀에 온 백성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힘으로 연합하여 일한다면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참조, 행 2:43-47).

3. ㉠ '우리의 발' 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하나님의 성소가 예전에는 거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지만(삼하 7:6)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예루살렘에 두심으로 모두 성도들이 한결같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2) 132:14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원한 상징의 처소로 예루살렘의 시온 산이 지칭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 약속에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이곳저곳

으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졌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면 되었던 것이다.

- (3) 이 말씀은 완성된 성전을 의미(요 2:21)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킨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골 2:9) 우리의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시사(사 7:14) 우리 가운데 거하시므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셨다(요 1:14).
- (4)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 (5)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신 12:11)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참조, 히 4:16).
- (6)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요 사랑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길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기뻐해야 하며 또한 그 길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참조, 요 18:21-23).

4. **Q** 다윗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건설되었다고 말하였는가? (3절)

A (1) 그는 예루살렘이 '조밀(稠密)한 성읍과 같이 건설' 되었다고 했다.

(2) 이 말은 옛날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만 오히려 다른 나라의 성읍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므로 훌륭한 질서와 거룩한 통치를 이루었다는 뜻을 포함한다.

(3) 이처럼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건조하고 웃음이 없으며 화평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느꼈으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참조, 행 6:4, 5).

5. **Q** 다윗은 여호와의 지파들이 무엇하러 예루살렘 성전, 즉 시온 산에 올라갔다고 했는가? (4절)

A (1) 그는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2) 여기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는 말을 써서 모든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들의 의사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3) 특히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대 절기(무교절, 초막절, 칠칠절)로서 여호와 앞에 모여 즐기는 날이었다(참조, 출 23:17; 신 16:16).

(4) 이날을 택하여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다윗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라는 말을 덧붙혔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있고 사모하는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해야 하겠다.

(6) 지금 우리는 예배의 원 목적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7) 이것은 주의 해야 할 일이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이지 복받는 과정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기다리신다(참조, 사 1:2-17).

6. **Q**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判斷)의 보좌'를 어디에다 두셨다고 했는가? (5절)

A (1) 다윗은 자기의 집안에 '판단의 보좌'를 두었다고 했다.

(2) 여기에서 '판단의 보좌'란 왕권을 뜻하는 말이다(참조, 대하 19:8). 그러므로 본질의

뜻은 다윗의 가문에 세워진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자기 열조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사 11:10).
- (4) 이것은 성도들에게 오직 다윗의 보호와 통치 아래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다.
- (5) 좀더 깊이 설명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참조, 롬 3:23-25).
- (6) 이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또한 그 왕권 아래에 사는 자 역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참조, 롬 3:24).

7. **㉠ 어떤 자가 형통하게 되는가? (6절)**

- ㉠** (1)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며,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
- (2) 다윗은 이러한 말로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 (3)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를 확장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4)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심을 때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형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참조, 마 6:33).

8. **㉠ 다윗은 어디에 평강과 형통이 있기를 원했는가? (7절)**

- ㉠** (1) 성안과 궁중에 평강과 형통이 있기를 원했다.
- (2) 다윗은 예루살렘이 형통하고 번영하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다. 또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예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3) 특히 다윗은 '성'이라는 말을 비유로 사용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강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 (4)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땅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힘써 간구해야 한다(참조, 마 28:19, 20).

9. **㉠ 다윗은 누구를 위하여 평강이 있기를 바랐는가? (8절)**

- ㉠** (1) 다윗은 자기의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평강을 빌었다.
- (2)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기 때문이다(대상 29:3).
- (3) 특히 그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구와 형제로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화평을 구했던 것이다.
- (4) 이것 역시 현대 교회를 향한 다윗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교회는 정착 있어야만 되는 사랑이 식어가고 도리어 질투와 반목(反目)이 성행하고 있다.
- (5) 우리는 잊혀져 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살려서 형제간에 사랑으로 신뢰하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다(참조, 요일 2:10;3, 14).

10. **㉠ 다윗은 무엇을 위하여 성도의 복을 구한다고 했는가? (9절)**

- ㉠** (1)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도의 복을 구한다고 했다.
- (2) 그가 이러한 관심을 보인 것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계속 존속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의 구원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번영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참조, 골 1:24-29).

제 123 편 멸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단락구분 1-2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다 / 3-4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다

1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
하나이다
2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랍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

다리나이다
3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
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
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1. ㉠ 본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시에는 어려운 핍박과 압박 속에서 고통하는 시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
태는 느2:19의 말씀과 비교가 된다.
(2)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주께로 나아갔다.
(3) 특히 시인은 이러한 묘사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단수로 시작하여 복수로 끝을 맺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당한 수난의 감정을 모두에게 이입(移入)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법이다.
(4) 이 시인이 고난 중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
중에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5)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시련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참조, 벰전 1:7).

2. ㉠ 시인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였는가? (1절)

- ㉠ (1) 그는 '하늘에 계신 주'께 도움을 구했다.
(2) 여기에서 시인이 '하늘에 계신 주'라고 명확한 칭호를 쓰고 있는 까닭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 말은 땅 위에서 아무런 소망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시켜 준다.
(3)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능의 팔을
내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해야 하며 우리의 전생애
를 그분께 의탁해야 한다(37:5,6).

3. ㉠ 시인은 여호와를 바라며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묘사했는 가? (2절)

- ㉠ (1) 그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主母)의 손을 바랍' 같다고 묘
사하였다.
(2) 옛날에 종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욕적인 대접을 받았으며 책망을 들어도 감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미미한 존재였다.
(3)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의 주인에게 보호를 간청하는 것뿐이었다.

- (4)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세상 악에 대해 항거할 힘도 용기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의 안전은 전적으로 주인되신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 있다.
- (5)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보호가 되셔서 그의 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세상적인 모든 힘을 빼앗아 가신 것도 오직 당신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참조, 마 19:21).

4. **㉠ 시인은 여호와께 반복하여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3절)**

- ㉠** (1) 시인은 성도들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거듭 반복하여 긍휼을 간구하였다.
- (2) 시인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반복하여 기도한 것은 뜨겁고 열렬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시로써 자기들이 원수의 멸시 아래에서 처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하고 있다.
- (3) 성도들이 아무 이유없이 악한 세력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그 때문에 시인은 마치 환난이 극에 달한 것처럼 탄식했던 것이다.
- (4) 이처럼 우리는 인간들에게서 거의 자비와 긍휼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이 인자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잔혹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 (5)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께 긍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이외의 것에서 구원과 평안을 간구할 필요가 없다(참조, 요 3:16).

5. **㉠ 어떤 자들이 성도를 조소하고 멸시하였는가? (4절)**

- ㉠** (1) '평안한 자'가 성도를 조소(嘲笑)하고 '교만한 자'가 멸시하였다.
- (2) 여기에서 '평안한 자'란 부자를 가리킨다. 이런 부자와 교만한 자들이 성도들을 업신 여겼던 것이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여 내려다 보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다.
- (3)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들의 영광과 권세로 눈이 가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무관심해졌기 때문이다.
- (4) 우리는 이들의 조롱과 멸시에 믿음이 약하여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들은 세상에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힘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 (5) 앞서 간 믿음의 선배들 역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살아 나갔다(참조, 히 12:1, 2).
- (6)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는 것은 이런 선배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영화와 족히 비교할 수 없다(참조, 롬 8:18).

본장의 요절

'증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主母)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절).

제 124 편 구원자이신 여호와

단락구분 1-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다 / 6-7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찬양하다 / 8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다

-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 2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 3 그 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것이며
- 4 그 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 5 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

이라 할 것이로다

- 6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썩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 7 우리 혼이 새가 사냥군의 울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 8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 ㉠ 본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다윗이 쓴 시로서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 (2) 특히 본시는 그의 겸손함이 잘 나타나 있는데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데 힘썼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3)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업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2.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정을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했는가? (1절)

- ㉠ (1) 그들은 만약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2)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에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참조, 유 1:24, 25).

3. ㉠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2, 3절)

- ㉠ (1) 원수들의 무서운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켰을 것이다.
- (2) 시인이 위험을 불에 비유한 것은 시가서의 일반적인 표현이다(56:2; 57:3; 잠 1:12; 애 2:2, 5, 8).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갑작스럽게 닥친 위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도피처(참조, 민 35:6, 11-15)이며, 방패요(창 15:1), 산성(31:4)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넘보는 악의 세력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에서도 굴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겠다(참조, 신 4:1).

4. ㉠ 다윗은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

있을 것이라고 묘사했는가? (4, 5절)

- Ⓐ (1) 그는 '그때 물이 엄몰하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 (2) 특히 다윗은 점층법(漸層法)을 써 '물'에서 '시내'로 또한 거기에서 '넘치는 물'로 그 상태를 확대하여 읽는 이들로 하여금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하여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 (3) 다윗은 이와 같이 점차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수차례 체험했으나(참조, 삼상 19:10-12; 20:3),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구해 주셨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자기의 체험에서 우리나라의 것이었다.
- (4)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자신의 구원을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5. Ⓒ 다윗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는가? (6절)

- Ⓐ (1) 그는 이스라엘을 원수의 나라에게 먹히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 (2) 이 말은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능가할 권세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이 원수의 나라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파멸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냥 우리를 악의 세력 가운데에 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작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참조, 느 9:27).

6. Ⓒ 다윗은 성도의 혼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했는가? (7절)

- Ⓐ (1) 성도의 혼이 사냥군의 울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악의 간교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했다.
- (2) 악의 세력들은 간교하며 악독하여서 성도가 쉽게 빠져 들어갈 수 있는 덫을 놓고 기다린다.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잠시 동안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락을 허물어뜨리신다.
- (3) 이와 같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세력들에게 핍박받고 조롱거리가 되며 저주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그런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광의 대열에 포함시켜 주신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잊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다(사 26:16).

7. Ⓒ 다윗은 성도의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는가? (8절)

- Ⓐ (1) 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성도의 도움이 있다고 했다.
- (2)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된다는 확실한 소망을 붙여넣어 주려고 이 말을 했던 것이다.
- (3) 특히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말을 덧붙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으뜸가는 위치에 올려 놓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런 권능은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천지 창조에서 나타내신 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 그분을 의지해야 하며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창 26:5; 신 30:8).

제 125 편 의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단락구분 1-2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다 / 3 악인들은 의로운 자를 해하지 못한다 / 4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응답하시다 / 5 악인에게 반드시 화가 있다

1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3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

로다

4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5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 Q 본시를 통하여 시인이 나타내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 A (1) 본시는 저자가 불명확한 시이지만 그 의도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비록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
- (2) 시인은 특히 교회를 예루살렘 성에 비겨 표현함으로써 택한 백성에게 약속된 평안이 성도들 각자에게도 임하는 것임을 믿도록 격려하고 있다.
- (3) 시인이 이처럼 예루살렘을 교회의 상징으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성소와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대상 22:19).
- (4)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을 징계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의인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하겠다(참조, 롬 5:3).

2. Q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1절)

- A (1) 그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을 것이다'고 했다.
- (2) 이 말은 세상의 변화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 (3) 그러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아무 연단없이 살 수 있도록 허용되지는 않았다(참조, 빌 1:29).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성도들의 안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이 성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지는 못한다(고전 10:13).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함이 없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하겠다(참조, 잠 1:7,8).

3. Q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제까지 지켜 주신다고 하였는가? (2절)

- A (1) 그는 하나님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신다고 하였다.
- (2) 이 말은 산들이 예루살렘 주위를 두르고 있어 마치 성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림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감싸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뜻이다.

(3)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보호는 지금부터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어떠한 악의 권세도 근본적으로 그들을 간섭하게 허락치 않을 것이다(참조, 욥 2:5).

4. **㉠**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3점)

- ㉠** (1)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2)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시험하시지 않으신다(고전 10:13). 악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가한다.
 (3)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까지 좌우하지는 못한다. 악인의 권세가 성도들에게 미칠 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참조, 23:4, 5).
 (4)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의인들이 시험에 빠져 죄악에 손을 댈 수도 있기 때문이다(참조, 73:13, 14).
 (5)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쉽게 역경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참조, 제 22:11).

5. **㉡** 시인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여 달라고 간구하는가? (4점)

- ㉡** (1) 그는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여 달라고 간구하였다.
 (2) 정직한 사람은 이처럼 그의 정직함에 호소할 권리를 가진다(사 26:7). 그러나 그 호소는 인간의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참조, 엡 2:8).
 (3) 그러므로 ‘선인에게 선을 행하소서’라는 간구는 모든 전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4) 그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참조, 잠 12:2).

6. **㉢** 여호와께서 어떤 자를 죄악 중에 거하는 자와 함께 다니시게 만드는가? (5점)

- ㉢** (1) 여호와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신다.’
 (2) 여기에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란 ‘돌아서게 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사하다고 여겨서 자기들이 마치 가장 거룩한 사람들인 양 주장하는 위선자를 가리킨다.
 (3) 이런 위선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자신들의 허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잠 2:22).

본장의 요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1절).



제 126 편 고난과 환희

단락구분 1-3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 / 4 회복을 구하다 / 5-6 고통 끝에 낙(樂)이 오다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

니 우리는 기쁘도다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 Q 본시의 저자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라.

- A (1) 본시는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한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주로 언급되었다. 이런 사실로 보아 본시는 아마도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귀환 때 기록되었고 저자는 에스라로 여겨진다(Matthew Henry).
- (2) 비록 바벨론이 여기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바벨론 포로가 가장 주목할 만한 포로 시기였고 귀환 역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 특히 이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 사건의 예표(豫表)가 되었다.
- (3) 그러므로 본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다.

2. Q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어떠한다고 했는가? (1절)

- A (1)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다.
- (2) 시인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건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꿈꾸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 (4)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경이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 있고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잠 28:5).

3. Q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허락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2절)

- A (1)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 (2) 그들이 오랫동안 타국에서 당한 압박과 고통을 떨쳐버리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넘쳤던 것이었다.
- (3)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압박 속에서 전혀 내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감복했고 더 큰 기쁨을 느꼈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성도들의 고통을 먼저 아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손을 허락하신다. 다만 그 시간이 짧고 긴 것 외에

는 차이가 없다.

(5)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써 ‘그때’를 기다려야 하겠다(참조, 렘전 5:6).

4. ㉠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였는가? (2절)

- ㉠ (1)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大事)를 행하셨다’고 하였다.
- (2)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환을 얼마나 기다리고 바랐는가를 직감하게 한다.
- (3) 그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그들의 귀환을 보고 이 일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게 만드신다(참조, 단 6:26-28).

5. ㉠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 (2) 이 말은 앞절(2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고백을 확정하는 의미로 한 말이다.
- (3)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로써 모든 백성을 열방으로 흩으셨지만(렘 25:6-10), 이제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귀환을 허락하셨던 것이다(참조, 렘 35:15).
- (4) 이제 이러한 모든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넘쳤다. 그들은 이미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한층 더 할 것이다(참조, 렘 25:5).
- (5)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압박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주신 그 구원을 기뻐해야 하며 찬양으로 화답해야 하겠다(18:46).

6. ㉠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길 바랬는가? (4절)

- ㉠ (1)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달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남방’은 광야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의미를 지닌다.
- (3) 이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모여 흐르듯이 남아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모여 돌아 오기를 원한다는 바램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인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원했던 것이다.
- ㉠ (4) 이와 같이 우리도 ‘나만 구원받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고난과 죄의 속박 중에 있는 형제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참조, 요일 5:16).

7. ㉠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결과를 가지는가? (5절)

- ㉠ (1) 그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 (2) 이와 같은 말은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격려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렘 25:5-14; 29:12-14).
- (3) 오랜 기간(7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히 큰 고민과 고통을 더해 주었다(참조, 렘 15:10, 11). 그때 그들의 모습은 기근 중에도 어려움을 참으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유사하였다.
- (4)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즐거운 추수기와 같이 기쁨이 넘쳐 흘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풍년 수확을 거두어 들인 것 같은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 (5) 포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지금도 눈물의

씨를 뿌린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앞으로 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더하여질 것이다(참조, 롬8:18).

8. Q 어떤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가? (6절)

A (1)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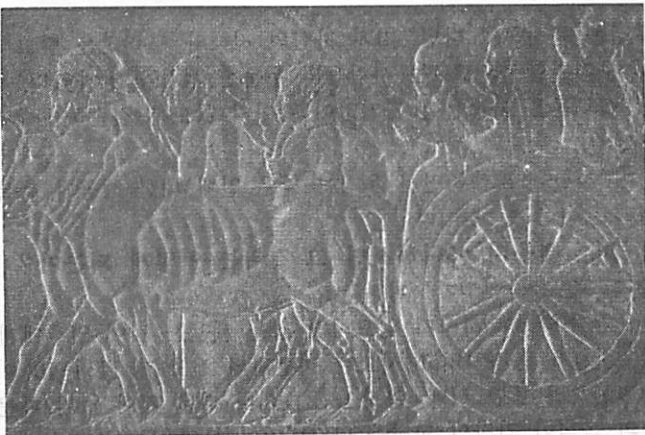
(2)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오랫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었지만 드디어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욥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슬픔의 씨앗을 뿌린 다음 기쁨의 수확을 경험했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은 가장 곤궁한 때에 씨를 뿌려 그들의 마음속에 추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4) 그러므로 우리들이 현재 당하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야 한다(참조, 히6:13-17).

화보자료

귀환하는 이스라엘. 아래의 사진은 앗술바니팔 왕궁에 새겨져 있는 부조로서 먼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인 듯하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모습도 아마도 위의 사진과 같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B.C. 538년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귀환을 허용케 하셨다(스 1:1-4).

제 127 편 헛된 수고와 하나님의 축복

단락구분 1-2 인간의 노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 3-5 자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 업이다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2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증의 화살 같으니

5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1. ㉠ 본시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 ㉠ (1) 본시의 저자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다. 그는 본시에서 자기가 체험한 사실과 알고 있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
- (2)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생활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증하기 위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 (3) 첫째, 사람들은 형통한 일이 생기면 곧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것을 전적으로 자신이 한 것으로 돌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 (4) 둘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만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우둔한 생각을 말하였다.
- (5) 그 때문에 솔로몬은 사람들이 근거없이 속이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 (6) 그러므로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맑은 일에 대한 성공과 축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할 것이다.

2. ㉡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절)

- ㉡ (1)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
- (2) 여호와께서 건물을 축복하지 않으니면 집을 세우는 것이 인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은 하늘을 공격하려고 시도한 바벨탑의 건축(창 11:1-10)이나 저주 아래에서 여리고를 건설하려 했던 허엘(왕상 16:34)이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 (3) 만일 건축의 목적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거나 불의(不義) 가운데 지어진 건축은(참조, 함 2:11, 12)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물어뜨리실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뜻에 맞추어 일을 하기 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일을 행해야 한다(마 7:21).

3. ㉢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떤 결과가 미치는가?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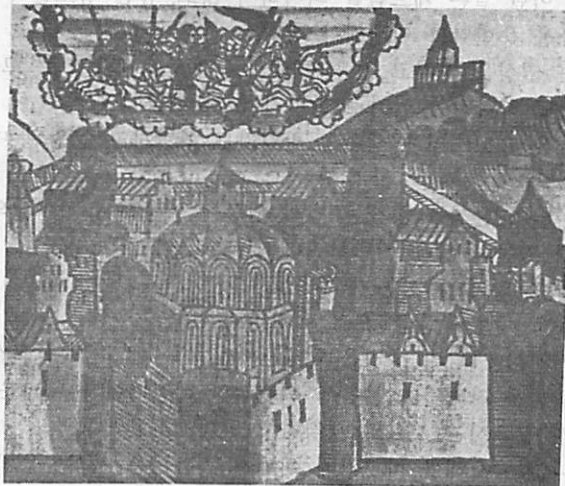
- ㉢ (1) 파수군이 아무리 깨어서 지킨다고 할지라도 허사로 돌아간다.
- (2) 인간이 아무리 완벽을 기하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사실은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인간은 필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

- (3)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과학 문명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오히려 신봉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 (4)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가. 오늘날 인간은 지나친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핵전쟁의 위협과 자아의 소외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고도로 발달한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인간성의 상실을 안타까와 하고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참된 진리이시며 참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해야 한다.
4. **㉠** 솔로몬은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절)
- ㉠** (1)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했다.
- (2) 여기에서 솔로몬은 재물을 모으는 데 두드러진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두 가지 방법, 즉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다.
- (3) 그러나 그렇게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눅 12:13-21). 그 때문에 솔로몬은 적은 비용으로 살아가든지 열심히 사업을 이루어가든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 (4) 그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분의 뜻을 좇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참조, 마 6:33).
- (5)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세상적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참조, 마 6:33).
5. **㉠**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2절)
- ㉠** (1)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 (2) 여기에서 '잠'이란 말은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고, 참된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은 평화로움을 뜻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 (3) 불신자들은 큰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불필요한 관심으로 고통이 끊일 줄 모른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 (4) 반면에 성도들은 수고스러운 생활을 할지라도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해낸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자녀들에게 평안의 잠을 허락하신다(참조, 렘 31:25, 26).
6. **㉠** 솔로몬은 자식을 어떻게 여겼는가? (3절)
- ㉠** (1) '여호와와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여겼다.
- (2) 솔로몬은 여기에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 (3)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본능에 의해서만 태어나며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4) 이러한 터무니없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식들을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라 부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부르고 있다.
- (5) 특히 '상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카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의미하고 있음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다(창 15:1; 대하 15:7; 사 40:10).
- (6)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식들이 본능에 의해서만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다.
7. **㉠** 솔로몬은 '젊은 자의 자식'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4절)
- ㉠** (1) 그는 '젊은 자의 자식'을 '장사(壯士)의 수중(手中)의 화살' 같다고 했다.

- (2) 그 말의 의미는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그들의 연로한 부모를 보호함에 있어서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은 영향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 (3) 여기에서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이란 일찍 낳은 자식을 말하기 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뛰어난 성품과 미덕으로 교육받으며 자란 자녀를 말한다. 이런 자는 부모의 자랑거리이며 모든 자에게 기쁨을 준다(참조, 잠 17:6).
8. **Q**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5절)
- A** (1)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 할 것이다.
- (2) 앞절(4절)에서 '화살'은 젊을 때 자녀, 즉 의롭고 순결한 자녀를 말한다고 이미 말했다(참조, Q7). 이러한 자녀가 많으면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 (3) 솔로몬은 여기서 의로운 자녀들은 악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공의를 행하며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살며, 흠없는 생활을 하도록 양육하라는 권유를 포함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참조, 딤펴 4:6).

화보자료

성을 지키는 여호와와의 군대. 아래의 사진은 그뤼닝거가 발행한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삽화로서 외경 마카비하 5:2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본시의 저자는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스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1절)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다.

제 128 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단락구분 1 복있는 자 / 2 자기가 한 수고대로 형통하게 되다 / 3 가정의 축복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다 / 5-6 영원한 복을 누리다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 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도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6 네 자식의 자식을 붙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도

1. ㉠ 본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1) 본시는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로서 127편과 같이 가족들을 위한 시편이다.

(2) 본시에서는 가정을 안락하게 해줄 축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복종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굳건한 신념으로 이 시편을 노래해야 한다. 신앙과 경건은 번영과 가장 밀접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으로 격려해야 할 것이다.

2. ㉠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1절)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2) 여기에서 시인은 참종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도무지 이 말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말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이 축복은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기 위해서는 장차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다음에 이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5)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불러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찾아볼 수 없다.

(6) 우리가 이 축복을 다른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본질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참조, 112:1; 115:13).

3. ㉠ 시인은 성도가 어떻게 할 때에 복되다고 했는가? (2절)

㉠ (1)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을 때에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했다.

(2) 여기에서 시인은 앞절(1절)에서 말한 교훈을 확증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인 안일함, 명예, 또한 부(富)에 대해 성도들은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은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 (3) 인간은 행복이라고 말할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와 부와 명예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순간적인 것뿐이고 더 좋은 것을 찾기에 급급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은 한이 없다.
- (4) 이러한 생활에 반하여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적절하게 살 수 있다는 데 만족을 누리라고 말한다(참조, 34:10).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생활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어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멀리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 (6)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허락하실 것이다(참조, 딤편 4:8).

4. **㉠**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현숙한 아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2) 중동 지방에서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무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건조한 지방이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 주민들에게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 (3) 또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달리 연하고 약하여서 다른 곳에 의지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포도나무를 아내에게 빗대어 말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현숙한 아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참조, 딤편 2:5).
- (4) 더우기 ‘결실한 포도나무’로 묘사되었으니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자기의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5. **㉠**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들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3절)

- ㉠** (1)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였다.
- (2) 이것은 장성한 감람나무로부터 나온 활기찬 새 가지를 말한다.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무럭무럭 성장해 간다는 말이다.
- (3) 인간의 삶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들을 일깨우고 성장시키며 이끌어 주신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참조, 76:11).

6. **㉠** 복을 얻을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절)

- ㉠** (1)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 (2)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다음 본절에서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 즉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참조, 딤편 4:8).

7. **㉠**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디에서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5절)

- ㉠** (1) ‘시온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2)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출 20:6).
- (3)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다. 이 축복은 협소한 의미의 인간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全) 포괄적인 축복, 즉 구원의 차원을 말한다(참조, 행 16:31).

8. **Q** 시인이 '예루살렘의 복'에 대해 언급한 목적은 무엇인가? (5절)

- A** (1)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성도들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행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인은 이 말을 언급한 것이다(Calvin).
- (2)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는 데 있어야 한다(참조, 행 1:8).
- (3)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유익을 앞세우기 보다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到來)하기를 항상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겠다(참조, 계 22:20).

9. **Q** '자식의 자식을 본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절)

- A** (1) 당대에서는 장수하게 되며, 후손은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지닌다.
- (2) 이것은 욥에게 허락하셨던 축복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욥 42:16).
- (3)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축복에 축복을 더하게 된다(참조, 61:5).

연구자료

구약에 나타난 복(福)의 의미. 성경에 특히 구약에 나타난 복(히, 아슈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행복'이라는 뜻이다. 즉 인간의 번영과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며 행·불행은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친다(1절). 이러한 복이 구약에서는 장수, 많은 자녀, 현숙한 아내, 많은 재산,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신임 등으로 표현되었다(창 24:35; 신 28:1-14; 왕상 3:14). 그러나 신약에서는 복의 개념이 영적인 의미로 승화되어 구원, 믿음 가운데 갖는 기쁨과 평안,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마 5:3-11; 행 3:25; 벰전 3:14). 이 같은 차이점이 복의 개념이 이원적(二元的)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구약 시대 사람들의 비교적 낮은 영적 수준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시적(可觀的)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을 것이다. 단지 그 같은 축복의 전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4절) 단서를 붙임으로써 신앙과 축복의 연관성을 주지(周知)시켰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축복관, 즉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라는 저차원적이며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악한 세상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가난하게 살 경우가 많다(참조, 눅 6:20, 21; 벰전 3:14; 4:14).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데에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29 편 시온을 박해하던 자의 최후

단락구분 1-2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다 / 3-4 여호와와 의로우시다 / 5 대적들이 물러가기를 원하다 / 6-7 대적들은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다 / 8 축복을 기원하다

-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 2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 3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같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도다
- 4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 5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 물러갈지이다
- 6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 7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 8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와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1. ㉠ 본시의 저작 시기와 내용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시는 저자가 불명확한 시로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저작되었다고 본다.
- (2)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이웃 족속들에게 박해를 당하여 안티오쿠스 4세 (Antiochus IV, B. C. 175-164)의 폭정 밑에서 거의 기진 맥진해 있을 때였다.
- (3) 이러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시인은 본시를 썼던 것이었다.
- (4) 본시는 회고(1-4절)와 예견(5-8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고(回顧)의 장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원수들에 의하여 압박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구원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 (5) 예견(豫見)의 장면에서는 때가 차서 원수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자신들의 비행에 대한 보응으로 고통당함을 보여 주고 있다.

2. ㉠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란 의미는 무엇인가? (1, 2절)

- ㉠ (1)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시작,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을 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거의 모든 일생 동안 고통스러운 전쟁에 시달려야 했던 때를 가리킨다.
- (2)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취할 때까지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다윗의 통치 시대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쉴 만한 때가 없었다.
- (3) 다윗의 통치 기간에는 잠깐 동안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는 모든 소망이 사라질 만큼 비참한 생활을 했어야만 했다.
- (4)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후에도 역시 그런 고통 속에 있어야만 했다. 시인은 이런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고 말했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도 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고, 핍박 가운데 있어야 했다. 또한 일제하에 당한 신사 참배 문제와 공산 치하에서 당한 종교 탄압을 생각해 보라.

3. Q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란 말은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가? (2절)

- A (1)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못한 사실을 가리킨다.
- (2) 앗수르나 바벨론 압제에서 이스라엘은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계속해서 명백을 이어내려 왔다. 이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섭리였다(렘 31:31-34).
- (3) 우리 나라에서 당한 기독교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였다. 외부의 술한 압박과 핍박 아래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급기야는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前哨基地) 역할을 하게 되었다.

4. Q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3절)

- A (1) '발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고 시인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묘사했다.
- (2) 이것은 포로 생활 속에 당한 고통을 강한 은유법(隱喩法)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툽질과 썩레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삼하 12:31), 또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암 1:3)과 같은 내용이다.
- (3)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등에다 발을 일구듯한 심한 고통과 핍박 아래 있어야만 했었다(참조, 애 2:11).
- (4)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참조, 렘 25:5).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자들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가하신다(참조, 왕상 8:37-40).

5. Q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4절)

- A (1)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의 줄'을 끊으신다.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등에 발을 가는 그 악한 자의 썩레질을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즉 줄을 끊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사실을 상징하고 있다.
- (3) 또한 일찌기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을 끊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민족적인 체험을 나타낸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 (4)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전 10:13). 그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환난의 줄로 매어 둘 수 있으나, 그것이 옳지 못함을 보신 하나님은 악인에 의해서 마련된 '그 줄을' 즉시 끊어 주신다(참조, 롬 8:31).

6. Q 시인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5절)

- A (1) 그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기를' 원했다.
- (2) 시온은 하나님이 축복한 곳이다(참조, 84:5).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한 곳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함이나 마찬가지로이다(참조, 요 15:18). 그러므로 이런 자에게 수치가 임하게 된다(71:13).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행 20:28)를 비방하는 자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참조, 사 60:14).

7. Q 시온을 멸시하는 자는 무엇과 같은가? (6절)

- A (1) 그는 지붕의 풀과 같아서 자라기도 전에 마르고 만다.
- (2) 지붕 위에 나는 풀은 그 뿌리를 깊이 뺏어 자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려쪼이는 햇볕에는 순식간에 시들어 말라버리게 된다.

- (3) 그러므로 우리들의 원수가 번성하고 왕성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비유를 기억해야 하겠다. 지붕에서 자라는 풀은 비록 높이 있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수들의 교만도 올라가면 갈수록 쉽게 시들고 만다(참조, 잠 24:19, 20).

8. **㉠** 사람들은 '지붕의 풀'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7절)

- ㉠** (1) '이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기'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취급한다.
 (2) 이 말의 의미는 지붕의 풀은 별 만한 가치도 없어서 그것을 묶어 저장하고 간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3)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로는 비참하다. 그들은 정의에 의해 패배하게 되고, 그들의 노력과 계획은 자기의 수치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참조, 10:5).

9. **㉠** 시인은 시온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되기를 바랬는가? (8절)

- ㉠** (1) 여호와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시인은 지붕의 풀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거둔 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말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다.
 (2)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하는 자에게 '여호와와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혹은 '우리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고 문안한다(참조, 룻 2:4). 이것은 인사로 행할 만큼 당연한 것이다.
 (3) 그렇지만 시인은 이런 당연한 축복마저도 시온을 멸시하는 자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었다.
 (4)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을 멸시하고 포로로 잡아가기까지 했던 앗수르나 바벨론은 망해 버리고 말았다. 비록 그들이 잠시 흥하는 듯했지만 지도상에 찾아볼 수도 없는 미미한 존재로 되어 버리고 말았다(딤후 2:8).

본장의 요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5, 6절).

제 130 편 여호와와의 도움을 기다리다

답라구분 1-2 하나님께 간구하다 / 3-4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다 / 5-6 하나님을 기다리다 / 7-8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

1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
이다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
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 하실진대 주
여 누가 서리이까
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5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6 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
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숫군의 아침을 기
다림보다 더하도다

7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
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8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
시리로다

1. ㉠ 본시가 지닌 내용상의 특성은 무엇인가?

- ㉠ (1) 이 시편은 개인적이거나 대중적인 관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 (2) 특히 이 시편은 일곱 개의 참회시(6, 23, 38, 51, 102, 130, 143편) 중의 하나이다. 1, 2절에서 시인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껴 여호와께 '간구한다. 이 간구에서 시인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한다(3, 4절).
- (3) 이러한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희망에서 나온 것이었다(5,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도움을 바래야 한다고 시인은 말한다(7, 8절).
- (4) 이런 내용에 대해 루터(M. Luther)는 본시를 바울 계통의 시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멸스러움, 구원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대하면서 올바른 구원관을 더욱 확실하게 세워야 하겠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하겠다.

2. ㉠ 시인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1절)

- ㉠ (1) 시인은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 (2) 성경에서 '깊은 곳' 또는 '깊은 수렁'은 육신이나 마음이 극심한 위험이나 재난에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참조, 69:2, 15).
- (3) 시인은 이 같은 자신의 처지를 느끼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마음에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 (4) 그러나 시인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으로써 자기가 빠져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위험과 슬픔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 (5)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참조, 애 3:55).

3. ㉠ 시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가? (2절)

- ㉠ (1)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다.
- (2)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실 줄로 확신하며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만약

시인이 하나님을 도움을 주실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신앙은 출발한다. 만약 도움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상태하에서 간구한다면 이것만큼 무익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4) 예수께서도 간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마 8:13, 21:22; 막 9:23).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참조, 막 11:24).

4. ㉠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3절)

㉠ (1)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2)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대로 인간을 대하신다면 세상 사람들 중 아무도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을 자가 없을 것이다.

(3) 비록 기도하는 사람은 시인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온 인류에게 해당된다. 그러므로 본질의 내용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은 처음 세대부터 마지막 세대까지 죄를 지은 자들이며 정죄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뜻을 지닌다.

(4) 아무리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정죄를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긍휼에 의탁해야 한다.

(5) 그러나 위선자들은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을 때 자기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을 다른 무리들 속에 뒤섞어 마치 자기의 죄가 가볍게 된 것처럼 생각한다.

(6) 그러나 시인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한다. 이처럼 뛰어난 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7) 우리가 이 교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을 진지하게 살피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영원한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참조, 롬 3:9, 10).

5. ㉠ ‘주를 경외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4절)

㉠ (1) ‘사유(赦宥)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 ‘사유한다’는 말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자극을 받으면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 그친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 자신의 죄를 사죄받기 위해서는 두려움 후에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한다.

(4) 본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도 죄인들로 하여금 확신 있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곧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을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5)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미천한 죄인들과 화목하시기 위하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는 지체 말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영접해야 하겠다(참조, 계 3:20-22).

6. ㉠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5절)

㉠ (1) 그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바라고’ 있었다.

(2) 시인은 ‘영혼’이라는 말을 써서 자신의 마음속으로 느끼는 믿음과 확신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질의 내용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통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겠다는 말이다.

(3) 특히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을 느끼는 것만이 참된 소망을

가질 증거를 제시해 준다는 내용이다.

- (4)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는다. 비록 이 세상의 고통이 극심하게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다(참조, 롬 4:20, 21).

7. **Q** 시인은 하나님을 촉급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6절)

- A** (1) 그는 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 (2) 즉 파숫군이 철야 근무를 하다가 지쳐서 아침을 심히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기다리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기다림을 강조하였다.
- (3) 이와 같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좀더 멀어졌으면 하고 생각할 것이다.
- (4) 현세의 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마 24:32, 33, 42-44).
- (5)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반가이 맞을 수 있도록 경건 생활과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 하겠다(참조, 계 22:20).

8. **Q** 시인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바라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A** (1)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다.
- (2)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에서 구속함을 받을 만한 곳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
- (3) 특히 시인은 이 구원을 '풍성한' 이라고 함으로써 성도들이 막다른 상황에까지 다다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방법들이 있음을 생각하여 자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참조, 사 55:1).
- (4)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좌절해서는 안 되며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다(참조, 히 2:18).

9. **Q**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가? (8절)

- A** (1)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신다'고 했다.
- (2) 7절에서 언급한 '풍성한 구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절에 묘사되어 있다. 그 구속은 다름 아닌 죄악에서의 구속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3) 물질적인 구속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이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은 보다 강하고 보다 분명한 데 있다. 그것은 인간의 환경에서도 아니요 인간의 위협에서도 아닌 바로 인간 자체에서의 구원인 것이다.
- (5) 이런 구원은 담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그 구원은 성취될 것이다(참조, 롬 10:9; 요일 4:15).

제 131 편 순수한 믿음

단락구분 1 높은 것이나 위대한 것을 바라지 않다 / 2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갖다 / 3 하나님을 바라다

1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

기를 쫓 뎨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쫓 뎨 아이와 같도다

3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 ㉠ 본시의 배경과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지은 겸손의 고백이다. 이것은 결코 다윗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을 모략하는 데 (삼상 22:7, 8) 대한 답변으로 지은 것이다.
- (2) 다윗은 본시에서 자기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스스로 복종하였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위임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 (3)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하겠다.

2. ㉠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다고 했는가? (1절)

- ㉠ (1) 그는 자신이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자기에겐 과분한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 (2) 여기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야망이나 교만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한 심정으로 복종해 온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 (3) 즉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무모한 일을 전혀 도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만 하려 한다는 뜻이다.
- (4)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통치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바른 통치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참조, 잠 8:15, 16).

3. ㉠ 다윗은 자기의 중심이 무엇과 같다고 했는가? (2절)

- ㉠ (1) 그는 자기의 중심이 쫓 뎨 아이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 (2) 다윗은 어미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했고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다루기 쉬울 정도로 겸손했다. 그는 어머니의 뜻에 따르는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다(참조, 삼상 30:6).
- (3)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비유로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을 가르치셨다(마 18:3).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생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다(참조, 롬 16:26, 27).

4. ㉠ 다윗이 이스라엘에 대해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며 살기를 원했다.
- (2)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처럼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믿음을 갖도록 권고했던 것이다.

- (3) 확고한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참조, 딤후 1:1-3).

화보자료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여인. 아래의 사진은 중동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자신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서 행복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만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품안에 거하는 것을 속박으로 여김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만다(참조, 마 23:37-39).

제 132 편 여호와와의 성전과 다윗

단락구분 1-5 다윗이 하나님의 진을 마련하기까지 경건 생활을 하다 / 6-10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에 임하실 것을 간구하다 / 11-18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다

1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2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4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5 여호와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6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7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밭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8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9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이다

10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쁨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11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12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3 여호와께서 사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다

15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16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임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17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쁨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18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 ㉠ 본시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본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명을 따라 지은 성전(대상 29:1)에 헌송하기 위해 저작한 것이다.

(2)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보호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기가 완성한 성전에 당신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였다(참조, 대하 6:41).

(3) 우리는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복음적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예표(豫表)인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겠다.

2. ㉠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하여 달라고 했는가? (1절)

㉠ (1) 그는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2) 여기에서 근심이란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었다는 데 대한 근심이였다(참조, 삼하 7:2).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을 주께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나타나야 한다.

(4) 물론 여기에서 교회를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외형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

스도를 중심한 공동체를 가리킨다.

- (5) 현대 교회는 교회가 지녀야 할 임무보다 너무 외관에만 정신을 쏟는 듯하다. 그들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며 교회는 그렇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6) 그러나 외형만 화려하게 지어 놓고 교회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기에 근심해야 하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참조, 행 1:8).

3. ㉠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誓願)을 하였는가? (2-5절)

- ㉠ (1) 그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잠자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금하기로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 (2) 이것은 문자대로 다윗이 행했다는 의미를 지니기 보다는 성전의 문제를 생각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 (3)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의 정확한 위치를 깨닫게 될 때까지 집에 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다.
- (4) 우리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관심이 앞서야 한다. 이러한 관심은 바로 헌신으로서 나타나야 한다(참조, 고후 5:8).

4. ㉡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6절)

- ㉡ (1) 그들은 처음에 에브라다에 있는 줄 알았지만 '나무발'에서 찾았다.
- (2)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찾기에 갈급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궤의 분실을 슬퍼했기 때문이다(삼상 7:2). 그때 그들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다. 여기에서 '에브라다'는 원래 베들레헴을 가리키나, 내용상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실로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참조, 삼상 4:3-11).
- (3) 그러나 법궤는 거기에 없었다. 그들이 법궤를 찾은 곳은 '나무발'이었다. 즉 그곳은 '나무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기랴여아림'이었다.
- (4) 거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통치 초기에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 왔다(대상 13:6).
- (5)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참조, 119:105).

5.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다고 했는가? (7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겠다고 하였다.
- (2) 발등상은 법궤의 덮개를 의미하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솔로몬이 발등상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교만하거나 불경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친교를 허락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경건한 사귀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 (4)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발등상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계신다(참조, 왕상 8:27; 사 66:1, 2).

6. ㉣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가? (8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상징인 법궤와 함께 주의 성소로 들어가시길 원했다.
- (2) 이 말씀은 대하 6:41의 인용이며 솔로몬이 오랜 헌신의 기도를 한 후에 한 말이다. 솔

로몬이 이렇게 묘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와 가까이 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 (3)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해서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이다(요 14:16).
- (4)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요 17:3).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 (5)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고무시켜 주고, 강건케 해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도 다 들어주신다(참조, 마 6:8; 7:7, 8).

7. **㉠ 솔로몬은 제사장들과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9절)**

- ㉠** (1) 그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기'를 원했다.
- (2)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의가 제사장들의 장식이 되어 모든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함으로써 그 백성 중에 나타나게 해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이다.
- (3) 의(義)는 성직자의 가장 좋은 예복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모든 인간을 향한 사랑은 성직자의 필수적인 습성이다. 그들이 주의 제사장이므로 의를 입지 않는다면 주께 대한 그들의 관계는 모순 투성일 것이다.
- (4) 신실한 목회는 성도들의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목회는 기쁨의 사역이 되어야 하고 또 기쁨을 조성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서 있어야 한다(참조, 고후 1:24).

8. **㉠ 솔로몬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물리치지 말아 달라고 했는가? (10절)**

- ㉠** (1)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 (2) 본절은 대하 6:42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귀절은 다윗이 온 백성들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를 명시하여 배척하지 말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다.
- (3)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참조, 삼하 7:13, 14).
- (4)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그리스도의 예표(豫表)로서 한 말이었다.
- (5) 이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의(義)의 대변인이 되신다.

9. **㉠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로써 맹세하셨는가? (11, 12절)**

- ㉠** (1)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네 몸의 소생(所生)을 네 위에 두며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회에게 교훈하는 증거를 지키면 저회의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게 하겠다'고 하셨다.
- (2) 여기에서 '다윗의 소생'은 솔로몬을 두고 한 말씀이다.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지었으며 모든 영화를 누렸다(참조, 왕상 9:3).
- (3) 이러한 영화는 하나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조건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왕상 9:4-9).
- (4) 그러나 솔로몬의 말기 때부터 이것은 무너지기 시작했고(왕상 11:4-8), 그 후의 왕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참조, 왕상 14:9). 이런 결과 때문에 왕조가 둘로 나누어지고(왕상 12:25), 나중에 두 왕조는 각각 앗시리아(B. C 722)와 바벨론(B. C. 586)에게 멸망하고 말았다.
- (5)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

시고,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므로 본질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다(눅 1:32).

- (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를 지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참조, 마 5:17). 그러므로 그분과 그분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약속은 이루게 될 것이다.
- (7)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녀 곧 모든 신앙인들은 ‘영원히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계 3:21).

10. **Q** 여호와께서 어디를 택하시고 자기 거처(居處)로 삼고자 하셨는가? (13, 14절)

- A** (1)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
- (2) 솔로몬은 제사장 직분과 성소의 예배를 왕국과 연결시킴으로써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님을 더욱 강조하였다.
- (3)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나 성소와 연관을 갖도록 하신 것은 장차 오실 중보자이시요 멜기세덱의 반차(班次)를 좇아 제사장과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미리 자세하게 예표하시기 위한 것이다(참조, 히 8:17).
- (4) 그러므로 왕국과 성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시온 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거기에 어떤 뛰어난 것이 있다기 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참조, 68:16).
- (5) 그래서 ‘시온 산’은 복음적인 교회의 모형이 되었다(히 12:22). 비록 시온은 쟁기로 밭을 간 것처럼 된 지 오래되었지만(참조, 129:3),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전’(딤후 3:15)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영원히 설 곳’으로 택하셨고, 그곳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다(참조, 히 4:1-11).

11. **Q**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가? (15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빈민을 만족케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계시므로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다.
- (3) 즉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여 먹여 주시고, 궁핍한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다.
- (4) 이것은 또한 영혼을 위해 만들어진 양식, 즉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게 먹여 주실 것이다(참조, 요 6:35).

12. **Q**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다고 했는가? (16절)

- A** (1)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쳤다.
- (2) 솔로몬은 9절에서 제사장들이 의를 입게 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 이상의 것으로 들어 주셨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의로와질 수 없는 인간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 주심으로 인간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참조, 롬 5:17).

13. **Q**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가? (17절)

- A** (1)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 (2) 여기에서 ‘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세력’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 (3) 다윗은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자로 택함을 받아 보좌에 올랐고 예기치 않게 왕위를 계승했다(참조, 삼상 16:11-13).
- (4) 그러나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는 또다시 심각하게 잘려 나갈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대로 계속해서 뿔이 나는 길밖에 없었다.
- (5)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새로운 뿔이 돌아 나도록 하셨는데(참조, 겔 29:

21)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다.

(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어 하신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약해 질지라도(참조, 애 2:3) 다윗의 뿌를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다.

14. **㉠** 하나님께서 원수와 다윗에게 각각 어떤 보응을 베푸셨는가? (18절)

- ㉠** (1) 하나님께서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다윗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겠다고 하셨다.
 (2) 여기에서 ‘원수’는 다윗 자손을 압제하던 자들이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될 것이며(참조, 35:4), 또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35:26).
 (3)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豫表)이므로(참조, 사 11:10) 그리스도는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29:10).
 (4)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에서 원수의 입장에 서 있지 않는가.

화보자료

법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 아래의 사진은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대교의 전례서 사본 중의 삽화로서 다윗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묘사한 그림이다.



본시 1-5절에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다윗의 근심(참조, 삼하 7:2)이 잘 나타나 있다. 일찌기 다윗은 다윗 성을 점령한 후 오벵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 놓았었다(삼하 6:12-19). 그런데 그는 이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안치해 둘 성전을 건축하려 희망하였었다(삼하 7:2).

제 133 편 형제를 사랑하다

단락구분 1 형제 사랑의 행복 / 2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다 / 3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더하시다

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 ㉠ 본시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시의 저자인 다윗은 본시에서 오랫동안 침울했던 혼란과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화목하게 된 사실(참조, 삼하 5:1-5)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지키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다.
- (2)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참조, 삼하 2:8, 9).
- (3)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기이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나타나서 백성들로 화합하도록 하셨다(참조, 삼하 3:6-39). 즉 그 방법은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백성들을 화합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다.
- (4)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참조, 요일 4:7, 8).

2.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지는가? (1절)

- ㉠ (1) 선하고 아름답게 여겨진다.
- (2)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과 평화를 얻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을 하였던 것이다(참조, 삼하 3:20).
- (3) 이 귀절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있어야 할 상호간의 화목을 유지하여 이 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다. 증오심이 우리 사이를 갈라 놓고 질투심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임을 알아야 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같이 우리는 피차간에 화목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참조, 요 17:21).

3. ㉠ 형제 사랑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2, 3절)

- ㉠ (1) 다윗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에서 기름과 이슬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내렸다는 말은 사랑의 흐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두에게 전파되었음을 나타낸다.
- (3) 특히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가장 높은 산인 '혈(혈)몬'을 언급한 것은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절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그 사랑에 들어간다는 말이다(참조, 히 5:6-10).
- (4) 그러므로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며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23:5).

4. **㉠**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명하셨는가? (3절)

- ㉠**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
 (2) 이것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에 거하는 것이다(참조, 요 17:23).
 (3) 사랑의 성취가 하늘의 축복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진실성은 그러한 축복의 표현이다. 사랑과 화평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을 모시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 4:16).

화보자료

노인의 영광인 수염. 아래 사진의 인물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모리아 산(일명 시온 산)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장이다. 턱에 난 흰 수염은 외면적으로 그의 중후한 인품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셈족 계통의 사람들 사이에서 수염을 지니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수염을 깎이는 것은 큰 수치 중의 하나였으며(참조, 삼하 10:4, 5) 인격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아름다운 수염을 지니는 것은 그 사람의 크나큰 영광으로 여겨졌다.

제 134 편 밤에 봉사하는 자들의 찬양

단락구분 1 밤에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다 / 2 성소를 향하여 송축하다 / 3 여호와께 축복을 간구하다

1 밤에 여호와와 집에 섰는 여호와와의 모든 종
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

축하라

3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을 주실지어다

1. ㉠ 본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시는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마지막 시편으로 작자가 불명확하다.
 (2) 특히 본시는 대화체로 쓰였는데, 처음 두 절에서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밤이 맞기까
 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3) 마지막 절에서는 예배를 드린 자들이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4)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서 성도는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하며 그분으로
 부터 오는 자비와 은총을 갈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2. ㉡ '밤에 여호와와 집에 섰는 여호와와의 모든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 (1) 그들은 거룩한 일들에 사역하기 위해 임명된 '레위인'을 가리킨다.
 (2) 그들은 성소에서 수고하며 여호와와 집 곧 성전의 책임을 담당하였다(민 3:6). 또한
 그들은 제단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했다(참조, 출 27:20).
 (3) 한편 경건한 백성은 레위인과 함께 성전에 있기를 즐겨했다(참조, 눅 2:37).
 (4)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하는 삶은 큰 축복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
 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고전 16:16).

3. ㉢ 시인은 어디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는가? (2절)

- ㉢ (1)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한다.
 (2) 이러한 자세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세이다(참조, 63:4;
 119:48; 141:2).
 (3) 성소로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자세를 뜻하는 것이다. 이런 간
 절함 속에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기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4)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로 주께 간구해야 한다. 손을 들고 경건히 머리를 숙임으로 마
 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 앞에 진지하게 간청하여야 한다(참조, 왕상 8:38).

4. ㉣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했는가? (3절)

- ㉣ (1) 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다.
 (2) 시인이 특별히 '시온'을 지칭한 것은 시온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
 이다(참조, 20:2; 53:6; 128:5).
 (3)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하
 늘과 땅의 모든 축복의 근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4) 정작 이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축복인 영생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
 게 임하게 될 것이다(참조, 요 6:40).

제 135 편 여호와를 송축(頌祝)하라

단락구분 1-3 여호와를 찬송하라 / 4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 / 5-7 광대(廣大)하신 여호와 / 8-14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 15-18 거짓된 우상 / 19-21 여호와를 송축하라

1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하라

2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3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4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5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6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7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8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9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10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11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12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13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1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15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16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18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19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1. ㉠ 본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 (1) 본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제로 하고 있다(3, 4, 13-18절).

(2) 즉 시인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어 가나안에 거하게 하셨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 여호와는 결코 인간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다.

(3)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택한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다(욥 5:9; 렘 31:3; 롬 5:8; 엡 2:4).

(4) 한편 본시는 134편의 짧은 시를 늘리고 115편에서 일부의 내용을 끌어온 모자이크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본시는 136편과 마찬가지로 신년제나 초막절의 찬송 예문으로 사용되었다.

2. ㉠ 시인은 누구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였는가? (1, 2절)

㉠ (1) 시인은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殿庭)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고하였다.

(2)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있는 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가리키며 '전정에 섰는 자'는 공중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 뜰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가리킨다. 따라서

1절의 '여호와와 종' 들이란 제사장과 레위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이고 마땅한 일임과 동시에 남녀 노소나 빈부 귀천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 (4) 이와 같이 시인이 전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3. **㉠ 시인은 무엇을 찬송하라고 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하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여호와'란 히브리어로 <예호와>인데 이 이름은 '주권적 자유에 따라 행동하는 자존자' (참조, 출33:19), '있게 될 것을 있게 하는 자', 즉 '창조자요 역사를 형성하는 자' (출3:7-10, 15)라는 뜻을 지녔다.
- (3)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현존성, 거룩하심과 선하심, 그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 대상임을 분명히 알자(마4:10).

4. **㉠ 시인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다'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형식적이고 강압적인 찬양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참조, 마2:13, 14).

5. **㉠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사실을 어떻게 찬양하였는가? (4절)**

-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찬송하였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재능과 힘으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출19:5; 신4:20).
- (3)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골3:17; 살전5:18).

6. **㉠ 시인은 다른 신들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찬송하였는가? (5절)**

- ㉠** (1) 시인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다'라고 찬송하였다.
- (2) 여기에서 '광대하시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들>은 '탁월하심', '장엄하심', '숭고하심'이라는 의미이다.
- (3) 그러므로 시인은 본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며 그분밖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한다(6, 7, 15-18절).
-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 내리며 그분에 대한 예배를 한낱 형식과 절차에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신보다 높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행위이다(참조, 호2:16).

7. **㉠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디에서 행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 (3)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에 지배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작정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여질 수 없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하게 생겼고, 저절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우주의 운영자로서 온전히 믿는 것이다(참조, 창 1:1; 전 12:1).

8. **㉠** 시인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7절)

- ㉠** (1) 시인은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고간(庫間)에서 내신다’ 라고 표현하였다.
- (2) 이와 같은 표현은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3)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때로는 그들에게 주셨던 자연에 대한 은총을 거두어 가심으로 땅을 황폐케 만들기도 하신다(사 34:13; 미 6:15,16).
 - (4)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이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은 보다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다(참조, 롬 1:20).

9. **㉠**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인간들의 왕국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였는가? (8-12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① 애굽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일 ② 많은 나라들과 강한 왕들을 죽이신 일 ③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의 유업으로 주신 일 등을 언급하였다.
- (2) 여기에서 먼저 ‘애굽에 징조와 기사를 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가리킨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을 죽이는 마지막 재앙에 굴복하여 이스라엘을 놓아 주었다. 이러한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소유를 조금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셨다(출 5:1-7, 13).
 - (3)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강한 왕들을 죽이신 일’은 하나님께서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 왕국을 멸망시킨 사건을 가리킨다(민 21:24, 35; 신 2:33; 3:3). 그 당시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가나안 왕국들은 모두 31개국에 이른다(수 12:24).
 - (4)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겔 20:6; 호 7:5).
 - (5)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땅을 단순히 취득했다기 보다는 소유하여 계속 지킨다는 의미가 더 적당하다.
 - (6)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한 행위를 일삼을 때는 대적들의 침략을 받고 열국으로 흩어지는 수치와 파멸을 당하였기 때문이다(호 4:7; 7:8-16).
 - (7) 이와 같은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예표한다.
 - (8)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의 손길이 있다(사 42:16; 눅 1:79; 요 16:13).

10. **㉠** 시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하였는가? (13절)

- ㉠** (1)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記念)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찬양하였다.

-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며 또한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면서 찬양드려야 할 대상임을 나타낸다.
- (3) 이와 같은 시인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를 보내신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시면서 그 이름이 영원한 것이고 대대에 기억할 표호(表號)임을 밝히셨던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출 3:15).
- (4) 우리는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결코 육체의 피로나 질병 또는 기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145:1-3).

11. ㉠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 (1) '긍휼히 여기신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 <나함>은 '회개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 (2)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순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 영원히 노를 품지 않는 분이시다(103:9).

12. ㉠ 열방이 섬기는 우상의 특성을 설명하라(15-17절).

- ㉠ (1) 열방의 우상의 특징은 ① 은금으로 만들어짐 ② 사람의 수공물(手工物)임 ③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함 ④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함 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 ⑥ 입에는 기식(氣息)이 없다.
- (2) 이와 같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으며 우상에게 주어졌다고 상상하는 신성도 단지 인간의 공상과 생각으로 꾸며 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 (3) 시인은 이같이 우상 숭배가 헛된 것임을 언급하면서 열방이 숭배하는 헛된 우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며 살아 계신 분이심을 선포하였다.
- (4) 한편 본절은 115:4-8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27절에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다'는 말은 '입에는 숨쉬의 흔적이 없다'는 뜻이다.
- (5)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우상은 이교적인 신상 뿐만 아니라 스포츠, TV, 정치, 과학,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이다(참조, 신 11:16).

13. ㉠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18절)

- ㉠ (1) 우상을 만든 자와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같이 미련하고 무감각하게 될 것이다.
- (2) 즉 미련하고 무감각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며 그 우상은 썩어질 형상(롬 1:22, 23)이며 예배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행 17:29)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 (3)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율법으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셨고(출 20:4), 우상을 섬기는 자와 그 우상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다(레 26:1; 신 7:25).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만을 온전히 섬길 때는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 행위를 영적 간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상을 파괴하시고 그것을 섬겼던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사 2:18; 21:9; 렘 51:47; 호 10:1-8; 11:2-5; 미 5:13).

(5) 따라서 성도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와 같은 패역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멀리하여야 한다(요일 5:21).

14. **㉠** 시인은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는가? (19, 20절)

㉠ (1) 시인은 ① 이스라엘 족속 ② 아론의 족속 ③ 레위 족속 ④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아론의 족속'과 '레위의 족속'은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성직자들을 가리키며(레 1:5-11; 2:1; 민 3:5; 18:3)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총칭(總稱)한다.

(3) 따라서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른 이방 백성들도 어떠한 계층에 속했던 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의무임을 잊지 말자(히 13:15).

15. **㉠**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의 찬양을 어떻게 하시는가? (21절)

㉠ (1)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신다.

(2) 여기에서 '시온'이란 예루살렘 남동쪽의 언덕인데, 광의적으로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왕하 19:21).

(3) 그러나 이 '시온'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국, 곧 하늘을 의미하며(미 4:7; 히 12:22, 28; 계 14:1) 부름 받은 구원자들이 이르게 될 믿음의 견고한 도성을 뜻하기도 한다(125:1; 은 2:32; 히 13:22).

(4) 따라서 '예루살렘'이란 실제적인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모든 곳을 가리킨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순전하고 기쁨에 넘친 찬양을 온전하게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단지 목소리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엡 5:19; 골 3:16).

본장의 요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3절).

제 136 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단락구분 1-3 선택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 4-9 전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 10-16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 17-20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 21-22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 23-25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택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2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3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4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6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8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1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4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5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었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6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9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20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21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22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23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24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25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1. ㉠ 본시의 내용상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시의 내용상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후렴구를 갖는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신년절을 지킬 때 성가대가 본시의 한 절을 부르면 회중은 그 뒤를 따라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다' 라고 답송을 하였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는 본시를 큰 찬송(Great Hallel)이라고 불렀다.
- (2) 둘째, 감사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되어(1-3절) 끝맺는 것이다(26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큰 기사를 행하셨고(4-9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며(10-22절) 모든 것을 통하여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다(23-25절).
- (3) 그러므로 본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를 찬양할 조건임을 교훈한다(참조, 롬3:24;

계 21:6).

2. **㉠ 영원토록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인가? (1-3절)**

- ㉠** (1) 시인은 영원히 감사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뿐이라고 선포하였다.
- (2)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름	여 호 와 (1절)	하 나 님 (2절)	주 (3절)
히브리원문 뜻과 용례	<예 호 와> 자존하시는 분(본질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고유 명칭)	<엘로헤 하엘로임> 심판주, 만군의 주, 빛들의 아버지, 주의 주, 지극히 높으신 자, 모든 신에 뛰어난신 하나님	<아도네 하아도님> 모든 주에 뛰어난신 주(세상의 모든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자들 위에 뛰어난 구원자, 주권자)
참조 귀절	창 4:26; 출 3:7-10, 15, 19; 33:19	창 17:1; 출 3:14; 15:2; 신 10:17; 32:8; 33:27; 수 3:10; 삼상 1:11; 마 6:26 ·약 5:4	97:5; 수 3:11

(3)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오늘날 아무리 인지(人智)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며 물질 문명이 번성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에게 의지하고 감사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8:10).

3. **㉠ '큰 기사(奇事)'란 무엇을 말하는가? (4절)**

- ㉠** (1) '큰 기사'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5-9절) 그 속에서 당신의 섭리와 은총으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전목적과 계획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역을 가리킨다(참조, 출 11:9).
- (2)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과거에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행하고 계시며 영원히 계속하실 것이다(참조, 전 3:14).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사역들은 인간이나 자연과 같은 피조물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행하신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 자신의 덕이나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 주기 위해 마치 못해 믿는 것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참조, 전 5:1-7; 요 4:20-24)

4. **㉠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5-9절)**

- ㉠** (1) 시인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땅을 물 위에 퍼신 이, 큰 빛을 지으신 이,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였다.
- (2)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창공에 두어 이 땅을 비추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참조, 창 1:1-2:25).
- (3)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창조 사역은 그의 능력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함께 이룩한 역사(役事)이며 인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작업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을 볼 때에 그저 평범하게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참조, 전 3:11; 행 17:24).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애굽에게 내리셨던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재앙이다. 즉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맏들 뒤에 있

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첫째생이 모두 죽었던 재앙을 가리킨다(출 11:5).

- (2)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자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승까지도 보호를 받았다(출 11:7; 12:1-13).
- (3) 또한 바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과 재앙들에 끝까지 거부하고 대항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마지막 재앙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주었다. 이것이 시인이 애굽에 내린 많은 재앙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던 사건만을 언급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많은 백성들을 이용하기도 하시는데 비록 동일한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택한 백성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출 9:6, 7, 22).
- (5)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롬 5:8).

6.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사용하신 것은 무엇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퍼신 팔로 인도하셨다.
- (2) 여기서 '강한 손과 퍼신 팔'은 하나님의 축복(대하 30:12; 스 7:9; 8:18; 느 2:18)과 보호(139:10), 안전(요 10:29), 크신 권능(신 5:15; 7:8, 14; 요 10:29; 벰전 5:6)을 상징한다.
- (3) 시인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의인적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했다. 이처럼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인 신체 활동과 연결시켜 간결히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다.
- (4)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강한 손과 퍼신 팔로써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문제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사 50:2; 요 10:28, 29; 벰전 5:6).

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을 때 홍해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13-15절)

- ㉠** (1)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셨으며 그들을 뒤쫓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지게 하셨다(출 14:1-31).
- (2) 시인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택한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에 길을 만드셨고 그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지만 바로와 그 군대를 그곳에서 수장(水葬)하셨기 때문이다.
- (3) 이러한 사건은 결코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우연에 의해 발생할 수가 없다.
- (4) 홍해나 바로의 군대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듯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세상의 어떤 환난, 핍박이 끊을 수 없다(참조, 롬 8:35).

8. **㉠**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출 40:36-38) 그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출 16:4-15) 물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면서(출 17:1-7; 민 20:8)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 (3) 그러므로 시인은 모든 것이 결여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때문이었다고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와도 같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택하여 주셨으며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전 15:57; 고후 9:15; 골 1:12).

9.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후 그들의 앞길을 막는 왕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17-22절)

- ㉠** (1) 하나님께서는 크고 유명한 왕들과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2) 이와 같은 정복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패역한 일들을 일삼은 악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처럼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나태해지는 나약한 신앙을 던져버리고 보다 담대하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약 1:2-4).
 (4) 더 자세한 것은 136편 **㉠**9를 참조하라.

10. **㉠** '비천(卑賤)한 데서 기념하신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3절)

- ㉠** (1)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압제자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2) 즉 시인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자와 사사들과 다윗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B. C.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사건을 예표한다(대하 36:22, 23; 스 1:1-4).
 (4)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며 모든 영적인 대적들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을 암시한다(골 1:13, 14; 뱀전 3:21).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궁핍과 어려움을 간파하지 않으시고 선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히 10:22; 약 4:8).

11. **㉠** 시인은 본절에서 하나님의 어떤 면에 대해 감사할 것을 권고하였는가? (25절)

- ㉠** (1) 시인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하라고 권고하였다.
 (2) 여기에서 '모든 육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가리킨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뿐만 아니라 그가 생명을 주신 곳에서는 어디든지 합당하고 충분한 음식을 주시는 인자한 분이시다(마 6:25-30).
 (4)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미물(微物)까지도 돌보시는데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전혀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5)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의식주에 얽매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후 문제,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올바른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연히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마 6:31-33).

제 137 편 바벨론 포로의 노래

단락구분 1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 2-4 포로 된 백성들의 수치 / 5-6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다 / 7-9 대적들에 대한 저주

- 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 2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 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 4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꼬
-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

- 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 6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나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 7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훼파하라 훼파하라 그 기초까지 훼파하라 하였나이다
- 8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 9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1. ㉠ 본시의 저자와 기록 연대를 설명하라.

- ㉠ (1) 본시의 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 대적들에 대한 저주를 기술하였다.
- (2) 이와 같은 포로들의 불행한 상태를 이처럼 직접적이면서도 생생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아 본시의 저자는 직접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그 현실을 체험하였던 자이다.
- (3) 또한 본시의 8절에서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라는 기록은 아직까지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하지 않은 상태로 본시의 기록 연대가 바벨론 포로 말기임을 입증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이해하고 때가 되면 그들이 구원될 것과 대적들이 파멸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개인적인 원한이나 저주를 피해야 할 것이다(레 19:18).

2. ㉠ 백성들은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1절)

- ㉠ (1)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있었다.
- (2) 여기에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란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와 그 지류들, 또한 그발 강가와(겔 1:3) 올래 강가와(단 8:2)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운하들을 지칭한다.
- (3) 또한 ‘앉아서’는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상(喪)당한 사람들이 곡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 (4)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의 땅이며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 강변 들에서 슬픈 상태에 처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속박과 고통과 피로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 (5)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불의를 본받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긴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다(참조, 사 1:29; 미 1:8, 9; 2:1-3, 10, 12).
- (6) 이 사건은 유다가 B. 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을 가

리킨다(왕하 20:16;25:1-12; 렘 27:19-22).

- (7) 한편 에스겔(겔 1:3)과 다니엘(단 8:2)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곳도 바로 이와 같은 의로운 강독이었다.
- (8) 그러므로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한 결과가 결국 비참한 상태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신 28:67).

3. **㉠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무엇을 하였는가? (1절)**

㉠ (1) 백성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 (2) 여기에서 '시온'이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참조, 135편 ㉠ 15; 왕하 19:21).
- (3) 이처럼 바벨론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은 자신들의 불의와 불순종을 깨닫고 과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영광과 만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참조, 애 1:7).
- (4)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회개한 자들의 눈물을 모른 채 하시지 않고 결국 그 대가로 그들을 머지 않아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대하 36:22, 23; 스 1:1-4).
- (5)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자들도 그 징계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괴로워하기 보다는 본래에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스 9:5-15; 느 1:8-11).

4. **㉠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수금을 어디에 걸어 놓았는가? (2절)**

㉠ (1) 그들은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 두었다.

- (2) 이 수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150:3),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맞을 때와 같은 축하시에(대하 20:27, 28) 사용하였던 기쁨의 악기였다.
- (3) 한편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신령한 노래와 연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는데(대상 6:31-48;25:1-7; 대하 20:20) 그들은 대적에 의해 모든 재산을 빼앗겼을 때도 수금과 같은 자신들의 악기는 귀한 세간의 일부로 보존하였다.
- (4) 그런데 이와 같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는 것은 바벨론의 압제자들이 하나님께만 들려 드려야 할 시온의 노래를 자기들에게 들려 달라고 조롱하였기 때문에(참조, ㉠ 5) 유대 백성들이 절대로 그들에게 찬양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다.
- (5) 더 나아가 그것은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서 애동과 애곡의 때임을 자각하고(참조, 사 22:12) 수금을 다시 사용할 때가 오기를 열망하였음을 나타낸다.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에서는 찬송을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부른다거나 세속적인 행사의 들러리로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우리는 찬송이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대하 23:18; 마 26:30; 행 16:25).

5. **㉠ 유대인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노래를 칭하며 유다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칭하여 자기들을 위해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바벨론의 압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온의 노래 외에 다른 노래를 칭하지 않았다.
- (3)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불행에 처한 자들을 모욕하여 더욱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불경건하면서도 야만적인 행위였다.
- (4) 오늘날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패역한 자들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것을 종용한다(참조, 창 39:

14-17; 눅 23:35-39).

6. **㉠** 유다인들은 조소에 찬 압제자의 요청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4절)

- ㉠** (1) 그들은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꼬' 라고 대답하였다.
 (2) 즉 이 말은 예배 때와 종교 행사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야 할 여호와와 노래를 이방인의 유흥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유다인들의 신앙의 절개를 잘 나타내 준다.
 (3) 또한 본절에서 시인이 '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결코 바벨론이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4) 한편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받지 않으며 복음에 대해 고의적인 훼방을 하는 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시면서 그들 앞에 거룩한 것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마 7:6).
 (5)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합당한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쾌락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잠 25:11).

7. **㉠** 시인은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5, 6절)

- ㉠** (1) 시인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고백하였다.
 (2) 즉 시인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압제자들을 기쁘게하여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다면 영원히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무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3) 이와 같은 기원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룩한 성전에 대한 생각을 결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잊어버리거나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시인의 엄숙한 맹세인 것이다.
 (4) 이러한 시인의 기원을 통해서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나갔고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성과 시온의 노래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유다 백성들의 노력이 잘 나타나 있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비록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말씀을 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성도로서의 귀한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합 3:17-19).

8. **㉠** 시인은 에돔 족속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7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족속을 쳐달라고 기도하였다.
 (2)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이란 B.C. 586년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날을 의미한다(왕하 25:1-21).
 (3) 그런데 에돔 족속은 한 피를 나눈 쌍둥이 형제 야곱(창 25:23-26)의 후손인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자 이러한 사실을 기뻐하며 조롱하였고(욥 1:12) B.C. 587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는 직접 바벨론과 동맹하여서 유다를 공격했다.
 (4) 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은 유다가 멸망당하는 날 '훼파하라 훼파하라 그 기초까지 훼파하라' 라고 바벨론 군대를 부추기면서 유다에게 수치를 주었다. 이 같은 모든 것은 야곱에 대한 반감, 즉 야곱이 그들의 조상 에서가 받을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갔던 것에 대한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창 27:1-41).
 (5) 따라서 시인은 에돔이 이같이 그 형제 유다 왕국에게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

하시고 보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 (6) 이와 같은 시인의 기도는 '이전의 예언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겔 25:13) 과 예레미야(렘 49:7; 애 4:21, 22)를 통해 에돔 족속을 멸하시겠다고 선포한 예언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복수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화를 향한 거룩한 정열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 (7) 결국 이러한 예언과 저주는 A. D. 70년 로마인들이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그들의 관할 지역을 점령하였을 때 에돔 족속을 멸망시킴으로써 성취되었다.
- (8) 그러므로 본질은 성도들이 재난당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박해하는 자들과 연합하여 함께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욘 1:10-21).

9. **㉠** 시인은 바벨론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8절)

- ㉠** (1) 시인은 바벨론을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라고 불렀다.
- (2) 여기에서 '멸망할' 이라는 미래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비록 지금은 바벨론이 부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만 신앙심 깊은 시인의 눈에는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황량한 국가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 (3) 한편 시인이 바벨론을 가리켜 '여자 같은' 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 저자들이 국가를 언급할 때에 흔히 여성화했던 일반적인 특성을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예는 이사야가 바벨론을 가리켜 처녀 딸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사 47:1).
- (4) 그런데 여자 같은 바벨론을 실제로 바벨론 왕국을 가리킴과 동시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멸망을 받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을 상징하는데(계 14:8)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음녀로 묘사되었다(계 17:1-18).

10. **㉠** 시인은 바벨론에 대해 무엇을 행하는 자가 유복(有福)하다고 하였는가? (8, 9절)

- ㉠** (1) 시인은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으며 그들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매어치는 자가 유복하다고 하였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며 교만하고 강포한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므로(시 13:6-22) 그 심판을 수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 (3)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메데 바사 제국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 통치자가 된 고레스(Cyrus, B. C. 559-530)에 의해 성취되었다. 그는 바벨론을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켰으며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여러 도움을 베풀었다(대하 36:22, 23; 스 1:7-11; 5:13, 17).
- (4) 이와 같이 고레스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자로서 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함으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선포하였다(스 1:2; 사 45:3, 4).
- (5) 이사야 선지자도 태어날 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 '해방자' (사 45:1), '중진자' (사 44:28), '거룩히 구별한 자' (사 13:3) 라고 묘사하였다.
- (6) 한편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을 해방한 고레스는 죄를 정복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참조, 사 41장 ㉠3).

제 138 편 주께 감사하나이다

단락구분 1-3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 4-6 왕들이 주께 감사하리이다 / 7-8 주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1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3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4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었으며

5 저희가 여호와와 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 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6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7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1. ㉠ 본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시는 시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왕을 정복한 후에 부른 감사의 노래이다.

(2) 즉 시인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열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예언하면서 주의 뜻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였다.

(3) 한편 본시에는 저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혹자는 본시가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감사하는 시로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70인역(LXX)에서도 이 견해를 따라 본시를 다윗과 스가라의 시라고 하였다.

(4) 그러나 이 같은 70인역의 입장은 단지 스가라가 사용한 다윗의 시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시를 다윗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전통적인 입장(Calvin, M. Henry)을 따라 본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였는가? (1절)

㉠ (1)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였다.

(2) 여기에서 '전심으로'란 '진실되고 한결 같은 마음'을 의미한다.

(3) 한편 본절에는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나와 있지 않은데 혹자에 따르면 8개의 사본에 이 호칭이 사용되었다고 한다(Dr. Kennicott, De Rossi). 즉 70인역, 아랍어 역, 별게이트 역, 에티오피아 역에서도 '감사하며'라는 동사 다음에 '여호와'를 첨가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이 '주'라고 부르면서 전심으로 감사한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나타낸다.

(5) 그러므로 본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열심으로 해야 할 것을 교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만홀(慢忽)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대상 29:17; 갈 6:7).

3. ㉠ 시인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고 하였는가? (1절)

㉠ (1) 그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라고 하였다.

(2) 그런데 여기에서 '신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이

다. 즉 ‘천사들’, ‘왕들’, ‘방백들과 재판관’, ‘이방의 우상들’ 또는 <엘로힘>이 최고의 존재에 해당되는 명칭임으로 ‘하나님’이라고 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상징인 ‘언약궤’로 설명되기도 한다.

(3) 따라서 본절의 해석을 구별해 보면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시인이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서 자유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둘째, 시인은 이방의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우상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도전하겠다. 셋째,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온전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히 10:22; 12:2).

4. ㉠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어디를 향하여 경배할 것이라고 하였는가? (2절)

㉠ (1)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다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주의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막을 가리킨다(출 23:19; 25:8; 29:42, 43).

(3) 이처럼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인 성전을 향해서 행동으로 그 감사와 찬양을 나타냈다.

(4) 한편 주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며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요 2:12; 6:27-59; 히 10:20; 계 1:13).

(5)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성전을 향해 경배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바라보며 경배해야 할 것이다(요 15:1-7; 고후 4:10; 빌 2:5; 골 3:3).

5. ㉠ 다윗이 주의 이름에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속성들로서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죄인들도 구원받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며, ‘성실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메드>는 ‘진실’이라는 뜻으로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뜻한다.

(3)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한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이다.

(4)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참조, 사 41:14; 벰전 1:18-21).

6. ㉠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란 무슨 뜻인가? (2절)

㉠ (1)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중시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실 때 성실하셨으므로 그의 다른 모든 속성들보다 성실하심을 더 나타내셨음을 의미한다.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푸신 은총에 무감각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심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명확하게 증명하셨다.

(3) 이 같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지키신 데서도 잘 나타난다(창 49:10; 사 9:6, 7; 미 5:2; 요 1:14).

(4)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순종하면

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119:161; 행 11:1; 13:48; 17:11; 약 1:22; 뱀전 3:1).

7. ㉠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그의 영혼을 장려(獎勵)하여 강하게 하셨다.
- (2) 여기에서 ‘간구하는 날’란 ‘간구하는 바로 그때에’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음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필요했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의 간구가 있자마자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 주셨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더불어 다윗의 영혼에 연약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 환경은 변화시키지 않으신 채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켜 충분히 그 환경을 이겨 내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켜 성도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해주신다.
- (6)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막 11:24)과 순종(요일 3:22)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뜻대로 행하며(요 9:31) 전심으로 하는 기도가(렘 29:13)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임을 잊지 말자.
- (7) 이와 같이 합당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출 9:33; 왕하 13:4), 또는 지체 하시면서(22:1, 2; 눅 18:7) 응답하시며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히 주신다(왕상 3:7-14; 대하 1:7-12).

8. ㉠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이유는 무엇인가? (4, 5절)

- ㉠ (1)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며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다.
- (2) 이와 같은 다윗의 노래는 그가 죽고 난 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이다. 그 일들이란 먼저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된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을 가리킨다.
- (3)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지혜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부귀와 영광으로 채우며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통치하자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와 그를 칭송하였던 사건을 가리킨다(대하 9:22-28).
- (4) 더 나아가 다윗의 노래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그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확산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며 열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의 법을 따라 노래할 것을 가리킨다(사 49:22, 23; 60:3-5; 행 13:48).

9. ㉠ 다윗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력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6절)

- ㉠ (1) 다윗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下鑑)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낮은 자’란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유한성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를 가리키며(왕상 3:6-14; 사 6:1-8; 눅 18:13, 14) ‘교만한 자’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세사적인 지위와 명예만을 신뢰하는 자를 가리킨다(요일 2:16).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며 그중에서 당신을 온전

히 의지하는 자들과 당신을 의지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대상 28:9; 29:17; 욥 28:24; 삼전 2:4; 히 4:12).

(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며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지만(잠 22:14; 사 57:15; 마 18:4) 교만한 자에게는 그들의 패역한 행위를 일일이 다 기억하셨다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렘 17:10; 벧전 1:17; 계 20:12).

(5)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경건과 겸손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차이점이다(참조, 잠 16:1-3).

10. ㉠ **다윗은 환난 중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는가? (7절)**

㉠ (1) 그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소성(蘇醒)케 하시고 손을 펴사 그의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2) 여기에서 '소성케 하시고'란 '생명을 주시고'란 뜻이며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스 7:9; 8:18), 축복(대하 30:12; 느 2:18), 능력(수 4:24)을 상징한다.

(3)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살려 내시고 그의 보호자로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미래에까지 계속될 것을 확신하였다.

(4) 실제로 다윗은 살아오면서 무수한 위협과 모험을 경험하였다. 그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 그일라와 하질라 산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도 그곳 사람들의 배반으로 죽음에 봉착하였다(삼상 23:7-28).

(5) 이처럼 그는 대적에게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서도 배반을 당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다(삼하 15:1-37).

(6) 그러나 그는 이럴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주시며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였다(삼하 23:14).

(7)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소망과 기쁨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23:1-6).

11. ㉠ **'여호와께서 내게 관재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끝맺지 못한 그대로 버려 두심이 없이 완성하시리라'는 뜻이다.

(2)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관심 있는 일, 즉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시든 간에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시며 결코 그 목적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그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활동하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약속하셨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요 19:30).

(5)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미약하며 우리의 행동은 타의나 자의에 의해서 언제나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때도 있다(창 39:10-20; 수 22:10-34; 눅 7:38-50).

(6)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택한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에 대한 목적과 약속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

아야 한다(5:48).

12. **㉔** 다윗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였는가? (8절)

- (A) (1)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간구하였다.
- (2) 여기에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란 다윗 자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윗의 간구는 단순한 개인적인 간구임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구원을 기도한 것인데 그것은 다윗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다윗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103:8) 분이라고 찬양하였다.
- (4) 한편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다(참조, 108:4; 느 9:17; 사 54:8; 율 2:13; 눅 6:35; 히 5:2).

연구자료

시편과 그리스도

본서에는 실제의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무도 해당되지 않는 시골 메시아를 주제로 한 시들이 있다. 특히 2, 72, 110편 등의 시들은 그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들은 기자들이 살던 시대에서는 상당히 난해했겠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귀절들을 신약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서	내용	신약
2:7	'너는 내 아들이라'	행 13:33
8:6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히 2:6-10
16:10	'내 영혼을 움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행 2:27; 13:35
22:8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마 27:43
40:7, 8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히 10:7
41:9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 13:18
45:6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히 1:8
69:9	'주의 짐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요 2:17
110:4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히 7:17
118:22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 21:42
118:26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마 21:9

제 139 편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단락구분 1-6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 7-12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 13-18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나이다 / 19-24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 나의 길과 높은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5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 내가 흑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시이다
 13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16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 하나님이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19 하나님이며 주께서 정녕히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20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2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22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나이다
 23 하나님이며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 ㉠ 본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시는 다윗의 작품으로 전지 전능하시며 무소 부재(無所不在)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2)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찬송이 사별적이고 관념적인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생활 가운데 그가 직접 체험한 것임을 잘 나타내 준다.
 (3)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읽으면서 그 동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참조, 눅 20:38; 롬 14:8).

2. ㉠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자기를 감찰하시고 아신 분이라고 고백하였다.
 (2) 여기에서 '감찰하시고'란 '찾아내시고'란 뜻으로서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할 때(참

조, 욥 28:3) 또는 땅을 탐지할 때(참조, 사 18:2) 정밀 검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조사하셨다는 말이다.

- (3) 그리고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4)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 그의 행위와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한때 인간의 욕정으로 인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것을 인간의 꾸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겨 회개하였던 모습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삼하 12:1-14).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엡 5:1, 8-13, 15-17).

3. ㉠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일에 대해서 아셨는가? (2-5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① 그의 앓고 일어섬 ② 멀리서도 그의 생각을 통촉(洞燭) 하심 ③ 그의 길과 늪을 감찰하심 ④ 그의 모든 행위를 아심 ⑤ 그의 혀의 말을 아심 ⑥ 그의 전후를 두르시며 안수하셨다고 고백하였다.
 (2) 즉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①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루의 일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가 행한 일을 모두 아심
 ②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 계획, 욕망 등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생각한 지 오래 되어 그것을 잊어 버렸을 때조차도 멀리서 그것을 감찰하시고 헤아리심(33:14)
 ③ 나의 길과 늪을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활동하는 모든 일과 그 일을 끝내고 휴식하는 그의 모든 일을 아심
 ④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일일이 다 보고 계심
 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그가 발설하지 않은 마음의 소리와 입을 통해 표출된 모든 말들을 이미 파악하고 계심
 ⑥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두르심'은 '포위', '가두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에게 밀착되어 계시며 그에 대하여 완전하게 아심
 ⑦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눈과 손 아래 있음
 (3) 이러한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해 보면 다윗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함께 호흡하며 눈동자같이 지켜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全知)하심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일들과 생각들을 미리 아시며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신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것이다(참조, 욥 34:21; 렘 16:17; 32:19).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는 마치 자신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양 범피하고 그 범피를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가(렘 4:22; 23:24).
 (6)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나 생의 변화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고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고 오직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감찰하시는 시선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다(참조, 암 9:3; 습 1:12; 요 17:3).

4. ㉠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는가? (6절)

- ㉠ (1) 다윗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

백하였다.

- (2) 즉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결코 그가 이해하거나 묘사할 수도 없는 완전한 것임을 나타낸다.
- (3)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제한되고 한정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사 40:28). 그래서 인간들의 한정된 지식으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요 3:16).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심자가의 도가 결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믿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참조, 요 1:11-13).

5. **㉠**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7-9절)

- ㉠** (1) 다윗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고백하였다.
- (2) 여기에서 '주의 신'이란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성령'은 영원하시고(히 9:14), 전지 전능하시며(눅 1:35; 고전 2:10, 11) 편재하신 분이시다.
- (3) 따라서 다윗은 그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였다.
- (4)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바다 위에도, 배 안에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도 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상황과 흡사하다(은 1:1-2:10).
- (5)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은밀한 곳으로 숨는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렘 23:24).

6. **㉠**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란 무슨 뜻인가? (8절)

- ㉠** (1) '음부'란 히브리어로 <셰울>인데 그 어원은 확실치 않다. 그 뜻은 ① 불신자가 가는 곳 ② 죽은 자의 영혼들이 사는 땅 밑의 세계 ③ 죽은 자가 사는 곳 ④ 보이지 않는 곳을 가리키며 통칭 '무덤', '지옥'이라고 불린다(민 19:16, 18; 마 25:41).
- (2) 따라서 본질은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내 휴식처를 그곳에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탐욕과 시기와 세상적인 명예에 광분할 때에는 마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며 우리의 불의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7. **㉠**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여기에서 '새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하르>는 '동틀녘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새벽 날개를 치며'란 해가 솟아오르는 순간에 그 햇살이 구름을 뚫고 순식간에 온 지평선으로 퍼지는 것이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신속하다는 뜻이다.
- (2) 따라서 본질은 다윗이 떠오르는 태양이 내뿜는 햇살의 속도처럼 빠르게 지구를 가로질러서 해가 지는 서쪽 바다 끝으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넓으신 손길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8. **㉠** 다윗은 흑암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0, 11절)

- ㉠** (1) 다윗은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라고

표현하였다.

- (2) 즉 이 말은 다윗이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긴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 (3)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며(27:1;84:11;요일 1:5) 이 세상과 어둠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창 1:3-5).
- (4)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숨길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위선적인 가면이나 가식도 하나님의 진실된 빛 아래서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욥 12:22;눅 12:2;고후 5:10).
- (5) 또한 성도는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119:6, 23) 빛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78:14;89:5).

9. **㉠** 시인은 누가 자신을 지으셨다고 하였는가? (12, 13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부(臟腑)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그를 조직하셨다고 고백하였다(참조, **㉠** 10).
- (2) 여기에서 ‘지으시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나타>는 ‘소유한다’ 또는 ‘형성한다’, ‘창조한다’라는 뜻이다.
 - (3)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모태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 (4) 즉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의 행동과 은밀한 생각을 주관하시며 더 나아가 그의 영혼마저도 지배하시는 분임을 고백한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조성된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였다(롬 14:8).

10. **㉠**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는가? (15절)

- ㉠** (1) 다윗은 자기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은밀한 데’와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뱃속’을 비유한 것이다.
 - (3)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냥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다.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인데 이는 ‘수놓아지다’ 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짜여 만들어지다’라는 뜻을 지녔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머니 뱃속에 두고도 가장 완벽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다(사 43:7;고전 10:31;계 4:11).
 - (5)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근원이 원숭이나 미생물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같이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지체(肢體)와 장부(臟腑)를 꼭 있어야 할 곳에 지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찬양해야 할 것이다(14절).

11. **㉠** 주의 생각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비취졌는가? (17, 18절)

- ㉠** (1) 주의 생각은 다윗에게 ① 보배롭게 ② 모래보다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나타났다.
- (2) 여기에서 ‘주의 생각’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비와 소망을 주신 것’을 뜻한다.
 - (3) 이와 같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그 수가 많아서 성도는 자

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섭리와 선한 일들을 다 인식할 수 없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일 뿐이다(참조, 40:5; 사 55:8, 9).

12. **㉠** **다윗은 쟈 때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고백하였는가? (18절)**

㉠ (1) 그는 아침에 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2)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과 평온을 느꼈음을 보여 준다.

(3) 이와 같이 진실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4)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은 평안한 휴식을 취해야 할 침상에서조차도 악을 피하고 간사(奸詐)를 경영하며 날이 밝자마자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미 2:1).

13. **㉠** **시인은 어떤 자들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명령하였는가? (19절)**

㉠ (1) 다윗은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게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2) 여기에서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란 하나님을 경멸하고 대적하여 물질적인 탐욕과 세속적인 명예를 위해서 과부와 같은 힘없는 이웃에게 무력을 사용하고 때로는 눈에 안 보이게 사기와 속임수를 써서 무고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불의한 자들을 가리킨다(왕상 21:1-16; 미 7:2-4).

(3) 다윗은 이러한 불의한 자들과의 교제를 단호히 끊으면서 이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였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 특별히 그중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그들과의 타협을 배제해야 한다(살전 5:22; 벧전 3:11).

14. **㉠**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20절)**

㉠ (1)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칭하였다.

(2) 즉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경멸하며 하나님을 거스려 강박한 말들을 지껄였다(유 1:15).

(3)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 맹세와 무례하게 불경건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주의 원수'라고 칭하였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여 거짓 맹세와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자청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참조, 약 4:4).

15. **㉠** **다윗은 악인에 대해 자기와 어떤 사이라고 선언하였는가? (21, 22절)**

㉠ (1) 다윗은 악인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와도 원수지간임을 밝혔다.

(2)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심히 미워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였다. 여기에서 '미워하였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순수한 사랑과 비교될 만한 강렬한 증오심을 가리킨다.

(3)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눅 6:27) 하나님의 도를 훼방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도전하는 무리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참조, 마 12:32; 막 3:29; 계 16:9).

16. **㉠**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원하였는가? (2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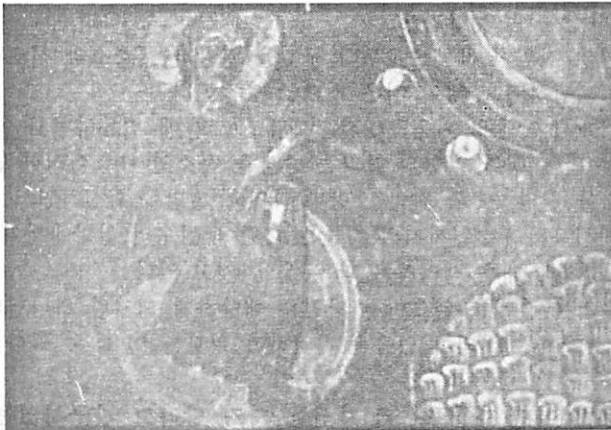
㉠ (1)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자기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원하였다.

- (2) 여기에서 ‘악한’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츨>은 일반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고통’, ‘부패’ 또는 ‘우상’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따라서 다윗의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라는 고백은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즉 깊은 참회로 인한 슬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데 전심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 (4)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 다윗은 영원한 길,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선한 길,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원했다. 이 기원에는 자신의 인생 행로 마지막 순간까지 더 나아가 내세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자 하는 열망이 암시되어 있다.
- (5) 이와 같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과 영화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겸손히 의뢰하였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27:11; 143:10).

화보자료

하늘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래의 사진은 이란의 아우구스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로마네스크 시대의 성경 삽화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체의 운행을 주관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본시의 저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달아날 수 없음을 대하여 고백하면서 그 까닭으로 하나님의 무소 부재(無所不在),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든 바다에든 그 어느 곳에든지 거하고 계심을 내세웠다(8, 9절).

제 140 편 악인의 손에서 나를 보존하소서

단락구분 1-5 악인에게서 건져 주소서 / 6-7 여호와와 나의 구원자로 소이다 / 8-11 악인을 패망하게 하소서 / 12 악한 자를 도우시는 여호와 / 13 의인과 정직한 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1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2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피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으며(셀라)

3 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4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5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음모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셀라)

6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7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8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피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 할까 하나이다(셀라)

9 나를 에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10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11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12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와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13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1. ㉠ 본시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1) 본시는 악인의 잔인한 계책으로부터 구원을 열망하는 호소의 시로서 다윗이 사울의 압박으로부터 피난하였을 당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2) 다윗은 여기에서 악인을 싸움군(2절), 사냥군(5절)에 비유하면서 악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잔인성, 반역 행위, 악인의 불타는 증상을 하소연하며 이러한 난국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구원의 소망과 악인의 멸망을 확신하면서 본시를 끝맺는다.

(3) 한편 본시에서부터 143편까지의 시들은 다같이 원수의 압박에서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로 동일한 시형과 내용, 셀라라는 말 등을 가지고 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읽으면서 악인은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구원의 소망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다(참조, 34:15; 92:12; 마 13:42).

2. ㉠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달라고 간구하였는가? (1절)

㉠ (1) 다윗은 악인으로부터 건지시며 강포한 자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2) 여기에서 다윗이 '악인', '강포한 자' 라고 표현한 대적들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과 그를 곁에서 보좌하며 다윗을 죽이도록 선동하는 신하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을 때 사울에게 밀고하여 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학살하게 만든 에돔 사람 도역(삼상 22:9, 10, 18, 19) 등을 가리킨다.

(3) 이와 같이 다윗이 대적자들을 '악인', '강포한 자' 라고 부른 것은 자기 자신이 그들에

게 아무런 도발적 행동과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이 부당하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 (4)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대적자들에게 무력으로써 대항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피해 다니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하였다.
- (5)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힘과 배경을 믿고서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무력으로 같이 대항하거나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참조, 단 3:12-28).

3. **㉠ 악인과 강포한 자가 매일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들은 중심에 해하기를 피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였다.
- (2) 여기에서 '중심'이란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써 그들의 악한 행위가 패역한 마음에서 출발했음을 보여 준다.
- (3)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당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 계획을 행하는 것이 결코 다윗 자신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 (4) 이와 같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해서 모인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한 결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마저 미워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대하 14:9; 마 13:8; 눅 16:8; 행 17:6; 벧전 4:18).
- (5)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행 2:47) 말씀을 나누며(행 20:7) 기도하고(행 4:31) 서로 교제하기 위해(행 2:42)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마 18:20).

4. **㉠ 남을 해하고 싸우기 위해 모이는 악인들의 상태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3절)**

- ㉠** (1)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毒蛇)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묘사되었다.
- (2) 여기에서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란 뱀이 무엇인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혀를 이리저리 내뱉두르는 상태를 가리킨다.
- (3) 또한 '독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크슈브>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본절에만 기록된 말로 뱀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뱀을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다.
- (4) 그래서 혹자는 본절의 독사가 욥 20:14에 기록된 독사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하면서 동일한 독사로 보았다. 이 견해를 70인역(LXX)과 벌게이트(Vulgate)역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받아들였다(롬 3:13).
- (5) 그렇게 볼 때 이 독사는 맹독을 가진 독사로서 사람이 한번 물리게 되면 그 상처를 즉시로 절단하지 않는 한 금방 그 무서운 독은 온몸에 퍼져서 이내 죽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 (6) 그런데 이러한 독사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들의 말을 다윗을 해하기 위해 악의로 가득 채우며 온갖 중상과 모략으로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매일 모여 광분하였다.

5. **㉠ 교만한 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사용하였는가? (5절)**

- ㉠** (1) 교만한 자는 다윗을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만들었다.
- (2) 여기에서 '교만한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게임>은 '거드름을 피우는 자'라는 뜻으로서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 즉 권세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자신의 권세에 자신 만만한 교만한 자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마치 사냥군이 동물을 잡으려고 무성한 수풀 속이나 잠목 또는 거치른 산 언덕에 함정과 덫과 그물을 치듯이 교묘한 술책과 음모를 강구하고 다윗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4)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은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개입하셔서 도와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방에 쳐놓은 그물과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다(참조, 1, 4절).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깨어 근신하지 않는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단과 세상에 속한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참조, 119:11, 105; 뱀전 5:8).

6. **㉠** 다윗은 여호와께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6절)

- ㉠** (1)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말했다.
- (2) 즉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의 거처와 힘이 되시며 그를 다스리시는 자요, 통치자요, 구원자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강한 신뢰가 엿보인다.
- (3) 이와 같이 다윗은 주가 자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시며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겸손히 확신하면서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7절).
- (4) 이처럼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다(참조, 히 13:8).

7. **㉠**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날에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7절)

- ㉠** (1)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날에 다윗의 머리를 가리우셨다.
- (2) 여기에서 '전쟁의 날'이란 전투가 벌어져 서로가 요란스럽게 무기를 맞부닥뜨리며 일대 접전을 벌이는 날을 가리킨다. 이날에는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위험한 날이다.
- (3) 이와 같이 언제 상대방의 칼날 아래 죽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위태한 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호의 손길을 펼치사 그의 머리를 가리우시며 보호해 주셨다. 여기서 '머리'란 인간의 육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력을 가진 부분이다.
- (4)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찬양했다.
- (5)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무수한 위험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즉 자동차, 물, 불, 연탄 가스 등과 같은 위험 속에 우리가 현재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임을 깨달아야 한다(34:7; 속 2:5).

8. **㉠**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의 계획과 소원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가? (8절)

- ㉠** (1)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自高) 할까 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다.
- (2)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소원을 억제하시고 그들의 목적과 시도를 꺾어 버려 주실 것을 간구하는 말이다.
- (3) 왜냐하면 그들의 소원이나 꾀란 선한 백성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불의한 것들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그들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는 증거라고 평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만한 자들은 번영할 때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하나님께 대해 무례하며 백성들에 대해서 오만하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은 다윗의 간구로 보아 인간의 온당치 못한 계획과 사악한 음모를 꺾으시며 그들의 술수를 기다리셨다가 적당한 때가 이르게 되면 부서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렘 49:30; 단 6:17-23; 행 4:25).

9. **㉠** '저희 입술의 해(害)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이 말은 다윗이 타인을 향해 내뿜는 악인들의 저주가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원이다.

- (2) 이와 같이 악인들은 남을 향하여 저주(10:7)와 꾀사(144:8), 거짓(63:11)과 악한 말을 하며(50:19) 신실하지 못한 말들을 지껄인다(5:9).
- (3)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범죄하기 쉽고 변변치 않은 생각으로 가장 큰 모독적인 죄를 발설하기 쉬운 곳이 입술이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함께 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듯이(약 4:10)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각자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며(34:1) 기도(삼상 1:12)와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엡 6:19) 지혜와 공의를 말하여야 한다(37:30).

10. ㉠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어떤 저주를 기원하였는가? (9, 10절)

- ㉠ (1) 다윗은 그들의 입술의 해가 그들을 덮으며(참조, ㉠9)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져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 (2) 여기에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고'란 유험왕로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무서운 종말을(창 19:24, 25) 암시하는 말로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신자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밝힐 때 종종 사용하였던 표현이다(11:6; 유 1:7).
- (3) 또한 '불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불로써'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깊은 웅덩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모르트>는 지진 등으로 땅에 생긴 '파열구' 혹은 '붕괴된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를 가리킨다.
- (4) 이와 같이 다윗은 그의 대적자들이 도저히 누우치지 않는 자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완전하게 패망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11. ㉠ 시인은 악담하는 자와 강포한 자가 어떻게 되기를 구하였는가? (11절)

- ㉠ (1) 다윗은 악담하는 자가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해달라고 구하였다.
- (2) 여기에서 '악담하는 자'란 '악한 말을 하는 자', 즉 '중상 모략자' 혹은 '욕하는 자'를 가리키며 '강포한 자'는 뱀같이, 독사의 독같이 은밀하게 이웃을 배반하고 교활하며 노골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자를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악담하는 자는 기만과 거짓과 비방으로 불의한 명성과 재물을 얻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는 혀는 잠깐 동안 뿐이지만 진실을 말하는 입술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10:12; 전 8:13).
- (4) 또한 강포한 자는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재앙이 따를 것이고 그로 인해 패망을 당하게 된다(104:35; 잠 13:6, 21, 22; 겔 18:20; 살후 1:9).
- (5) 한편 본절은 기원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악인들이 제아무리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삼하 3:39).

12.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신원(伸冤)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악인들로부터 가혹하게 시련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며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 (3) 이와 같은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의 재판관'이 되심을 선언하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선하고 정직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
- (4) 이러한 다윗의 선언은 경건한 자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궁극에 가서

는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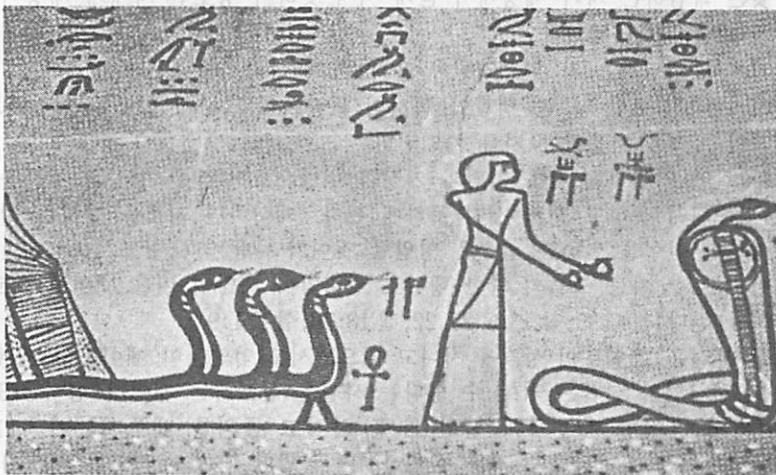
- (5)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의로운 핍박을 받을 때 좌절하거나 그로 인해 불의한 자들과 타협할 필요가 전혀 없다(참조, 마 10:22; 19:29).

13. ㉠ 의로운 자들은 구원의 결과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

- ㉠ (1) 의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는 주의 앞에 거할 것이다.
 (2) 즉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신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구원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위안과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며 사악한 무리들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4)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강과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상징한다(사 11:6-9).

화보자료

고분(古墳) 벽에 그려진 뱀의 형상. 아래의 사진은 이집트 테베에 있는 세티 1세(Sethos I, B. C. 1312-1289)의 무덤 벽에 그려져 있는 뱀의 형상이다.



뱀에 대한 성경상의 최초의 언급은 창 3장에 나온다. 여기서 뱀은 인간을 유혹한 사단의 분신(分身)으로 나온다. 한편 본시에서 언급되고 있는 뱀은 애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브라를 의미하는 듯한데 저자(著者)는 악인들의 험담을 '독사의 독'(3절)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 141 편 마음을 악에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단락구분 1-2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 3-4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 5-6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 7-10 나를 지키소서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3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5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 할지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6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7 사람이 발 같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 문에 흩어졌도다

8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9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음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10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1. ㉠ 본시에 나타난 주제를 설명하라.

- ㉠ (1) 본시는 하나님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시이다.
 (2) 즉 다윗은 본시를 통해 그의 대적 사울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의 영혼을 반성하고 제어하면서 보복이나 복수 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대적들 사이에서 심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
 (3) 한편 본시는 혹자에 따르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의 옷자락만을 잘랐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라고 한다(삼상 24:1-22).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절대 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참아내며 온전히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를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7-10절).

2. ㉠ 다윗은 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2) 즉 이것은 다윗이 이전에 드렸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그 응답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또한 '속히 내게 임하소서' 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가 겪고 있는 대적들로부터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도 없으며 대적들로부터의 압박은 더욱 증가되는 절대 절명의 상태에서도 다윗은 그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 간구의 소리를 높였다.

- (5)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기도를 중단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우상과 세상을 향해서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
- (6)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견책이기 때문이다 (참조, 눅 18:1-8).

3. **㉠**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무엇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는가? (2절)

- ㉠** (1) 그는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 (2) 당시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향로에다 분향을 하였고(참조, 출 30:7, 8; 민 16:40) 그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드렸다(참조, 눅 1:9, 10). 그런데 저녁에는 희생 제물이 제단 위에 먼저 바쳐진 후 분향을 드렸다.
- (3) 이때에 향의 연기는 위로 올라가며, 향내음은 성소를 가득히 채우는데 이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와 소망과 믿음을 상징하며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참조, 창 8:21; 레 26:31).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 분향과 제사에 의해 성결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다윗은 이 약속에 의지하여 구하였다(참조, 출 30:38-42).
- (5)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영혼의 제사이며 하나님께 대한 가장 높은 애정의 예물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계 5:8; 8:3, 4).

4. **㉠** 시인이 자신의 입술에 구한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 (2) 그것은 자신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적의 부당한 꾀박과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 위증, 저주, 모략, 중상 등과 같은 불의한 것들을 실수로라도 발설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입에 굴레를 씌워서 자제하며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그 자신의 결심과 힘으로는 충분히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하였다(참조, 140편 ㉠4).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자칫 잘못하면 입술을 통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극복하고 온전히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여야 한다(참조, 127:1; 잠 13:3; 약 1:26; 벰전 3:10).

5. **㉠**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지켜 주시도록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며 그들의 진수(珍羞)를 먹을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진수'란 육체적 쾌락을 나타내는 말로 악인들이 부정하게 얻은 음식들을 가리킨다(참조, 잠 4:17; 9:5). 이 같은 쾌락은 매우 유혹적이다(73:10).
- (3) 다윗은 이와 같이 단지 입술의 보호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 근원이 되는 마음의 보호를 하나님께 요청하였다. 그것은 마음에서조차도 악인들이 그에게 행한 것을 저주하고 복수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와 마음을 살피지 않으신다면 죄악으로 물든 언어와 생각들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어렵다(참조, 잠 16:32).

- (5)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보다 패역한 일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죄는 육신적인 생각과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쾌락적이며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이다(딤후 2:14; 요일 2:16).
- (6)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 불식간(不知不識間)에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3:3-8).

6. **㉠** 시인은 의인의 책망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었는가? (5절)

- ㉠** (1) 다윗은 의인이 그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거절하지 않겠노라고 말하였다.
- (2) 즉 이 말은 다윗 자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불의와 타협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겸손히 시인하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자들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일겠다는 각오를 보여 준다.
- (3) 한편 본절에서 '머리 기름'이란 환대의 표시(대하 28:15; 눅 7:46) 임과 동시에 사랑의 표시(눅 7:37, 38; 요 11:2; 12:3), 하나님의 축복(23:5)을 나타낸다. 이것은 다윗이 의인의 징계의 책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 (4)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아비가일의 호소를 듣고 나발을 죽이지 않으므로 살인죄를 짓지 않은 사건(삼상 25:23-35)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 그것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다(삼하 12:1-15).
- (5) 그러므로 성도는 의인의 책망을 인내와 친절로써 받아들이고 사랑과 은총의 징표로서 겸손히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의인의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죄에 대한 회개에로 인도하여 성도가 죄에 빠지는 것을 억제해 주기 때문이다(잠 25:12; 27:6; 전 7:5).

7. **㉠** 본절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 (6절)

- ㉠** (1) '저희의 관장(官長)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달므로 우리가 들으리로다'라는 다윗의 말은 선하고 경건한 자들을 부당하게도 박해하던 악한 방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오해 되어서 그릇된 길로 갔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사건을 가리킨다.
- (2) 여기에서 '저희의 관장'이란 자신들이 유일한 관장이라고 자처하면서 다윗을 심판하고 저주했던 사울과 그의 신하들을 가리킨다.
- (3) 흑자는 본절을 언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단지 그의 옷자락만을 자르는 관대함을 베푼 후 동굴을 나와 사울의 뒤에서 그에 대한 따뜻한 충고를 하자 사울이 그 호소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후회하였던 사건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삼상 24:1-22).

8. **㉠**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움부 문에 흩어졌도다'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7절)

- ㉠** (1) 이 말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 하나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자들을 토벌하여 모두 무덤 속으로 던져 버리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 (2) 본절에서 '우리의 해골이 움부 문에 흩어졌도다'라는 말은 마치 노상의 강도들이 길가는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 시체를 길가 풀속 속에 내동댕이친 것과 같이 사울과 그 무리들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잔인하게 취급했음을 드러내 준다.
- (3) 이와 같이 사울과 그 무리들은 그를 피해 도망하는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단지 다윗을 도와 주었다는 명목으로 잔인하게 살해하였고 또한 제사장들의 성읍 늪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소와 나귀와 양을 살륙하였다(삼상 22:10-19).

(4)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한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기면서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뼈가 부서지고 흠어지는 경우를 당하게 될 때에라도 생명과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합3:17, 18).

9. **㉠** 시인은 자신의 해골이 움부 문에 흠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의 눈을 누구에게로 향했는가? (8절)

- ㉠** (1) 그는 대적들로 인한 역경하에서도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2) 즉 이것은 시인 자신의 처한 환경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고독하고 슬픈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그를 의지하였음을 의미한다.
 (3)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소망하면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라고 간구하였다.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사면 초가(四面楚歌)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로 자신의 눈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보호와 인도 축복이 있지만(출 34:6, 7; 사 57:15; 렘 32:17, 27; 애 3:22, 23; 요 일 4:8, 17) 세상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불경건과 육신의 정욕과 온갖 불의가 있기 때문이다(요일 1:10; 2:15; 3:1).

10. **㉠** 악인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9, 10절)

- ㉠** (1) 행악자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음모와 함정을 놓았다(참조, 140편 ㉠ 5).
 (2) 다윗은 이와 같은 절대 절명(絶對絶命)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 주시며 그들의 음모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3)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악인들이 파놓은 은밀한 음모와 함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4) 더 나아가 다윗은 악인이 자기 그물에 걸리도록 기도하였다. 그것은 다윗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외면하고 선한 자들을 핍박하는 행악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파놓은 죄의 굴레에 스스로가 걸리게 만드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무리들은 성도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동원해 핍박하는 적극 공세를 취하기도 하지만(욘 1:9-19; 2:4-10; 애 3:1-15; 단 3:1-30) 때로는 성도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와 분쟁과 탐욕 등을 일으키는 은밀한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막 7:21-23; 롬 1:29-31).
 (6)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의 무리를 대적하고 그들의 은밀한 공격을 분별하기 위해 진리의 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겹, 믿음으로 전신 갑주(全身甲冑)를 입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엡 6:10-18).

본장의 요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1절).

제 142 편 나를 건지소서

단락구분 1-2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 3-4 대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음무를 숨겼나이다 / 5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 6 나를 건지소서 / 7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이다

1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3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음무를 숨겼나이다
 4 내 우편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5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6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뒤흔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7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 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1. Q 시인은 어떠한 심정으로 본시를 노래하고 있는가?

- A (1) 본시는 다윗의 작품으로서 그가 사울에게 쫓겨 굴에 숨었을 당시 고독과 절망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열렬한 기도이다.
 (2) 즉 다윗은 본시를 통하여 그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도와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건져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3) 한편 본시는 마스길, 즉 명상시, 교훈시라고 불리며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들 중 마지막 시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윗이 숨었던 동굴에 대해서도 아들람의 동굴(삼상 22:1) 혹은 엔게디 동굴(삼상 24:3)로 여겨지고 있다.
 (4)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으면서도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다윗처럼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잃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3-7절).

2. Q 다윗은 대적들로 인한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1, 2절)

- A (1) 다윗은 소리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원통함과 우환(憂患)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였다.
 (2) 여기서 '그의 원통함과 우환'이란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무리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뒤쫓는 것을 가리킨다.
 (3) 이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복수심을 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털어놓고 부르짖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간절한 탄원이었다.
 (4) 즉 이런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큰 음성과 한쉬인 낫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가 된다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열도 높은 외침이었다(55:17; 102:1).
 (5) 한편 혹자는 다윗의 부르짖음이 실제로 입술을 통하여 큰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정신적인 기도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 Henry). 왜냐하면 그가 그 당시 있었던 장소가 엔게디의 동굴로서 사울도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삼상 24:1-3).

(6) 오늘날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윗과 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성도의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더라도 성도가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엡 6:18; 살전 5:17; 약 5:13).

3. **㉠ 시인은 자신의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누가 그의 길을 아셨다고 했는가? (3절)**

- ㉠** (1) 다윗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2) 여기에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숨' (breath), '바람' (wind), '영' (spirit)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영'에 해당된다. 이 영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각, 감각, 의지를 지니고 있다.
 (3) 그러므로 이 영이 속에서 상할 때란 대적들에게서 초래된 위험으로부터 빠져 나갈 안전한 출구가 없어 공포와 슬픔과 절망으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4) 그러나 다윗은 이같이 안전의 출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알고 계셨다고 고백하였다.
 (5)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압당한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예비하셨음을 확신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나 1:7; 요 10:14; 딤후 2:19).

4. **㉠ 다윗은 자신의 고립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4절)**

- ㉠** (1) 다윗은 자신의 우편을 살펴보아도 그를 아는 자와 피난처와 그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표현하였다.
 (2) 여기에서 '우편을 살펴 보아도...었다'라는 표현은 다윗을 변호해 주거나 그가 처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를 보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3) 그 이유는 옛 유대 법정에서 피고의 '오른편'에 섰던 사람이 피고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이며 또한 전쟁시에는 그를 도우는 자나, 보호자, 옹호자가 역시 '오른쪽'에 섰기 때문이다(참조, 109:6, 31; 110:5; 121:5).
 (4) 이와 같이 다윗의 대적자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들을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만으로 무참히 살해하자 더 이상 다윗에게 공식적으로 피난처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5) 따라서 다윗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극도의 고립감을 느꼈으며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5절). 한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다윗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참조, 사 63:5).
 (6)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친구들이 죽음과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친절과 보호와 인도의 손길을 변함없이 내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14:6; 렘 17:17; 요 15:14).

5. **㉠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였는가? (5절)**

- ㉠** (1) 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기이라고 고백하였다.
 (2) 즉 다윗은 하나님만이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며 그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였다.
 (3) 이것은 그가 당시 패신하고 있는 동굴이 일시적이고 빈궁한 피난처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그가 의지할 진정한 성이라는 사실과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비록 대적에 의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그 자신의 마음의 갈등에 의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

들로부터 피난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음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이 이 세상의 죄악과 생활의 걱정과 죽음의 공포와 인간의 간교함과 간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와 분깃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애 3:24; 고전 10:13; 살후 3:3; 계 3:10).

6. **㉠**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였는가? (6절)

- ㉠** (1)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심히 비천(卑賤)한 자'라고 고백하였다.
 (2) 여기에서 '비천'이란 이 세상의 명예나 재물, 권력 등과 같은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을 의미한다(참조, 왕상 3:6-14; 빌 3:3-7).
 (3) 그런데 다윗은 '비천'이라는 말 앞에 '심히'라는 말을 첨가시켰다. 곧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부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상태임을 말해 준다.
 (4) 다윗이 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본래 겸손한 자이기도 했지만 그를 폄박하는 사울의 무리들이 수적으로 너무 많고 강하여서 단지 그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로는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삼상 22:2).
 (5)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을 때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탈출의 희망이 전혀 없던 동굴에서 그를 구해 주셨다(왕상 24:1-7).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며 그들을 들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고전 1:28; 고후 7:6).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비천함을 철저히 깨달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7. **㉠**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하였는가? (7절)

- ㉠** (1) 다윗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라고 말하였다.
 (2) 여기에서 '옥'이라는 말은 고통과 역경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써 다윗이 사울을 피해 지낼 때의 제약받던 상태를 가리킨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까닭은 그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케 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다윗의 구원을 목격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며 다윗이 겪은 경험과 교훈을 듣기 위해 그에게 물려와 그를 둘러쌀 것이다.
 (4) 한편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 다윗의 구원 사건이 결코 그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고', '후대하신'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5)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역경 중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하도록 도와 주는 일이다(참조, 66:16; 사 63:7).

제 143편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단락구분 1-2 내 간구에 응답하시고 심판을 행치 마소서 / 3-4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나이다 / 5-6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 7-11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 12 원수를 멸하소서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4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5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6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셀라)

7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

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8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이니이다

9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0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1 여호와여 주의 이름읍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1. ㉠ 본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본시는 다윗의 시로서 원수가 주는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염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2) 즉 본시는 자비에 대한 호소(1,2절)와 암담한 현실에 대한 슬픔(3,4절),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5,6절), 구원과 인도와 설욕에 대한 간구(7-12절)를 그 내용으로 한다.

(3) 한편 70인역(LXX)과 벌게이트(Vulgate) 역의 어떤 사본들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에 '그의 아들 암살됨이 그를 쫓을 때'라는 문구가 첨부되어 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본시가 다윗이 암살됨에게 박해받을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Keil and Delitzsch).

(4) 또한 본시는 시편에 나오는 일곱 개의 회개 시 가운데 마지막 시이다(6, 32, 38, 51, 102, 130, 143편).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기도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임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

2. ㉠ 다윗은 그의 기도가 무엇으로 응답되기를 구하였는가? (1절)

㉠ (1) 다윗은 그의 간구가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되기를 구하였다.

(2)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가리키며 '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체다카>는 율법적 의미에서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로운 약속을 나타내는 말이다.

(3)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운 속성에 호소를 하는 이유는 만일 그가 율법의 의로움 대로만 응답을 받는다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완전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참조, ㉑3).

- (4)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형식과 중언 부언하는 자세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대로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이 오기를 구하여야 한다(마 6:5-15).

3. ㉑ 다윗이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㉑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실과 의로 은총을 베푸지 않으시고 율법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에서 다윗 자신이 구원을 받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 (2)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면 그 심판을 피할 만한 의로운 인생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 (3)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활과 행위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음을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기 앞서 먼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겸손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 (5) 뿐만 아니라 성도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롬 3:10)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함이 마땅하다(참조, 롬 1:17; 갈 3:11).

4. ㉑ 시인의 심령의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 4절)

- ㉑ (1) 그것은 다윗의 원수가 그의 영혼을 핍박하며 그의 생명을 땅에 엎어서 그를 죽은 지 오랜 자갈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죽은 지 오랜 자'란 '오래 전에 죽은 자들'을 뜻한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의 박해로 큰 슬픔을 당하며 거의 죽게 된 상태를 죽은 사람으로, 더 나아가 부패한 시체로 비유하였다.
- (3) 그러므로 본질은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 주시지 않는다면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그가 처해 있다는 것과 그런 와중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였음을 암시한다.
- (4) 본 문제에서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2편 ㉑3을 참조하라.

5. ㉑ 다윗은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5절)

- ㉑ (1) 다윗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했다.
- (2) 여기에서 '옛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케뎀>은 다윗이 유년 시절부터 겪은 개인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포함한다.
- (3) 그리고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아흐>는 '입으로 선포하다'와 '마음에 결심하다'라는 뜻인데 이와 의미가 비슷한 '묵상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가>를 시인이 다시 한번 사용한 것은 간절한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 (4)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혜와 권능과 인자로 베푸신 행사와 세상을 섭리하시는 통치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았다.
- (5) 이와 같이 성도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약해지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제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6. ㉑ 시인은 원수의 핍박 속에서 누구를 사모하였는가? (6절)

- ㉑ (1)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다.
- (2) 여기에서 '손을 펴고'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가리킨다(출 17:9-12).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이끌고 손을 펴 기도하며 구원을 소망하였다.

(3) 또한 다윗은 그의 영혼을 하늘을 향해 비를 기다리는 메마른 땅(참조, 렘 14:4)에 비유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열심을 표현하며 그를 죽음과도 같은 원수의 꾀박(3절)으로부터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열망하였다.

(4) 이와 같이 성도가 세상의 꾀박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위로를 갈망하는 것이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참조, 63:1; 마 5:6; 계 7:26).

7. **㉠** 다윗이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시도록 간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1) 그 이유는 당시 다윗이 원수들의 꾀박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피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 '피곤하니이다' 라는 말은 '쇠약하다', '연약해지다' 라는 뜻으로서 다윗이 거의 죽게 된 절박한 상황을 나타낸다.

(3) 이와 같이 긴급한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시도록 재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재촉은 불신앙으로 인한 조급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인한 조급함이었다.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한 번의 기도로 만족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참조, 창 18:32; 32:26; 눅 22:44).

8. **㉠** 시인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라고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는 결과로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백성들의 지은 죄로 인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시고 더 이상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사 1:15; 59:2; 64:7).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호 5:6; 미 3:4).

(4) 따라서 다윗은 본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을 때 어떠한 희망이나 구원의 여지도 전혀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열망하였다.

(5)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난 삶이 결코 희망과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 죽음의 상태를 분명히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눅 9:23; 11:3; 고후 4:16).

9. **㉠**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에게로 피했는가? (9절)

㉠ (1)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로부터 그를 지켜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여 숨었다.

(2)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만이 그의 방패와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였음을 보여 준다. 즉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졌다.

(3)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여러 수단에게서 피난처를 찾으려하며 하나님께로 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피하려는 시도를 한다.

(4)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권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마저도 스스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해결책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도움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33:20).

10. ㉠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절)

- ㉠ (1)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준수하며 행하게 해달라는 뜻이다.
- (2) 이처럼 다윗은 외부적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그의 주인으로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굴복하고 절망하여서 패배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도록 구해야 한다 (119:67; 욥 23:10; 고후 4:17; 히 12:11).

11. ㉠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10절)

- ㉠ (1) 이 말은 다윗이 원수들의 꾀박과 압제가 없는 안전하고 평온한 땅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말이다.
- (2) 여기에서 '평온한 땅'이란 비틀거릴 필요가 없는 평탄한 땅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위협이나 어두움이 전혀 없는, 기쁨으로 가득찬 하늘나라를 가리킨다.
- (3) 이와 같은 평온한 땅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의 세력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 (4)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권세자와 원수들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으며 항상 그들의 눈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간구한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단의 추종자들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요 16:13; 롬 15:6; 고후 1:22).

12. ㉠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온다고 고백하였는가? (11절)

- ㉠ (1)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간구하였다.
- (2)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그의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후히 베푸시는 은혜에 의한 것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과 의를 보여 주시는 표적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 (4) 한편 이 같은 하나님의 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셨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5)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소유하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의를 찬양해야 할 것이다 (롬 3:24; 11:6; 엡 2:8; 딤후 3:7).

13. ㉠ 시인은 그의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는가? (12절)

- ㉠ (1)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
- (2) 이 같은 시인의 기도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꾀박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손을 댈 때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다.
- (3) 한편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그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의 속한 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말 4:1; 마 3:12; 요 3:36).

14. **㉠**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12절)

㉠ (1)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칭하였다.

(2) 여기에서 '주의 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브데카>는 그 원형이 <에벤>인데 이 말은 단순한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에게 귀속되어서 주인의 소유가 된 '노예'를 가리킨다.

(3) 따라서 다윗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면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대로 살 것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인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4) 그러므로 '주의 종'이라는 개념은 결코 세상적인 명예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서 이 특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자들만이 고백 할 수 있는 말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면서 실제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주의 종의 역할을 행하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말이 입술에서만 맴도는 말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말임을 명심해야 한다(딤후 2:24; 벰전 2:16).

화보자료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래의 사진은 롬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으로서 의(義)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의인들을 구해 내시는 사실을 묘사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행실이 올바르며 심성(心性)이 순전한 자를 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뜻한다(잠조, 장 6:9; 히 11:7). 그러므로 의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자신의 행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롬 3:28).

제 144 편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단락구분 1-4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로다 / 5-8 대적을 흠으시고 피하소서 / 9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 10-11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 12-15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2 여호와와 나의 인자시오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오라

3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4 사람은 헛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5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발하게 하소서

6 번개를 번득이사 대적을 흠으시며 주의 살을 발하사 저희를 파하소서

7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8 저희 입은 궤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

의 오른손이니이다

9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10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오라

11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궤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2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13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로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15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 Q 본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A) (1) 본시는 다윗의 작품으로서 기도와 찬양이 혼합되어 있다. 즉 다윗은 본시를 통해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훈을 찬송하면서 현재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며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축복을 기원하고 있다.
- (2) 한편 70인역(LXX)과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는 본시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관하여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첨부되어 있다.
- (3) 그러나 본시의 내적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여기에 언급된 원수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암몬 족속과 수리아 족속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삼하 10:1-19).
- (4) 그리고 본시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과 그들이 받을 축복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본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누리게 될 축복을 배울 수 있다(12-15절).

2. Q 다윗은 누구를 찬송하였는가? (1절)

- (A) (1) 다윗은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 (2) 여기에서 '반석'이란 '견고함'(사 33:16), '굳음'(욘 28:9)을 그 특징으로 한다.

- (3)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한 것은 그가 이제까지 활동하며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모든 능력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다(참조, ㉑ 3, 4).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을 타락시키며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무수한 죄의 요소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3. ㉑ 다윗에게 싸움을 가르친 자는 누구인가? (1절)

- ㉑ (1)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라고 고백하였다.
- (2) 즉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미친한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전사(戰士)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전쟁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다. 이것은 결국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낸다(삼상 17:45-47).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전쟁을 모두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 대한 영적 전쟁도 주관하신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에 당신의 전신 갑주로 무장시켜 사단을 대적하게 하시며 물리치게 하신다(참조, 엡 6:10-18; 벧전 5:8, 9).

4. ㉑ 시인은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고백하였는가? (2절)

- ㉑ (1) 시인은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라고 고백하였다.
- (2) 이와 같이 다윗은 목동이라는 비천한 신분과 원수들의 핍박과 중상 모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방 적과 싸워 승리하며 동시에 나라가 평화스럽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감사하였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동행하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인위적으로 만든 요새나 자연의 어떤 피난처보다도 더 확고하며 의지할 만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사4:7; 91:4; 125:2; 왕하 6:17; 단 6:22).

5. ㉑ 다윗은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였는가? (4절)

- ㉑ (1) 다윗은 사람이 헛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하였다.
- (2)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사람을 ‘바람’ (78:39), ‘진토’ (103:14), ‘풀’ (사 64:6), ‘안개’ (약 4:14), ‘별레’ (욥 25:6)라고 칭하였고 우주 안에 작은 존재(8:4), 하나님과 비교할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사 40:22) 등과 같이 묘사하였다.
- (3) 이외에도 사람의 연수에 관해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 (90:10)이라고 기록하면서 사람은 자신의 머리카락조차도 변화시키거나(마 5:36) 키를 더할 수 없는(마 6:27) 존재라고 하였다.
- (4) 이러한 모든 표현은 인간의 나약함과 비천함, 유한성을 나타낸다. 다윗은 이와 같은 인간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즉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가 있게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날들을 아끼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벧전 2:18-20).

6. ㉑ 시인이 대적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는 무엇인가? (5, 6절)

- ㉑ (1)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발하게

하소서 번개를 번득이사 대적을 홀으시며 주의 살을 발하사 저회를 파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 (2) 여기에서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란 폭풍이 불 때 짙은 구름이 땅에 낮게 드리워져서 언덕과 산을 가림으로 인해 마치 하늘과 땅이 함께 섞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임재하시는 모습을 비유한다.
- (3) 그리고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발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시내 산에 강림하셨던 모습을 의미한다(출 19:16-20).
- (4)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자신의 비천함과 보잘것없음을 깨달은 이후(1-4절)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 야기된 위급한 상황에서(삼하 10:1-19)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7. **㉠** '큰 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7절)

- ㉠** (1) '큰 물' 또는 '깊은 물'은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험이 몰려오고 있음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사 17:12; 겔 26:19; 은 2:3) 다윗은 그의 원수, 즉 이방인들의 침략을 '큰 물'로 비유하였다(참조, 18:16).
- (2) 다윗은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능력의 손을 펴서 그를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참조, 18:16-18).
- (3) 이와 같이 성도는 불신자들의 꾀박이나 세상의 고난과 같은 크고 깊은 물이 몰려올 때 스스로의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써 그 물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해야 할 것이다(참조, 89:13).

8. **㉠** 다윗의 대적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8절)

- ㉠** (1) 그들의 입은 꾀사(詭詐)를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었다.
- (2) 여기에서 '오른손'은 '맹세'와 '언약'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당시 경건한 맹세를 할 때에 맹세하는 자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하였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거짓말을 하며 사악한 일, 곧 이스라엘 침략을 감행하였다(참조, 11절; 삼하 10:1-19).
- (4) 그러므로 인간의 힘이나 권력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참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이다.

9. **㉠** '새 노래'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9, 10절)

- ㉠** (1) '새 노래'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느낀 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리킨다.
- (2) 다윗은 이 같은 새 노래로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를 해(害)하는 칼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3) 즉 이것은 왕들, 즉 스스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해하는 칼, 곧 여러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왕위에 올랐고 그 후에도 대적들과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 야기된 위급한 상황에서도 왕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나타낸다.

10. **㉠**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어떻게 비유되었는가? (12절)

- ㉠** (1)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로, 이스라엘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式樣)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돌'에 비유되었다.
- (2) 한 나라의 장래가 현재 자라나고 있는 젊은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이러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정결하고 지혜로우며 아름답게 자라나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

로 이스라엘의 희망찬 미래를 예고한다.

- (3)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온갖 종류의 축복(12-14절)이 내려졌음을 찬양하였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자녀들의 성장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하며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서 키워야 한다(참조, 신 6:7; 잠 22:6; 고후 12:14; 엡 6:4).

11. **㉠** 이스라엘의 물질적 축복은 어떠했는가? (13, 14절)

- ㉠** (1) 이스라엘의 풍요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百穀)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라고 묘사되었다.
- (2) 당시 양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의 털은 교역의 품목이었고(참조, 겔 27:18) 그 털로 옷을 만들 수 있었다(잠 27:26). 따라서 양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 (3) 또한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기르는 수소들이 비육하게 되며 무거운 짐을 어렵지 않게 실어나를 정도로 튼튼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 (4)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풍요하게 된 이유를 다윗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겸손히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5절).
- (5)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속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신 30:9, 10).

12. **㉠** '침노(侵擄)하는 일이 없으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절)

- ㉠** (1) 그 말은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성문과 성벽을 무너뜨리고 침략해 오는 일이 없는 평화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 (2) 따라서 침략해 오는 적이 없으므로 나아가서 방어하는 일들도 없으며 그로 인해 전쟁의 포로나 사상자(死傷者)들도 없게 되어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들의 호곡 소리가 끊기게 되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겸손히 섬기는 백성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펼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특히나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가 요구된다.

13. **㉠** 다윗은 어떤 백성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는가? (15절)

- ㉠** (1)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하였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 있음을 보여 준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곧 복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화임을 깨닫고(73:28) 이 같은 교훈을 가정, 사회, 국가 등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참조, 1:1-6; 엡 5:8; 살전 5:5-11).

연구자료

번개와 뇌성

성경에 나타난 번개와 뇌성은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 때문에 신적(神的)인 사건을 설명할 때에 많이 인용되었다. 본시에서도 번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시는 수단으로 나타났다(6절). 본

고는 이와 같은 번개와 뇌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번개(lightning)

히브리어로는 '번갯불'을 의미하는 <바자크>와 (겔 1:14) '번개가 번쩍임'이라는 뜻의 <바라크>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6절; 18:14; 97:4; 렘 10:13; 단 10:6; 속 9:14). 번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며(계 4:5; 11:19)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마 24:27; 눅 17:24). 또한 악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번개로 묘사되기도 하였다(속 9:14; 계 8:5; 16:8).

2. 뇌성(thunder)

뇌성(히, 쾰)은 번개(욥 28:26), 우박(출 9:23), 비(삼상 12:17) 등 폭풍의 다른 현상들과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뇌성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고도 강대하심을 나타내기도 했다(욥 26:14).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도 이러한 뇌성으로 표현되어 그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기도 하였다(29:3-9; 신 5:22; 전 5:5; 요 12:28, 29). 또한 뇌성은 번개와 함께 쓰여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나타내기도 했다(계 4:5).

이러한 번개와 뇌성은 고대로부터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자연 현상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셨다(8:1; 19:1, 2; 롬 1:20).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알기 쉽게 자신의 속성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보여 준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실 때에 자연의 많은 현상들을 인용하셨다(마 6:26, 28; 요 3:8; 15:1-5).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연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폭풍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깨달으며 미풍(微風)과 따스한 햇살, 맑은 공기 등을 통하여서는 그분의 사랑과 자애로우심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제 145 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頌祝) 하리이다

단락구분 1-2 내가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 3-7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 8-10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리이다 / 11-13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 14-16 주의 인자는 크시 니이다 / 17-20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 21 만민이 주의 성호(聖號)를 영영히 송축할지리다

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4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5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목상하리이다

6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8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느도다

10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11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12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13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14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느도다

15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16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니이다

17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18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도다

19 저는 자기를 정의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21 내 입이 여호와와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리다

1. ㉠ 본시의 내용상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마지막 시로서 전시(前詩) 끝부분에 이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145-150편까지의 시는 시편 전체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다.
- (2) 한편 본시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된 시편 가운데 (25, 34, 37, 111, 112, 119편) 마지막 시로서 이 시의 운율적인 배열은 각각 7절씩으로 이루어진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즉 다윗은 일반적인 인간들에게 (1-7절),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8-1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15-21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언급하고 있다.
- (4) 또한 본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답게 찬송으로 시작되어 찬송으로 끝나며 ‘송축’ 또는 ‘찬양’이란 말의 잦은 반복과 더불어 ‘크신’, ‘모든’ 등의 말들도 자주 등장한다.

2. ㉡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였는가? (1절)

- Ⓐ (1)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불렀다.
 (2) 이 호칭 속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며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으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그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였음이 잘 나타나 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빌 2:12-16).

3. Ⓢ 시인은 날마다 누구를 찬송하였는가? (2절)

- Ⓐ (1) 시인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2) 즉 다윗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결심을 하였다.
 (3)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다윗을 포함한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상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그때가 가장 즐거운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아무리 바쁘고 슬픈 날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1:3, 4).

4. Ⓢ 다윗은 이스라엘이 주의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였는가? (4절)

- Ⓐ (1) 다윗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주의 행사를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주의 행사’나 ‘주의 능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해 내어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며 지금까지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로써 인도해 주셨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3)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현(現)세대는 후(後)세대에게, 후세대는 다가올 또 다른 후세대에게 본을 보여 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계속 될 것을 예언하였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참조, 신 6:7; 잠 22:6; 딤후 전 3:4).

5. Ⓢ 시인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해 말할 것이라고 하였는가? (6절)

- Ⓐ (1) 시인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에 관해 사람들이 말할 것이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이란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출 7:14-12:36)이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킨 일(출 14:26-28) 등과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리킨다.
 (3) 이와 같은 사건들은 성도들에게는 택한 백성에 대해 의와 친절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지만 반면에 죄인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일층 강화시켜 준다(참조, Ⓢ 6).

6. Ⓢ 주의 두려운 일에 관해서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7절)

- Ⓐ (1) 그들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것이다.
 (2)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비우>는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말하는 것을 뜻하다. 또한 ‘노래할 것이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라네누>는 소리치다, ‘크게 노래하다’라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을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7. **㉠** 본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찬양하였는가? (8절)

- ㉠** (1) 다윗은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찬양하였다.
- (2)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천사로부터 가장 천한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선대(善待)하시며 긍휼을 베푸신다(9절).
- (3)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한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이나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마 5:45).
- (4)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들에게는 그지없이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의 손길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전혀 소중한 것이 못 된다.
- (5) 왜냐하면 악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죄를 저지르고 타락한 행위를 자행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자기들에게 내리자 그만 방자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더욱 최악의 늑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기 때문이다.
- (6) 결국 이와 같은 계속적인 범죄는 그들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셨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삼하 3:39; 욥 20:5; 전 8:13; 살전 5:3).

8. **㉠** 다윗은 하나님의 선대와 긍휼에 대해 피조물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는가? (10절)

- ㉠** (1) 다윗은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할 것이라고 했다.
- (2) 여기에서 '주의 성도'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그들의 온 생애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을 가리킨다(참조, 롬 6:4; 갈 5:6; 엡 4:1; 5:2; 요일 1:7; 2:6).
- (3) 한편 본절에서 '주께 감사하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give thanks)는 뜻이며 '송축하리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는 '은총을 빌다'(bless), '찬미하다'라는 뜻이다.
- (4)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부를 임무가 주어졌지만(65:13; 69:34; 98:8; 사 44:23)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찬송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송축'이라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음을 선포하였다.
- (5)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송축의 임무가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는 복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참조, 대상 16:35, 36; 느 9:5).

9. **㉠** '주의 나라'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가? (11-13절)

- ㉠** (1) 주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 (2) 다윗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 실체들로 구성된 영원한, 영적인 왕국이며 거룩한 곳이다(참조, 눅 4장 ㉠24).
- (3) 그러므로 성도는 유한하며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언제나 변화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까닭은 성도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참조, 엡 4:1-32).

10. **㉠**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였는가? (14절)

- ㉠** (1)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卑屈)한 자를 일으키시는데

다' 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넘어지는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노펠림>은 '서 있을 수 없는 자'란 뜻으로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비굴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푸림>은 허리를 숙이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에 굴복하는 자를 가리킨다.
- (3) 다윗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요 지지자라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들과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고통에서 치료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전 1:27, 28).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사랑하며 교만히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문벌, 재물, 지혜, 육체 등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먼지보다도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다(고전 1:26, 29).
- (5) 그러므로 고통당하고 세상의 있는 자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약한 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여기고 의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참조, 91:1-16).
- (6)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었다(눅 4:18, 19).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돕는 것이 의무임을 기억하여야 한다(약 1:27).

11. Q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앙망(仰望)하는 중생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가? (15, 16절)

- A (1)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중생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 (2) 여기에서 '중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콜>은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란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피조물들의 입을 벌려서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물을 그들의 입에 넣어 주신다는 뜻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모든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분이시다(136:25; 147:9; 마 6:26).
- (4) 이처럼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만큼 잘 배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수많은 인간들이 굶어 죽고 새나 짐승, 수목 등과 같은 자연물이 파괴되며 쇠잔(衰殘)하게 된 이유는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빼앗아 가셨기 때문이다(참조, 호 2:9; 4:1-3).
- (5)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지구상의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근과 생태계의 파괴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참조, 19:1-6).

12. Q 다윗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어떻게 찬양하였는가? (17절)

- A (1)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찬양하였다.
- (2) 즉 이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하여 다윗이 직접 체험한 것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롭고 은혜스럽지 않은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그마한 환난과 고통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신 양 그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터뜨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참조, 은 4:1-11).

13.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18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형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며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뜻이다 (렘 29:13; 요일 5:14).
- (3)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계시겠다고 하셨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며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만큼이나 더 큰 위로와 보호, 기쁨을 주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임과 동시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성도가 취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참조, 막 11:24; 요일 3:22).

14. ㉠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 (2) 여기에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형식적일 수가 없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잠 22:4).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말 4:2).

15.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2)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데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지키는 자를 가리킨다.
- (3) 따라서 다윗은 본질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경건의 뿌리이며 신앙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 (4) 한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오늘날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여야 한다 (참조, 요일 4:16, 17).

16. ㉠ 악인들의 결과는 어떠한가? (20절)

- ㉠ (1) 악인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것이다.
- (2)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샤임>은 부도덕하고 인격이 바르지 못한 자, 즉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죄짓기를 즐겨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 (3) 악인들은 처음에는 승리하며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37:35; 73:3; 렘 12:1) 그들의 기쁨은 단지 순간적이고 현세적일 뿐이다 (욥 20:5; 눅 16:25).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준엄한 심판을 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31:23; 삼하 3:39; 잠 10:24).
- (5)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시기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죄로 인한 악인들의 번성이 곧 자신들이 받을 심판의 분량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조, 1:4, 5; 잠 10:25; 12

:2, 7; 합 1:13-2:3).

17. **㉠**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 ㉠** (1) 다윗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리이다' 라고 하였다.
- (2) 즉 이것은 다윗이 숨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였음을 보여 준다.
- (3) 그는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요청하면서 본시를 끝맺었다.
- (4)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에 동참하게 된 성도들이 입술로써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고 찬양을 돌리는 일임을 알 수 있다(34:1; 71:15; 수 1:8; 엡 6:19).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며 형제를 시기, 질투하고 꾀사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성도의 할 바가 아님을 깨닫고 더러운 말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나 버리며 주께 열납될 만한 아름다운 말들을 하여야 할 것이다(19:4; 39:1; 엡 4:29; 골 3:8; 약 3:1-12).

연구자료

본서에 나타난 저주와 복수. 본서에는 악한 자들이 벌을 받기를 원하는 내용의 복수와 저주의 시들이 있다(참조, 7, 35, 58, 137, 140편). 이러한 시들은 이웃과(레 19:17, 18) 원수를(출 23:4, 5)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우리는 과연 이런 시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결(聖潔)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죄나 악이라도 결코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시다. 본서의 기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체험하여 바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웬만한 죄나 악에 대해서는 묵인 내지는 합리화시켜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본서의 기자들이 지닌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나치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악인의 멸망이 선의 승리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악과의 공존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의(義)의 절대적인 승리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며(참조, 유 1:9) 인간들은 단지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할 뿐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본서의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원수들을 징벌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다(7:8, 11; 58:6-9). 결론적으로 본서에 표현된 저주와 복수의 시들은 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서 결코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무자비한 시가 아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의로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하며 선으로써 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롬 12:21).

제 146 편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단락구분 1-2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 3-4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 5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 6-9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 10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 3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 4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 5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 6 여호와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

- 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 7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 8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 9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데도
 - 10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 ㉠ 본시의 내용상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시는 운율적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즉 네 절로 된 짧은 음절로 시작하여 (1-4절), 다음에 여섯 절의 좀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5-10절).
- (2) 시인은 본시를 통하여 참된 도움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언급하였다.
- (3) 한편 본시의 저자에 대해 히브리 원본과 갈대아 역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70인역(LXX)과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는 학개와 스가라의 시라고 명명되었다. 만약에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본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그래서 혹자는 고레스가 유다 백성의 원수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명령을 철회할 당시를(스 4:1-24) 본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간주한다(Dr. Adam Clarke).

2. ㉡ 할렐루야란 무슨 뜻인가? (1절)

- ㉡ (1) '할렐루야'는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랄>에서 온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을 지녔다.
- (2) '할렐루야'는 존경, 경외, 겸손을 나타내는 인간의 가장 고상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최고의 찬양의 환호이다.
- (3) 그런 까닭에 '할렐루야'라는 말은 전적으로 찬양의 노래에만 국한되어 있다. 구약에서는 단지 시편에만 15곳에 언급되어 있으며(아래 도표를 참조하라)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 있다.

할렐루야가 처음에만 있는 시	111, 112편
할렐루야가 처음과 끝에 다 있는 시	106, 113, 135, 146, 147, 148, 149, 150편
할렐루야가 끝에만 있는 시	104, 105, 115, 116, 117편

(4) 그러므로 146편부터 150편까지 다섯 개의 시를 가리켜 '할렐루야 시'라고 부른다.

3. **㉠** 시인은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절)

㉠ (1)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표현하였다.

(2) 즉 시인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자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것을 명령했다.

(3) 이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송이 일시적인 번덕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애정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4).

4. **㉠**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송을 언제까지 하기로 하였는가? (2절)

㉠ (1) 시인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나의 생전에'라는 말은 '내가 사는 동안' 또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시인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두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자신의 기분과 환경에 의해서 결코 중단되거나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그 찬송이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참조, 71:6; 72:15; 행 16:25).

5. **㉠** 사람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닌 까닭은 무엇인가? (3, 4절)

㉠ (1) 시인이 방백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도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들의 도모(圖謀)가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즉 시인은 권세를 가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본래 지음 받은 흠으로 되돌아가(창 2:7, 19) 그들이 세운 모든 계획과 구상이 끝나 버린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

(3) 이같이 시인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노래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사 30:2; 36:6)과 앗수르(왕하 16:7)를 의지한 결과로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며 또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즈음에는 스룹바벨이나 또 다른 방백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통하여 인간은 반드시 흠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전 3:20)과 인간의 권력이나 명예도 죽음과 더불어 끝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눅 12:16-21).

6. **㉠** 시인은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노래하였는가? (5절)

㉠ (1)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였다.

(2)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을 주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갖는다. '야곱의 하나님'은 시편 후반부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현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의 대신하고 있다(참조, 76:6; 81:1, 4; 84:8; 94:7; 114:7; 132:2, 5).

(3) 이와 같이 시인은 백성들에게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힐책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전적으로 참된 축복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참된 보호자요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피난처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144:1-4).

7. **㉠**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어떻게 노래하였는가? (6절)

㉠ (1) 시인은 '여호와와 천지와 바다와 그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라고 노래하였다.

(2) 이 노래 속에서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주의 창조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실 권리가 있으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3) 한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창 1:1; 요 1:1-4).

(4)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사고 범위 안에 국한시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연합함을 도와 주시지 않겠는가!
 !(창 1:28)

(5) 그러므로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큰 확신과 힘을 얻을 수 있다(18:1-6).

8. **㉠**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소망을 두고 도움을 삼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7-9절)

㉠ (1)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분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받을 축복은 다음과 같다.

현 상태	축 복	참조 귀절
압박당하는 자	공의로 판단하심	신 26:7
주린 자	식물을 주심	마 5:6
갈진 자	해방하심	사 61:1
소경	눈을 여심	마 11:5
비굴한 자	일으키심	41:10
의인	사랑하심	5:12
객	보호하심	신 10:18
고아와 과부	불드심	68:5
악인의 길	급게 하심	1:6

9. **㉠** 하나님께서는 압박당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7절)

㉠ (1) 하나님께서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신다(103:6).

(2) 여기에서 '공의'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취파트>는 '곧바름', '심판' 이란 뜻이 있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압박하는 강포한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의를 위하여 핍박과 욕을 당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참조, 마 5:10).

(4) 한편 의인을 핍박하는 강포한 자들이란 궁극적으로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계 12:9; 19:19-21; 20:3).

(5)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말없이 지켜 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31:23; 삼하 3:39; 잠 10:24) 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만큼 하늘에서 받을 상급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할 것이다(마 5:11, 12).

10. **㉠**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해방하신다고 하였는가? (7절)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라고 하였다.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혔던 요셉(창 41:14), 예레미야(렘 37:16, 17), 다니엘(단 6:23), 베드로(행 12:7-10), 바울과 실라(행 16:19-40) 등 개인을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출 1:8-14)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왕하 25:1-21; 대하 36:5-21)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도 하셨다.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사 61:1-3; 눅 4:18; 요 8:32; 갈 5:1).

(4)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아직까지 죄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행 16:25; 고전 9:14-27).

11. Ⓢ 시인은 하나님께서 소경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는가? (8절)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라고 노래하였다.

(2)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소경이란 지극히 두려운 재난으로 여겨졌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창 19:11; 신 28:28, 29),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삿 16:20, 21; 왕하 25:7), 또는 조상들의 죄(마 9:2)로 인한 그 대가라고 간주되었다.

(3) 한편 이 ‘소경’은 육체적인 소경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아람 왕이 파견한 군대에 의해 성이 포위당했을 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자를 가리킨다(왕하 6:14-17).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소경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을 선포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5)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의 유일한 근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얽매여 있는 모든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영육간의 참다운 삶(구원)으로 이끄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사 42:7, 16; 61:1).

(6)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질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며 그로 인해 영적인 소경 상태에서부터 생명의 빛으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다른 영적 소경들을 빛으로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참조, 마 15:14).

12.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8절)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라고 노래하였다.

(2) 이 노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하게 하시며(92:12)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잠 15:29)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마 13:42, 43)을 약속하셨다.

(3) 한편 본절에서 ‘의인’이란 앞에서 언급한 ‘압박당하는 자’, ‘주린 자’, ‘갇힌 자’(7절), ‘소경’, ‘비굴한 자’(8절) 등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이처럼 불안과 공포와 고통으로 신음하며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까닭은 그들이 자신의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13. Ⓢ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불드신다고 하였는가? (9절)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드시고’라고 노래하였다.

- (2)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외된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 줄 부모나 남편이 있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잔인한 약탈자에 의해 압박을 받고 태만과 부정을 일삼는 파렴치한 재판관에 의해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 (3)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 해롭게 하지 말며(출 22:22, 23)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신 24:17, 18; 27:19) 토색하지 말며(사 10:2) 그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며(잠 23:10) 압제하지 말도록(렘 22:3; 스 7:10; 말 3:5) 명령하셨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잠 23:10, 11) 심판하시며(말 3:5) 그들의 아내는 과부,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며(출 22:24) 저주(신 27:19)와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출 22:24).
- (5) 이와 같이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10:14; 68:5) 더욱 큰 힘을 내어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그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고(약 1:27) 참과부를 경대(敬待)해야 한다(딤후 5:3).

14. **㉠**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는가? (9절)

㉠ (1)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신다고 말하였다.

- (2) 여기에서 '길'이란 인생 경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굽게 하시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와트>는 '휘게 하다', '뒤틀어지게 하다', '비뚤어지게 하다'란 뜻을 지녔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행위와 생각과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삶의 수단들을 미워하시고(11:5; 잠 15:26) 의롭다 하지 않으시며 저주하신다. 그로 인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1:4) 그들의 길은 패망하게 된다(1:5, 6; 잠 21:12).
- (4) 그 이유는 악인들이 어둠의 길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멸시하고 의인의 재앙을 원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의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잠 4:19; 15:8, 29; 21:7, 10; 사 48:22).
- (5)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위험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라도 실수로 악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는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참조, 렘 21:8).

본장의 요절



'여호와와 천지와 바다와 그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6절).

제 147 편 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단락구분 1-3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 4-5 지혜의 하나님 / 6 겸손한 자를 불드시는 하나님 / 7-9 공급하시는 하나님 / 10-1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 12-20 이스라엘을 위해 배려(配慮)하시는 하나님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3 삼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불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8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울 것을 주시는도다
 10 여호와의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11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2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3 저가 네 문지방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14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탈리시며
 15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17 우박을 떡 부스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18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 ㉠ 본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미시이다. 본시는 전체가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은 찬양하라는 명령과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기술되어 있다.
 (2) 즉 첫 연(1-6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둘째 연(7-11절)에서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리고 세째 연(12-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고 그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을 찬양의 이유로 열거하였다.
 (3)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택한 백성들을 소중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실족했을 때 다시 일으키시며 흩어졌을 때 다시 모으시는 분이심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참조, 호 14:4-8; 미 7:18, 19).

2. ㉠ 시인은 찬양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선행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하다고 표현하였다.
 (2) 여기에서 '찬양'이란 단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참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을 의미한다(엡 5:19; 골 3:16).
 (3) 따라서 이러한 찬양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며 사랑하실 것임이 틀림없다.

(4) 우리는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진정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서도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2절)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라고 표현하였다.

(2)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 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는 9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B. C. 538-445). 맨 먼저 성전이 세워졌고(B. C. 538-515), 다음에 성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곽과 성문이 세워졌다(B. C. 445).

(3) 그리고 포로된 자들도 일부는 스룹바벨 시대에(B. C. 538), 그 다음은 에스라 시대에(B. C. 457), 느헤미야 시대에(B. C. 445, 434) 각각 팔레스티ном으로 다시 돌아왔다. 따라서 본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그런데 시인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라 등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웠다고 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건축하도록 지켜 주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4. ㉠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가? (3절)

㉠ (1)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 당신의 공의로 진노하시며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시지만 깨닫고 돌아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사 12:1; 51:3).

(3) 그 이유를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영과 혼이 너무 곤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다(사 57:15).

(4) 한편 인간의 고통에는 영의 고통, 육체의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료는 영과 육을 다 고치시는 완전한 치료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위로하신다(고후 1:3, 4).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5. ㉠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4절)

㉠ (1) 시인은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2)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셀 수 없이 많고 대부분의 별들을 육안으로 거의 구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수효와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그 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3) 이것은 또한 별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배를 증명해 준다. 이처럼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참조, 마 10:30).

6. ㉠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가? (6절)

㉠ (1) 시인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라고 노래하였다.

(2) 여기에서 '겸손한 자'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임>은 '고난당하는 자' 를 의미하기도 하며 자신의 유한성과 무용성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가리킨다(왕상 3:6-14; 사 6:1-8; 눅 15:17-21; 18:13, 14).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잠 22:4).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신다(참조, 146편 ㉠ 14).

(4)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앙망하여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악한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눅 14:10; 22:26; 롬 12:3; 약 4:10).

7. **㉠ 시인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하였는가? (7절)**

- ㉠** (1) 시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케토다>는 '감사하는 심정으로' 라는 뜻으로서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상태를 가리킨다.
- (3) 이같이 시인은 믿음과 소망의 인내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 (4) 이와 같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보답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 찬송의 최고봉이며 감사 그 자체가 축복이라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찬송이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실로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축복의 정상이다(참조, 골 3:16).

8. **㉠ 시인은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찬송하였는가? (8,9절)**

- ㉠** (1) 시인은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줄 것을 주시는데다' 라고 노래하였다.
- (2) 이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의 모든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저절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고 있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보잘것없는 들짐승을 먹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 가운데서도 부정한 새로 여겨지며 가장 천대받는 새인 까마귀(참조, 레 11:15; 신 14:14)의 새끼조차도 먹줄 것을 공급해 주신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러므로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먹여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마 6:25-34).

9. **㉠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신다.
- (2) 여기에서 '말의 힘'이란 전쟁에 사용하는 군마(軍馬)의 힘을 의미하며 '사람의 다리'는 적진을 향해서 민첩하게 돌격하는 군사들의 힘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시인이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군마나 병사들의 강성함을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교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인재를 아끼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미 5:10, 11).

10.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신뢰로 당신을 존경하며 섬기는 자들과 당신의 자비하심 안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그들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25:12)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31:19; 눅 1:50)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행 10:35)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 하심을 소망하여야 한다 (참조, 미 6:8).

11. **㉠** 시인이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12-14절)

- ㉠** (1) 시인은 그 이유를 '제가 네 문빔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境內)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표현했다.
- (2) 본절에서 '예루살렘', '시온'이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 문빔장을 견고히 하시고'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들로부터 완벽하게 수호하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성문의 견고함은 그 성문의 빔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3) 또한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완성케 하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산발랏, 도비아, 게셈 등과 같이 예루살렘 건축을 방해한 무리들로부터 당한 고통(느 2:19)에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밭'이란 '기름진 밭'을 의미하며 느헤미야 당시의 경제적 부흥을 나타낸다(느 10:28-39; 12:44-47; 13:12-15).
- (4)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시인은 비록 회복된 이스라엘이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화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였다.
- (5) 따라서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며(애 3:38) 징계를 참아 낸 성도들에게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로써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12. **㉠** '그 명(命)을 땅에 보내시니'란 무슨 뜻인가? (15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가리킨다(참조, 욕 38:22).
- (2) 시인이 이 말을 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함이 없이는 발생하거나 움직일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 (3) 계속해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달리도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만물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음을 나타낸다.
- (4)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은 태초에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섭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참조, 16-18절).

1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19절)

- ㉠** (1) 시인은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라고 노래하였다.
- (2)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게 했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드러내 보이셨다.
- (3)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빠져 들지 않게 하며 오직 진실되고 합당한 당신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점이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간의 차이점이다(20절).
- (4) 한편 본절에서 '이스라엘'이란 영적 의미로 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가리킨다(롬 9:6-8; 갈 3:29; 6:12-16).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외와 순종으로 받아들이며 애정을 가지고 굳게 포용해야만 한다(참조, 119:97, 103, 140; 랍 15:16; 벰전 2:2).

제 148 편 전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단락구분 1-6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 7-10 지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 11-13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 14 성도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1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2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3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지어다
4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5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라
6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7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9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10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11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12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 다 여호와와 이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라
14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1. ㉠ 본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시의 주제는 '창조에 대한 기쁨의 노래'로서 시인은 하나님을 전우주의 주인으로 묘사하였다.
(2) 즉 시인은 먼저 천사, 해, 달, 별들, 구름 등과 같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주장한 후 곧이어 보잘것없는 짐승들과 듣지 못하는 것들에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선포를 확산하였다.
(3)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할 사자로서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환희의 합창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였다.
(4) 한편 본시는 운율적으로 불 때 각각 6절씩(1-6, 7-12절)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음절의 시로서 나머지 13, 14절은 그 뒤를 따라 시 전체에 대한 동기를 나타내고 있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지만 그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가장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11-14절).

2. ㉠ 시인은 먼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하였다.
(2) 여기에서 '하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솨마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불췌 날 만드신 '궁창'을 가리키며 '높은 데'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창 1:6-8).
(3) 따라서 시인이 '하늘에서'라고 한 표현에는 천사를 위시하여 해와 달, 별들이 다 포함되며 또한 찬양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천이 하늘임을 보여 준다.

3. ㉠ '사자' (使者) 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A** (1) '사자'는 천사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지(벧전 1:12), 정(눅 2:13), 의(유 1:6)를 갖춘 존재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신성한 상태로 창조하셨다(148:5; 욥 38:6, 7; 골 1:16).
- (2) 천사의 특성은 ① 영적 존재(히 1:14) ② 종족 번식의 능력이 없다(막 12:25) ③ 죽지 않는다(눅 20:36) ④ 인간과 다르다(8:4, 5) ⑤ 큰 힘을 지녔다(벧후 2:11).
- (3) 또한 천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다니엘은 '수중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단 7:10)라고 표현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천만 천사'(히 12:22)라고 기록하였다. 그런 까닭에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천사들을 가리켜서 '모든 군대여'라고 묘사하였다.
- (4) 한편 천사란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약 275회나 등장하는데 천사들 나름대로 계급과 질서 등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종 류	하 는 일	참 조 구 절
미 가 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장	단 10:13, 21; 12:1; 유 1:9; 계 12:7; 살전 4:16
가 브 리 엘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으로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칠십이레에 관하여 설명하며 사가라에게 요한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수태를 알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	단 8:1-26; 9:21; 눅 1:11-19, 26-33
스 략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임무를 지닌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	사 6:1, 2, 6
그 룹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위엄을 이행하고 나타냄	창 3:22-24; 삼하 22:11; 켈 1:9, 12; 10:9-16
기 타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엡 1:21; 3:10; 벧전 3:22). 범죄한 천사들(벧후 2:4; 유 6)	

4. **C** 천사의 사역에 관해서 설명하라(2절).

- A** (1) 천사의 사역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성도를 위한 사역,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사역 그리고 특별한 시기의 사역 등이 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라.

(2)

사역의 종류	구 체 적 사 례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수태를 알림(마 1:20, 21),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눅 2:10-12), 광야의 시험 후에 예수께 수종 들(마 4:11),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림(마 28:5-7), 예수님의 승천시 동행함(행 1:9-11).
성도를 위한 사역	성도를 섬김(히 1:14), 성도를 지킴(34:7; 91:11), 어린이를 보호함(마 18:10), 인도함(창 24:7, 40), 음식을 공급하기도 함(왕상 19:5-8), 활동의 방향을 지시함(행 8:26; 27:23, 24), 위기에서 구출함(단 6:22; 행 12:7-10), 계시를 전달함(단 8:16-27; 9:21-27).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의 사역	파멸시킴(창 19:13), 은역을 퍼뜨림(삼하 24:15-27),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영원히 불에 던짐(마 13:41, 42), 개인의 생명을 거두어 감(행 12:23).
특별한 시기의 사역	창조(욥 38:7), 시내 산 사건(행 7:38, 53), 무저갱에 사단을 가둠(제 20:1-3), 그리스도의 재림(마 13:41, 42, 49; 살전 4:16).

5. **㉠ 시인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3, 4절)**

- ㉠** (1) 시인은 해, 달, 광명한 별들, 하늘의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였다.
- (2) 여기에서 ‘하늘의 하늘’이란 천구(天球), 즉 하늘 전역을 가리키며(참조, 68:33; 신 10:14; 왕상 8:27) ‘하늘 위에 물들’은 하늘에 걸린 ‘구름’을 가리킨다(참조, 창 1:7).
- (3)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영영히 세워졌기 때문이다(참조, ㉠6).
- (4)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지만 성도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며 성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가 그것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사 44:23).

6. **㉠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6절)**

- ㉠** (1) 시인은 그 이유를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다’라고 기술하였다.
- (2) 이처럼 시인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 구름 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결코 그러한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 (3) 뿐만 아니라 시인은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다고 했다. 즉 이 말은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용하여서 각자 자신의 위치와 운행로가 정해져 있음을 나타낸다.
- (4) 한편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능력의 원인이 되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하셨다(요 1:14).
- (5) 그러므로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숨씨를 찬양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야 한다(창 1:31; 전 3:11; 행 17:24).

7. **㉠ 시인이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구한 대상은 무엇인가? (7절)**

- ㉠** (1) 시인은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표현은 1절의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라는 시귀의 대귀(對句)가 되며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합세해야 됨을 보여 준다.
- (3) 한편 본절에서 ‘용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탄니님>은 ‘바다 괴물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테호모트>가 ‘심연’, ‘깊은 곳’ 또는 ‘지극히 깊은 대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들’이란 고래와 같은 바다 짐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8. **㉠ 시인이 두번째 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한 대상은 무엇인가? (7-12절)**

- ㉠** (1) 시인은 두 가지의 커다란 창조물, 즉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였다.
- (2) 여기에서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이란 용들,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그 말씀을 쫓는 광풍, 산들, 모든 작은 산, 과목(果木),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방백, 땅에 모든 사사, 청년 남자, 처녀, 노인, 아이들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생명이 있건 없건, 이성을 가졌건 안 가졌건간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요구받고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

9. ㉠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 (1) 이 말은 하늘에 구름이 덮히고 그 구름으로부터 단 한 방울의 물일지언정 빗방울이 떨어진다든가 천둥, 번개가 무섭게 노호하는 것 등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 (2)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광풍조차도 (요 3:8)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함을 의미한다.
- (3)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 내시기 위해 우박을 애굽 백성과 그들의 소유에만 내리셨던 사건 (출 9:22)이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바다를 항해하셨을 때 제자들을 두려워 떨게 했던 큰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던 사건 (막 4:39)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는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 19:1, 2).

10. ㉠ 시인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는가? (11-13절)

- ㉠ (1) 시인은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였다.
- (2) 즉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한 대상은 전인류, 곧 모든 계급에 속한 자들과 각 성(性)에 속한 자들 그리고 각 세대에 속한 모든 자들이었다.
- (3)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각자의 노력과 신분, 성(性), 나이 등에 따라 통치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할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인간의 신분이나, 연령, 성 등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참조, 135:1, 2).

11. ㉠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란 무슨 뜻인가? (14절)

- ㉠ (1) 여기에서 '뿔'이란 '힘'을 상징한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풍요와 권세를 높이셨음을 의미한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셨음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으로 더한층 당신께서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하셨다 (147:2, 3).
- (3) 그러므로 시인은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였다.
- (4) 오늘날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하여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基業), 곧 하늘나라를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벧전 1:3, 4). 그러므로 찬양에 대한 시인의 요구는 바로 오늘날 성도에게도 적용된다.

본장의 요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1절).

제 149 편 시온의 백성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단락구분 1-3 이스라엘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 4-6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 7-9 열방에 보수(報響)하시리이다

1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2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3 춤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이다

5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6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7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 저희 왕들은 사술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1. ㉠ 본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시는 '할렐루야 시'로서 전시(148편)가 창조자에 대한 찬양의 노래라면 본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에 대한 찬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 (2) 즉 시인은 하나님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승리(1-5절)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미래에 대적들에게 임할 심판(6-9절)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을 가리킨다.
- (3) 한편 본시의 저작 연대에 관해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지배적이다. 첫째는 본시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던 당시의 작품이라는 견해이고, 둘째는 본시에 나타난 용어, 즉 '성도의 회중'(1절), '존영'(6절), '철고랑'(8절) 등의 말들이 외경 마카비서(書)와 일치하기 때문에 본시가 마카비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견해이다.
- (4) 어쨌든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 오직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의 은총을 느낄 수 있다(4절).

2. ㉠ 시인이 어떤 노래로 찬양할 것을 명령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새 노래'란 구원(4절)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서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는 구별이 된다(참조, 144편 ㉠9).
- (3) 그런데 시인이 체험한 구원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메테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팔레스틴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한 사건(스1:1, 2)이며, 둘째는 제우스 제단을 만들어 이방 축제에 참가하게 하고 안식일, 할례, 음식에 대한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책을 소유한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시리아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Antiochus, B. C. 175-164)의 학정에 대해 B. C. 165년 유대가 반란을 일으켜 성전을 회복하여 옛날 영광을 복구시킨 사건이다.
- (4) 한편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다(고후5:17).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시인의 요구처럼 마

땅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돌려야 한다 (참조, 144:9; 사 42:10).

3. **㉠**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게 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시인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子民)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이다' 라고 노래하였다.
- (2)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당신의 백성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 (3) 본절에서 '저희의 왕'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통치자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인도, 사랑 등이 암시되어 있다.
- (4) 한편 '저희의 왕'이란 공의로우시고(사 11:3-5; 렘 23:5) 겸손하시며(마 21:5) 구원을 베푸시는(신 33:29)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한다(슌 9:29)
- (5)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 주시고 당신의 천국 시민으로서 의의 길로 인도 보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위로써 삶 가운데 즐거워해야 한다(2,3절).

4. **㉠**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기뻐하시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 <라차>에는 '값없는 은총'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기쁨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겸손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빔>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 '불쌍한 자'를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최근에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자비를 베푸셨지만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겸손한 백성들에게는 그 자비의 손길을 더욱 펼쳐서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유지시키시며 지극히 높이고 아름답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 (4)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해같이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사 57:15; 마 18:4; 눅 14:10; 약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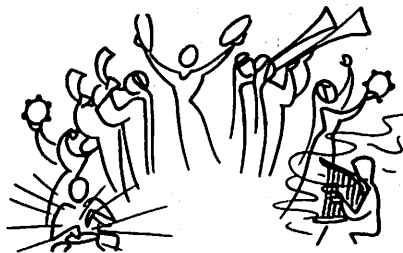
5. **㉠**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였는가? (5절)

- ㉠** (1) 시인은 성도들에게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을 요구하였다.
- (2) 여기에서 시인이 '성도들에게 영광 중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고 풍성한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된 사건이 오직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임을 암시한다.
- (3) 따라서 시인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긴긴 밤을 울음으로 지새고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참회했던 백성들에게(참조, 6:6; 77:2-6)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 휴식을 취할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요구하였다.
- (4) 한편 시인이 '침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도록 가르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은 휴식의 공간인 침상에서조차도 불의를 계획하고 연약한 자들은 착취할 궁리를 하는 악인들의 삶(미 2:1)과는 달리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미하여야 한다(참조, 행 16:25).

6. **Q** 이스라엘의 구속받은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열방에게 보수(報讐)할 것인가? (6절)
- A** (1) 그들은 자신들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존영(尊榮)과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두 날 가진 칼로써 열방에 보수할 것이다.
- (2) 즉 시인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찬송을 부르며 양면에 날을 세운 칼로 무장하게 될 것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원수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전날 그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던 모든 왕들과 열방들을 굴복시키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 (3)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 날 성도들이 말씀에 의한 권위를 갖고 세상 열방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을 가리킨다(참조, 계 20:4).
- (4) 한편 본절에서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란 사단의 불의와 그 계계를 깨뜨리며 세상에 속한 자들의 악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히 4:12).
7. **Q**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열방에 대해 어떻게 행하라고 촉구하였는가? (7-9절)
- A** (1) 시인은 하나님의 존영과 칼을 가지고 열방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여 기록한 판단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 (2) 여기에서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여'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포로된 왕들이 끌려갈 때의 모습을 나타낸다.
- (3) 예를 들면 앗수르와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는 항상 족쇄를 채웠다. 이러한 모습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갔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왕하 25:7).
- (4)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된 이후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열방들을 보수하고 이방 민족들을 벌했던 예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영적인 이스라엘, 즉 성도들이 세상 열방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을 가리킨다(참조, 계 20:4).
- (5) 한편 시인은 성도들이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성도들의 복수가 결코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린 보복의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따른 공의의 행동이 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본장의 요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지어다'
(3절).



제 150 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단락구분 1 성소와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 2 여호와와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이다 / 3-5 모든 악기로 찬양할지이다 / 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이다

2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이다

3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이다

4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이다

5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이다

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할렐루야

1. ㉠ 본시의 내용상 특징을 설명하라.

- ㉠ (1) 본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로서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 (2) 시인은 본시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무려 11회나 사용하면서 ① 어디서 주를 찬양할 것인가(1절) ② 왜 주를 찬양할 것인가(2절) ③ 어떻게 주를 찬양할 것인가(3-5절) ④ 누가 주를 찬양할 것인가(6절) 를 밝히고 있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임무가 주어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3-6절).

2. ㉡ 시인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는가? (1절)

- ㉡ (1) 시인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이다' 라고 노래하였다.
- (2) 여기에서 '그 성소'란 단순히 '장막',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행사되는 곳, 즉 온 세상을 가리킨다. 또한 '권능의 궁창'이란 일반적으로 천국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성소'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되는 곳을 가리킨다(참조, 요 4:21-24).
- (3) 그러므로 시인의 의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발휘되는 곳, 즉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성도는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참조, 6절).

3. ㉢ '그의 능하신 행동'이란 무엇인가? (2절)

- ㉢ (1) '그의 능하신 행동'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섭리로 운영하시며,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라 애굽과 바벨론 등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 등을 가리킨다(참조, 136:2-24).
- (2) 이처럼 시인은 이 세상과 그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요구하였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139:13-16)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다(참조, 사 43:21; 엡 5:19, 20).

4. **㉠ 시인은 무엇을 좇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였는가? (2절)**

㉠ (1) 시인은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이다' 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지극히 광대하심'이란 '그 위대하심의 풍성함', '지극히 위대하심'이란 뜻이다. 즉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섭리대로 운영하시며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3)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대하고 두려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단순한 형체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자.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며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관자로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찬송을 할 수 없다(참조, 엡 5:19, 20).

5. **㉠ 시인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였는가? (3-5절)**

㉠ (1) 시인은 나팔 소리,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 통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다.

(2) 시인이 언급한 악기들을 대별하면 첫째, 비파, 수금, 현악 등의 현악기, 둘째, 소고, 제금 등의 타악기, 셋째, 나팔, 통소 등의 관악기로 분류할 수 있다.

(3) 한편 여기에서 '나팔'은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연주될 수 있었고(수 6:4; 대하 15:14), '비파', '수금', '소고'는 특히 레위인들이 사용하였던 악기들이다(대상 15:16; 대하 29:25; 느 12:27). 그 외의 악기들은 대체로 세속적인 일로 사용되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시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찬양은 악기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통하여 표현되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6. **㉠ 나팔에 관하여 설명하라 (3절).**

㉠ (1) 본절에서 '나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쇼파르>는 야생 염소나 영양의 뿔로 만들어진 뿔나팔을 가리킨다(참조, 수 6:4, 6, 8, 13).

(2) 이 <쇼파르>는 첫 배음(倍音) 2개만을, 그것도 단지 근사(近似)하게 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연주용 악기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신호용 악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래서 백성들은 <쇼파르>로써 전쟁시나 평화시에 모든 신호를 했으며, 초승달이 뜰 때나 안식일의 시작, 귀족의 사망 등을 알렸다. 또한 <쇼파르>는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거나 파문(破門)을 알릴 때, 귀신을 쫓아내거나 주술적인 치료를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4) 그런데 <쇼파르>가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되는 경우는 언약궤를 운반하거나(삼하 6:5),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행진시(대상 15:28; 대하 15:14)와 같이 의식상 필요할 때, 특별히 경건이 요구되는 의식일 경우 함께 사용되었다. 따라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순수한 목적으로써 쇼파르가 다른 악기들과 함께 사용된 것은 본시뿐이라 할 수 있다.

7. **㉠ 비파는 어떤 악기인가? (3절)**

㉠ (1) 비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네벨>은 전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지닌 악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인접 국가들에서 발견된 악기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 하프는 이집트인들이 애호하는 악기였으며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잘 알려져 있

던 악기이다. 이 하프와 네벨을 동일시한다면, 네벨은 10-20개의 현이 있고 높이가 3m 가량이나 되는, 대체로 채가 없이 연주하는 현악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

- (3) 네벨은 수금과 마찬가지로 귀족 악기였기 때문에 주로 진귀한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졌다(참조, 왕상 10:12; 대하 9:11).
- (4) 한편 네벨은 성경의 세 군데(사 5:12; 14:11; 암 5:23)에서만 순수하게 세속적인 악기로 등장된 반면 대체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행사에 사용되었다. 또한 네벨은 전형적인 남성 악기로서 수금과 소파라와 함께 레위인들의 오케스트라에 포함되는 악기였다.

㉠ 수금이란 어떤 종류의 악기인가? (3점)

- ㉠ (1) 수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키누르>는 레위인들이 사용하는 악기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장 애용했던 악기이기도 했다.
- (2) 수금은 현악기로서 현이 가장 적은 경우가 세 줄이고 가장 많은 경우가 열두 줄이었다. 이것은 우주론적 상징과 기타의 상징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한다.
- (3) 한편 수금은 그 당시에 가장 고상한 악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로 귀족들이 소유하였으며 종종 위대한 장인들의 기술에 의해 조각된 은이나 상아 또는 금으로 만들어졌다.
- (4) 또한 수금은 성스러운 장소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경우에도 사용되었다(참조, 사 23:16). 성전에서는 일반적으로 9개 이상의 수금이 사용되었으나 그 수효는 즉흥적으로 증가될 수 있었다.

㉡ 소고는 어떤 종류의 악기인가? (4점)

- ㉠ (1) 소고(小鼓)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악기<토프>는 구약 성경에서 7회에 걸쳐 등장한다. 이것은 토프가 대중적인 악기였음을 보여 준다.
- (2) 또한<토프>는 출 15:20에서 보듯이 여인들이 춤을 출 때에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토프>가 전형적인 여성 악기였음을 보여 춤과 동시에 보통 손으로 칠수 있는 작은 북이나 탬버린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 (3) 한편 <토프>가 비록 시편이나 찬송가에서 언급되고 있지만(출 15:20; 렘 31:4) 성전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단지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경사, 제의적 춤, 행진 등에 한정되었다(68:25; 삼하 6:5; 대상 13:8). 그것은 아마도 <토프>가 여성적 의미를 강하게 상징하는 악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10. ㉢ 뿃소에 관해서 설명하라 (4점).

- ㉠ (1) 뿃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우갑>은 ‘열렬히 사랑하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아가브>에서 파생된 말로 높고 날카롭게 소리가 나는 피리 혹은 플루트를 가리킨다.
- (2) <우갑>은 미칠 것같은 슬픔이나 격한 기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환락적 악기로서 성전 합주단의 명단에 들지는 않았다.
- (3) 구약 성경에는<우갑>이 총 4회 언급되고 있는데(150:4; 창 4:21; 욥 21:12; 30:31) 단지 본절에서만 종교적인(그러나 제의적인 것은 아닌) 기능을 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11. ㉣ 제금(提琴)은 어떤 악기인가? (5점)

- ㉠ (1) 본절에서 제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악기 <첼출림>은 타악기의 한 종류로서 심벌즈를 가리킨다.
- (2) 한편 본절에서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이라는 표현은 <첼출림>의 크기와 용도의 차이점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별을 의도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 (3) 그래서 혹자는 그것을 수직적으로 잡느냐 수평적으로 잡느냐에 따라 또는 그 모양에 따라 <첼출림>의 소리가 구별된다고 보았다(C. Sachs).

12. ㉤ 시인은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요구하였는가? (6점)

- Ⓐ (1)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구하였다.
- (2) 여기에서 '호흡이 있는 자'란 '숨을 쉬는 모든 것', 즉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킨다(참조, 계 5:13).
- (3) 이것은 결국 천지 만물과 모든 인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의미한다.
- (4) 한편 본절은 시편의 마지막 절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의 모든 시들을 압축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한 주제 귀절이라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

연구자료

소고(小鼓)치는 사람. 아래 사진의 인물은 아프리카 콩고의 카톨릭 수사(修士)로서 북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85-087 콩고의 두담당 울타 소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부터 여호와를 찬양하거나 부족적, 국가적인 경사를 맞이하여 축제를 벌일 때 북을 사용하였다(참조, 출 15:20; 사 11:34). 이 같은 북은 시를 읊으며 여호와를 찬양할 경우에도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81:2).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년 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 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 「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불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 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 「QA 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 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지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⑥ 시편

1999년 4월 10일 인쇄

1999년 4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